

속기사 자격 취득을 위한 지침서!!

동방속기

응용편

Since 1948 이동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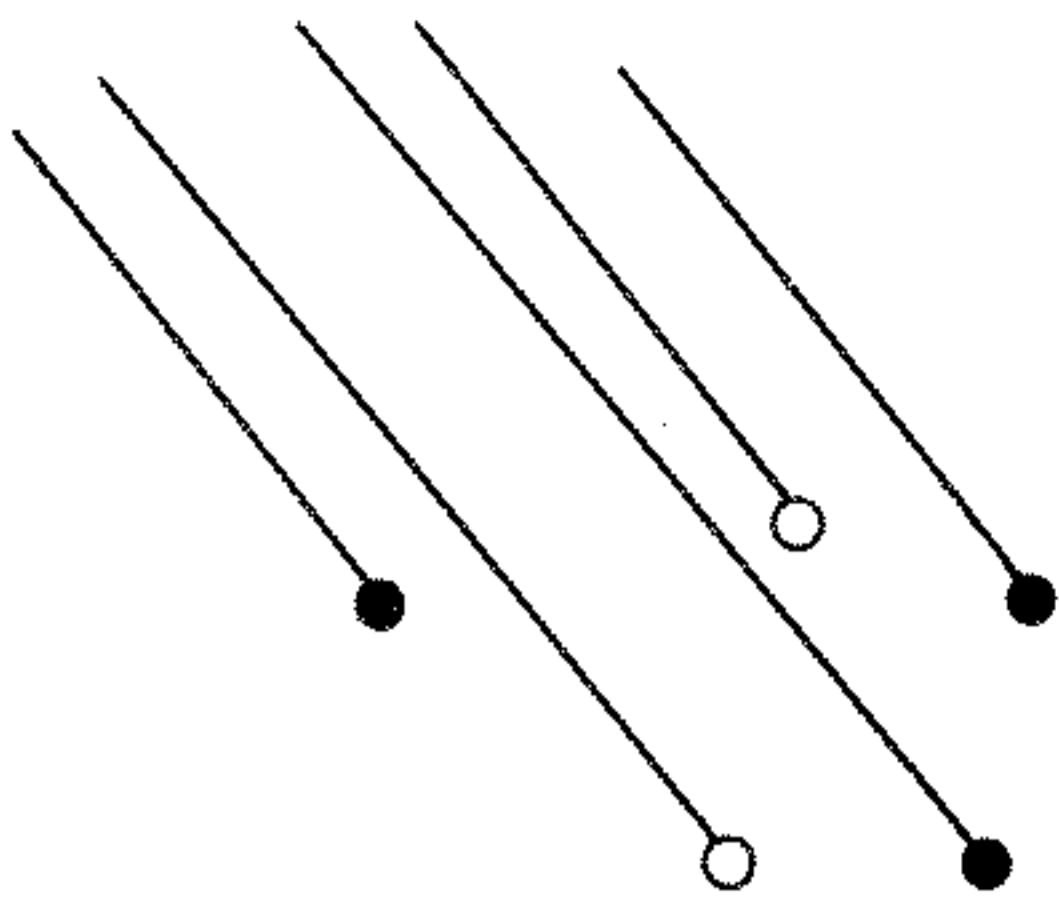
동방속기학회 저



- 응용력을 기를 수 있도록 많은 예제와 실무해석 수록!!
 - 국가자격시험에 필요한 예문과 채점 기준 최소 수록!!
 - 정확하게 기록하고 읽을 수 있도록 내용을 대폭 보강하여 최신의 약기와 약자 수록!!
- 부록** ▶ 국가기술 자격검정 서비스계 시험기준(속기)
▶ 속기사 자격시험 안내 및 해설



첨단 기술서적 전문출판
크라운출판사
기술서적 사업부



머리말

읽어보자!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재주를 가지고 있는 모양이다.

나는 교수라는 직업을 가지면서부터 말과 글을 써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재주를 한꺼번에 갖지 못해서 늘 걱정이었다. 강의는 명강의(?)임에 틀림없는데 글로 옮기려 하면 앞뒤가 잘 맞지 않는다.

늘 나의 생각만큼, 강의만큼 자유롭게 글로 옮겨지면 좋은 논문을 많이 낼 수 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속기하는 분을 만나게 되어 나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였더니 쾌히 승낙하여 주었다. 나는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중얼중얼 읊조리고 나면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벌써 글로 옮기고 「그 다음은...?」하고 묻곤 하였다. 얼마후 나의 사상과 철학이 담긴 내 말은 깨끗이 정서가 되어 한 편의 글로 나에게 전달되었다.

속기는 정말 배워들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다. 속기사의 능력을 빌린다면 또는 직접 배워 활용할 수 있다면 자신의 사상을 수월하게 글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 위 글은 고려대학교 사회교육학과 정우현 교수(전 고대 도서관장)의 말씀을 속기하여 글로 다듬은 것입니다. 정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속기를 배우는 목적은 무엇일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속기를 배우는 것인가?

이것은 속기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그것은 첫째 속기술을 훌륭히 구사하기 위해서이다. 취업이든 취미이든...

더 나아가서는 자격증까지 취득하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속기사로서 진출하는 것이다.

이 여러 가지를 원한다면 속기법을 잘 선택해야 한다.

훌륭한 속기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선구자가 아닌 바에는 충분히 증명된 속기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일 것이다. 현재 양성기관을 통해서 가르쳐지고 있는 속

기법 중 우리나라 속기사의 집결체인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국회사무처내)에 가입등록된 속기법식은 동방법식, 고려법식, 의회법식, 일과법식 정도이며 이들 법식에서는 현직의 국회속기사는 물론 많은 현직 속기사들이 활동하고 있어 권장할만한 속기법이라 할 수 있다. 가까운 일본의 예를 보아도 40여개의 속기법이 발표되고 있지만 협회에서 추천받고 있는 법식(속기사 자격증과 현직 속기사를 배출한 실적이 있는)은 겨우 7~8개의 법식에 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밝혀둔다.

그러면 본 교재를 통해서 어떻게 학습을 할 것인가?

1. 동방속기는 1948년부터 현재까지 학원을 통해서 속기사를 양성해 오고 있는 정통속기로서 언제든지 본 교재의 앞에 있는 학원과 저자에게 전화를 통해서 의문점을 해소하라.
2. 매일 기본문자를 연습한 후 진도를 나간다.
3. 1일 학습분량은 실전연습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4. 응용연습이 많을 때는 응용에 치중한다.
5. 문장연습을 할 때 명심할 것은 용지를 세로로 2등분하여 나누어 쓸 것과 문장이 종결되면 즉시 줄을 바꾸어 쓰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본 교재에서는 지면관계상 그러지 아니하였음).
6. 속기학습의 요체는 노트에 연필로 직접 쓰면서 그 촉감과 감각을 익히는 것이지 눈과 머리만으로는 절대 이를 수 없다. 연습을 게을리하면서 좋은 속기를 하기란 망상에 불과할뿐이다. 정확한 글씨를 만들기에 노력하면서 연습에 연습을 해 나가야 한다.
7. 혼자 하는 사람은 항상 확실하지 못하며 진도 나가기를 겁내는 것이다.

그래서 교재의 앞부분만 보다가 포기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다.

효과적인 연습을 하자면 문장 보고쓰기를 많이 하고 많이 읽어보는 것이다. 문장 속에서 모든것을 응용하고 찾아보고 대입해보는 습관이야말로 가장 빠른 속기사 진입의 길이다. 본 교재를 사용하는 분은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학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용기를 가지기 바란다.

창안자가 후학들에게

동방속기를 배우는 젊은이 여러분!

저는 1945년 광복이 되던 해에 그전부터 꿈꾸고 있던 우리말 속기를 창안하기 위하여 3년여의 각고 끝에 동방속기를 창안·발표·출간한 이동근입니다.

우리말을 우리 손으로 만든 속기문자로 기록하여 대한민국의 운명과 함께 한다는 것은 일제가 우리말, 우리글을 쓰지도 못하게 하던 때와 비교한다면 그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우리말은 일본말이나 영어와 그 구조를 달리합니다. 무조건적인 모방이나 도입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세계는 이미 『현대속기의 아버지』라고 하는 영국의 피트맨이 발견한 직선과 곡선 및 양성·음성 모음을 굵기로 분류한 표음속기문자가 현대속기의 정통기법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 세계의 속기는 그와 같은 형태를 띠게 됨으로써 비로소 사람의 말속도와 일치하는 자국의 속기법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창안한 동방속기는 그러한 바탕에서 글보다는 말에 치중하여서 연구·분석이 된 속기문자로서 받침을 문자의 앞에 붙이고 자음이 전개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무이한 독특한 속기법입니다. 처음에는 결점도 많았으나 50년이 가깝도록 양성기관을 통하여 후학들이 갈고 닦고 수정·보완의 연구를 계속하여 이제는 누구나 완벽한 속기를 할 수 있도록 더욱 쉬워지고 빨라져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비율이 국내 최고임을 자랑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 『속기사가 될 보편성이 높은 속기법』으로 자타가 인정을 해주고 있음은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방속기가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1948년 이래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양성을 멈춘 적이 없었던 데 연유한 덕분이었다고 봅니다.

좋은 속기가 되도록 끊임없는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후학들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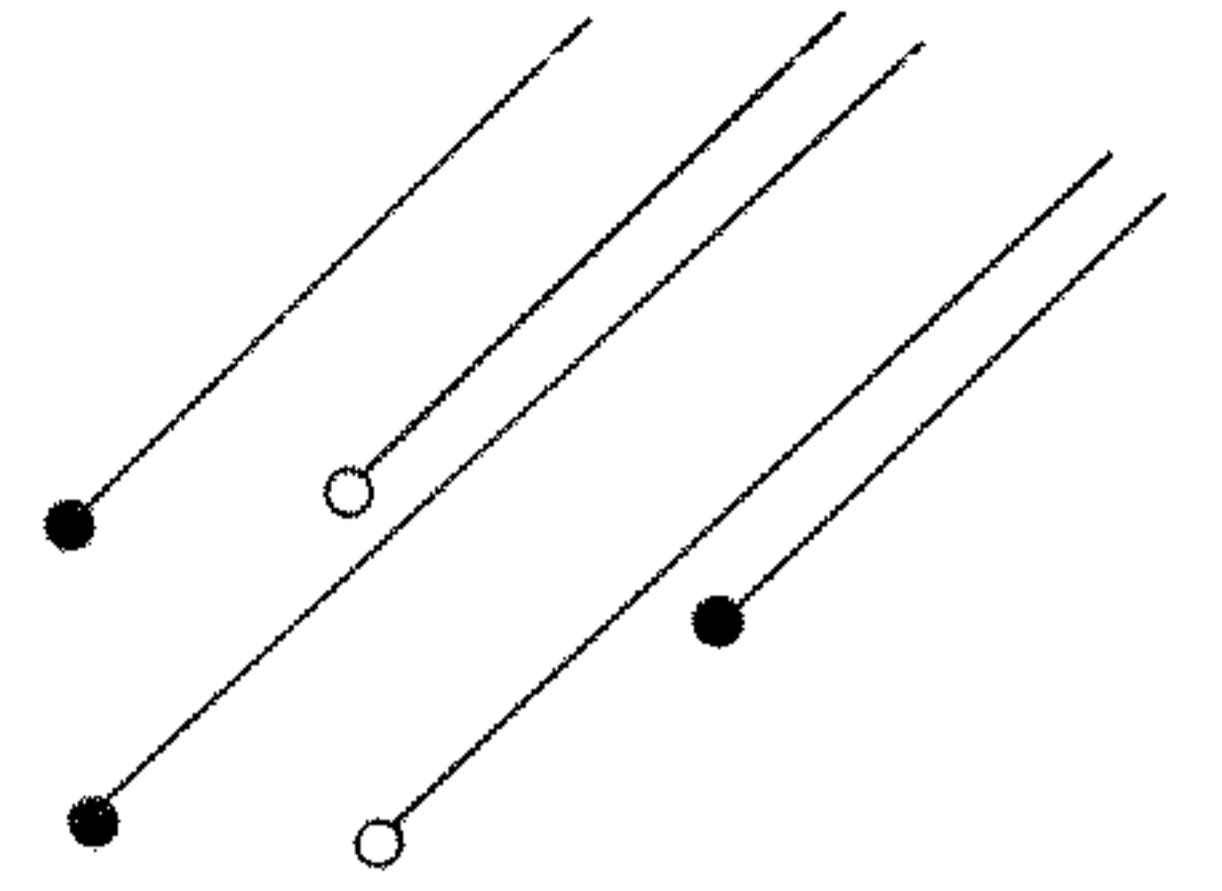
아무쪼록 좋은 속기로 다듬어졌고 충분히 증명된 동방속기를 배우는 이상, 목적인 바 최고의 속기기술을 익혀 여러분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동방속기 동문 여러분!

우리 동방속기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록하는 영원한 벗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50년 가까운 동방속기 동문회의 전통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서로서로 밀어주고 당겨주어서 이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학들에게 기록에 대한 신념은 물론 건전한 정신을 불어넣어 『우수한 속기사』이전에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천의 말씀

문자는 사람의 말이나 기억을 보존하기 위한 가장 오래된 수단이다.

처음에는 약기적인 방법으로 돌·뼈·나무·줄 등에 글자나 그림을 새기거나 그려서 자신의 의사전달 또는 글자 보존이란 두 가지 기능을 시공을 초월하여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었다.

그러나 약기의 해석으로 인한 견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문자를 더욱 세밀하게 구분함으로써 이같은 폐단은 해결되었으나 말과 글의 필기속도 차이는 계속 문제점으로 남게 되었다.

따라서 말하는 것만큼 빨리 기록하고 싶은 인간의 욕구가 속기를 만들어낸 것으로서 이러한 속기는 문자의 전달이나 보존수단의 충족을 넘어서 또 다른 발전이 아닐 수 없다.

속기술의 활용과 기여도는 멀리 거슬러 올라갈 것도 없이 우리 대한속기협회의 회원 동지들이 현대화된 속기법식으로서 국회나 지방의회의 의사과정을 기록하여 후대에 전달함으로써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의 구실을 하고 있으니 이는 곧 협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의 보람이며 자량이 아닐 수 없다.

여기 추천하는 동방속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현대화된 속기법의 하나로서 우리 회원 동지들이 활동하고 있는 국회나 지방의회, 일반 회의 분야 등에서의 활약상이 매우 두드러지며 오랜 기간 양성기관을 통해 우수한 속기사를 많이 배출해 오고 있다.

요즘 과대광고 등으로 속기가 엉뚱하게 왜곡되어 가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때에 동방속기법식이 새로운 모습으로 속기지방생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된 데에 축하와 격려를 보내며 앞으로 이처럼 전문속기사를 양성할 수 있는 우수법식들이 좋은 교재로서 출간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속기사에의 꿈을 가지고 있거나 속기를 배워 일상생활에 활용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속기사는 단순한 기록 기술자로서가 아니라 대한 민국의 역사와 함께 호흡하는 『현대판 사관』이며 치우침이 없는 『시대의 공정한 기록자』라는 점을 덧붙이고자 한다.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회장

국회의원 강우혁

권하는 말씀

속기와 의회제도는 뿔레야 뿔 수 없는 관계이다.

의회는 국민대표가 모인 회의체로서 그 회의 결과는 당연히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려져야 하는 것이며 속기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유용한 도구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1948년 국회 개원 이래 속기법에 의해 회의록을 작성해 오고 있는 바 이는 일제하에서도 기약할 수 없는 독립의 날에 대비하여 우리 말 속기를 창안, 속기사를 길러 내온 동방속기의 이동근 선생을 비롯한 속기계 원로들의 공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과 같이 말의 속도에 맞추어 기록이 가능한 우수한 속기법식이 완성되기 전에도 조선시대 승정원에서는 주서(注書)라는 관리가 조보체(朝報體)라는 특수문자를 사용하여 궁중 어전회의 내용을 기록하였다가 이를 토대로 왕조실록을 편찬하는 등 기록보존을 위한 노력이 이어져 왔던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말은 들을 수 있는 범위가 좁고 즉시 사라지므로 이를 널리, 오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말의 속도에 맞추어 기록하여 전파·보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일상생활 중에도 많은 생각과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아이디어를 메모·기록하였다가 정리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생각에 머무를 뿐 소용이 없게 된다.

속기술은 메모·일기 등 간단한 기록에서 취재 활동·회의 기록에 이르기까지 그 용도가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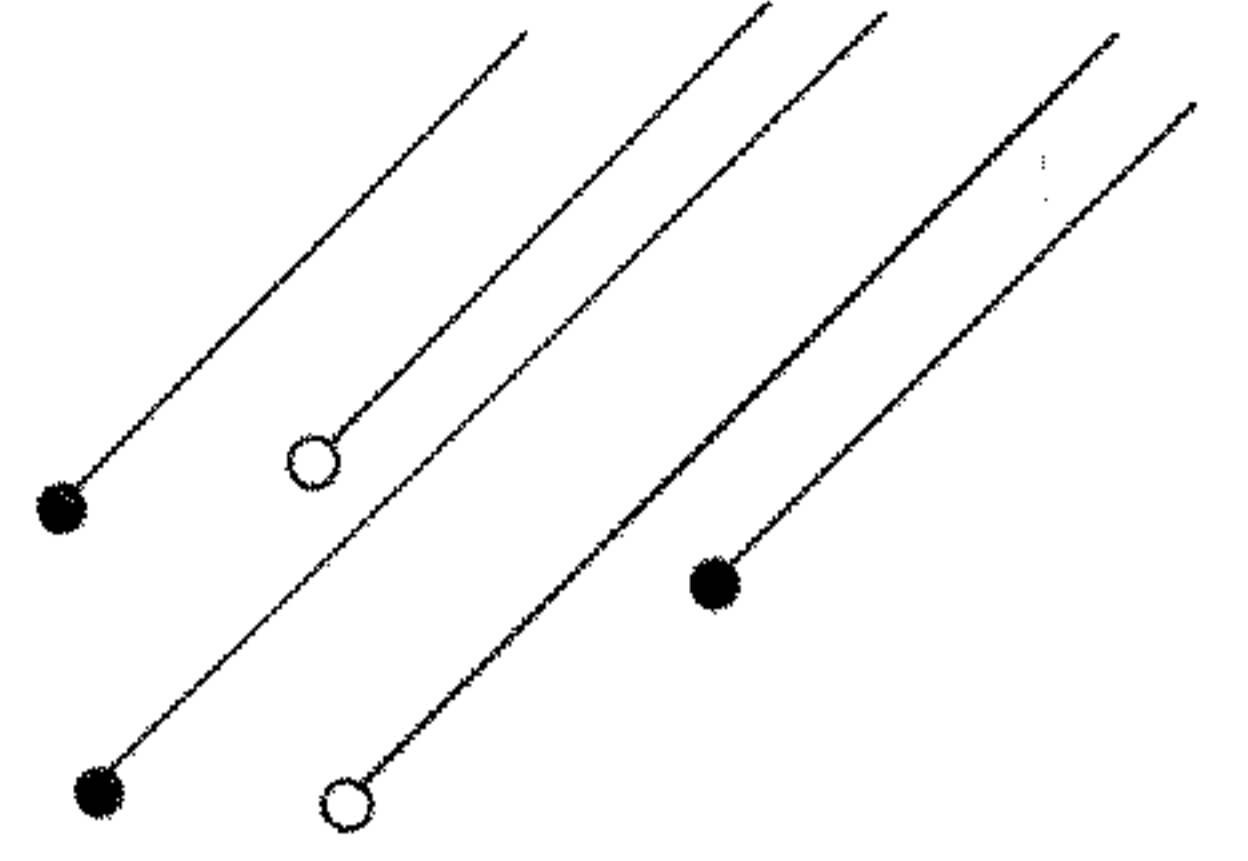
요즘은 컴퓨터의 기능향상으로 속기가 필요없는 시대가 곧 돌아올 것 같은 기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나 컴퓨터가 인간의 다양한 음성을 완전히 인식하여 모든 발언을 문자로 기록해 낸다는 것은 요원한 일로서 과학의 마지막 단계에서나 가능한 일일 것이다. 컴퓨터·녹음기 등은 속기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줌으로써 속기사의 활동영역을 확대시키는 데 일조하게 될 보조기구일 뿐이다.

보다 쉽게, 빨리 익히고 그 기록능력이 우수한 속기법식을 찾아 배운다는 것은 초심자에게 있어 쉬운 일이 아니다.

50년에 가깝도록 사회각계에서 이미 그 진가를 인정받아 온 『동방속기』가 더욱 새롭고 혁신된 내용으로 발간됨으로써 우리나라 기록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리라고 확신하면서 일독을 권하는 바이다.

국회예산정책심의관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이사 김 기 영



본서의 특징

- 학원강의와 학교강의, 속기실무 등에 10~30년 이상 종사한 현직 1급 속기사들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저술하였다.
- 모든 학습의 목표를 1차는 자격증취득에, 2차는 실무에 두고 저술하였다.
- 속기사 자격취득의 최고 실적을 가진 동방속기를 겸허한 마음으로 재반성하여 더욱 빠르고 쉽게 고쳐 쓴 혁신판이다.
- 모든 규칙을 단순화하여 쉽게 최고의 수준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속기사전이 필요없는 속기교재이다.
- 이론보다는 실기에, 설명보다는 연습꺼리를 충분히 제공하여 『무실역행』하는 속에 저절로 원리를 깨우치도록 구성하였다.
- 시중에 떠도는 속기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으려 애썼다.
- 국가자격시험에 필요한 예문과 채점기준을 최초로 실어 학습에 도움이 되게 하였다.
- 속기가 암기과목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고치고 이해력을 바탕으로 한 응용위주의 진도방식을 택하였다.
- 기존의 교재에 비해서 최신의 약기와 약자 등이 더욱 정확히 써지고 읽어들 수 있도록 내용을 대폭 바꿔 다시 쓴 교재이다.
- 속도향상에 맞추어 실무경험을 할 수 있도록 풍부한 실무해석과 예제를 넣었다.
- 말로만 쉬운 교재가 아닌 진정한 속기사의 길잡이가 되기를 기도하였다.
- <응용>은 필수적으로 연습하고 <단어응용>은 필요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 학원 강의와 직결되는 교재로서 언제나 고급과정으로 연결지을 수 있다.
- 우리는 전체 합격자의 40~50%가 동방속기 학습자들임을 자랑한다.
- 쉽게 배워 널리 쓰는 속기가 되도록 하였다.
- 전문속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일기, 메모, 강의, 비서업무, 설교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차례

제 1 장 기본 약기법

1. 약기의 전개 방법	11
2. 약기법의 정의	11
3. 속기의 바탕	12
4. 약기법을 배우면서부터 빠지기 쉬운 함정	12
5. 용어의 해설	12
6. 용어복습(정측과 반측)	13
7. 조사 보완	15
8. 조사 관계 약기법	20

제 2 장 동사 약기법

1. 기본(현재)형	53
2. 위치(어미)변화(1)	92
3. 위치(어미)변화(2)	115
4. 시제(어미)변화(1)	124
5. 위치(어미)변화(3)	131
6. 시제(어미)변화(2)	138
7. 위치(어미)변화(4)	148

제 3 장 상선 응용 약기법

1. 상선약자(1)	157
2. 시제(어미)변화(1)	163
3. 상선약자(2)	169
4. 시제(어미)변화(2)	175
5. 상선약자(3)	183
6. 시제(어미)변화(3)	189
7. 상선약자(4)	194
8. 시제(어미)변화(4)	199

9. 상선약자(5)	212
10. 시제(어미)변화(5)	218
11. 복합동사 응용(1)	232
12. 상선약자(6)	232
13. 복합동사 응용(2)	238
14. 상선약자(7)	238
15. 「~하, ~이」생략법	242
16. 상선약자(8)	248

제 4 장 중간 응용 약기법

1. 중간약자(1)	257
2. 「~하, ~이」 생략법	262
3. 어미(1)	268
4. 중간약자(2)	268
5. 중간약자(3)	276
6. 중간약자(4)	282
7. 어미(2)	287
8. 중간약자(5)	296
9. 중간약자(6)	304

제 5 장 운필 응용약자

1. 운필에 의한 약자(1)	315
2. 운필에 의한 약자(2)	321
3. 운필에 의한 약자(3)	330

*부 록

• 국가기술자격검정 서비스계 시험기준(속기)	345
• 속기사 자격시험 안내 및 해설	346



제 1 장
·
기본 약기법

동방속기에서는 응용을 위주로 약기법을 전개한다.
속기는 암기를 얼마나 최소화하고 응용을 얼마나 최대화
하느냐에 따라 학습의 성패가 갈린다.

1. 약기의 전개 방법

이 책에서는 기본적인 약기를 위주로 하고 실무적인 약자나, 보다 세밀하고 빈도가 낮은 약기는 다음 권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약기별 분류방법이 아닌 진도형으로 분류하여 실제 학습하기 좋게 하겠다.

2. 약기법의 정의

약기법은 크게 약자와 약부로 나눈다.

약자 : 속기문자를 그대로 줄이거나 더 길게 써서 글자수를 줄여 쓰는 약기법

약부 : 일반적인 부호 형태를 속기에 응용하는 약기법

2-1. 약기법은 왜 만들어지고 어떤 단어가 약기의 대상이 되는가?

- 1) 너무 자주 나와서 기본문자로 쓰기 귀찮은 말
- 2) 기본문자만으로는 번문에 문제가 있는 말
- 3) 이어쓰기에 불편하거나 규칙적인 형태로 모양이 형성되는 말

따라서 문법적인 규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빈도가 희박하면 약기법을 만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외의 말이 나오면 기본문자로 쓰는 것이 당연하다.

2-2. 동방속기 약기법의 형태를 몇 가지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 1) 조사 · 동사 · 형용사 등의 품사 약기법
- 2) 앞문자의 끝에서 올려쓰는 상선 약기법
- 3) 앞문자의 끝에서 내려쓰는 하선 약기법
- 4) 문자의 중간자를 생략하는 중간 약기법
- 5) 길이를 최장선화하여 쓰는 최장선 약기법
- 6) 일반적인 부호를 활용하는 약기법

이상의 약기법을 바탕으로 응용을 위주로 전개되는 동방속기는 암기의 최소화, 응용의 극대화를 목표로 전개된다.

따라서 기본문자처럼 최소한을 외우면 최대한 응용을 하면 되는 약기법이므로 미련스럽게 외우려 든다면 한이 없을 것이다.

3. 속기의 바탕 : 속기를 배울 때 무엇을 바탕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문자이다.

약기법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망설일 이유없이 기본문자로 쓴다는 생각,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학습법이다.

약기법은 기본문자를 보조하는 것이다.

약기법은 기본문자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쓰기 귀찮아질 때 만들어지므로 항상 기본문자보다 후에 만들어진다.

기본문자만으로는 완벽한 속기를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약기법을 응용하는데, 빠른 처리로 기본문자가 나왔을 때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고 기본문자에서 시간이 지체되면 곧 약기에서 그 시간을 만회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기본문자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기본문자는 신선한 모습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단어, 골자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말과 글에서 주연의 구실을 한다. 여기에 약기법이 조연으로 등장하여 온갖 앞길을 정리해 주고 뒷마무리를 한다.

가장 완벽한 속기를 하는데는 두 가지의 조화가 필수적이다.

4. 약기법을 배우면서부터 빠지기 쉬운 함정

그것은 약기법에 지나치게 연연하여 생각나지 않는 약기법 때문에 말을 받아적지 못하고 빠뜨린다는 것이다. 약기법이 기본문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잊고 약기법 때문에 다른 것도 놓친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물론 주어진 약자는 최대한 익히도록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항상 약기법이 막힐 때마다 기본문자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말 중요한 말은 기본문자로 나타나며 기본문자로 표기할 수 있으니까.

5. 용어의 해설

중선 : 문자의 중심선으로 보통 필기하는 선을 말한다.

상선 : 앞문자 끝에서 차줄로 4mm 가량 떨어진 위치를 말한다.

하선 : 앞문자 끝에서 하줄로 4mm 가량 떨어진 위치를 말한다.

최장선 : 길이 20~25mm 이상의 문자를 말한다.

어찌구 : 「어찌구 저찌구 여러 가지 말로 변한다」를 줄인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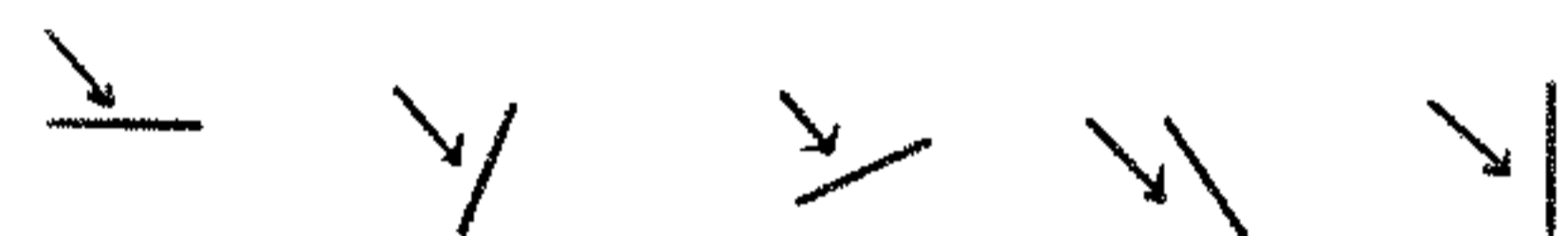
같이 쓴다 : 같이 써도 혼동될 염려가 없는 말을 골라 두 가지 이상 같이 쓰는 것

6. 용어복습 (정측과 반측) : 정측과 반측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진도상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므로 꼭 숙지하기 바란다.

정측 : 곡선문자의 안쪽, 직선문자의 위쪽이나 왼쪽을 말한다(그림에서 화살표 있는 쪽).

반측 : 정측의 반대쪽

곡선문자 : 

직선문자 : 

6-1. 좋은 속기의 조건

배우기 쉽고(easy to learn) 쓰기 쉽고(easy to write) 읽기 쉬운(easy to read) 속기법을 지향하는 것은 속기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일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좋은 속기법식과 그렇지 않은 속기법식으로 구별해도 별 문제가 없다.

좋은 속기의 조건이란 학술적으로 얘기해도 되겠지만 쉽게 말해서 첫째, 많은 사람들이 배워서 좋은 결과를 얻은 속기라고 말할 수 있다.

좋은 결과란 무엇인가?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고 속기사로 많이 활동하고 있는 속기법식일 것이다.

그러니 어떤 속기법식을 배워야 하는지를 선택하는 기준은 당연히 자격증을 많이 취득한 속기법식이거나 속기사로 많이 활동하고 있는 속기법식일 것이다.

그것을 알고 싶으면 속기사가 활약하고 있는 곳 중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국회나 각 지방의회 속기과나 의사과에 문의한다면 쉽게 그 전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속기를 배우고 싶은 사람은 속기를 배워 속기사로 진출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현

명한 방법이다. 길을 아는 사람에게 길을 물으라는 말처럼.

광고, 선전, 문의를 무조건 믿을 것이 아니라, 말을 그럴 듯하게 한다고 그것을 믿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직의 속기사에게 길을 묻는다면 좋은 속기법은 어떤 것이고 내가 속기를 배워 어떻게 되자는 것인가와 합치되는 속기법을 배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손풀기 : 기본문자 복습 ... ㅏ모음 3회 이상 써보자.

7. 조사 보완

~하는 : 하줄 역방향으로 빼쳐서 “합니다, 입니다”와 같이 쓴다.

~는게
 ~은게

7-1. 접속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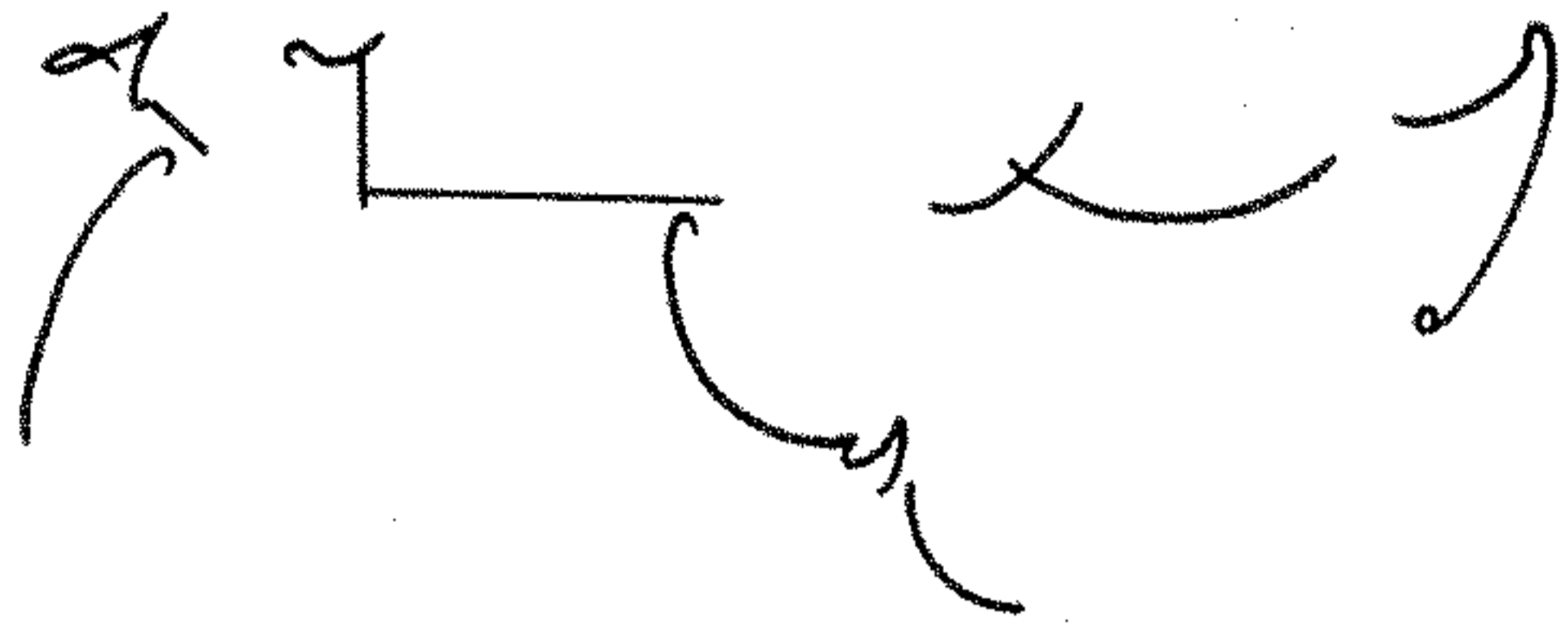
그리고 _____
 그리하여 _____
 그리하다 _____

<실전연습 1> ... 한글문장을 속기문자로 옮겨보자.

14대 김영삼 대통령 취임사

친애하는 7천만 국내외 동포 여러분, 노태우 대통령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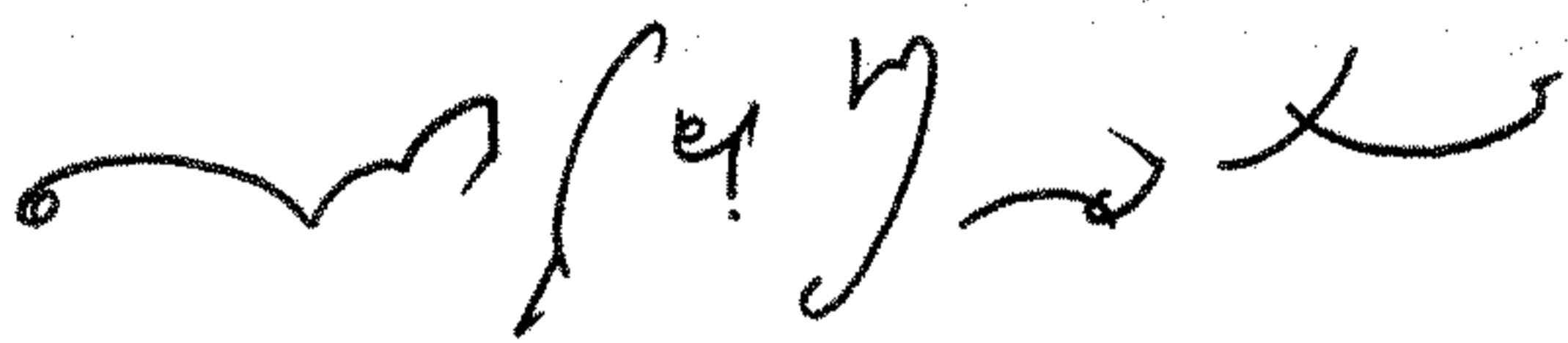
비롯한 전직 대통령, 그리고 이 자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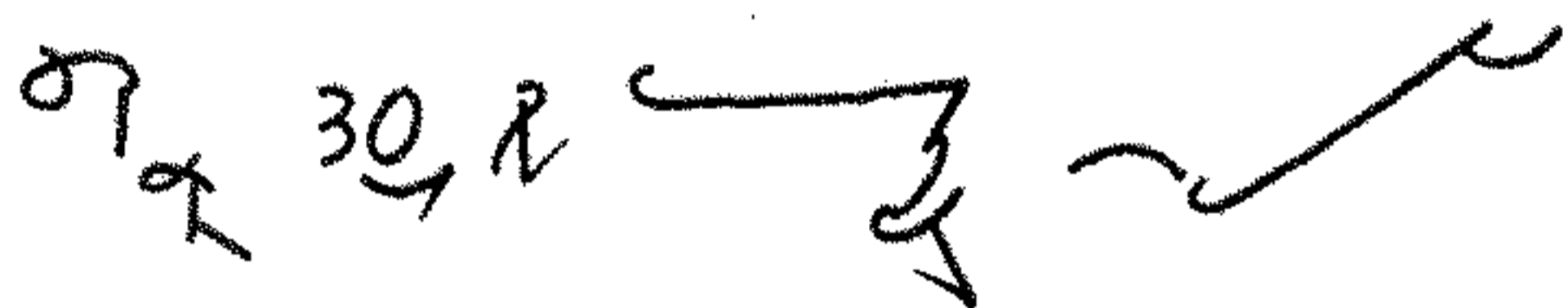
참석하신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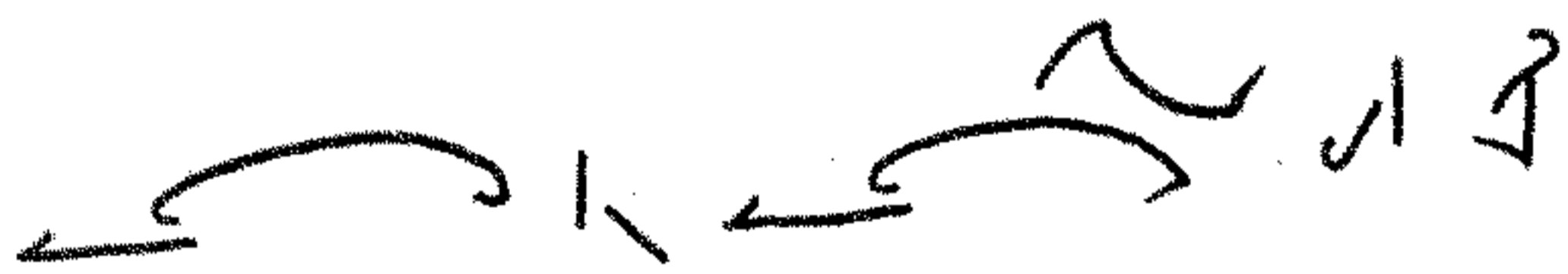
그렇게도 애타게 바라던 문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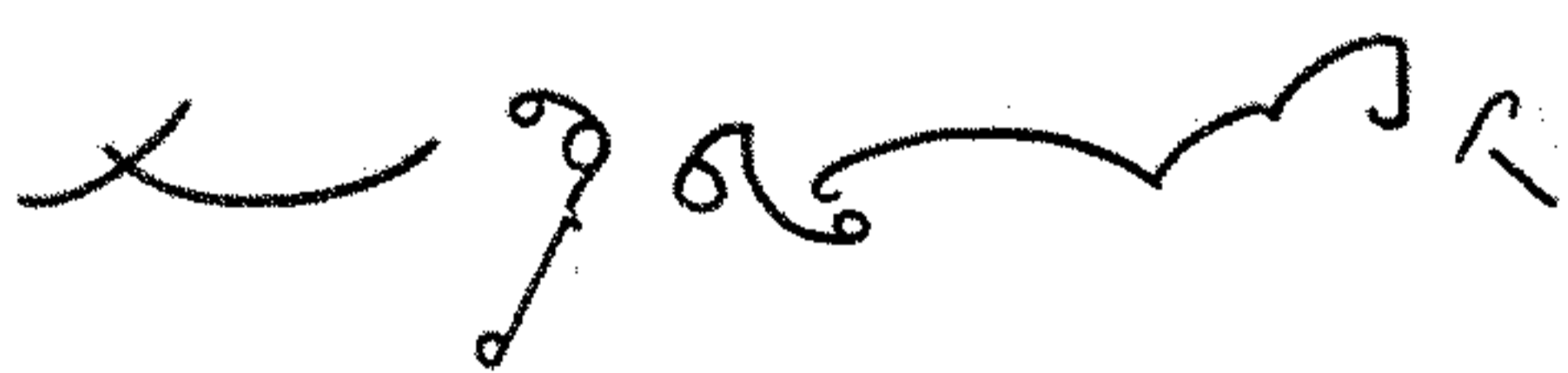
민주주의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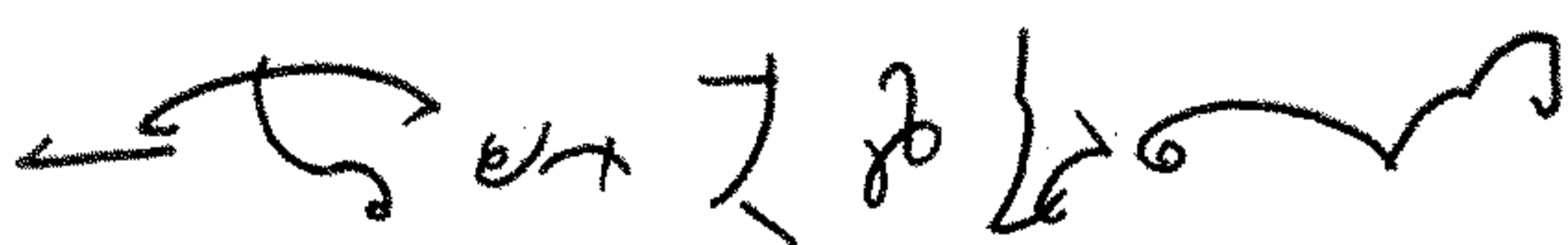
맞이하기 위해 30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
니다. 마침내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를 이 땅에 세웠습
니다.



오늘 탄생되는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불타는 열망과 거룩한 희생으로 이루
어졌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저 자신의 열정과 고난이 배어 있는 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오늘

저는 백찬 감회를 억누를 길이 없습니다. 우
리 국민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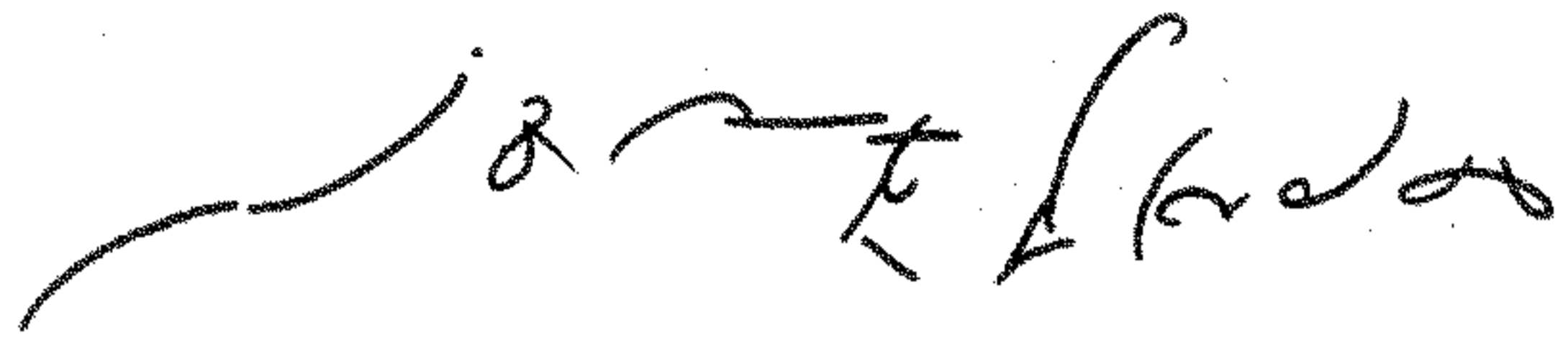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들에
게 뜨거운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또한 험난했던 민주화의 도
정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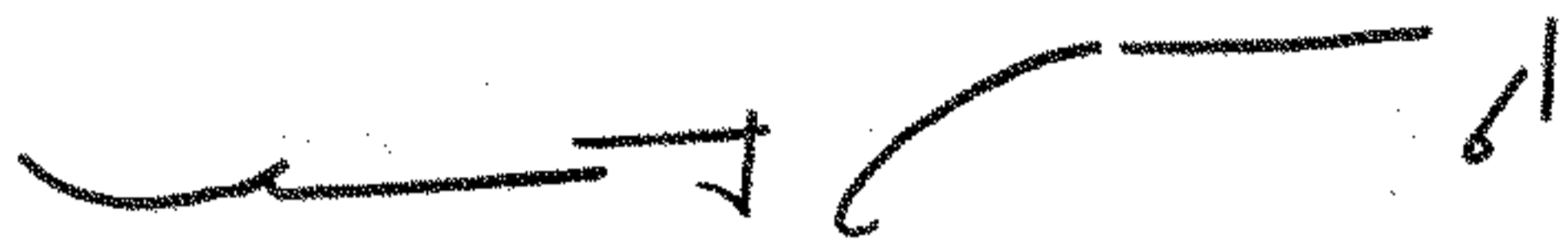
오늘을 보지 못하고 애석하게 먼저 가신

많은 분들의 숭고한 희생 앞에 국민과 더불어
머리를 숙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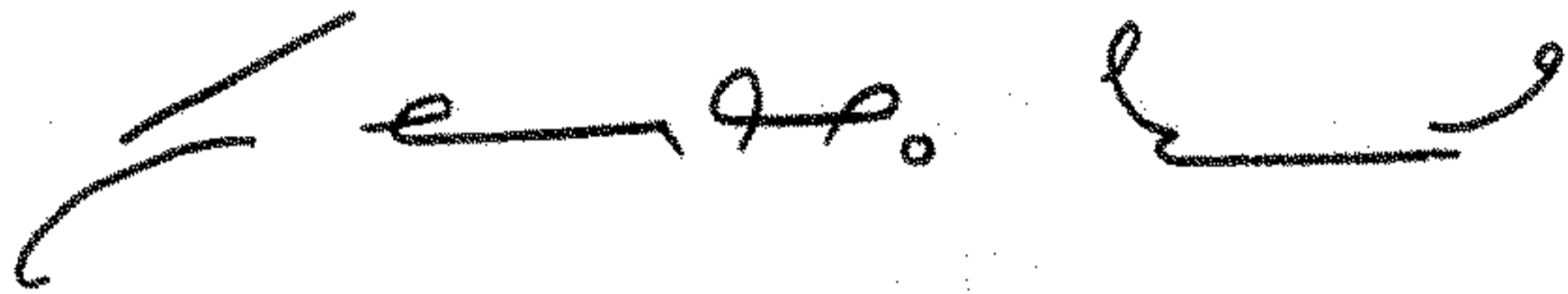
국민여러분! 저는 제14대 대통령 취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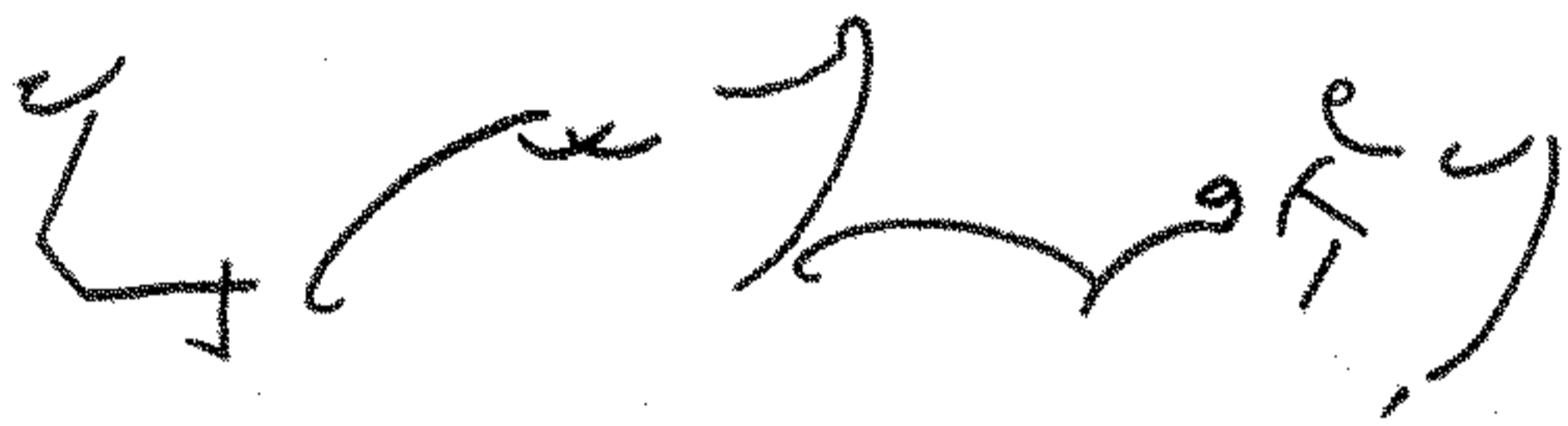
즈음하여 새로운 조국건설에 대한 시대적 소
명을 온몸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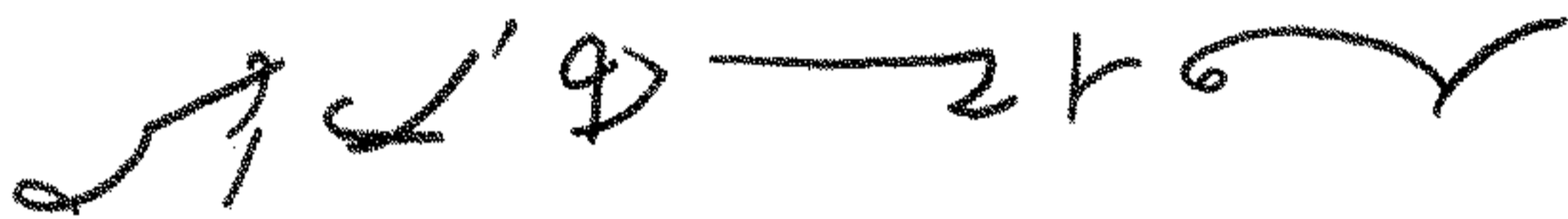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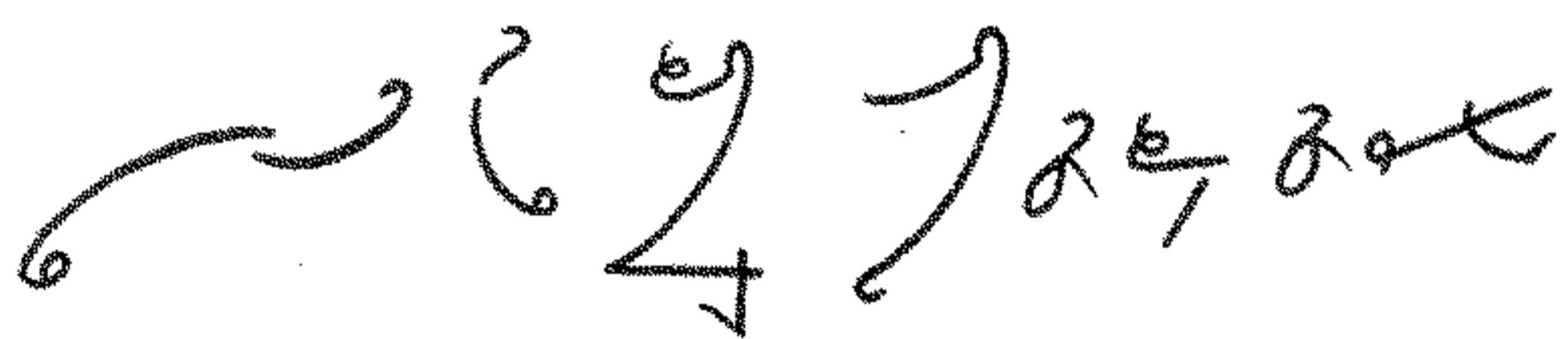
지층 깊은 곳으로부터 봄기운이



약동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 민족에게는
번성했던 여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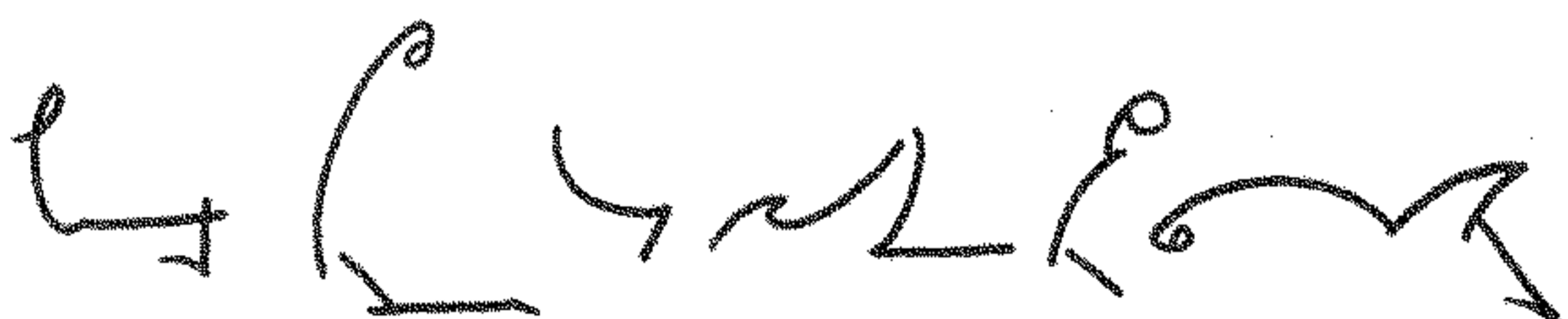
추웠던 겨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족



진운에 새 봄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 새로운 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한국 창조의 꿈을
가슴 깊이



품고 있습니다. 신한국은 보다 자유롭고 성숙
한 민주사회입니다.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입니다. 더불어
풍요롭게 사는 공동체입니다.

문화의 삶, 인간의 품위가 존중되는 나라입니
다. 갈라진 민족이

하나되어 평화롭게 사는 통일 조국입니다. 새
로운 문명의 중심에 우뚝서서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진보에 기여하는 나라
입니다. 누구나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신한국입니
다. 우리 모두

이 꿈을 가집시다.

* 자신이 쓴 속기문자를 읽어보자 <실전연습은 쓰고 읽기를 위주로 한다>.

손풀기 : 기본문자 복습 ... ㅈ모음 3회 이상 써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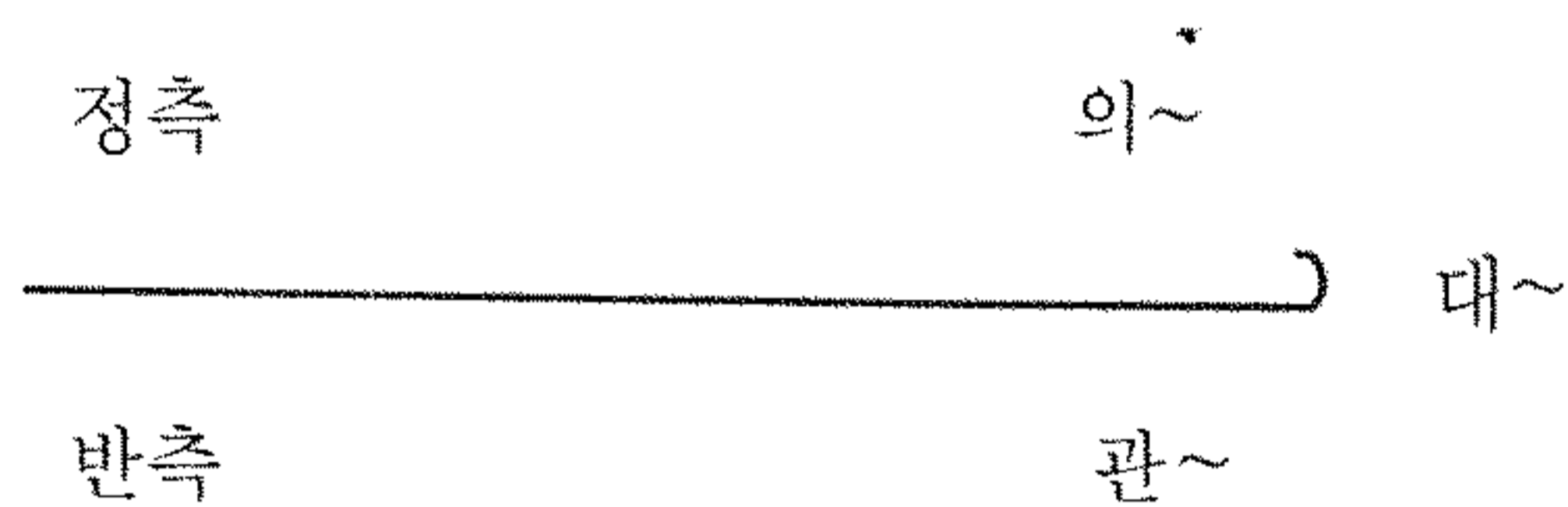
8. 조사 관계 약기법

8-1. 조사 접속 약기법

이 약기법은 우리말 끝의 조사 다음에 어찌구 저찌구 따라 나오는 말들 중 빈도가 높은 말들을 모아 약자로 정리한 부분들이다.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붙인 제목들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므로 「조사관계약기법」이라는 말보다는 「~에, 어찌구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8-1-1. 「~에, ~께, ~에게」 어찌구(1)



다음에 나오는 약자들은 문자의 끝과 정측, 반측 등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표기되고 다르게 읽혀진다.

「~에」 어찌구를 효율적으로 익히려면 먼저 「대~ 의~ 관~」이 입에 붙도록 「대의관, 대의관」을 먼저 익힌 다음 앞에서 배운 「하여」를 그 자리에 찍으면 「대하여, 의하여, 관하여」가 되고 「해서」를 쓰면 「대해서, 의해서, 관해서」가 되므로 쉽게 응용이 된다.

하여 _____) 에 대하여 _____) 에 의하여 _____) 에 관하여	해서 _____) 에 대해서 _____) 에 의해서 _____) 에 관해서
---	---

해* _____) 에 대해 _____) 에 의해 _____) 에 관해	하 _____) 에 대한 _____) 에 의한 _____) 에 관한
--	---

하여는 _____ ㅎㅇ 에 대하여는 하여도 _____ ㅎ/ 에 대하여도
 _____ ㅎㅇ 에 의하여는 _____ ㅎ/ 에 의하여도
 _____ ㅎㅇ 에 관하여는 _____ ㅎ/ 에 관하여도

해선 _____ ㅎㅁ 에 대해선 의 _____ ㅎㅁ 에 의하다
 _____ ㅎㅁ 에 의해선 하 _____ ㅎㅁ 에 불구하고
 _____ ㅎㅁ 에 관해선

참고 : 가~이까지 「가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식으로 먼저 연습하는 것이 좋다.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응용연습>

문제에 대하여

문제에 의하여

문제에 관하여

누나에 대해서

누나에 의해서

누나에 관해서

자유에 대해

자유에 의해

자유에 관해

의회에 대한

의회에 의한

의회에 관한

환경에 대하여는

환경에 의하여는

환경에 관하여는

조사에 대하여도

조사에 의하여도

조사에 관하여도

답변에 대해선

답변에 의해선

답변에 관해선

상황에 불구하고

역경에 불구하고

시련에 불구하고

<실전연습 2> ... 한글문장을 속기문자로 옮겨보자.

우리는 일찍이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에서

기적을

이루어낸 민족입니다. 우리 다시 세계를 향해

힘차게

응비해 나갑시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은 우리

에게 결코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냉전시대의 종식과 함께 세계는 실리에 따라

적과 동지가 뒤바뀌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경제전쟁, 기술전쟁의 시대로 접

어들었습니다. 변화하는 세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선진국의

문턱에서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도약하지

않으면 낙오할 것입니다. 그것은 엄숙한 민족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신한국을 향해 달

릴 수 있는 체력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그런

데

지금 우리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한국병을 앓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인의 두려움을

쌌던 우리의 근면성과 창의성은 사라지고 있

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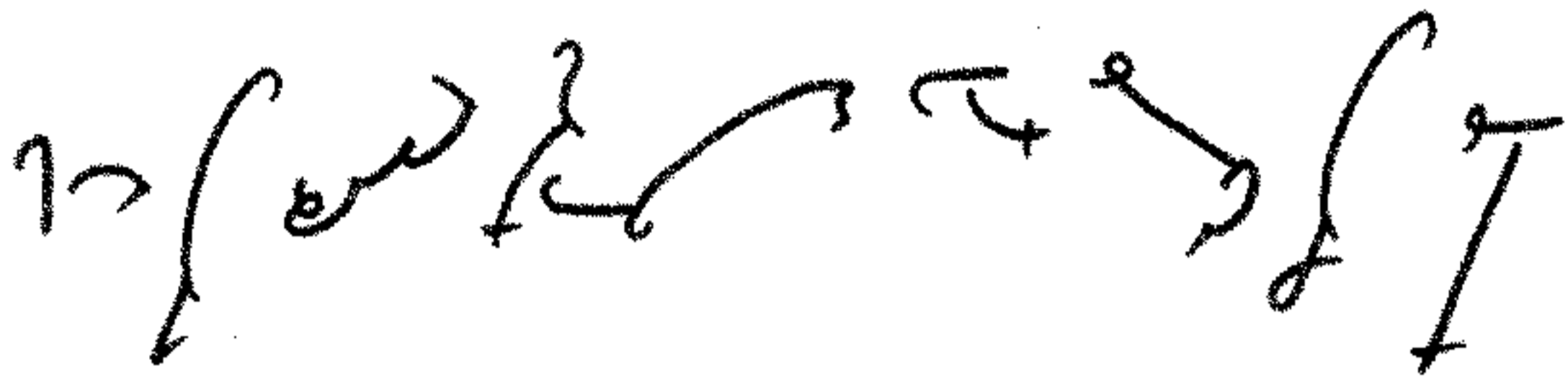
외부의 도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번지고 있는 이 정신


적 패배주의입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좌절과 침체를 딛고 용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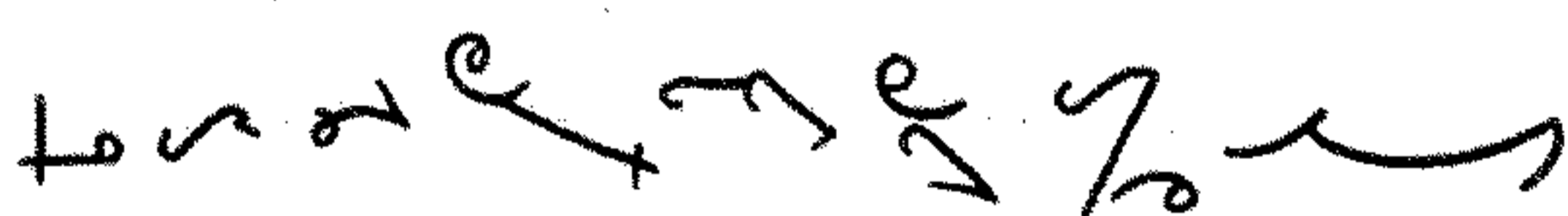
희망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폐쇄와 경직에
서 개방과 활력의 시대로, 갈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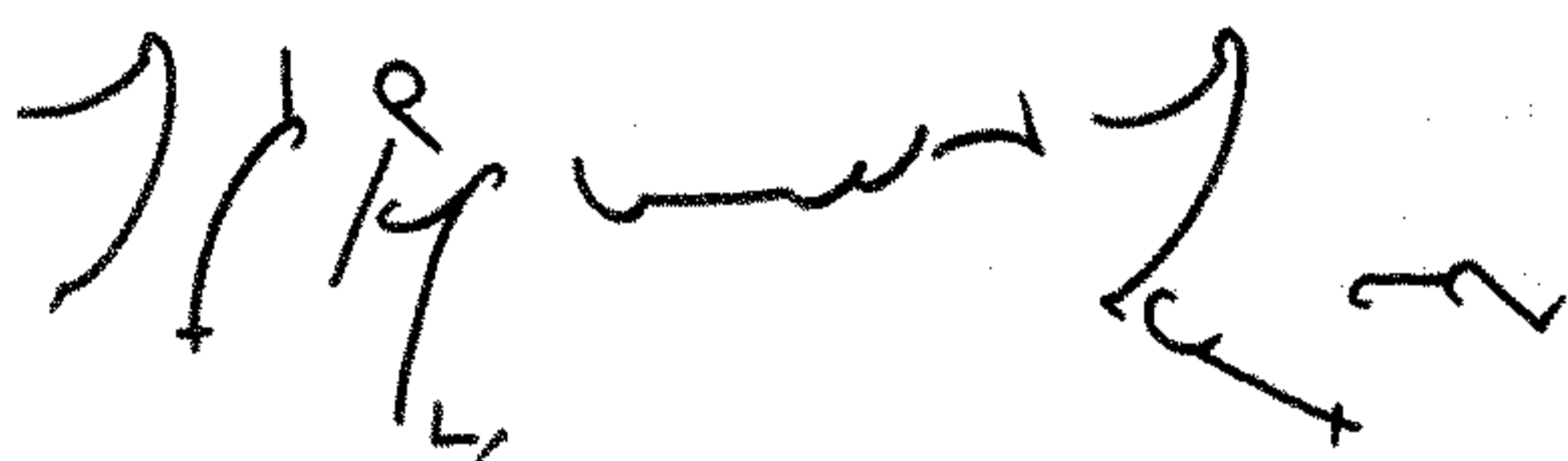
대립에서 대화와 타협의 시대로 바꾸어야 합
니다. 불신의 사회에서 신뢰의 사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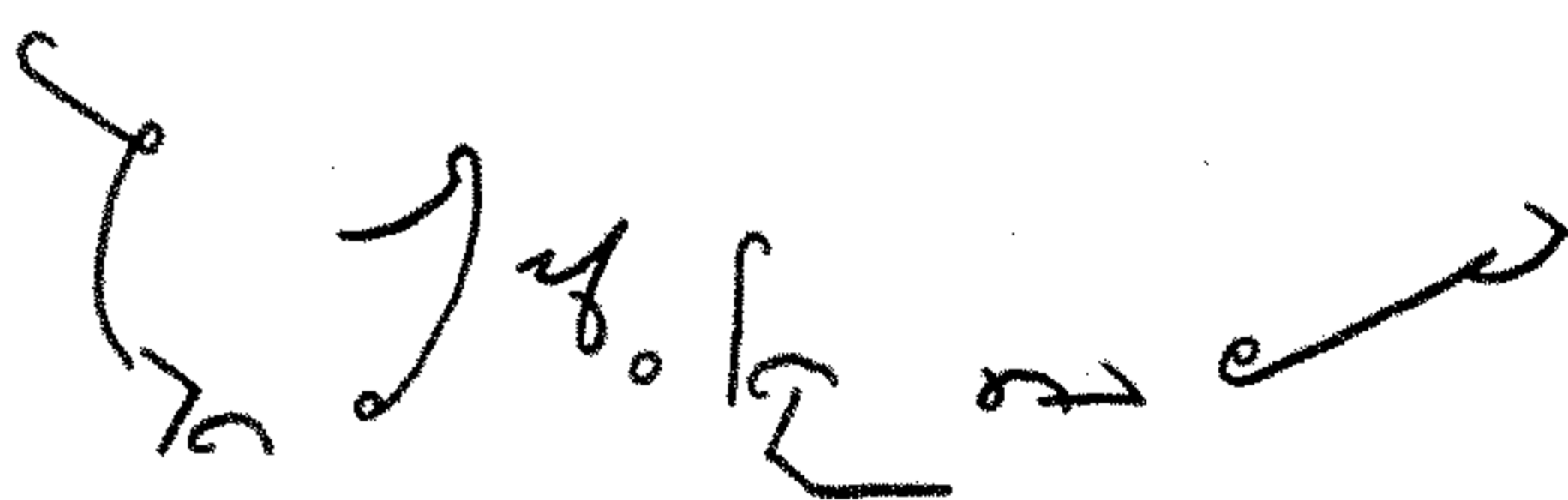
나만을 앞세우는 사회에서 더불어 사는 사회
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변화와 개혁의 방향입
니다. 제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행동양식까지도 바꾸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변화와 개혁을



회피한다면 우리는 역사로부터 외면당하고
말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개혁은 먼저 3가지 당면과제의

실천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첫째는 부정부패의 척결입니다.

둘째는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셋째는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는 안으로 나라를 좀먹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부정부패의 척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결코 성역은 없을 것입니다.

단호하게 끊을 것은 끊고 도려낼 것은 도려내야만 합니다.

* 자신이 쓴 속기문자를 읽어보자 <실전연습은 쓰고 읽기를 위주로 한다>.

참고 : 180° 줄(가나마) 90° 줄(이파카) 문자는 실제 각도를 맞추기가 어렵다. 차출로 약간 올라간 것이 180° 줄 문자의 일반적인 성질이고 좌우로 약간 기울은 것이 90° 줄 문자의 성질임을 파악하여 번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손풀기 : 기본문자 복습 ... #모음 3회 이상 써보자.

8-1-2. 「~에, ~께, ~에게」 어찌구(2)

빠침 _____ ㄴ 에 의하면 이 _____ ㄹ 에 걸쳐
 _____ ㄴ 에 의하면은 _____ ㄹ 에 걸친
 _____ ㄴ 에 관한 한

가 _____ ㄴ 에 지나지 않는
 _____ ㄴ 에 의거하여
 _____ ㄴ 에 불과한 까지 _____ ㄹ 에 이르기까지

가 _____ ㄴ 에 관련 따 _____ ㄹ 에 따라
 _____ ㄴ 에 관련해서 _____ ㄹ 에 따른
 _____ ㄴ 에 관련해

<응용연습>

보고에 의하면

ㄴ

속기에 관한 한

ㄴ

전반에 걸쳐

ㄹ

소문에 지나지 않는

ㄴ

오늘에 이르기까지

ㄹ

문제에 관련한

ㄴ

소문에 의하면

ㄴ

번문에 관한 한

ㄴ

어제 오늘에 걸쳐서

ㄹ

3조에 의거하여

ㄴ

법률에 따라

ㄹ

조사에 관련해서

ㄴ

말에 의하면은

ㄴ

약자에 관한 한

ㄴ

전체에 걸친

ㄹ

루머에 불과한

ㄴ

여기에 따른

ㄹ

정책에 관련해

ㄴ

<실전연습 3> ... 한글문장을 속기문자로 옮겨보자.

이제 곧 위로부터의 개혁이 시작될 것입니
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스스로 깨끗해지려는 노력없이 부정
부패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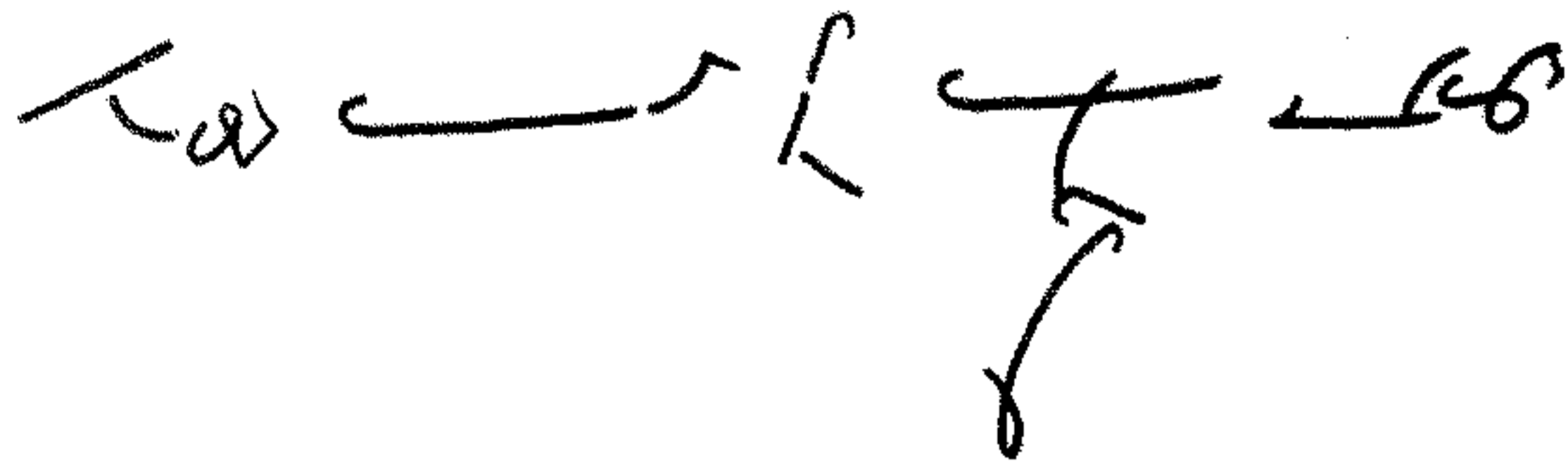
근절되지 않습니다. 깨끗한 사회의 실현은 국
민

여러분의 손에 의해서만 완성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경제의 활력을 되찾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부는 규제와 보호대신에
자율과

경쟁을 보장할 것입니다. 정부가 먼저 허리
띠를 졸라맬 것입니다. 국민은

더 절약하고 더 저축해야 합니다. 사치와 낭
비는



추방되어야만 합니다. 기업은 대담한 기술혁신으로 국제경쟁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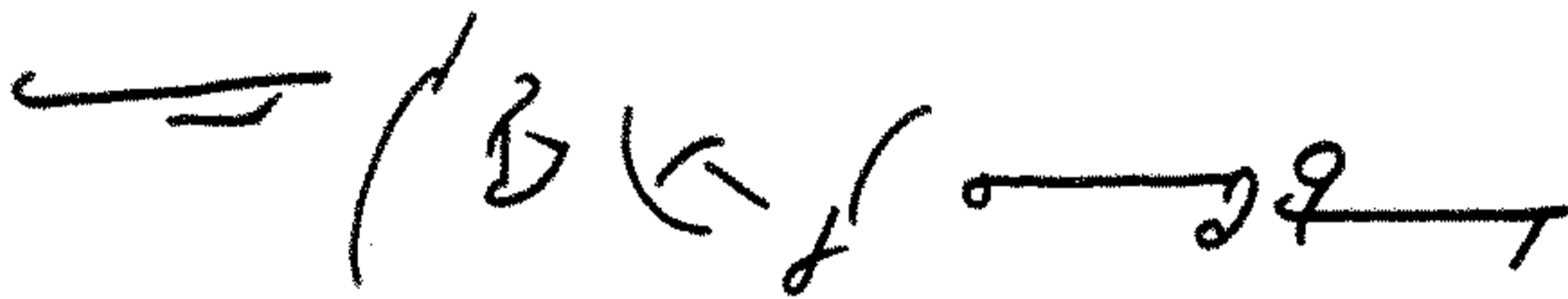
이겨야 합니다. 정부와 국민,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신바람나게 일함으로써만 우리는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흐트러지고 있는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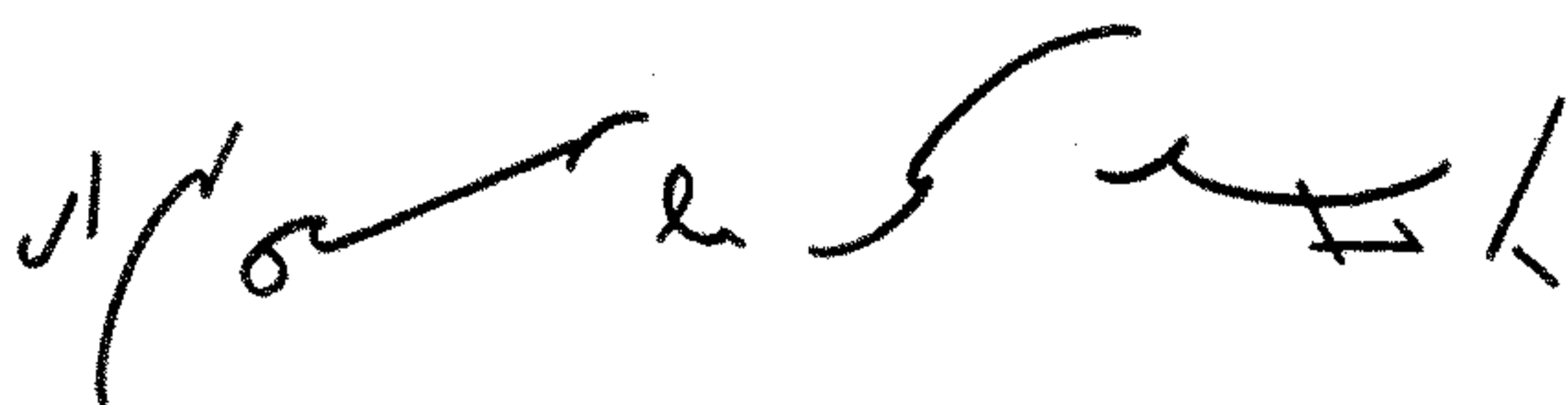
기강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부정한 수단으로 권력이 생길 때



국가의 정통성이 유린되고 법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목적을 위해서 절차가 무시되는 편법주의가 판을 치게 됩니다.



이 땅에 다시 정치적 밤은 오지 아니 할 것입니다. 또한

Handwritten calligraphy: (우리 사회는 있어야 할 권위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는

우리 사회는 있어야 할 권위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는

Handwritten calligraphy: 공동체를 위한 자유여야 합니다. 백범 선생의

공동체를 위한 자유여야 합니다. 백범 선생의
말처럼 공원의 꽃을 꺾는

Handwritten calligraphy: 자유가 아니라 꽃을 심는 자유여야 합니다.

자유가 아니라 꽃을 심는 자유여야 합니다.
땅에 떨어진

Handwritten calligraphy: 도덕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도덕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의 교육은 미래를

Handwritten calligraphy: 준비하는 과학·기술교육과 함께 사람다운 사

준비하는 과학·기술교육과 함께 사람다운 사
람,

Handwritten calligraphy: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인간교육이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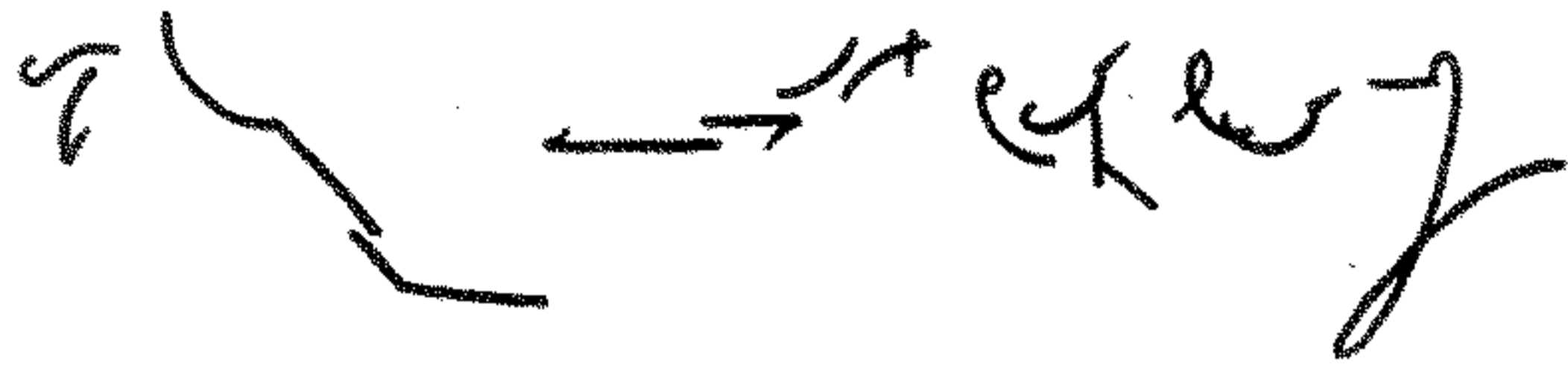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인간교육이어야 합니다.

Handwritten calligraphy: 이것이 바로 저의 신교육입니다. 국민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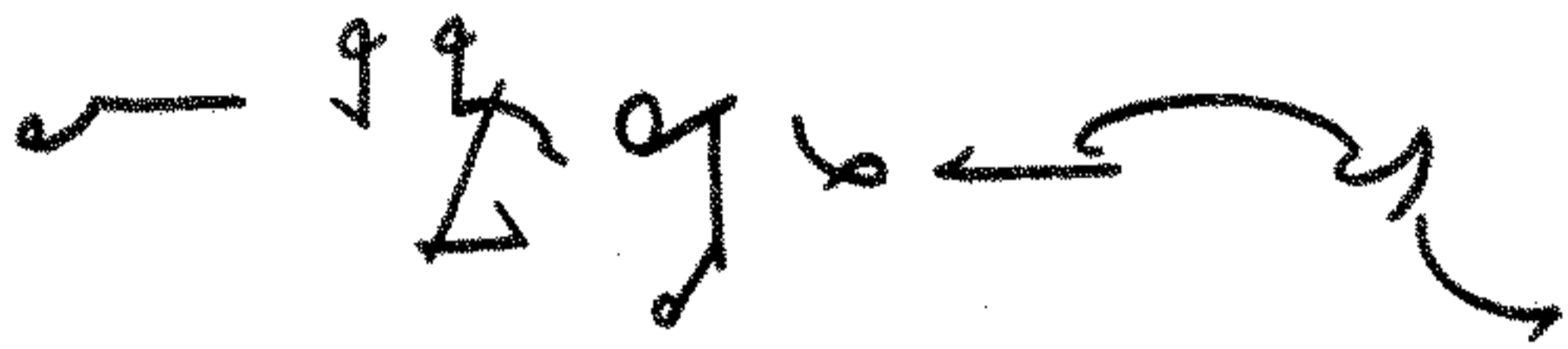
이것이 바로 저의 신교육입니다. 국민 여
러분! 오늘부터

Handwritten calligraphy: 정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청와대는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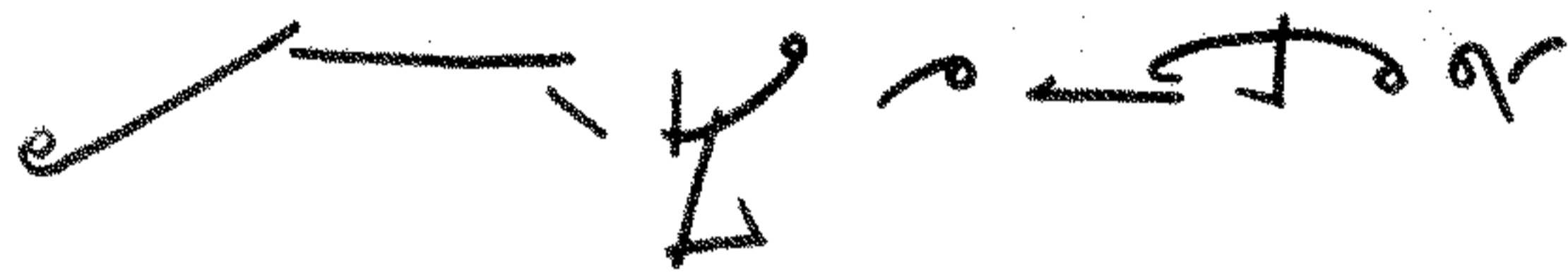
정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청와대는 국
민의 생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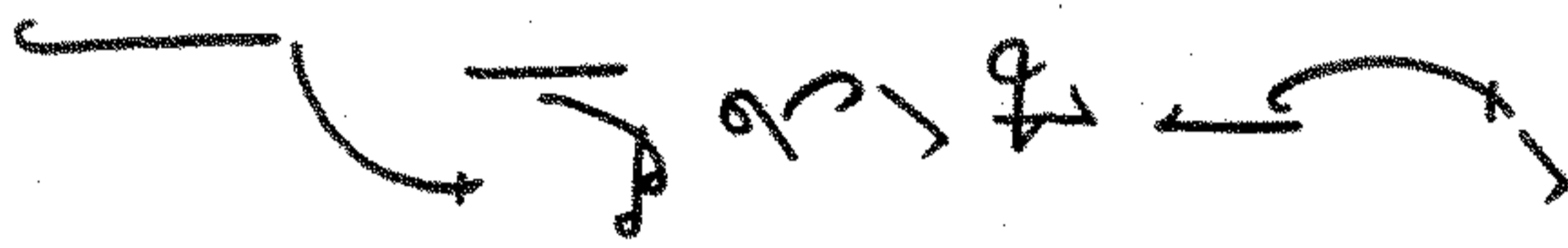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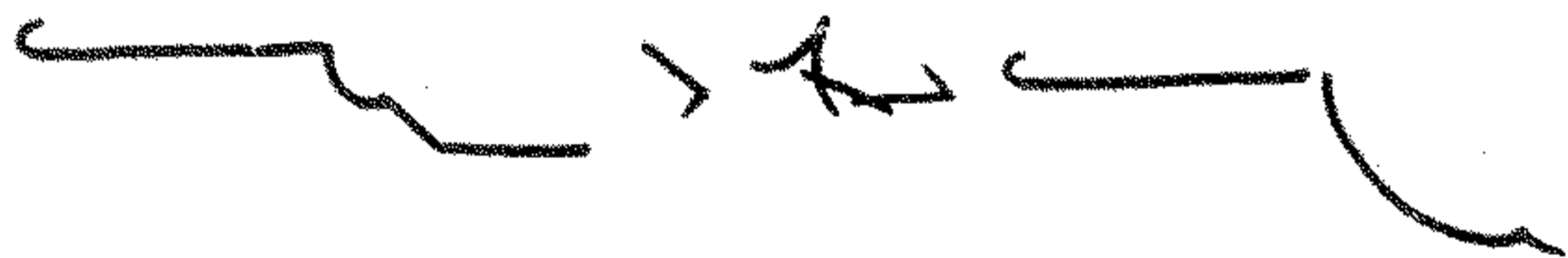
않고 일하는 일터가 될 것입니다. 청와대는
바로 국민 여러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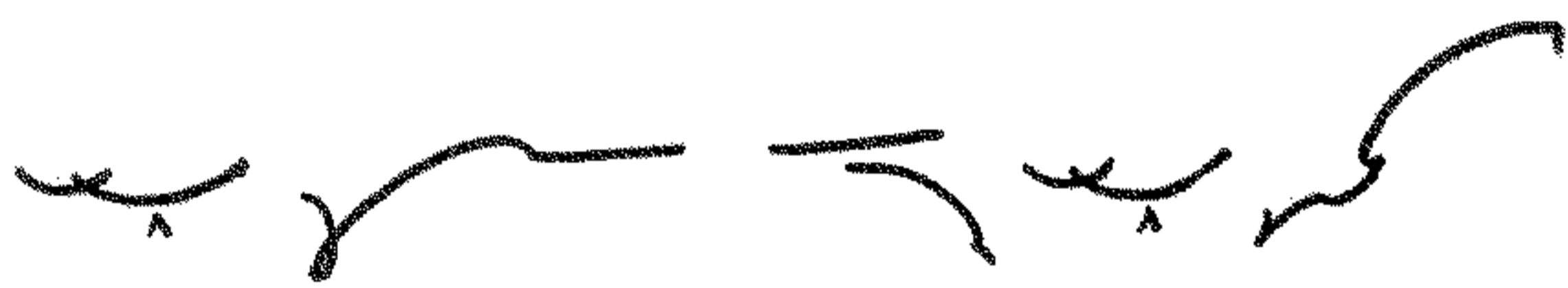
친근한 이웃이 될 것입니다. 저는 국민이 일
하는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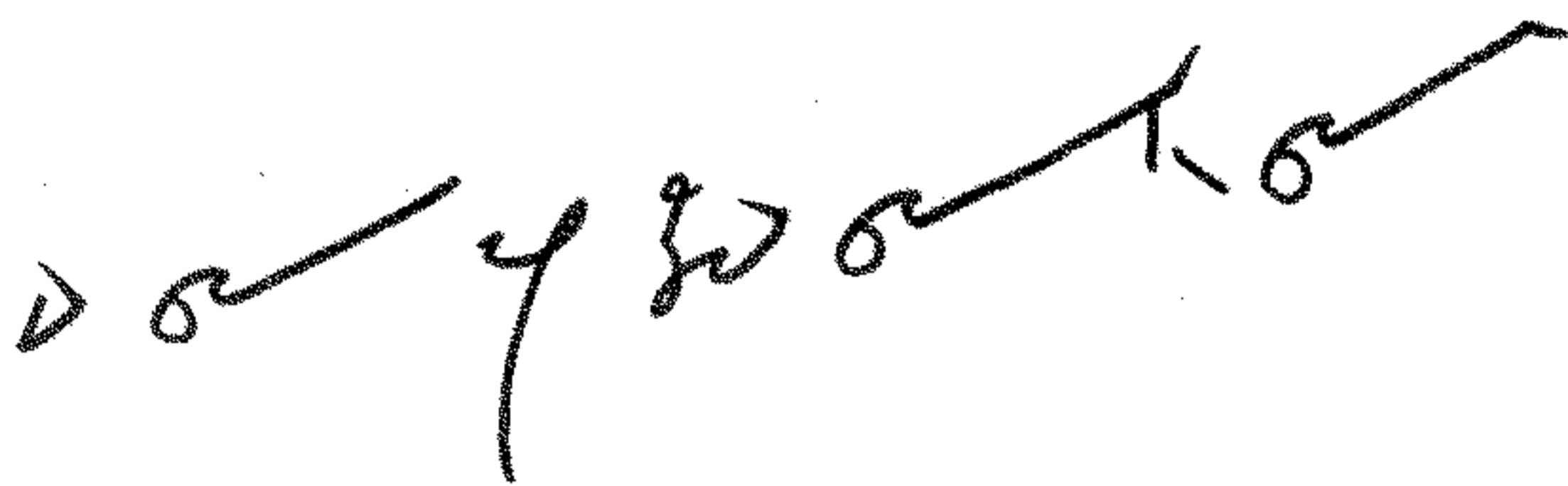
기쁨과 고통이 있는 현장에 함께 있을 것입
니다. 국민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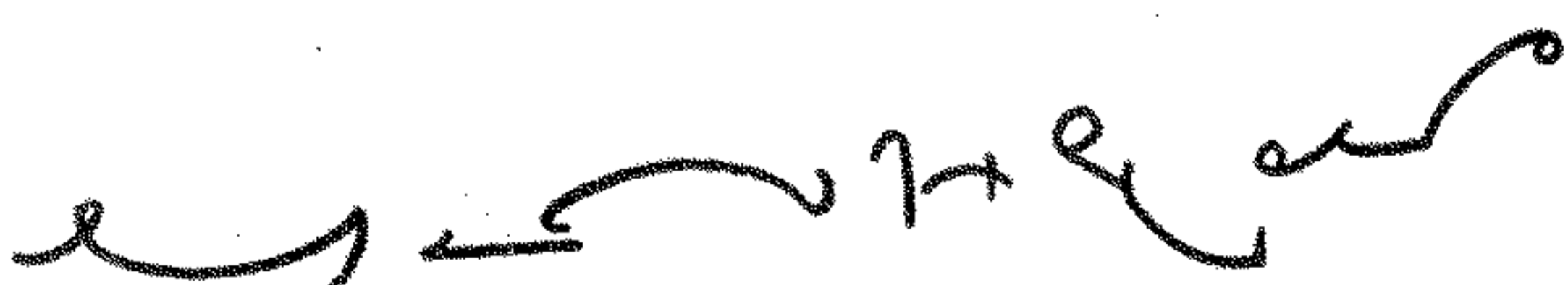
기뻐하고 함께 아파할 것입니다. 기쁨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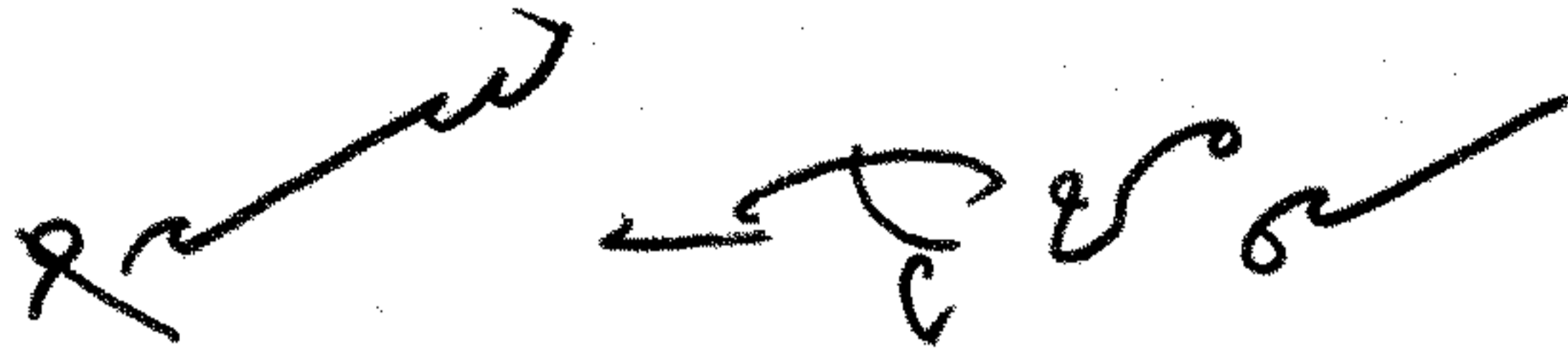
나눌수록 커지고 고통은 나눌수록 작아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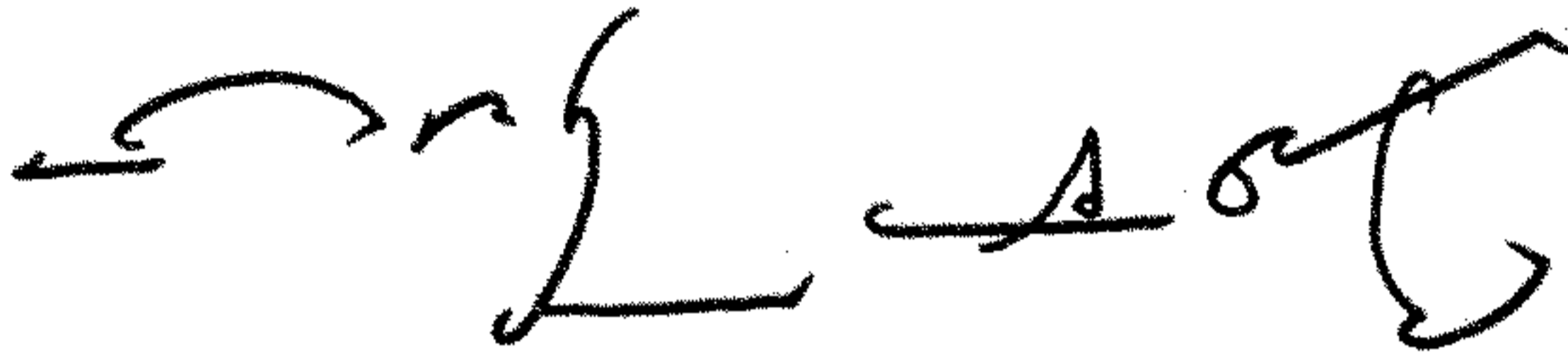
때문입니다. 정치 역시 달라져야 합니다. 정
치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안겨주는



생활정치여야 합니다. 국민의 불편을 덜어 주는 정치,



국민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 자신이 쓴 속기문자를 읽어보자(실전연습은 쓰고 읽기를 위주로 한다).

손풀기 : 기본문자 복습 ...ㄴ받침, ㅇ받침 3회 이상 써보자.

8-1-3. 「~을, ~를」 어찌구

정측	위~
_____ / 위시~	
반측	맞이~

「~을」 어찌구도 「위시~ 위~ 맞이~」가 먼저 입에 붙도록 「위시~ 위~ 맞이~」를 반복하여 익힌 다음 앞에서 배운 「하여」를 그 자리에 찍으면 「위시하여, 위하여, 맞이하여」가 되고 「해서」를 쓰면 「위시해서, 위해서, 맞이해서」가 되므로 쉽게 응용이 된다.

하여	_____ /	을 위시하여	해서	_____ /	을 위시해서
	_____ /	을 위하여		_____ /	을 위해서
	_____ /	을 맞이하여		_____ /	을 맞이해서

해*	_____ /	을 위시해	하	_____ /	을 위시한
	_____ /	을 위해		_____ /	을 위한
	_____ /	을 맞이해		_____ /	을 맞이한

하여도	_____ /	을 위시하여도	하여서	_____ /	을 위시하여서
	_____ /	을 위하여도		_____ /	을 위하여서
	_____ /	을 맞이하여도		_____ /	을 맞이하여서

하여는	_____ /	을 위하여는	_____ /	을 위하다
가	_____ /	을 가리지 않는		

마	_____ /	을 무릅쓰고	따	_____ /	을 따라
	_____ /	을 모시고	바	_____ /	을 비롯
	_____ /	을 막론하고			

참고 : 가~이까지 「가를 위시하여, 나를 위시하여...」 식으로 먼저 연습하는 것이 좋다.

<응용연습>

의장을 위시하여



의장을 위하여



의장을 맞이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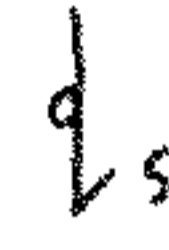
의원을 위시해서



의원을 위해서



의원을 맞이해서



선생을 위시해



선생을 위해



선생을 맞이해



장관을 위시한



장관을 위한



장관을 맞이한



그대를 위하여도



그대를 맞이하여도



사랑을 위하여도



오빠를 위시하여서



오빠를 위하여서



오빠를 맞이하여서



나라를 위하여는



조국을 위하여는



민족을 위하여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좌우를 가리지 않는



위험을 무릅쓰고



은사를 모시고



상황을 막론하고



부모를 따라



부모를 따라서



부모를 따른



대통령을 비롯



대통령을 비롯하여



대통령을 비롯해



<실전연습 4> ... 한글문장을 속기문자로 옮겨보자.

이렇게

이렇게 정부가 달라지고 정치가 달라질 때
변화와

개혁을 통한 살아있는 안정이 이 땅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개혁을 통한 살아있는 안정이 이 땅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의와 화해로 새 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 나
갑시다. 지난날

정의와 화해로 새 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 나
갑시다. 지난날

우리는 계층으로 찢기우고 지역으로

우리는 계층으로 찢기우고 지역으로

대립되고 세대로 갈라지고 이념으로 분열되
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대립되고 세대로 갈라지고 이념으로 분열되
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벽은 허물어야 합니다. 한은 풀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벽은 허물어야 합니다. 한은 풀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들 속에 살아온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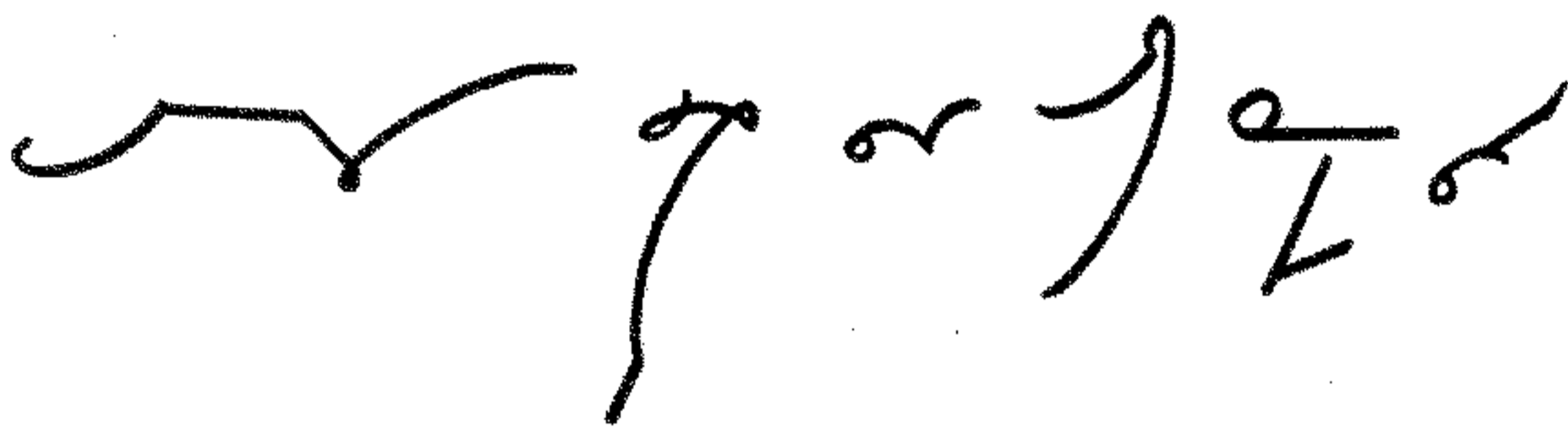
그들 속에 살아온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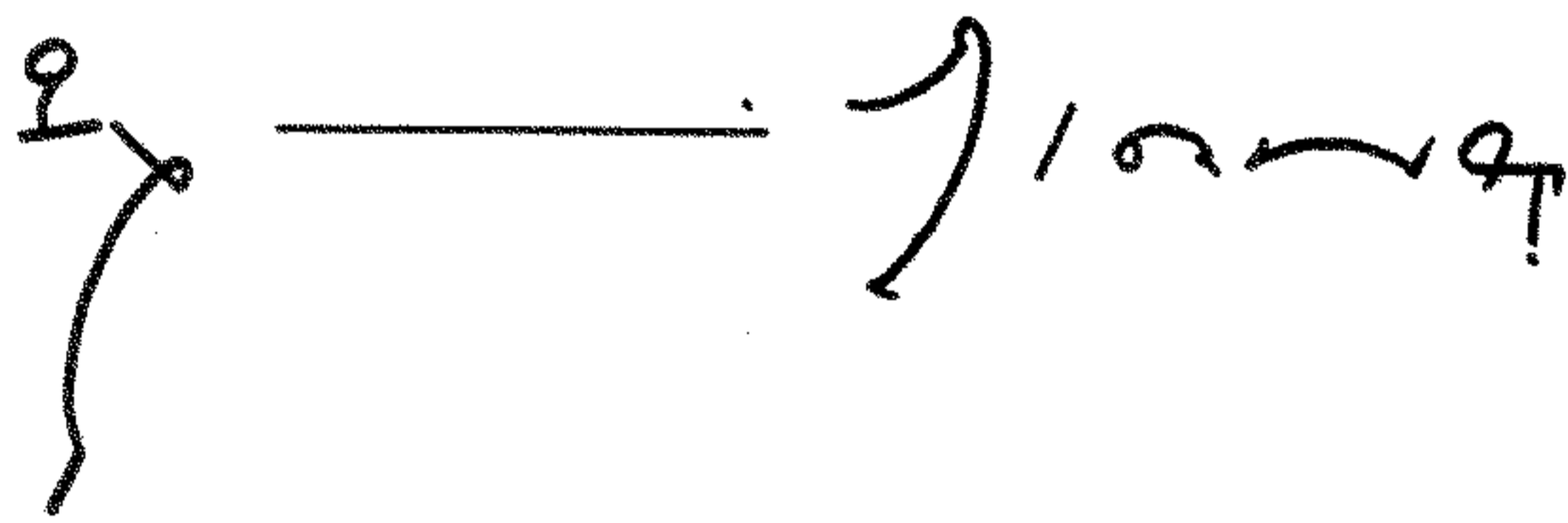
위로받아야 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더 큰
것을 양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성급하게 내 몫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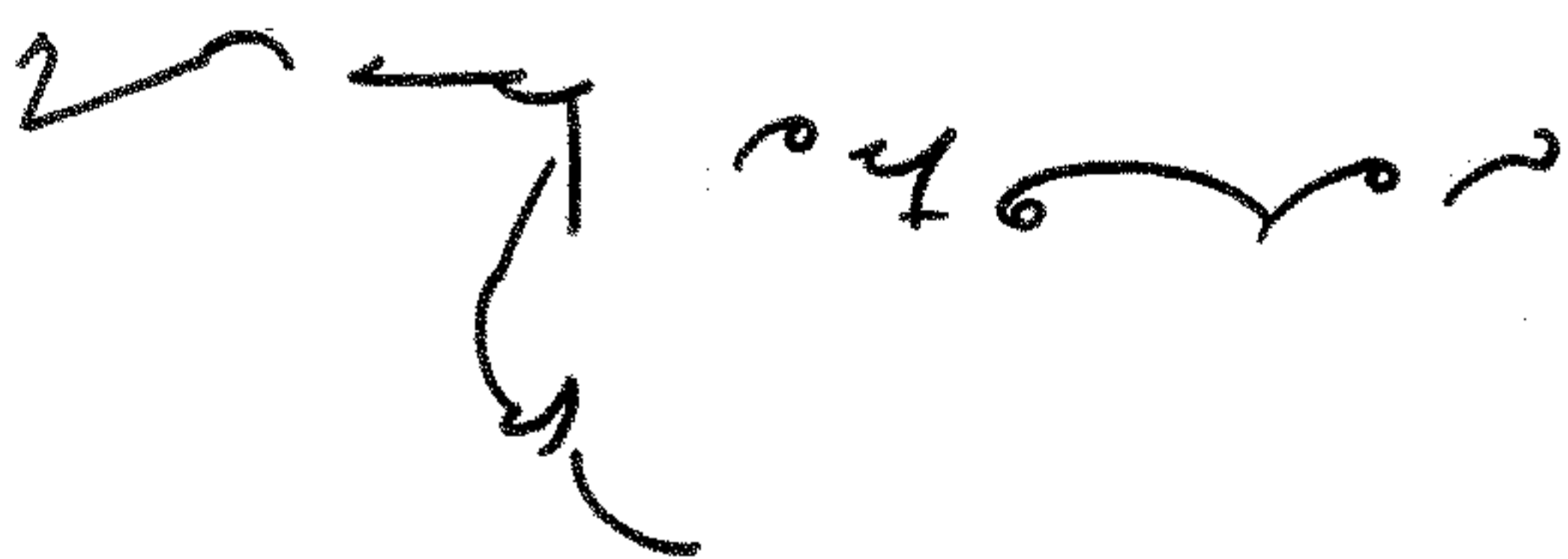
요구하지 맙시다. 먼저 우리 공동체 전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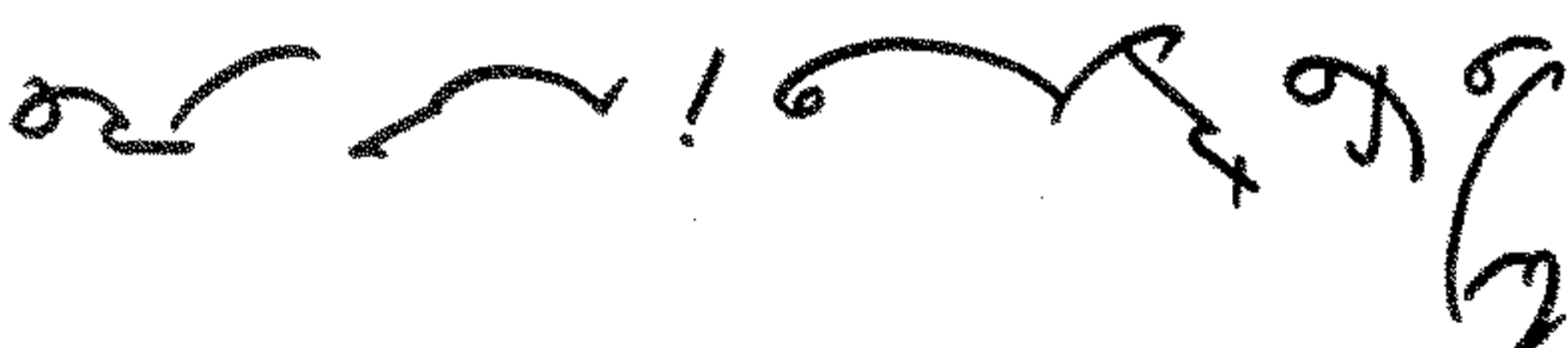
생각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은 몫을 갖
기 위하여



더 큰 떡을 만듭시다.



7천만 국내외 동포 여러분! 저는 역사와 민
족이 저에게



맡겨준 책무를 다하여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전심전력을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for the first staff.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상적인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for the second staff.

통일지상주의가 아닙니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for the third staff.

합의입니다. 김일성 주석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 협력할 자세를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for the fourth staff.

갖추지 않으면 안됩니다. 세계는 대결이 아니라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for the fifth sta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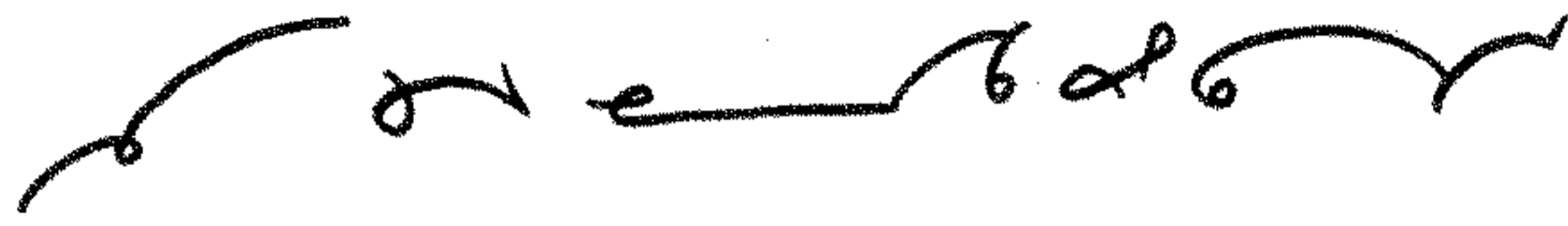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for the sixth sta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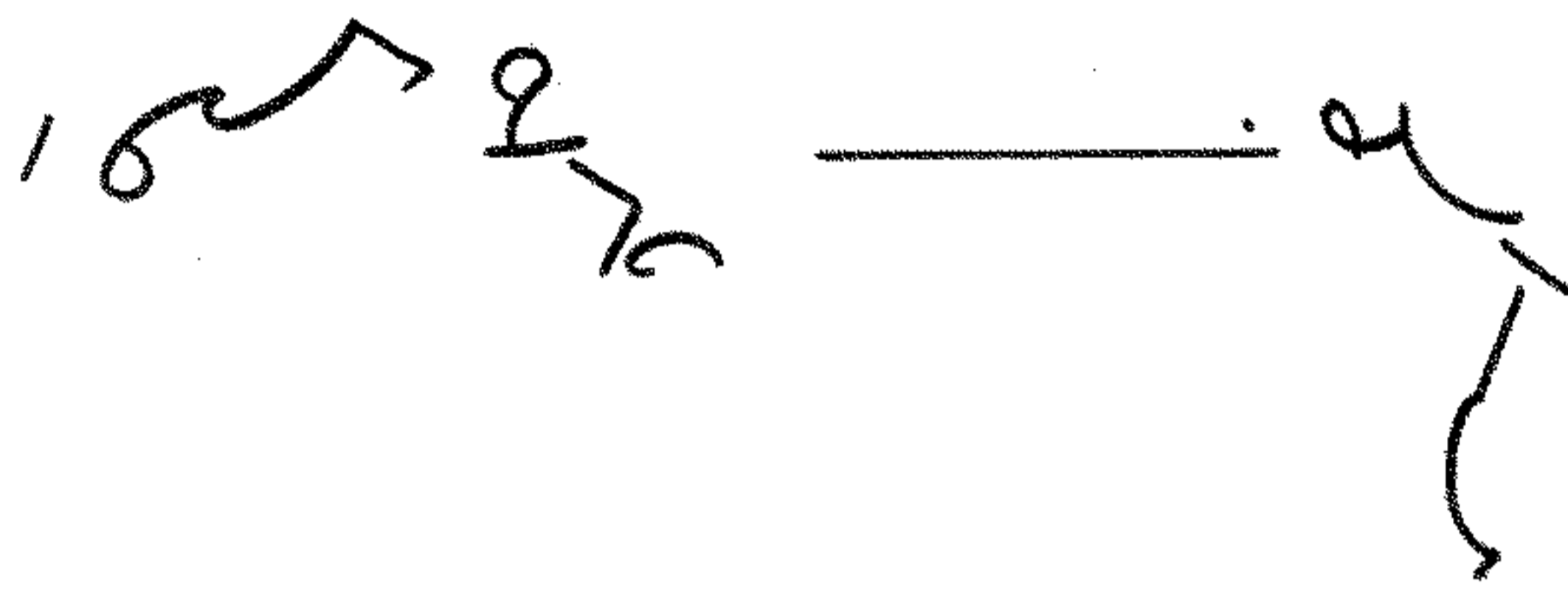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올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념이나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for the seventh sta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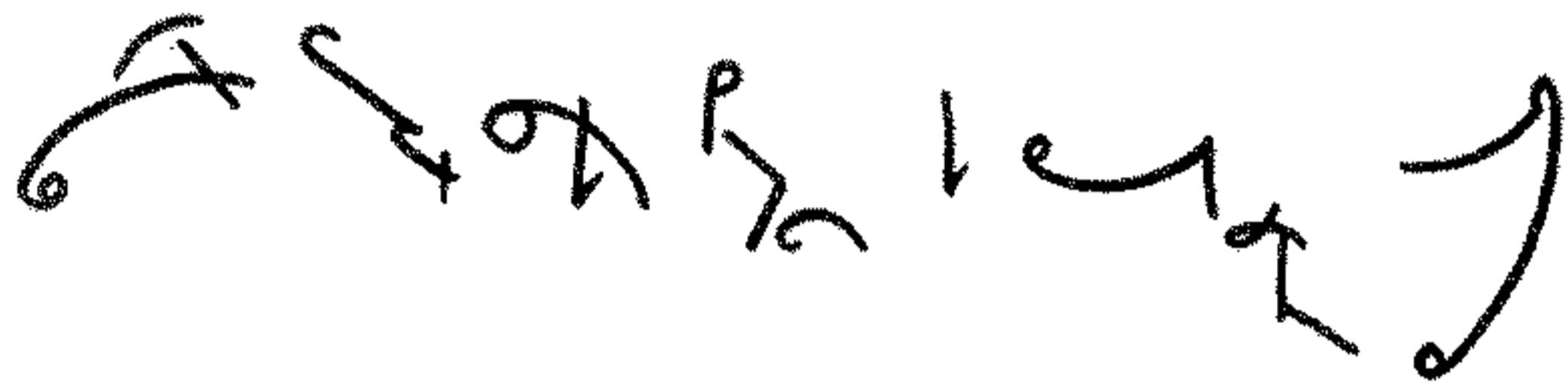
어떤 사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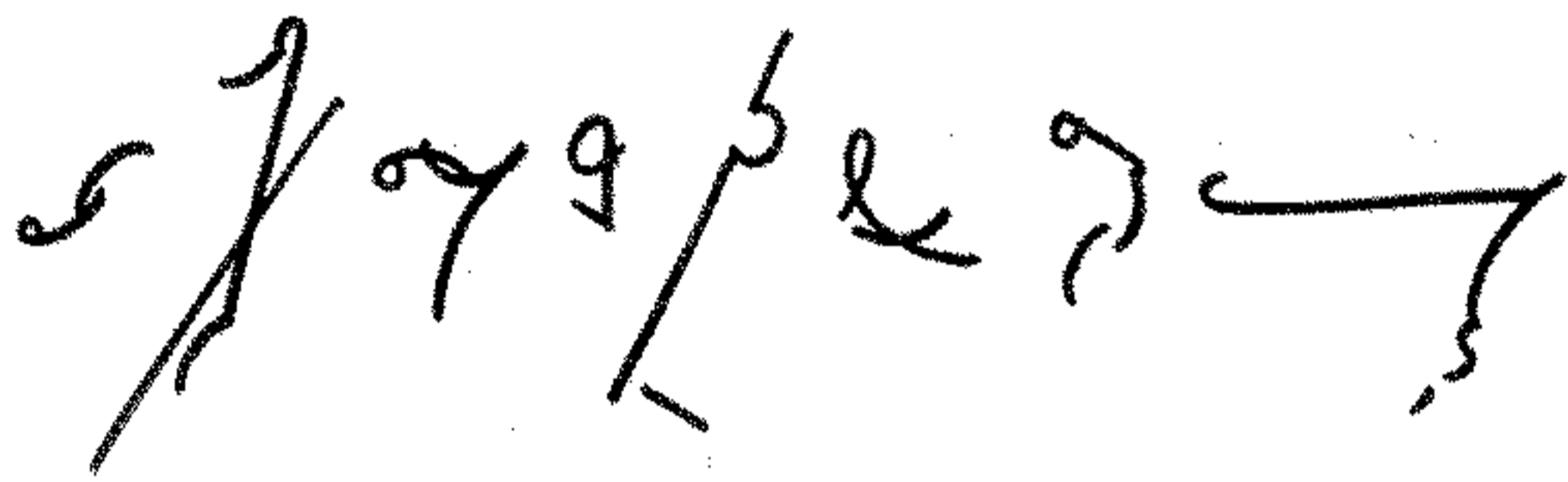
주지 못합니다. 김주석이 참으로 민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남북한 동포의



진정한 화해와 통일을 원한다면 이를 논의하기 위해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봄 날 한라산 기슭에서도












좋고 여름날 백두산 천지 못가에서도 좋습니다.









* 자신이 쓴 속기문자를 읽어보자 <실전연습은 쓰고 읽기를 위주로 한다>.

손풀기 : 기본문자 복습 ...ㄹ받침, ㄱ받침 3회 이상 써보자.

8-1-4. 「~(으)로」 어찌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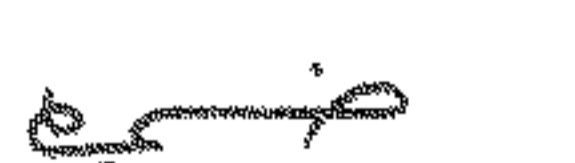








점		로 말미암아	해서*		로 말미암아서
은		로 말미암은	이		로 말미암다

하여		로 인하여	해*		로 인해
해서		로 인해서	한		로 인한
		(~로 인하다)			

점		로부터	는		로부터는
도		로부터도	의		로부터의
서		로부터서	터		로부터 벗어나
점		로 하여금	하여		로 하여

참고 : 가~이까지 「가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식으로 먼저 연습하는 것이 좋다.

<응용연습>

그대로 말미암아	그대로 말미암은	그대로 말미암아서
		
결과로 인하여	결과로 인해서	결과로 인해
		
결과로 인한	속박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는
		
속박으로부터도	속박으로부터의	속박으로부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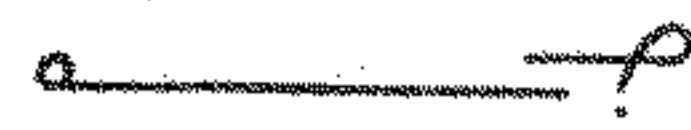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조국으로 하여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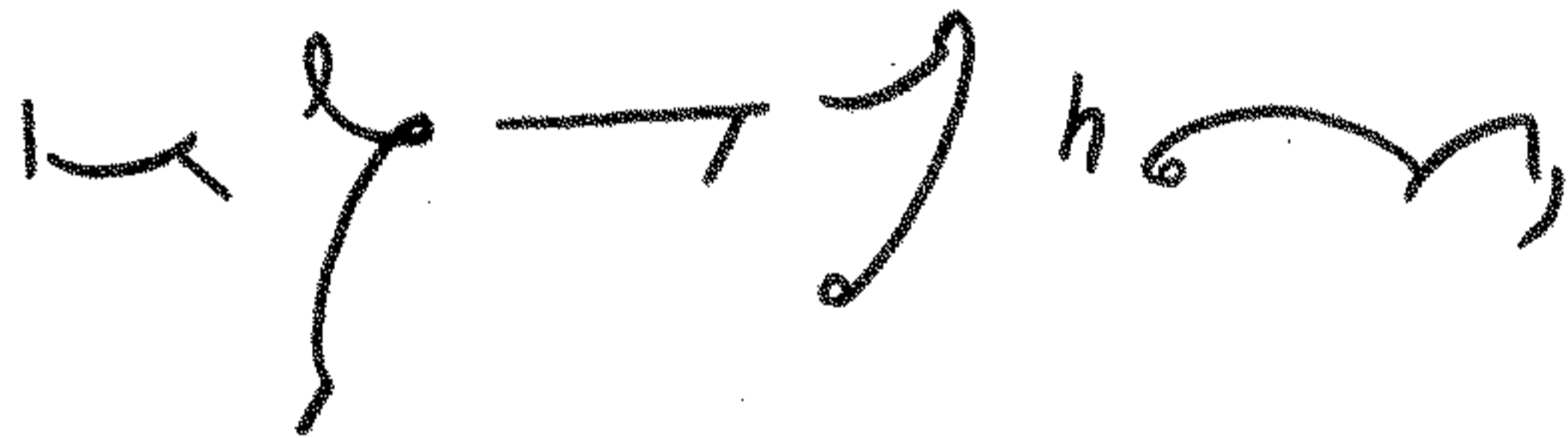
근거로 하여



<실전연습 5> ... 한글문장을 속기문자로 옮겨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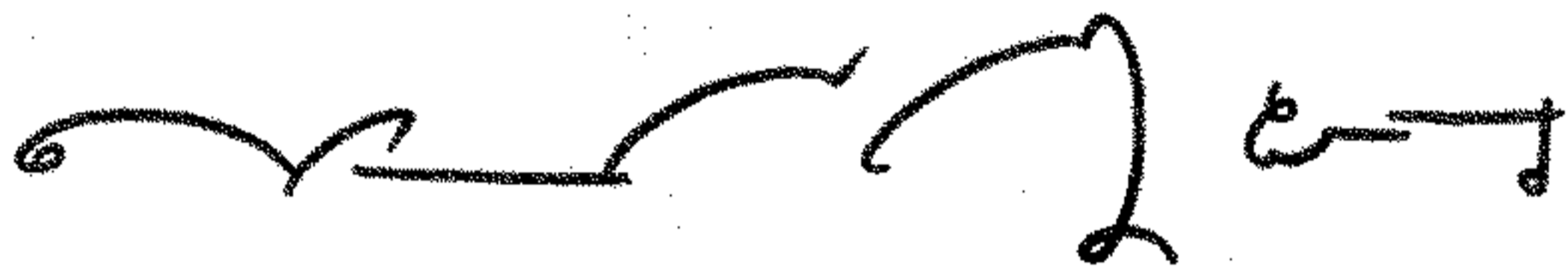
거기에서 가슴을 터놓고 민족의 장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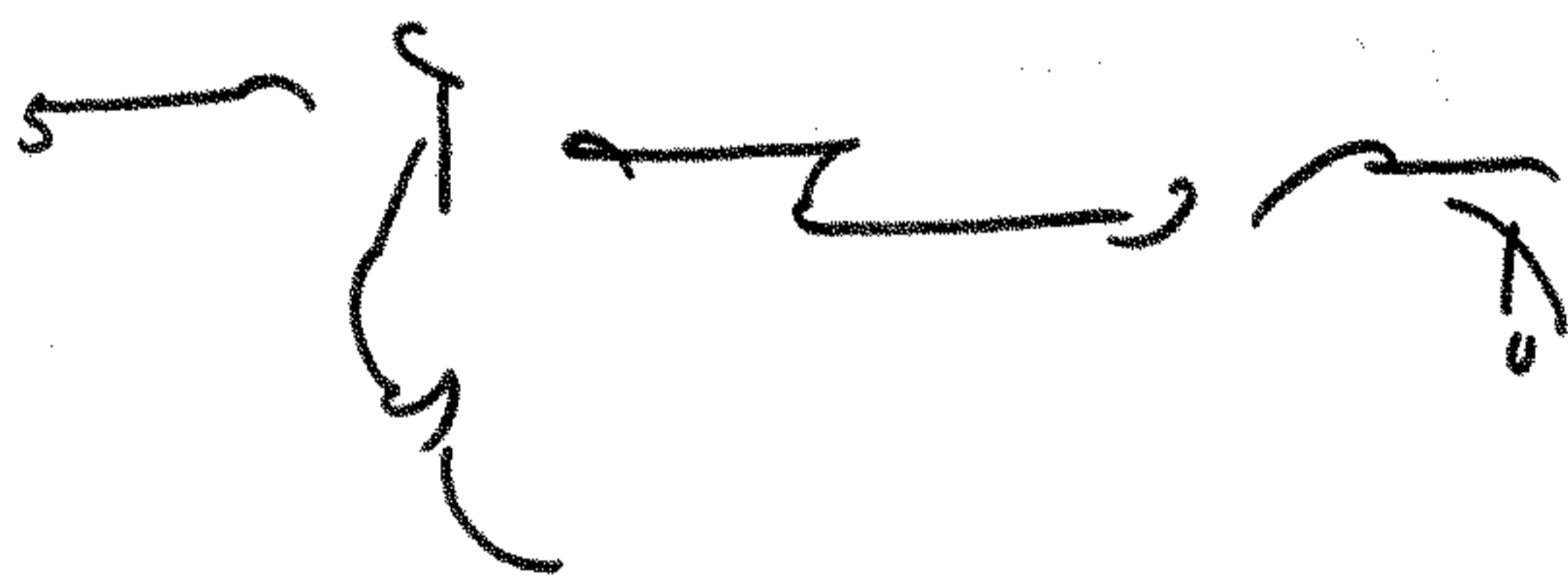
의논해 봅시다. 그 때 우리는 같은 민족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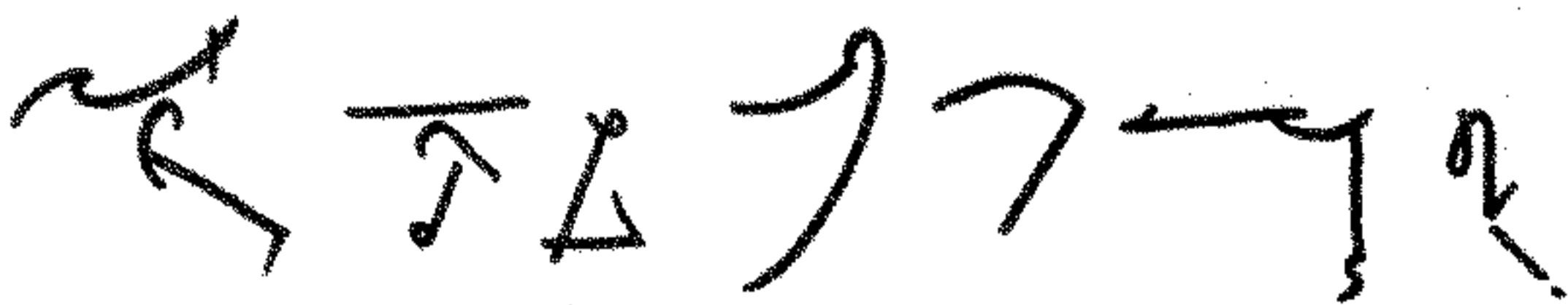
원점에 서서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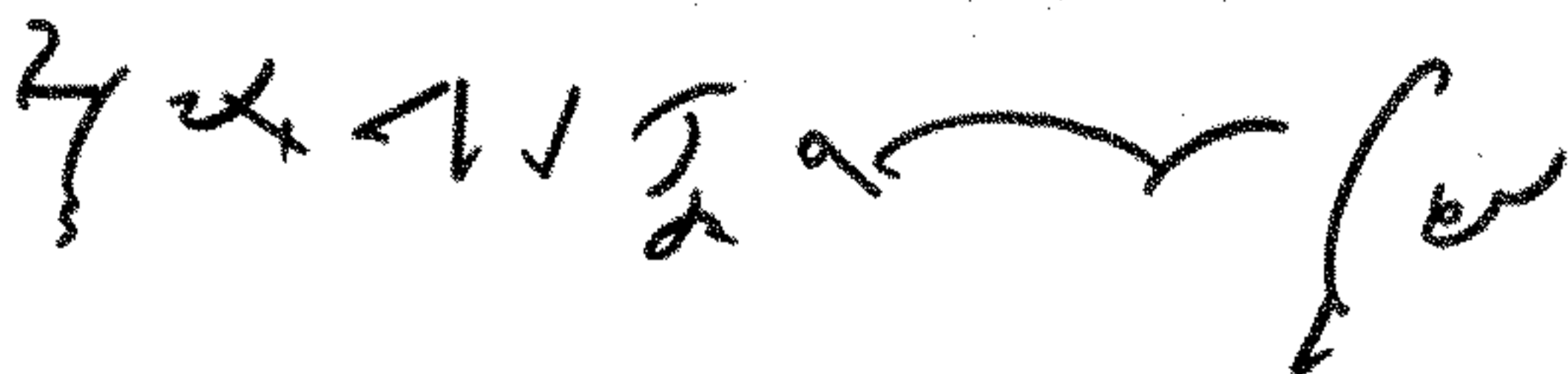
민족의 긍지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5백만 해외동포 여러분! 금세기 안에 조국은
통일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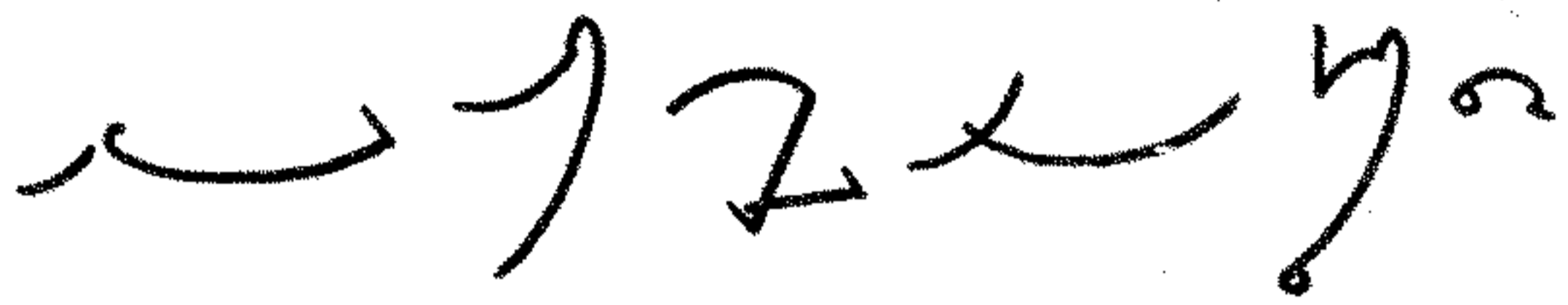
자유와 평화의 고향땅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국내외에서 힘을 합하여



세계 속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자랑스러
운 한민족 시대를 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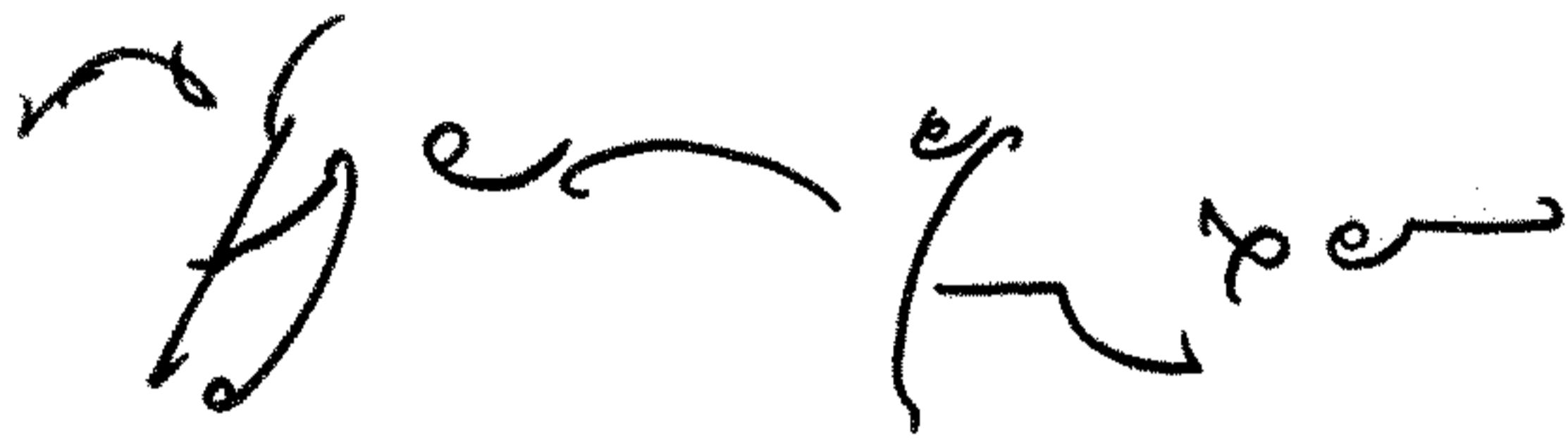
나갑시다. 국민 여러분! 신한국 창조는 누가 해 주는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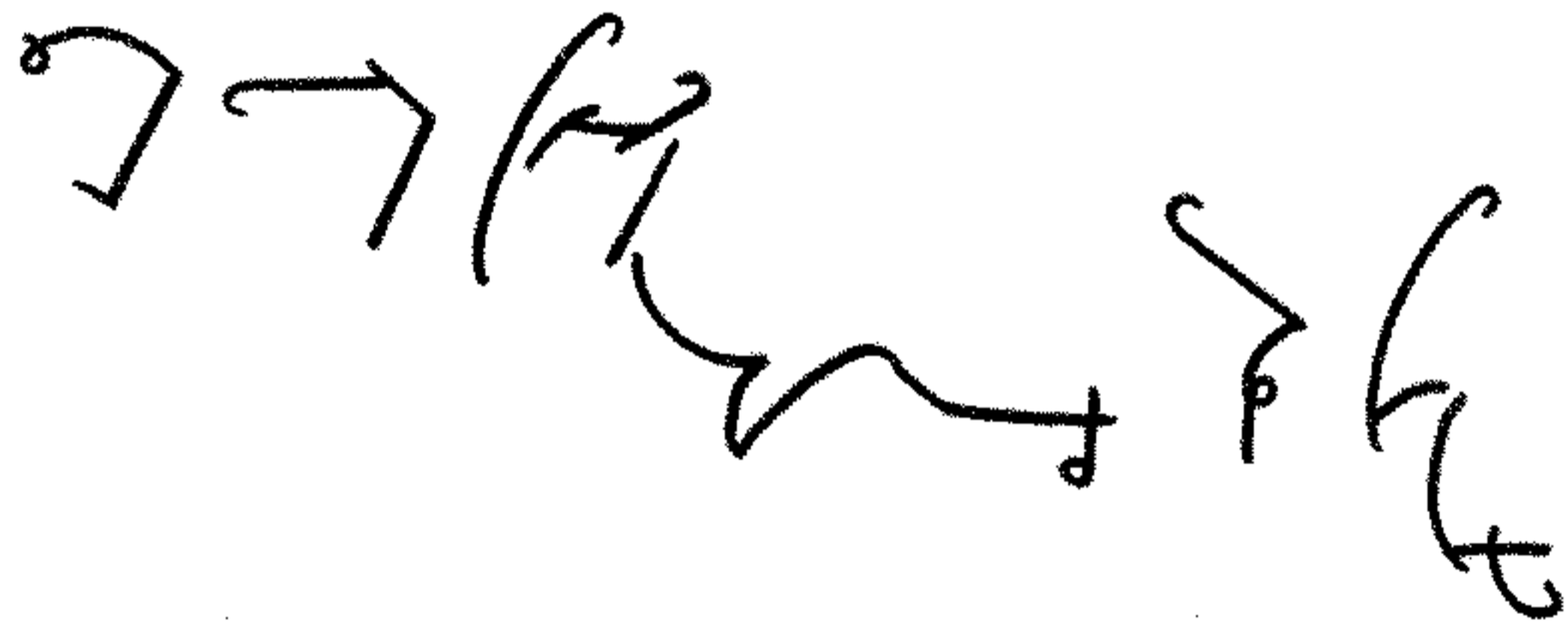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많은



신한국인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땀흘려 일하는 근로자, 새로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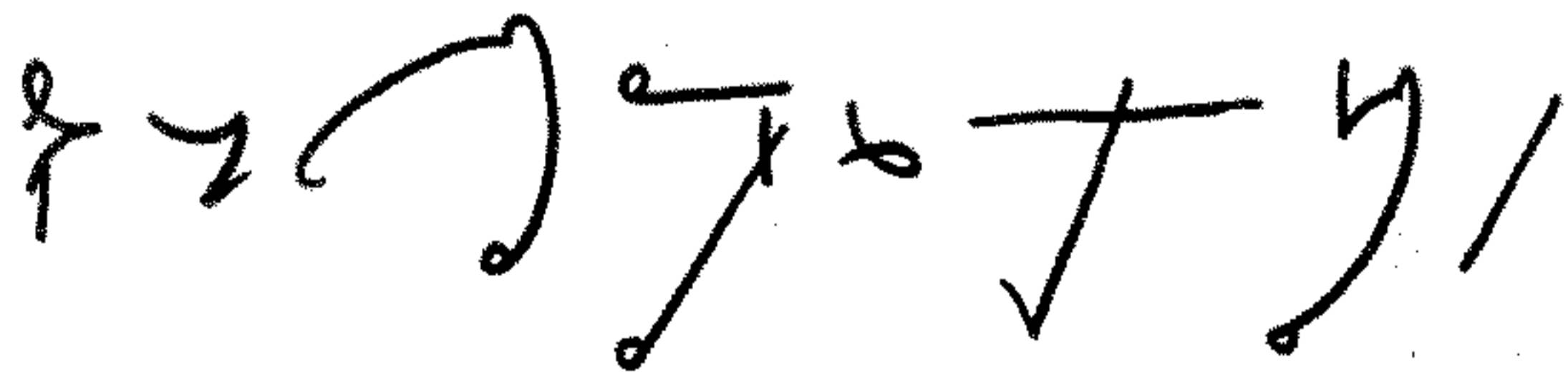
작물로 소득을 올리는 농민,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연구에



몰두하는 과학도, 시장개척에 동분서주하고 있는 회사원, 시제품 개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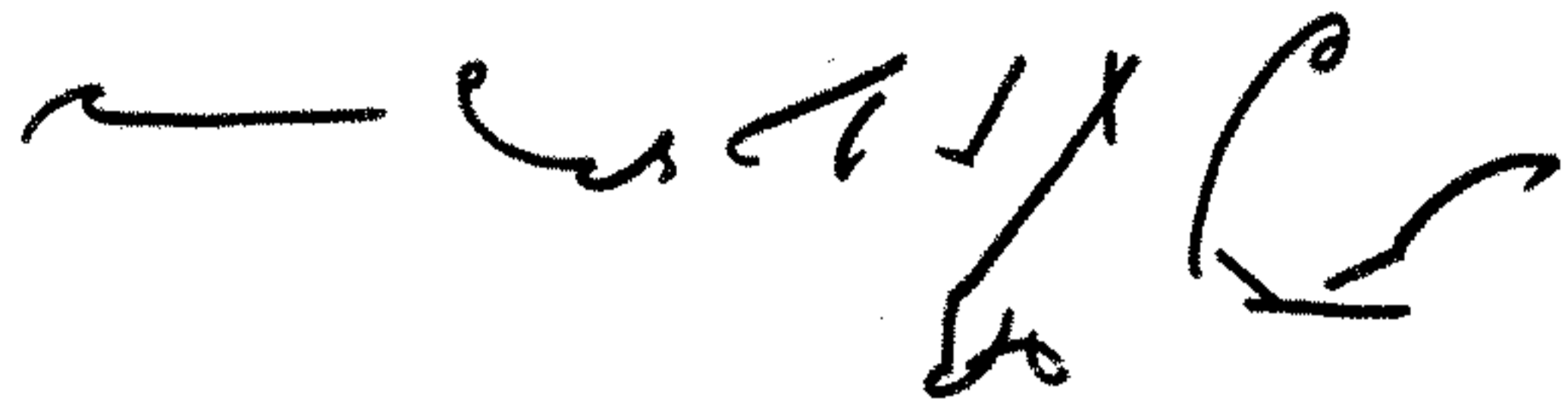
성공한 중소기업인, 그리고



밤새워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 자리에는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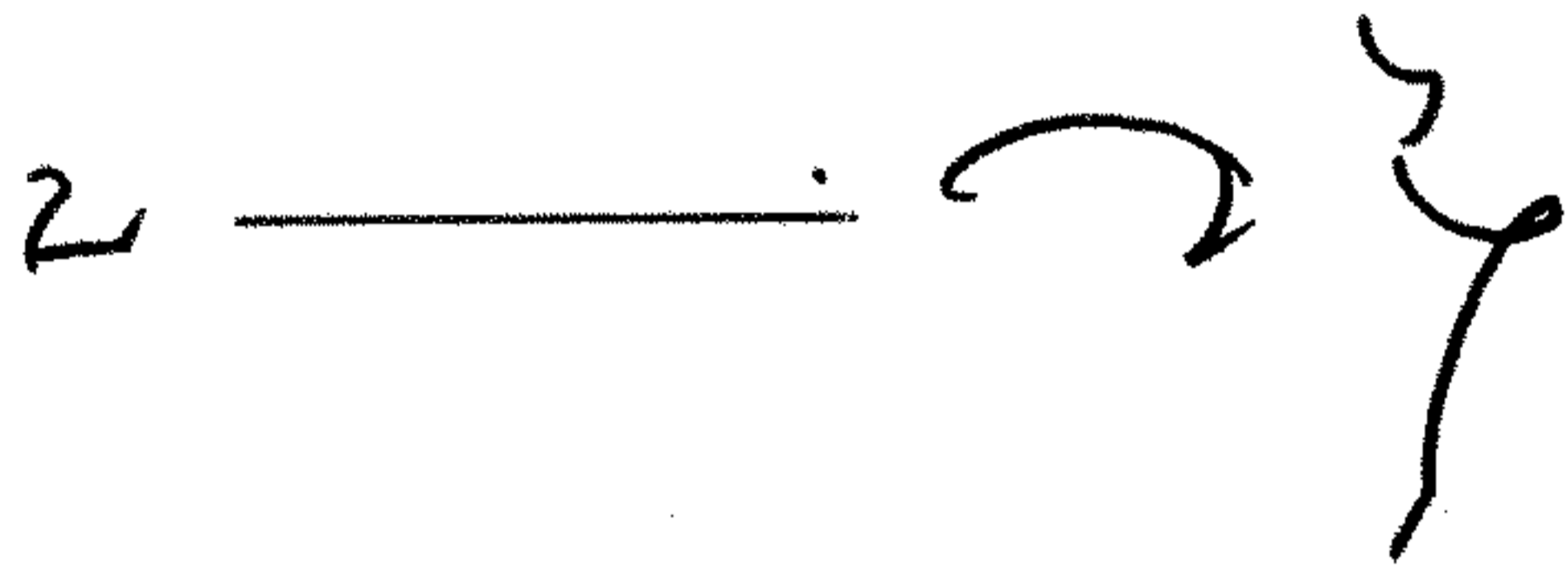
묵묵히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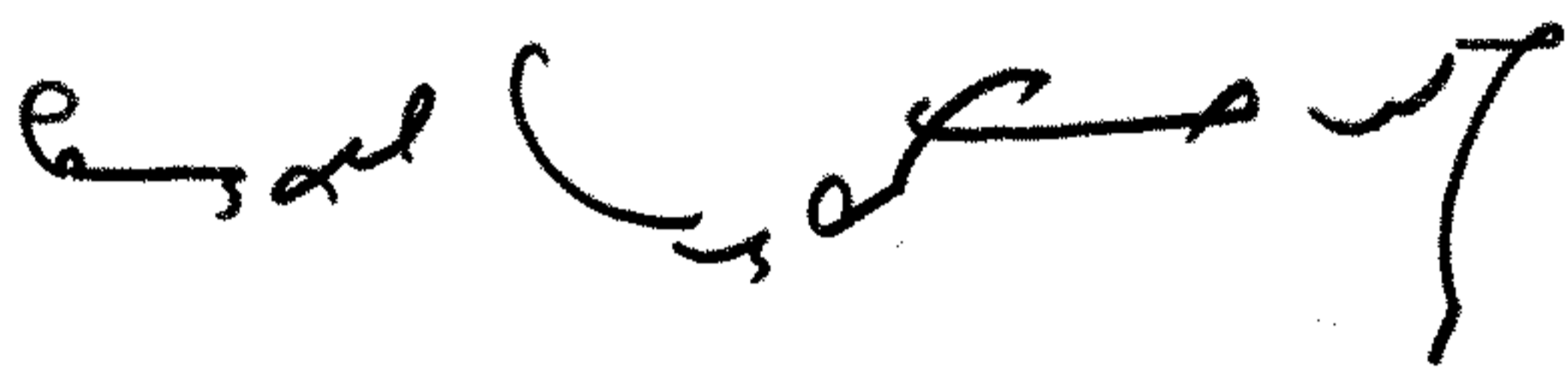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들이야말로
신한국 창조의



주역이요 주인입니다. 특히 이 땅의 젊은이
여러분!



세계를 그리고 미래를 바라봅시다.



방관에서 참여로 비탄에서 창조의 길로 나
아갑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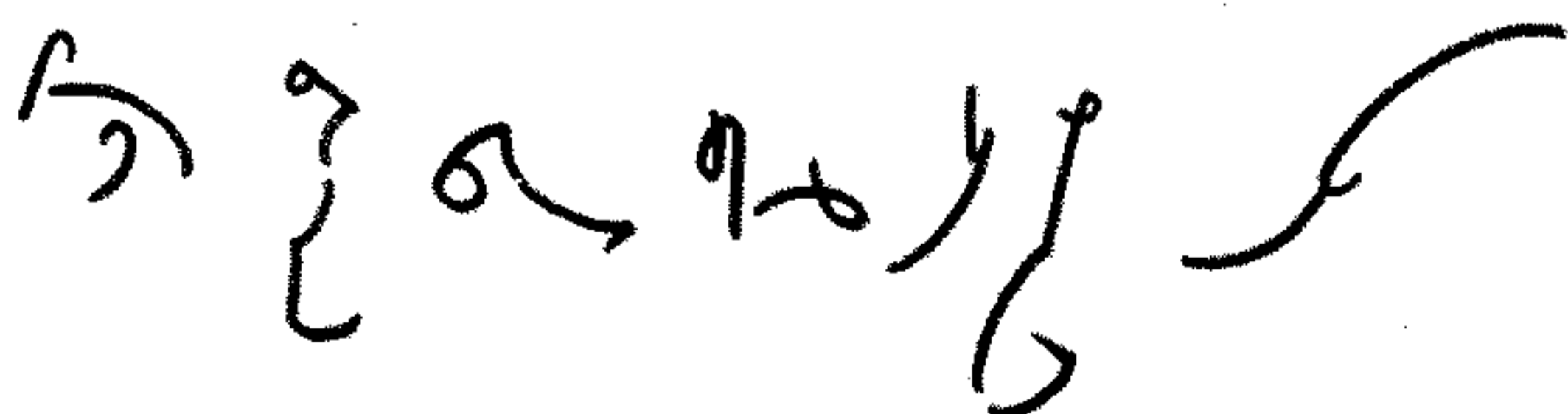
미래는 여러분의 것이요, 신한국은 바로 여
러분의 세상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집시다. 신한국을 창조합시다. 신한
국의 창조는



대통령 한 사람이나 정부의 힘만으로 이룩될
수 없습니다. 오직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with arrows indicating stroke direction.

우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모두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한국은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with arrows indicating stroke direction.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내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with arrows indicating stroke direction.

눈물과 땀이 필요합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우리 다함께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with arrows indicating stroke direction.

분담합시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야만 합니다. 자, 우리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with arrows indicating stroke direction.

모두 희망과 꿈을 안고 새롭게 출발합시다.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힘차게 달려 갑시다.

Handwritten character 'ㄱ'.

감사합니다.

* 자신이 쓴 속기문자를 읽어보자<실전연습은 쓰고 읽기를 위주로 한다>.

손풀기 : 기본문자 복습...ㄹ받침, ㄱ받침 3회 이상 써보자.

8-1-5. 「~와, ~과」 어찌구

더불어	_____ㄷ	와 더불어	아	_____ㅈ	와 아울러
서	_____ㄷ	와 더불어서	아서	_____ㅈ	와 아울러서
와	_____ㅈ	와 관련		_____ㅈ	와 관련해
	_____ㅈ	와 관련해서		_____ㅈ	와 관련해 가지고
같이	_____ㅇ	와 같이	같은	_____ㅈ	와 같은
함께	_____ㅈ	와 함께	마찬가지	_____ㅈ	와 마찬가지로
당	_____ㅈ	와 동시에			

8-1-6. 「~에도, ~도」 어찌구

하	_____ㅈ	에도 불구하고	사	_____ㅈ	에도 불구하고
---	--------	---------	---	--------	---------

참고 : 가~이까지 「가와 더불어, 나와 더불어...」 식으로 먼저 연습하는 것이 좋다.

<응용연습>

자료와 더불어	자료와 더불어서	그와 아울러	이와 아울러서
		_____ㅈ	_____ㅈ
사실과 관련해서	사건과 관련해	그와 같이	이와 같이
		_____ㅇ	_____ㅇ
소문과 같이	그와 같은	이와 같은	역사와 함께
	_____ㅈ		
바람과 함께	그와 마찬가지로	이와 마찬가지로	그와 동시에
	_____ㅈ		_____ㅈ
이와 동시에	질문과 동시에	경황중에도 불구하고	역경에도 불구하고

<실전연습 6> ... 한글문장을 속기문자로 옮겨보자.

도산 안창호, 오직 대한을 위해 일합시다.

도산 안창호, 오직 대한을 위해 일합시다.

금일은 우리가 일할 때입니다. 너도 하고 나도 해서 대한 사람은

금일은 우리가 일할 때입니다. 너도 하고 나도 해서 대한 사람은

남녀 노소 하나 남김없이 함께 일합시다. 오늘날은

남녀 노소 하나 남김없이 함께 일합시다. 오늘날은

일만을 위해서 일할 때입니다.* 나의 명예를 위하여, 나의 몸을 위하여 하지 말고,

일만을 위해서 일할 때입니다.* 나의 명예를 위하여, 나의 몸을 위하여 하지 말고,

다만 나라를 위하여 일합시다. 독일은 독일을 위하여 일하나니, 대한인도

다만 나라를 위하여 일합시다. 독일은 독일을 위하여 일하나니, 대한인도

응당 대한을 위하여 일할 것이외다. 영국인은 영국을 위하여 일하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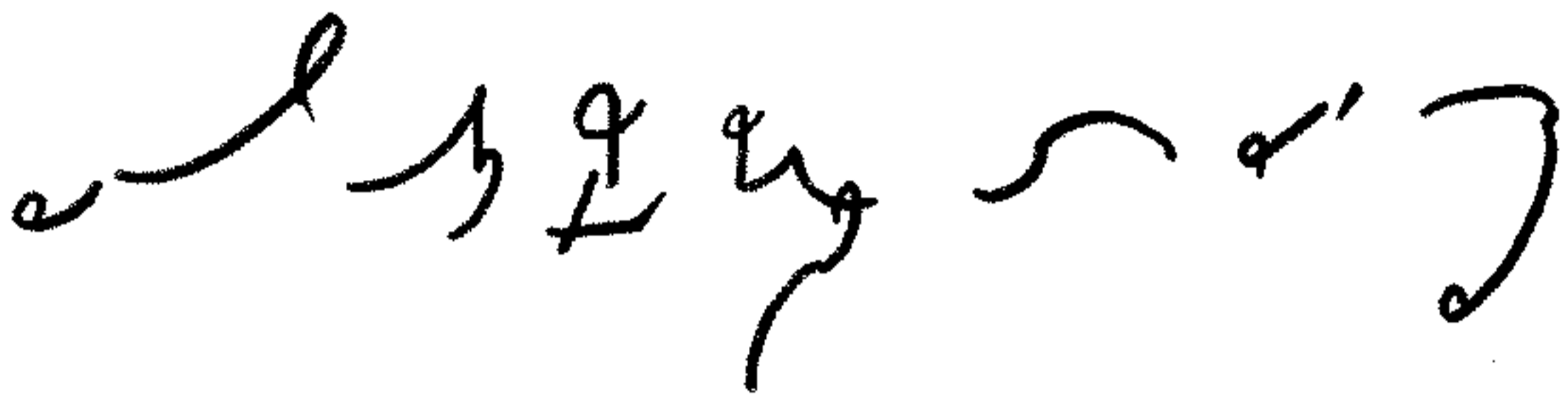
응당 대한을 위하여 일할 것이외다. 영국인은 영국을 위하여 일하므로

제 받을 바를 받고, 미국인은 미국을 위하여 일하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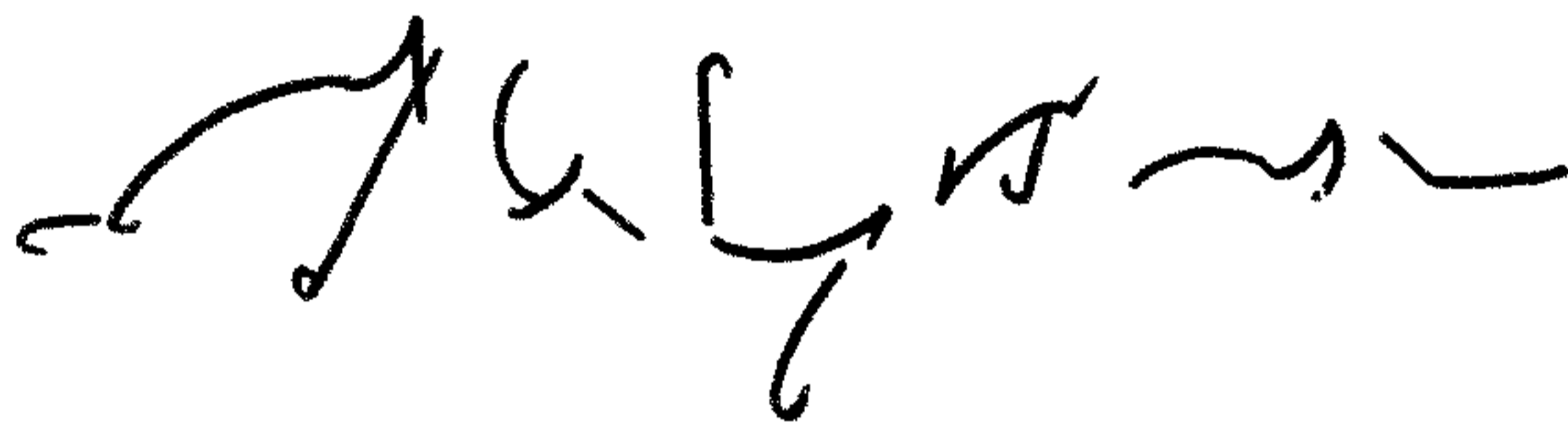
제 받을 바를 받고, 미국인은 미국을 위하여 일하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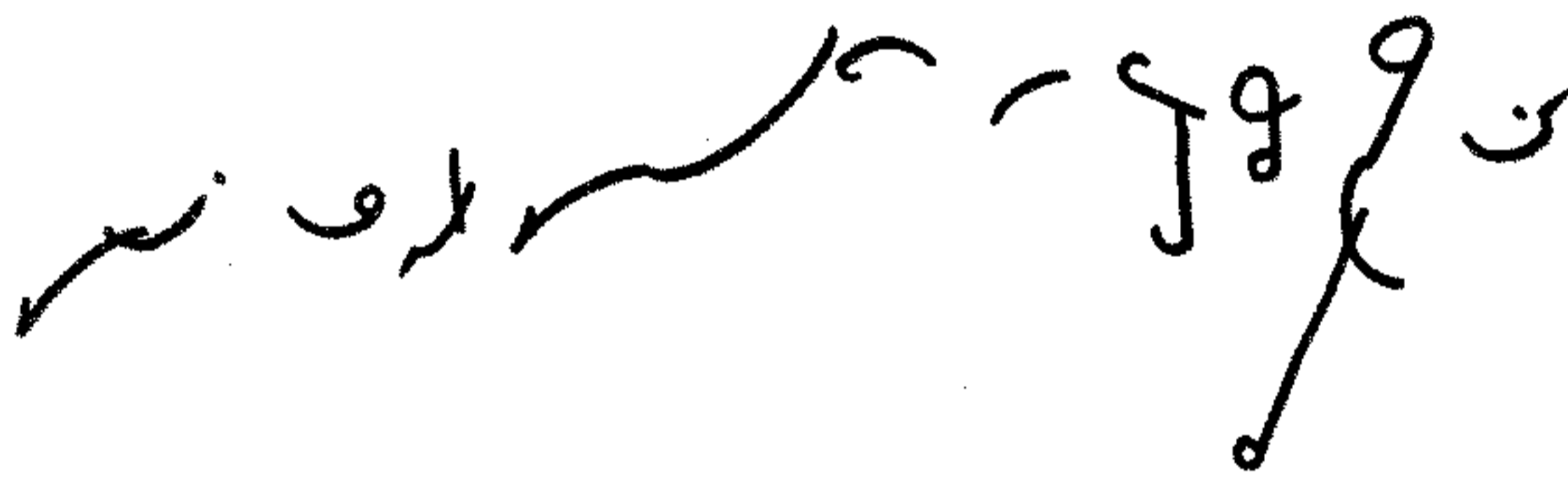
제 것을 얻었으나, 대한 사람은 오직 대한을 위하여 일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있던 것을 잃어버렸소. 아무 철도 모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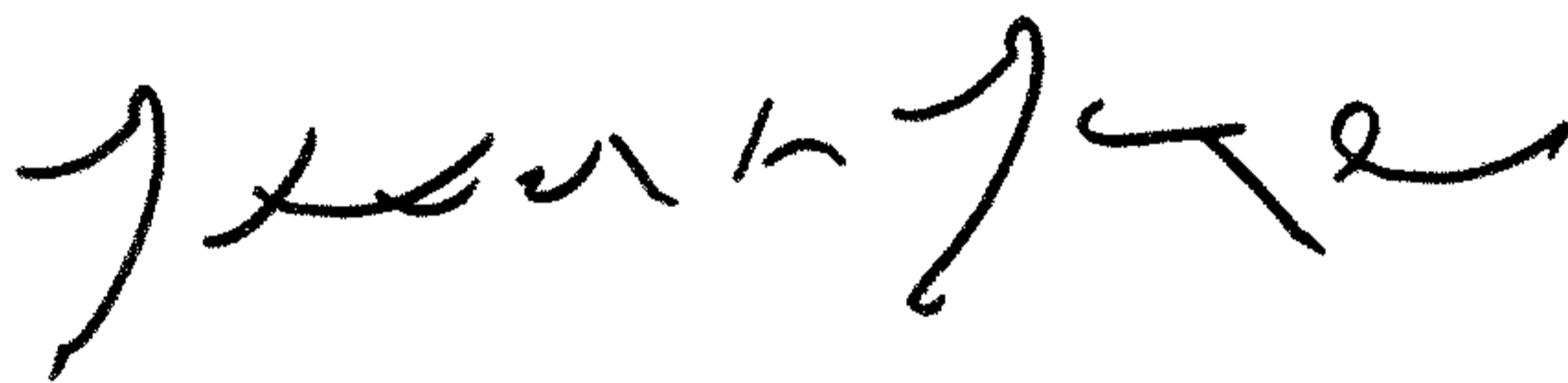
계집아이들이 포악한 왜놈의 손에 죽을 때에 무어라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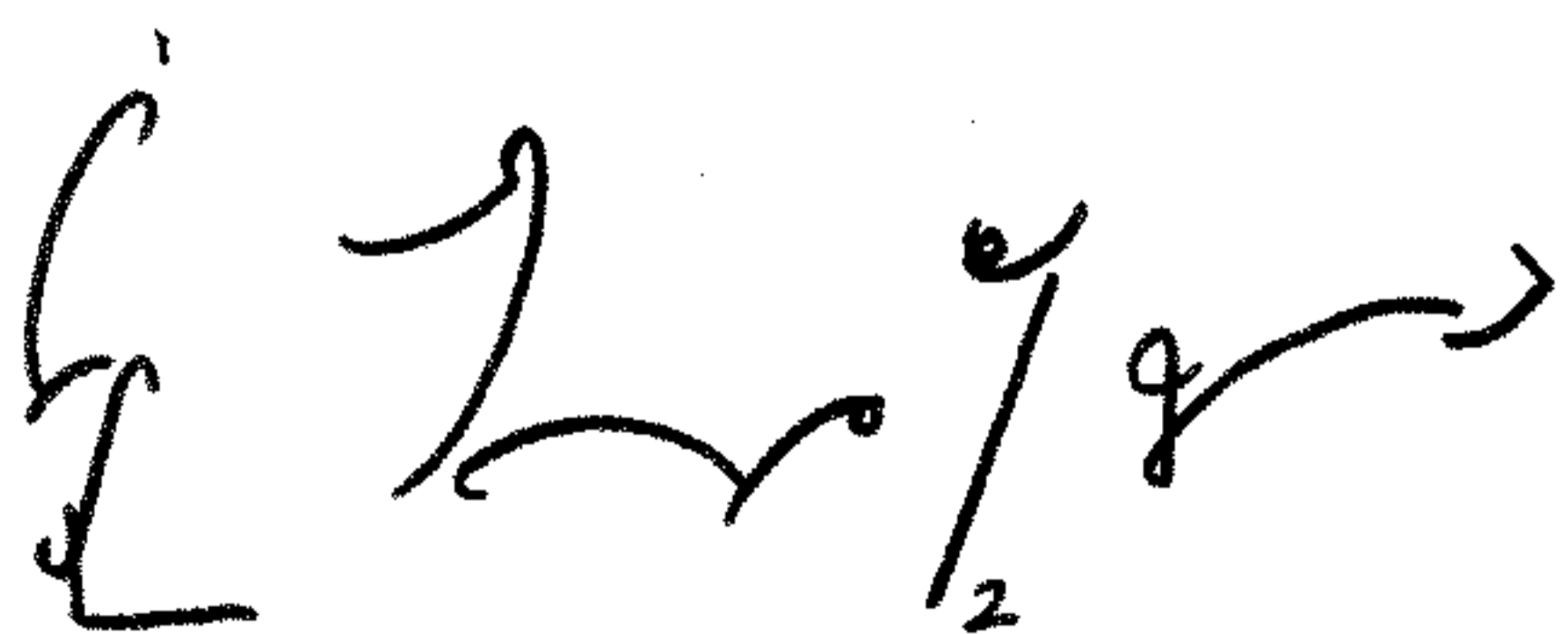
죽었습니까? 나는 이렇게 죽으면 저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나를 위하여



내 자유를 찾아 주리라고 부르짖고 죽었습니다.



우리의 오늘날 약함은 다만 우리에게 교화가 늦게



시작됨에 있고, 우리 민족이 열등한 데 있지 않습니다.

Handwritten cursive Korean characters: 대한민족

대한 민족은 남에게 저서 살려고 아니하는

Handwritten cursive Korean characters: 민족이올시다

민족이올시다. 그러므로 대한 민족은 독립하
고야 말

Handwritten cursive Korean characters: 민족이올시다

민족이올시다. 또 일본이 타민족을 통치할

Handwritten cursive Korean characters: 자력이 없음은 사실이올시다

자력이 없음은 사실이올시다. 어떤 이는 대
한이 강력한 일본에게

Handwritten cursive Korean characters: 합병을 당한 것을 한탄하나

합병을 당한 것을 한탄하나, 나는 오히려 이
것을 다행으로 압니다. 3월 이후로

Handwritten cursive Korean characters: 우리는 갱생하였습니다

우리는 갱생하였습니다. 우리는 갈 곳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어제까지 정탐을

Handwritten cursive Korean characters: 하던 놈도

하던 놈도 오늘은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친
다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a treble clef, a quarter note, a half note, and a quarter note.

하면 우리가 기쁘게 맞을 것이올시다. 어떤 사람은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a treble clef, a quarter note, a half note, and a quarter note.

상해 가운데 대한 사람으로 왜놈의 돈을 먹고 자객 노릇을 하는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a treble clef, a quarter note, a half note, and a quarter note.

자가 있다고 하나, 나는 거짓말로 압니다. 대한 민족 되고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a treble clef, a quarter note, a half note, and a quarter note.

이 안창호를 죽일 놈은 하나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a treble clef, a quarter note, a half note, and a quarter no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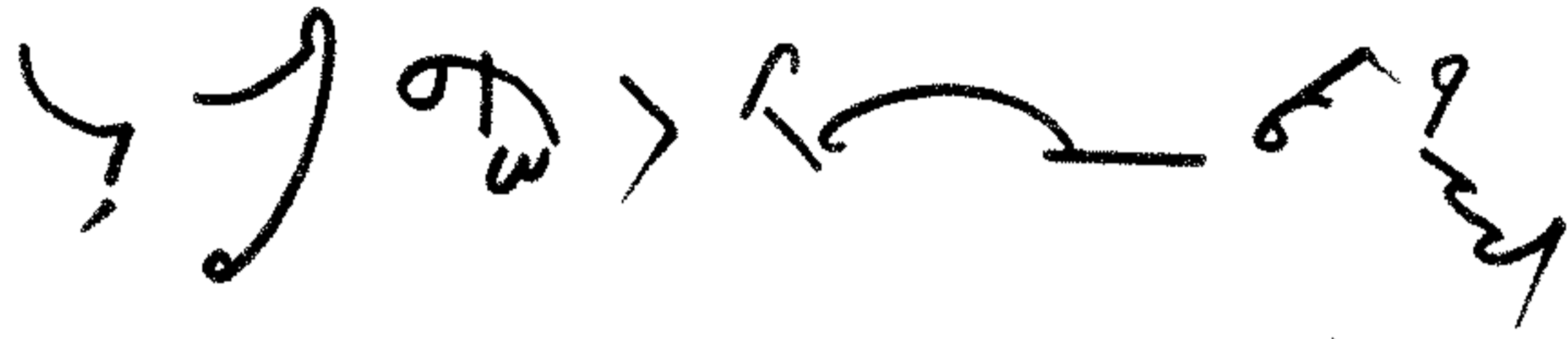
우리는 이제부터 외교를 잘 해야겠습니다. 우리의 뜨거운 피를 흘려야겠습니다.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a treble clef, a quarter note, a half note, and a quarter no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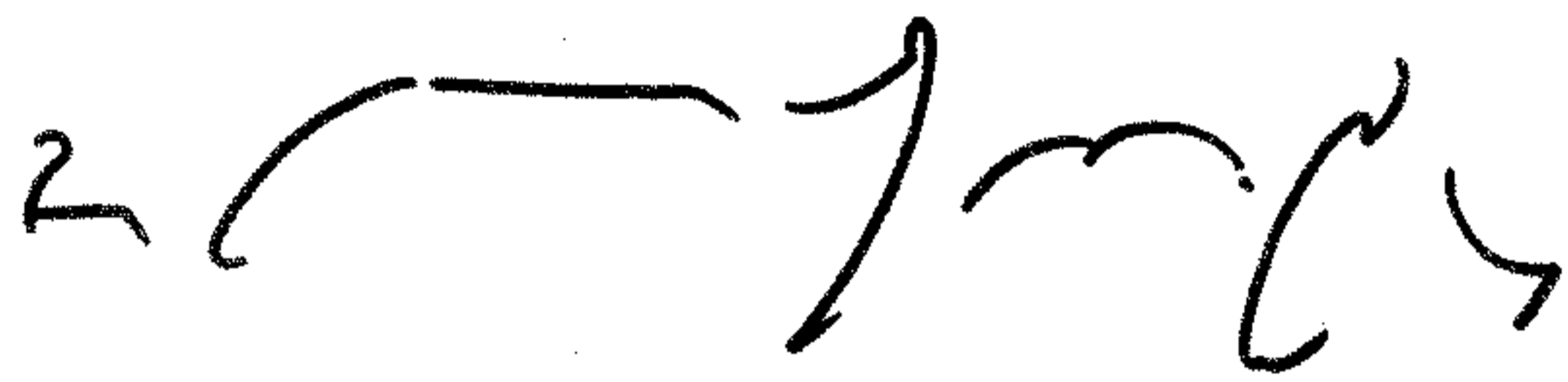
옥에 갇힌 이의 유족도 건져야겠습니다. 재정문제도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a treble clef, a quarter note, a half note, and a quarter no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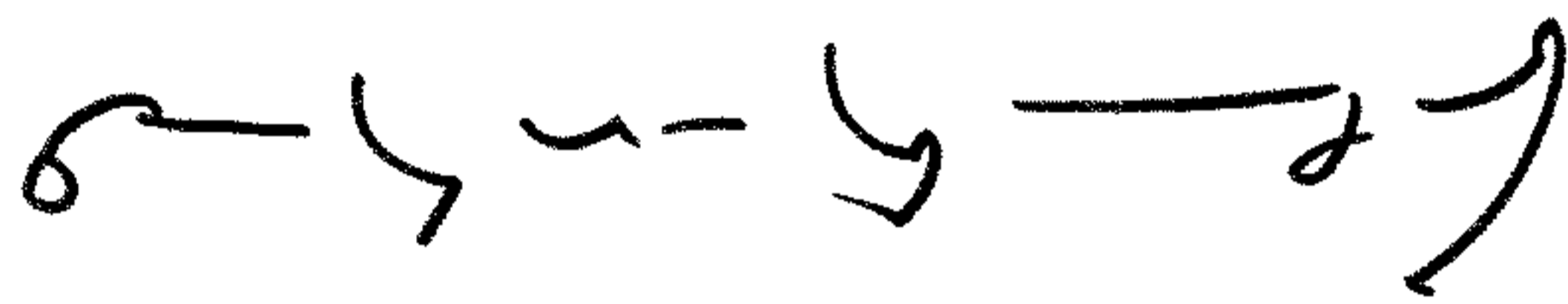
급합니다. 여러가지 급한 것 많지만, 무엇



보다도 우리는 통일되어야 하겠습니다. 대한
민국 전체가 단합해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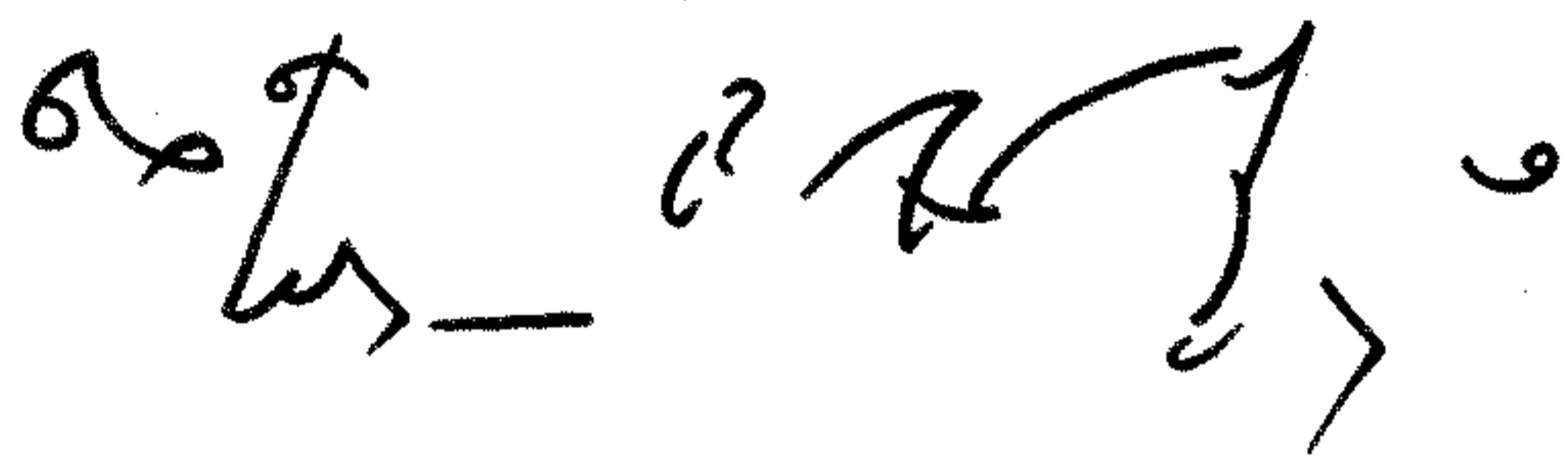
세계가 지금은 우리를 주목하여 러시아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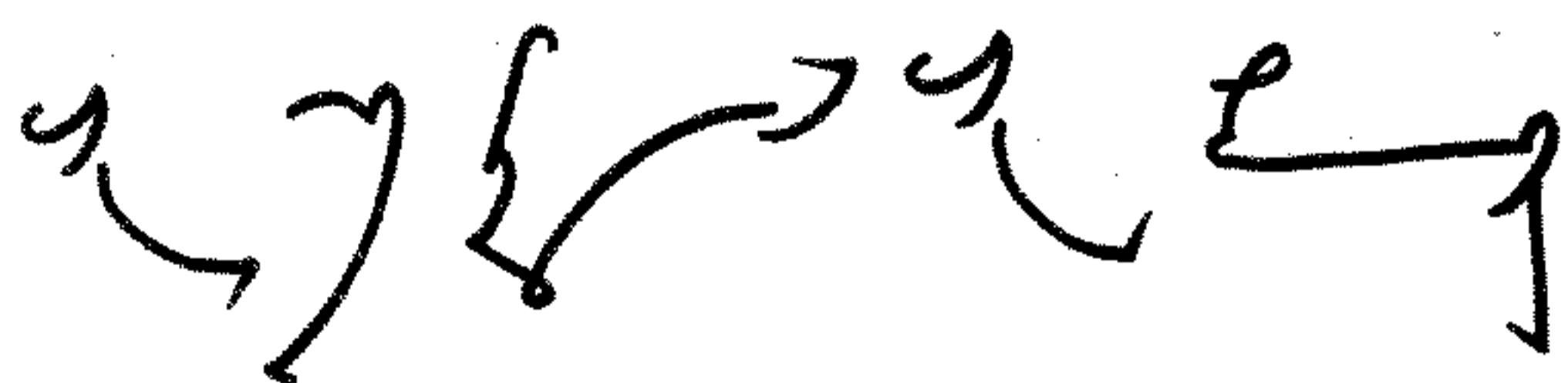
중국보다 나은가 보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
리가



무엇을 희생하더라도 여기 이 정부를 영광스
러운



정부로 만들어야 하겠고 세상에 조소를 받
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머리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
분을 섬기려 왔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할 것은, 우리가 항상 하느님
앞에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은밀히 안 된 것을 고쳐야 하겠습니다. 망국
민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ㅅ, ㅆ, ㅈ, ㅊ, ㅋ, ㆁ

자격에서 벗어나 독립 국민 자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에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ㆁ, ㆏, ㆑, ㆓, ㆕, ㆗, ㆙

이르러 우리 동포가 이만큼 피를 흘린 뒤에
도 주저하고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 ㆛, ㆝, ㆞, ㆠ, ㆡ, ㆢ, ㆣ

머뭇거림은 최악이외다. 다만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여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ㆣ, ㆤ, ㆥ, ㆦ, ㆧ, ㆨ, ㆩ

대한사람은 하나도 남김 없이 모두 같이 일
할 뿐이올시다.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ㆩ, ㆪ, ㆫ, ㆬ, ㆭ, ㆮ, ㆯ

은 대한 사람이 다 거꾸러지더라도 나는
홀로 서서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ㆯ, ㆰ, ㆱ, ㆲ, ㆳ, ㆴ, ㆵ

나아가겠다고 맹세하시오. 만세! 만세!

* 자신이 쓴 속기문자를 읽어보자(실전연습은 쓰고 읽기를 위주로 한다).



제 2 장

·

동사 약기법

동사 약기법은 동방속기의 꽃이다.

동사 약기법은 우리 말에서 가장 변화가 무쌍하여 까다롭기 짝이 없는 동사에 대하여 문법을 따지지 않고 간단히 표기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 있다.

손풀기 : 기본문자복습 …ㄴ 받침, ㅇ 받침 3회 이상 써보자.

★ 동사 약기법이란?

동사 약기법은 동방속기의 꽃이요, 가장 자랑스러운 약기법이다.

동사 약기법은 기본형과 시제변화형, 어미변화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우리말에서 가장 변화가 무쌍한 동사와 형용사, 그와 유사하게 응용되는 말들을 뭉통그려 동사로 정의하였으며 기본형을 완전히 익히기만 하면 수천 개의 동사를 자유자재로 말이 나오는 순서대로 표기만 하면 간단히 처리할 수 있다.

이 동사를 배워 나갈 때는 기본형은 철저히 외워야 하고 나머지는 응용을 한다.

변화가 되는 우리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변화시켜 가면 되고 특별히 규칙이나 문법을 따질 필요가 없다. 자연스럽게 변화시킨다는 말에 주목을 해야 쉽지 문법을 따지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어려워진다.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말로 사용하고 있는 그대로를 속기라는 표기법으로 바꾸는 것 뿐이니까.

1. 기본(현재)형

1-1. 기본(현재)형(1) … 총 30개 중 8개



: 하선(앞문자 끝에서 하줄로 4mm 가량)에 찍어 쓴다.



—	(가) 간다	⤿	(노) 된다
——	(고) 일으킨다	⤿	(느) 모른다
————	(그) 나간다	/	(다) 안된다
⤿	(나) 지킨다	/	않으면 안된다
		/	(두) 둔다
	간다 = 가다		된다 = 되다

주의 : 철저히 암기하여야 한다. 속기를 배우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이다. 「간다」 - 「가」, 「일으킨다」 - 「고」가 입과 손에서 바로 나오고 써지도록 암기하여야 한다. 물론 앞으로 기회는 있겠지만 이것을 암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진도 나가기 어렵다. 다른 약기법은 외우지 않고 자주 쓰다 보면 익혀지지만 동사기본형은 그렇지 않다. 외우는 것이 빠르다. 동방속기에서 암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많지 않다. 하나를 암기하여 수백, 수천을

응용할 수 있는 것에는 반드시 암기할 것을 강요한다.

<응용예제>

나는 집에 간다 
 조국을 지킨다 

가문을 일으킨다 
 잘 모른다 

1-2. 시제(어미)변화

1-2-1. ~는, ~는 것, ~는 것이다

ㄴ 가는

ㄹ 가는 것(이다)

ㄷ 가는 것입니다 (길게)

ㄱ 간다는 (것)

ㄷ 간다는 것이다

ㄷ 간다는 것입니다

ㄹ 가는 것은

ㄹ 가는 것이

ㄹ 가는 것을 ...

다는 = 는다는

ㄱ 간다는 것을

ㄱ 간다는 것은

ㄱ 간다는 점을

요령 : 일단 말이 되든 안 되든 동사 기본형에 「는, 는것, 다는(것),...」을 붙여서 전체를 연습해 본 다음 쓰이는 말에만 적용하면 된다.

연습법 : 간다 → 가! 일으킨다 → 고! 나간다 → 그! 지킨다 → 나! 된다 → 노!

모른다 → 느! 안된다 → 다! 앓으면 안된다 → 다! 둔다 → 두! (5회반복)

<응용연습> 말이 되게, 자연스럽게 ...

기본형 + 「~습니다」

간다 → 가 —	갑니다 → 갑니다 →	일으킨다 → 고 —	일으킵니다 → 일으킵니다 →
나간다 → 그 ————	나갑니다 → 나갑니다 ————→	지킨다 → 나 ∪	지킵니다 → 지킵니다 ∪
된다 → 노 ∪	됩니다 → 됩니다 ∪	모른다 → 느 ∪	모릅니다 → 모릅니다 ∪
안된다 → 다 /	안됩니다 → 안됩니다 ✓	않으면 안된다 → 다 /	않으면 안된다 ↓
둔다 → 두 /	둡니다 → 둡니다 ✓	않으면 안됩니다 ✓	

기본형 + 「~는」... 읽어가면서 실제응용연습을 한다.

간다	가는	일으킨다	일으키는	나간다	나가는	지킨다	지키는	된다	되는
—	→	—	→	————	————	∪	∪	∪	∪
모른다	모르는	안된다	안되는	않으면 안된다	않으면 안되는	둔다	두는		
∪	∪	/	✓	/	✓	/	✓		

기본형 + 「~다는 (것)」

간다	간다는	일으킨다	일으킨다는	나간다	나간다는	지킨다	지킨다는
—	→	—	→	————	————→	∪	∪
한다	된다는	모른다	모른다는	안된다	안된다는	않으면 안된다	않으면 안된다는
∪	∪	∪	∪	/	✓	/	✓
둔다	둔다는						
/	✓						

기본형 + 「~는 것이다」

간다	가는 것이다	일으킨다	일으키는 것이다	나간다	나가는 것이다
—	→	—	→	————	————→

지킨다 지키는 것이다 된다 되는 것이다 모른다 모르는 것이다
 ~ ~ ~ ~ ~ ~

안된다 안되는 것이다 앓으면 안된다 앓으면 안되는 것이다 둔다 두는 것이다
 / / / / / /

간다 가는 것이다 가는 것입니다 일으킨다 일으키는 것이다 일으키는 것입니다
 — — — — — —

나간다 나가는 것이다 나가는 것입니다 지킨다 지키는 것이다 지키는 것입니다
 — — — ~ ~ ~

된다 되는 것이다 되는 것입니다 모른다 모르는 것이다 모르는 것입니다
 ~ ~ ~ ~ ~ ~

안된다 안되는 것이다 안되는 것입니다
 / / /

앓으면 안된다 앓으면 안되는 것이다 앓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 / /

둔다 두는 것이다 두는 것입니다
 / / /

「~는 것」 + 조사

간다 가는 것이 일으킨다 일으키는 것이 나간다 나가는 것이 지킨다 지키는 것이
 — — — — — — ~ ~

된다 되는 것이 모른다 모르는 것이 안된다 안되는 것이
 ~ ~ ~ ~ / /

앓으면 안된다 앓으면 안되는 것이 둔다 두는 것이
 / / / /

간다 가는 것을 일으킨다 일으키는 것을 나간다 나가는 것을
 — — — — — —

지킨다 지키는 것도 된다 되는 것도 모른다 모르는 것은 안된다 안되는 것은
 ~ ~ ~ ~ ~ ~ / /

앓으면 안된다 앓으면 안되는 것은 둔다 두는 것과는 같다 가는 것과는
 / / / / — —

일으킨다	일으키는 것으로	나간다	나가는 것으로	지킨다	지키는 것에		
—	— ₃	—	— ₃	—	— ₃		
된다	되는 것에	모른다	모르는 것에서	안된다	안되는 것에서		
—	— ₃	—	— ₃	/	/ ₃		
않으면	안된다	않으면	안되는 것에서	둔다	두는 것에서		
/	/ ₃	/	/ ₃	/	/ ₃		
간다	가는 것으로서	일으킨다	일으키는 것으로서	나간다	나가는 것에는		
—	— ₃	—	— ₃	—	— ₃		
지킨다	지키는 것에서	된다	되는 것의	모른다	모르는 것의	안된다	안되는 것의
—	— ₃	—	— ₃	—	— ₃	/	/ ₃
않으면	안된다	않으면	안되는 것의	둔다	두는 것에도	가는 것이라도	
/	/ ₃	/	/ ₃	/	/ ₃	/ ₃	
일으키는 것이라도							
/ ₃							

기본형 + 「~다는 것이다」

간다	간다는 것이다	일으킨다	일으킨다는 것이다	나간다	나간다는 것이다		
—	— ₃	—	— ₃	—	— ₃		
지킨다	지킨다는 것이다	된다	된다는 것이다	모른다	모른다는 것이다		
—	— ₃	—	— ₃	—	— ₃		
안된다	안된다는 것이다	않으면	안된다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둔다	둔다는 것이다
/	/ ₃	/	/	/	/	/	/ ₃

기본형 + 「~다는 것입니다」

간다	간다는 것입니다	일으킨다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나간다	나간다는 것입니다
—	— ₃	—	— ₃	—	— ₃
지킨다	지킨다는 것입니다	된다	된다는 것입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	— ₃	—	— ₃	—	— ₃
안된다	안된다는 것입니다	않으면	안된다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	/ ₃	/	/	/	/ ₃

둔다 둔다는 것입니다

/

「~다는 것」 + 조사

간다 간다는 것에서 일으킨다 일으킨다는 것에서 나간다 나간다는 것의

— ㄴ — ㄴ — — ㄴ — ㄴ

지킨다 지킨다는 것의 모른다 모른다는 것을 안된다 안된다는 것을

ㄴ ㄴ ㄴ ㄴ /

않으면 안된다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둔다 둔다는 것은 둔다는 것이라도

/ ㄴ / ㄴ /

간다 간다는 것이 일으킨다 일으킨다는 것이 나간다 나간다는 것에는

— ㄴ — ㄴ — — ㄴ — ㄴ

지킨다 지킨다는 것에는 된다 된다는 것에 모른다 모른다는 것에

ㄴ ㄴ ㄴ ㄴ ㄴ ㄴ

안된다 안된다는 것으로 않으면 안된다 않으면 안된다는 것으로

/ ㄴ / ㄴ

둔다 둔다는 것으로서 간다 간다는 것에도 일으킨다 일으킨다는 것에도

/ ㄴ — ㄴ — — ㄴ — ㄴ

나간다 나간다는 것과 지킨다 지킨다는 것과 된다 된다는 것도

— ㄴ — ㄴ ㄴ ㄴ ㄴ

모른다 모른다는 것도 안된다 안된다는 것도 않으면 안된다 않으면 안된다는 것도

ㄴ ㄴ / ㄴ / / ㄴ /

둔다 둔다는 것도

/

기본형 + 「~다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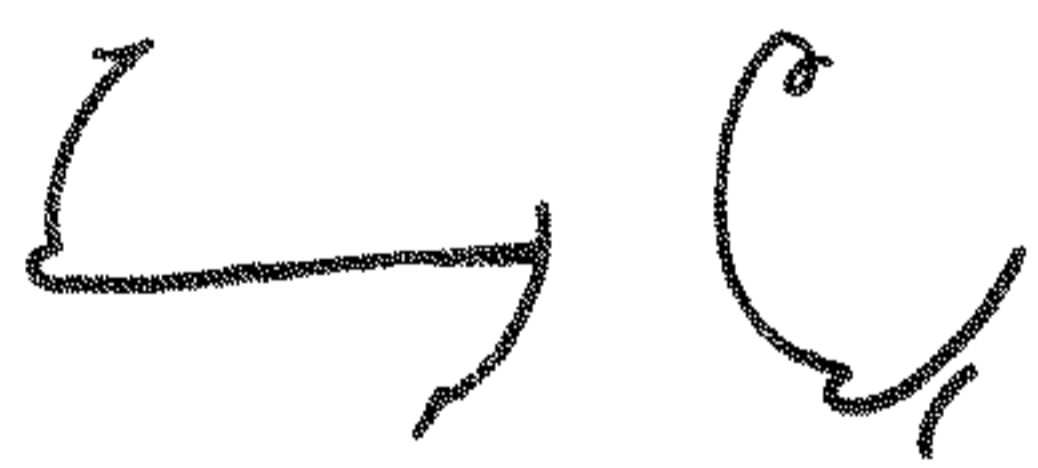
간다 간다는 간다는 점을 일으킨다 일으킨다는 일으킨다는 점을

— ㄴ ㄴ — ㄴ — ㄴ

나간다	나간다는	나간다는 점을	지킨다	지킨다는	지킨다는 점에서
_____	_____	_____	~	~	~
된다	된다는	된다는 점이	모른다	모른다는	모른다는 점은
~	~	~	~	~	~
안된다	안된다는	안된다는 점에	둔다	둔다는	둔다는 점을
않으면 안된다	않으면 안된다는	않으면 안된다는 점에서			

정말 이렇게 많은 응용이 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새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배운 것을 가지고 응용한 것에 불과한데 말이다.
 기본형 몇 개를 외우지 않은 사람은 응용을 못하고 전체를 외워야 하는 것인데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 일일이 한 마리씩 고기를 잡아주면 먹기보다, 고기잡는 법을 배우는 것이 훨씬 빠른 길임을 알 것이다. **기본형을 외워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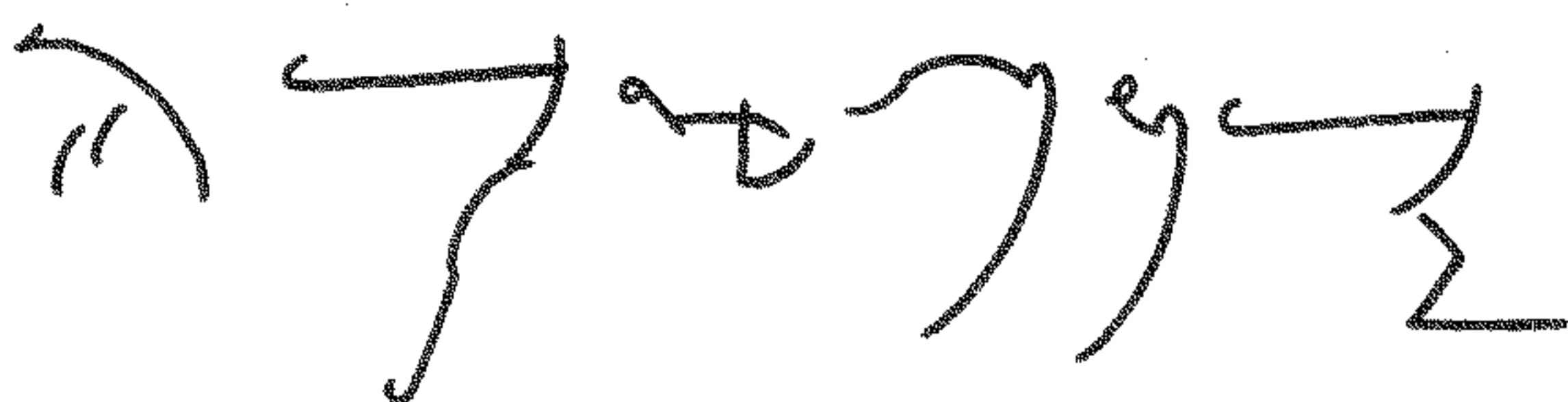
<실전연습 7> ... 한글문장을 속기문자로 옮겨보자.



속기록의 필요성



첫째, 세계 어느 나라의 국문자를 막론하고 문자의



특성상 기록속도에 한계가 있어 아무리 빨리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발연과 같은 속도로 일치하여 기록해 낼 도리가 없다.

거기에다가 현대인의 발연속도는 문명의 발달 속도와 같이 점점 더

빠라지고 있다. 그러므로* 속기처럼 빨리

특별한 방법에 의하여 기록하지 않으면

회의 당시의 상황 및 경과와 의결의 내용을 정확히

기록할 수 없다. 속기술에 의하여 작성된 속기록만이 그

회의의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규정에다 국회의 회의는 속기법에 의하여 기록해야 한다는

규정조차 명문화 되어 있는 것이다. 둘째 회의록을

속기법에 의하여 작성하지 않은 경우 의결의 결과에만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의결 당시의 상황 및 경과를 전혀 회의록을 통하여

알 도리가 없으며 발언내용과 회의 경과에 관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 자신이 쓴 속기문자를 읽어보자(실전연습은 쓰고 읽기를 위주로 한다).

손풀기 : 기본문자복습 ... ㅏ모음 3회 이상 써보자.

♣ 동 사

1-3. 기본(현재)형(2) ... 총 30개 중 12개

ㄴ	(라) 밝힌다	ㄴ	(버) 버린다
ㄴ	(로) 나온다	ㄴ	(보) 본다
ㄴ	(마) 했다	ㄴ	(사) 시킨다
ㄴ	(모) 나아간다	ㄴ	(수) 받(는)다
ㄴ	(므) 믿(는)다	ㄴ	(아) 안다
ㄴ	(바) 바란다	ㄴ	(오) 온다

주의 : 철저히 암기하라!

1-3-1. ~가지고

ㄴ	가지고	ㄴ	해 가지고
ㄴ	그래 가지고	ㄴ	이래 가지고

_____가	에 대해 가지고	_____가	을 위시해 가지고
_____로	으로 인해 가지고	_____로	에 대하여 가지고

<응용연습> 말이 되게, 자연스럽게...

동사+「~가지고」... 눈으로 쳐다만 보지 말고 실제 읽으면서 써보자.

간다 가 가지고 일으킨다 일으켜 가지고 나간다 나가 가지고
 — — ㄴ — — ㄴ — — ㄴ — — ㄴ

지킨다 지켜 가지고 된다 되어 가지고 모른다 몰라 가지고 안된다 안되어 가지고
 ㄴ ㄴ ㄴ ㄴ ㄴ ㄴ / /

않으면 안된다 않으면 안되어 가지고 둔다 두어 가지고 밝힌다 밝혀 가지고
 / / / / / /

나온다	나와 가지고	나아간다	나아가 가지고	믿는다	믿어 가지고		
)	ㄴ	ㄴ	ㄴ	ㄴ	ㄴ		
바란다	바라 가지고	버린다	버려 가지고	본다	보아 가지고	시킨다	시켜 가지고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받는다	받아 가지고	안다	알아 가지고	온다	와 가지고		
ㄴ	ㄴ	ㄴ	ㄴ	ㄴ	ㄴ		

참고 : 「되어 가지고」와 「돼 가지고」, 「보아 가지고」와 「봐 가지고」

소리로 분간하기 어려운 소리, 특히 준말과 본디말은 속기사자격시험이나 실무에서는 같이 본다. 어떻게 들리든 「되어 가지고」, 「보아 가지고」와 같이 가독성이 좋은 글로 번문하면 된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다.

<실전연습 8> ... 한글문장을 속기문자로 옮겨보자.

그러나 속기법에 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면 회의

그러나 속기법에 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면 회의

내용에 대하여 쟁송이 있는 경우 재판 과정에서 속기록이 유력한

내용에 대하여 쟁송이 있는 경우 재판 과정에서 속기록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속기사의 증언을 통하여 재판의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속기사의 증언을 통하여 재판의

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 선례도 있다.

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 선례도 있다.

③

셋째, 속기사가 기록하고 있는 회의장에서
의 발언자들의

발언 태도는 자기의 발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속기사에 의하여

기록된다는 점을 의식하고 발언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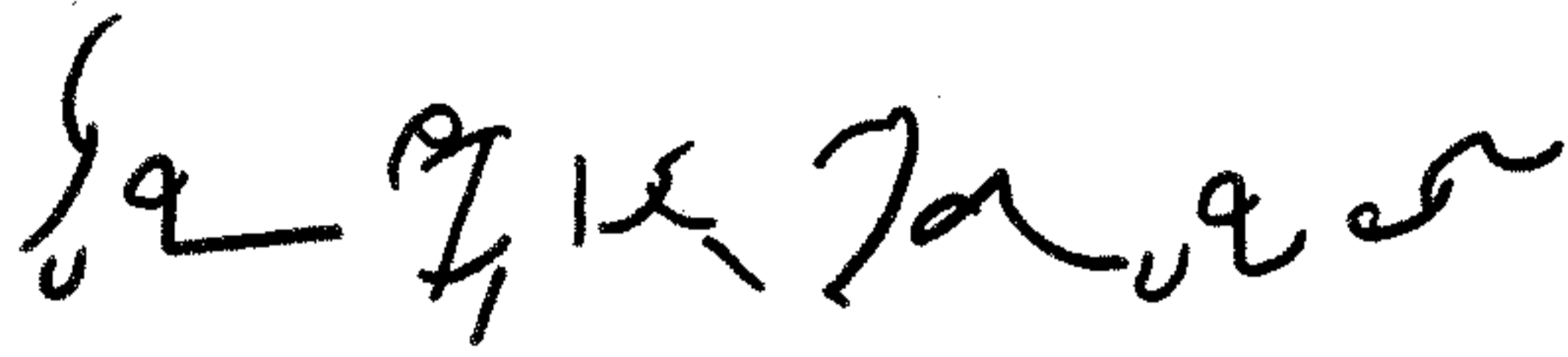
신중을 기하고 있고 자기의 발언이

속기사에 의해서 영구히 기록으로 보존된다
는 점을

생각하고 발언에 보람을 느낀다.

④

넷째, 게다가 속기록에는 매기마다 회의의
내용이 전부



수록되어 있고 상정되었던 의안을 비롯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어 언제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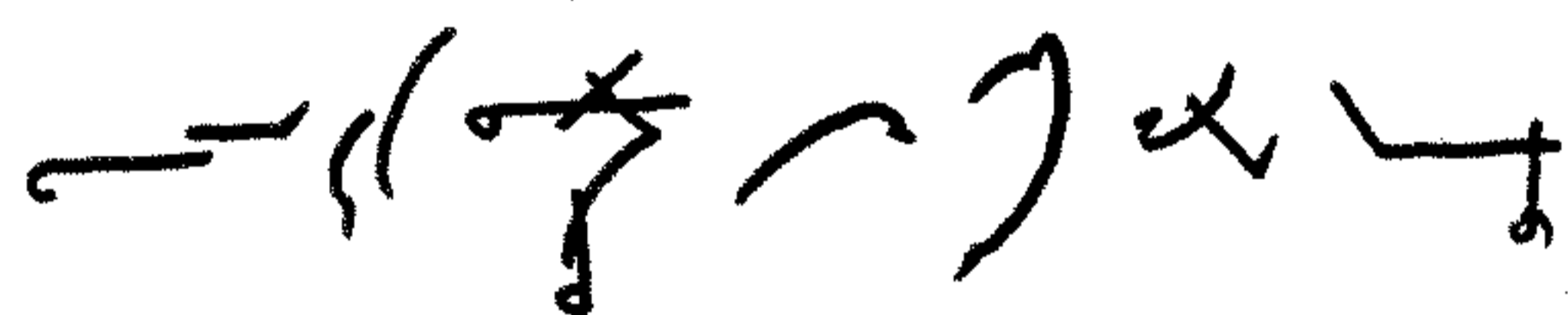
속기록을 통하여 그 단체의 발전과정을 소상히



파악할 수 있고 속기록을 영구히 보존함으로써 그



단체의 산 역사가 후세에까지 길이 전해져 후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를 소상히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자신이 쓴 속기문자를 읽어보자 <실전연습은 쓰고 읽기를 위주로 한다>.

손풀기 : 기본문자복습 ... ㅈ 모음 3회 이상 써보자.

♣ 동 사

1-4. 기본(현재)형(3) ... 총 30개 중 마지막 10개

／	(자) 잠(는)다)	(코) 판다
／	(주) 준다	((파) 없다
—	(차) 드린다	((포) 아니(하)
	들이다	＼	(하) 한다
—	(초) 오른다		(이) 있다
)	(카) 아니다		
	않(는)다		

주의 : 철저히 암기하라! 많아야 30개이다.

<응용연습> 말이 되게, 자연스럽게...

드리다+“바”=드리는 바이다/드리다+“바”길게=드리는 바입니다.

간다 가는 바이다 가는 바입니다 일으킨다 일으키는 바이다 일으키는 바입니다

나간다 나가는 바이다 나가는 바입니다 지킨다 지키는 바이다 지키는 바입니다

된다 되는 바이다 되는 바입니다 모른다 모르는 바이다 모르는 바입니다

안된다 안되는 바이다 안되는 바입니다 앓으면 안된다 앓으면 안되는 바이다

앓으면 안되는 바입니다 둔다 두는 바이다 두는 바입니다

밝힌다 밝히는 바이다 밝히는 바입니다 나온다 나오는 바이다 나오는 바입니다

나아간다 나아가는 바이다 나아가는 바입니다 믿는다 믿는 바이다 믿는 바입니다

바란다	바라는	바이다	바라는	바입니다	버린다	버리는	바이다	버리는	바입니다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본다	보는	바이다	보는	바입니다	시킨다	시키는	바이다	시키는	바입니다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받는다	받는	바이다	받는	바입니다	안다	아는	바이다	아는	바입니다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온다	오는	바이다	오는	바입니다	잡는다	잡는	바이다	잡는	바입니다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준다	주는	바이다	주는	바입니다	드린다	드리는	바이다	드리는	바입니다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들이다	들이는	바이다	들이는	바입니다	오른다	오르는	바이다	오르는	바입니다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얹는다	얹는	바이다	얹는	바입니다	판다	파는	바이다	파는	바입니다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없다	없는	바이다	없는	바입니다	아니(하)	아니하는	바이다	아니하는	바입니다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한다	하는	바이다	하는	바입니다	있다	있는	바이다	있는	바입니다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1-4-1. ~기 전에 : “이” 8mm

ㄱ	가기 전에	ㄱ	가기 전에도	ㄱ	가기도 전에
---	-------	---	--------	---	--------

<응용연습> 말이 되게, 자연스럽게...

간다	가기 전에	일으킨다	일으키기 전에	나간다	나가기 전에	지킨다	지키기 전에
—	ㄱ	—	ㄱ	—	ㄱ	ㄴ	ㄱ
된다	되기 전에	모른다	모르기 전에	안된다	안되기 전에		
ㄴ	ㄱ	ㄴ	ㄱ	ㄴ	ㄱ		
않으면 안된다	않으면 안되기 전에	둔다	두기 전에				
ㄴ	ㄱ	ㄴ	ㄱ				

밝힌다	밝히기 전에	밝히기 전에도	나온다	나오기 전에	나오기 전에도
나아간다	나아가기 전에	나아가기 전에도	믿는다	믿기 전에	믿기 전에도
버린다	버리기 전에	버리기 전에도	본다	보기 전에	보기 전에도
시킨다	시키기 전에	시키기 전에도	받는다	받기 전에	받기 전에도
안다	알기 전에	알기 전에도	온다	오기 전에	오기 전에도
잡는다	잡기 전에	잡기 전에도	준다	주기 전에	주기도 전에
드린다	드리기 전에	드리기도 전에	얕는다	얕기 전에	얕기도 전에
없다	없기 전에	없기도 전에	한다	하기 전에	하기도 전에
있다	있기 전에	있기도 전에			

♣ 동 사

1-5. 어미 응용

-도(~아도, ~어도)

-게

-게끔

—'

가도

보게

하게끔

!

있어도

드리게

없게끔

Handwritten Korean characters with arrows indicating stroke order.

사회적 조건이다.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인간화 정도가

Handwritten Korean characters with arrows indicating stroke order.

학교의 인간화 교육에 주는 영향은 두 가지

Handwritten Korean characters with arrows indicating stroke order.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는 인간형성을 위한 교육력이 학교에서만

Handwritten Korean characters with arrows indicating stroke order.

있지 않고 사회와 학교에 분산되어

Handwritten Korean characters with arrows indicating stroke or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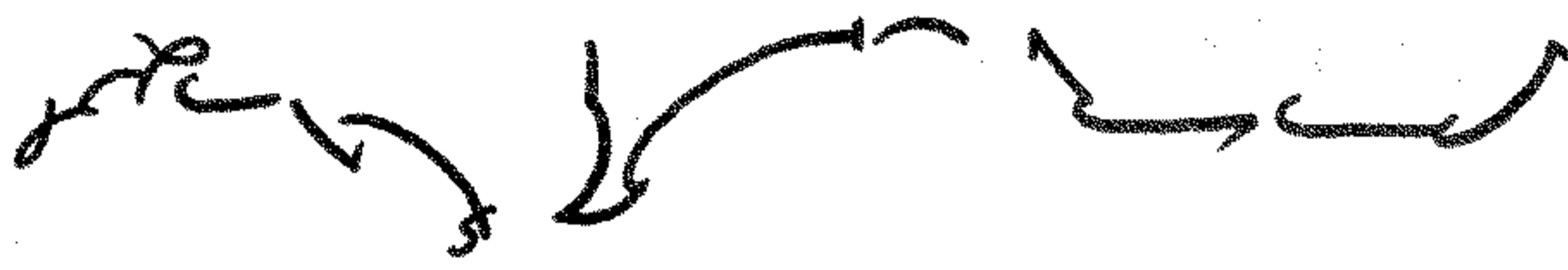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사회의 인간화가 인간형성에 주는 영향 때문에

Handwritten Korean characters with arrows indicating stroke or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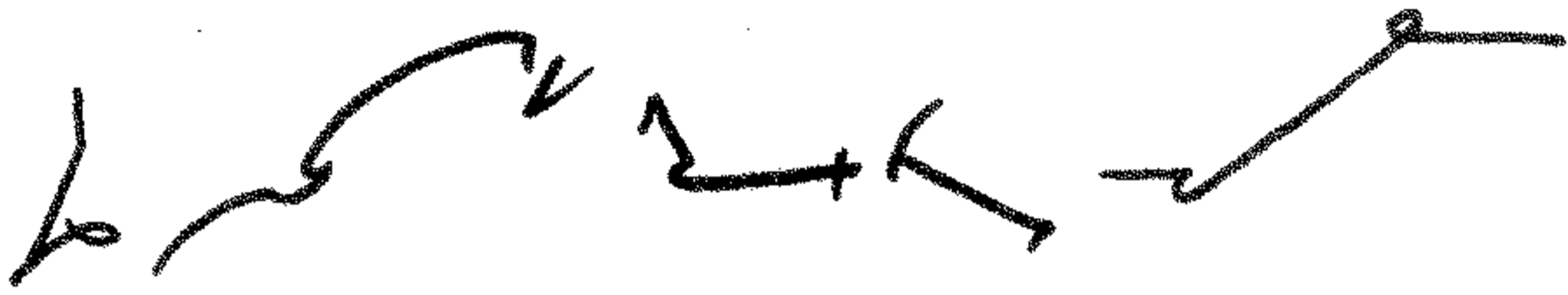
학교가 아무리 인간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화

Handwritten Korean characters with arrows indicating stroke or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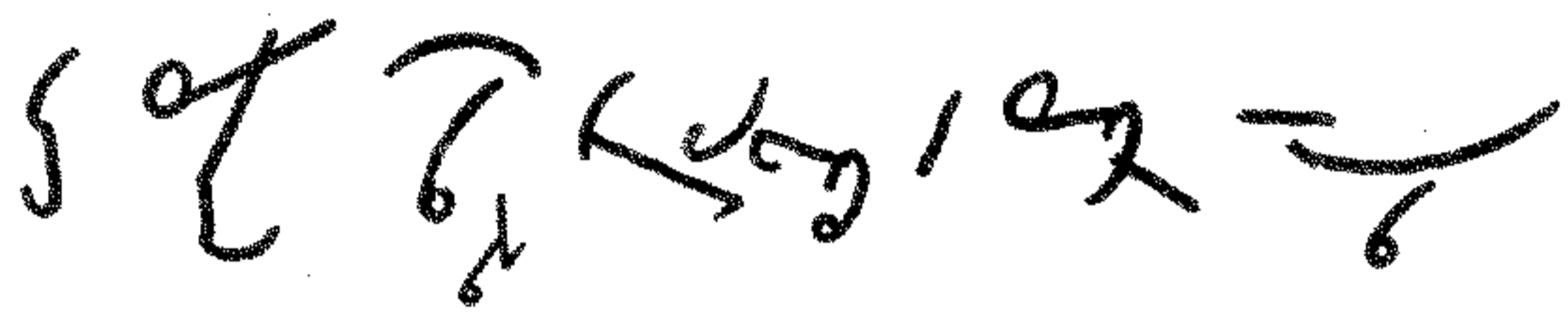
교육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회의 교육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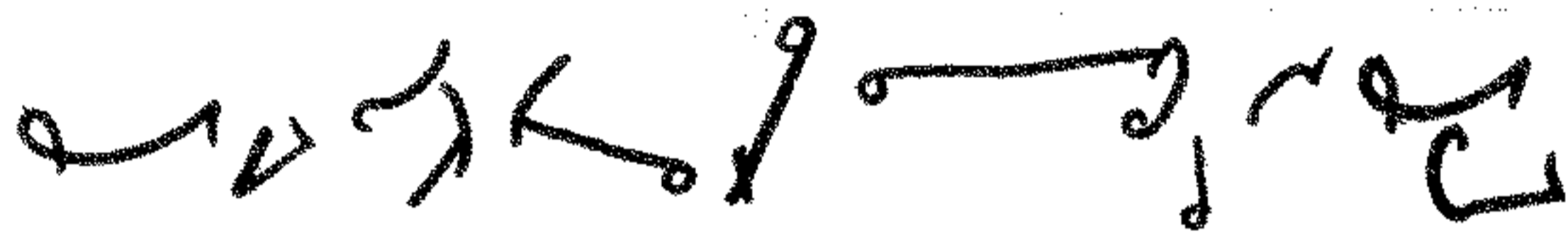
잠재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학교의 교육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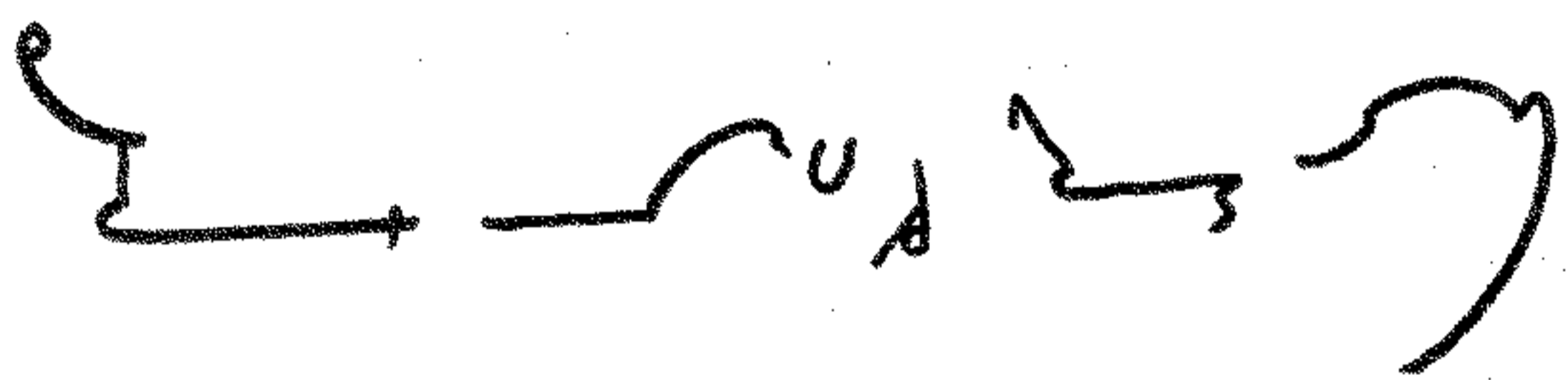
의도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학교와 사회의 가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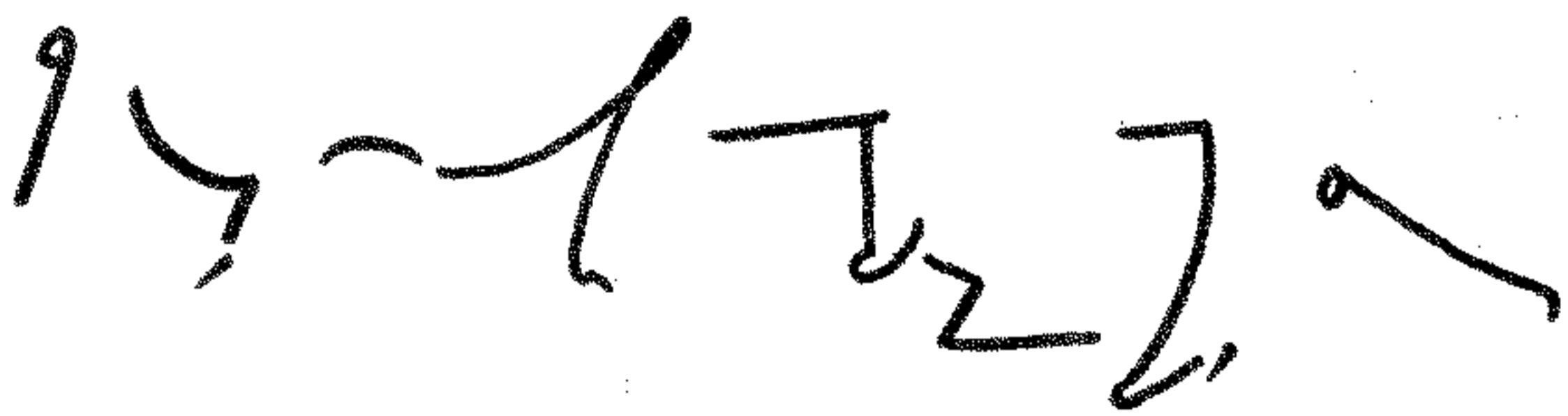
사이에 충돌이나 모순이 있을 때에는 사회의 영향력이 더 강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회는 돈과 권력이 있는 자를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와 구조가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아무리



돈보다도 마음씨가 고와야 한다고 가르쳐도 흔히



후자보다는 전자가 내면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손풀기 : 기본문자 복습... ㅈ모음 3회 이상 써보자.

1-5-1. ~든지, ~든가(나열형)

ㅂ	~든지	<	~든가
ㅅ	간다든지	ㅅ<	간다든가
ㅇ	있다든지	ㅇ<	있다든가
ㄱ	가든지	ㄱ<	가든가
ㅇ	있든지	ㅇ<	있든가

(“~든지, ~든가”의 모양이 ㄴ받침 이어쓰기 형태)

<응용연습>

동사 + ~든지, ~든가

간다	가든지	일으킨다	일으키든지	나간다	나가든지	지킨다	지키든지	된다	되든지
—	ㅅ	—	ㅅ	—	ㅅ	ㅅ	ㅅ	ㅅ	ㅅ
모른다	모르든지	안된다	안되든지	않으면	안된다	않으면	안되든지	둔다	두든지
ㅅ	ㅅ	/	ㅅ	/	ㅅ	/	ㅅ	/	ㅅ
밝힌다	밝히든가	나온다	나오든가	했다	했든가	나아간다	나아가든가		
/	<	/	<	ㅅ	ㅅ	ㅅ	ㅅ		
믿는다	믿든가	바란다	바라든가	버린다	버리든가	본다	보든가	시킨다	시키든지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	ㅅ
받는다	받든지	안다	알든가	온다	오든지	잡는다	잡든가	준다	주든가
/	ㅅ	ㅅ	<	ㅅ	ㅅ	/	<	/	<
드린다	드리든지	들이다	들이든가	오른다	오르든지	아니다	아니든가		
ㅅ	ㅅ	ㅅ	<	ㅅ	ㅅ)	<		
얕는다	얕든지	판다	팔든가	없다	없든지	아니(하)	아니하든가	한다	하든지
)	ㅅ)	<	(ㅅ	(<	\	ㅅ
있다	있든가	간다	간다든가	일으킨다	일으킨다든가	나간다	나간다든가		
	<	—	ㅅ	—	ㅅ	—	ㅅ		
지킨다	지킨다든가	된다	된다든가	모른다	모른다든가	안된다	안된다든가		
ㅅ	ㅅ	ㅅ	ㅅ	ㅅ	ㅅ	/	/		

않으면 안된다	않으면 안된다든가	둔다	둔다든가	밝힌다	밝힌다든지		
/	/ <	/	/ <)) v		
나온다	나온다든지	했다	했다든지	나아간다	나아간다든지	믿는다	믿는다든가
)) v	~	~ v	~	~ v	~	~ <
바란다	바란다든지	버린다	버린다든지	본다	본다든가	시킨다	시킨다든지
~	~ v	~	~ v	~	~ <	~	~ v
받는다	받는다든가	안다	안다든지	온다	온다든가	잡는다	잡는다든지
~	~ <	~	~ v	~	~ <	~	~ v
준다	준다든지	드린다	드린다든가	들이다	들이다든가	오른다	오른다든지
~	~ v	~	~ <	~	~ <	~	~ v
아니다	아니라든지	않는다	않는다든가	판다	판다든지	없다	없다든가
)) v)) <)) v	((<
아니(하)	아니한다든가	한다	한다든가	있다	있다든가		
((<	\	\ <		<		

<실전연습 10> ... 한글문장을 속기문자로 옮겨보자.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의 인간화가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의 인간화가

그대로 학교교육에 관련성을 가지고

그대로 학교교육에 관련성을 가지고

영향을 주는 측면 때문이다. 학교의 교육은

영향을 주는 측면 때문이다. 학교의 교육은

사회로부터 독립된 자치형이 아니고 연속적

사회로부터 독립된 자치형이 아니고 연속적

Handwritten cursive text: ... ① —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첫째는 그 조직 자체가

Handwritten cursive text: ... —

큰 관료체제 중의 한 점이며 그 관료체제는

Handwritten cursive text: ...

공교육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의 기업이기 때문에

Handwritten cursive text: ...

정치적 관료체제와의 조직적 관계 속에서

Handwritten cursive tex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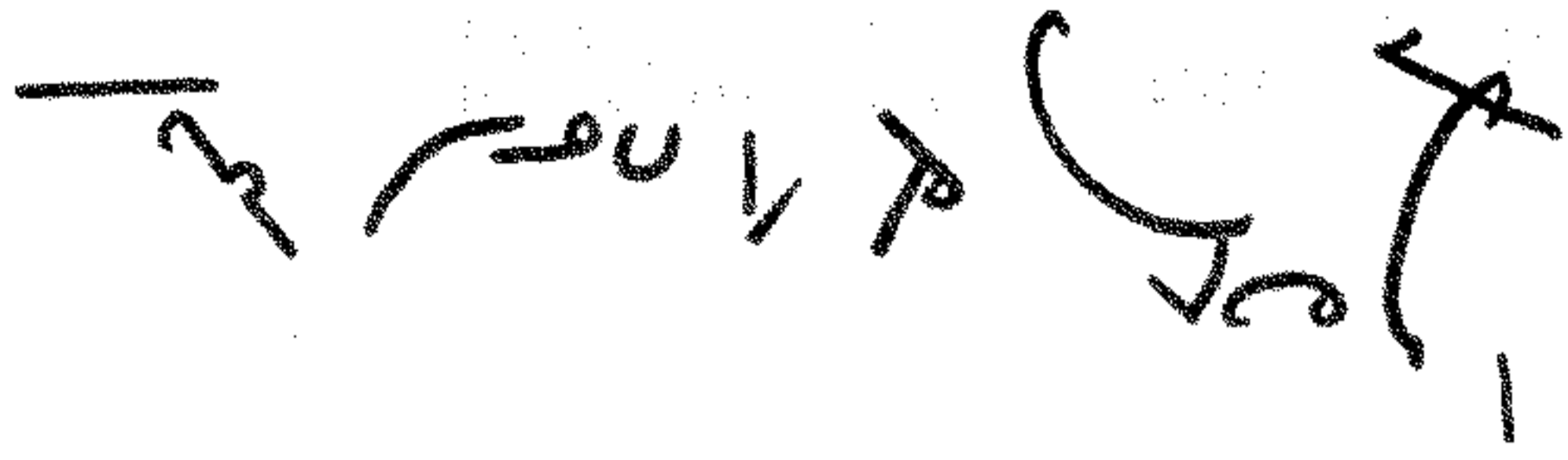
위치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학교의 인간화의 모든

Handwritten cursive text: ...

가치의 실현가능성 정도는 그 사회체제나

Handwritten cursive text: ...

구조가 얼마만큼 인간화적 가치를



구현할 조건이 되어 있는가 하는데 비례하는
면이 확실히 있다.

* 자신이 쓴 속기문자를 읽어보자<실전연습은 쓰고 읽기를 위주로 한다>.

손풀기 : 기본문자 복습 ... 받침, ◦받침 3회 이상 써보자.

♣ 동 사

1-6. 어미 응용 「~기」 어찌구

	~기 때문에		~기 때문입니다.
	16mm		
	~기 위해서		~기 위해
			2mm
	~기 위한		~기 위하여
	2mm		
			~기 위하여는

참고 : 「하기」 어찌구 - 생략을 원칙으로 하는 「하」이지만 너무 빈도가 많은 다음 약기는 활용한다.

	하기		하기 위한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
	하기 위하여		

~하고 (정측 끝)	
~하게 (반측 끝)	

참고 : “해야”는 앞문자에 기본문자로 이어쓴다.

<응용연습>

간다 가기 때문에 일으킨다 일으키기 때문에 나간다 나가기 때문에

지킨다	지키기 때문에	된다	되기 때문에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안된다	안되기 때문에	않으면	안된다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밝힌다	밝히기 때문입니다	나온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했다	했기 때문입니다
나아간다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믿는다	믿기 위해서	바란다	바라기 위해서
버린다	버리기 위해서	본다	보기 위해서	시킨다	시키기 위해서
받는다	받기 위해서	안다	알기 위해	온다	오기 위해
준다	주기 위해	드린다	드리기 위해	들이다	들이기 위해
오른다	오르기 위한	잡는다	잡기 때문입니다		
아니다	아니기 위한	않는다	않기 위한	판다	팔기 위하여
없다	없기 위하여	한다	하기 위하여	있다	있기 위하여

연구하고	건전하고	생활하고	공개하고
일하게	노력하게	속기하게	반증하게
감수해야만	개혁해야만	진력해야만	저축해야만

<실전연습 11> ... 한글문장을 속기문자로 옮겨보자.

자기 완성을 평생의 신조로 삼아라.

자기 완성을 평생의 신조로 삼아라.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외롭고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외롭고

고달픈 숙명의 길을 떠나야 하는 여러분 앞에는 지난날에

고달픈 숙명의 길을 떠나야 하는 여러분 앞에는 지난날에

경험한 것에 비하면 상상을 절할 만한 과격
한 변화와

경험한 것에 비하면 상상을 절할 만한 과격
한 변화와

새로운 도전들이 끊임없이 밖으로부터 파동
쳐 올 것이 분명합니다.

새로운 도전들이 끊임없이 밖으로부터 파동
쳐 올 것이 분명합니다.

또 안으로는 남북대화의 긴장과 위협이 연
속되는 가운데

또 안으로는 남북대화의 긴장과 위협이 연
속되는 가운데

이미 중간단계를 넘어선 근대화작업을

이미 중간단계를 넘어선 근대화작업을

성공적으로 완결하여 치열한 국제경쟁 사회에서

민족자존의 영역을 하루 속히 넓혀 나가야 할

힘겨운 부담과 벅찬 과업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간난(艱難)·신고(辛苦)가 어김없이 뒤따를 것으로 예견되는

졸업생 여러분의 전도를 결코 낙관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은 일말의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체와

고착에서보다는 오히려 위기와 혼돈 속에 큰 가능성과

활로가 있습니다. 일찍이 동양의 성현 장자는 '무용의 유용성', 이른바

'쓸모없는 것의 쓸모있음'을 갈파하여, 오늘과 같이

앞길을 확연히 내다볼 수 없는 불측의 단절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빛을 밝혀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은

한번쯤 깊이 음미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는 장자의 우화를 소개 함으로써 새로운 인생 향로를 개척해

나갈 졸업생 여러분에게 격려를 보내고자 합니다.

* 자신이 쓴 속기문자를 읽어보자<실전연습은 쓰고 읽기를 위주로 한다>.

바란다 바라야 버린다 버려야 본다 보아야 시킨다 시켜야만 받는다 받아야만
 안다 알아야만 온다 와야만 잡는다 잡아야 준다 주어야만 드린다 드려야만
 들이다 들어야만 오른다 올라야만 할 아니다 아니어야만 할 앓는다 앓아야만 될
 판다 팔아야만 할 없다 없어야만 될 아니(하) 아니하여야지 한다 하여야지
 있다 있어야지
 간다 가서야 일으킨다 일으키셔야 나간다 나가셔야 지킨다 지키셔야
 된다 되셔야 모른다 모르셔야 안된다 안되셔서 듣다 두셔서 밝힌다 밝히셔서
 나온다 나오셔서 나아간다 나아가셔서 믿는다 믿으셔서 바란다 바라셔야
 버린다 버리셔서 본다 보셔서 시킨다 시키셔야만 받는다 받으셔야만
 안다 아셔야만 온다 오셔야만 준다 주셔야만 드린다 드리셔야 할 오른다 오르셔서
 아니다 아니셔서 앓는다 앓으셔야만 할 판다 파셔야 할 없다 없으셔야 할
 아니(하) 아니하셔서 한다 하셔야지 있다 있으셔야지

<실전연습 12> ... 한글문장을 속기문자로 옮겨보자.

장자는 상상의 쓸모없는 거대한 나무를 흔히 비유로 들어,

이 거목이 쓸모없음으로 해서 일찍이 목수의 도끼에 쓰러지는

비운을 겪지 않고 큰 나무가 될 때까지 오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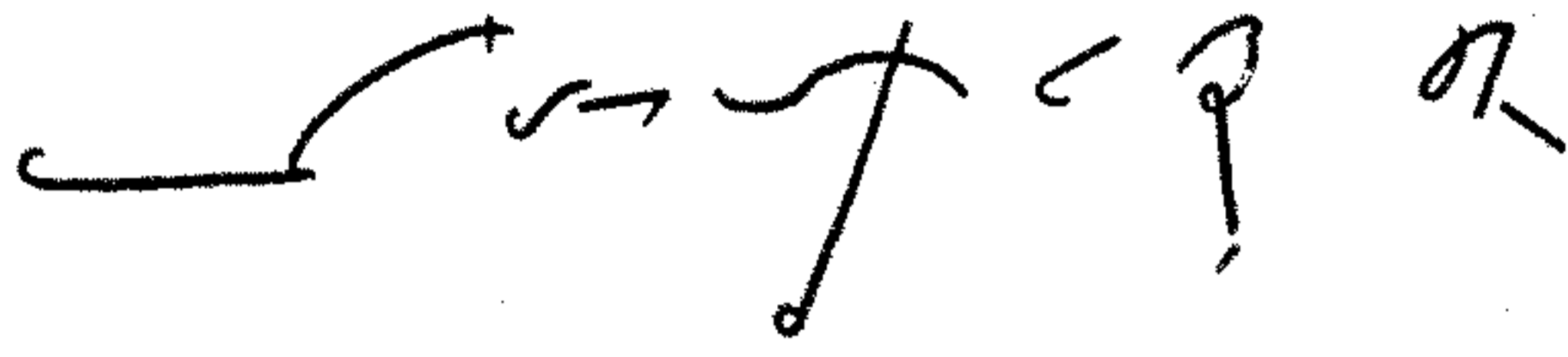
생존할 수 있음을 논하고, 어찌 무용하다는 것이 괴로운 일인가를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직은 민첩과 세련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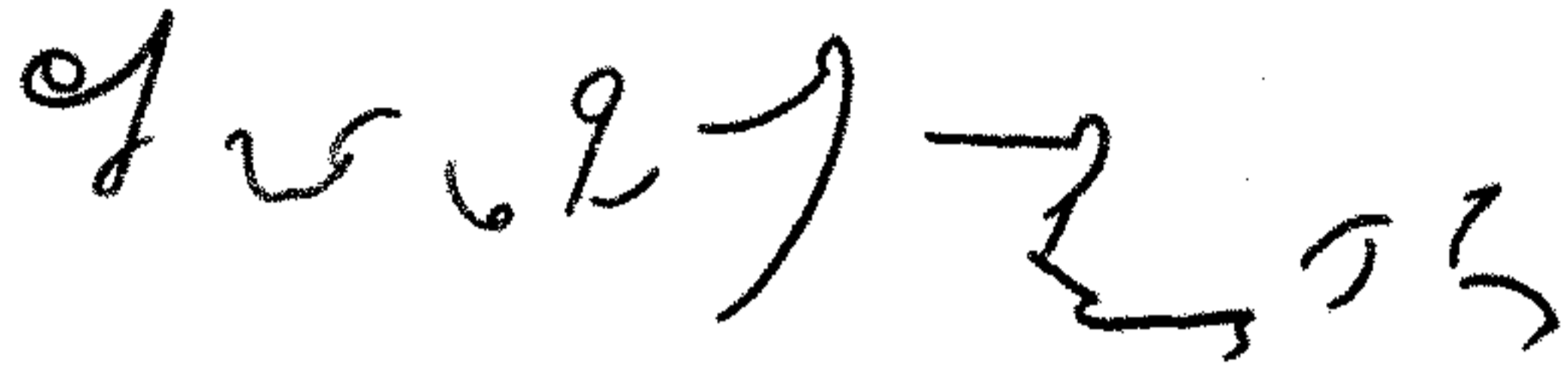
미치지 못합니다. 또 기지와

재간과도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다채로운 효용을 뽐내는

'민첩'과 '세련'의 나무들이, 또 당장 쓸모있음을 자만하는



'기지'와 '재간'의 나무들이 채 자라기도 전에 잡다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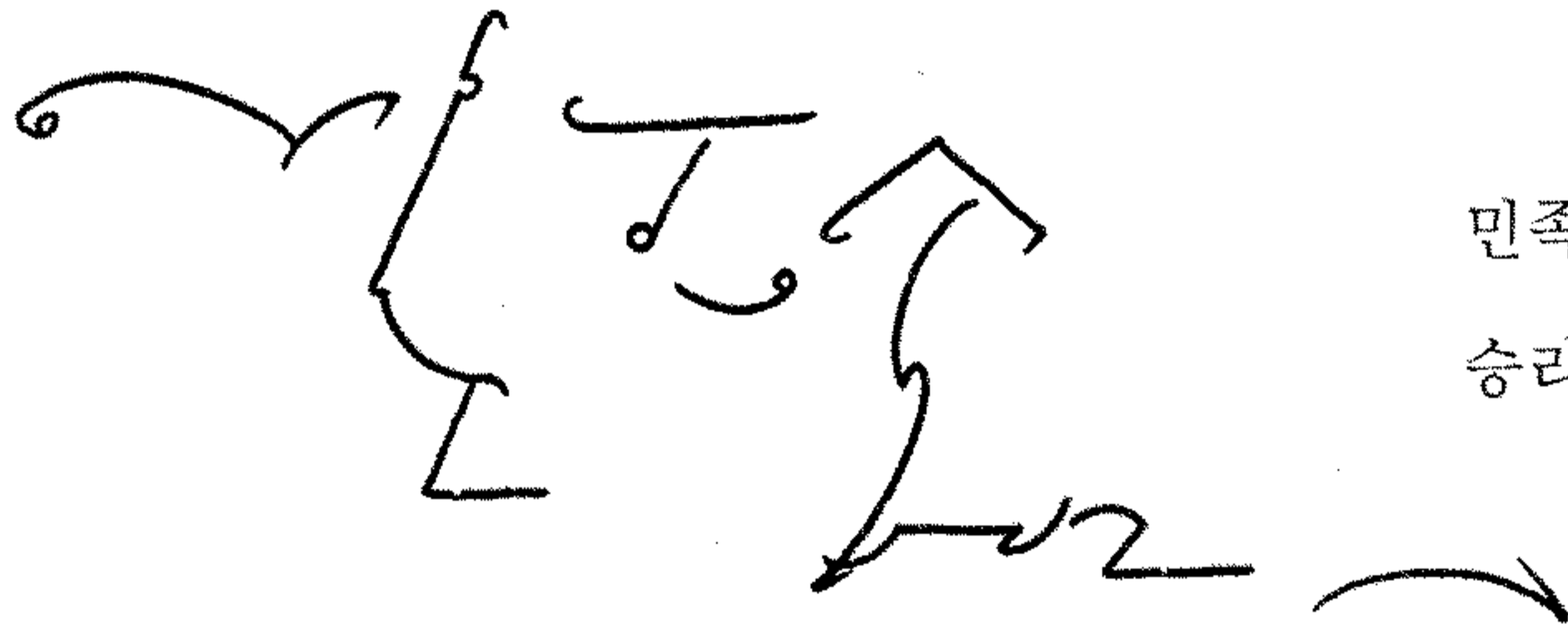
용도로 배어져 버리는 동안 우리 고려대학교에서 자란 석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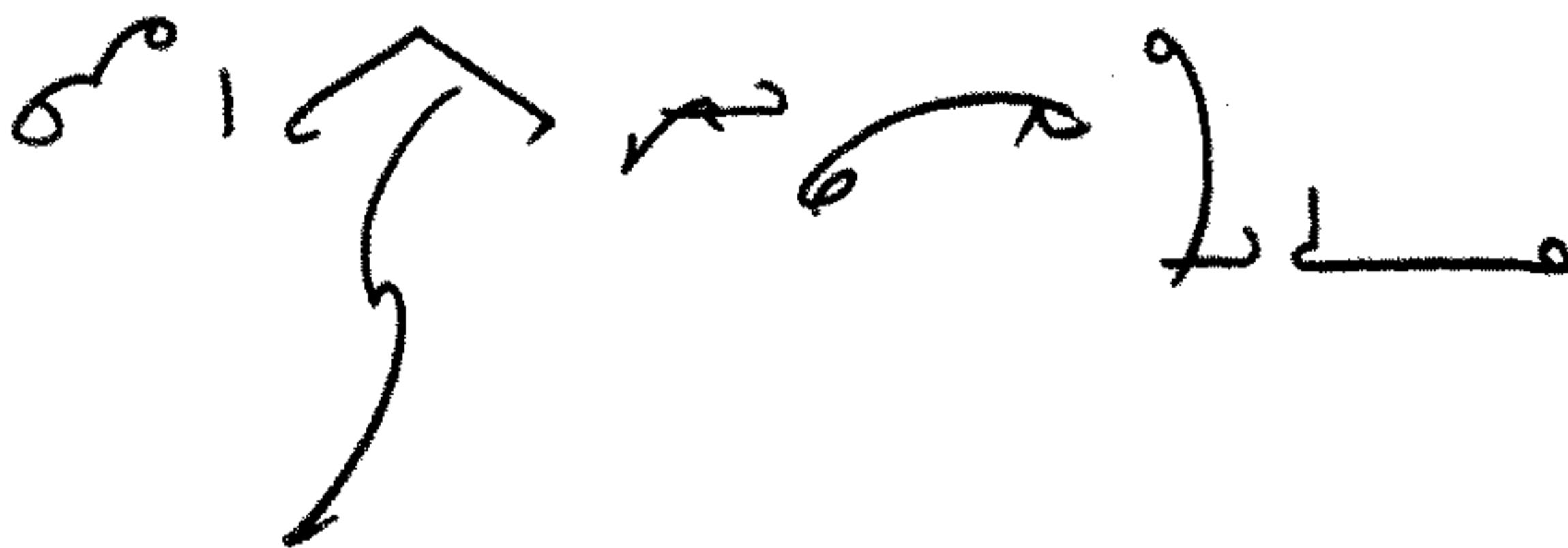
나무는 그 '우직'의 무용성으로 말미암아 거대한 나무로



자랄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얻고, 결국 국가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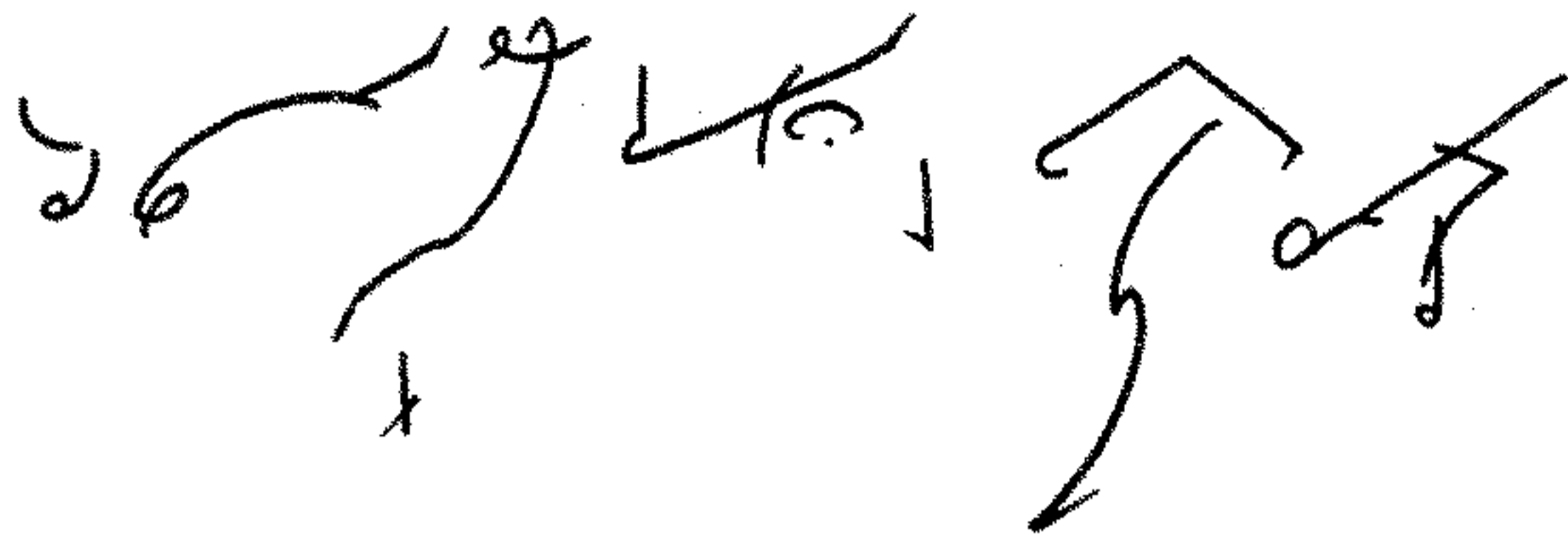
민족의 대들보가 되고 기둥이 되는 최후의 승리를 얻고야 만다고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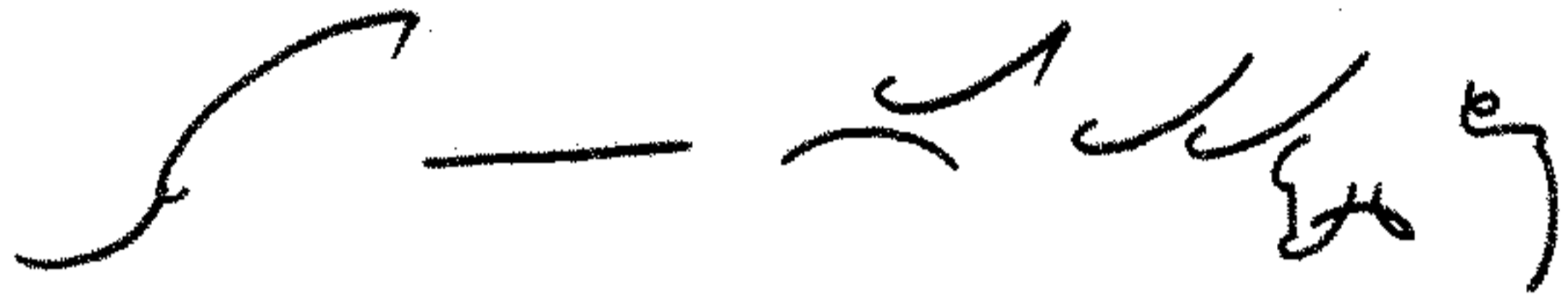
장자는 이 최후의 승리를 '작은 것에 짐으로써 큰 것에 이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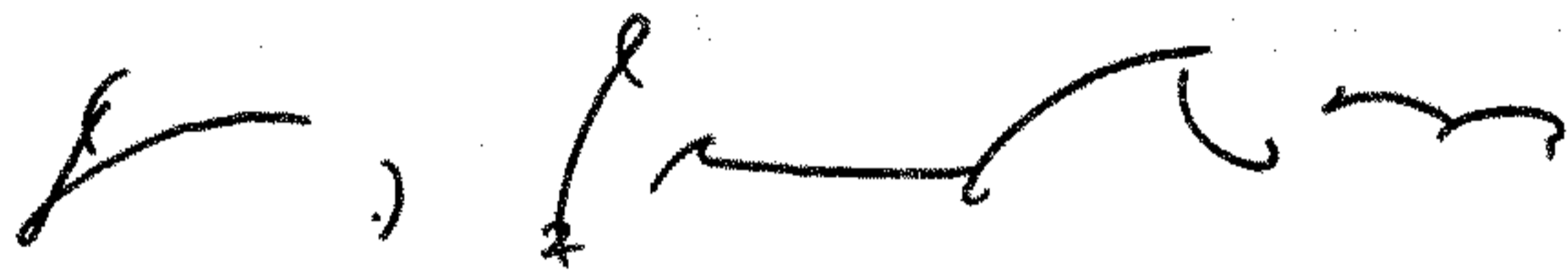
바람에 비유하고, 손가락 하나에도 이기지 못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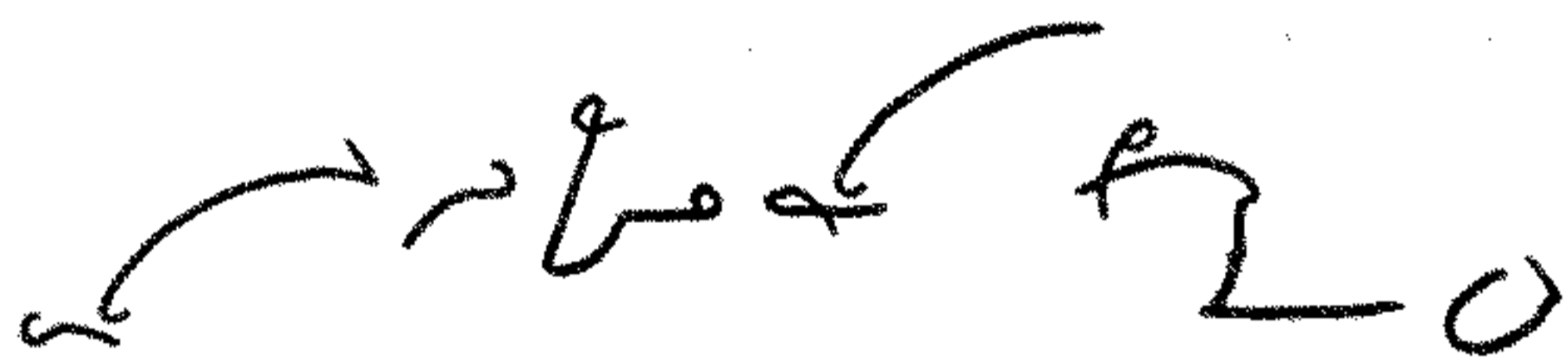
바람이 짐채를 날릴 수 있다는 이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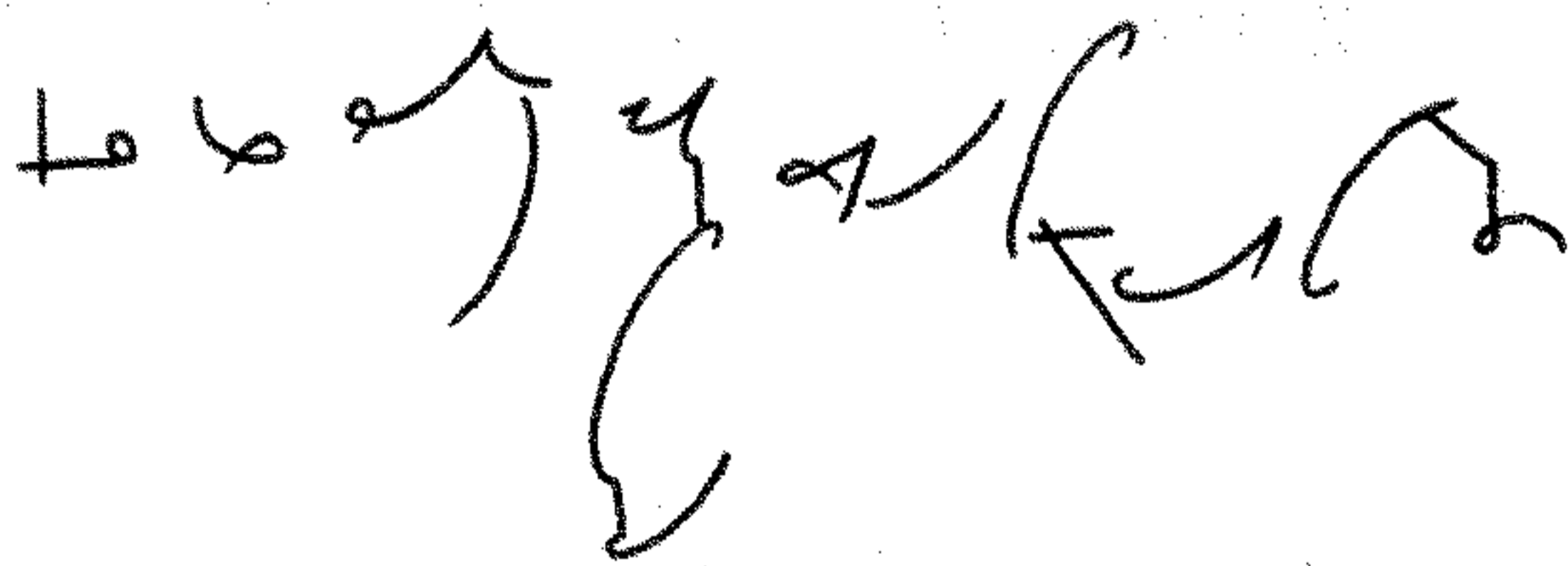
'우직'의 그 '무용의 유용성'이야말로 결코



서둘지 않고 씩없이 자기 직분에 묵묵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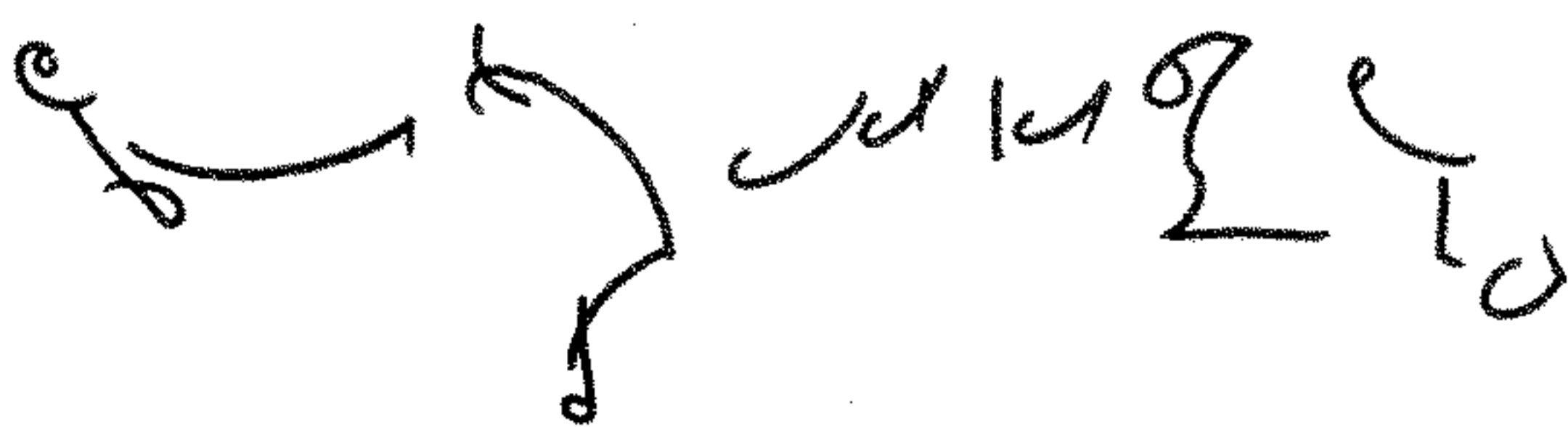
매진하는 자에게 돌아가는 값진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역사 의식이요 참다운 시간 활용의 지혜이며



어떤 변화에도 능히 적응하고 또 반대로 어떤



변화에도 능히 버틸 수 있는 '유연'과 '의연'의 정수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희망과 의욕에 가득 찬 젊은 졸업생 여러분.
젊음의 아름다움은

자연이 만들고 연로의 아름다움은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라는 경구에서도 배울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제부터 자기의 언행에 책임을 다하는 굳은
각오 아래

부디 자기 완성, 자기 교육을

















생애를 다하는 날까지 지속시켜 주기 바랍니다.
다.

* 자신이 쓴 속기문자를 읽어보자 <실전연습은 쓰고 읽기를 위주로 한다>.

손풀기 : 기본문자복습 ... ㄹ받침, ㄱ받침 3회 이상 써보자.


♣ 동 사

1-8. 어미 응용 「~해서」 어찌구

-해서		된다 해서		있다 해서				
-하여		준다 하여		했다 하여				
-다가		하다가		밝히다가				
-려		받으려		잡으려는				
-자		나아가자		드리자는				
-듯		보듯		아니듯				
-든		가든		간다든		드리든		드린다든

주의 : 연습도 필요없다, 이해만 잘 하면. 그러나 손끝에 익히는 연습을 지금까지 하던 방식으로 해 봄이 어떨까?

1-9. 하선약자 : 동사 쓰는 위치와 같이 하선에 짧게 빠친다.

/	다시		
/s	다시 말해서		다시금
/<	다시 말해	/.	다시 말하여
//	다시 말하면	/o	다시 말한다면
/\	다시 한번	//	다시 말하자면

<실전연습 13> ... 한글문장을 속기문자로 옮겨보자.

6.29 e 

6.29 선언 노태우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장래 문제에 대해 굳은 신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쌓여진

뿌리 깊은 갈등과 반목이 국가적인 위기로

나타난

이 시대적 상황에서 정치적인 진정한 사명에

대해 깊은

사색과 솔한 번뇌를 하여 왔습니다.

또한 학계·언론계·경제계·종교계·

근로자·청년·학생 등 각계로부터 지혜를 구

하고

국민의 뜻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각계 각층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여 이 나라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여 이 나라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정부 역시 국민들로부터 용기와

여기며, 정부 역시 국민들로부터 용기와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위대한 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위대한 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역사와 국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의 구상을 주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상은 대통령 각하께

그러면 저의 구상을 주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상은 대통령 각하께

건의를 드릴 작정이며, 당원동지, 그리고

건의를 드릴 작정이며, 당원동지,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뒷받침을 받아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뒷받침을 받아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결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결심입니다.

첫째,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

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 88년 2

월 평화적 정부 이양을

실현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각료의 대다수가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자율과 개방을 바탕

으로 대화와 타협 속에

민주 책임정치에 가장 충실할 수 있는 의원

내각제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가장 바람

직한 제도라는

저의 생각에 변화가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저의 생각에 변화가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다수 국민이 당장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다수 국민이 당장

원하지 않는다면, 필경 그 제도는 국민과

원하지 않는다면, 필경 그 제도는 국민과

유리되고 이에 따라 탄생하는 정부는 국민과 꿈도 아픔도

유리되고 이에 따라 탄생하는 정부는 국민과 꿈도 아픔도

함께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시점에서 저는 사회적

함께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시점에서 저는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가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혼란을 극복하고, 국가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자신이 쓴 속기문자를 읽어보자(실전연습은 쓰고 읽기를 위주로 한다).

손풀기 : 기본문자 복습 ... 1 모음 3회 이상 써보자.

♣ 동 사

2. 위치(어미)변화(1) : 점 ... 니, 나, 고, 는데, 지, 며

1 니	2 나	3 고
⋮	⋮	⋮
6 며	5 지	4 는데 (인데)

이 어미변화는 기본형과 더불어 모든 동사응용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이 위치(어미) 변화를 모르고서 동방속기를 배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암기해야 할 것은 바로 「니, 나, 고, 는데, 지, 며」 한 줄 뿐이다.**

「니, 나, 고, 는데, 지, 며」를 반복하며 입으로는 외우고 머리로는 정측 앞에서 시작하여 끝으로 다시 반측의 끝에서 반측의 앞으로 돌아오는 그림을 그리는 연상훈련을 하면 된다.



여기서 니 = (으)니

나 = (으)나

는데 = 인데

며 = (으)며

와 같으며 말이 되게 변화를 시켜 보면 되고 「~으」를 넣어서 말이 두 가지가 다 되면 같이 쓰고 문장에서 구별한다.

ㅏ ... 있니?, 있으니 (... 없니?, 없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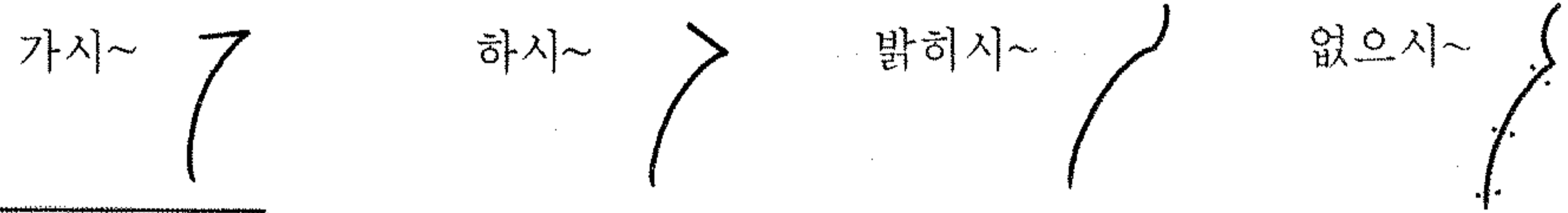
참고 : 동사의 어미변화란?

동사나 형용사처럼 말끝이 여러 형태로 변하여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데 말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어간)은 항상 살아 있어 변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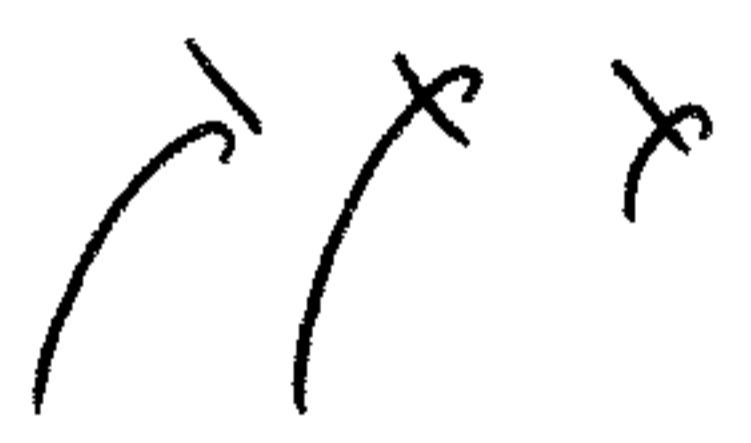
예)		속기문자		속기문자
	된다 / 되다 = 기본형	ㄷ		않는다 / 않다 = 기본형
	되	ㄷ		않
	니	ㄷ		(으)니
	나	ㄷ		(으)나
	고	ㄷ		고
	는데	ㄷ		는데
	지	ㄷ		지
	며	ㄷ		(으)며

따라서, 기본형은 그 자체로서만 활용이 되고 뒤에 어미가 붙으면 자연스럽게 「다」자를 떼어내고 활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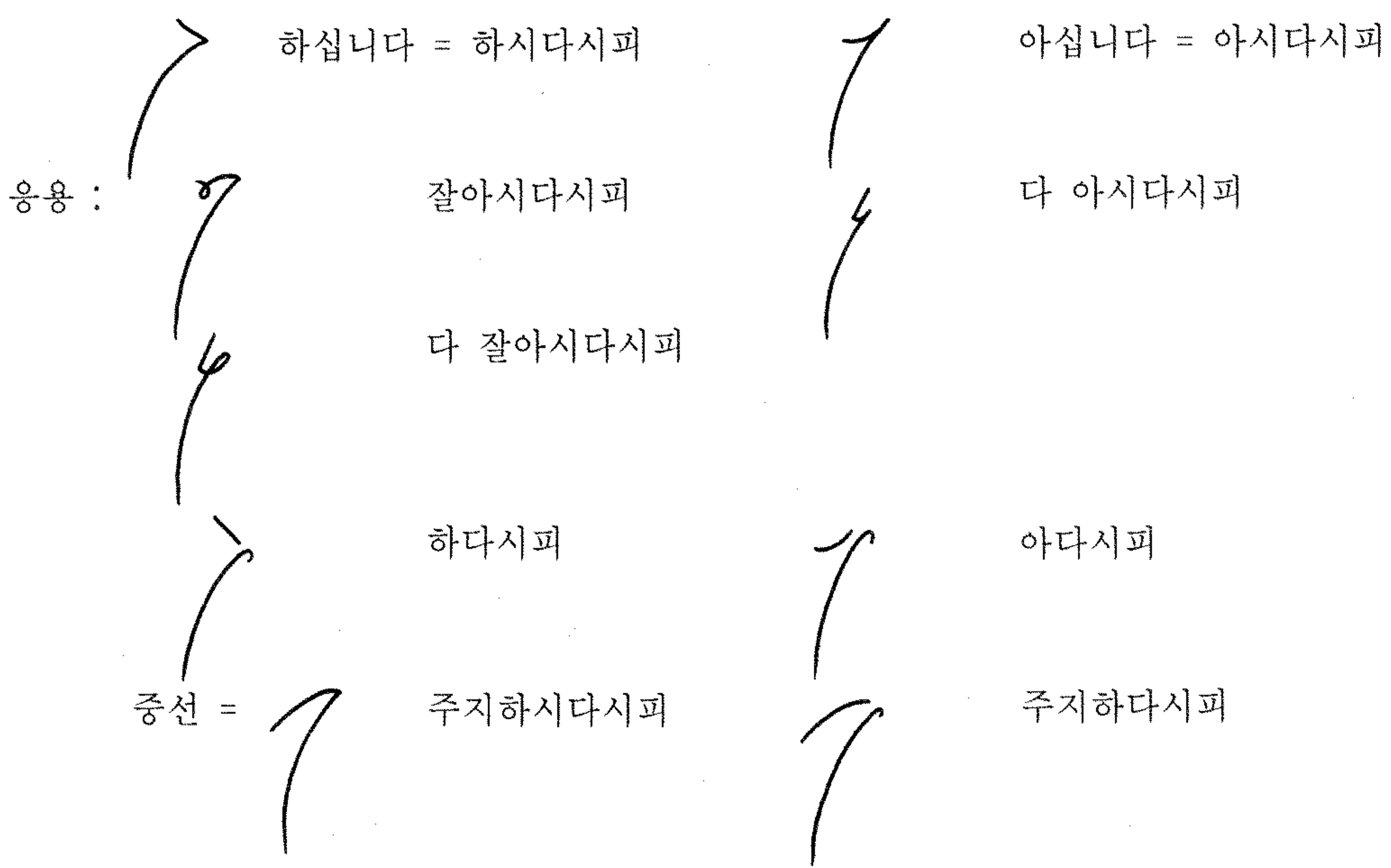
2-1. **~(으)시** : “스” 16mm



2-2. **신, 실, 섰** : 기본문자를 사용한다.



2-3. **~(으)십니다 = ~(으)시다시피** : “스” 또는 “시” 2cm 이상



<응용연습> ...속기의 비결 ① 연습 ② 연습 ③ 연습

기본형 + 「~(으니)」 어찌구

간다	가니	가나	가고	가는데	가지	가며
—	—	—	—	—	—	—
일으킨다	일으키니	일으키나	일으키고	일으키는데	일으키지	일으키며
—	—	—	—	—	—	—
나간다	나가니	나가나	나가고	나가는데	나가지	나가며
—	—	—	—	—	—	—
지킨다	지키니	지키나	지키고	지키는데	지키지	지키며
∪	∪	∪	∪	∪	∪	∪
된다	되니	되나	되고	되는데	되지	되며
∪	∪	∪	∪	∪	∪	∪
모른다	모르니	모르나	모르고	모르는데	모르지	모르며
∪	∪	∪	∪	∪	∪	∪
안된다	안되니	안되나	안되고	안되는데	안되지	안되며
/	/	/	/	/	/	/
않으면 안된다	않으면 안되니		않으면 안되나		않으면 안되고	
/	/	/	/	/	/	/
않으면 안되는데	않으면 안되지		않으면 안되며			
/	/	/	/	/	/	/
둔다	두니	두나	두고	두는데	두지	두며
/	/	/	/	/	/	/
밝힌다	밝히니	밝히나	밝히고	밝히는데	밝히지	밝히며
)))))))
나온다	나오니	나오나	나오고	나오는데	나오지	나오며
)))))))
했다	했으니	했으나	했고	했는데	했지	했으며
∪	∪	∪	∪	∪	∪	∪
나아가다	나아가니	나아가나	나아가고	나아가는데	나아가지	나아가며
∪	∪	∪	∪	∪	∪	∪

믿는다	믿으니	믿으나	믿고	믿는데	믿지	믿으며
바란다	바라니	바라나	바라고	바라는데	바라지	바라며
버린다	버리니	버리나	버리고	버리는데	버리지	버리며
본다	보니	보나	보고	보는데	보지	보며
시킨다	시키니	시키나	시키고	시키는데	시키지	시키며
받는다	받으니	받으나	받고	받는데	받지	받으며
안다	아니	아나	알고	아는데	알지	알며
온다	오니	오나	오고	오는데	오지	오며
잡는다	잡으니	잡으나	잡고	잡는데	잡지	잡으며
준다	주니	주나	주고	주는데	주지	주며
드린다	드리니	드리나	드리고	드리는데	드리지	드리며
들이다	들이니	들이나	들이고	들이는데	들이지	들이며
아니다	아니니	아니나	아니고	아닌데	아니지	아니며
않는다	않으니	않으나	않고	않는데	않지	않으며
판다	파니	파나	팔고	파는데	팔지	팔며

없다	없으니	없으나	없고	없는데	없지	없으며
(((((((
아니(하)	아니하니	아니하나	아니하고	아니하는데	아니하지	아니하며
(((((((
한다	하니	하나	하고	하는데	하지	하며
\	\	\	\	\	\	\
있다	있으니	있으나	있고	있는데	있지	있으며

「~는 것이다」 + 「~(으니)」 어찌구

간다	가는 것이다	가는 것이니	가는 것이나	가는 것이고	가는 것인데
—	—e	—e	—e	—e	—e
	가는 것이지	가는 것이며			
	—e	—e			
일으킨다	일으키는 것이다	일으키는 것이니	일으키는 것이나	일으키는 것이고	
—	—e	—e	—e	—e	
	일으키는 것인데	일으키는 것이지	일으키는 것이며		
	—e	—e	—e		
나간다	나가는 것이다	나가는 것이니	나가는 것이나	나가는 것이고	
—	—e	—e	—e	—e	
	나가는 것인데	나가는 것이지	나가는 것이며		
	—e	—e	—e		
지킨다	지키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니	지키는 것이나	지키는 것이고	
~	~e	~e	~e	~e	
	지키는 것인데	지키는 것이지	지키는 것이며		
	~e	~e	~e		
된다	되는 것이다	되는 것이니	되는 것이나	되는 것이고	
~	~e	~e	~e	~e	
	되는 것인데	되는 것이지	되는 것이며		
	~e	~e	~e		

모른다 모르는 것이다 모르는 것이니 모르는 것이나 모르는 것이고



모르는 것인데 모르는 것이지 모르는 것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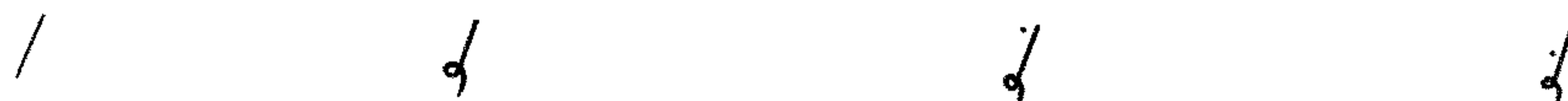
안된다 안되는 것이다 안되는 것이니 안되는 것이나 안되는 것이고



안되는 것인데 안되는 것이지 안되는 것이며



않으면 안된다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않으면 안되는 것이니 않으면 안되는 것이나



않으면 안되는 것이고 않으면 안되는 것인데 않으면 안되는 것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며



둔다 두는 것이다 두는 것이니 두는 것이나 두는 것이고



두는 것인데 두는 것이지 두는 것이며



밝힌다 밝히는 것이다 밝히는 것이니 밝히는 것이나 밝히는 것이고



밝히는 것인데 밝히는 것이지 밝히는 것이며



나온다 나오는 것이다 나오는 것이니 나오는 것이나 나오는 것이고



나오는 것인데 나오는 것이지 나오는 것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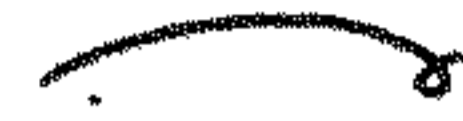















나아간다 나아가는 것이다 나아가는 것이니 나아가는 것이나 나아가는 것이고



















나아가는 것인데 나아가는 것이지 나아가는 것이며



















믿는다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니 믿는 것이나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인데






 믿는 것이지 믿는 것이며











바란다 바라는 것이다 바라는 것이니 바라는 것이나 바라는 것이고





 바라는 것인데 바라는 것이지 바라는 것이며










버린다 버리는 것이다 버리는 것이니 버리는 것이나 버리는 것이고





 버리는 것인데 버리는 것이지 버리는 것이며




본다 보는 것이다 보는 것이니 보는 것이나 보는 것이고 보는 것인데






 보는 것이지 보는 것이며



시킨다 시키는 것이다 시키는 것이니 시키는 것이나 시키는 것이고





 시키는 것인데 시키는 것이지 시키는 것이며




받는다 받는 것이다 받는 것이니 받는 것이나 받는 것이고 받는 것인데






 받는 것이지 받는 것이며



안다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니 아는 것이나 아는 것이고 아는 것인데






 아는 것이지 아는 것이며



온다 오는 것이다 오는 것이니 오는 것이나 오는 것이고 오는 것인데







오는 것이지 오는 것이며







잡는다 잡는 것이다 잡는 것이니 잡는 것이나 잡는 것이고


잡는 것인데 잡는 것이지 잡는 것이며

준다 주는 것이다 주는 것이니 주는 것이나 주는 것이고 주는 것인데

주는 것이지 주는 것이며

드린다 드리는 것이다 드리는 것이니 드리는 것이나 드리는 것이고

드리는 것인데 드리는 것이지 드리는 것이며

들이다 들이는 것이다 들이는 것이니 들이는 것이나 들이는 것이고

들이는 것인데 들이는 것이지 들이는 것이며

오른다 오르는 것이다 오르는 것이니 오르는 것이나 오르는 것이고

오르는 것인데 오르는 것이지 오르는 것이며


얹는다 얹는 것이다 얹는 것이니 얹는 것이나 얹는 것이고 얹는 것인데

얹는 것이지 얹는 것이며

판다 파는 것이다 파는 것이니 파는 것이나 파는 것이고 파는 것인데

파는 것이지 파는 것이며

없다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니	없는 것이나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인데
(ㄴ	ㄴ	ㄴ	ㄴ	ㄴ
	없는 것이지	없는 것이며			
	ㄴ	ㄴ			
아니(하)	아니하는 것이다	아니하는 것이니	아니하는 것이나	아니하는 것이고	
(ㄴ	ㄴ	ㄴ	ㄴ	ㄴ
	아니하는 것인데	아니하는 것이지	아니하는 것이며		
	ㄴ	ㄴ	ㄴ		
한다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니	하는 것이나	하는 것이고	하는 것인데
\	\	ㄴ	ㄴ	ㄴ	ㄴ
	하는 것이지	하는 것이며			
	ㄴ	ㄴ			
있다	있는 것이다	있는 것이니	있는 것이나	있는 것이고	있는 것인데
	ㄴ	ㄴ	ㄴ	ㄴ	ㄴ
	있는 것이지	있는 것이며			
	ㄴ	ㄴ			

참고 : 여기에서도 「~으」가 들어간 말과 들어가지 않은 말, 들 다로 읽어지는 것이 있는데 역시 문장 속에서 구별한다고 생각하고 같이 연습하기 바란다.

없으니 = 없니 있으니 = 있니

「~시, ~셨(으), ~신, ~실」 + 「~니, 나...」 어찌구도 각자 연습해보자.

참고 : <실전연습>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서는 문장연습보다도 지금까지 배운 진도를 충분히 복습하는 것이 좋다. 지금 배우는 이 진도는 약기법 진도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입에 「니, 나, 고, 는데, 지, 며」가 붙도록 계속 연습하고 정측 머리에서 세 부분을 활용하여 점을 찍고 반측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연상하도록 하라.

손풀기: 기본문자 복습 ... ㅈ모음 3회 이상 써보자.

2-4. 「~고」 생략법

	되고 있다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		
	먹고 있다		되고 있습니다마는
	먹고 있으며		

2-5. 「~지」 생략법

	되지 않는다		되지 않습니다
	드리지 않고		먹지 않고
	되고 있지 않다		되지 않고 있다
	~지 않는 바입니다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없다)

<응용연습>

「~고」 어찌구

간다 가고 있다 일으킨다 일으키고 있다 나간다 나가고 있다

지킨다 지키고 있다 된다 되고 있다 모른다 모르고 있다

안된다 안되고 있다 둔다 두고 있다 밝힌다 밝히고 있다 나온다 나오고 있다

나아간다 나아가고 있다 믿는다 믿고 있다 바란다 바라고 있다

— — | — — |) 4

버린다 버리고 있다 본다 보고 있으니 시킨다 시키고 있으나 받는다 받고 있고

) 4) 4 (4 (4

안다 알고 있는데 온다 오고 있지 잡는다 잡고 있다 준다 주고 있으며

4 4) 4 (4 (4

드린다 드리고 있으니 오른다 오르고 있으나 앓는다 앓고 있고 판다 팔고 있는데

/ 4 / 4) }) }

아니(하) 아니하고 있지 한다 하고 있으며

((\ 4

「~지」 어찌구

간다 가지 않는다 일으킨다 일으키지 않는다 나간다 나가지 않는다

— T — T — T

지킨다 지키지 않는다 된다 되지 않는다 모른다 모르지 않는다

) T) T) T

안된다 안되지 않는다 앓으면 안된다 앓으면 안되지 않는다 둔다 두지 않는다

/ 4 / 4 4 / 4

밝힌다 밝히지 않는다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아간다 나아가지 않는다

) 4) 4 — T

버린다 버리지 않는다 본다 보지 않는다 시킨다 시키지 않으니

) T) T (4

받는다 받지 않으나 안다 알지 않고 온다 오지 않는데 잡는다 잡지 않는다

(4) T) T (4

준다 주지 않지 드린다 드리지 않으며 오른다 오르지 않으니

／ 丌 一 丌 一 丌

않는다 않지 않으나 판다 팔지 않고 아니(하) 아니하지 않는데

) ㄱ) ㄱ (ㄱ

한다 하지 않지 있다 있지 않으며

\ 丌 | ㄱ

「~고 있지 않다」

간다	가고	가고 있지	가고 있지 않다
—	—	ㄱ	ㄱ
일으킨다	일으키고	일으키고 있지	일으키고 있지 않다
—	—	ㄱ	ㄱ
나간다	나가고	나가고 있지	나가고 있지 않다
—	—	ㄱ	ㄱ
지킨다	지키고	지키고 있지	지키고 있지 않다
ㄴ	ㄴ	ㄱ	ㄱ
된다	되고	되고 있지	되고 있지 않다
ㄴ	ㄴ	ㄱ	ㄱ
모른다	모르고	모르고 있지	모르고 있지 않다
ㄴ	ㄴ	ㄱ	ㄱ
안된다	안되고	안되고 있지	안되고 있지 않다
/	/	ㄱ	ㄱ
둔다	두고	두고 있지	두고 있지 않다
/	/	ㄱ	ㄱ

밝힌다	밝히고	밝히고 있지	밝히고 있지 않다
ㄴ	ㄴ	ㅏ	ㅑ
나온다	나오고	나오고 있지	나오고 있지 않다
ㄴ	ㄴ	ㅏ	ㅑ
나아간다	나아가고	나아가고 있지	나아가고 있지 않다
ㅡ	ㅡ	ㅑ	ㅑ
믿는다	믿고	믿고 있지	믿고 있지 않다
ㅡ	ㅡ	ㅑ	ㅑ
바란다	바라고	바라고 있지	바라고 있지 않다
ㄴ	ㄴ	ㅏ	ㅑ
버린다	버리고	버리고 있지	버리고 있지 않다
ㄴ	ㄴ	ㅏ	ㅑ
본다	보고	보고 있지	보고 있지 않다
ㄴ	ㄴ	ㅏ	ㅑ
시킨다	시키고	시키고 있지	시키고 있지 않다
ㄴ	ㄴ	ㅏ	ㅑ
받는다	받고	받고 있지	받고 있지 않다
ㄴ	ㄴ	ㅏ	ㅑ
안다	알고	알고 있지	알고 있지 않다
ㄴ	ㄴ	ㅏ	ㅑ
온다	오고	오고 있지	오고 있지 않다
ㄴ	ㄴ	ㅏ	ㅑ
잡는다	잡고	잡고 있지	잡고 있지 않다
ㄴ	ㄴ	ㅏ	ㅑ

준다	주고	주고 있지	주고 있지 않다
↗	↗	↗	↗
오른다	오르고	오르고 있지	오르고 있지 않다
↗	↗	↗	↗
얹는다	얹고	얹고 있지	얹고 있지 않다
))))
판다	팔고	팔고 있지	팔고 있지 않다
))))
아니(하)	아니하고	아니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지 않다
((((
한다	하고	하고 있지	하고 있지 않다
\	\	\	\

「~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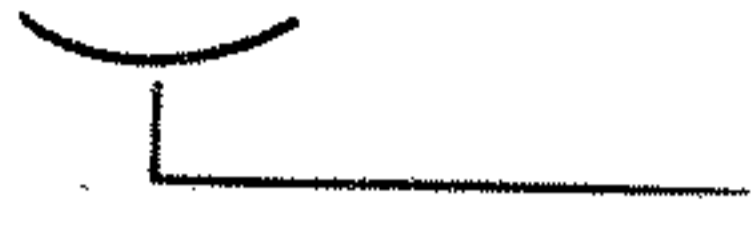
간다	가지	가지 않고	가지 않고 있다
—	—	—	—
일으킨다	일으키지	일으키지 않고	일으키지 않고 있다
—	—	—	—
나간다	나가지	나가지 않고	나가지 않고 있다
—	—	—	—
지킨다	지키지	지키지 않고	지키지 않고 있다
⌒	⌒	⌒	⌒
된다	되지	되지 않고	되지 않고 있다
⌒	⌒	⌒	⌒

모른다	모르지	모르지 않고	모르지 않고 있다
안된다	안되지	안되지 않고	안되지 않고 있다
둔다	두지	두지 않고	두지 않고 있다
밝힌다	밝히지	밝히지 않고	밝히지 않고 있다
나온다	나오지	나오지 않고	나오지 않고 있다
나아간다	나아가지	나아가지 않고	나아가지 않고 있다
믿는다	믿지	믿지 않고	믿지 않고 있다
바란다	바라지	바라지 않고	바라지 않고 있다
버린다	버리지	버리지 않고	버리지 않고 있다
본다	보지	보지 않고	보지 않고 있다
시킨다	시키지	시키지 않고	시키지 않고 있다
받는다	받지	받지 않고	받지 않고 있다

안다	알지	알지 않고	알지 않고 있다
ㄴ	ㄴ	ㄱ	ㄱ
온다	오지	오지 않고	오지 않고 있다
ㄴ	ㄴ	ㄱ	ㄱ
잡는다	잡지	잡지 않고	잡지 않고 있다
ㄴ	ㄴ	ㄱ	ㄱ
준다	주지	주지 않고	주지 않고 있다
ㄴ	ㄴ	ㄱ	ㄱ
드린다	드리지	드리지 않고	드리지 않고 있다
ㄴ	ㄴ	ㄱ	ㄱ
오른다	오르지	오르지 않고	오르지 않고 있다
ㄴ	ㄴ	ㄱ	ㄱ
얹는다	얹지	얹지 않고	얹지 않고 있다
))	ㄱ	ㄱ
판다	팔지	팔지 않고	팔지 않고 있다
))	ㄱ	ㄱ
아니(하)	아니하지	아니하지 않고	아니하지 않고 있다
((ㄱ	ㄱ
한다	하지	하지 않고	하지 않고 있다
\	\	ㄱ	ㄱ
있다	있지	있지 않고	있지 않고 있다
		ㄱ	ㄱ

「~지 않을 수 없」어쩌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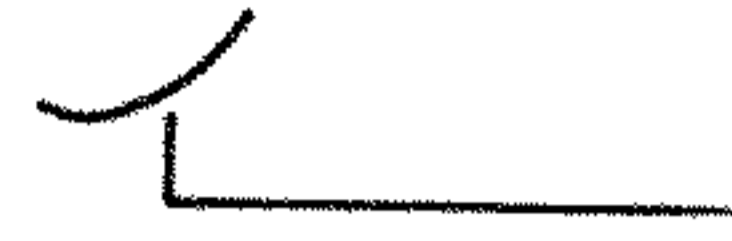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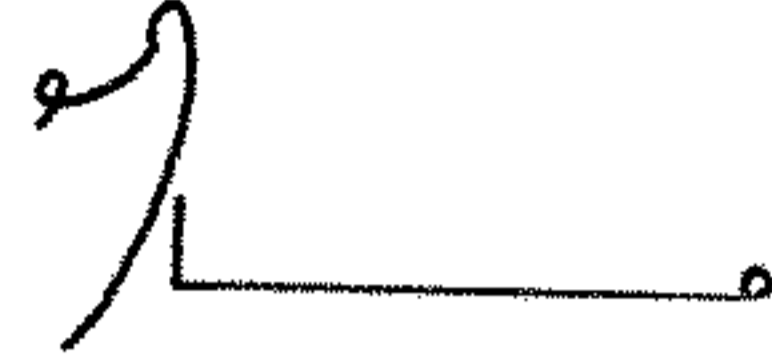
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먹지 않을 수 없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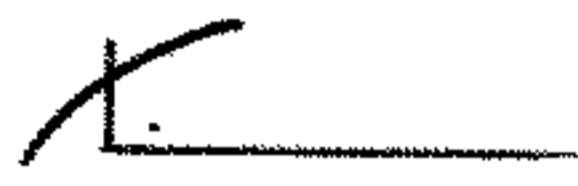
알리지 않을 수 없는



밝히지 않을 수 없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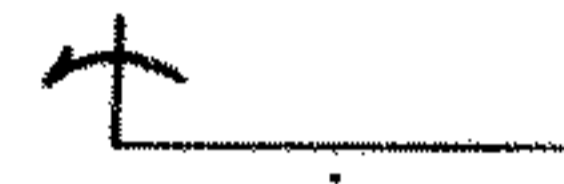
주지 않을 수 없으니



드리지 않을 수 없고



먹지 않을 수 없지



「~지 않는 바입니다」

가지 않는 바입니다



되지 않는 바입니다



드리지 않는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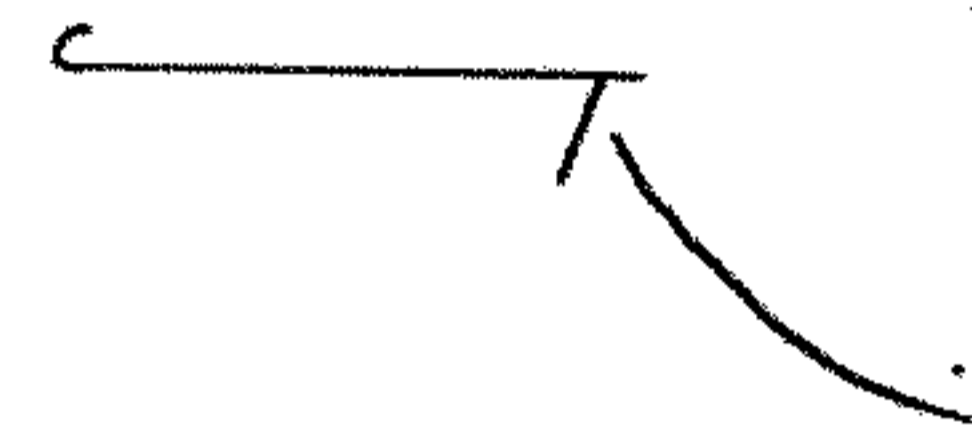
멈추지 않는 바이고



머물지 않는 바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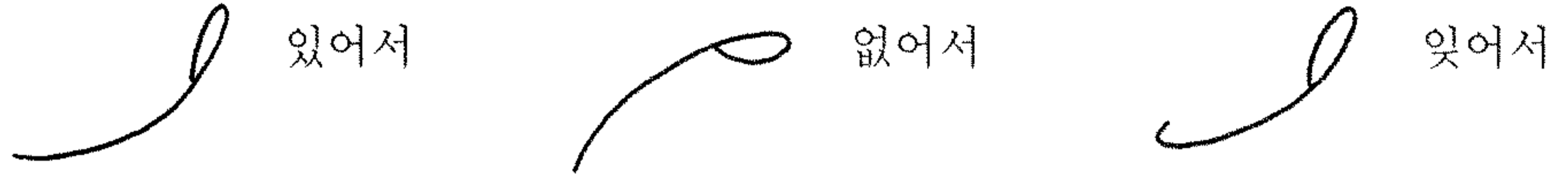


기대하지 않는 바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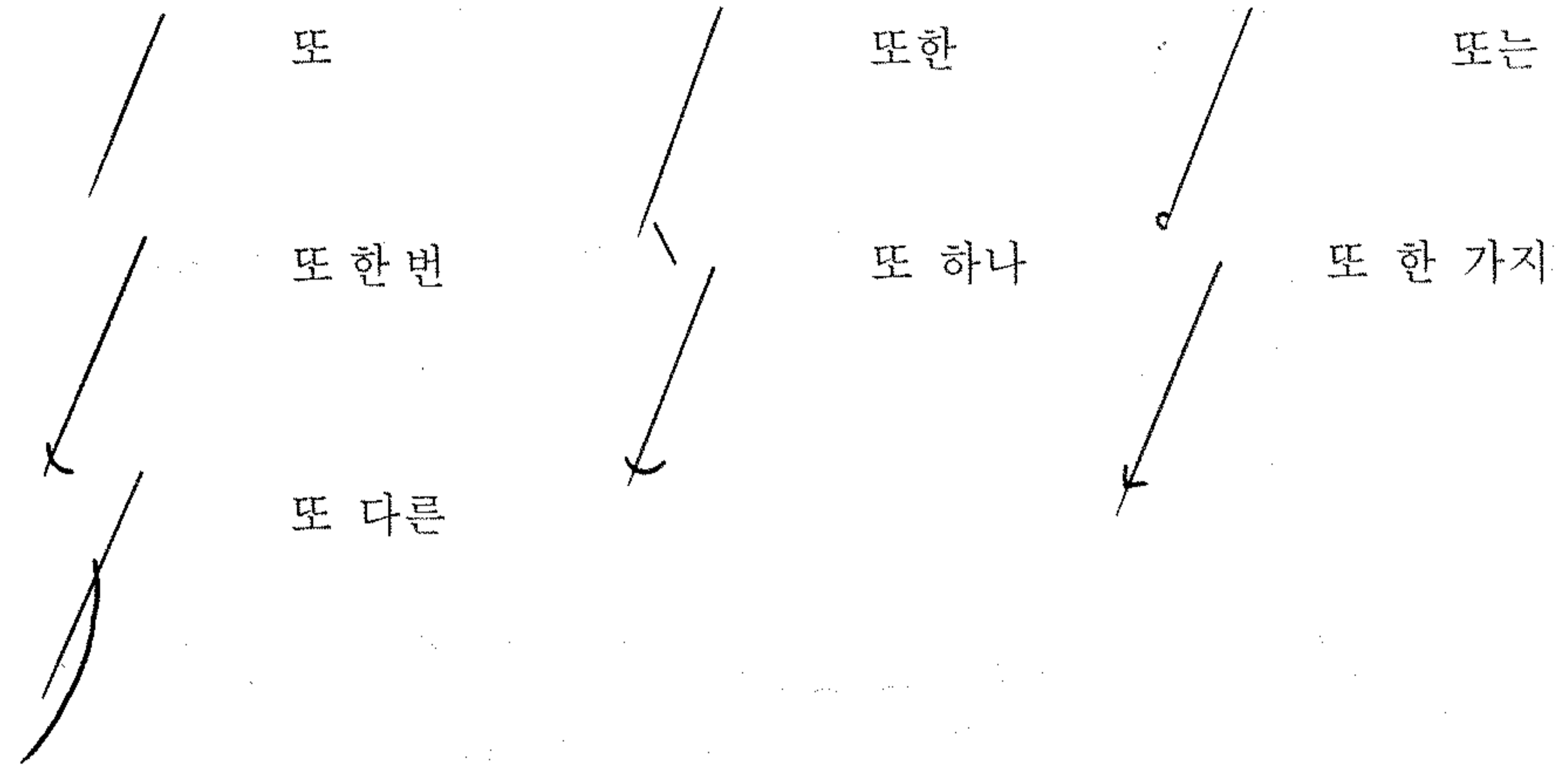


손풀기: 기본문자 복습 ... 3회 이상 써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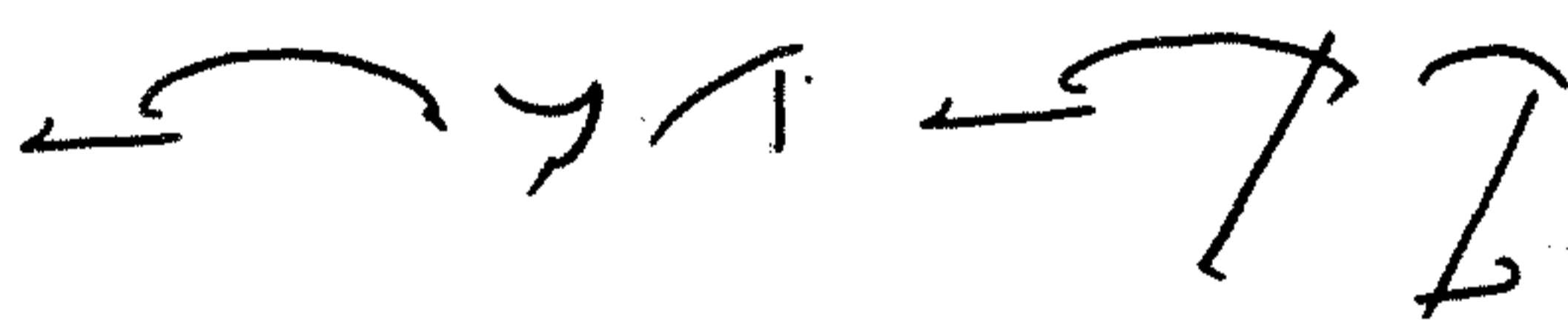
2-6. **있어서~**: 2cm 이상



2-7. **또~**: 2cm 이상



<실전연습 14> ... 한글문장을 속기문자로 옮겨보자.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며, *국민의 뜻은 모
든 것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둘째, 직선제 개헌이라는
체도의 변경뿐만



아니라, 이의 민주적 실천을 위하여는 자유로
운 출마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 국민의 올바른 심판

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대통령 선거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새로운 법에 따라, 선거운동, 투·개표 과정 등에 있어서 최대한의 공명정대한

선거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직선제라 하더라도 근거 없는

인신공격과 대중선동으로 적개심을 불태우면서, 혼란과 무질서가

판을 치게 되고 지역감정을 불러 일으켜

결국 국가안정을 해치고, 진정한

Handwritten cursive text, likely a signature or name.

민주발전을 저해해서는 안되며, 정책대결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Handwritten cursive text.

기본 바탕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③ Handwritten cursive text.

셋째, 우리 정치권은 물론,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Handwritten cursive text.

반목과 대결이 과감히 제거되어 국민적 화해와

Handwritten cursive text.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Handwritten cursive text.

그 과거가 어떠하였든 간에 김대중 씨도 사면.

Handwritten cursive text.

복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Handwritten Korean text: 우리와 우리들 자손의 존립 기반인 자유민주주의적

우리와 우리들 자손의 존립 기반인 자유민주주의적

Handwritten Korean text: 기본 질서를 부인한 반국가 사범이나 살상·방화·

기본 질서를 부인한 반국가 사범이나 살상·방화·

Handwritten Korean text: 파괴 등으로 국기를 흔들었던 극소수를 제외한

파괴 등으로 국기를 흔들었던 극소수를 제외한

Handwritten Korean text: 모든 시국관련 사범들도 석방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들도

모든 시국관련 사범들도 석방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들도

Handwritten Korean text: 민주시민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민주시민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Handwritten Korean text: 과거가 없는 현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분수령인

과거가 없는 현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분수령인

Handwritten Korean text: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 크게 웃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 크게 웃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오, 이, 는, 가, 는, 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이, 는, 가, 는, 는, 는, 는

차기 대통령선거가 국민의 축제로 승화될 것
이고,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이, 는, 가, 는, 는, 는, 는

새로 출현하는 정부는 튼튼한 국민적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이, 는, 가, 는, 는, 는, 는

기반 위에 위대한 나라 건설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이, 는, 가, 는, 는, 는, 는

넷째, 인간의 존엄성은 더욱 존중되어야
하며,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이, 는, 가, 는, 는, 는, 는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은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이, 는, 가, 는, 는, 는, 는

최대한 신장되어야 합니다. 이번의 개헌에는
민정당이 주장한

구속적부심 전면확대 등 기본권

구속적부심 전면확대 등 기본권

강화조항이 모두 포함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강화조항이 모두 포함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정부는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정부는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민정당은 변호사회 등 인권단체와의 정기적

민정당은 변호사회 등 인권단체와의 정기적

회합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례의 즉각적

회합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례의 즉각적

시정과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등 실질적

시정과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등 실질적
효과

거양에 주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거양에 주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자신이 쓴 속기문자를 읽어보자(실전연습은 쓰고 읽기를 위주로 한다).

손풀기 : 기본문자 복습 ...ㄴ받침, ㅇ받침 3회 이상 써보자.

♣ 동 사

3. 위치(어미)변화(2): 다줄 빼침... **니까, 느냐, 다고, 다는데, 는지, 면**

니까	(느)냐	다고
／	／	／
면	는지	다는데

하줄 빼침 ... 라고, 라는데, 르지

	라고	
／	／	／
르지	라는데	참고 : 인지

〈응용연습〉 먼저 입속으로 「니까, 느냐, 다고, 다는데, 는지, 면」을 10회 이상 중얼거린 후 연습에 들어가자.

기본형 + 「~(으)니까」 어찌구 ... 「니, 나, 고, 는데, 지, 며」와 그대로 연관된다.

간다	가니까	가느냐	간다고	간다는데	가는지	가면
—	／	／	／	／	／	／
일으킨다	일으키니까	일으키느냐	일으킨다고	일으킨다는데	일으키는지	일으키면
—	／	／	／	／	／	／
나간다	나가니까	나가느냐	나간다고	나간다는데	나가는지	나가면
—	／	／	／	／	／	／
지킨다	지키니까	지키느냐	지킨다고	지킨다는데	지키는지	지키면
—	／	／	／	／	／	／

된다	되니까	되느냐	된다고	된다는데	되는지	되면
모른다	모르니까	모르느냐	모른다고	모른다는데	모르는지	모르면
안된다	안되니까	안되느냐	안된다고	안된다는데	안되는지	안되면
않으면	안된다	않으면	안되니까	않으면	안되느냐	않으면
		않으면	안된다는데	않으면	안되는지	않으면
둔다	두니까	두느냐	둔다고	둔다는데	두는지	두면
밝힌다	밝히니까	밝히느냐	밝힌다고	밝힌다는데	밝히는지	밝히면
나온다	나오니까	나오느냐	나온다고	나온다는데	나오는지	나오면
했다	했으니까	했느냐	했다고	했다는데	했는지	했으면
나야간다	나아가니까	나아가느냐	나야간다고	나야간다는데	나아가는지	나아가면
믿는다	믿으니까	믿느냐	믿는다고	믿는다는데	믿는지	믿으면
바란다	바라니까	바라느냐	바란다고	바란다는데	바라는지	바라면
버린다	버리니까	버리느냐	버린다고	버린다는데	버리는지	버리면
본다	보니까	보느냐	본다고	본다는데	보는지	보면
시킨다	시키니까	시키느냐	시킨다고	시킨다는데	시키는지	시키면

받는다	받으니까	받느냐	받는다고	받는다는데	받는지	받으면
(((((((
안다	아니까	아느냐	안다고	안다는데	아는지	알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온다	오니까	오느냐	온다고	온다는데	오는지	오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잡는다	잡으니까	잡느냐	잡는다고	잡는다는데	잡는지	잡으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준다	주니까	주느냐	준다고	준다는데	주는지	주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드린다	드리니까	드리느냐	드린다고	드린다는데	드리는지	드리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들어다	들어니까	들어느냐	들인다고	들인다는데	들어는지	들어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오른다	오르니까	오르느냐	오른다고	오른다는데	오르는지	오르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아니다	아니니까	아니냐	(아니다고)	(아니다는데)	(아니는지)	아니면
)))))))
얹는다	얹으니까	얹느냐	얹는다고	얹는다는데	얹는지	얹으면
)))))))
판다	파니까	파느냐	판다고	판다는데	파는지	팔면
)))))))
없다	없으니까	없느냐	없다고	없다는데	없는지	없으면
(((((((
아니(하)	아니하니까	아니하느냐	아니한다고	아니한다는데	아니하는지	아니하면
(((((((
한다	하니까	하느냐	한다고	한다는데	하는지	하면
\	\	\	\	\	\	\
있다	있으니까	있느냐	있다고	있다는데	있는지	있으면

없다	없으라고	없으라는데	없을지	아니(하)	아니하라고	아니하라는데	아니할지
((\	(\	Y	((\	(\	Y
한다	하라고	하라는데	할지	있다	있으라고	있으라는데	있을지
\	\	\	\				

「~는 것이다」+「~(으)니까」어찌구

참고 : 「것」 다음에 「다고, 다는데, 는지」는 「것이라고, 것이라는데, 것인지」로 활용할 수도 있으나 어미응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해진 어미를 가지고 활용한다.

간다	가는 것이다	가는 것이니까	가는 것이냐	가는 것이라고	가는 것이라는데
—	—e	—e	—e	—e	—e
	가는 것일지	가는 것이면	가는 것인지		
	—e	—e	—e		

일으킨다	일으키는 것이다	일으키는 것이니까	일으키는 것이냐	일으키는 것이라고
—	—e	—e	—e	—e
	일으키는 것이라는데	일으키는 것일지	일으키는 것이면	일으키는 것인지
	—e	—e	—e	—e

나간다	나가는 것이다	나가는 것이니까	나가는 것이냐	나가는 것이라고
—	—e	—e	—e	—e
	나가는 것이라는데	나가는 것일지	나가는 것이면	나가는 것인지
	—e	—e	—e	—e

지킨다	지키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니까	지키는 것이냐	지키는 것이라고
—	—e	—e	—e	—e
	지키는 것이라는데	지키는 것일지	지키는 것이면	지키는 것인지
	—e	—e	—e	—e

된다	되는 것이다	되는 것이니까	되는 것이냐	되는 것이라고	되는 것이라는데
—	—e	—e	—e	—e	—e
	되는 것일지	되는 것이면	되는 것인지		
	—e	—e	—e		

모른다 모르는 것이다 모르는 것이니까 모르는 것이냐 모르는 것이라고

모르는 것이라는데 모르는 것일지 모르는 것이면 모르는 것인지

안된다 안되는 것이다 안되는 것이니까 안되는 것이냐 안되는 것이라고

안되는 것이라는데 안되는 것일지 안되는 것이면 안되는 것인지

않으면 안된다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않으면 안되는 것이니까 않으면 안되는 것이냐

않으면 안되는 것이라고 않으면 안되는 것이라는데 않으면 안되는 것일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면 않으면 안되는 것인지

둔다 두는 것이다 두는 것이니까 두는 것이냐 두는 것이라고 두는 것이라는데

두는 것일지 두는 것이면 두는 것인지

밝힌다 밝히는 것이다 밝히는 것이니까 밝히는 것이냐 밝히는 것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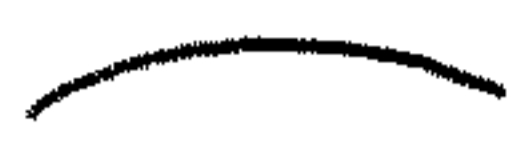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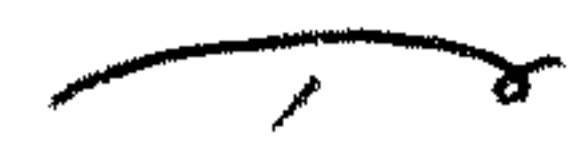

































































밝히는 것이라는데 밝히는 것일지 밝히는 것이면 밝히는 것인지

나온다 나오는 것이다 나오는 것이니까 나오는 것이냐 나오는 것이라고

나오는 것이라는데 나오는 것일지 나오는 것이면 나오는 것인지

나아간다 나아가는 것이다 나아가는 것이니까 나아가는 것이냐 나아가는 것이라고

나아가는 것이라는데 나아가는 것일지 나아가는 것이면 나아가는 것인지

믿는다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니까 믿는 것이냐 믿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라는데 믿는 것일지 믿는 것이면 믿는 것인지




 바란다 바라는 것이다 바라는 것이니까 바라는 것이냐 바라는 것이라고





 바라는 것이라는데 바라는 것일지 바라는 것이면 바라는 것인지




 버린다 버리는 것이다 버리는 것이니까 버리는 것이냐 버리는 것이라고





 버리는 것이라는데 버리는 것일지 버리는 것이면 버리는 것인지




 본다 보는 것이다 보는 것이니까 보는 것이냐 보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라는데






 보는 것일지 보는 것이면 보는 것인지



 시킨다 시키는 것이다 시키는 것이니까 시키는 것이냐 시키는 것이라고





 시키는 것이라는데 시키는 것일지 시키는 것이면 시키는 것인지




 받는다 받는 것이다 받는 것이니까 받는 것이냐 받는 것이라고





 받는 것이라는데 받는 것일지 받는 것이면 받는 것인지




 안다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니까 아는 것이냐 아는 것이라고 아는 것이라는데






 아는 것일지 아는 것이면 아는 것인지



 온다 오는 것이다 오는 것이니까 오는 것이냐 오는 것이라고 오는 것이라는데







오는 것일지 오는 것이면 오는 것인지

잡는다 잡는 것이다 잡는 것이니까 잡는 것이냐 잡는 것이라고

잡는 것이라는데 잡는 것일지 잡는 것이면 잡는 것인지

준다 주는 것이다 주는 것이니까 주는 것이냐 주는 것이라고 주는 것이라는데

주는 것일지 주는 것이면 주는 것인지

드린다 드리는 것이다 드리는 것이니까 드리는 것이냐 드리는 것이라고

드리는 것이라는데 드리는 것일지 드리는 것이면 드리는 것인지

들이다 들이는 것이다 들이는 것이니까 들이는 것이냐 들이는 것이라고

들이는 것이라는데 들이는 것일지 들이는 것이면 들이는 것인지

오른다 오르는 것이다 오르는 것이니까 오르는 것이냐 오르는 것이라고

오르는 것이라는데 오르는 것일지 오르는 것이면 오르는 것인지

얹는다 얹는 것이다 얹는 것이니까 얹는 것이냐 얹는 것이라고

얹는 것이라는데 얹는 것일지 얹는 것이면 얹는 것인지

판다 파는 것이다 파는 것이니까 파는 것이냐 파는 것이라고 파는 것이라는데

파는 것일지 파는 것이면 파는 것인지

없다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니까 없는 것이냐 없는 것이라고 없는 것이라는데

(ㄴ ㄴ' ㄴ ㄴ ㄴ

없는 것일지 없는 것이면 없는 것인지

ㄴ ㄴ ㄴ

아니(하) 아니하는 것이다 아니하는 것이니까 아니하는 것이냐 아니하는 것이라고

(ㄴ ㄴ' ㄴ ㄴ

아니하는 것이라는데 아니하는 것일지 아니하는 것이면 아니하는 것인지

ㄴ ㄴ ㄴ ㄴ

한다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니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라는데

\ ㄴ ㄴ' ㄴ ㄴ ㄴ

하는 것일지 하는 것이면 하는 것인지

ㄴ ㄴ ㄴ

있다 있는 것이다 있는 것이니까 있는 것이냐 있는 것이라고 있는 것이라는데

| ㄴ ㄴ' ㄴ ㄴ ㄴ

있는 것일지 있는 것이면 있는 것인지

ㄴ ㄴ' ㄴ'

손풀기 : 기본문자 복습 ...ㄹ받침, ㅅ받침 3회 이상 써보자.

♣ 동 사

4. 시제(어미)변화 (1)


4-1. ~었다

유형 1) 정측 머리에 반소원 : 하선 동사(특히 1자로 된 동사)활용에 편리

	갔다		되었다
	두었다		없었다

참고 : 갔다 = 갔다 = 갔(는)다 갔습니다 = 갔습니다 = 갔습니다

유형 2) 뒤에서 “아” 또는 “여” 8mm : 기본문자나 복합동사에 편리

	겪었다		사태였다
	밝혔습니다		먹었습니다(길게)

4-2. ~였었다 ... 두 가지 유형의 과거 형태를 활용한다.

	갔었다		먹였었다
	남았었다		살았었습니다

참고 : 과거가 연속 나오면(과거완료) 앞의 과거형은 짧게 쓴다.

<응용연습>

「~었」 + 「~(으)나...」 어찌구 : 두 유형 중 편리한 쪽으로 응용하는 예를 들겠다.

간다 갔다 갔으니 갔으나 갔고 갔는데 갔지 갔으며 갔다는 것

—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일으킨다 일으켰다 일으켰으니 일으켰으나 일으켰고 일으켰는데 일으켰지

— ㄷ ㄷ ㄷ ㄷ ㄷ ㄷ ㄷ

일으켰으며 일으켰다는 것

ㄷ ㄷ ㄷ

나간다 나갔다 나갔으니 나갔으나 나갔고 나갔는데

나갔지 나갔으며 나갔다는 것

지킨다 지켰다 지켰으니 지켰으나 지켰고 지켰는데 지켰지 지켰으며 지켰다는 것

된다 되었다 되었으니 되었으나 되었고 되었는데 되었지 되었으며 되었다는 것

모른다 몰랐다 몰랐으니 몰랐으나 몰랐고 몰랐는데

몰랐지 몰랐으며 몰랐다는 것

안된다 안되었다 안되었으니 안되었으나 안되었고 안되었는데 안되었지

안되었으며 안되었다는 것

않으면 안된다 않으면 안되었다 않으면 안되었으니 않으면 안되었으나

않으면 안되었고 않으면 안되었는데 않으면 안되었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않으면 안되었다는 것

둔다 두었다 두었으니 두었으나 두었고 두었는데 두었지 두었으며 두었다는 것

밝힌다 밝혔다 밝혔으니 밝혔으나 밝혔고 밝혔는데 밝혔지 밝혔으며 밝혔다는 것

나온다 나왔다 나왔으니 나왔으나 나왔고 나왔는데 나왔지 나왔으며 나왔다는 것

했다 했었다 했었으니 했었으나 했었고 했었는데 했었지 했었으며 했었다는 것

나아간다 나아갔다 나아갔으니 나아갔으나 나아갔고 나아갔는데 나아갔지

나아갔으며 나아갔다는 것

믿었다 믿었다 믿었으니 믿었으나 믿었고 믿었는데 믿었지 믿었으며 믿었다는 것

믿었지 믿었으며 믿었다는 것

바란다 바랐다 바랐으니 바랐으나 바랐고 바랐는데 바랐지 바랐으며 바랐다는 것

버린다 버렸다 버렸으니 버렸으나 버렸고 버렸는데 버렸지 버렸으며 버렸다는 것

본다 보았다 보았으니 보았으나 보았고 보았는데 보았지 보았으며 보았다는 것

시킨다 시켰다 시켰으니 시켰으나 시켰고 시켰는데 시켰지 시켰으며 시켰다는 것

받는다 받았다 받았으니 받았으나 받았고 받았는데 받았지 받았으며 받았다는 것

안다 알았다 알았으니 알았으나 알았고 알았는데 알았지 알았으며 알았다는 것

온다 왔다 왔으니 왔으나 왔고 왔는데 왔지 왔으며 왔다는 것

잡는다 잡았다 잡았으니 잡았으나 잡았고 잡았는데 잡았지 잡았으며 잡았다는 것

준다 주었다 주었으니 주었으나 주었고 주었는데 주었지 주었으며 주었다는 것

드린다 드렸다 드렸으니 드렸으나 드렸고 드렸는데 드렸지 드렸으며 드렸다는 것

들이다 들였다 들였으니 들였으나 들였고 들였는데 들였지 들였으며 들였다는 것

오른다 올랐다 올랐으니 올랐으나 올랐고 올랐는데 올랐지 올랐으며 올랐다는 것

아니다 아니었다 아니었으니 아니었으나 아니었고 아니었는데 아니었지

아니었으며 아니었다는 것

않는다 앓았다 앓았으니 앓았으나 앓았고 앓았는데 앓았지 앓았으며 앓았다는 것

판다 팔았다 팔았으니 팔았으나 팔았고 팔았는데 팔았지 팔았으며 팔았다는 것

없다 없었다 없었으니 없었으나 없었고 없었는데 없었지 없었으며 없었다는 것

아니(하) 아니하였다 아니하였으니 아니하였으나 아니하였고 아니하였는데

아니하였지 아니하였으며 아니하였다는 것

한다 하였다 하였으니 하였으나 하였고 하였는데 하였지 하였으며 하였다는 것

있다 있었다 있었으니 있었으나 있었고 있었는데 있었지 있었으며 있었다는 것

「~었」+「~(으)니까...」어찌구

간다 갔다 갔으니까 갔느냐 갔다고 갔다는데 갔는지 갔으면

일으킨다 일으켰다 일으켰으니까 일으켰느냐 일으켰다고 일으켰다는데 일으켰는지

일으켰으면

나간다 나갔다 나갔으니까 나갔느냐 나갔다고 나갔다는데

나갔는지 나갔으면



지킨다 지켰다 지켰으니까 지켰느냐 지켰다고 지켰다는데 지켰는지 지켰으면



된다 되었다 되었으니까 되었느냐 되었다고 되었다는데 되었는지 되었으면



모른다 몰랐다 몰랐으니까 몰랐느냐 몰랐다고 몰랐다는데



몰랐는지 몰랐으면



안된다 안되었다 안되었으니까 안되었느냐 안되었다고 안되었다는데 안되었는지



안되었으면



않으면 안된다 않으면 안되었다 않으면 안되었으니까 않으면 안되었느냐



않으면 안되었다고 않으면 안되었다는데 않으면 안되었는지 않으면 안되었으면



둔다 두었다 두었으니까 두었느냐 두었다고 두었다는데 두었는지 두었으면



밝힌다 밝혔다 밝혔으니까 밝혔느냐 밝혔다고 밝혔다는데 밝혔는지 밝혔으면



나온다 나왔다 나왔으니까 나왔느냐 나왔다고 나왔다는데 나왔는지 나왔으면



했다 했었다 했었으니까 했었느냐 했었다고 했었다는데 했었는지 했었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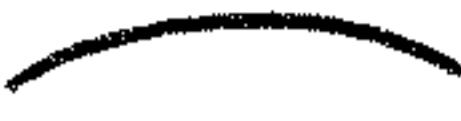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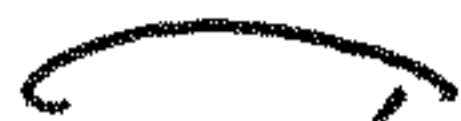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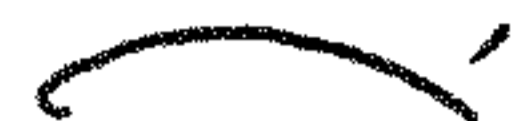












































































































나아간다 나아갔다 나아갔으니까 나아갔느냐 나아갔다고 나아갔다는데 나아갔는지



나아갔으면



믿는다	믿었다	믿었으니까	믿었느냐	믿었다고	믿었다는데	믿었는지	믿었으면
							
	믿었는지	믿었으면					
바란다	바랐다	바랐으니까	바랐느냐	바랐다고	바랐다는데	바랐는지	바랐으면
							
버린다	버렸다	버렸으니까	버렸느냐	버렸다고	버렸다는데	버렸는지	버렸으면
							
본다	보았다	보았으니까	보았느냐	보았다고	보았다는데	보았는지	보았으면
							
시킨다	시켰다	시켰으니까	시켰느냐	시켰다고	시켰다는데	시켰는지	시켰으면
							
받는다	받았다	받았으니까	받았느냐	받았다고	받았다는데	받았는지	받았으면
							
안다	알았다	알았으니까	알았느냐	알았다고	알았다는데	알았는지	알았으면
							
온다	왔다	왔으니까	왔느냐	왔다고	왔다는데	왔는지	왔으면
							
잡는다	잡았다	잡았으니까	잡았느냐	잡았다고	잡았다는데	잡았는지	잡았으면
							
준다	주었다	주었으니까	주었느냐	주었다고	주었다는데	주었는지	주었으면
							
드린다	드렸다	드렸으니까	드렸느냐	드렸다고	드렸다는데	드렸는지	드렸으면
							
들이다	들었다	들었으니까	들었느냐	들었다고	들었다는데	들었는지	들었으면
							
오른다	올랐다	올랐으니까	올랐느냐	올랐다고	올랐다는데	올랐는지	올랐으면
							
아니다	아니었다	아니었으니까	아니었느냐	아니었다고	아니었다는데	아니었는지	아니었으면
							

아니었으면



않는다 았았다 았았으니까 았았느냐 았았다고 았았다는데 았았는지 았았으면
) ✓ ✓ ✓ ✓ ✓ ✓ ✓

판다 팔았다 팔았으니까 팔았느냐 팔았다고 팔았다는데 팔았는지 팔았으면
))))))))

없다 없었다 없었으니까 없었느냐 없었다고 없었다는데 없었는지 없었으면
 (✓ ✓ ✓ ✓ ✓ ✓ ✓

아니(하) 아니하였다 아니하였으니까 아니하였느냐 아니하였다고 아니하였다는데
 ((((((((

아니하였는지 아니하였으면



한다 하였다 하였으니까 하였느냐 하였다고 하였다는데 하였는지 하였으면
 \ ✓ ✓ ✓ ✓ ✓ ✓ ✓

있다 있었다 있었으니까 있었느냐 있었다고 있었다는데 있었는지 있었으면
 | ✓ ✓ ✓ ✓ ✓ ✓ ✓

〈응용연습〉 스스로 하기

「~다는 것이」나... 「~다는 것이」니까... 어찌구 하면 또 엄청난 응용이 된다. 각자 해 보도록 하자.

참고 : 뒤에 붙이는 「(았)었/였」은 기본문자로 된 동사나 형용사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손풀기 : 기본문자 복습 ... ㄹ받침, ㄱ받침 3회 이상 써보자.

♣ 동 사

5. 위치(어미)변화(3) : “가” 2mm ... 니깐, 느냐고, 리라고, 리라는데,
지만, 면서

니깐	(느)냐고	리라고
면서	지만	리라는데

<응용연습> 스스로 하기

- 1) 기본형 + 「~(으)니깐...」 어찌구
- 2) 「~았」 + 「~(으)니깐...」 어찌구
- 3) 「~다는 것이」니깐... 어찌구 하면 또 엄청난 응용이 된다.

각자 해 보도록 하자.

그런데 아직도 동사 기본형을 익히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

만약에 있다면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말고 복습한 후에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교재만 의지하지 말고 약기장을 만들어서 정리해 가면서 틈틈히 기본형을 익혀 나가면 효과적이다.

<실전연습 15> ... 한글문장을 속기문자로 옮겨보자.

5. 다섯째, 언론자유의 창달을 위해 관련제도
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다섯째, 언론자유의 창달을 위해 관련제도
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 의도가 좋더라도, 언론인 대부분의

개선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 의도가 좋더라도, 언론인 대부분의

비판의 표적이 되어 온 언론기본법은 시급히 대폭

비판의 표적이 되어 온 언론기본법은 시급히 대폭

개정되거나 폐지하여 다른 법률로 대체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주재

개정되거나 폐지하여 다른 법률로 대체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주재

기자를 부활시키고 프레스 카드 제도를 폐지하며,

기자를 부활시키고 프레스 카드 제도를 폐지하며,

지면의 증면 등 언론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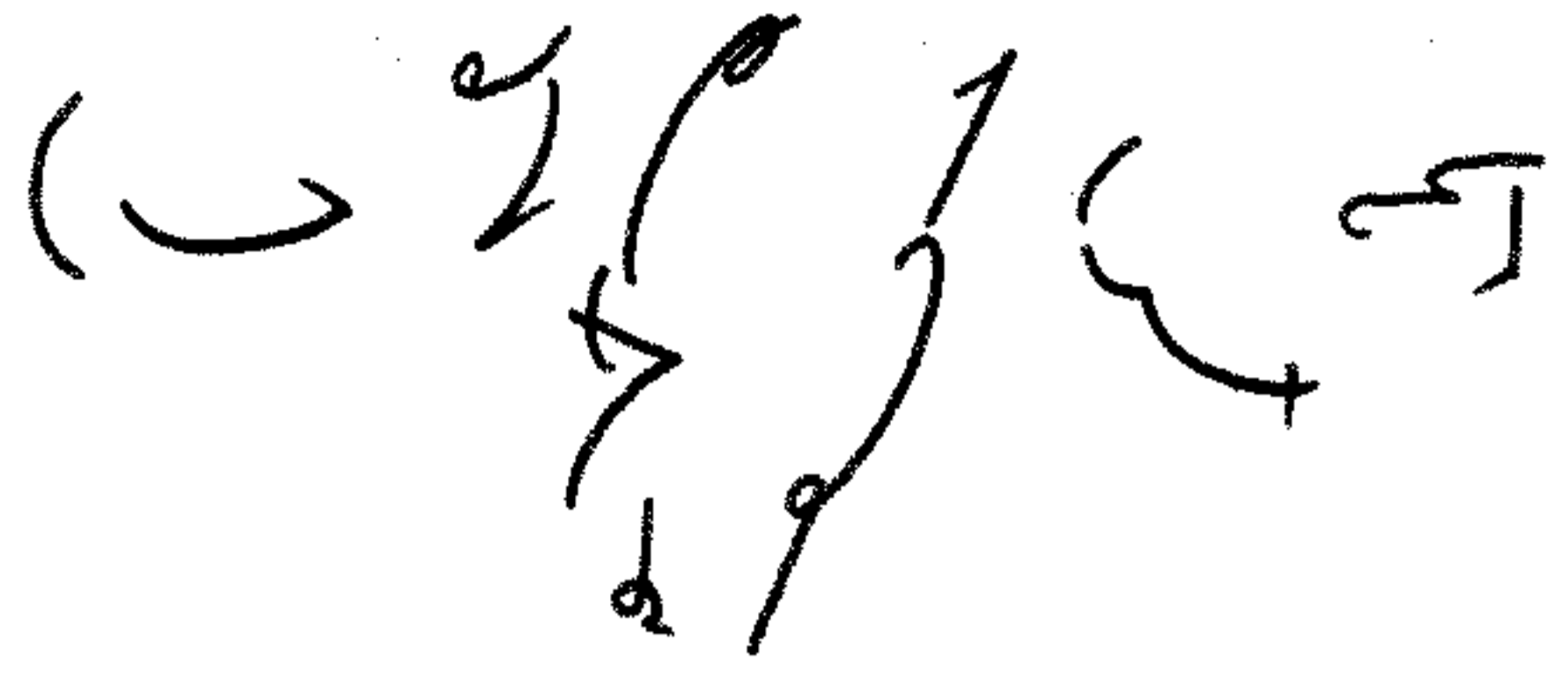
지면의 증면 등 언론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언론을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하려고 시도하여서도 아니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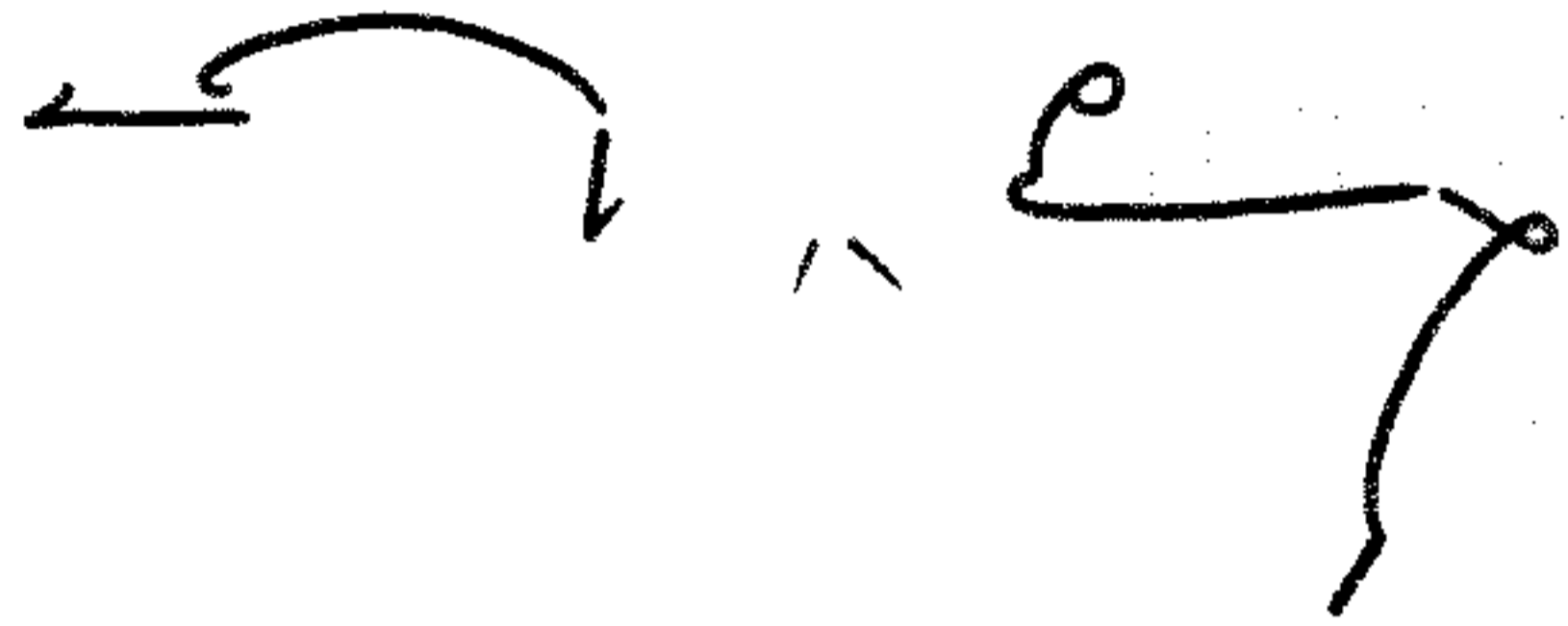
정부는 언론을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하려고 시도하여서도 아니됩니다.

국가안전보장을 저해하지 않는 한, 언론은 제약받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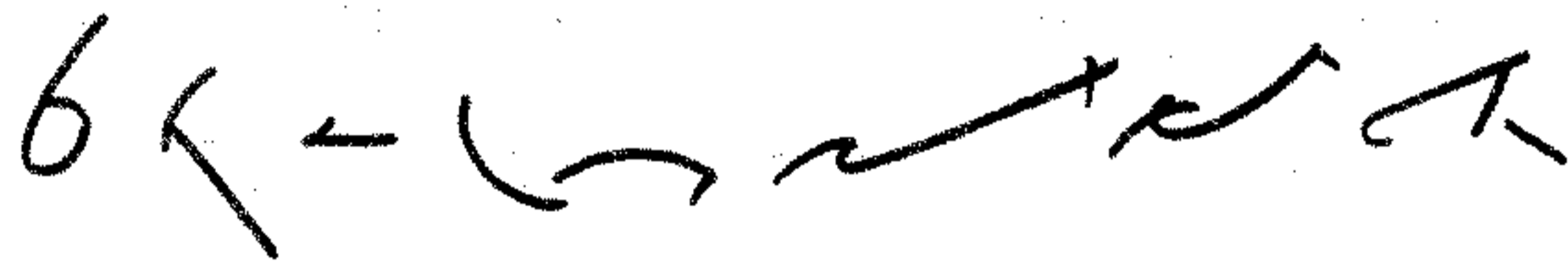
국가안전보장을 저해하지 않는 한, 언론은 제약받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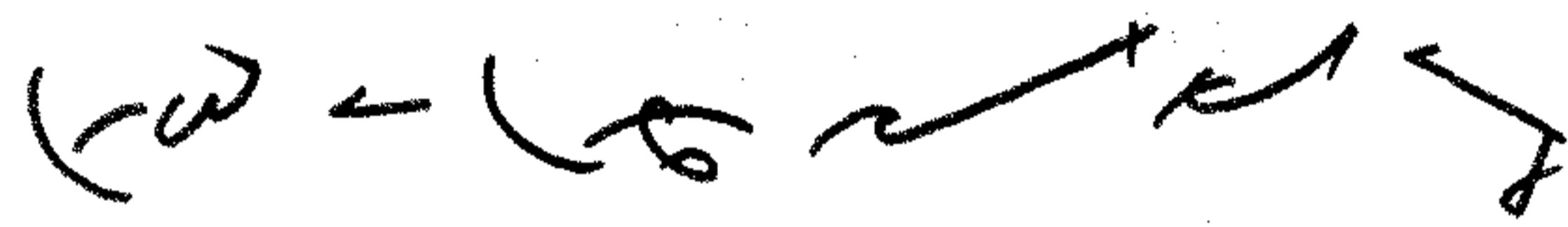
아니됩니다. 언론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은 독립된 사법부와 개개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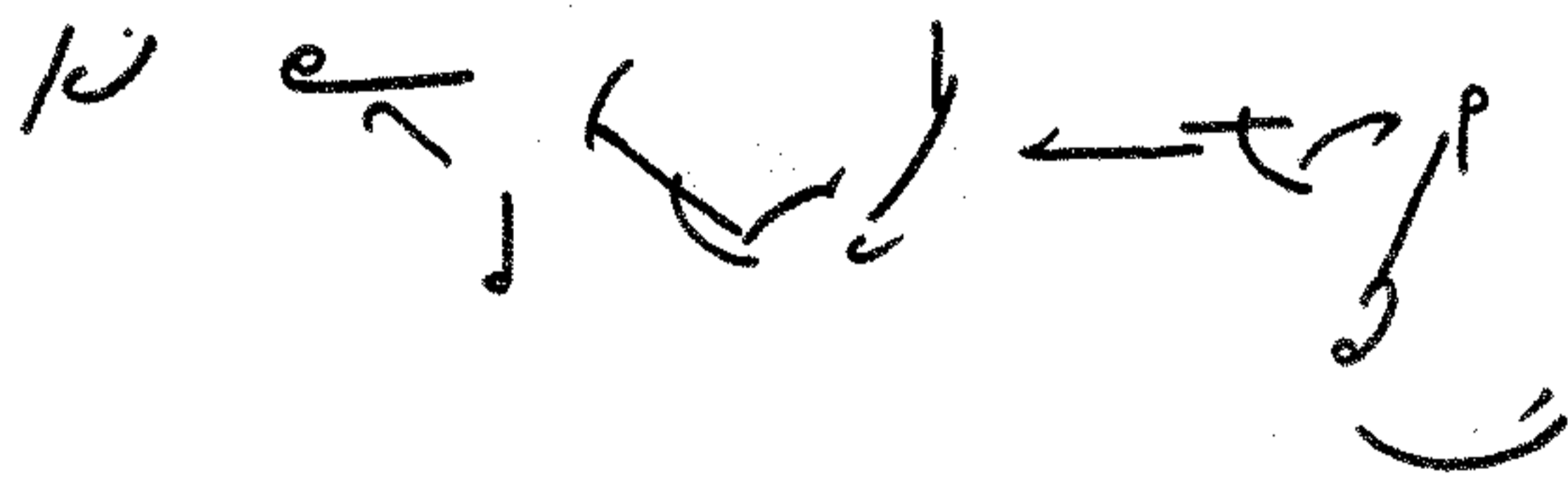
국민임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여섯째, 사회 각 부문의 자치와 자율은 최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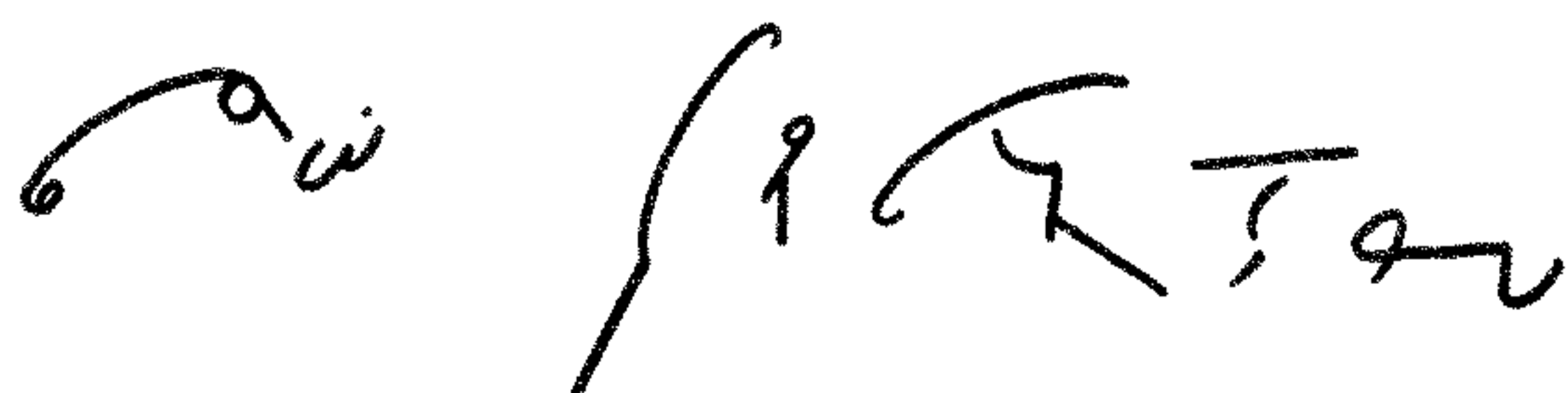
보장되어야 합니다. 각 부문별로 자치와 자율의 확대



다양하고 균형있는 사회 발전을 이룩하여야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믿습니다. 개헌 절차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구성은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하고 시·도 단위 지방의회 구성도 끝이

구체적으로 검토·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구체적으로 검토·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학문의 전당인 대학의 자율화와 교육자치도

학문의 전당인 대학의 자율화와 교육자치도

조속히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의
인사·예산·행정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조속히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의
인사·예산·행정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입시·졸업제도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입시·졸업제도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수한 많은 학생들이 학비

그리고 우수한 많은 학생들이 학비

조달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보
완하고 예산에 반영

조달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보
완하고 예산에 반영

하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정당의 건전한
활동이 보장되는

가운데 대화와 타협의 정치풍토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당은 국리민복
을 위하여 책임 있는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결집하는 민주적

조직체이어야 합니다. 정당이 이러한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건전한 활동을 하는 한, 국가는 이를 보호하
고 육성하는 데

조직체이어야 합니다. 정당이 이러한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건전한 활동을 하는 한, 국가는 이를 보호하
고 육성하는 데

조직체이어야 합니다. 정당이 이러한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건전한 활동을 하는 한, 국가는 이를 보호하
고 육성하는 데

조직체이어야 합니다. 정당이 이러한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건전한 활동을 하는 한, 국가는 이를 보호하
고 육성하는 데

조직체이어야 합니다. 정당이 이러한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진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당
역시 국법

진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당
역시 국법

질서를 준수하는 가운데 사회의 갈등을 대화
와 타협으로,

질서를 준수하는 가운데 사회의 갈등을 대화
와 타협으로,

조화와 화합으로 이끌고 국론을 통일해 나가
는

조화와 화합으로 이끌고 국론을 통일해 나가
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폭력을 써서라도
일방적인

정치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폭력을 써서라도
일방적인

주장만을 관철시키려는 야당이 있는 한 여당*
역시 항상

주장만을 관철시키려는 야당이 있는 한 여당*
역시 항상

양보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여덟째, 밝고
맑은 사회 건설을 위하여 과감한

양보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여덟째, 밝고
맑은 사회 건설을 위하여 과감한

사회정화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사회정화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폭력배를 소탕하고,

강도·절도사범을 철저히 단속하는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을

척결하고, 우리 사회에 잔존하는 고질적인 비리와

모순을 과감히 시정해 나가야 합니다.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추방되고 '지역감정'이나 '흑백

논리'와 같은 단어들이 영원히 사라져 서로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폭력배를 소탕하고,

강도·절도사범을 철저히 단속하는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을

척결하고, 우리 사회에 잔존하는 고질적인 비리와

모순을 과감히 시정해 나가야 합니다.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추방되고 '지역감정'이나 '흑백

논리'와 같은 단어들이 영원히 사라져 서로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 자신이 쓴 속기문자를 읽어보자 <실전연습은 쓰고 읽기를 위주로 한다>.

손풀기 : 기본문자 복습 ...ㄴ받침, ㅇ받침 3회 이상 써보자.

♣ 동 사

6. 시제(어미)변화 (2) : ~겠따 ... 조사 “의”와 같이 쓴다.

→ 가겠따 보겠따

ㄷ 가겠습니다

응용 : → 가겠다는(것)

ㄷ 가겠다는 것이다 ↗ 가겠다는 것입니다.

6-1. 명사형 = 현재형 (문장중 구별이 가능)

있을 = 있음을

있는 = 있음이

드릴 = 드림을

시킴과

↓

↓

↙

↘

바람직

믿음직

있음직

시킴직

참고 : 「있음», 「보임」처럼 「음», 「임」으로만 끝나버리면 「음», 「임」을 쓴다.

↙ ↘

「시킴», 「지킴」처럼 「김」으로만 끝나버리면 「임」을 쓴다.

{ ~}

「나감», 「바람」처럼 「ㅁ」만으로만 끝나버리면 끝글자 그대로 쓴다.

_____ ↘

「봄», 「줌」처럼 한 자로만 끝나버리면 자기 글자 그대로 쓴다.

ㄹ ㅎ

6-2. 특별문자

기본문자와 대체해서 첫글자에 사용

ㄱ	희	ㄱ	힘	ㄱ	흰	ㄱ	협, 협
ㄴ	늪	ㄴ	너	ㄴ	좋다(상선)		

기본문자와 대체해서 모든 글자에 사용

여	역	연	열
염,엽	영	엿	

참고 :

너나	나너	내가	네가
여당	야당	여야당	좋게
			좋은

<응용연습>

「~겠」 + 「~(으)니」 어찌구

일으킨다	일으키겠다	일으키겠으니	일으키겠으나	일으키겠고	일으키겠는데		
—	→	→	→	→	→		
	일으키겠지	일으키겠으며					
	→	→					
된다	되겠다	되겠으니	되겠으나	되겠고	되겠는데	되겠지	되겠으며
↪	↪	↪	↪	↪	↪	↪	↪
모른다	모르겠다	모르겠으니	모르겠으나	모르겠고	모르겠는데		
↪	↪	↪	↪	↪	↪		
	모르겠지	모르겠으며					
	↪	↪					
안된다	안되겠다	안되겠으니	안되겠으나	안되겠고	안되겠는데	안되겠지	안되겠으며
/	/	/	/	/	/	/	/
둔다	두겠다	두겠으니	두겠으나	두겠고	두겠는데	두겠지	두겠으며
/	/	/	/	/	/	/	/
밝힌다	밝히겠다	밝히겠으니	밝히겠으나	밝히겠고	밝히겠는데	밝히겠지	밝히겠으며
/	/	/	/	/	/	/	/
나아간다	나아가겠다	나아가겠으니	나아가겠으나	나아가겠고	나아가겠는데		
↪	↪	↪	↪	↪	↪		

나아가겠지 나아가겠으며



본다 보겠다 보겠으니 보겠으나 보겠고 보겠는데 보겠지 보겠으며



받는다 받겠다 받겠으니 받겠으나 받겠고 받겠는데 받겠지 받겠으며



안다 알겠다 알겠으니 알겠으나 알겠고 알겠는데 알겠지 알겠으며



준다 주겠다 주겠으니 주겠으나 주겠고 주겠는데 주겠지 주겠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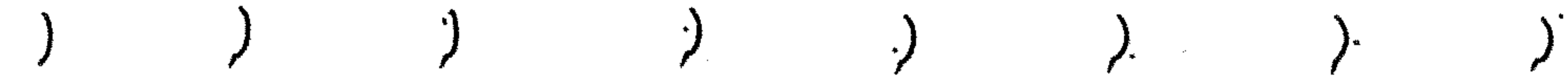
드린다 드리겠다 드리겠으니 드리겠으나 드리겠고 드리겠는데 드리겠지 드리겠으며



오른다 오르겠다 오르겠으니 오르겠으나 오르겠고 오르겠는데 오르겠지 오르겠으며



않는다 않겠다 않겠으니 않겠으나 않겠고 않겠는데 않겠지 않겠으며



없다 없겠다 없겠으니 없겠으나 없겠고 없겠는데 없겠지 없겠으며



아니(하) 아니하겠다 아니하겠으니 아니하겠으나 아니하겠고 아니하겠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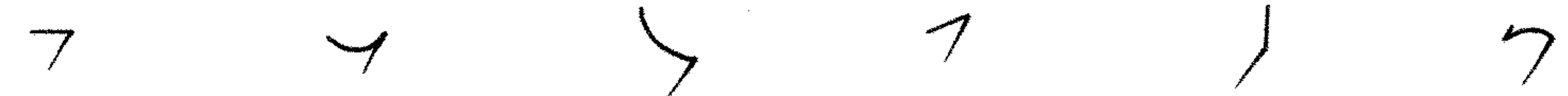
아니하겠지 아니하겠으며



있다 있겠다 있겠으니 있겠으나 있겠고 있겠는데 있겠지 있겠으며



가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있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먹겠고 놀겠고 죽겠고 살겠고 놓치겠다고 웃겠으며 놀라겠지 참겠지만 아시겠지만



〈응용연습〉 스스로 하기

- | | |
|------------------------------|-------------------------------|
| 1) 「~겠」 + 「~(으)니까…」 어찌구 | 2) 「~겠」 + 「~(으)니깐」 어찌구 |
| 3) 「~었겠」 + 「~(으)니까」 어찌구 | 4) 「~었겠」 + 「~(으)니깐」 어찌구 |
| 5) 「~겠다는 것이」 + 「~(으)니」 어찌구 | 6) 「~겠다는 것이」 + 「~(으)니까」 어찌구 |
| 7) 「~겠다는 것이」 + 「~(으)니깐」 어찌구 | 8) 「~었겠다는 것이」 + 「~(으)니」 어찌구 |
| 9) 「~었겠다는 것이」 + 「~(으)니까」 어찌구 | 10) 「~었겠다는 것이」 + 「~(으)니깐」 어찌구 |

현재까지 동사의 변화무쌍함을 맛보았을 것이다. 열거하고 응용하자면 한이 없는 것이 동사이다. 외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또 미련한 것이다. 따라서 언제나 그 원리를 파악하고 응용한다는 것에 학습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동사를 익히지 않을 도리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말에 다 있는 말이니까 말이다. 언제 기본문자로 쓰고 있겠는가? 그 긴 말이 간단히 처리되는데… 약자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상한 발상인 것이다.

응용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형을 익히자.

〈실전연습 16〉 … 한글문장을 속기문자로 옮겨보자.

그리하여 온 국민이 안정된 사회

환경 속에 안심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오늘의 난국을

타개하고 위대한 국가로의 전진을 위한 시급
한 당면

타개하고 위대한 국가로의 전진을 위한 시급
한 당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역사의
단절이 아니라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역사의
단절이 아니라

지속적 발전을 바라는 여러분의 기대를 등에
업고 역사와

지속적 발전을 바라는 여러분의 기대를 등에
업고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하는 겸허한 마음으로 오늘

국민을 두려워하는 겸허한 마음으로 오늘

저는 감히 이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저는
우국충정에서 나온

저는 감히 이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저는
우국충정에서 나온

이 구상이 대통령각하와 민주정의당 전 당원
은 물론이고

이 구상이 대통령각하와 민주정의당 전 당원
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의 성원으로 꽃피울 수 있게 되리
라 확신합니다.

국민 모두의 성원으로 꽃피울 수 있게 되리
라 확신합니다.

저의 이 기본 구상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앞으로 이에 따른 세부 추가사항들이 추진될
것입니다. 만의 하나라도

위의 제안이 관철되지 아니할 경우, 저는 민
정당

대통령후보와 당 대표위원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에서

사퇴할 것임을 아울러 분명히 밝혀 두는 바
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단임제의 실천으로 이
나라 헌정사에

민주주의의 깊은 뿌리를 심기 시작했고,

물가안정과 국제경쟁력 강화로 흑자경제를

이룩하였으며, 국가 안보 역량을 강화하면서,

올림픽을

유치하는 등 제5공화국 정부의 빛나는

치적은 결코 과소 평가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발전을 포기할 수 없으

며,

평화적 정부이양의 과업은 우리가 행하여야

할 눈앞의

Handwritten cursive Korean characters, likely the start of a sentence.

과제입니다. 또한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아니한

Handwritten cursive Korean characters.

현 시점에서 국론이 분열되어 국제사회의 비
웃음을 당하는 국가적

Handwritten cursive Korean characters.

수치를 방지할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
다. 우리 모두

Handwritten cursive Korean characters.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할 권리를 간직한 채, 청
년은

Handwritten cursive Korean characters.

이상을 향하여 실력을 배양하고, 근로자·농민
은 안심하고

Handwritten cursive Korean characters.

일하며, 기업가는 창의적 노력을 더하고,

Handwritten cursive Korean characters.

정치인은 대화와 타협의 묘를 기울여

미래를 설계하는 사회를 이루어 나갑시다.
법과 질서가

미래를 설계하는 사회를 이루어 나갑시다.
법과 질서가

준수되면서, 생동하고 발전하는 진정한 민주
사회를 위하여

준수되면서, 생동하고 발전하는 진정한 민주
사회를 위하여

저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 나라는

저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 나라는

우리 모두의 나라입니다. 조상과 선열의 뜨
거운 피로 세워지고

우리 모두의 나라입니다. 조상과 선열의 뜨
거운 피로 세워지고

다져진 이 나라를 땀과 자제와 지혜로 훌륭
히 가꾸어

다져진 이 나라를 땀과 자제와 지혜로 훌륭
히 가꾸어

후대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시대적 책무입니다.

후대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시대적 책무입니다.

한민족의 역사는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발
전한다는 것을

한민족의 역사는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발
전한다는 것을

세계만방에 알려주어 세계사에 공헌할 수 있도록 국민적

세계만방에 알려주어 세계사에 공헌할 수 있도록 국민적

슬기를 한데 모아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슬기를 한데 모아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과 야당 정치인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과 야당 정치인 여러분!

저의 충정이 받아들여져, 오늘의 난국이 극복되고,

저의 충정이 받아들여져, 오늘의 난국이 극복되고,

모든 국민 개개인이 '안정되고 행복한

모든 국민 개개인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위대한 나라'를 열어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생활'을 할 수 있는 '위대한 나라'를 열어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자신이 쓴 속기문자를 읽어보자<실전연습은 쓰고 읽기를 위주로 한다>.

손풀기 : 기본문자 복습 ...ㄹ받침, ㅅ받침 3회 이상 써보자.

♣ 동 사

7. 위치(어미)변화(4)

	느라고	고서	
	○	/	
○			<
다면		는데서	라면

차줄 빼침

	르테니까		
	/	/	/
/			/
자면	르는지	는데에	는데에는

참고 :

	고도	고는
	/	○
/		
지도	는데도	지는 는데는
지름		

<응용연습>

기본형 + 「~느라고」

간다	가느라고	일으킨다	일으키느라고	나간다	나가느라고	지킨다	지키느라고
—	○	—	○	—	○	—	○
된다	되느라고	모른다	모르느라고	안된다	안되느라고	둔다	두느라고
—	○	—	○	/	/	/	/
밝힌다	밝히느라고	나온다	나오느라고	했다	나아간다	나아가느라고	
/	/	/	/	—	—	○	
믿는다	믿느라고	바란다	바라느라고	버린다	버리느라고	본다	보느라고
—	○	—	○	—	○	—	○
시킨다	시키느라고	받는다	받느라고	안다	아느라고	온다	오느라고
/	○	/	○	/	/	—	/

잡는다 잡느라고 준다 주느라고 드린다 드리느라고 들이다 들이느라고
 / 〇 / 〇 / 〇 / 〇
 오른다 오르느라고 앓는다 앓느라고 판다 파느라고 아니(하) 아니하느라고
 / 〇) 〇) 〇 (〇 (〇
 한다 하느라고 있다 있느라고
 \ ㅅ | 이

기본형 + 「~고서」

간다 가고서 일으킨다 일으키고서 나간다 나가고서 지킨다 지키고서
 — ㄱ — ㄱ — ㄱ — ㄱ
 된다 되고서 모른다 모르고서 안된다 안되고서 앓으면 안된다 앓으면 안되고서
) ㄱ) ㄱ / ㄱ / ㄱ / ㄱ
 둔다 두고 밝힌다 밝히고서 나온다 나오고서 나아간다 나아가고서
 / ㄱ) ㄱ) ㄱ) ㄱ) ㄱ
 믿는다 믿고서 바란다 바라고서 버린다 버리고서 본다 보고서 시킨다 시키고서
) ㄱ) ㄱ) ㄱ) ㄱ) ㄱ
 받는다 받고서 안다 알고서 온다 오고서 잡는다 잡고서 준다 주고서
 / ㄱ) ㄱ / ㄱ / ㄱ / ㄱ / ㄱ
 드린다 드리고서 오른다 오르고서 아니다 아니고서 앓는다 앓고서 판다 팔고서
 / ㄱ / ㄱ) ㄱ) ㄱ) ㄱ) ㄱ
 없다 없고서 아니(하) 아니하고서 한다 하고서 있다 있고서
 (ㄱ (ㄱ \ ㄱ \ ㄱ | ㄱ

기본형 + 「~는데서」

간다 가는데서 일으킨다 일으키는데서 나간다 나가는데서 지킨다 지키는데서
 — ㄱ — ㄱ — ㄱ — ㄱ
 된다 되는데서 모른다 모르는데서 안된다 안되는데서 둔다 두는데서
) ㄱ) ㄱ / ㄱ / ㄱ / ㄱ / ㄱ
 밝힌다 밝히는데서 나온다 나오는데서 했다 했는데서 나아간다 나아가는데서
) ㄱ) ㄱ) ㄱ) ㄱ) ㄱ) ㄱ

믿는다 믿는데서 바란다 바라는데서 버린다 버리는데서 본다 보는데서
 시킨다 시키는데서 받는다 받는데서 안다 아는데서 온다 오는데서
 잡는다 잡는데서 준다 주는데서 드린다 드리는데서 오른다 오르는데서
 앓는다 앓는데서 판다 파는데서 없다 없는데서 아니(하) 아니하는데서 한다 하는데서
 있다 있는데서

기본형 + 「~다면」

간다 간다면 일으킨다 일으킨다면 나간다 나간다면 지킨다 지킨다면
 된다 된다면 모른다 모른다면 안된다 안된다면 앓으면 앓았다 앓으면 안된다면
 둔다 둔다면 밝힌다 밝힌다면 나온다 나온다면 잡는다 잡는다면 했다 했다면
 나아간다 나아간다면 믿는다 믿는다면 바란다 바란다면 버린다 버린다면
 본다 본다면 시킨다 시킨다면 받는다 받는다면 안다 안다면 온다 온다면
 준다 준다면 드린다 드린다면 오른다 오른다면 앓는다 앓는다면 판다 판다면
 없다 없다면 아니(하) 아니한다면 한다 한다면 있다 있다면

기본형 + 「~라면」

간다 가라면 일으킨다 일으키라면 나간다 나가라면 지킨다 지키라면

된다	되려면	모른다	모르려면	안된다	안되려면	둔다	두려면	밝힌다	밝히려면
↖	↖↗	↖	↖↗		↖		↖)	↖
나온다	나오려면	나아간다	나아가려면	믿는다	믿으려면	버린다	버리려면		
)	↖	↖	↖↗	↖	↖↗	↖	↖		
본다	보려면	시킨다	시키려면	받는다	받으려면	온다	오려면	잡는다	잡으려면
↖	↖	↖	↖↗	↖	↖↗	↖	↖↗	↖	↖
준다	주려면	드린다	드리려면	오른다	오르려면	아니다	아니려면	얹는다	얹으려면
↖	↖↗	↖	↖↗	↖	↖↗)	↖)	↖
판다	팔려면	없다	없으려면	아니(하)	아니하려면	있다	있으려면		
)	↖	(↖	(↖		↖		

기본형 + 「~ㄹ테니까」

간다	갈테니까	일으킨다	일으킬테니까	나간다	나갈테니까	지킨다	지킬테니까
—	↖	—	↖	—	↖	↖	↖
된다	될테니까	모른다	모를테니까	않으면	안된다	않으면	안될테니까
↖	↖	↖	↖				
둔다	둘테니까	밝힌다	밝힐테니까	나온다	나올테니까	했다	했을테니까
))))	↖	↖
나아간다	나아갈테니까	믿는다	믿을테니까	바란다	바랄테니까	본다	볼테니까
↖	↖	↖	↖	↖	↖	↖	↖
시킨다	시킬테니까	받는다	받을테니까	안다	알테니까	온다	올테니까
↖	↖	↖	↖	↖	↖	↖	↖
잡는다	잡을테니까	준다	줄테니까	드린다	드릴테니까	들이다	들일테니까
↖	↖	↖	↖	↖	↖	↖	↖
오른다	오를테니까	아니다	아닐테니까	얹는다	얹을테니까	판다	팔테니까
↖	↖))))))
없다	없을테니까	아니(하)	아니할테니까	한다	할테니까	있다	있을테니까
(↖	(↖	\	\		

기본형 + 「~는데에」, 「~는데에는」

간다	가는데에	일으킨다	일으키는데에	나간다	나가는데에	지킨다	지키는데에
—	ㄱ	—	ㄱ	—	ㄱ	ㄴ	ㄴ
된다	되는데에	모른다	모르는데에	안된다	안되는데에	둔다	두는데에
ㄴ	ㄴ	ㄴ	ㄴ	/	/	/	/
밝힌다	밝히는데에	나온다	나오는데에	나아간다	나아가는데에	믿는다	믿는데에
))))	ㄴ	ㄴ	ㄴ	ㄴ
바란다	바라는데에	버린다	버리는데에	본다	보는데에	시킨다	시키는데에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받는다	받는데에	안다	아는데에	온다	오는데에	잡는다	잡는데에
/	/	/	/	/	/	/	/
준다	주는데에	주는데에는	드린다	드리는데에	드리는데에는		
/	/	/	—	ㄴ	ㄴ		
들이다	들이는데에	들이는데에는	오른다	오르는데에	오르는데에는		
—	ㄴ	ㄴ	—	ㄴ	ㄴ		
얹는다	얹는데에	얹는데에는	판다	파는데에	파는데에는		
))))))		
없다	없는데에	없는데에는	아니(하)	아니하는데에	아니하는데에는		
((((((
한다	하는데에	하는데에는	있다	있는데에	있는데에는		
\	\	\					

참고 : 「~는데에는」과 「~는데는」은 실제 발음상에서 구별이 모호하기 때문에 속기사 자격시험에서는 같다고 보고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기본형+「~르는지」

간다	갈는지	일으킨다	일으킬는지	나간다	나갈는지	지킨다	지킬는지
—	ㄱ	—	ㄱ	—	ㄱ	ㄴ	ㄴ
된다	될는지	모른다	모를는지	안된다	안될는지	않으면 안된다	않으면 안될는지
ㄴ	ㄴ	ㄴ	ㄴ	/	/	/	/

둔다	돌는지	밝힌다	밝힐는지	나온다	나올는지	했다	했을는지		
/	/))))	~	~		
나아간다	나아갈는지	믿는다	믿을는지	바란다	바랄는지	버린다	버릴는지		
~	~	~	~	~	~	~	~		
본다	볼는지	시킨다	시킬는지	받는다	받을는지	안다	알는지	온다	올는지
~	~	~	~	~	~	~	~	~	~
잡는다	잡을는지	준다	줄는지	드린다	드릴는지	들이다	들일는지	오른다	오를는지
~	~	~	~	~	~	~	~	~	~
아니다	아닐는지	않는다	않을는지	판다	팔는지	없다	없을는지		
))))))	((
아니(하)	아니할는지	한다	할는지	있다	있을는지				
((\	\						

〈응용연습〉 스스로 하기

- 1) 기본형 + 「~자면」
- 2) 기본형 + 「~고도」, 「~는데도」, 「~지도」, 「~지를」
- 3) 「~었」 + 「~다면」 어찌구
- 4) 「~었」 + 「~르테니까」 어찌구
- 5) 「~었」 + 「~르는지」 어찌구 등등 약기장을 보면서 입으로 중얼중얼, 손끝으로 굵적굵적 하면서 이해하는 데 주력하자. 이해하지 않고 외우려 들면 바보다.



제 3 장

·

상선 응용 약기법

앞문자의 끝에서 약간 올려쓰는 약기법으로서 한자의 특성을 이용한 약기법 등 간편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 필수 약기법이다.

손풀기 : 기본문자 복습 ... ㄹ 받침, ㄱ 받침 3회 이상 써보자.

1. 상선약자(1) 쓰는 위치 : 상선

우리 우리나라 우리들 무엇 무엇보다 무엇보다도 무엇인가 하면

정책 다음 처음 시책 까닭에 어떤 어떠해서 어떻든 어떻게

어떻게 하면 어떠한 어떤지 어떠냐 어떤 것이며 어떤 것이었다

상선 : 앞문자 끝에서 차줄로 4mm 정도 띄어 쓴 위치

보기 >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회사가 처음 채택한 시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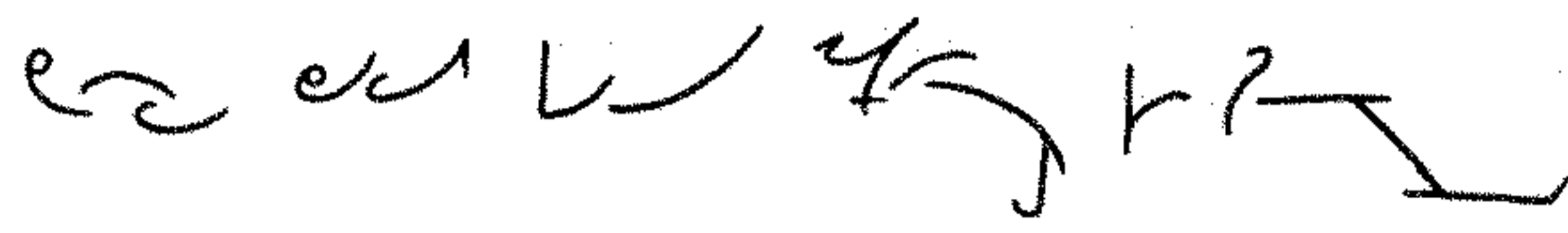
상선약자와 상선약자는 나란히 쓴다.

상선약자 다음에 나오는 기본문자나 하선약자는 상선약자가 끝나는 자리에서 하줄로 4mm 가량 위치한 곳에서 문자가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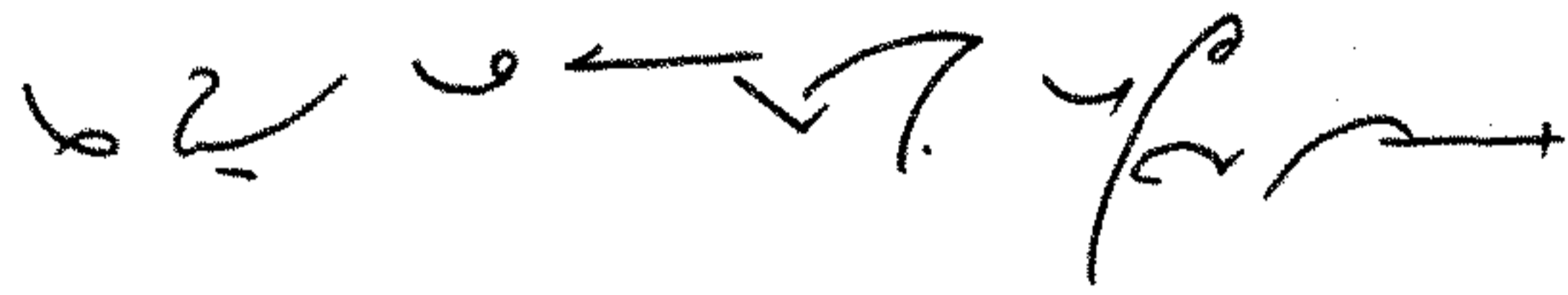
<실전연습 17> ... 한글문장을 속기문자로 옮겨보자.

박정희 대통령 제3공화국 대통령 취임사

단군 성조가 천혜의 강토 위에 국기를 닦으신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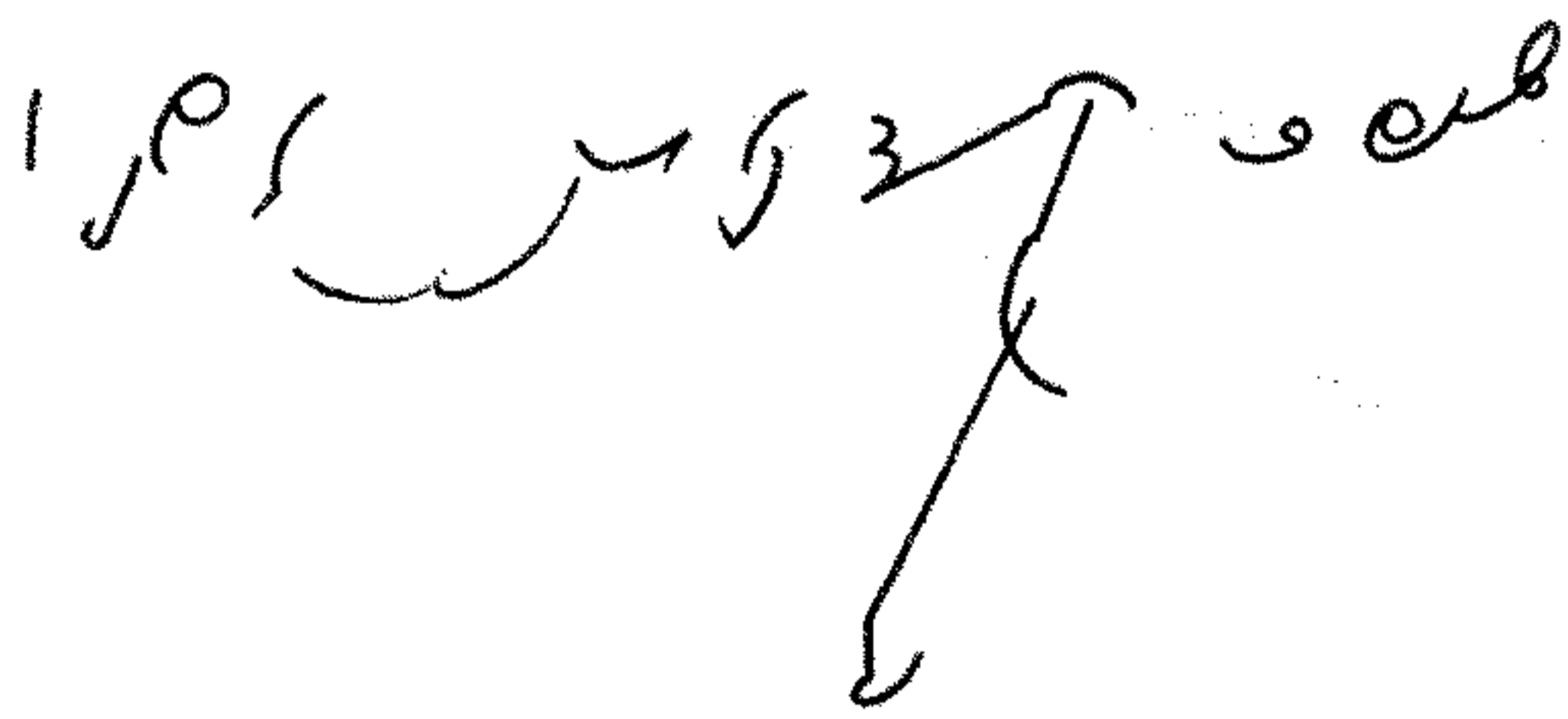
반만년, 연연히 이어 온 역사와 전통 위에 이
제 새 공화국을



바로 세우면서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나의
신명을 조국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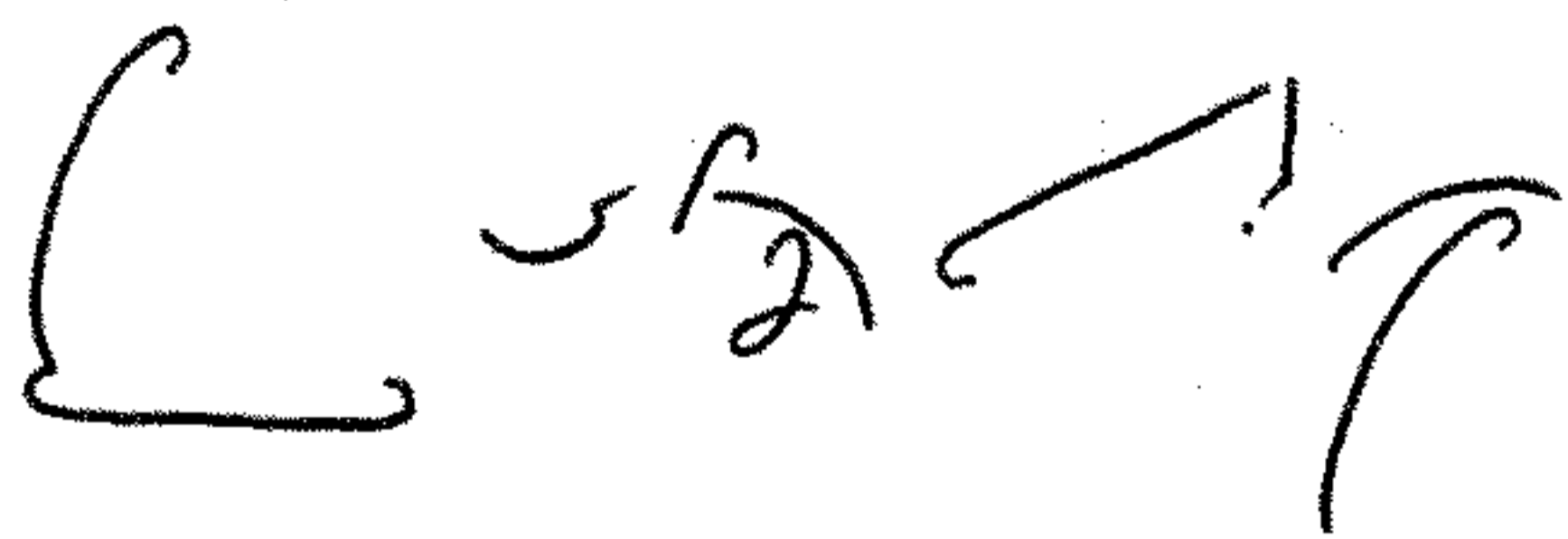
민족 앞에 바칠 것을 맹세하면서 겨레가 쌓
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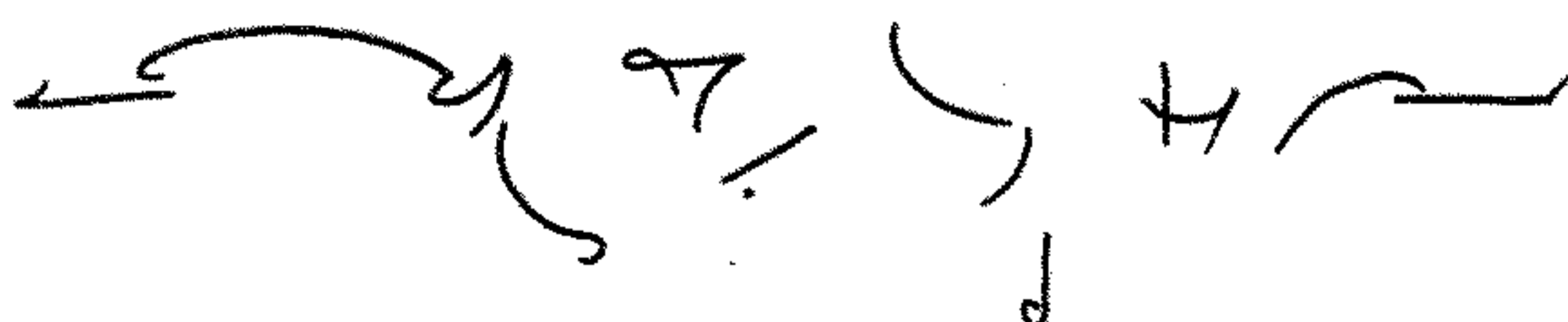
이 성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삼천만 동포들이여! 나는 영예로운



제3공화국의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이 중대한



시기에 나를 대통령으로 취임케 하여 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보람 있는 이
날의 조국을

보전하기에 생명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공산

침략에서

나라를 지켜 온 충용스러운 전몰장병

그리고 독재에 항거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한

영웅적인 4월혁명의 명령 앞에 나의 이 모든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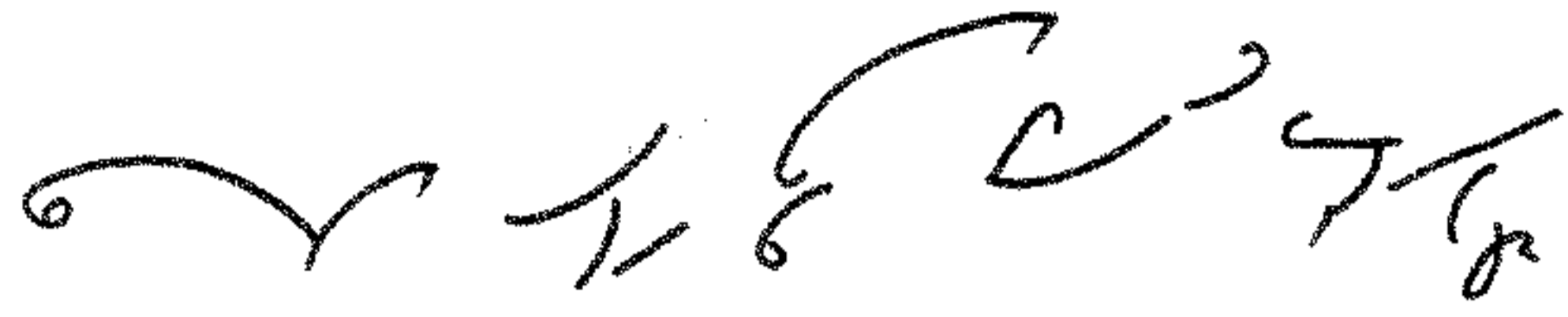
한편 나는 국내외로 매우 중요한 이 시기에

대통령의 중책을 맡게 됨에 그 사명과 책무

가 한없이

무거움을 깊이 통감하고, 자주와 자립과 번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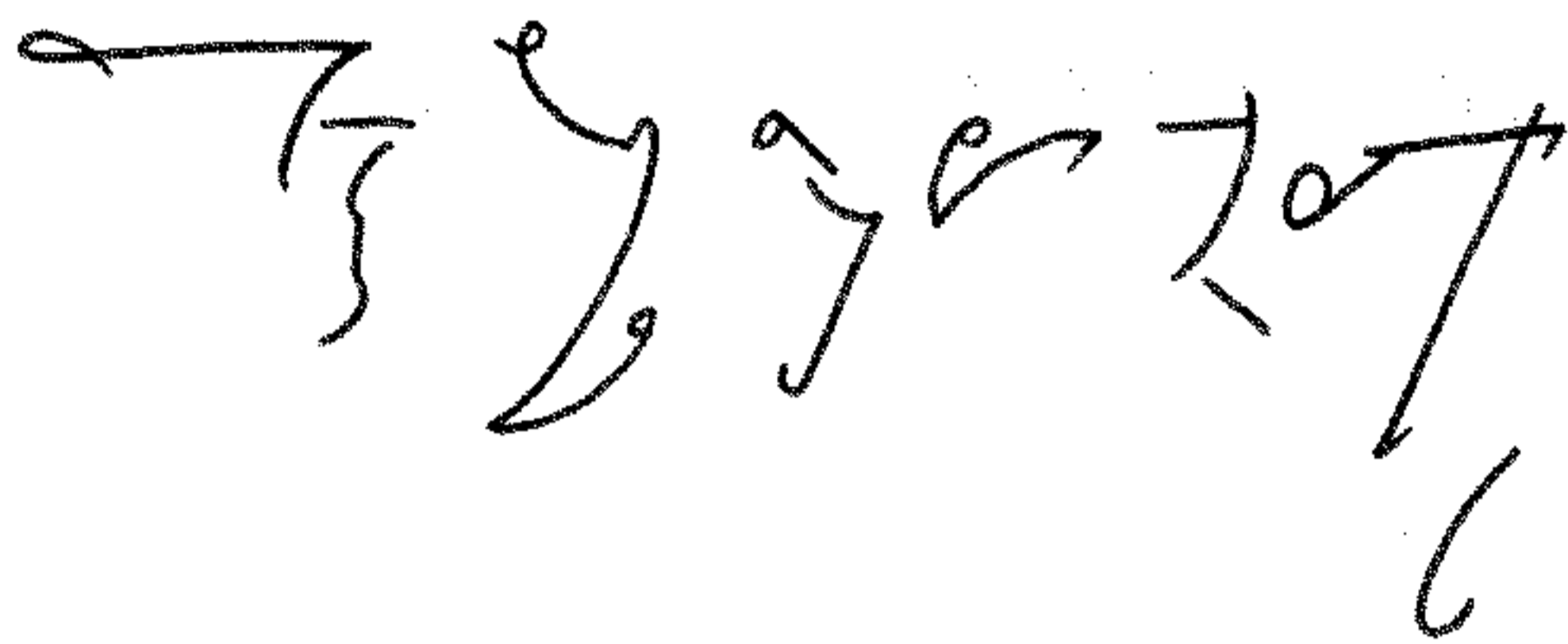
의 내일로 향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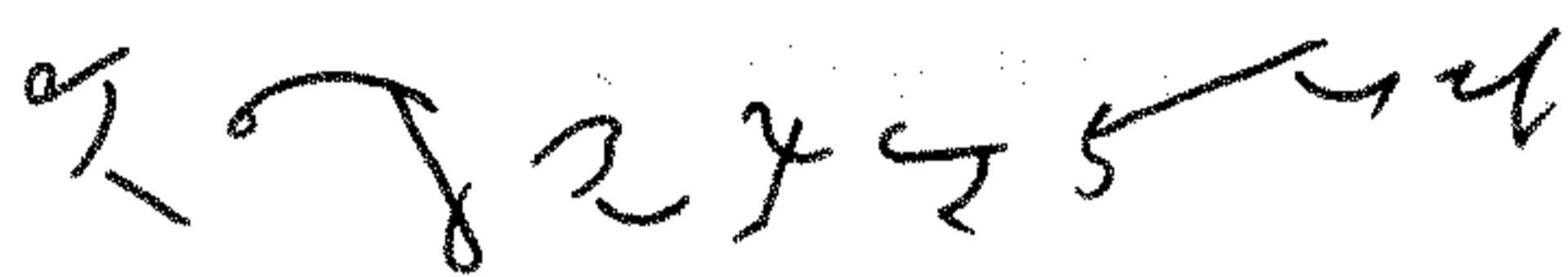
민족의 우렁찬 전진의 대오 앞에 겨레의 충성스러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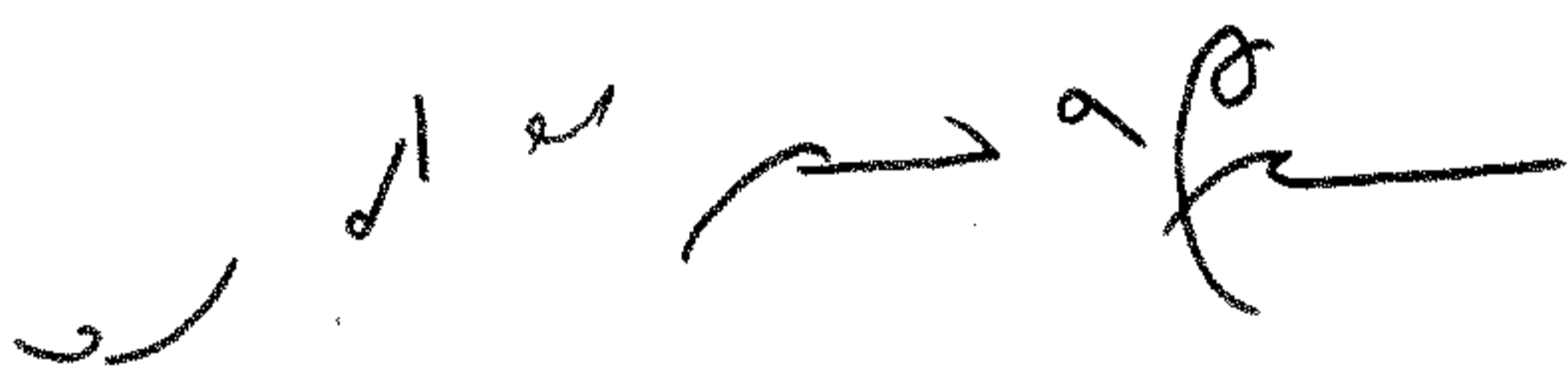
공복이 될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아시아의 동쪽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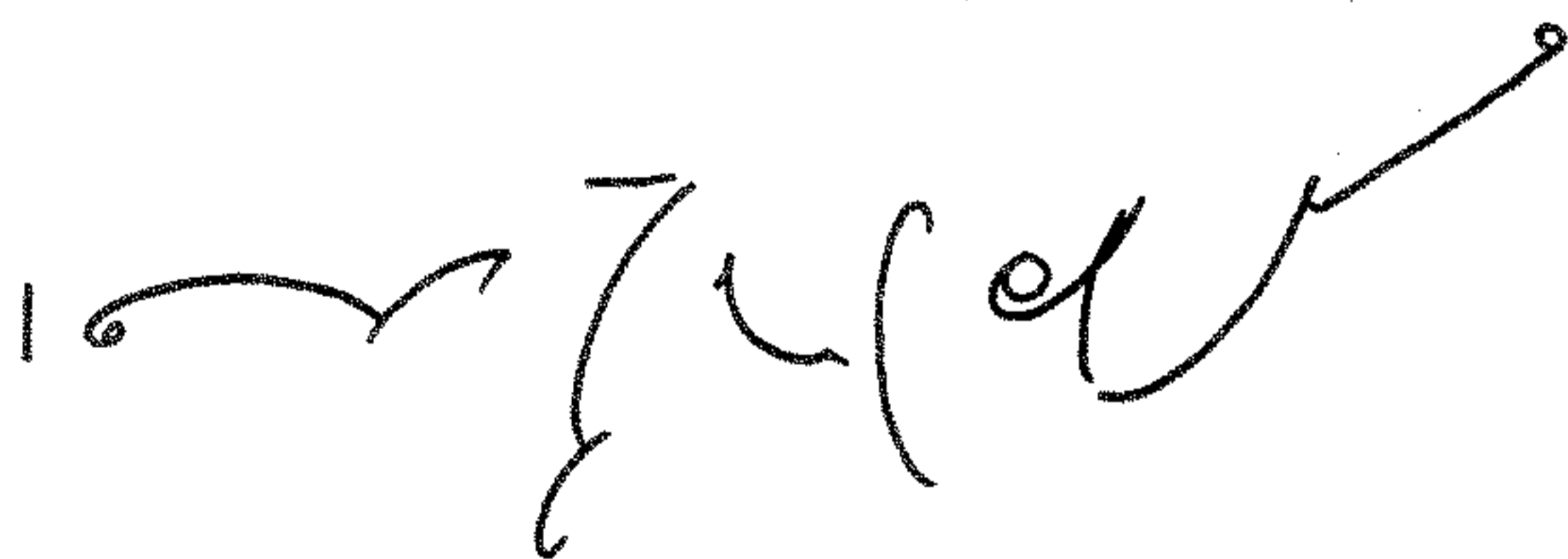
금수강산이라 불리우는 한반도에 선조의 기록한 창국의 뜻을 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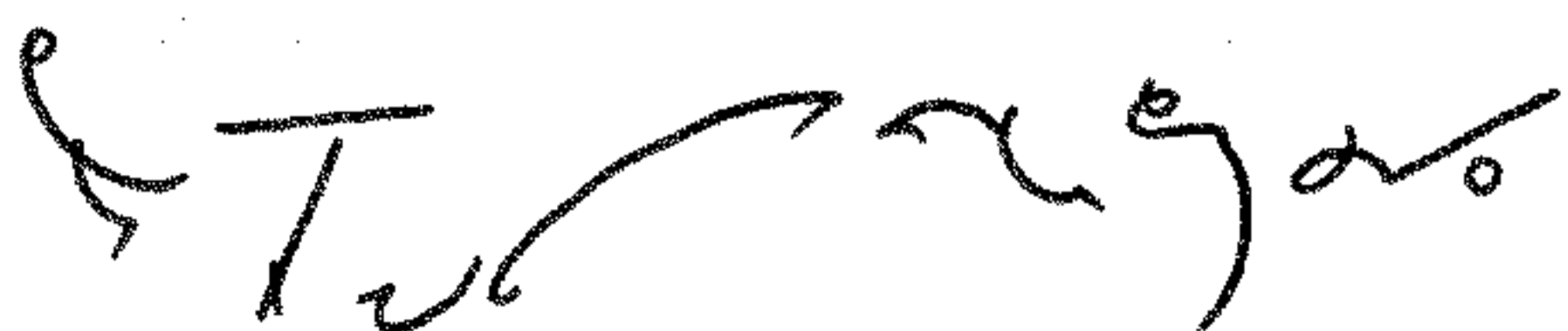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배달의 겨레가 오천년의 역사를



지켜온 이 땅이 우리들의 조국입니다. 한 핏줄기



이 민족의 가슴 속에 붉은 피 용솨음치는



분발의 고동과 약진의 맥박은 결코 멈추지는

2. E → p v u w 1 q

않았던 것입니다. 반 세기의 고된 역경을 밟
았으며 일본

3.1.1

제국주의에 항쟁한 3·1 독립정신은 조국의 광
복을

6.25.9

쟁취했고 투철한 반공의식은 6·25동란에서 공
산

h

침략을 분쇄하여 강토를 보위하였으며 열화
같은 민주주의

4.23.4

신념은 4월혁명에서 독재를 물리쳐 민주주의
를 수호했고

5.16.5

5월혁명으로 부패와 부정을 배격함으로써 민
족정기를 되찾아

7.27

오늘 여기에 우람한 새 공화국을 건설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당면한 현실은 목적지

안도가 아니며 준엄한 노정에의 새 출발인 것입니다. 4월혁명으로부터 비롯되어

5월혁명을 거쳐 발전된 1960년대 우리 세대의 한국이

결어야만 할 역사적 필연의 과제는 정치·경제·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걸쳐 조국의 근대화를 촉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우리는 조성된 계기를 일실함이 없이 성공적으로 이 과업을

성취시키는 데 범국민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자신이 쓴 속기문자를 읽어보자 <실전연습은 쓰고 읽기를 위주로 한다>.

손풀기 : 기본문자 복습 ... 받침, ◯받침 3회 이상 써보자.

♣ 동 사

2. 시제(어미)변화 (1)

2-1. **~ㄹ 것이다** : 조사 “을, 를” (차줄로 2~8mm 쓰거나 삐침)



ㄹ 밝힐 것이다 = 밝힐 (문장 중간)

ㄹ 밝힐 것입니다

응용 : 있을 줄로
 ~줄로 믿습니다

 ~줄로 압니다
 ~줄로 생각합니다

2-2. **기본문자 + ~것이다** : 차줄로 쓰거나 삐쳐서 「~ㄹ 것이다」와 같이 사용

 이상한 것이다

 이뤄진 것이다

 빠질 것이다

 사향일 것이다

 연구인 것이다

 운영될 것이다

 성장된 것이다

 이어질 것이다

참고 : 쓰거나 삐치는 이유?

종결이 되거나 위치변화를 할 때는 앞에서 그대로 삐쳐쓰는 것이 좋으나 다음 조사가 올 때는 쓰는 것이 좋다.

<응용연습>

간다 갈 것이다 갈 일으킨다 일으킬 것이다 일으킬

나간다 나갈 것이다 나갈 지키다 지킬 것이다 지킬 된다 될 것이다 될
 모른다 모를 것이다 모를 안된다 안될 것이다 안될
 앓으면 안된다 앓으면 안될 것이다 앓으면 안될 든다 들 것이다 들
 밝힌다 밝힐 것이다 밝힐 나온다 나올 것이다 나올 했다 했을 것이다 했을
 나아간다 나아갈 것이다 나아갈 믿는다 믿을 것이다 믿을
 바란다 바랄 것이다 바랄 버린다 버릴 것이다 버릴 본다 볼 것이다 볼
 시킨다 시킬 것이다 시킬 받는다 받을 것이다 받을 안다 알 것이다 알
 온다 올 것이다 올 잡는다 잡을 것이다 잡을 준다 줄 것이다 줄
 드린다 드릴 것이다 드릴 오른다 오를 것이다 오를 아니다 아닐 것이다 아닐
 앓는다 앓을 것이다 앓을 판다 팔 것이다 팔 없다 없을 것이다 없을
 아니(하) 아니할 것이다 아니할 한다 할 것이다 할 있다 있을 것이다 있을

「~ㄹ 것이다」+「~(으)니」어찌구

일으킨다 일으킬 것이다 일으킬 것이니 일으킬 것이나 일으킬 것이고 일으킬 것인데
 일으킬 것이지 일으킬 것이며 일으킬 것입니다

모른다 모를 것이다 모를 것이니 모를 것이나 모를 것이고 모를 것인데

모를 것이지 모를 것이며 모를 것입니다

안된다 안될 것이다 안될 것이니 안될 것이나 안될 것이고 안될 것인데 안될 것이지

안될 것이며 안될 것입니다

밝힌다 밝힐 것이다 밝힐 것이니 밝힐 것이나 밝힐 것이고 밝힐 것인데 밝힐 것이지

밝힐 것이며 밝힐 것입니다

나온다 나올 것이다 나올 것이니 나올 것이나 나올 것이고 나올 것인데 나올 것이지

나올 것이며 나올 것입니다

했다 했을 것이다 했을 것이니 했을 것이나 했을 것이고 했을 것인데 했을 것이지

했을 것이며 했을 것입니다

버린다 버릴 것이다 버릴 것이니 버릴 것이나 버릴 것이고 버릴 것인데 버릴 것이지

버릴 것이며 버릴 것입니다

시킨다 시킬 것이다 시킬 것이니 시킬 것이나 시킬 것이고 시킬 것인데 시킬 것이지

시킬 것이며 시킬 것입니다

준다 줄 것이다 줄 것이니 줄 것이나 줄 것이고 줄 것인데 줄 것이지 줄 것이며

줄 것입니다

드린다 드릴 것이다 드릴 것이니 드릴 것이나 드릴 것이고 드릴 것인데 드릴 것이지

드릴 것이며 드릴 것입니다

아니다 아닐 것이다 아닐 것이니 아닐 것이나 아닐 것이고 아닐 것인데 아닐 것이지

아닐 것이며 아닐 것입니다

않는다 않을 것이다 않을 것이니 않을 것이나 않을 것이고 않을 것인데 않을 것이지

않을 것이며 않을 것입니다

판다 팔 것이다 팔 것이니 팔 것이나 팔 것이고 팔 것인데 팔 것이지 팔 것이며

팔 것입니다

없다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니 없을 것이나 없을 것이고 없을 것인데 없을 것이지

없을 것이며 없을 것입니다

아니(하) 아니할 것이다 아니할 것이니 아니할 것이나 아니할 것이고 아니할 것인데

아니할 것이지 아니할 것이며 아니할 것입니다

있다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니 있을 것이나 있을 것이고 있을 것인데 있을 것이지

있을 것이며 있을 것입니다

응용 : 「~르 것이다」 + 조사 : 빠치지 않고 쓰면서 조사를 붙인다.

「~르 것으로」

「~르 것도」

「~르 것과」

「~르 것이」

「~르 것은」

「~르 것을」...

간다 갈 것이다 갈 것으로 갈 것도 갈 것과 갈 것이 갈 것은 갈 것을

일으킨다 일으킬 것이다 일으킬 것으로 일으킬 것도 일으킬 것과 일으킬 것이
 일으킬 것은 일으킬 것을

나간다 나갈 것이다 나갈 것으로 지킨다 지킬 것이다 지킬 것도

된다 될 것이다 될 것과 모른다 모를 것이다 모를 것이

안된다 안될 것이다 안될 것은 안으면 안된다 안으면 안될 것이다 안으면 안될 것을

둔다 들 것이다 들 것으로 밝힌다 밝힐 것이다 밝힐 것도 나온다 나올 것이다 나올 것과

했다 했을 것이다 했을 것을 나아간다 나아갈 것이다 나아갈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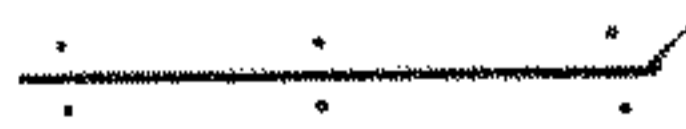
믿는다 믿을 것이다 믿을 것도 바란다 바랄 것이다 바랄 것과
 버린다 버릴 것이다 버릴 것이 본다 볼 것이다 볼 것은 시킨다 시킬 것이다 시킬 것을
 받는다 받을 것이다 받을 것으로 안다 알 것이다 알 것도 온다 올 것이다 올 것이
 잡는다 잡을 것이다 잡을 것은 준다 줄 것이다 줄 것은 드린다 드릴 것이다 드릴 것을
 들이다 들일 것이다 들일 것을 오른다 오를 것이다 오를 것으로
 아니다 아닐 것이다 아닐 것도 앓는다 앓을 것이다 앓을 것과
 판다 팔 것이다 팔 것이 없다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은
 아니(하) 아니할 것이다 아니할 것을 한다 할 것이다 할 것을
 있다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을

참고 : 「~르 것」으로만 끝나버리면 밑줄을 그어 주의 표시를 한다.

보기) 밝힐 것 할 것 있을 것
 ┌ └ └

〈응용연습〉 스스로하기

「~르 것이다」 + 위치(어미)변화



손풀기 : 기본문자 복습 ... ㄹ받침, ㅅ받침 3회 이상 써보자.

3. 상선약자(2)

도대체	가운데	구태여	더구나	사람	사람들	이야기(환영)
얘기	동안(여기)	오랫동안	한사람	한사람	한사람	이제
이번	더욱이	내가	제가	이제까지		

중선에 응용할 수 있는 상선약자 : 그 사람

그동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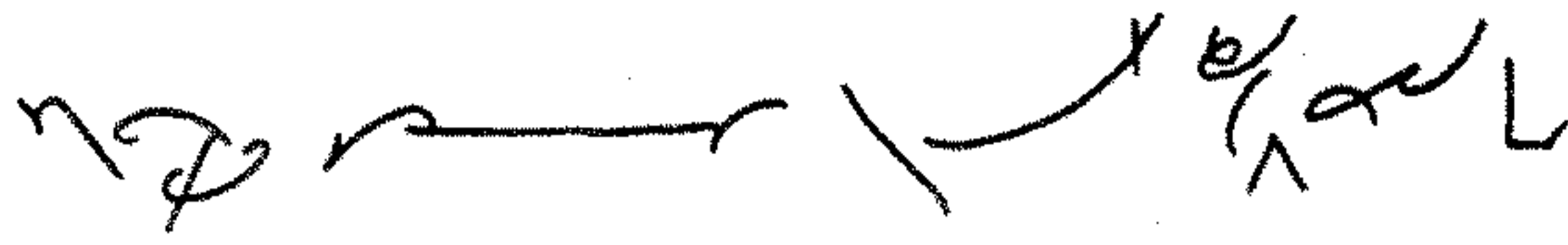
<실전연습 18> ... 한글문장을 속기문자로 옮겨보자.

이제 여기 3:1정신을 받들어 4:19와 5:16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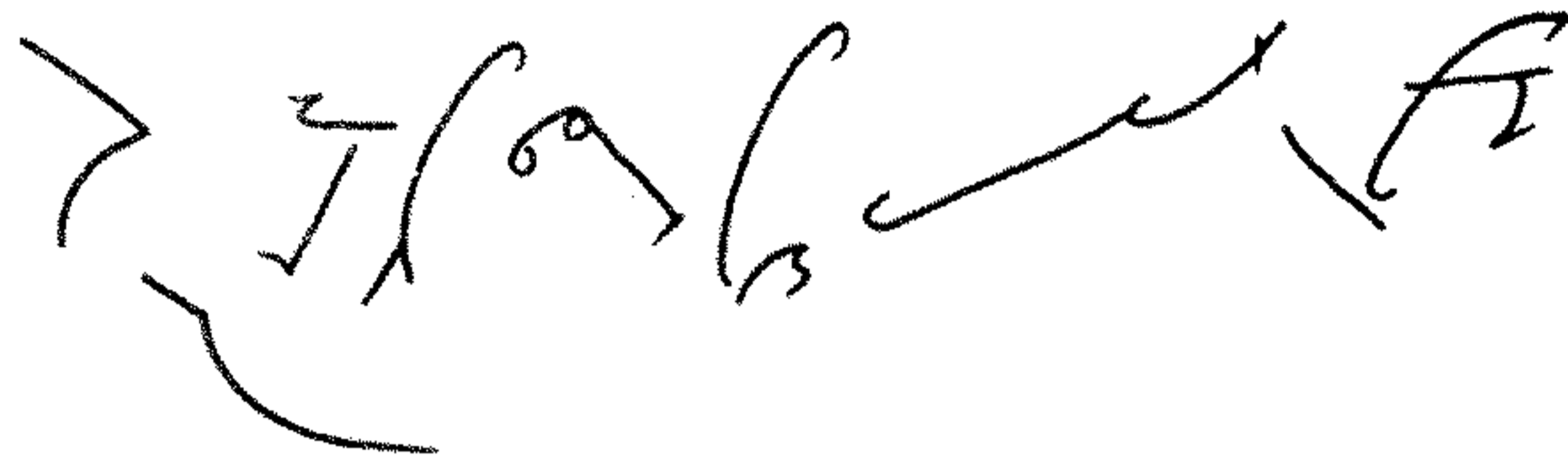
혁명이념을 계승하고 당위적으로 제기된 바 민족적인

제과제를 수행할 것을 목표로 나는 오늘의 뜻깊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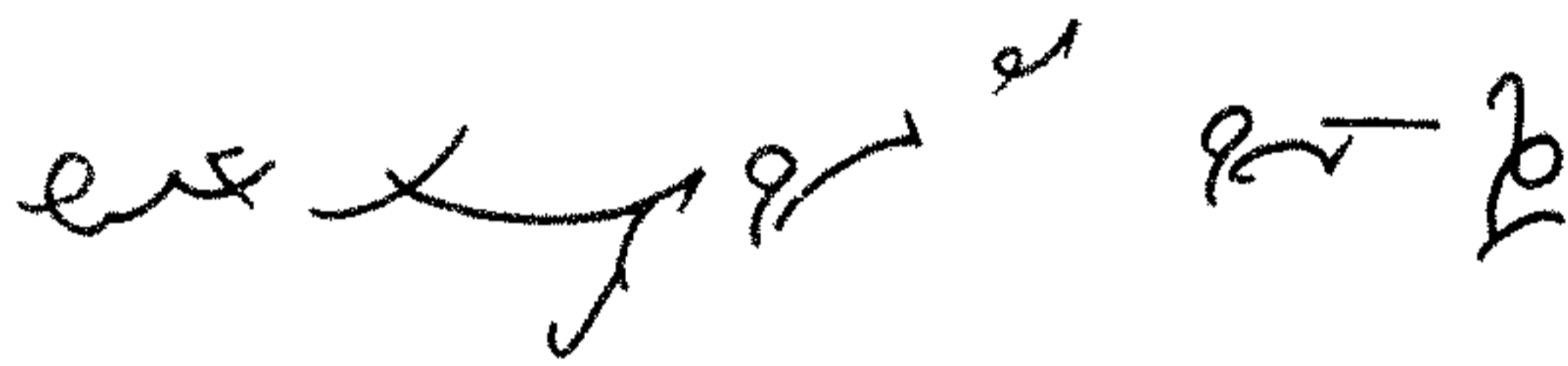
자리를 빌려 혁신운동을 제창하는 바이며, 이 범국민적



혁명대열에 적극적 호응과 열성적인 참여 있
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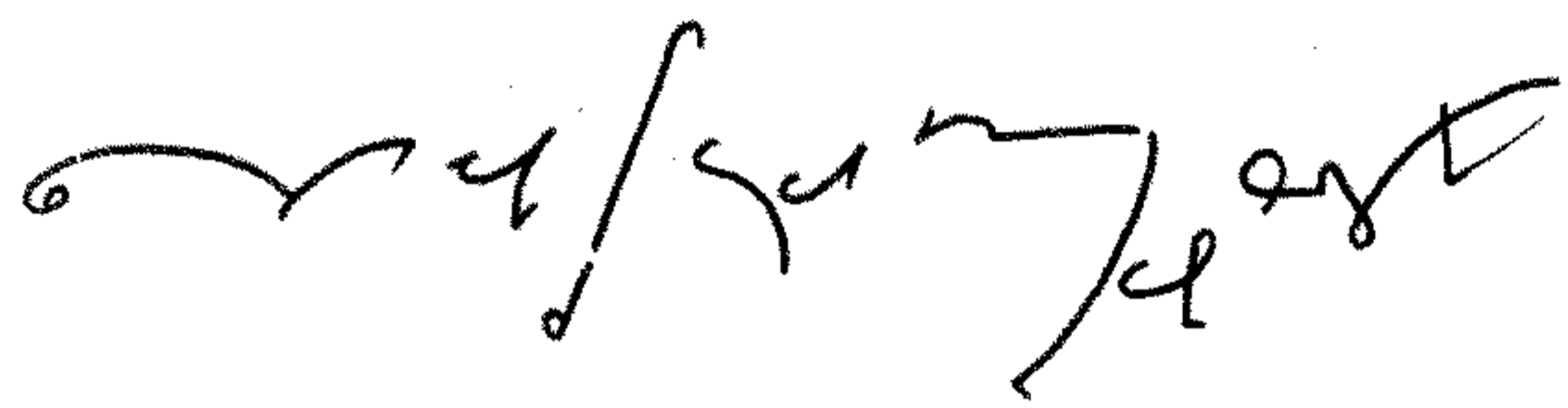
호소하는 바입니다. 격동하는 시대, 전환의
시점에서 치욕과 후진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오늘의 세대에 생존하는 우리
들의 생명을 건 희생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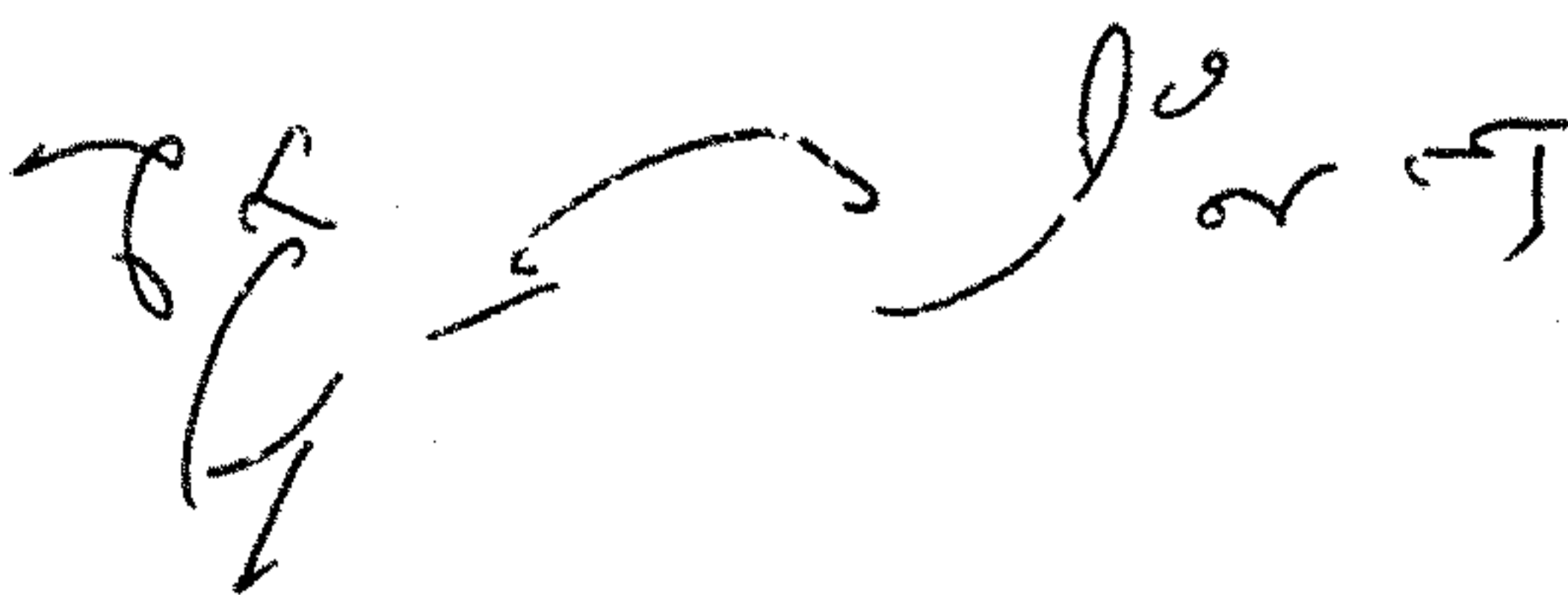
노력을 다하지 않는 한 내 조국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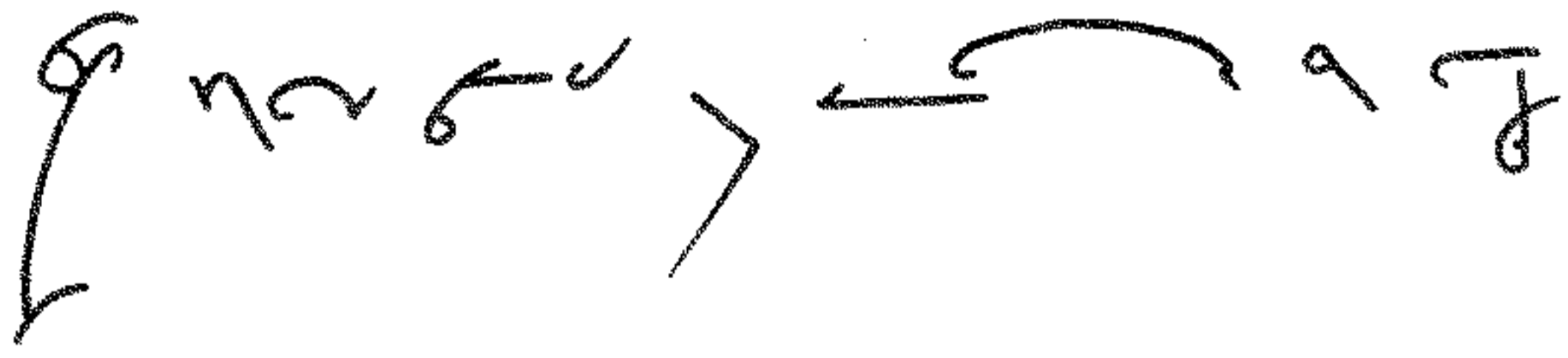
민족의 역사를 뒤덮는 퇴영의 먹구름은 영원
히 견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적 자주와 경제적 자립, 사회적 융화·
안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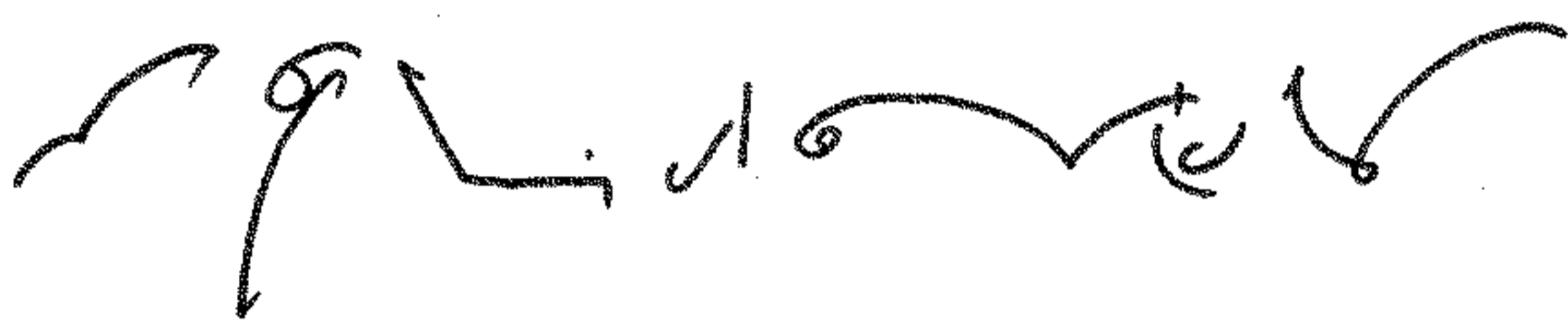
목표로 대혁신운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는 먼저 개개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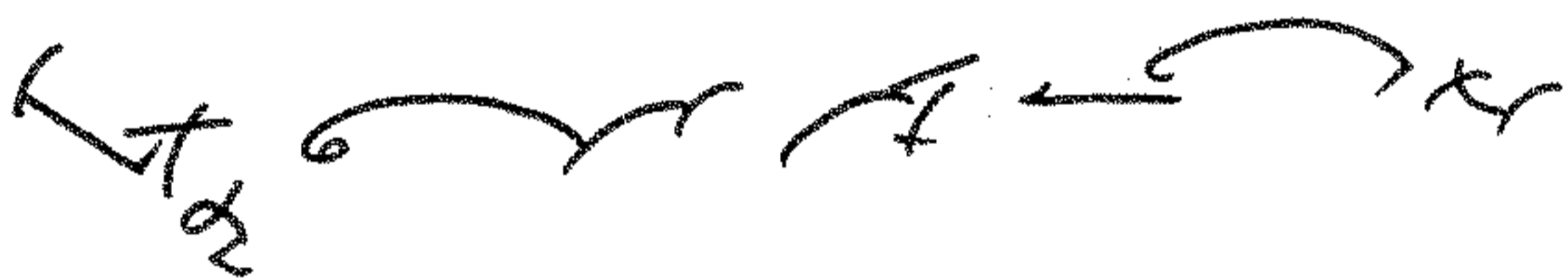
정신적 혁명을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국민은 한 개인으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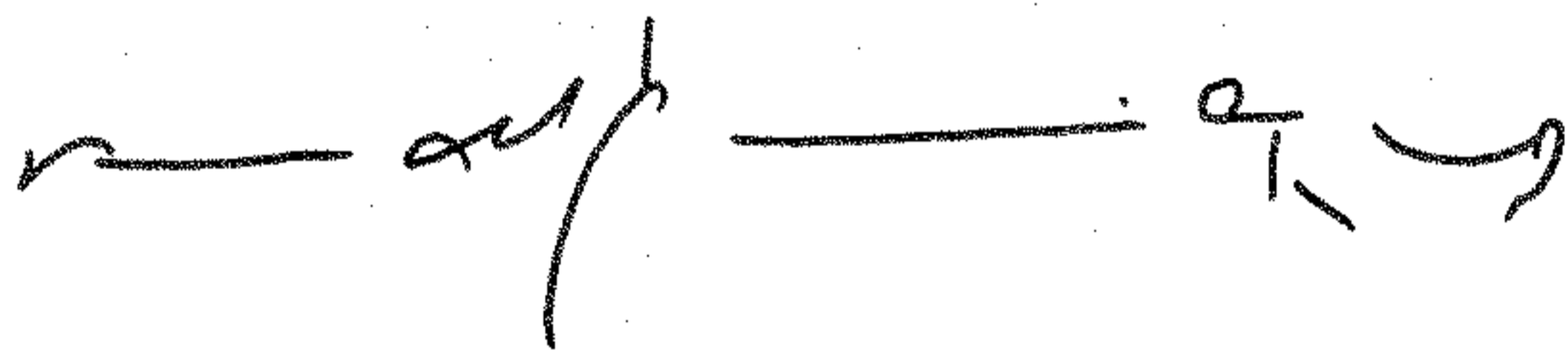
자주적 주체의식을 함양하여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다는 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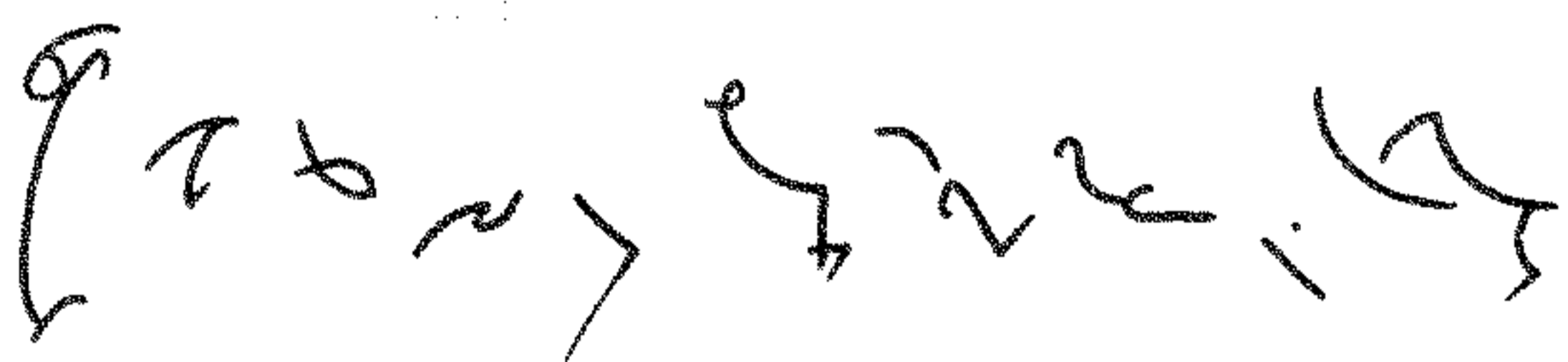
자조의 정신을 확고히 하고, 이 땅에 민주와 번영, 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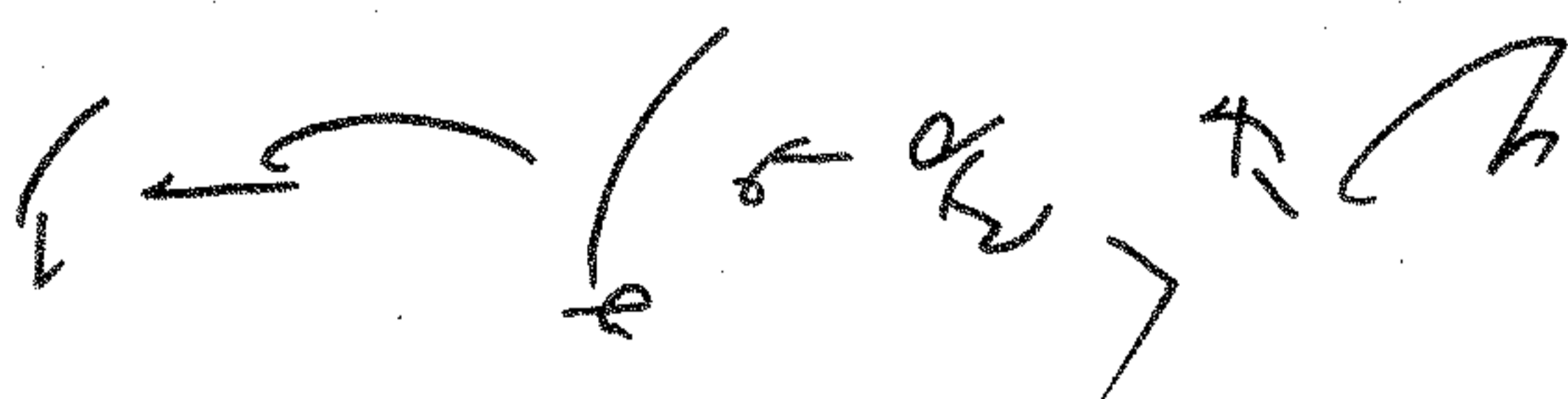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민족적 주체성과 국민의 자발적



적극 참여의 의식 그리고 강인한 노력의



정신적 자세를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불의와의 타협을 배격하며 부정부패의



소인을 국민 스스로가 절개, 청산해야 하겠습니다. 탁월한 지도자의

정치적 역량이나 그의 유능한 정부라

할지라도 국민 대중의 전진적 의욕과

건설적 협조 없이는 국가 사회의 안정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들의 최대의 적은 선거 과정에서의 상대

정적이나 대립 정당도 아니며, 바로 비협조와 파쟁으로 인한

정치적·사회적 불안정 그 자체인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대혁신운동의 정치적 목표의 일환으로

정치적 정화운동을 통한 새로운 차원의 정치 활동

협상을 실현하고, 국가 공동목적을 위한 협조의 전통을 세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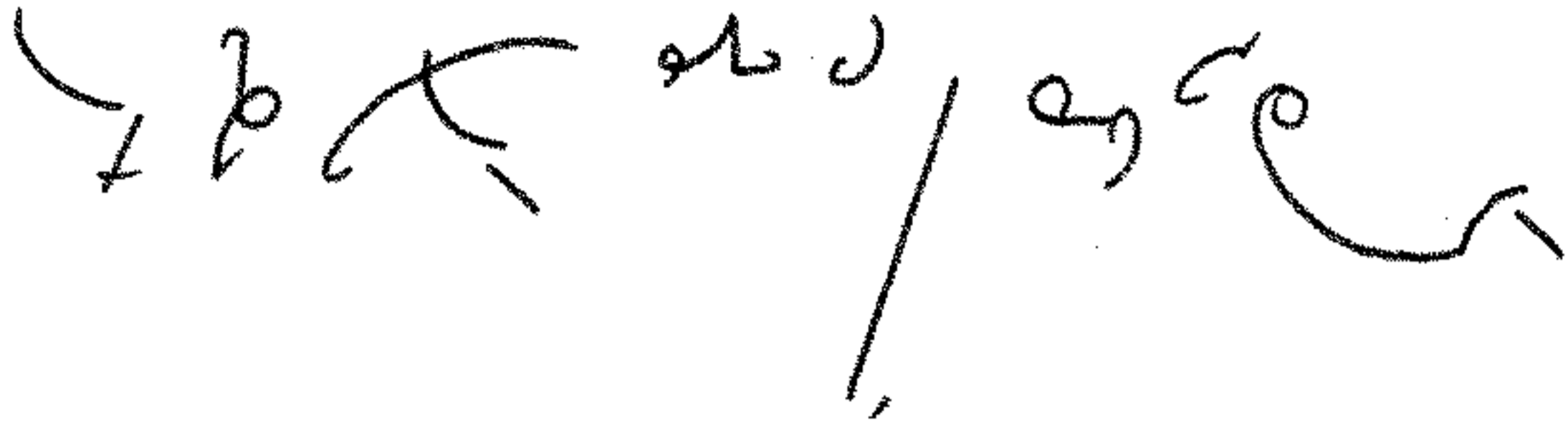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중단도 후퇴도 지체의

여유도 없습니다. 방관과 안일, 요행과 기적을 바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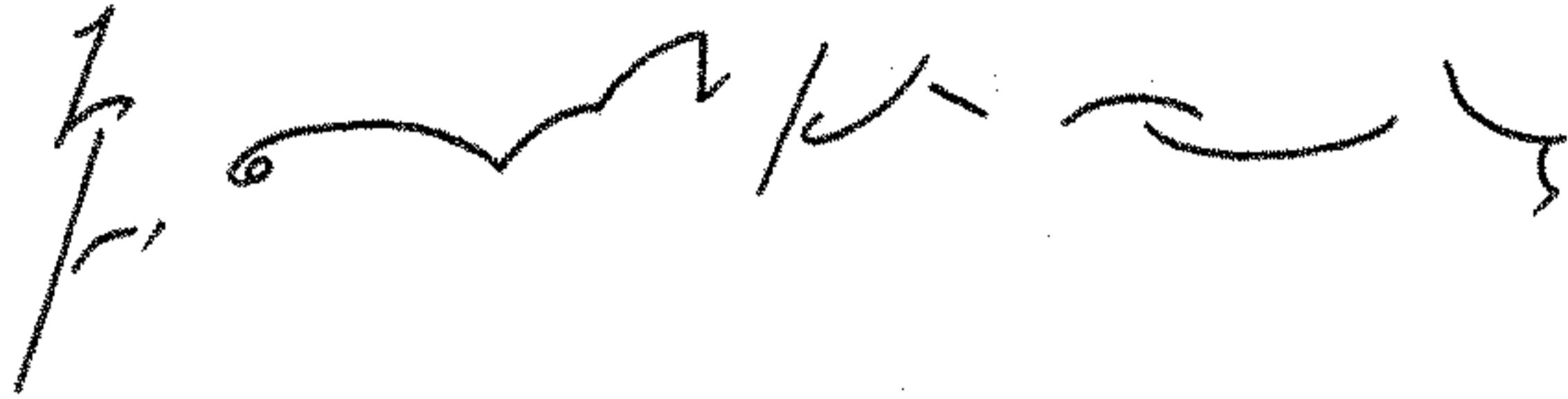
공론과 파쟁으로 끝끝내 국가를 쇠잔케 한 곤욕의

과거를 되풀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정치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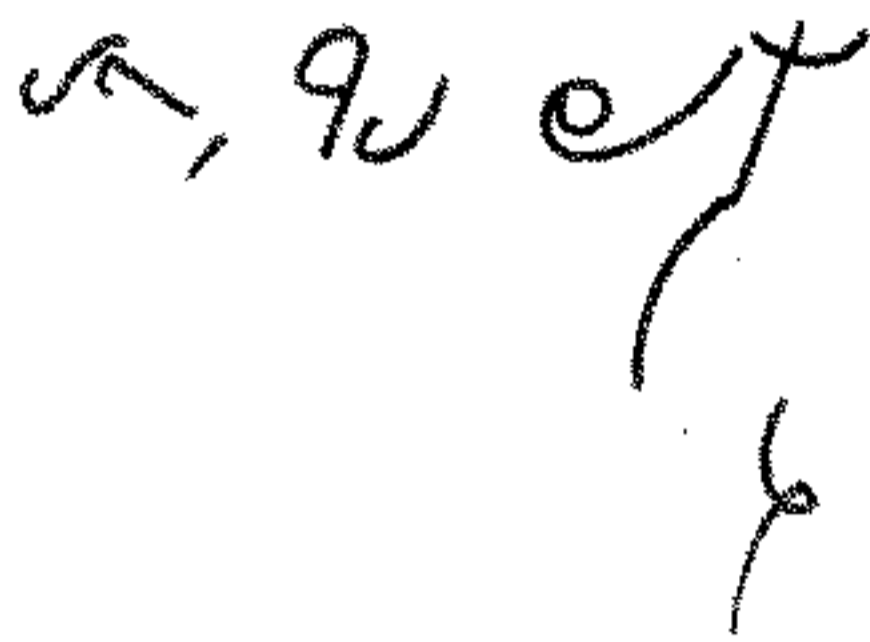
운용의 역사가 얕다거나 시행착오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막중한



부담과 희생을 지불한 우리들이기에, 여기에
또 다시 강력정치를 병자한



독재의 등장도, 민주주의를 도용한 무능 부패
의



재현도 당연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 자신이 쓴 속기문자를 읽어보자 <실전연습은 쓰고 읽기를 위주로 한다>.

손풀기 : 기본문자 복습 ... ㄹ 받침, ㅅ 받침 3회 이상 써보자.

♣ 통 사

4. 시제(어미)변화(2)

4-1. **~ㄹ 수 있다** : 「있다」의 기본형을 4~8mm의 길이로 앞문자의 끝에 오게 쓴다.

	드릴 수 있다		드릴 수가 있다
	드릴 수는 있는		드릴 수도 있습니다
	드릴 수도 있고		

4-2. **~ㄹ 수 없다** : 「없다」의 기본형을 앞문자의 끝에 오게 쓴다.

	드릴 수 없다		드릴 수가 없다
	드릴 수는 없는		드릴 수도 없습니다
	드릴 수도 없고		

	드릴 수밖에 없다		드릴 수밖에 다른
	드릴밖에 없다		드리는 수밖에 없다
	드릴 수 없는		드릴 수 없이*

<응용연습>

기본형 + 「~ㄹ 수 있다」

간다	갈 수 있다	일으킨다	일으킬 수 있다	나간다	나갈 수 있다

지킨다 지킬 수 있다 된다 될 수 있다 모른다 모를 수 있다
 안된다 안될 수 있다 앓으면 안된다 앓으면 안될 수 있다 둔다 둘 수 있다
 밝힌다 밝힐 수 있다 나온다 나올 수 있다 했다 했을 수 있다 나아간다 나아갈 수 있다
 믿는다 믿을 수 있다 바란다 바랄 수 있다 버린다 버릴 수 있다 본다 볼 수 있다
 시킨다 시킬 수 있다 받는다 받을 수 있다 안다 알 수 있다 온다 올 수 있다
 잡는다 잡을 수 있다 준다 줄 수 있다 드린다 드릴 수 있다 들이다 들일 수 있다
 오른다 오를 수 있다 아니다 아닐 수 있다 앓는다 앓을 수 있다 판다 팔 수 있다
 없다 없을 수 있다 아니(하) 아니할 수 있다 한다 할 수 있다 있다 있을 수 있다

기본형+「~ㄹ 수 없다」

간다 갈 수 없다 일으킨다 일으킬 수 없다 나간다 나갈 수 없다 지킨다 지킬 수 없다
 된다 될 수 없다 모른다 모를 수 없다 안된다 안될 수 없다
 앓으면 안된다 앓으면 안될 수 없다 둔다 둘 수 없다 밝힌다 밝힐 수 없다
 나온다 나올 수 없다 했다 했을 수 없다 나아간다 나아갈 수 없다 믿는다 믿을 수 없다
 바란다 바랄 수 없다 버린다 버릴 수 없다 본다 볼 수 없다 시킨다 시킬 수 없다
 받는다 받을 수 없다 안다 알 수 없다 온다 올 수 없다 잡는다 잡을 수 없다

준다 줄 수 없다 드린다 드릴 수 없다 들이다 들일 수 없다 오른다 오를 수 없다
 / (/ / / / / / / /
 아니다 아닐 수 없다 앓는다 앓을 수 없다 판다 팔 수 없다 없다 없을 수 없다
) {) {) { ({
 아니(하) 아니할 수 없다 한다 할 수 없다 있다 있을 수 없다
 ({ \ } | |

〈응용연습〉 스스로하기

기타는 학습자 스스로 하여 보자.

〈실전연습 19〉 ... 한글문장을 속기문자로 옮겨보자.

여하한 이유에서도 성서를 읽는다는 명목
아래 촛불을

여하한 이유에서도 성서를 읽는다는 명목
아래 촛불을

훤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새 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 나는

훤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새 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 나는

국민 앞에 군림하여 지배하려 함이 아니요,
겨레의

국민 앞에 군림하여 지배하려 함이 아니요,
겨레의

충복으로 봉사하려는 것입니다. 시달리고 피
곤에 지쳐 가는 동포를 일깨워

충복으로 봉사하려는 것입니다. 시달리고 피
곤에 지쳐 가는 동포를 일깨워

용기를 돋우며 정의 깊은 대중의 벗으로 격
려와 의논과

용기를 돋우며 정의 깊은 대중의 벗으로 격
려와 의논과

설득으로 분열과 낙오 없는 대오의 향도가
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민이 지워준 명예를 성실하게 고이 끌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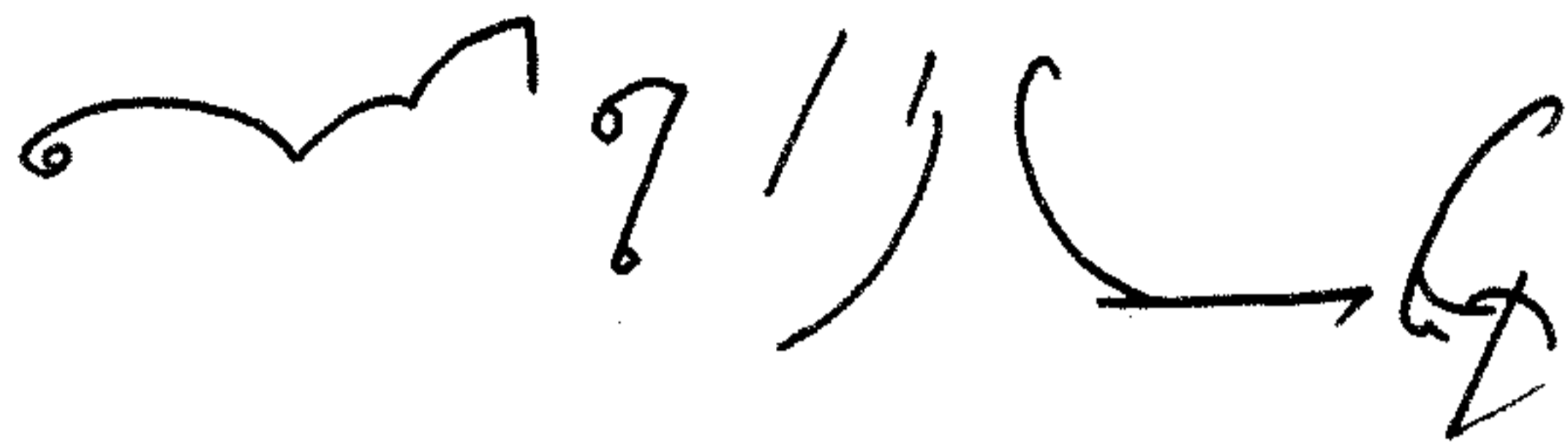
고난의 가시밭을 헤쳐 새 공화국의 진로를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선거에
서 패배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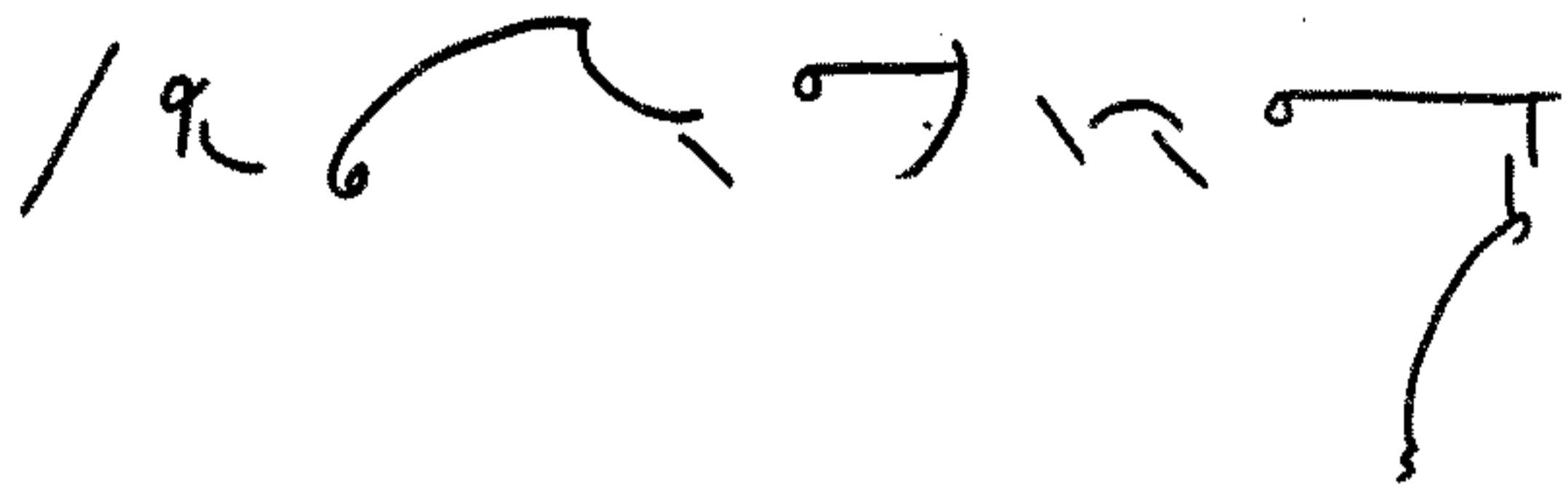
소수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그를 보호하는
데 더욱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선거에서 승리한 집권당이 평면적 다수 의
결 방식을 근거로 만능

우월의식에서 독선과 횡포를 자행하며 소수
의 의사를 유린할 때, 이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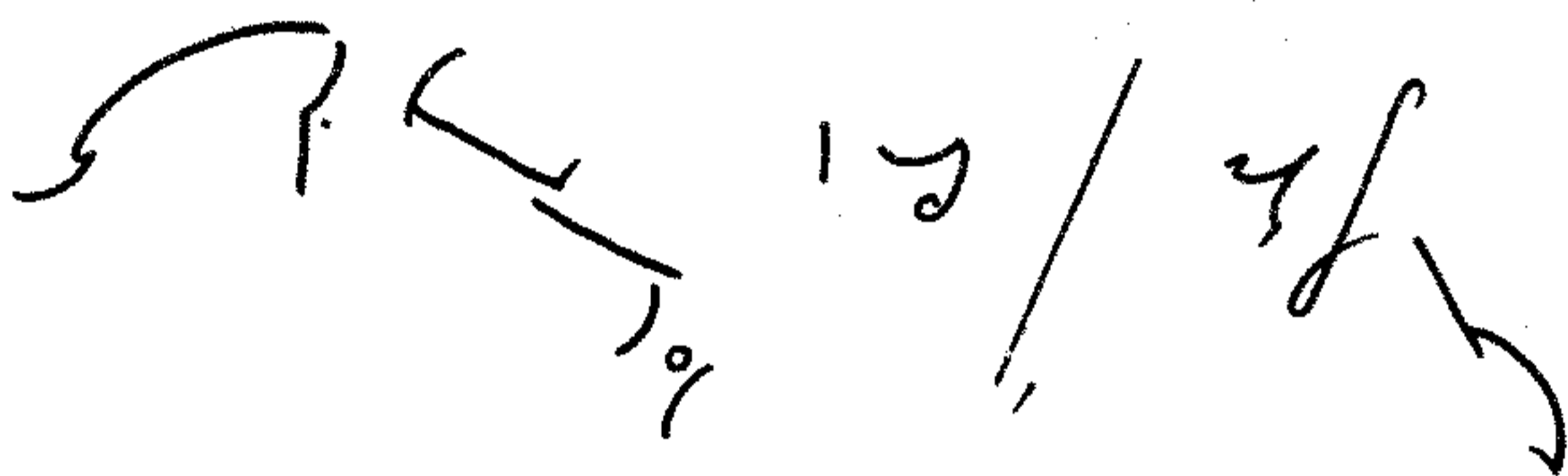
민주주의 전도에는 또 다른 비극의 씨가 배
태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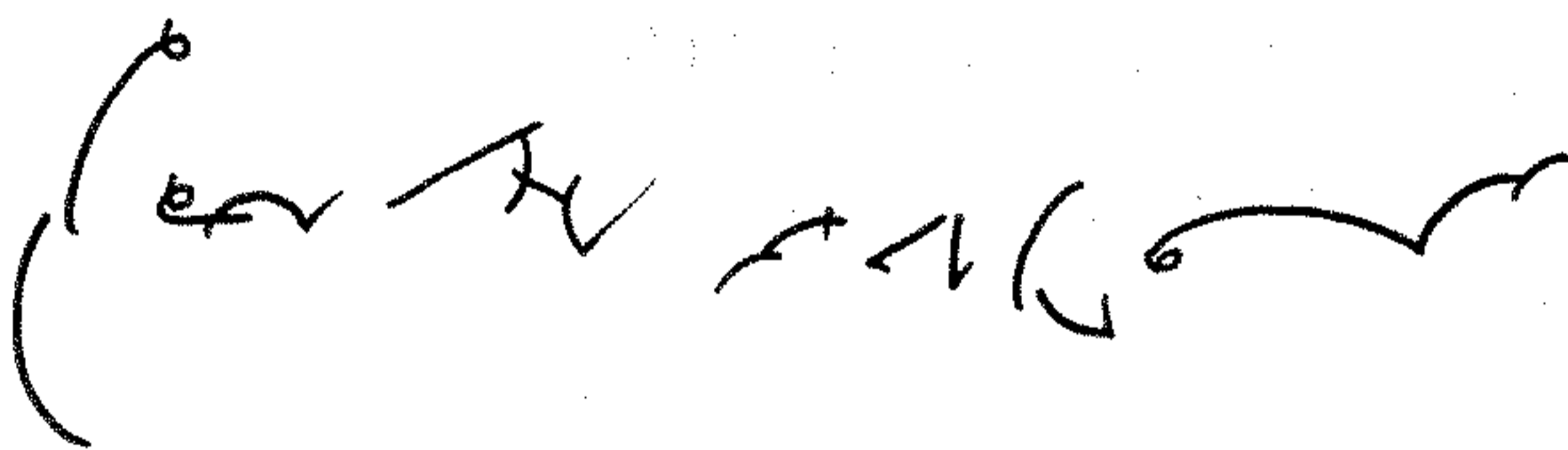
또 일방 진부한 관록이나 허망한 권위의식
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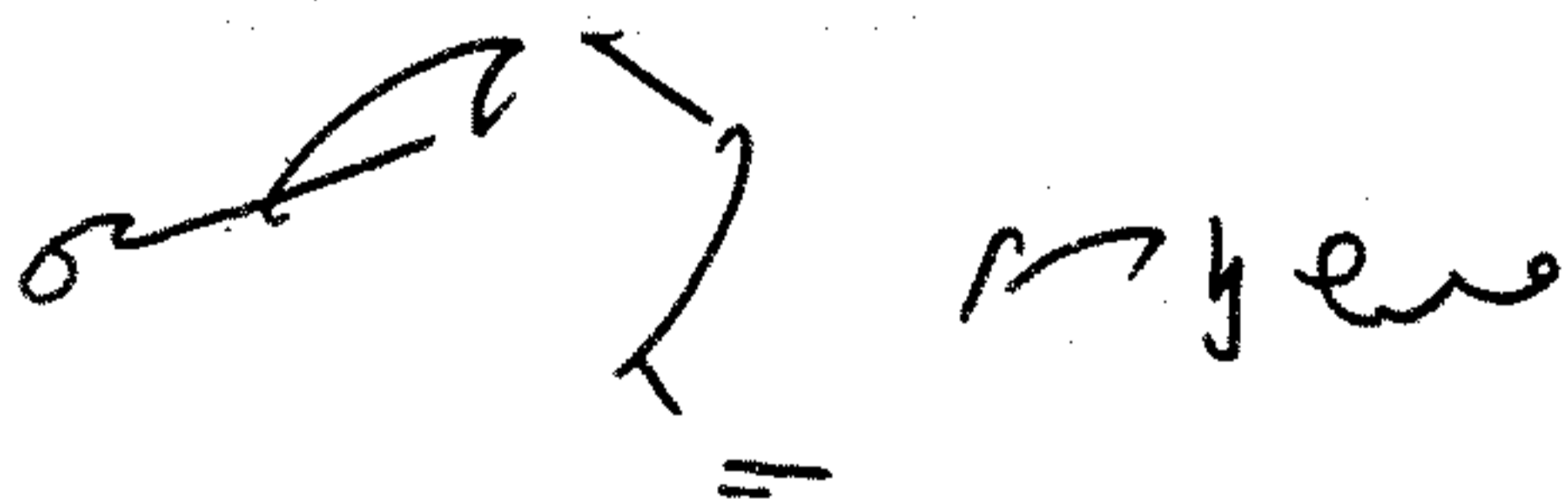
대국을 망각한 소아병적 도발로 정쟁을 벌이
고 정국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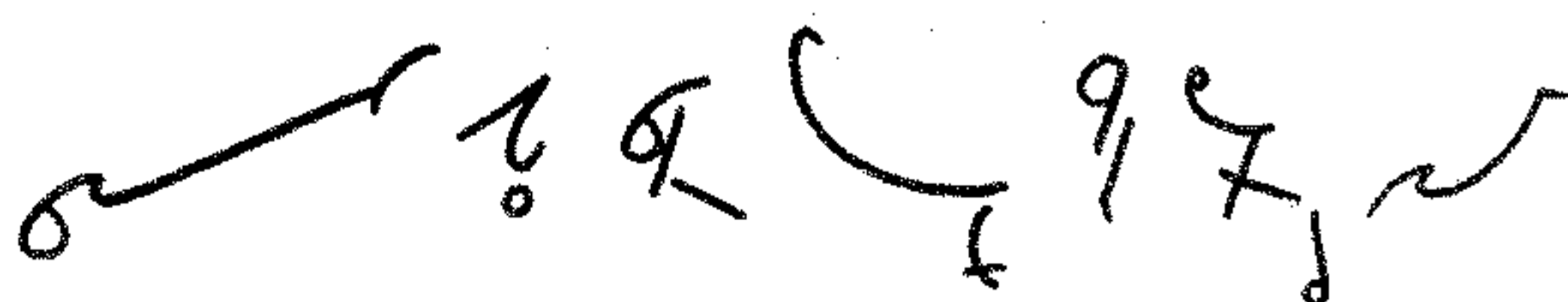
어지럽히며 사회를 혼란시킨다면 이 나라는
또다시 역사의 뒤로 후퇴하는



슬픈 결말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제와 책임을 수반하는 민주적



정치질서를 확립해 가면서 대중의 이익에 벗
어나는



정치적 처사에 대하여는 정당한 비판과 당당
히 반대할 수 있는 자유가

Handwritten calligraphy: 大正憲法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인과 새 정부는

Handwritten calligraphy: 政治活動方式

정치적 활동양식에 있어서 보다 높은 윤리법규를 정립하여

Handwritten calligraphy: 極端主義 大體主義 不識 女界의 협조를 통해

극렬한 증오감과 극단적 대립의식을 불식하고 여야의 협조를 통해

Handwritten calligraphy: 議政의 질서와 상례를 바로잡을 것이며

의정의 질서와 상례를 바로잡을 것이며

Handwritten calligraphy: 遺血補復으로 점철된 역사적 악유산을 청산하고 평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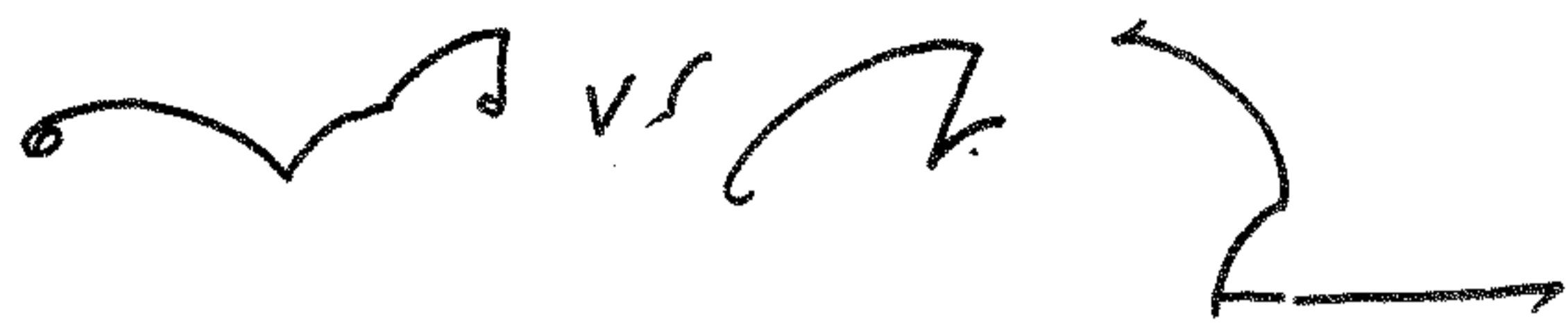
유혈보복으로 점철된 역사적 악유산을 청산하고 평화적

Handwritten calligraphy: 政權교체를 위한 복수정당의 발랄한 경쟁과 신사적 정책대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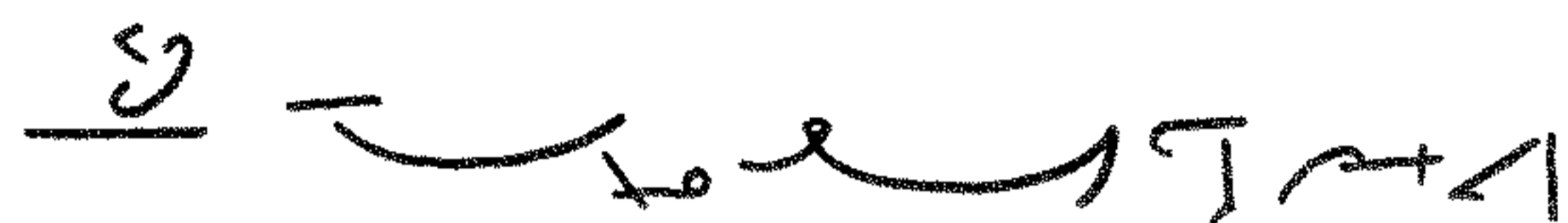
정권교체를 위한 복수정당의 발랄한 경쟁과 신사적 정책대결의

Handwritten calligraphy: 政治풍토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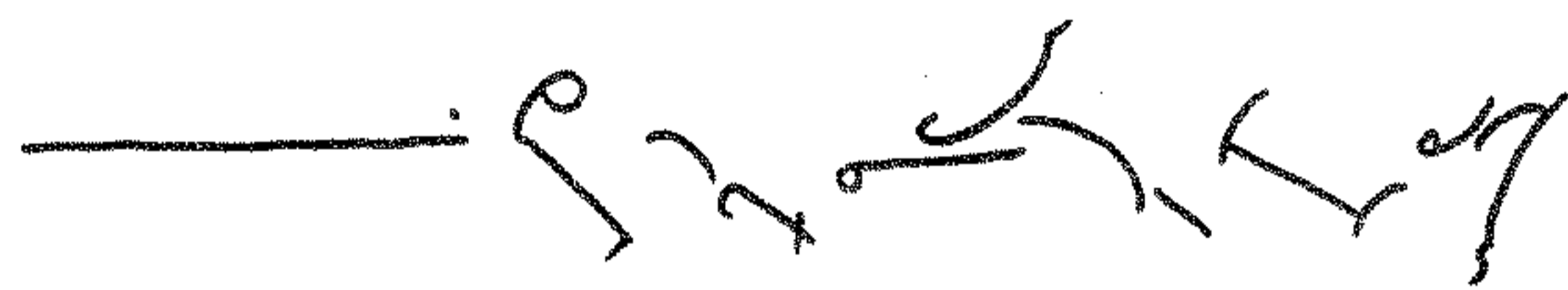
정치풍토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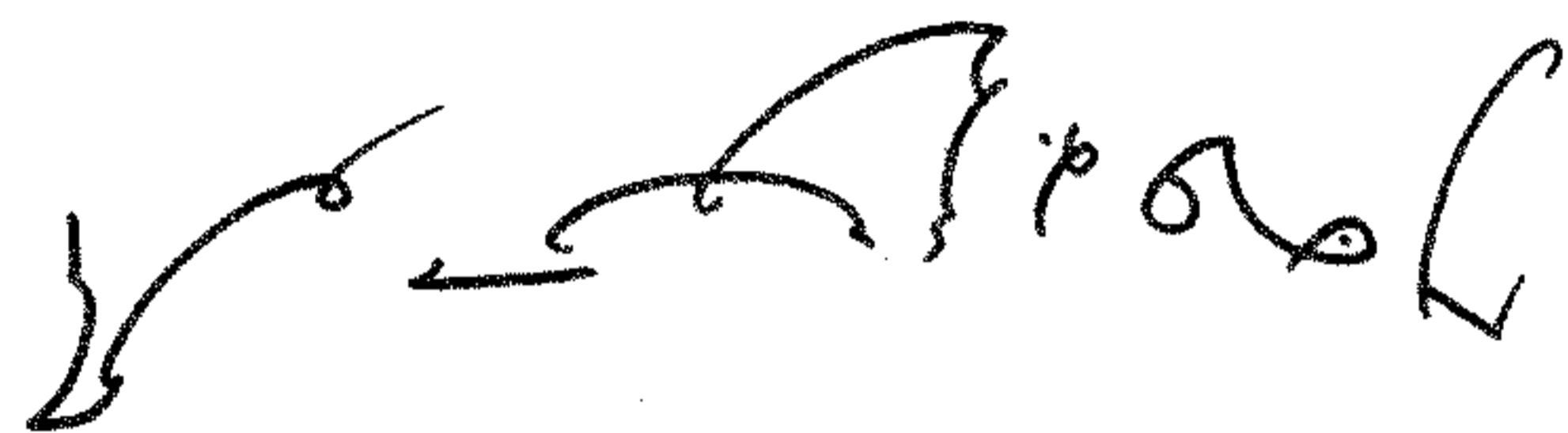
민주주의는 몇 사람의 지도자나 특수계급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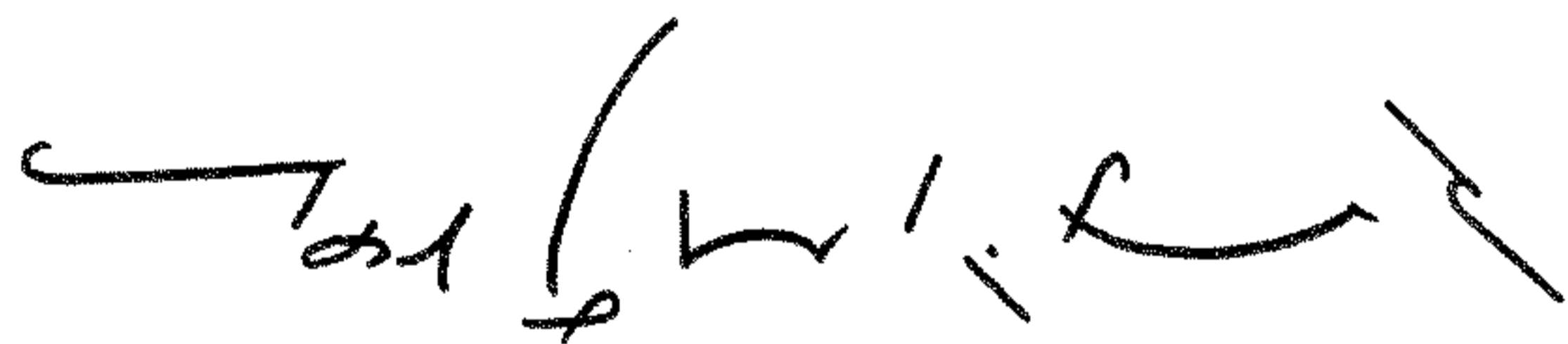
고양에 의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
각과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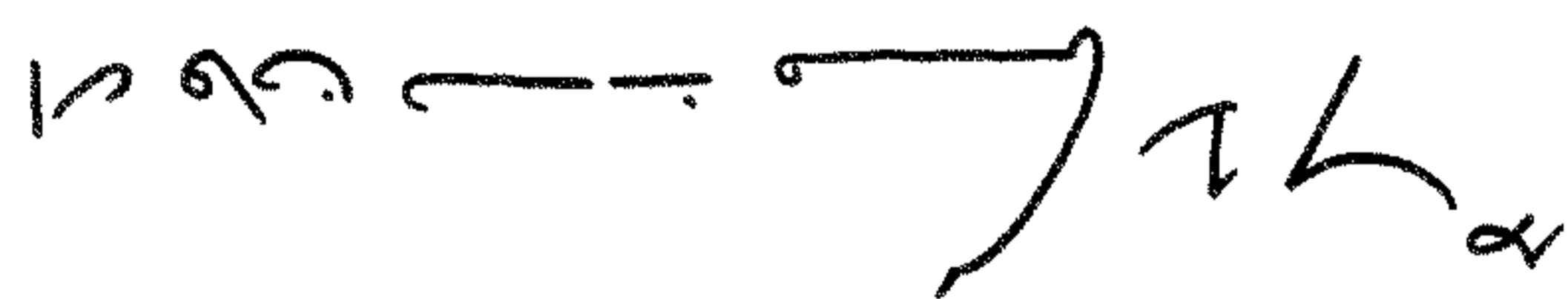
그리고 상호의 타협과 관용을 통한 사회적
안정 속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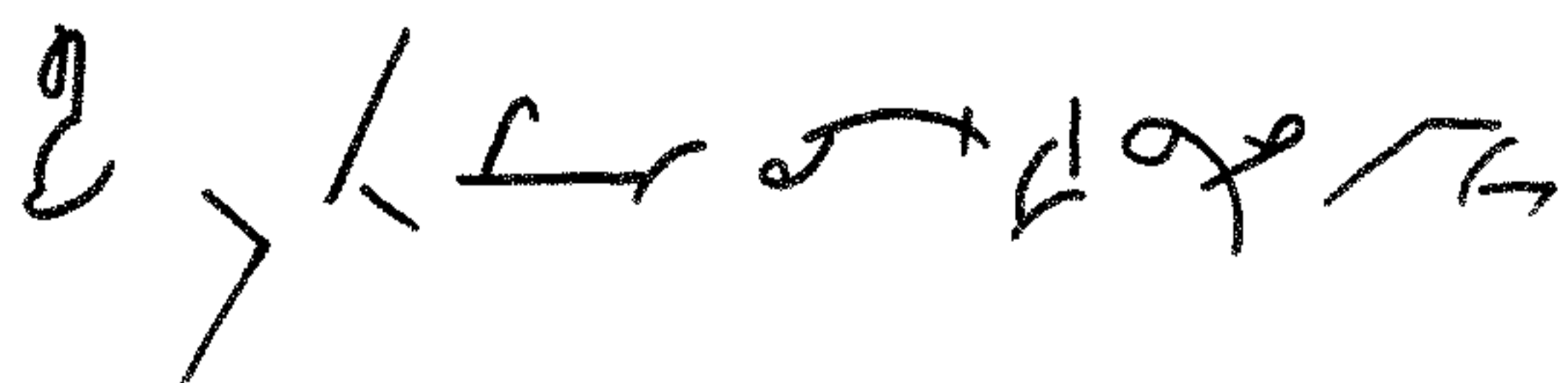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국민은 질서 속에서
살며 정부로부터 시혜를



기대하기에 앞서 스스로 의무를 다하며, 때늦
은 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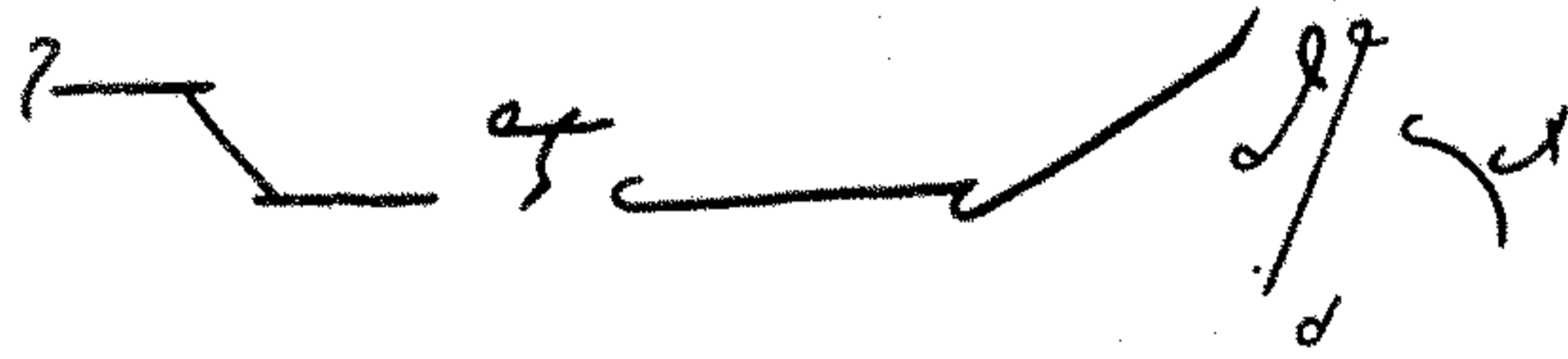
이전에 현명하고 과감하게 권리의 자위를 도
모하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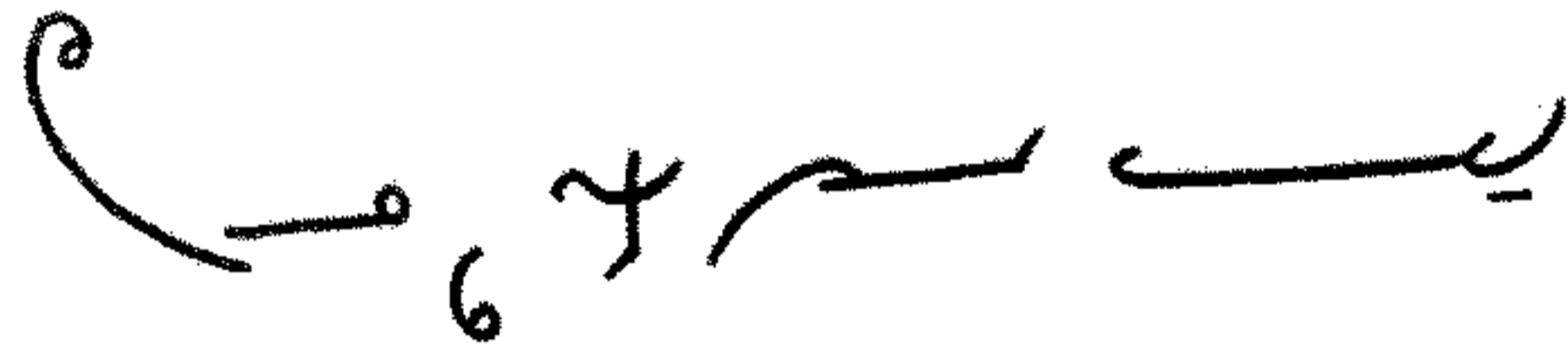
힘써야 하겠습니다. 또한 대국적 안목과 이성
적 통찰로써 초가삼간의



소실을 초래하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질서와 번영 있는 사회에 영광
된



새공화국 건설의 가치를 높이 들고 다시는
퇴영과



빈곤이 없는 내일의 조국을 기약하면서...

* 자신이 쓴 속기문자를 읽어보자 <실전연습은 쓰고 읽기를 위주로 한다>.

손풀기: 기본문자 복습 ... ㄴ받침, ㅇ받침 3회 이상 써보자.

5. 상선약자 (3)

계기	대책	동시(당시)	문제	정치	법안	법률	전국(정국)
ㄴ	ㄴ	9	ㄴ	ㄴ	ㄴ	ㄴ	ㄴ
전국적	전국방방곡곡	특별히	특히	특수	최근	최대	최선(참석)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참가(최고)	최초	최저	혁명	인류			
ㄴ	ㄴ	ㄴ	ㄴ	9			

<실전연습 20> ... 한글문장을 속기문자로 옮겨보자.

나는 오늘 사랑하는 동포 앞에 다시 한번 민족의 단합을 호소하는*

나는 오늘 사랑하는 동포 앞에 다시 한번 민족의 단합을 호소하는*

지금, 우리는 조국의 근대화라는 막중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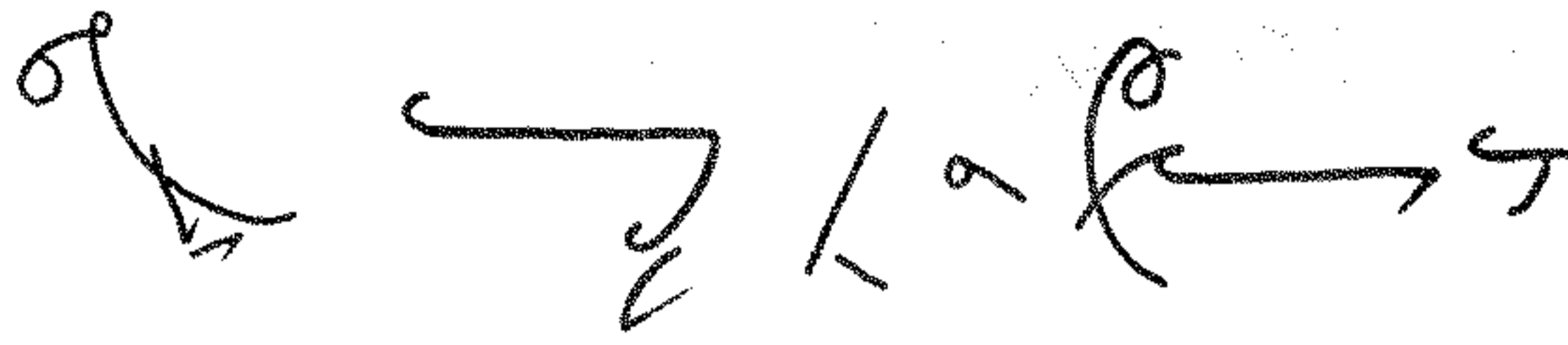
지금, 우리는 조국의 근대화라는 막중한

과업을 앞에 두고 불화와 전쟁과 정체와 쇠잔을 되풀이할 것인가 아니면

과업을 앞에 두고 불화와 전쟁과 정체와 쇠잔을 되풀이할 것인가 아니면

친화와 단합으로 민족적인 공동의 광장에서 새로 대오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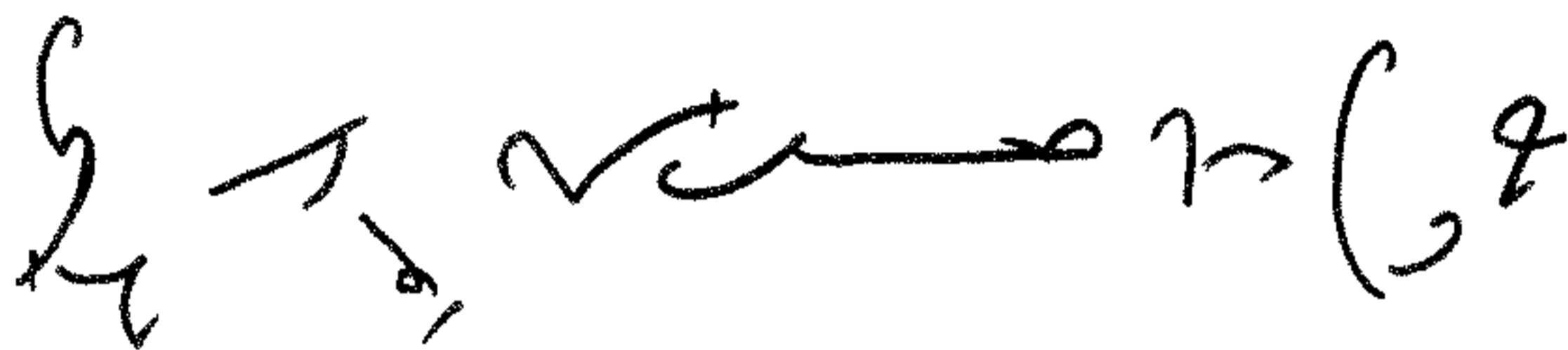
친화와 단합으로 민족적인 공동의 광장에서 새로 대오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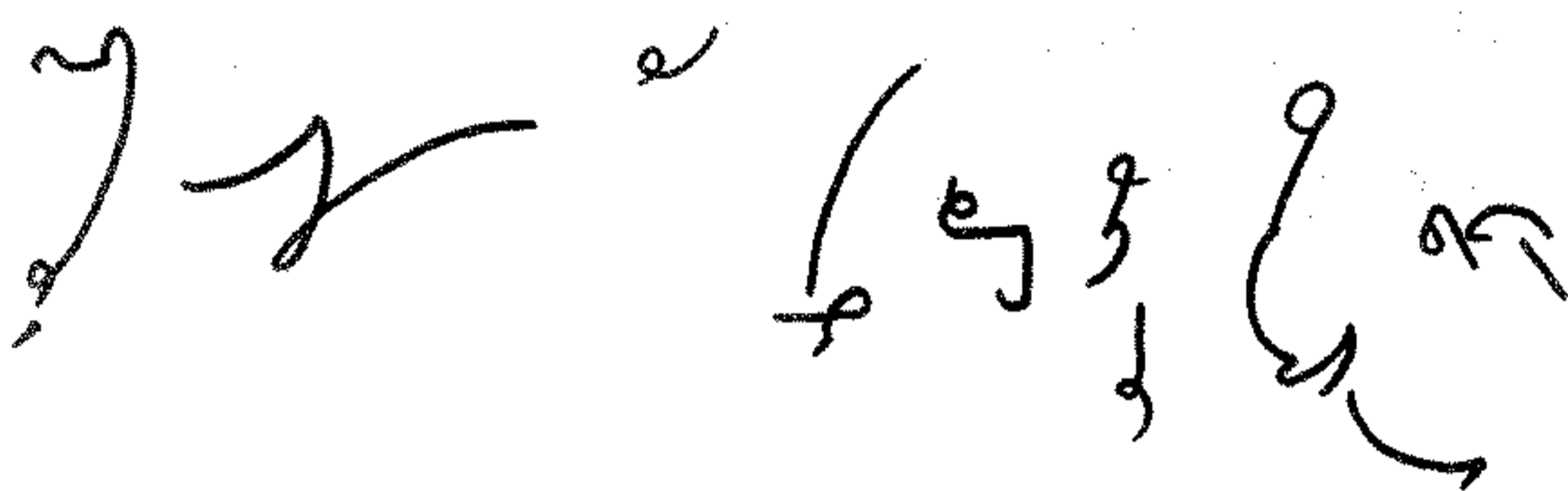
정비할 것인가의 기로에 선 것입니다. 또한 한 핏줄기의 겨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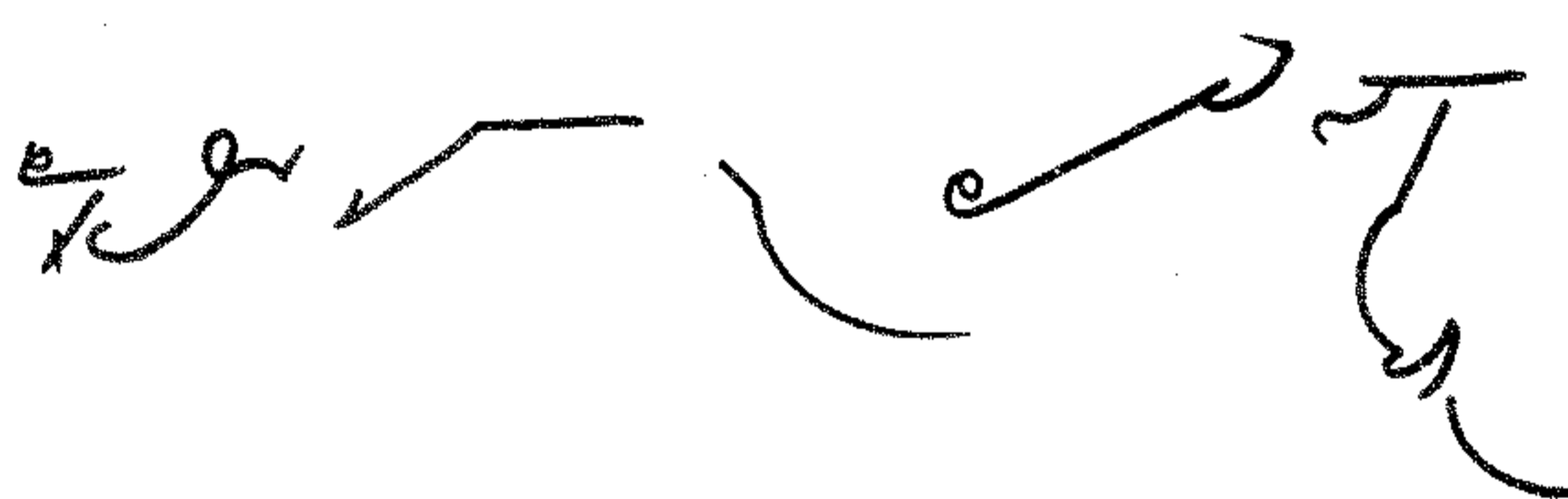
우리는 이미 운명을 함께 한 같은 배에 탄 것입니다. 파쟁과 혼란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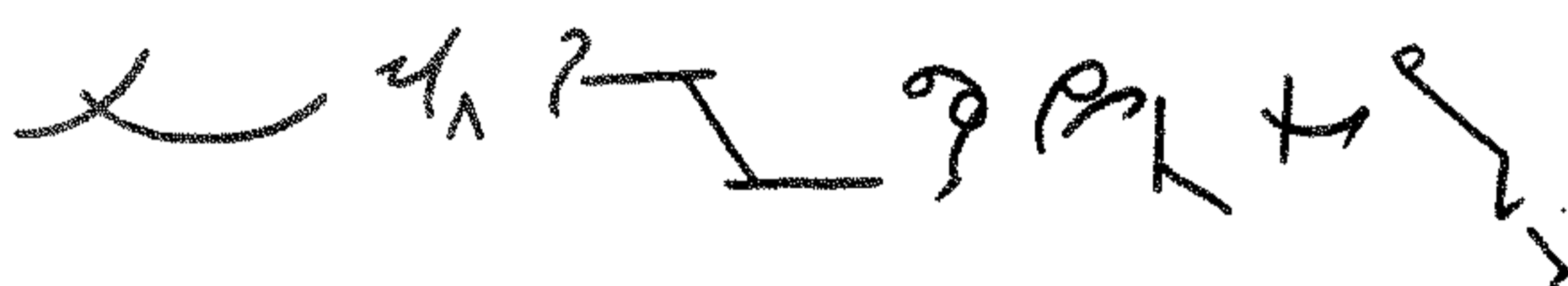
표류와 난파를 초래하는 것도, 협조와 용기로써 희망의 피안에 닿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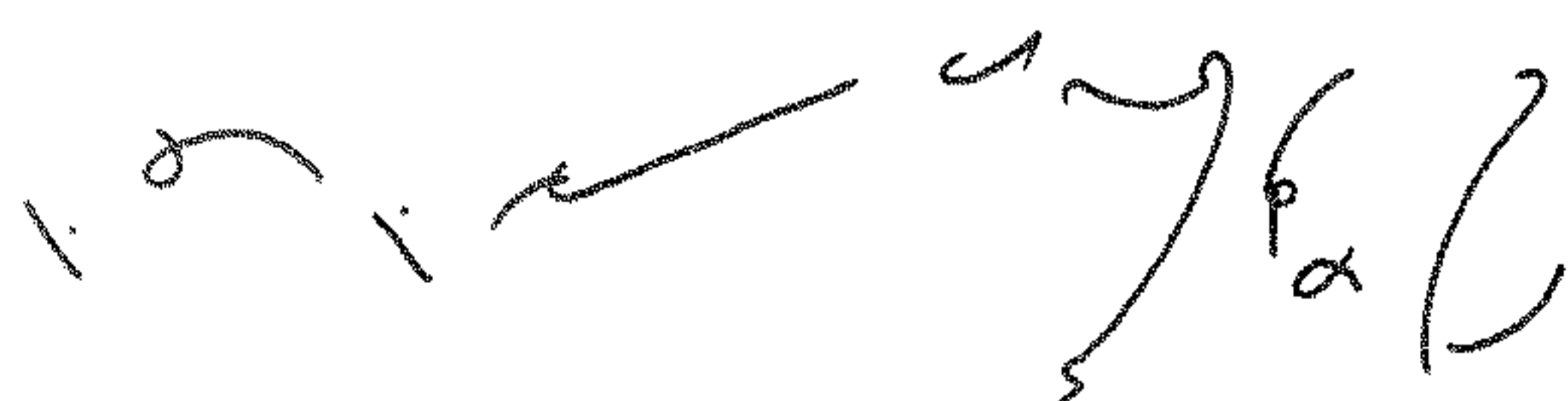
내리는 것도 오로지 우리들 스스로의 결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동포 여러분의 현명한



결단과 용맹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애국 동포 여러분!



오늘 역사적인 새 공화국 탄생의 성전에 임해 이날의 환희를 함께



하지 못하며 자칫 우리의 뇌리에서 소원하기 쉬운

북한 1천만 동포의 노예상태에 대해 이 땅에
서 자유를 향유하는 우리들의

경각을 높이고자 합니다. 본인과 새 정부는
안으로는 조속히 건설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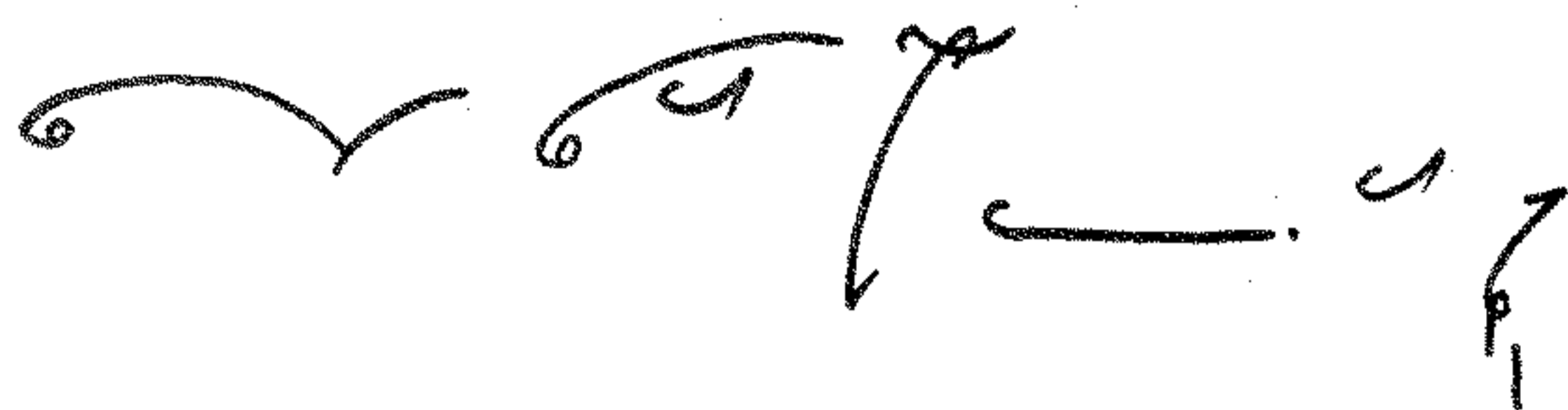
경제와 사회적 토대를 이룩하고 현 군사력
유지와

발전을 포함한 단합된 민족의 힘을 결속할
것이며 밖으로는 유엔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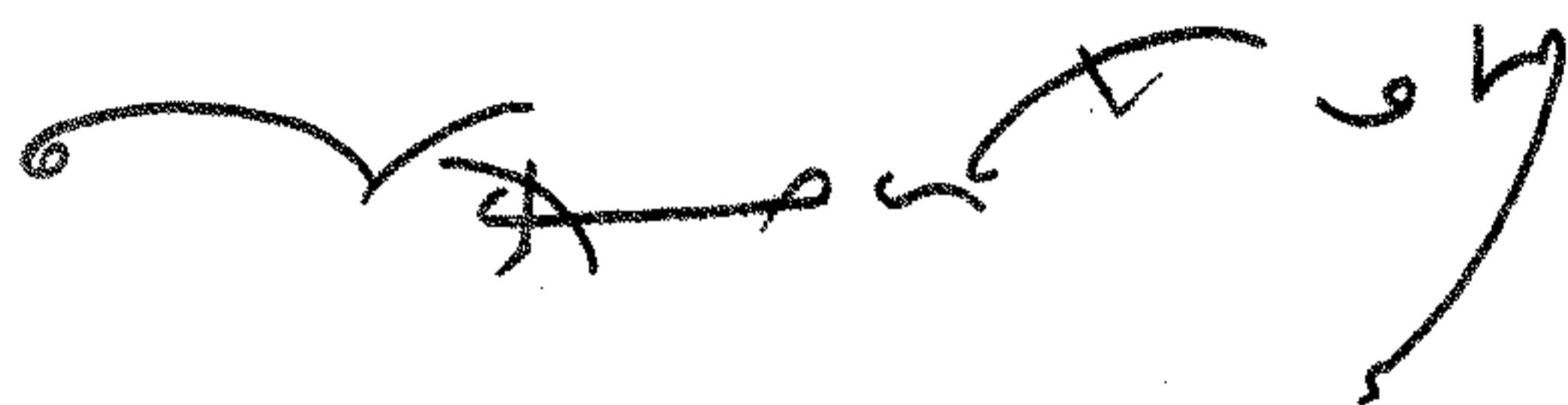
자유우방 그리고 전 세계 자유

애호 인민들과 유대를 공고히 하여 여하한
상황과 조건하에서도

공산주의에 대항, 승리할 수 있는 민주적 역
량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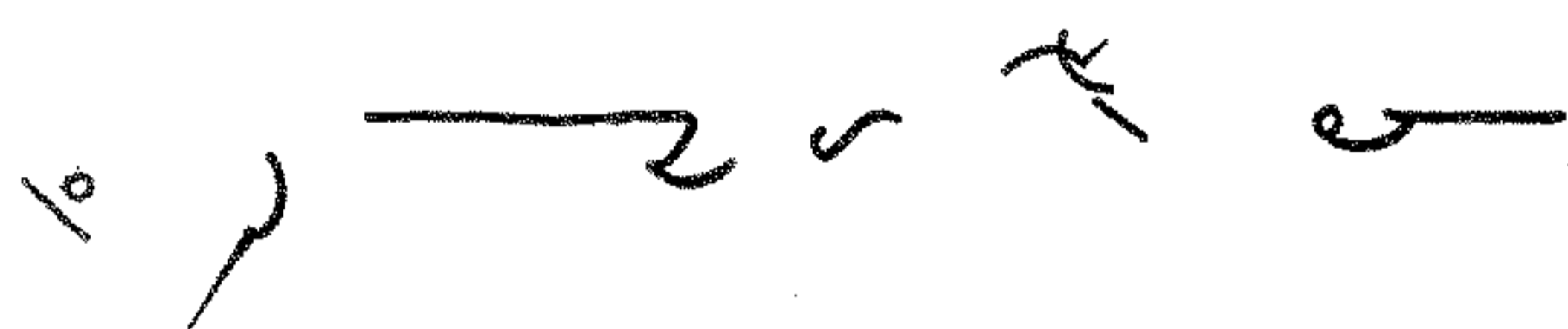
민족진영의 내실을 기하여 우리의 숙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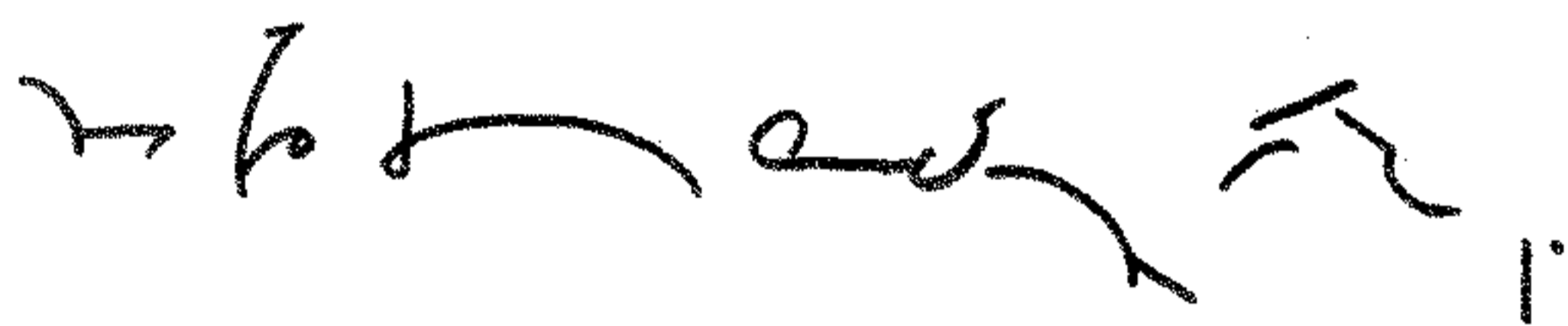
민족통일의 길로 매진할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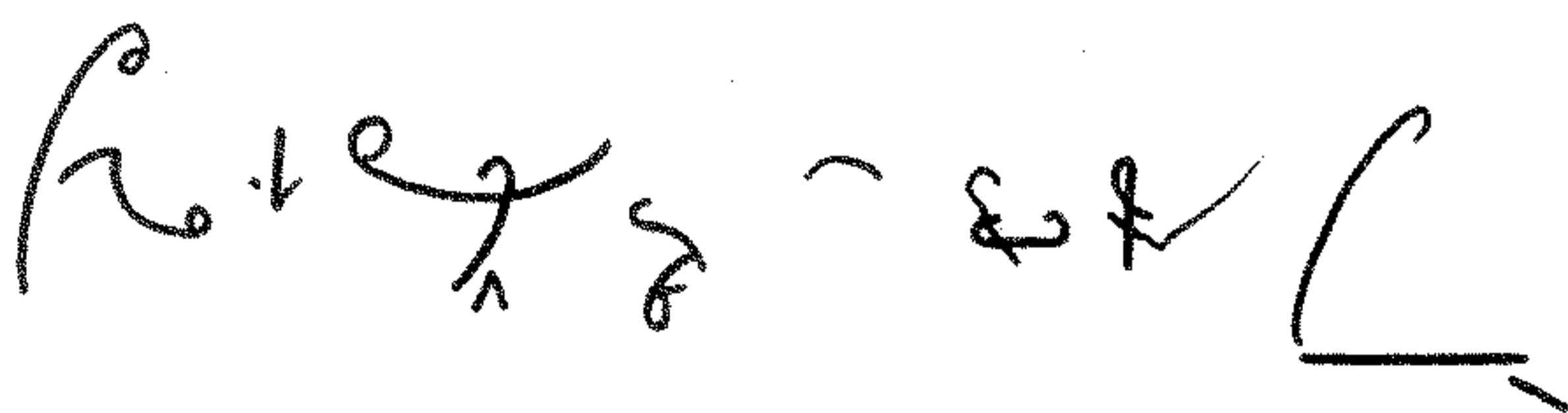
우리가 당면한 현실적인 제 문제를 일일이 논급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 문제를 비롯한 난국



타개의 숙제는 이미 공약을 통해 자청한 바 있으며



신정부는 이를 위하여 능률적인 태세로써 문제 해결에 임할 것입니다. 시급한



민생문제의 해결, 그리고 민족

Handwritten calligraphy: 7 strokes, starting with a vertical line, a curve, and ending with a long horizontal stroke.

자립의 지표가 될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합리적 추진은

Handwritten calligraphy: 5 strokes, starting with a vertical line, a curve, and ending with a long horizontal stroke.

중대한 국가적 과제로서 여야 협조와 정부·

Handwritten calligraphy: 5 strokes, starting with a vertical line, a curve, and ending with a long horizontal stroke.

국민간의 일치 단합된 노력으로써 그 성과를

Handwritten calligraphy: 5 strokes, starting with a vertical line, a curve, and ending with a long horizontal stroke.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운 목표를 향하여 인내와 자중으로 성실하고

Handwritten calligraphy: 5 strokes, starting with a vertical line, a curve, and ending with a long horizontal stroke.

근면하게 살아 나가는 근로정신의 소박한 생활인으로

Handwritten calligraphy: 5 strokes, starting with a vertical line, a curve, and ending with a long horizontal stroke.

돌아가 항상 성급한 기대의 후면에는 허무한

Handwritten calligraphy: 5 strokes, starting with a vertical line, a curve, and ending with a long horizontal stroke.

낙망이 상점함을 명심하고 착실한 성장을 꾀하는 경제국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우람한 새 공화국의

아침은 밝았습니다. 침체와 우울, 혼돈과 방황에서

우리 모든 국민은 결연히 벗어나 '생각하는

국민' '일하는 국민' '협조하는 국민'으로

재기합시다. 새로운 정신, 새로운 자세로서 희망에 찬 우리의 새역사를

창조해 나갑시다.

* 자신이 쓴 속기문자를 읽어보자 <실전연습은 쓰고 읽기를 위주로 한다>.

밝힌다 밝힌 것이다 밝힌 것이니 밝힌 것이나 밝힌 것이고 밝힌 것인데 밝힌 것이지
) 9 9 9 9 9 9

밝힌 것이며 밝힌 것입니다
 9 9

나온다 나온 것이다 나온 것이니 나온 것이나 나온 것이고 나온 것인데 나온 것이지
)))))))

나온 것이며 나온 것입니다
))

믿는다 믿은 것이다 믿은 것이니 믿은 것이나 믿은 것이고 믿은 것인데
)))))))

믿은 것이지 믿은 것이며 믿은 것입니다
)))

본다 본 것이다 본 것이니 본 것이나 본 것이고 본 것인데 본 것이지 본 것이며
))))))))

본 것입니다
)

받는다 받은 것이다 받은 것이니 받은 것이나 받은 것이고 받은 것인데 받은 것이지
))))))))

받은 것이며 받은 것입니다
))

안다 안 것이다 안 것이니 안 것이나 안 것이고 안 것인데 안 것이지 안 것이며
))))))))

안 것입니다
)

잡는다 잡은 것이다 잡은 것이니 잡은 것이나 잡은 것이고 잡은 것인데 잡은 것이지
))))))))

잡은 것이며 잡은 것입니다
))

드린다 드린 것이다 드린 것이니 드린 것이나 드린 것이고 드린 것인데 드린 것이지
))))))))

드린 것이며 드린 것입니다

✓ ↗

아니다 아닌 것이다 아닌 것이니 아닌 것이나 아닌 것이고 아닌 것인데 아닌 것이지
)))))))

아닌 것이며 아닌 것입니다

) ↘

않는다 않은 것이다 않은 것이니 않은 것이나 않은 것이고 않은 것인데 않은 것이지
)))))))

않은 것이며 않은 것입니다

) ↘

판다 판 것이다 판 것이니 판 것이나 판 것이고 판 것인데 판 것이지 판 것이며
))))))))

판 것입니다

)

없다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니 없는 것이나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인데 없는 것이지
 ((((((((

없는 것이며 없는 것입니다

(↗

아니(하) 아니한 것이다 아니한 것이니 아니한 것이나 아니한 것이고 아니한 것인데
 (((((((

아니한 것이지 아니한 것이며 아니한 것입니다

(↘

있다 있는 것이다 있는 것이니 있는 것이나 있는 것이고 있는 것인데 있는 것이지
 | | | | | | |

있는 것이며 있는 것입니다

| ↘

응용 : 「~ㄴ(은) 것이다」 + 조사 : 빠치지 않고 쓰면서 조사를 붙인다.

「~ㄴ(은) 것으로」

↘

「~ㄴ(은) 것도」

↘

「~ㄴ(은) 것과」 ↘

「~ㄴ(은) 것이」 ↘

「~ㄴ(은) 것은」 ↘

「~ㄴ(은) 것을」... ↘

참고 : 「~ㄴ(은) 것」으로만 끝나버리면 밑줄을 그어 주의표시를 한다.

보기) 밝힌 것 본 것 있는 것

〈응용연습〉 스스로 하기

「~ㄴ(은) 것이다」 + 위치(어미)변화

손풀기 : 기본문자 복습 ... ㄹ 받침, ㄱ 받침 3회 이상 써보자.

7. 상선약자(4)

누구	누구나가	누군가	누구보다	너무	너무나도	나머지	마지막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부득이	아직	어느	어느 때보다도	이미(의미)	적어도	자기	자신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자기자신을	아무	앞으로	거기	그것	이것	저것	무슨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실전연습 21〉 ... 한글문장을 속기문자로 옮겨보자.

황인성

황인성 국무총리 추도사

이 장엄한 국민제전에 추모의 정을 같이

하시느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유

족

여러분, 내외귀빈 여러분! 48주년

의 뜻깊은

광복절을 닦새 앞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광복절을 닦새 앞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선열 다섯 분의 유해를 멀리 중국

임시정부 선열 다섯 분의 유해를 멀리 중국
상해에서 모셔와

이 곳 국립묘지에 유택을 마련하는 영결의 식

이 곳 국립묘지에 유택을 마련하는 영결의 식
전에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조국 광복을 위해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조국 광복을 위해
평생을 바치신 박은식 선생님의

그 거룩하신 존명을 다시 불러봅니다. 신규

그 거룩하신 존명을 다시 불러봅니다. 신규
식 선생님, 노백린 선생님,

김인전 선생님, 그리고 안태국 선생님의 존명

김인전 선생님, 그리고 안태국 선생님의 존명
을 또한

온 국민과 함께 다시 불러봅니다. 선열들께서

온 국민과 함께 다시 불러봅니다. 선열들께서
는 우리의 국권이

일제에 의해 침탈당하자 해외로 망명하여 대

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하시면서 항일 독립운동에 진취하시다가

바로 그 곳

중국 상해에서 순국하셨습니다. 낯설은 남의

땅 상해의 초라한 누옥에서

망국의 한을 달래며 순국하신 지 70여년, 선

열들의 피어린 항쟁으로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국권이 회복된 지 반세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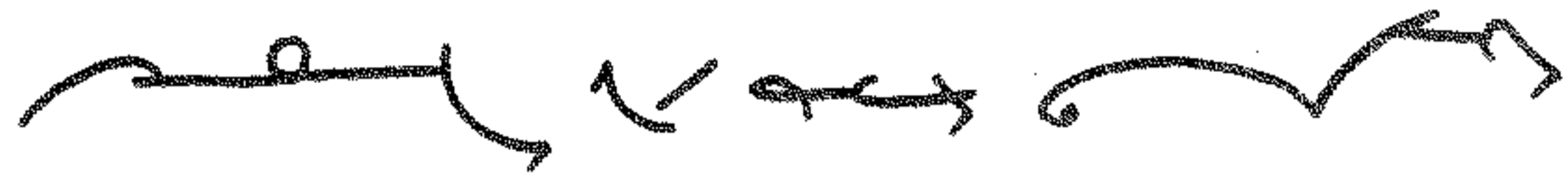
다 된

오늘에야 우리 문민정부가 추진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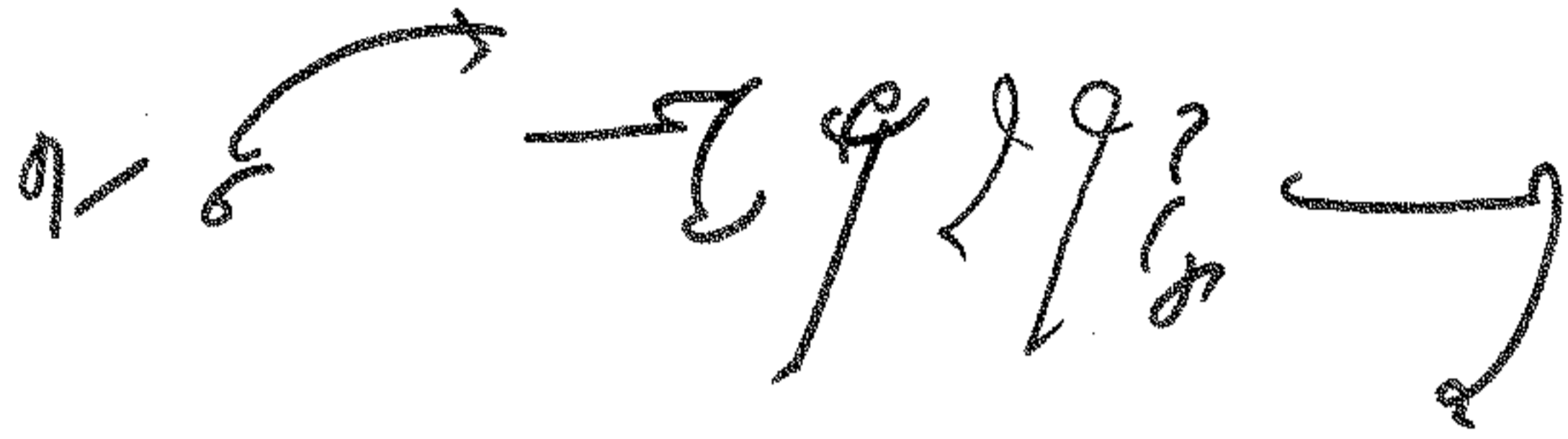
선열봉안사업이 결실을 보아 고국 땅에 돌아

오시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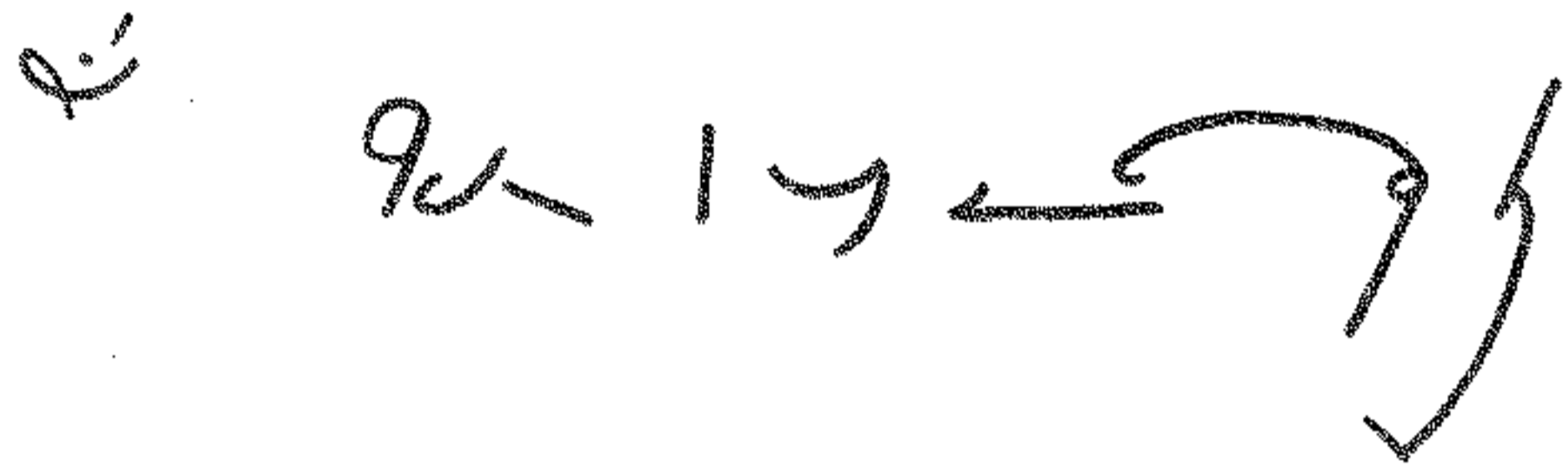
오시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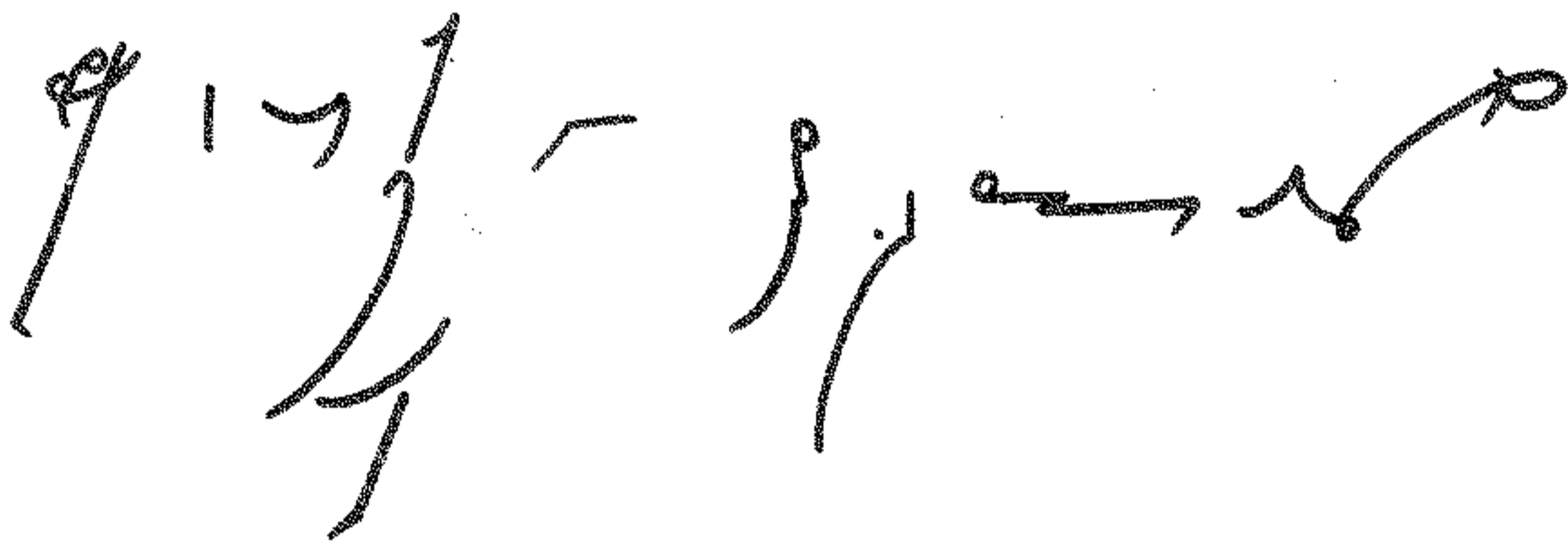
조국광복의 벽찬 감격과 함께, 민주개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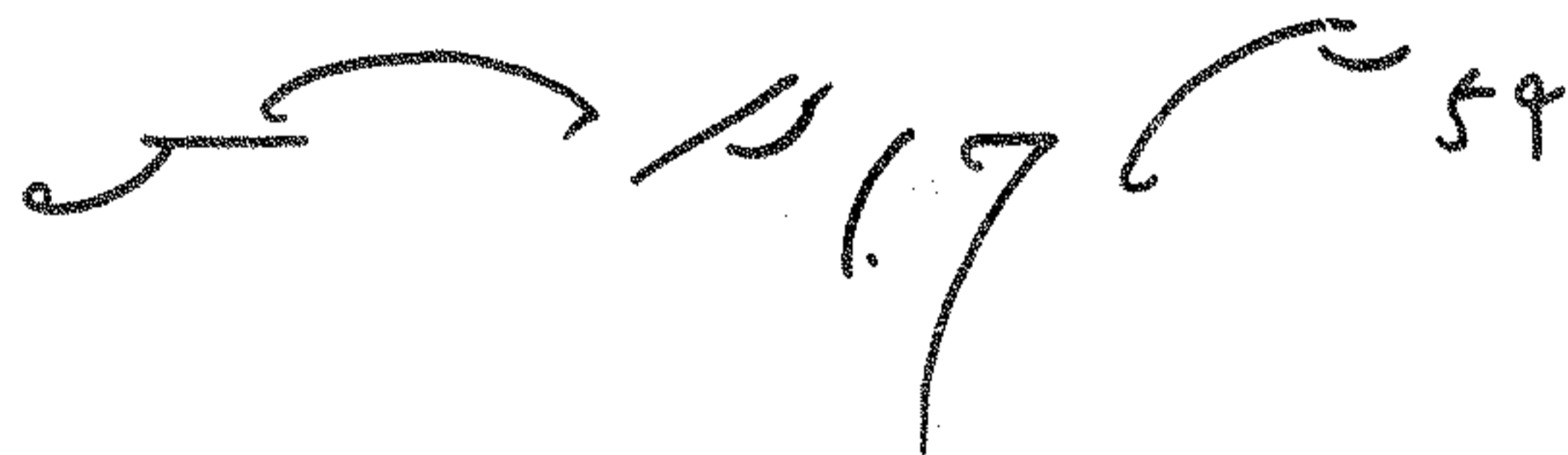
힘찬 전진과 함께 고개숙여 선열들의 높은 뜻을 새삼스럽게 기리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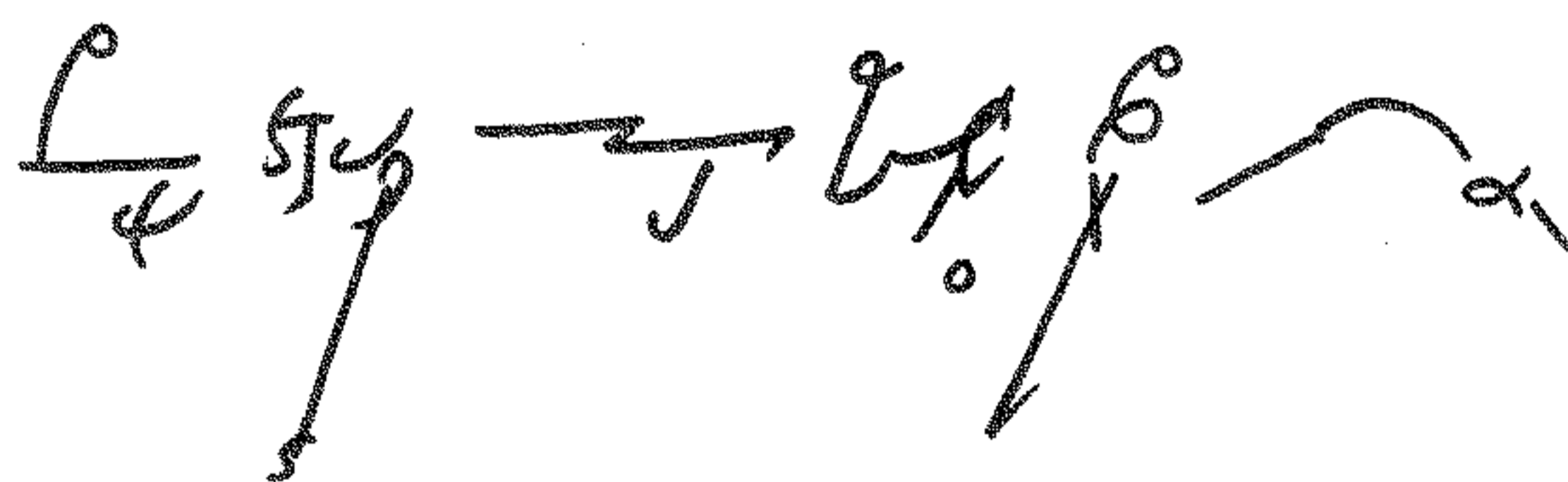
너무나도 당연한 이 나라 국민된 도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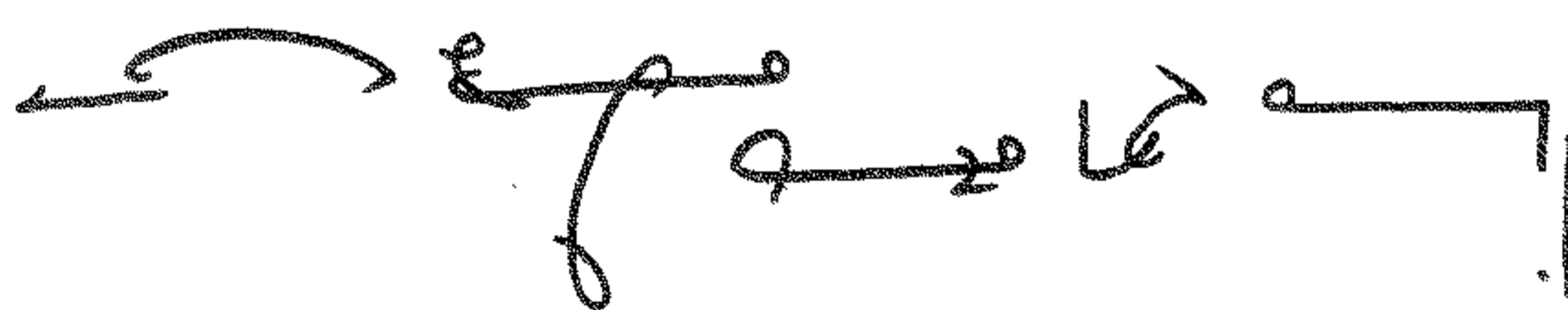
선열들은 이 나라 독립운동의 최고 원로이시며 건국의 아버지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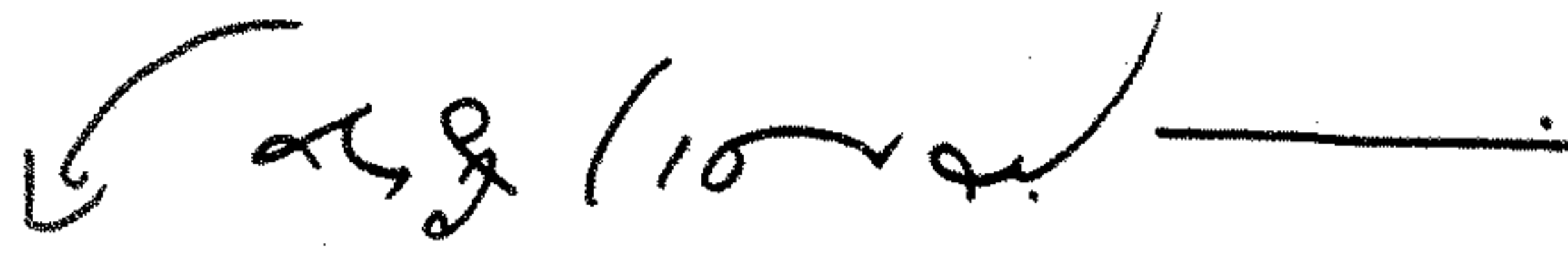
온 국민의 추앙을 받고 계십니다. 지난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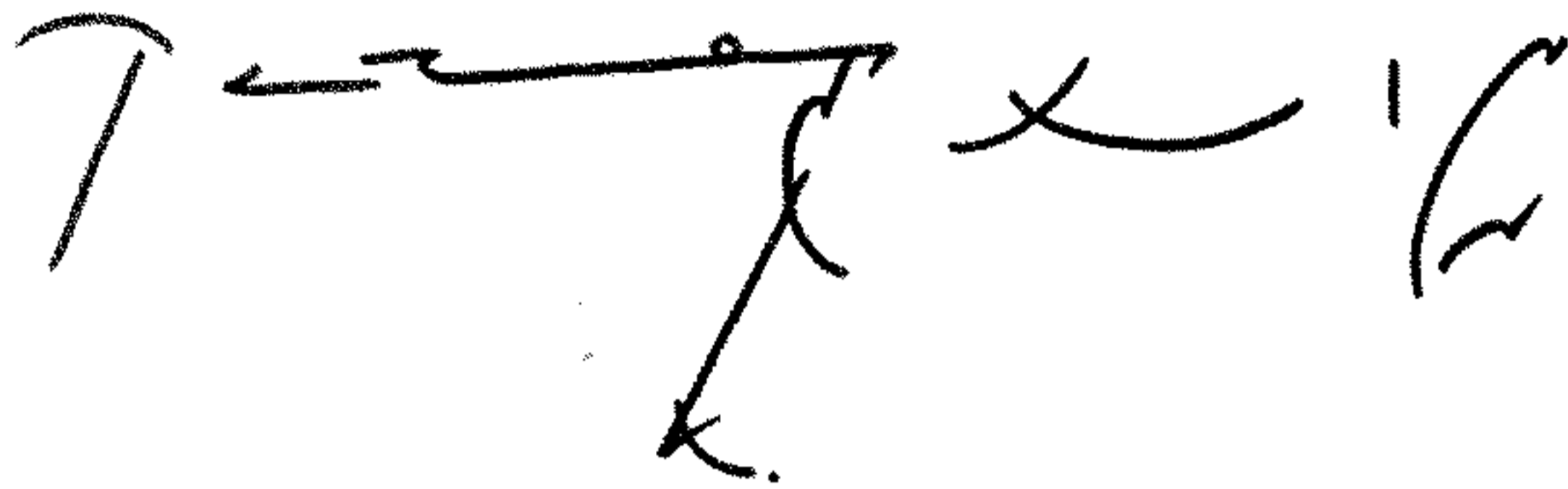
순국선열 5위의 영령들께서 고국의 땅에 돌아오셨을 때부터 선생님들을 추모하기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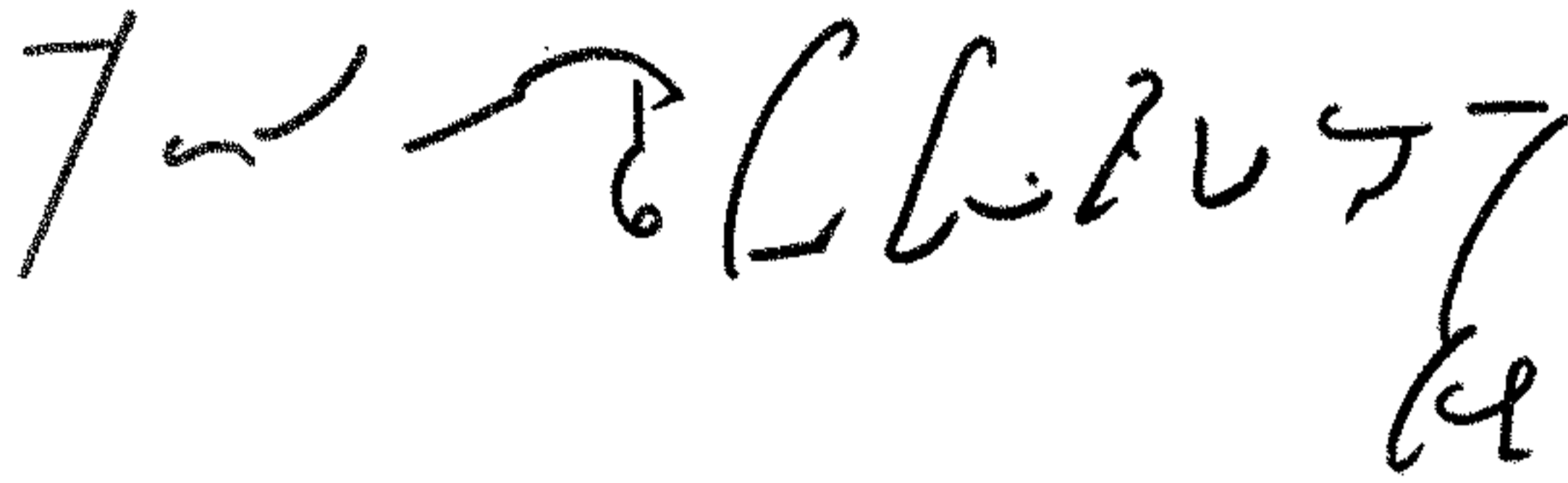
국민의 발길이 실로 끊어 없이 이어졌습니다. 끊이지 않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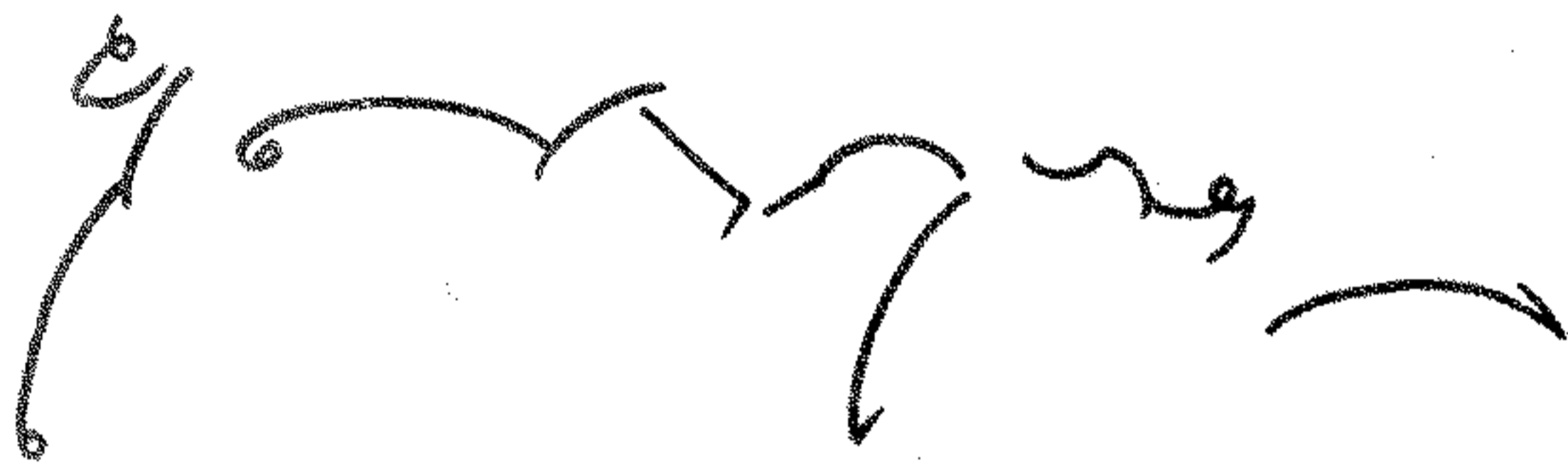
이어진 참배의 행렬이 수십만을 넘었으며 그
리고



모든 국가기관의 대표들을 비롯하여 오늘 이
식전을



가득 메운 추모의 인파는 시간을 뛰어넘고
세대를 이어 겨레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는 민족혼의 참모습을 나타내는 것
이라 믿습니다.

* 자신이 쓴 속기문자를 읽어보지 <실전연습은 쓰고 읽기를 위주로 한다>.

손풀기 : 기본문자 복습 ...ㄴ받침, ㅇ받침 3회 이상 써보자.

♣ 통 사

8. 시제(어미)변화 (4)

8-1. **~던 것이다** : 다줄 2~4mm 막음

보던 것이다 = 보던

보던 것입니다

본다던 것이다 = 본다던

본다던 것입니다

8-2. **~(으)라는** : “라” 2~4mm 이어쓰

보라는

보라는 것이다

8-3. **~다라는** : 띄어서 “라” 2~4mm 씬

본다라는

 *사실이라

본다라는 것이다

 *사실이란

참고 : 인용구에서 「~다”라고, 「~다”라며」 등도 옆에 띄어 쓴다.

예) “.....생각된다”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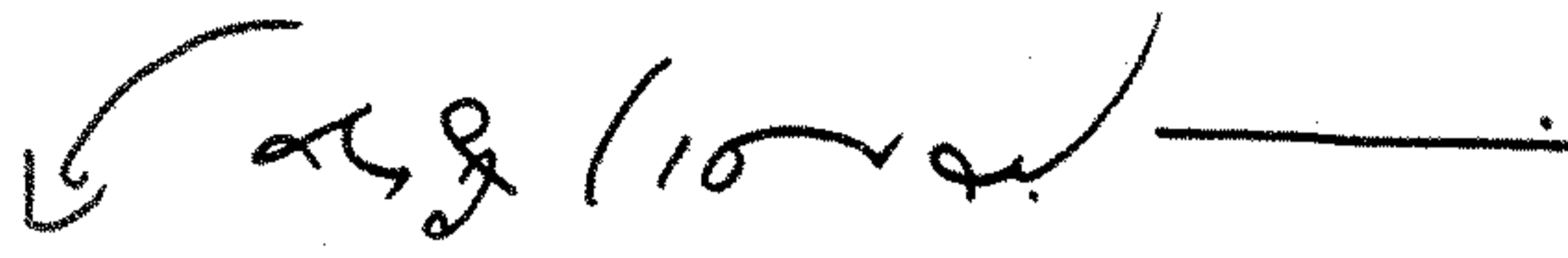
“.....활용될 것이다”라며

<응용연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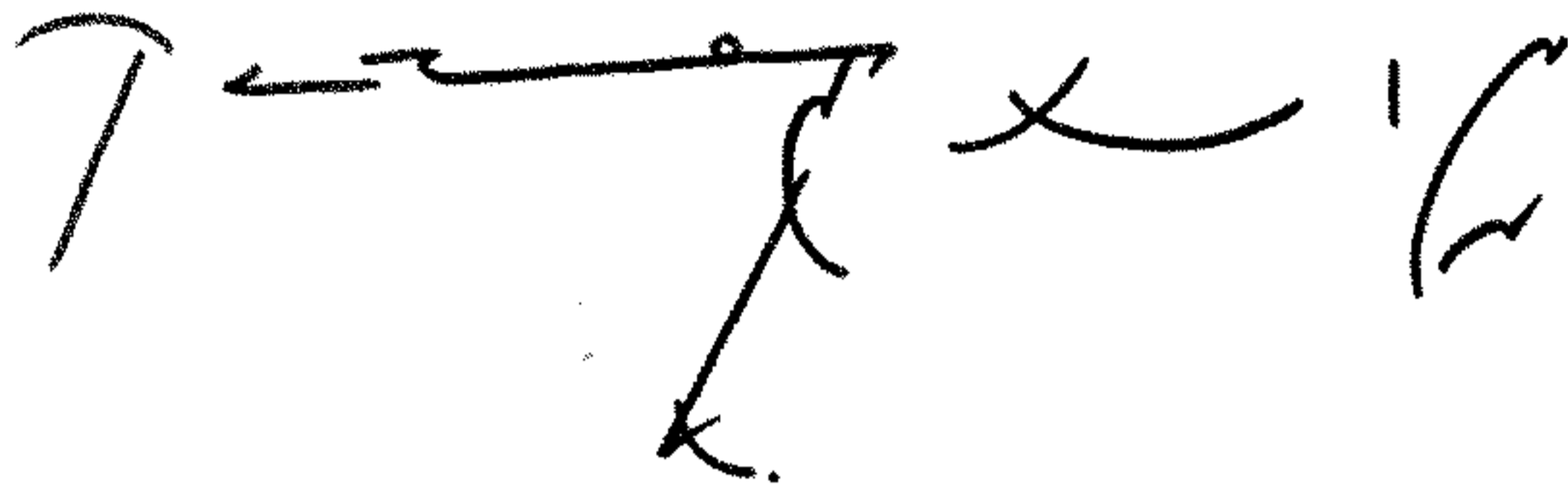
간다 가던 것이다 가던 일으킨다 일으키던 것이다 일으키던
— —/ —/ — —/ —/

나간다 나가던 것이다 나가던 지킨다 지키던 것이다 지키던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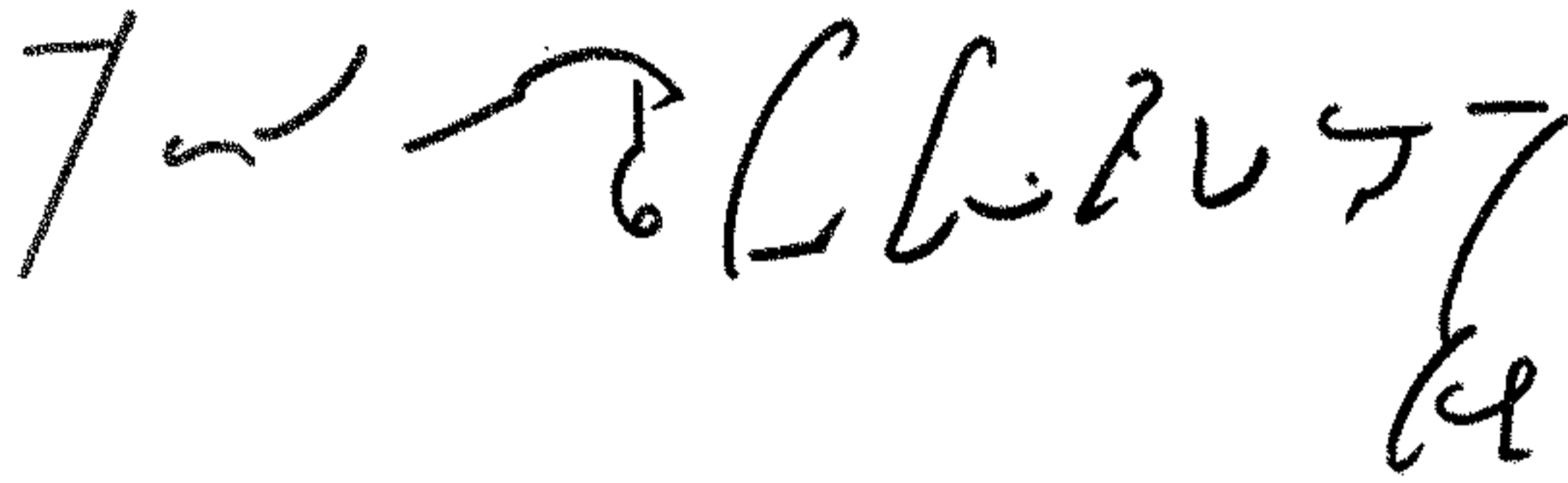
된다 되던 것이다 되던 모른다 모르던 것이다 모르던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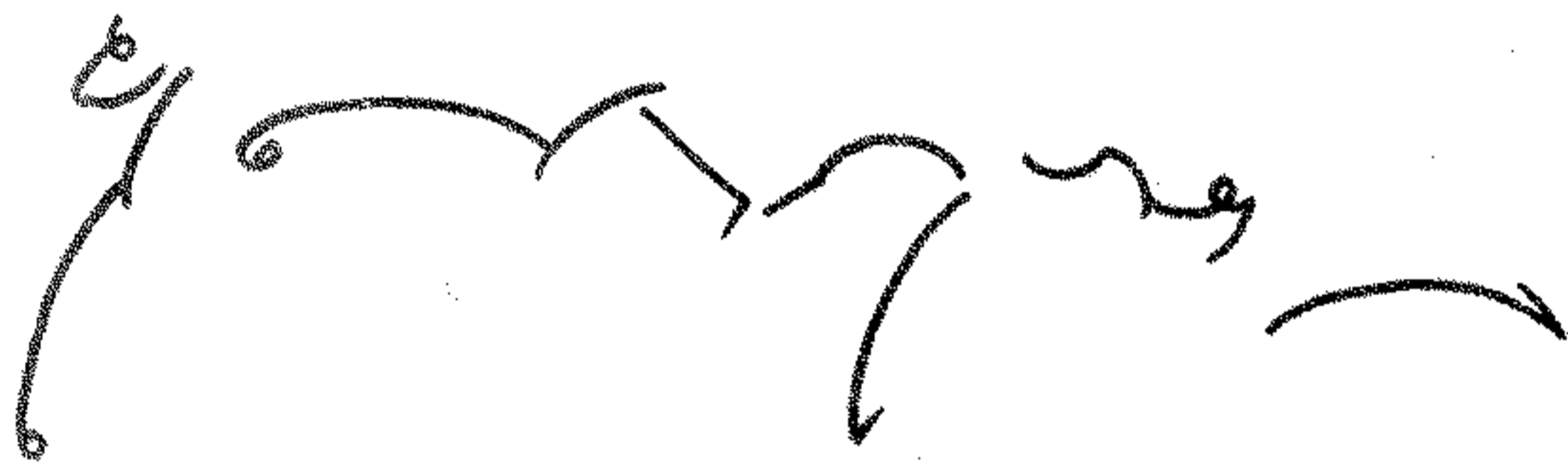
이어진 참배의 행렬이 수십만을 넘었으며 그
리고



모든 국가기관의 대표들을 비롯하여 오늘 이
식전을



가득 메운 추모의 인파는 시간을 뛰어넘고
세대를 이어 겨레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는 민족혼의 참모습을 나타내는 것
이라 믿습니다.

* 자신이 쓴 속기문자를 읽어보지 <실전연습은 쓰고 읽기를 위주로 한다>.

<실전연습 22> ... 한글문장을 속기문자로 옮겨보자.

일제에 의해 국권을 침탈당했을 때 선열들

께서 목숨을 걸고 피나는

독립운동을 전개하지 않으셨던들 이 나라는
독립을 되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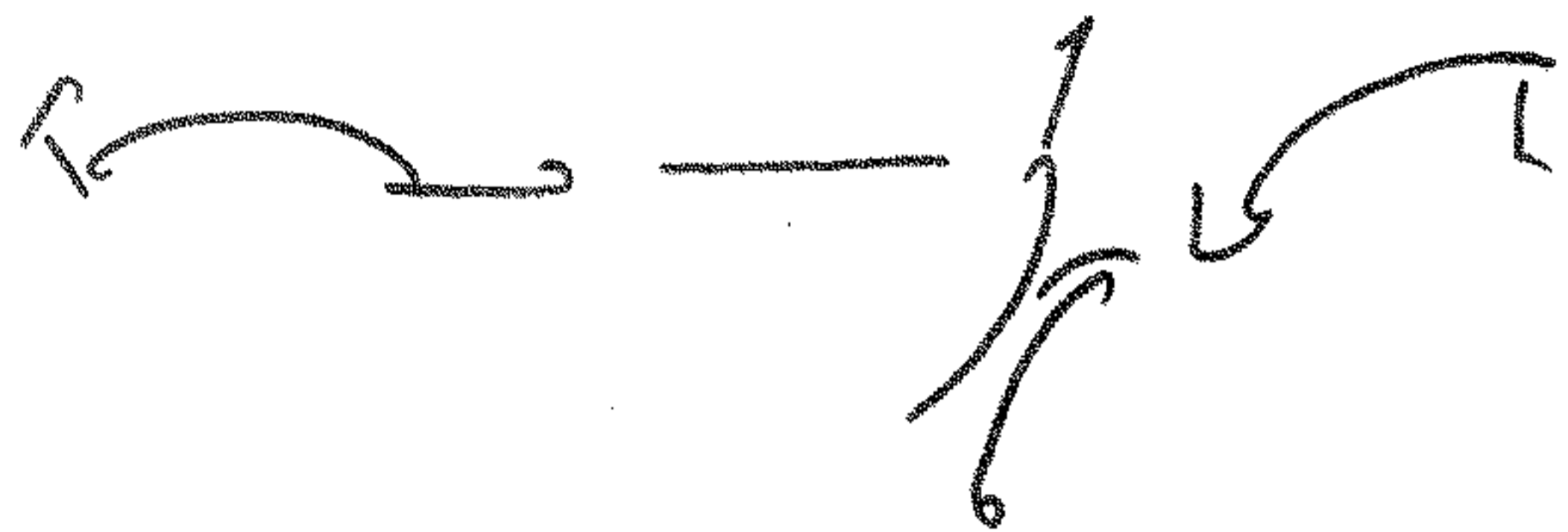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주의의 나라,

세계의 선진국과 어깨를 같이 하는 나라로
발전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선열들께서 1919년 4월 13일 상해에서 세
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권회복을 위한 우리 민족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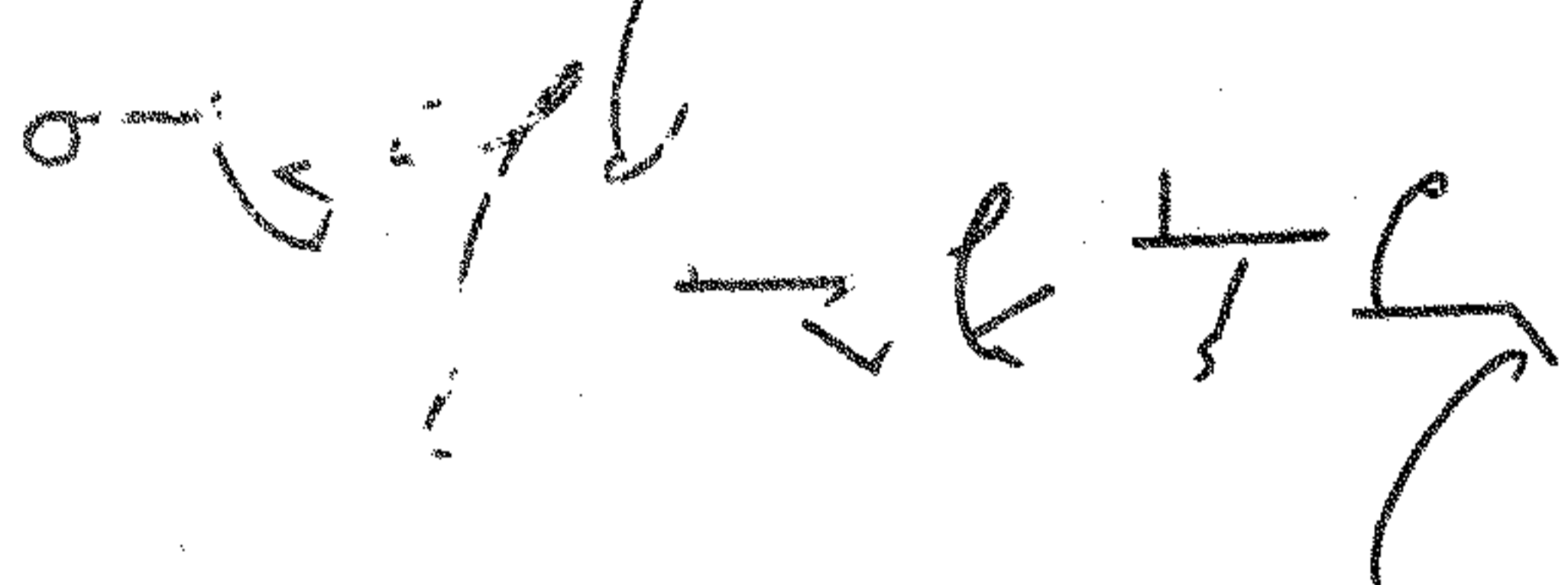
유일한 합법정부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의



대한민국에 그 독립정신이 이어지고 있음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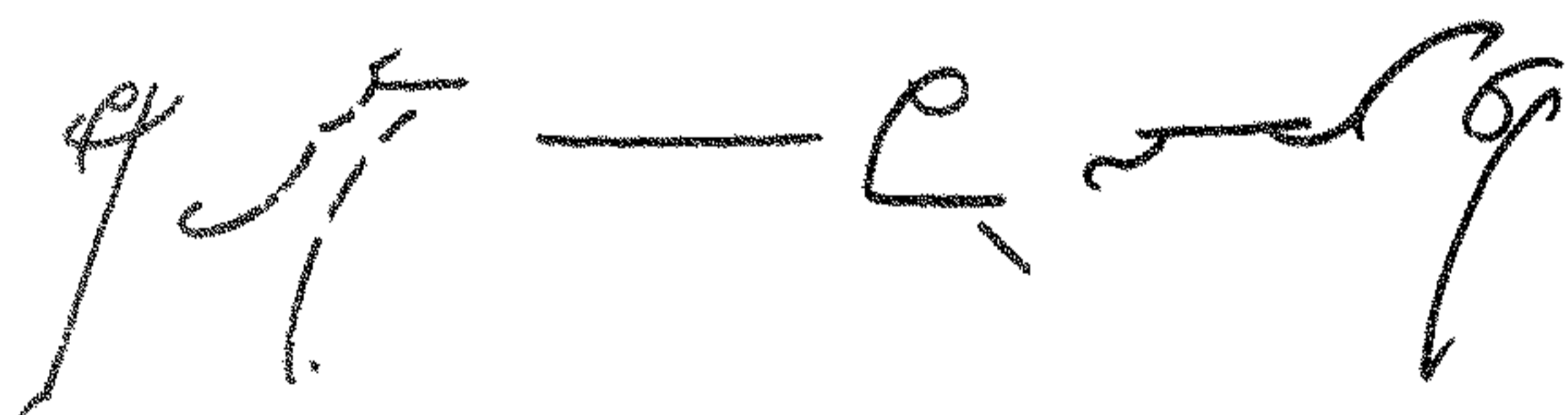
우리 헌법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영령들이시여! 오로지 조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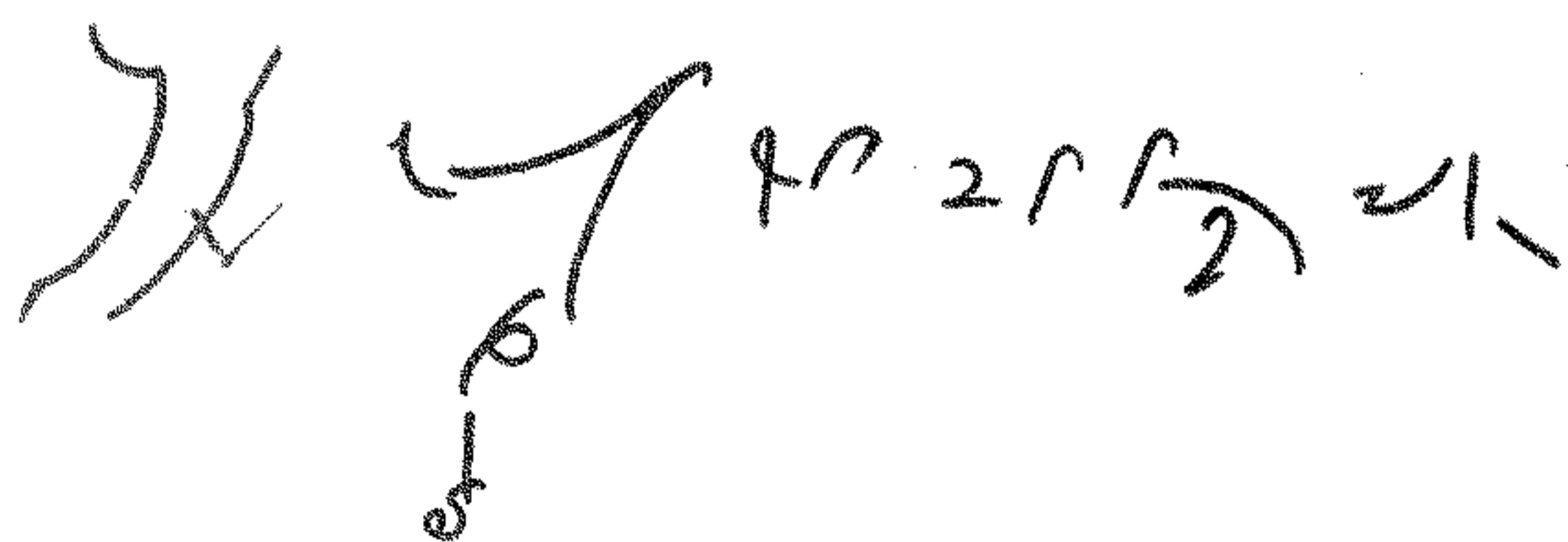
광복을 위해 싸우시다가 망국의 한을 품은 채 이국 땅에서 순국하신



다섯 분 선열들의 발자취를 이 자리에서 되새겨 보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선열들의 유업을 계승하고 그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바르게 따르기 위한 것입니다. 박은식 선생님께서는 임정의 2대 대통령을 역임한



정치 지도자이셨을 뿐만 아니라 일찍이

당신께서 창간하신 황성신문에 저 유명한 사설 장지연 선생의

「시일야 방성대곡」을 게재하는 등 신문과 잡지를 통해 잠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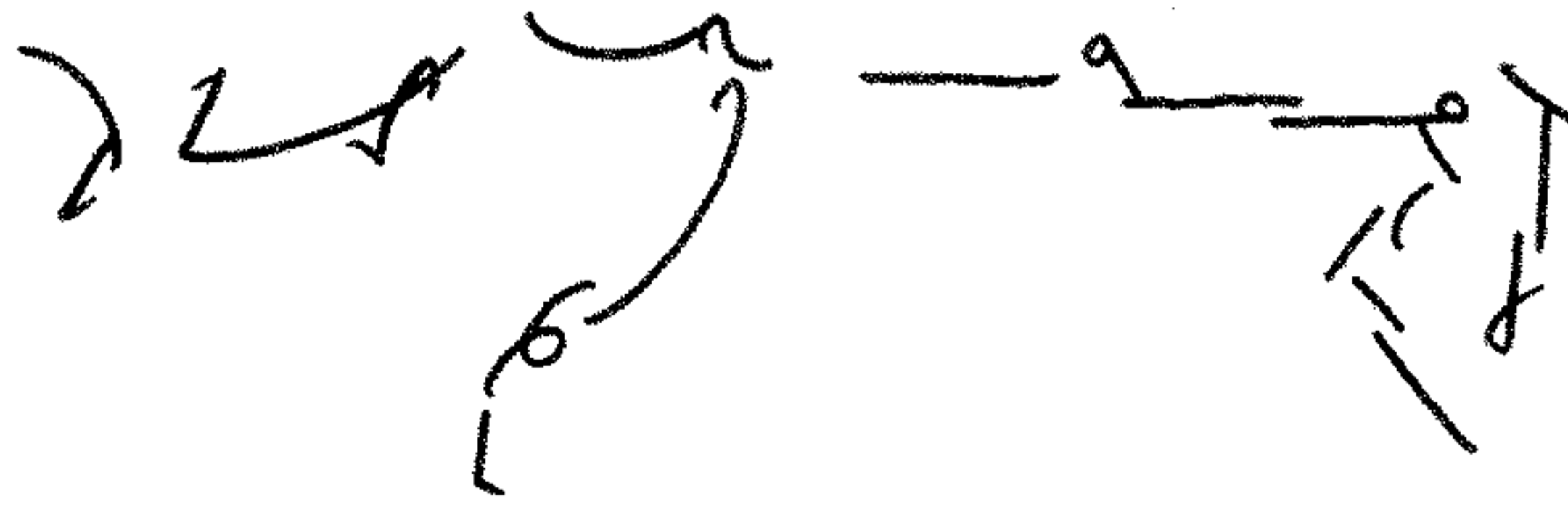
민족혼을 불당기기 위해 진력하셨던 언론인이자 민족

사가이셨습니다. 신규식 선생님께서는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자결하려 하시다가 왼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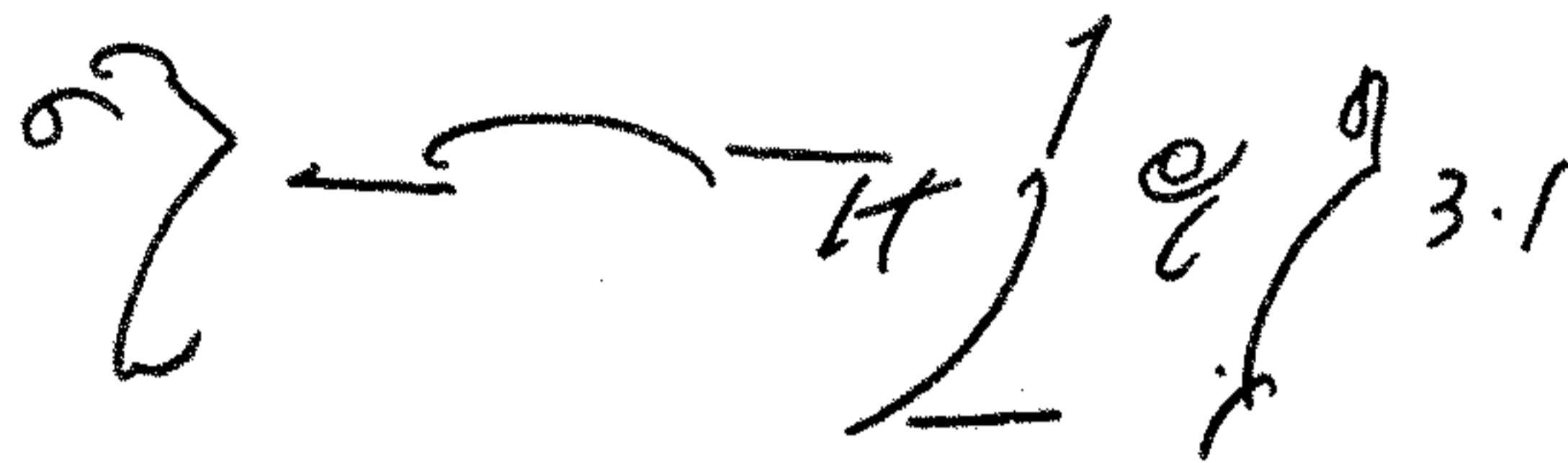
눈을 실명하시고 중국으로 망명, 손문 선생의 신해혁명에 참여하여

임정이 중국혁명세력과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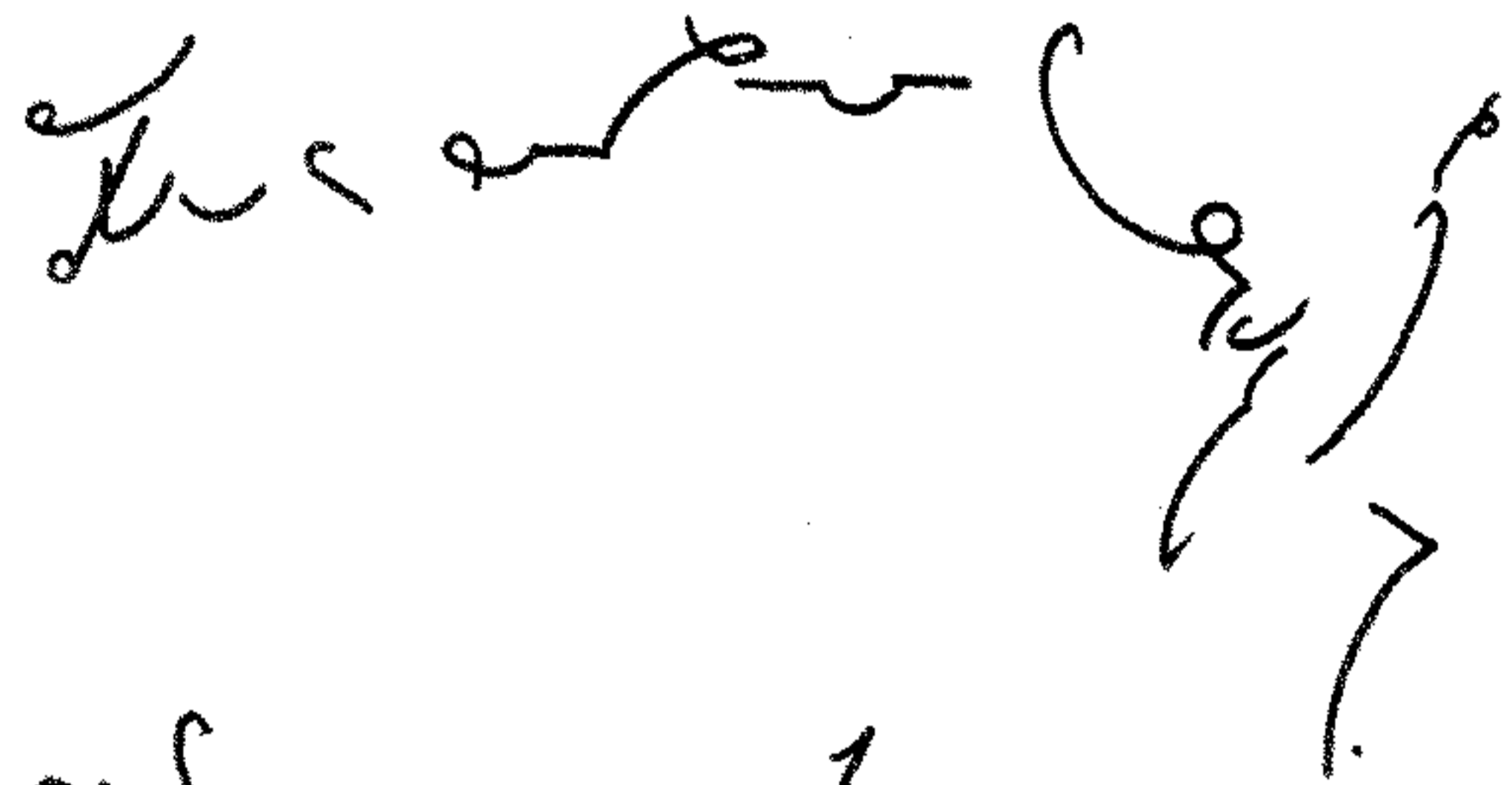
하셨으며 비밀결사체인 동계사를 조직하여 중국 내에 독립운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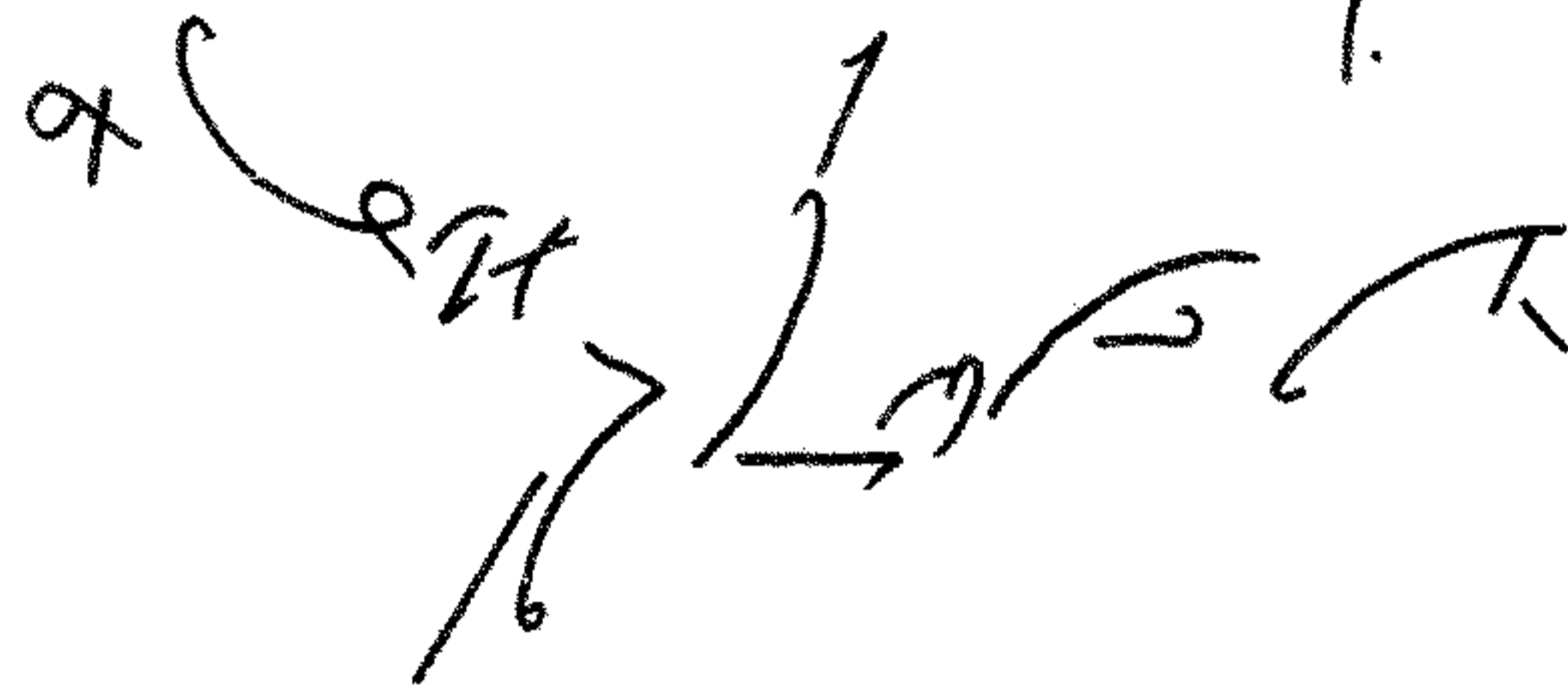
토대를 닦으셨습니다. 노백린 선생님은 구 한국군이 해산당한 후 하와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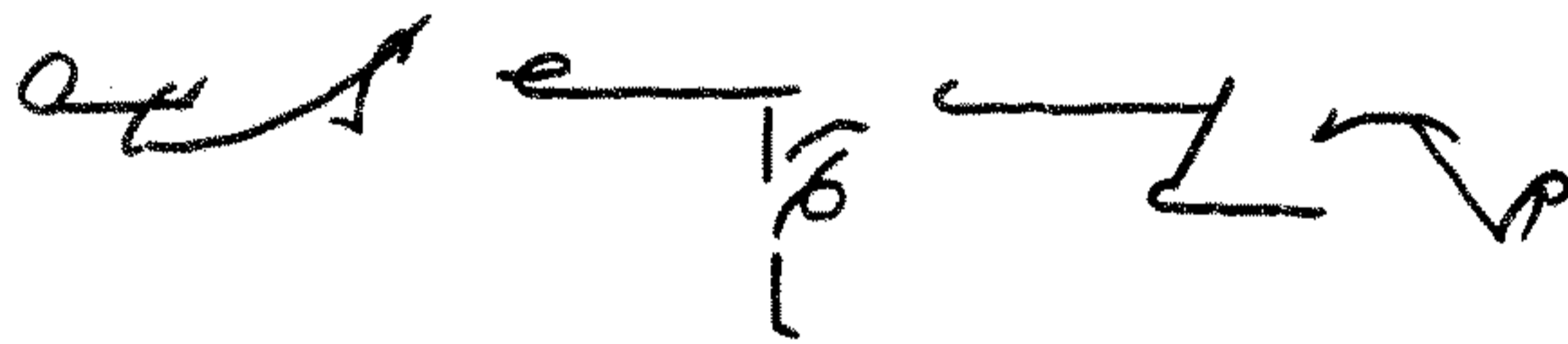
망명하시어 국민군단을 창설, 독립군 양성에 힘쓰셨으며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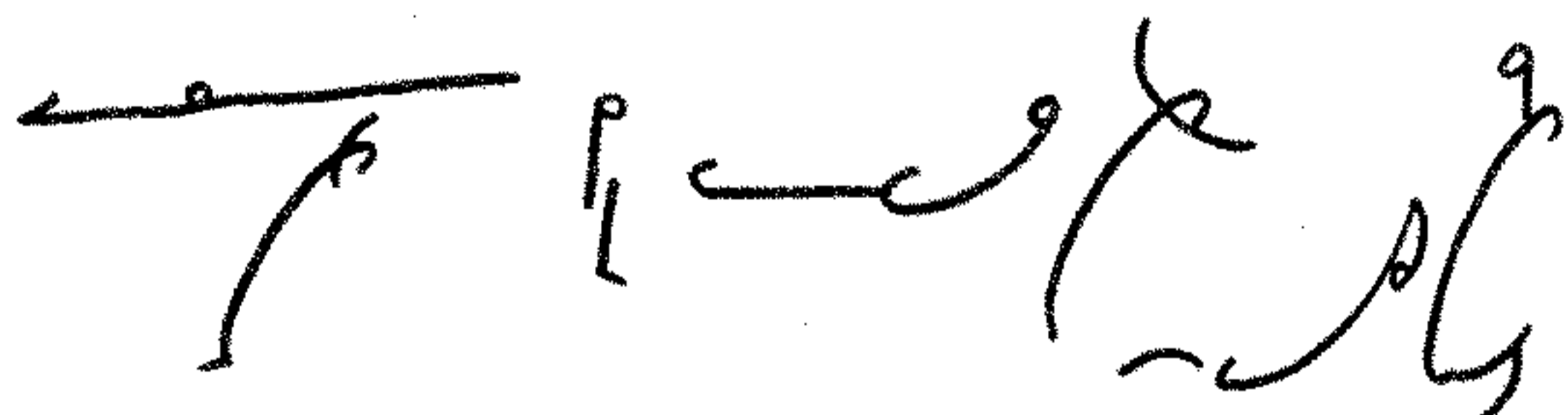
운동이 일어난 해 남가주로 건너가 비행사 양성소를 설립하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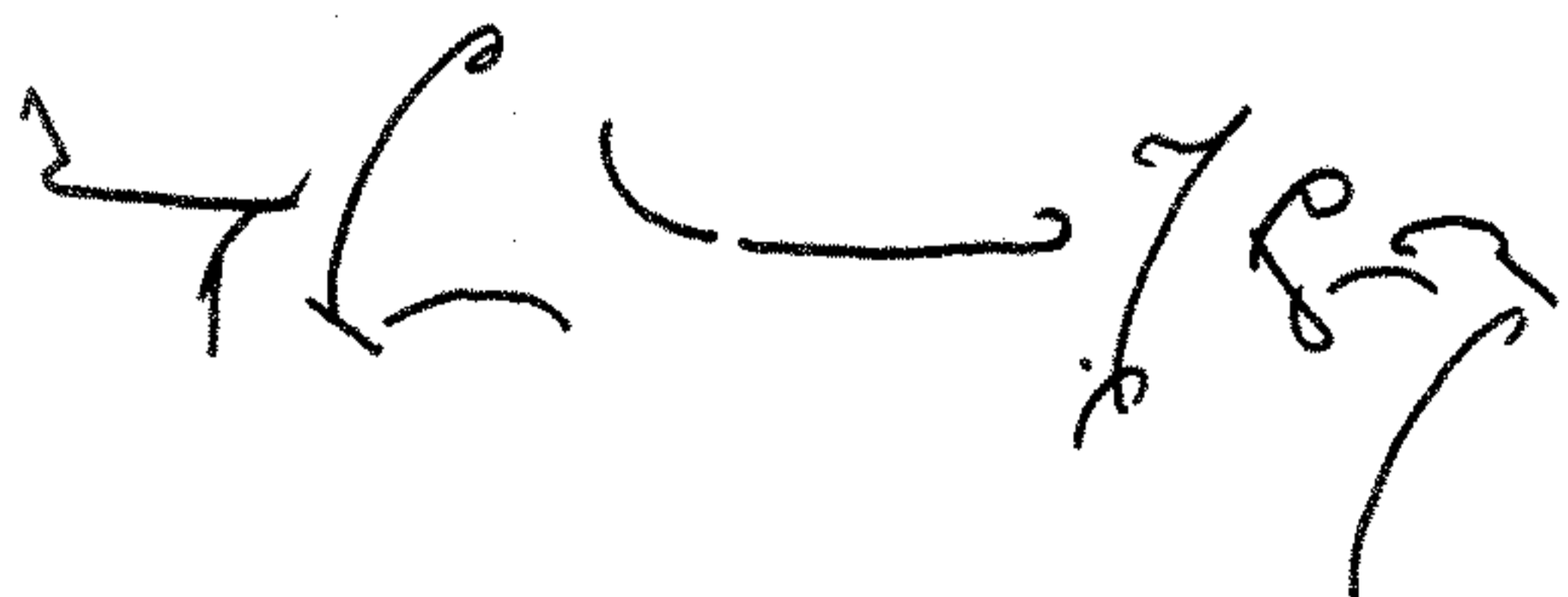
항일 비행전단을 창설하시는 등 독립군의 전력증강에 지대한



공을 쌓으셨습니다. 김인전 선생님은 기독교 목회자로서



국권상실의 원인은 교육이 부실했기 때문이라는 인식 아래



학교를 세워 신학문 보급에 애쓰셨으며 상해로 망명하신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with stroke order numbers 1, 2, 3, 4, 5.

다음에도 교회 계통을 통해 독립운동자금을 마련하시는데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with stroke order numbers 1, 2, 3, 4, 5, 6, 7, 8, 9, 10.

커다란 공적을 남기셨습니다. 또한 안태국 선생님께서 일제가 조작한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with stroke order numbers 1, 2, 3, 4, 5, 6, 7, 8, 9, 10.

테라우치 총독 살해사건 관련 혐의로 6년 동안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with stroke order number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옥고를 치르셨으며 3.1운동 후 만주로 망명하시어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with stroke order number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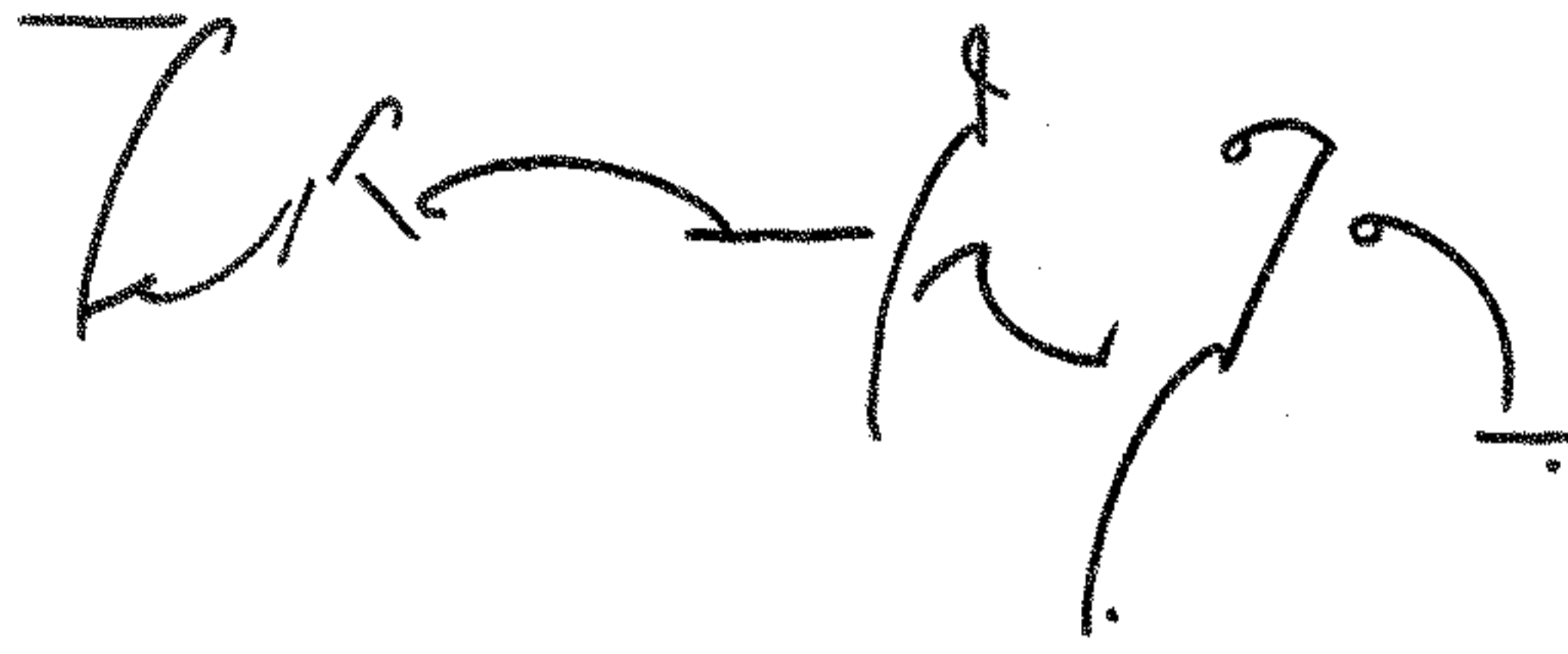
800명의 결사대를 조직, 무장 투쟁에 큰 공을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with stroke order number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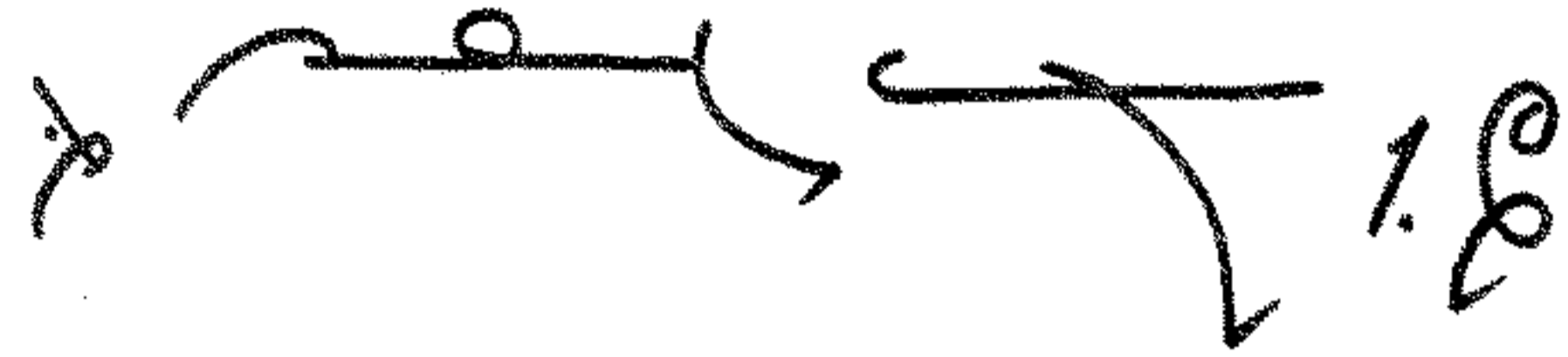
세우셨으며 상해에서는 여러 독립운동단체를 통합, 임정과 연계하여 효과적인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with stroke order number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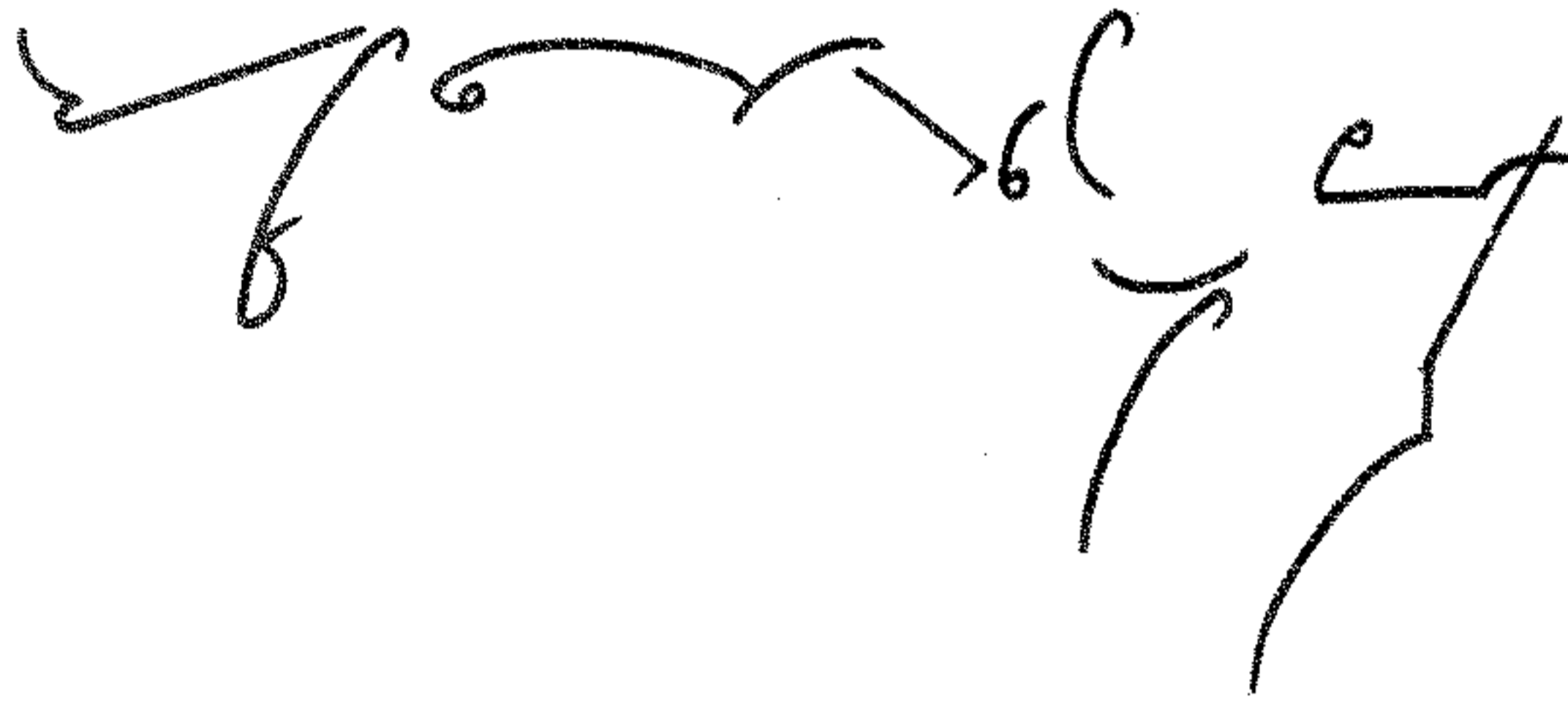
독립운동을 지원토록 하셨습니다. 이렇듯 다섯 분 선열들께서는 독립운동의



구심체였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드시고
튼튼하게



하셨습니다 조국광복의 기틀을 닦는 데 평생을



바치심으로써 민족혼의 표상이 되신 선구자
들이십니다.

* 자신이 쓴 속기문자를 읽어보자 <실전연습은 쓰고 읽기를 위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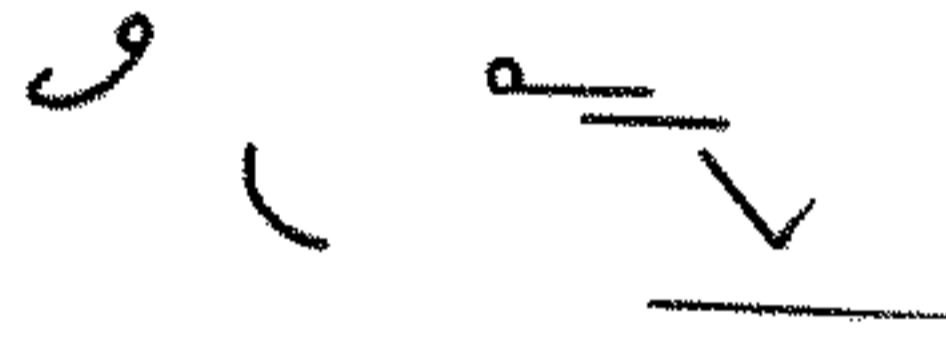
손풀기: 기본문자 복습 ...ㄹ받침, ㅅ받침 3회 이상 써보자.

8-4. “~것” 생략법: ~ㄴ 것 + 조사/ ~ㄹ 것 + 조사

	건강한 것을		창조적인 것도
	이상한 것과		모든 것에
	*성질의 것		*누나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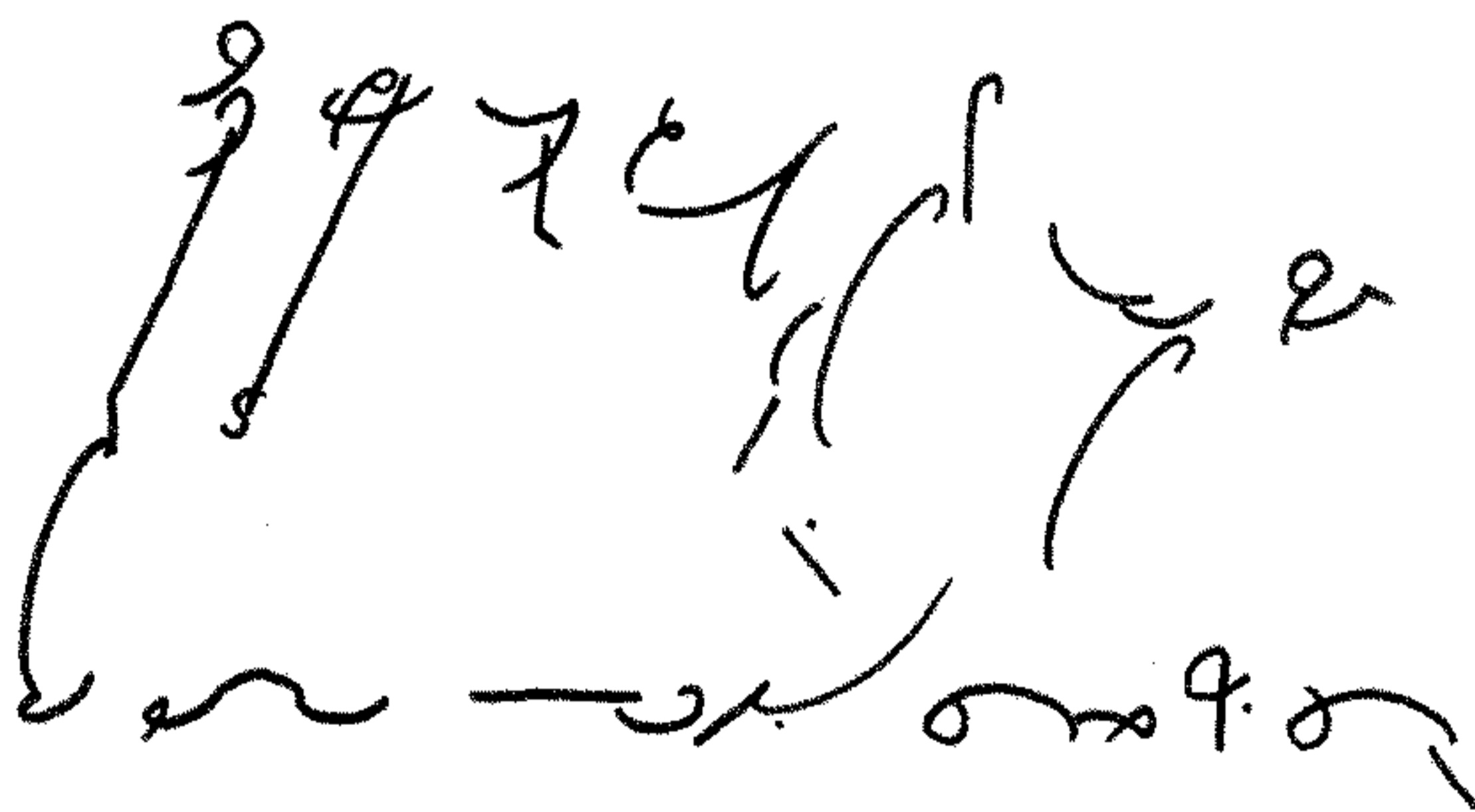
참고: 도치문에서는 밑줄을 그어 주의를 표시한다.

보기) 우리는 바란다, 건강한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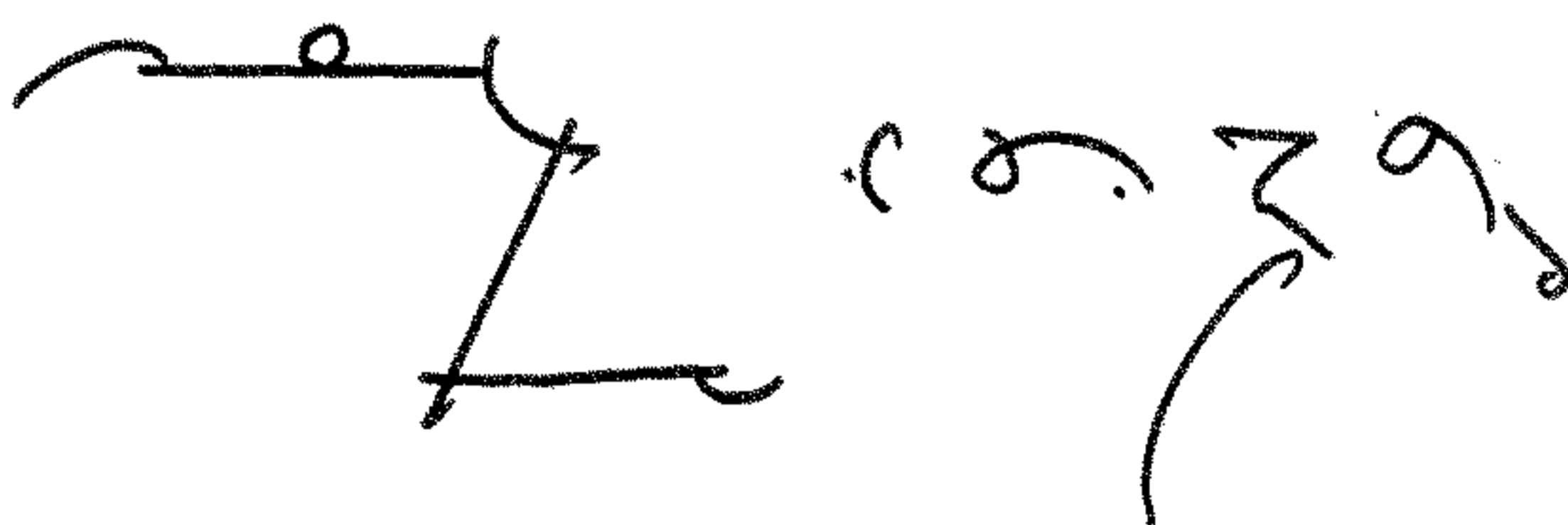
밑줄의 용도: 밑줄을 주의부로 사용한다. 일상적이 아닌 것, 독특한 경우에 밑줄을 그어 주의표시를 하여 번문에 차질이 없도록 활용한다.

<실전연습 23> ... 한글문장을 속기문자로 옮겨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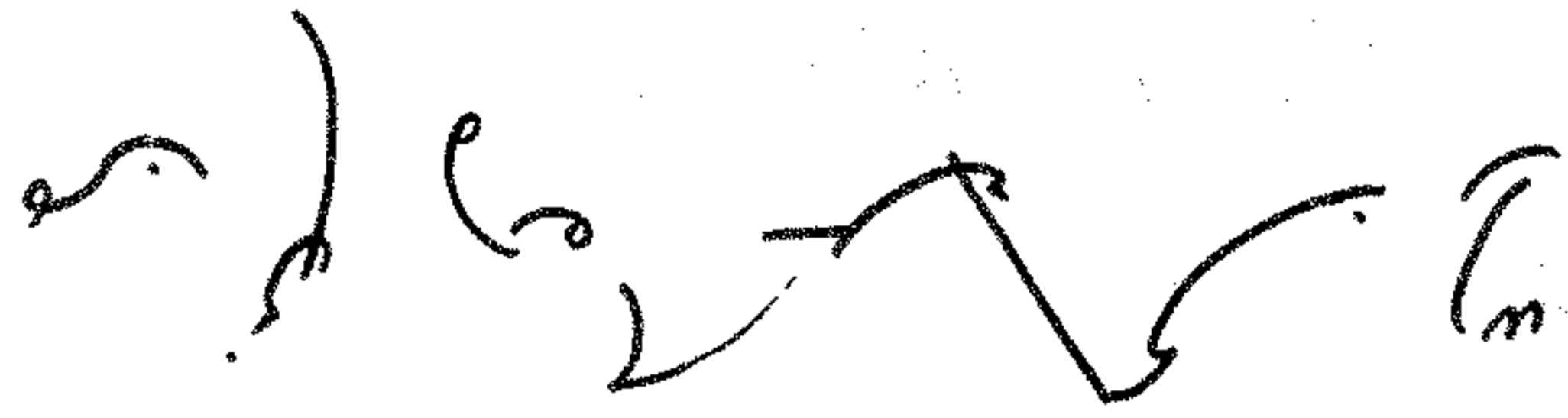


영령들이시여! 선열들께서 나라 잃은 설움
속에 와신상담하며 보내신 생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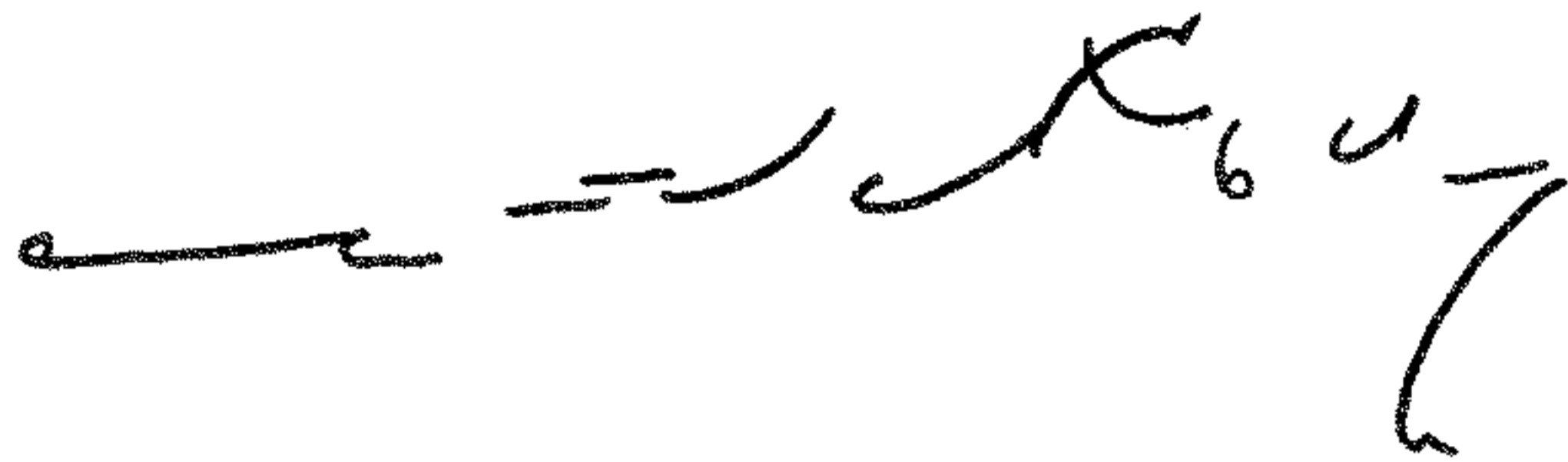
얼마나 고난에 찬 것이었으며 몽매에도 잊지
못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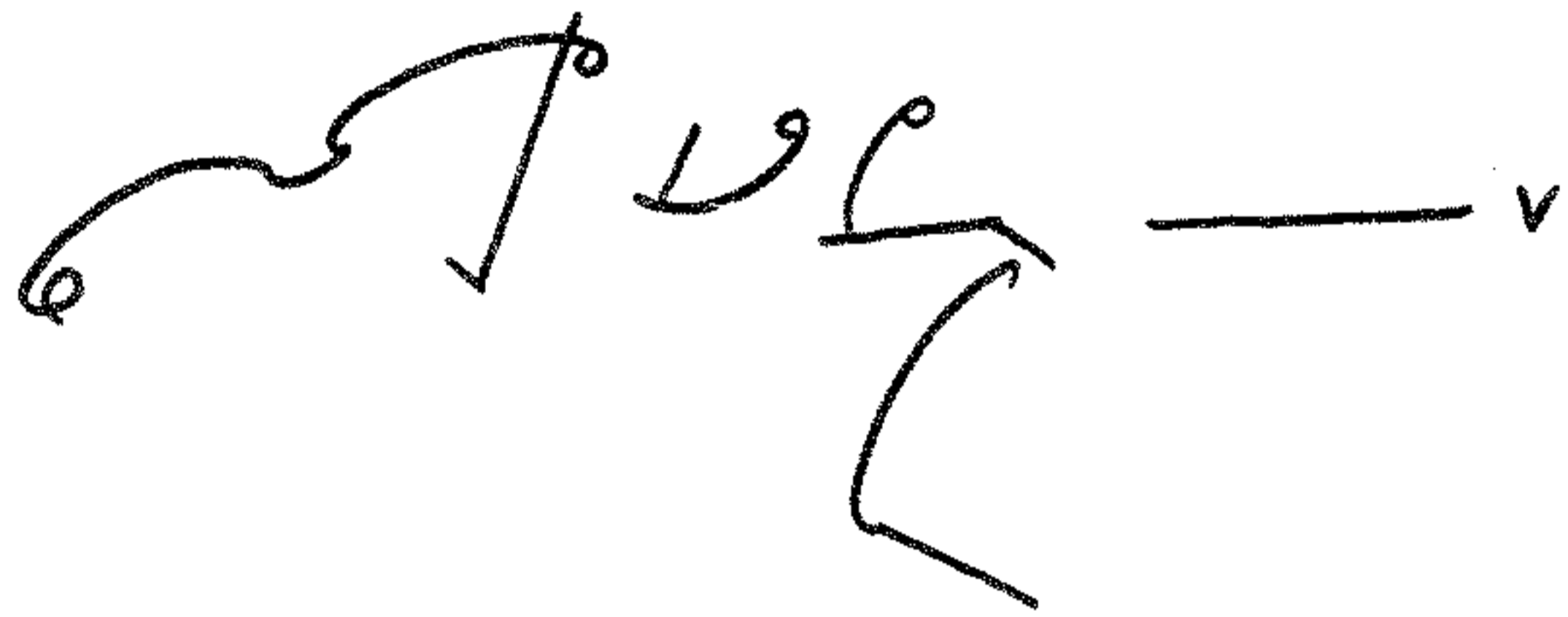
조국광복의 뜻을 끝내 펴지 못하고 객사하신
통한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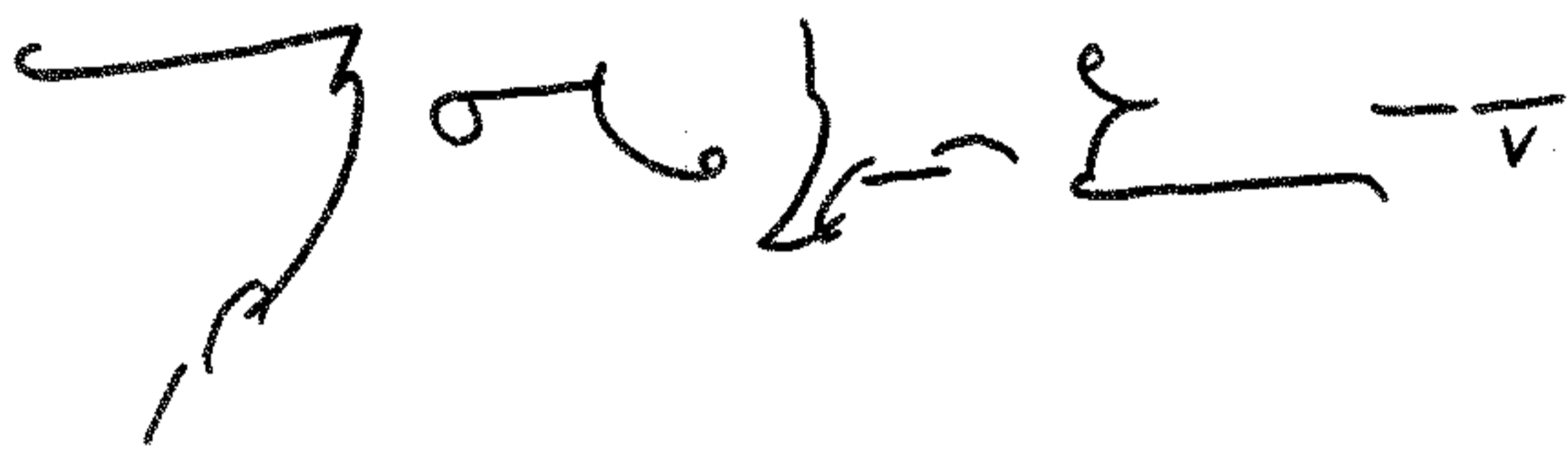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은 흩어지고 심지어 자손마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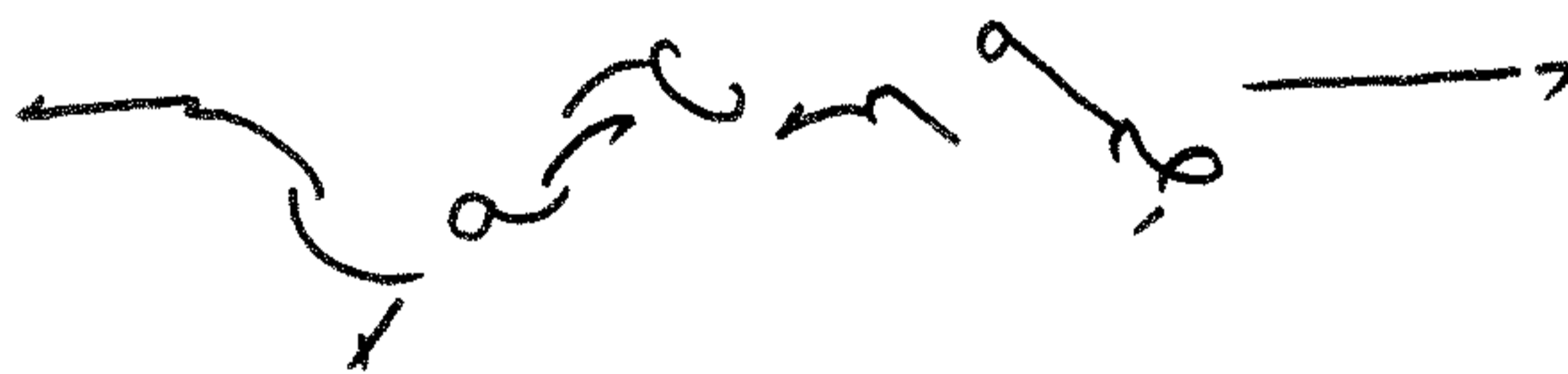
끊겨 가까운 유족을 볼 수 없는 우리의 가슴
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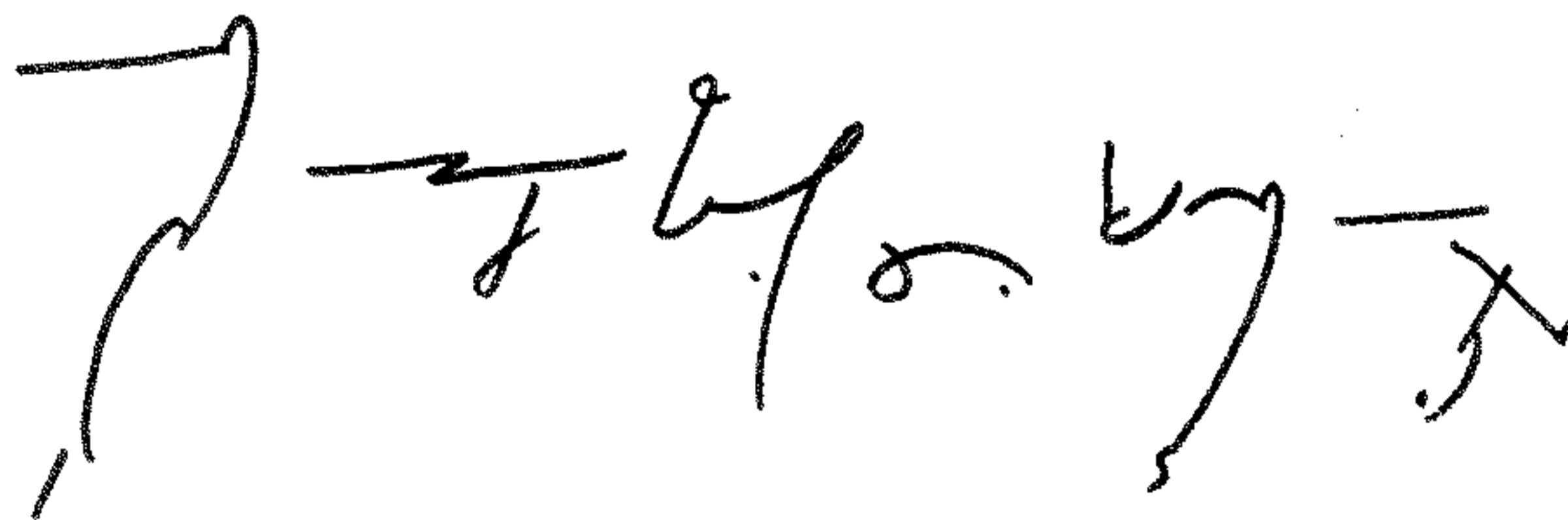
찢어지는 듯합니다. 더욱이 순국하신 후 그토
록



기다리셨던 광복이 이루어졌건만 반세기가
가깝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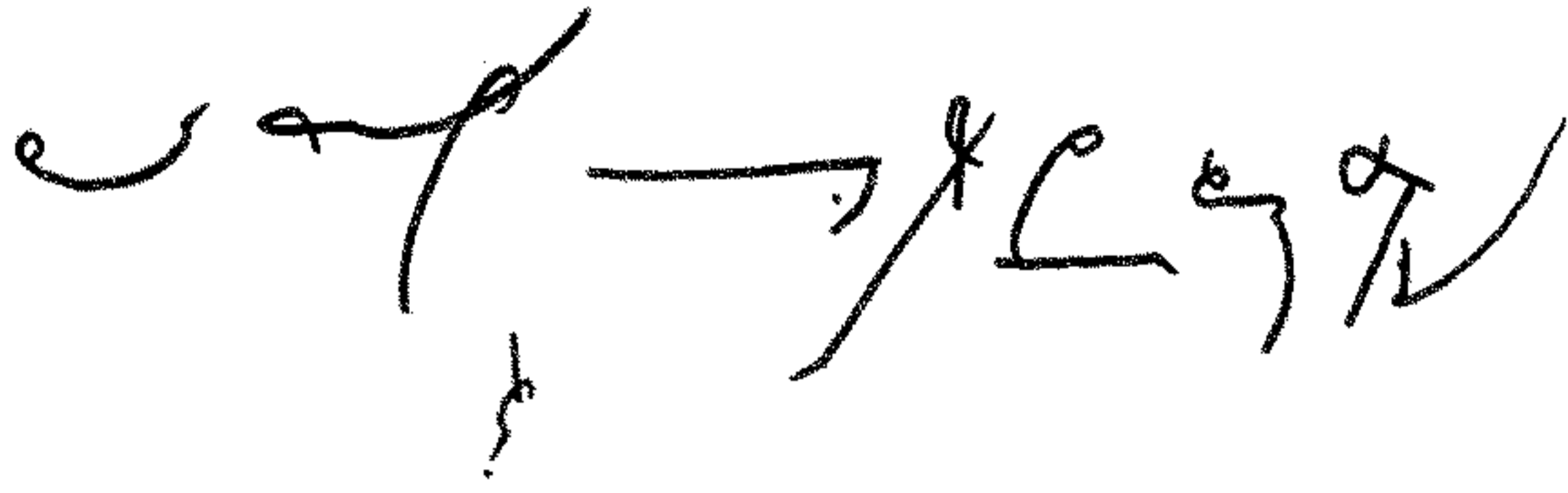
국토분단과 냉전의 장벽에 막혀 혼백으로도
그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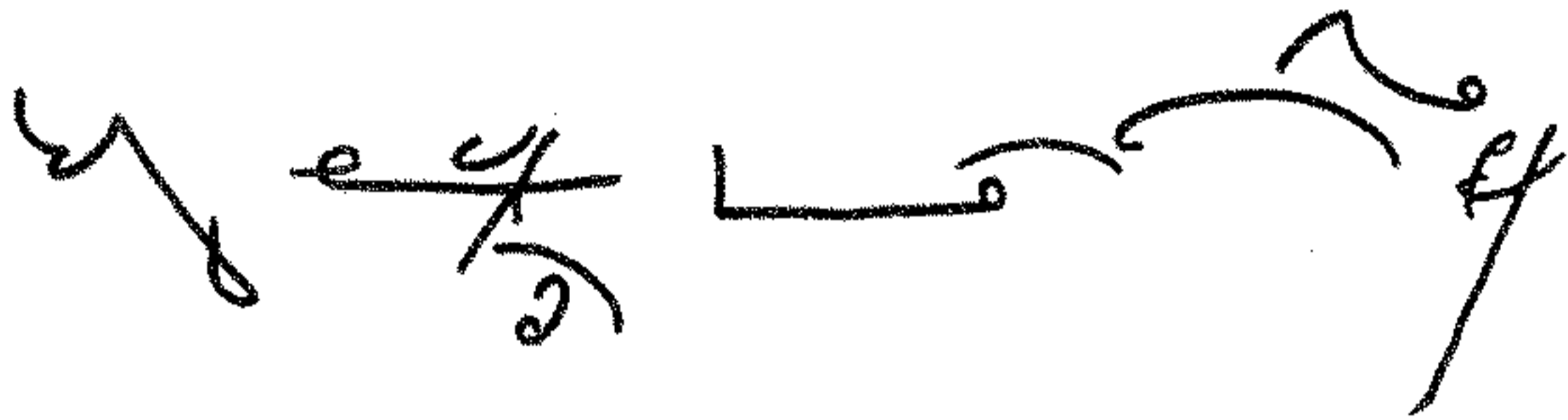
그리시던 고국 땅으로 돌아오시지 못하고 이
역만리에서 고향을 달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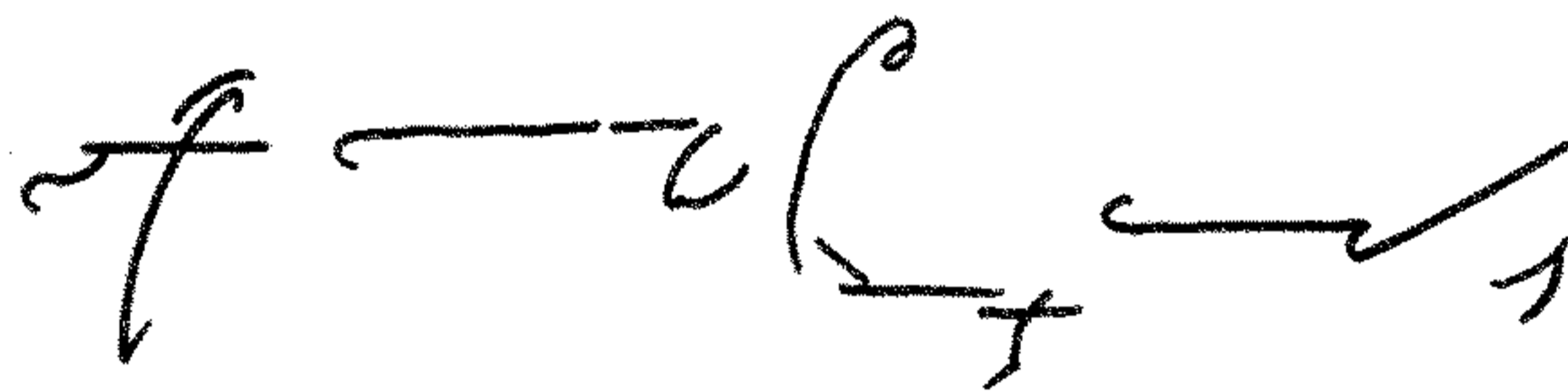
계셨으니 그 긴 세월 동안 어찌 차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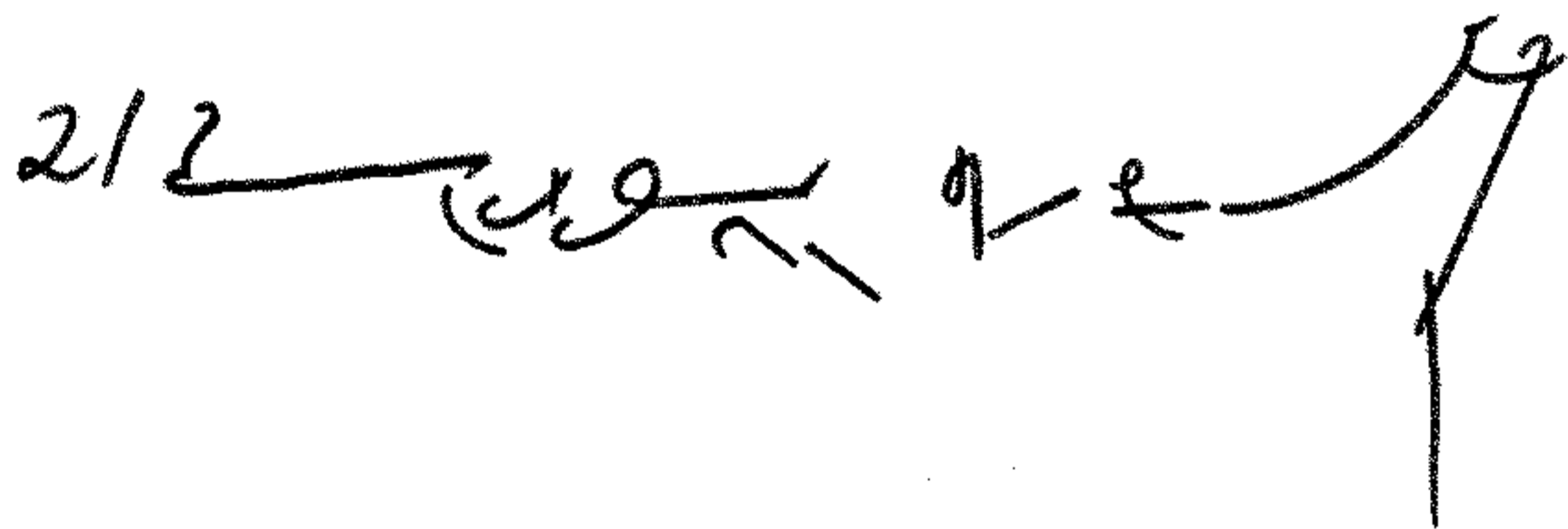
눈을 감으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그러나 님들의 순국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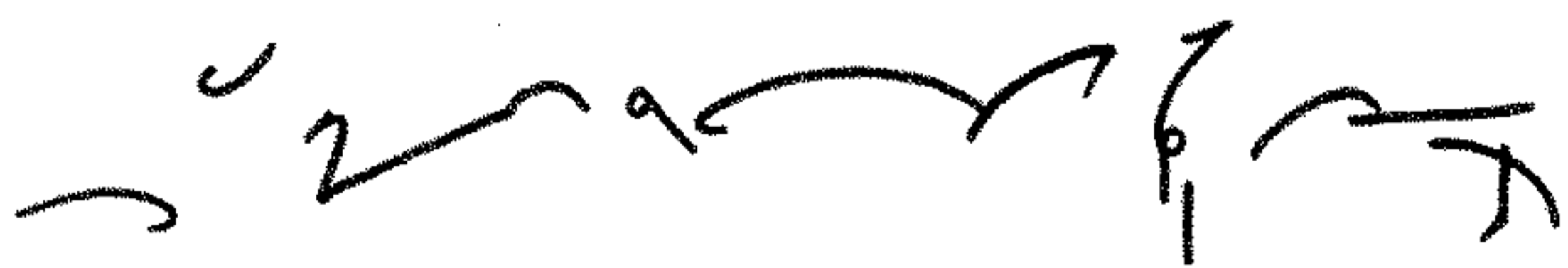
바야흐로 김영삼 대통령이 이끄는 문민정부는 선열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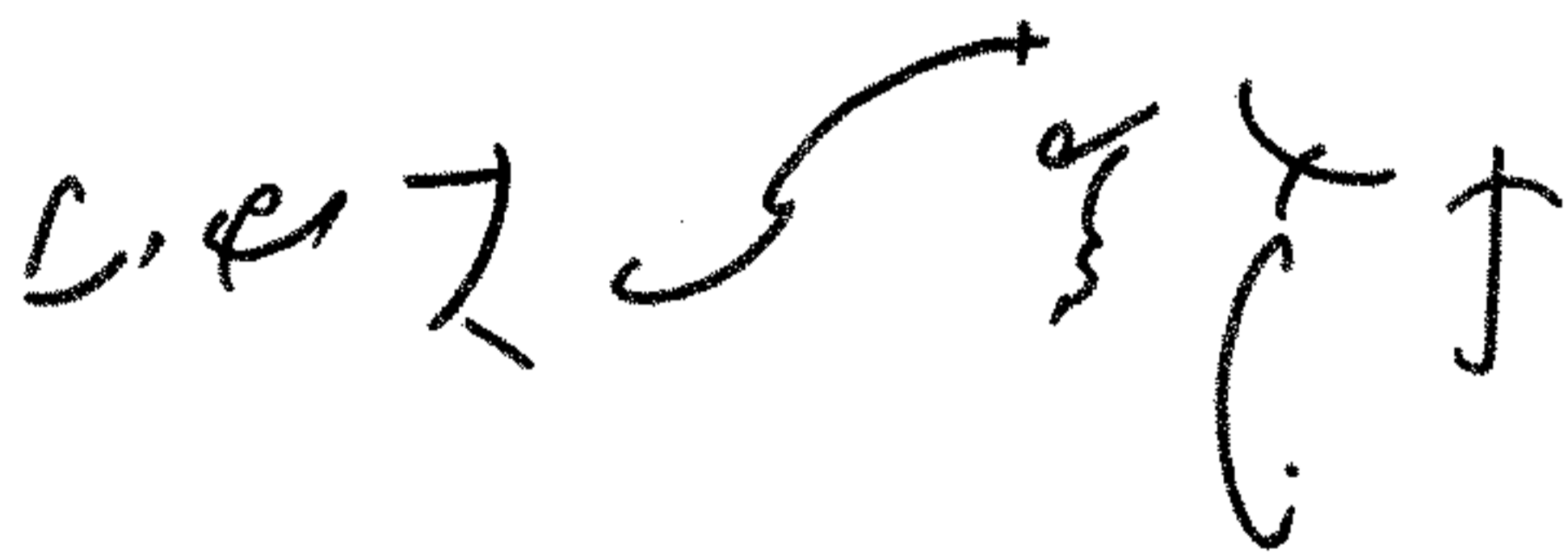
애국정신을 귀감삼아 신한국 건설의 기치 아래



21세기의 번영과 영광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7000만 한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대업도 선열의 거룩한 유지와 천상에서의 보살핌에 의하여 머지않아



성취될 것을 확신하며 다섯분 선열 앞에 엄숙한 마음으로

웃것을 여미고 경배를 올립니다.

영령들이시여! 아직도 이국의 하늘 아래에서 환국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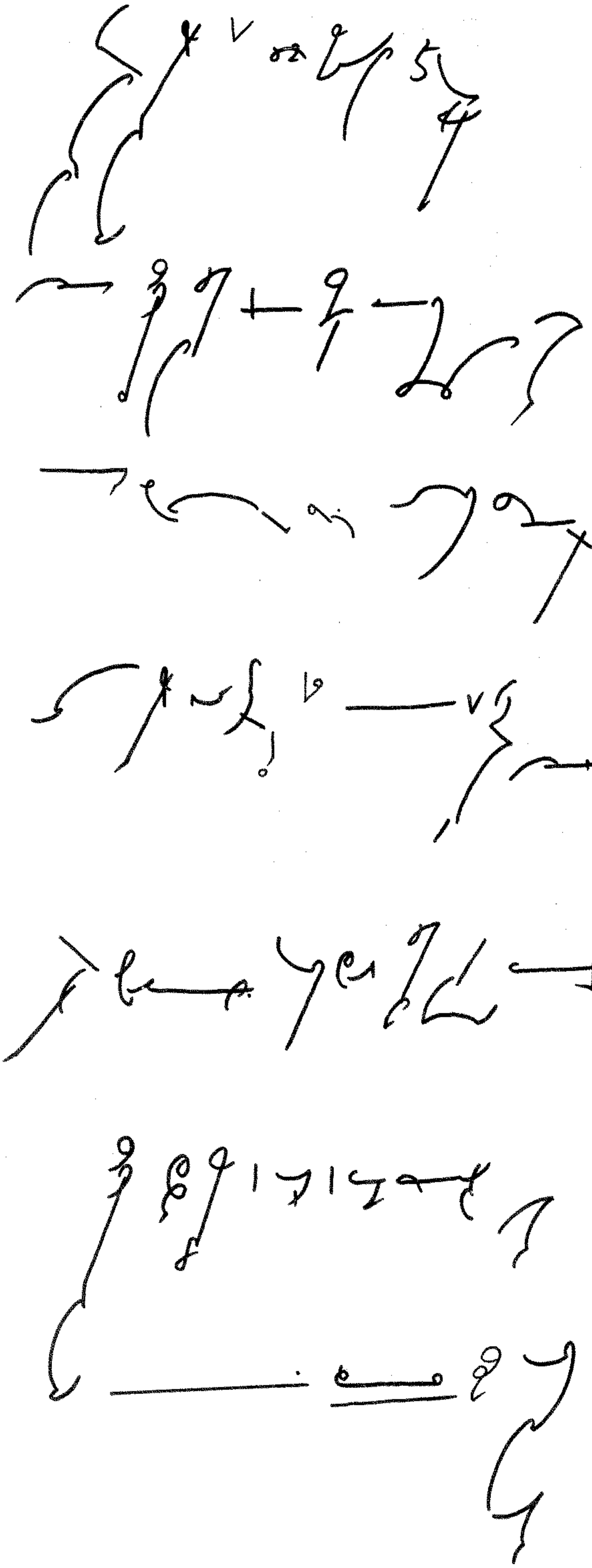
못하시고 외로움을 달래고 계시는 여러 선열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아직도

환국하지 못하신 여러 선열들이 하루빨리 조국의 품안으로

모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맹세드리며

그리하여 그 분들의 고향이나마* 조국에서 편안히

안식하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겨레의 자랑이시며 복된 나라 대한민국의



수호신이신 분들이시여! 이제 말 없이 돌아오신 다섯분의 선열들을

조국의 영령들이 잠드신 이곳 동작동 국립묘지에 모시겠습니다.

그동안의 불민함을 한탄하며 아무리 통곡한들

어찌 님들의 넋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제는 그토록 사랑하시던 조국과

후손들의 품에 안기셨으니 부디 편안히 잠드시기를 두손모아 기원합니다.

영령들이시여! 평생의 뜻대로 이 나라와 이겨레를 굽어 살피주소서.

그리고 길이길이 영생을 누리시옵소서.
1993년 8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선열 5
위봉안 국민제전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황인성

* 자신이 쓴 속기문자를 읽어보자 <실천연습은 쓰고 읽기를 위주로 한다>.

손풀기: 기본문자 복습...ㄹ받침, ㄱ받침 3회 이상 써보자.

9. 상선약자(5)

대표	얼마	얼마나	얼마지	언제	언제나	언젠가	결과
人	ㄹ	ㄹ	ㄹ	ㅇ	ㅇ	ㅇ	X
결국	결코	결론	올시다	이 자리에서	견지에서	더불어	
X	ㅇ	ㅇ	ㅇ	ㅇ	ㅇ	ㅇ	S

<실전연습 24> ... 한글문장을 속기문자로 옮겨보자.

케네디 취임사

우리는 오늘 한 정당의 승리를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기념하는 행사를 갖는 것입니다. 오
늘의 이

기념행사는 한 시대의 종말과 함께 시작을
상징하며 또한

쇄신과 변화를 의미하는 계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들이 근

180년 전에 마련한 바로 그 엄숙한 선서문으로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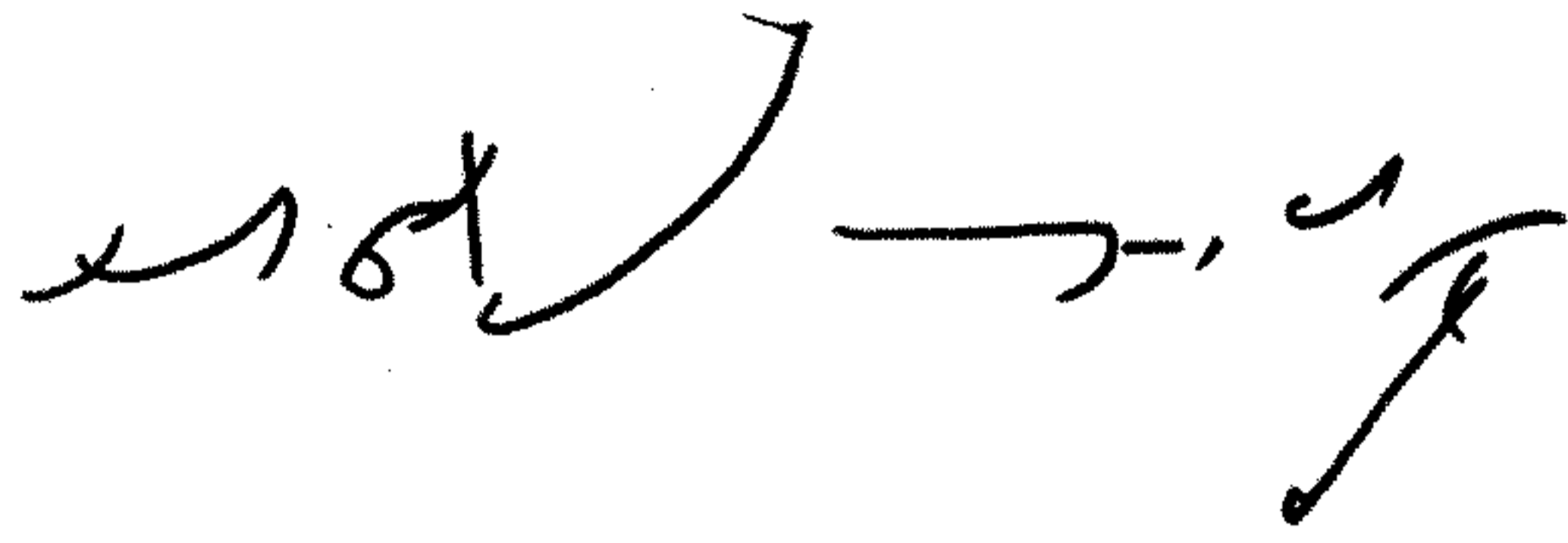
여러분과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앞에 대통령

취임의 선서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에 비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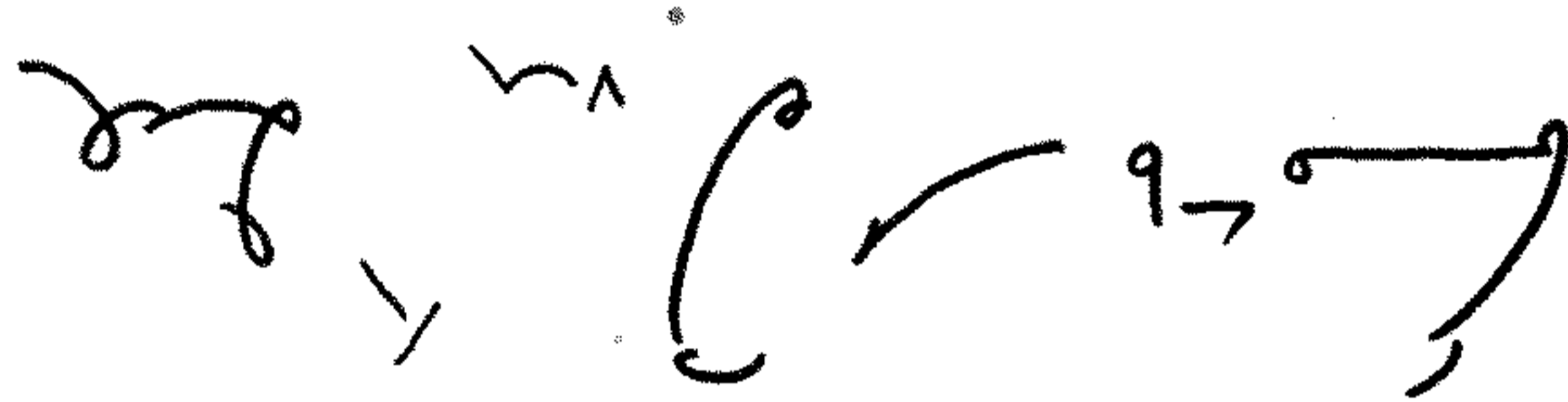
오늘의 세계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오늘의 인간은 모든 형태의

빈곤을 극복할 수 있는 반면에 또한 모든 인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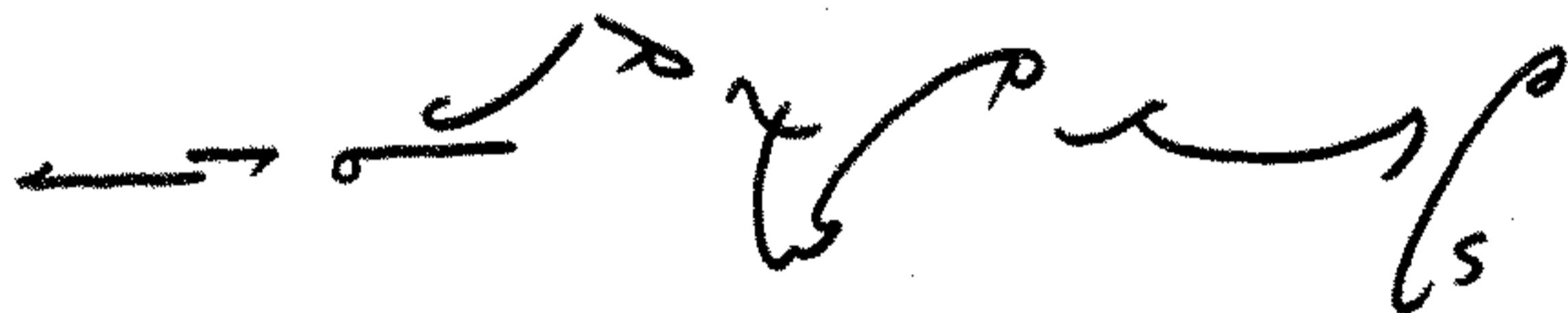
생명을 멸망시킬 수도 있는 그러한 힘을 가 낳은 두 손아귀에



아울러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조상들이



투쟁목표로 하던 혁명적인 신념, 즉 인간의 권리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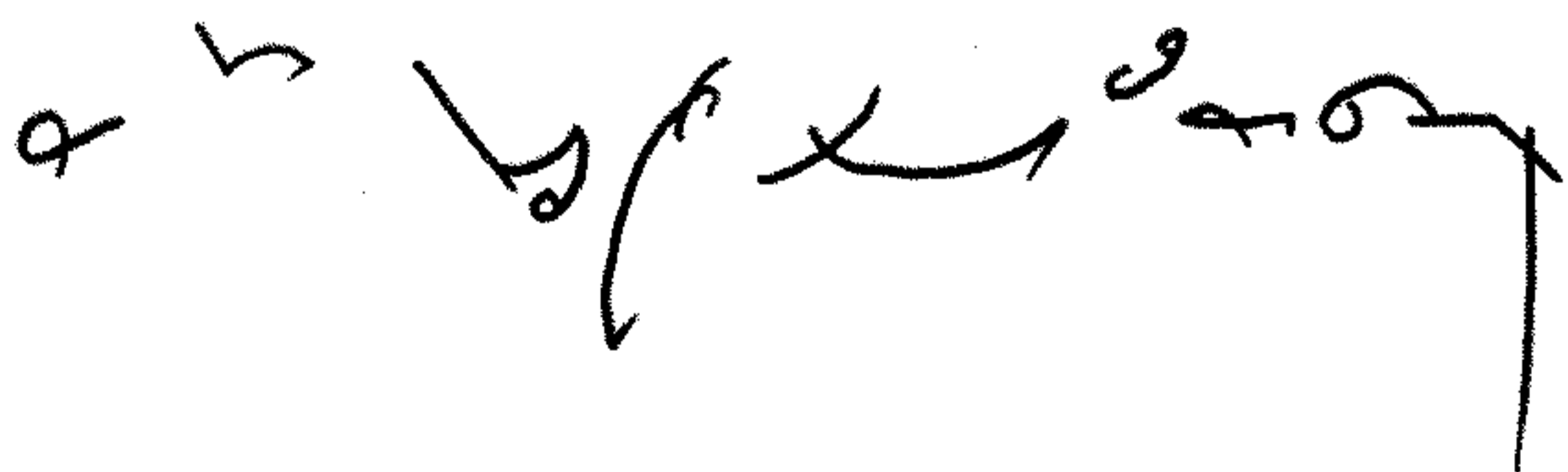
국가의 관용함으로써 베풀어지는게 아니라 신에 의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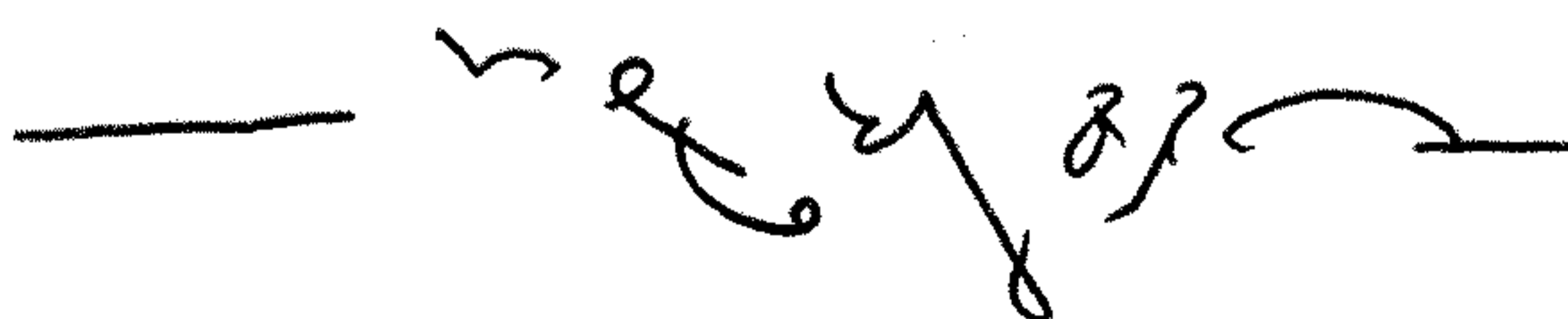
부여되는 것이라는 바로 그 동일한 신념이 오늘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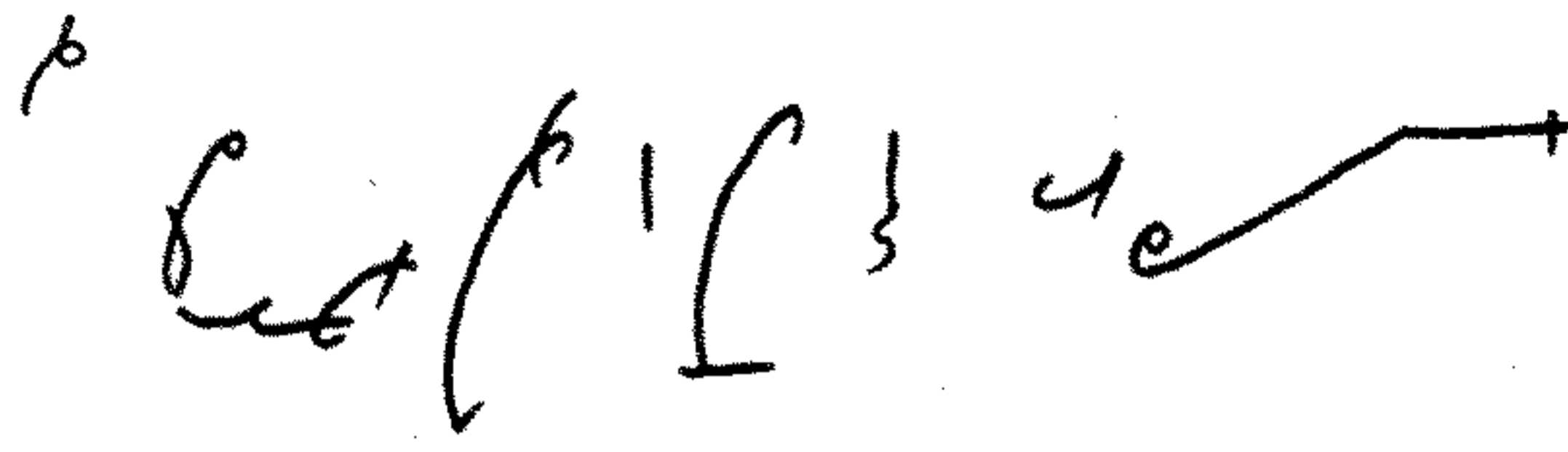
세계 도처에서도 아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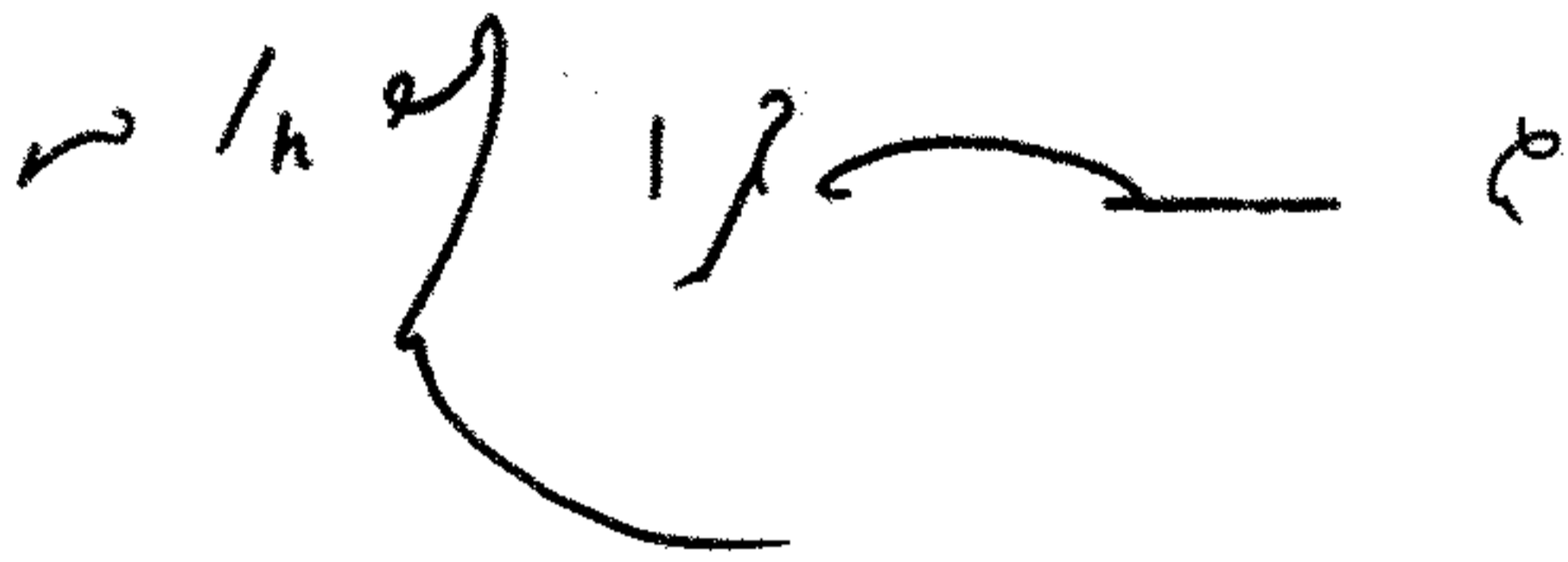
첫 혁명의 후예라는 사실을 오늘의 우리는 감히 망각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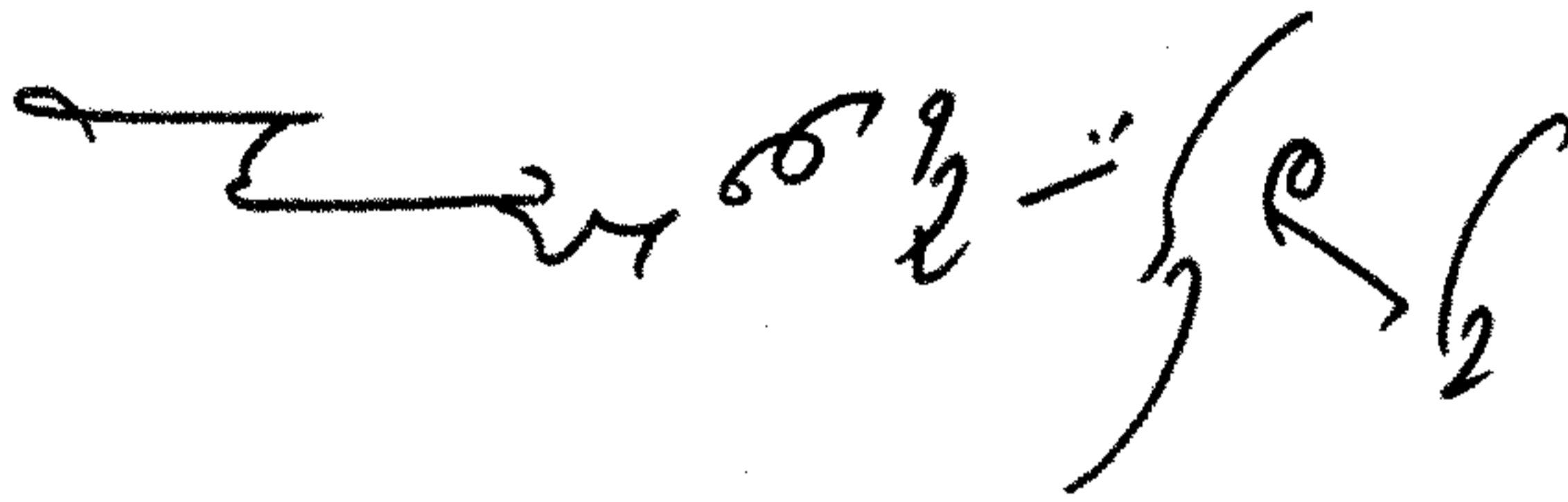
그 혁명의 횃불이 바야흐로 새로운 세대의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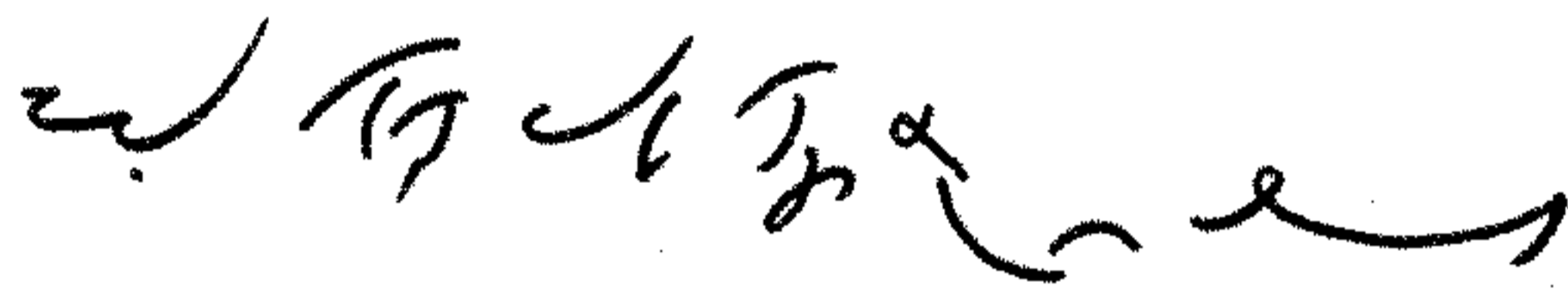
사람들 손으로 넘겨졌다는 사실을 이 시각
이 자리에서 우리의 친구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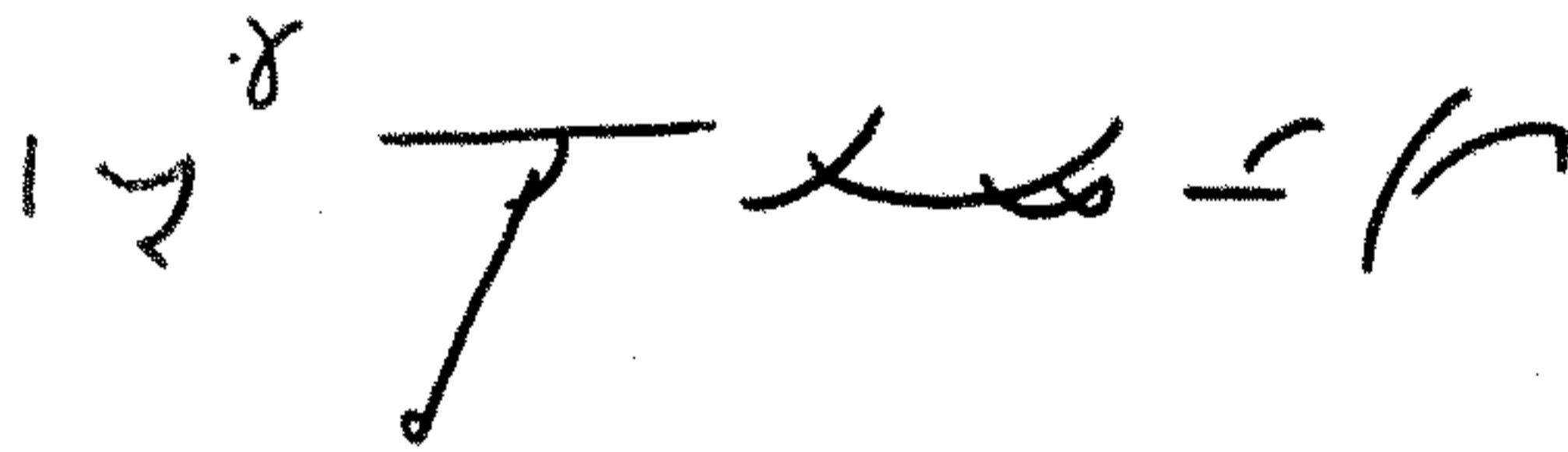
적에게 다 같이 알리는 바입니다. 이 세대의
미국 사람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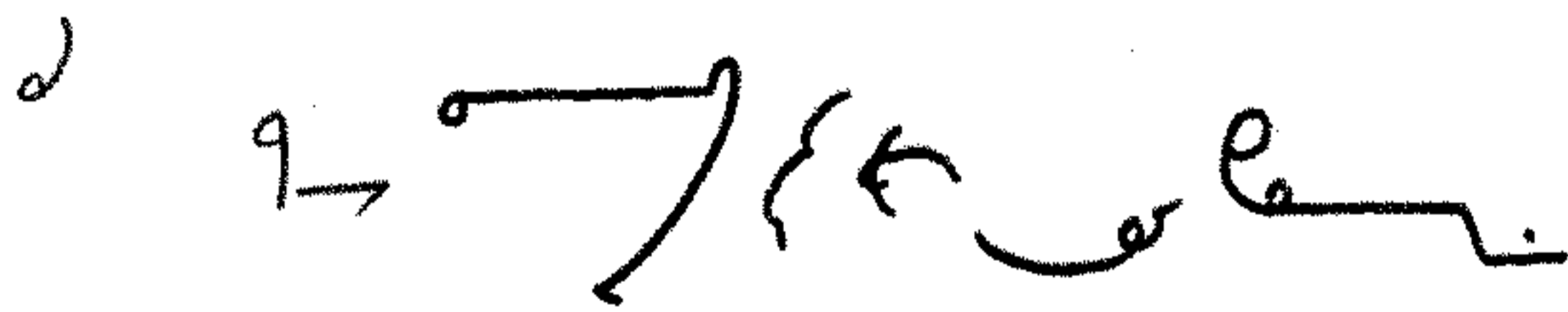
금세기에 태어나서 전쟁의 단련과 아울러 차
고도 쓰러린 평화의 시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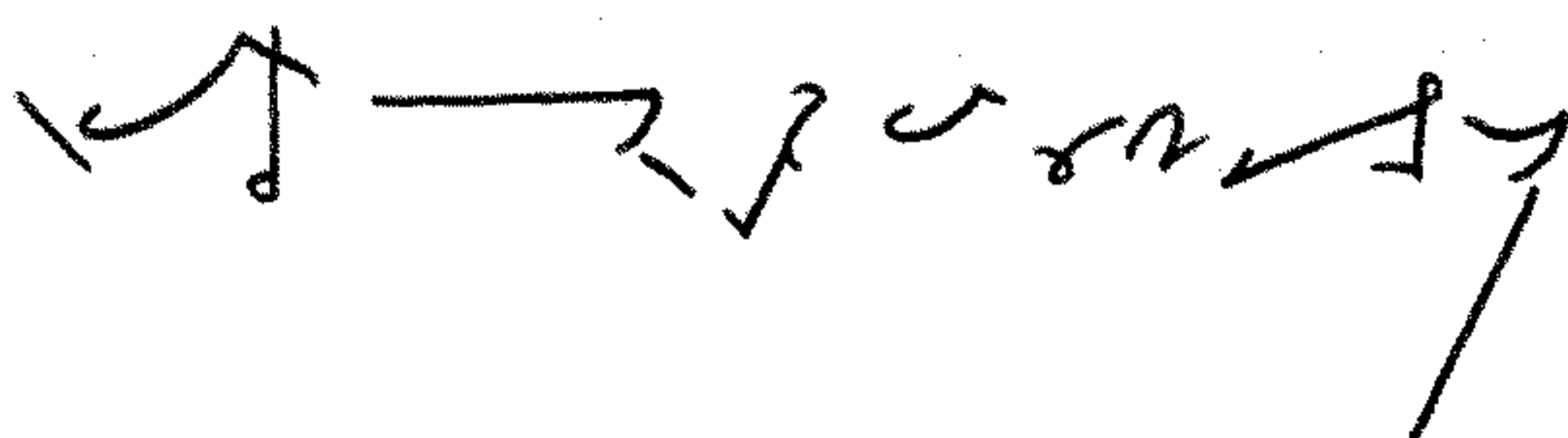
겪었으며, 조상 전래의 유산을 자랑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언제나 그랬듯이 오늘날에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인간의 권리가 서서히 파멸되는 것을
방관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축원하는 나라든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consisting of several notes and rests on a staff.

또는 못 되기를 바라는 나라든, 모든 나라들
로 하여금 자유의 보존과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consisting of several notes and rests on a staff.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대가
라도 지불할 것이며, 어떠한 부담이라도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consisting of several notes and rests on a staff.

감당할 것이며, 어떠한 난관이라도 무릅쓸 것
이며, 어떤 친구를 막론하고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consisting of several notes and rests on a staff.

지원할 것이며 또한 어떠한 적과도 대결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도록 해야 됩니다.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consisting of several notes and rests on a staff.

우리는 최소한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분
명히 약속합니다. 우리와 문화적·정신적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consisting of several notes and rests on a staff.

원천을 같이 하는 오랜 맹방들에게 우리는
신뢰하는 친구로서의 의리를 다할 것을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consisting of several notes and rests on a staff.

서약합니다. 우리가 단결만 한다면 협조로써
이루어야 할 허다한 새로운 모험적인

과업에서 불가능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열되는 경우에는 적의 강력한 도전을 감히 대항하지 못하여

산산히 분산되기 때문에 속수무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자유세계로 환영해 마지 않는 신생국가들에게 우리는 한 가지 형태의

식민통치가 다만 격심한 전제에 의해서 대치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점을 언약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그들 신생국들이

언제든지 우리의 모든 견해를 지지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 자신이 쓴 속기문자를 읽어보자<실전연습은 쓰고 읽기를 위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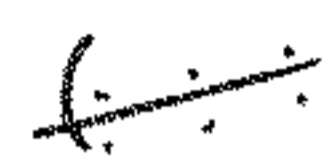
손풀기 : 기본문자 복습 ... 받침, ◦받침 3회 이상 써보자.

♣ 통 사

10. 시제(어미)변화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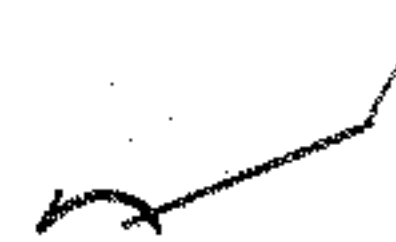
10-1. **~었을 것이다** : 차줄, 4~8mm로 끝에 걸쳐, 쓰거나 빼침

 없었을 것이다 = 없었을 (것)


 없었을 것이니, 나, 고, 인데, 지, 며


 없었을 것을


 먹었을

 먹었을 것을

10-2. **~었던 것이다** : 차줄, 4~8mm 쓰거나 빼침

 있었던 것이다 = 있었던 (것)

 있었던 것이니, 나, 고, 인데, 지, 며

 있었던 것을

10-3. **~었겠다** : 하줄 걸쳐서 4~8mm

 보았겠다

 먹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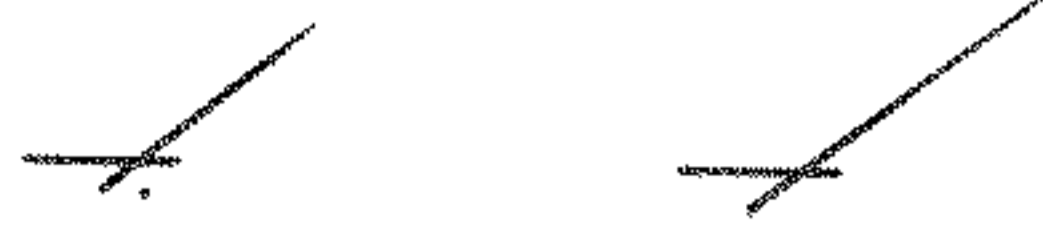
<응용연습>

「~었을 것이다」+「~(으)니」어쩌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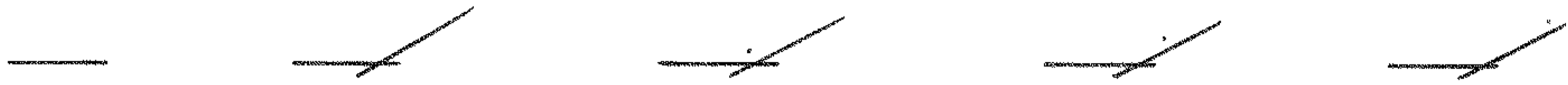
간다 갔을 것이다 갔을 것이니 갔을 것이나 갔을 것이고 갔을 것인데 갔을 것이지



갔을 것이며 갔을 것입니다



일으킨다 일으켰을 것이다 일으켰을 것이니 일으켰을 것이나 일으켰을 것이고



일으켰을 것인데 일으켰을 것이지 일으켰을 것이며 일으켰을 것입니다



지킨다 지켰을 것이다 지켰을 것이니 지켰을 것이나 지켰을 것이고 지켰을 것인데



지켰을 것이지 지켰을 것이며 지켰을 것입니다



모른다 몰랐을 것이다 몰랐을 것이니 몰랐을 것이나 몰랐을 것이고



몰랐을 것인데 몰랐을 것이지 몰랐을 것이며 몰랐을 것입니다



안된다 안되었을 것이다 안되었을 것이니 안되었을 것이나 안되었을 것이고



안되었을 것인데 안되었을 것이지 안되었을 것이며 안되었을 것입니다



둔다 두었을 것이다 두었을 것이니 두었을 것이나 두었을 것이고 두었을 것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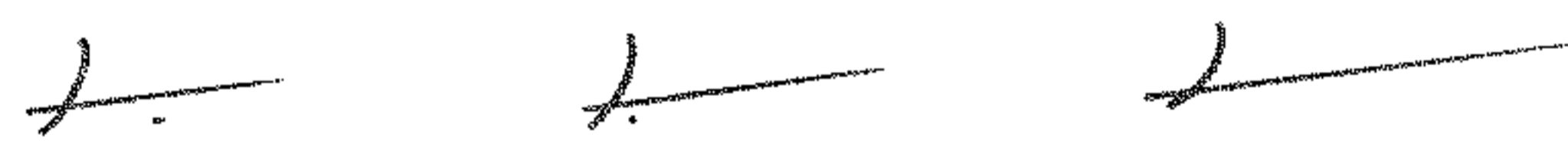
두었을 것이지 두었을 것이며 두었을 것입니다



밝힌다 밝혔을 것이다 밝혔을 것이니 밝혔을 것이나 밝혔을 것이고 밝혔을 것인데



밝혔을 것이지 밝혔을 것이며 밝혔을 것입니다



나온다 나왔을 것이다 나왔을 것이니 나왔을 것이나 나왔을 것이고 나왔을 것인데



나왔을 것이지 나왔을 것이며 나왔을 것입니다



믿는다	믿었을 것이다	믿었을 것이니	믿었을 것이나	믿었을 것이고	
					
	믿었을 것인데	믿었을 것이지	믿었을 것이며	믿었을 것입니다	
					
본다	보았을 것이다	보았을 것이니	보았을 것이나	보았을 것이고	보았을 것인데
					
	보았을 것이지	보았을 것이며	보았을 것입니다		
					
시킨다	시켰을 것이다	시켰을 것이니	시켰을 것이나	시켰을 것이고	시켰을 것인데
					
	시켰을 것이지	시켰을 것이며	시켰을 것입니다		
					
안다	알았을 것이다	알았을 것이니	알았을 것이나	알았을 것이고	알았을 것인데
					
	알았을 것이지	알았을 것이며	알았을 것입니다		
					
준다	주었을 것이다	주었을 것이니	주었을 것이나	주었을 것이고	주었을 것인데
					
	주었을 것이지	주었을 것이며	주었을 것입니다		
					
드린다	드렸을 것이다	드렸을 것이니	드렸을 것이나	드렸을 것이고	드렸을 것인데
					
	드렸을 것이지	드렸을 것이며	드렸을 것입니다		
					
오른다	올랐을 것이다	올랐을 것이니	올랐을 것이나	올랐을 것이고	올랐을 것인데
					
	올랐을 것이지	올랐을 것이며	올랐을 것입니다		
					
아니다	아니었을 것이다	아니었을 것이니	아니었을 것이나	아니었을 것이고	
					

아니었을 것인데 아니었을 것이지 아니었을 것이며 아니었을 것입니다

ㄱ. ㄱ. ㄱ. ㄱ.

않는다 았았을 것이다 았았을 것이니 았았을 것이나 았았을 것이고 았았을 것인데

) ㄱ. ㄱ. ㄱ. ㄱ. ㄱ.

았았을 것이지 았았을 것이며 았았을 것입니다

ㄱ. ㄱ. ㄱ.

판다 팔았을 것이다 팔았을 것이니 팔았을 것이나 팔았을 것이고 팔았을 것인데

) ㄱ. ㄱ. ㄱ. ㄱ. ㄱ.

팔았을 것이지 팔았을 것이며 팔았을 것입니다

ㄱ. ㄱ. ㄱ.

없다 없었을 것이다 없었을 것이니 없었을 것이나 없었을 것이고 없었을 것인데

(ㄱ. ㄱ. ㄱ. ㄱ. ㄱ.

없었을 것이지 없었을 것이며 없었을 것입니다

ㄱ. ㄱ. ㄱ.

아니(하) 아니하였을 것이다 아니하였을 것이니 아니하였을 것이나 아니하였을 것이고

(ㄱ. ㄱ. ㄱ. ㄱ. ㄱ.

아니하였을 것인데 아니하였을 것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ㄱ. ㄱ. ㄱ. ㄱ.

있다 있었을 것이다 있었을 것이니 있었을 것이나 있었을 것이고 있었을 것인데

| ㄱ. ㄱ. ㄱ. ㄱ. ㄱ.

있었을 것이지 있었을 것이며 있었을 것입니다

ㄱ. ㄱ. ㄱ.

「~었을 것이다」는 현재 30개의 약자로 정해진 동사나 형용사보다는 기본문자에서 더 유용하게 활용된다.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구나!”하는 정도로만 이해하기 바란다.

「~었던 것이다」+「~(으)니」어찌구

간다 갔던 것이다 갔던 것이니 갔던 것이나 갔던 것이고 갔던 것인데 갔던 것이지

— ㄱ. ㄱ. ㄱ. ㄱ. ㄱ. ㄱ.

갔던 것이며 갔던 것입니다

ㄱ. ㄱ.

일으킨다 일으켰던 것이다 일으켰던 것이니 일으켰던 것이나 일으켰던 것이고

— — — — —

일으켰던 것인데 일으켰던 것이지 일으켰던 것이며 일으켰던 것입니다

— — — — —

된다 되었던 것이다 되었던 것이니 되었던 것이나 되었던 것이고 되었던 것인데

— — — — —

되었던 것이지 되었던 것이며 되었던 것입니다

— — — — —

둔다 두었던 것이다 두었던 것이니 두었던 것이나 두었던 것이고 두었던 것인데

/ / / / /

두었던 것이지 두었던 것이며 두었던 것입니다

/ / /

나온다 나왔던 것이다 나왔던 것이니 나왔던 것이나 나왔던 것이고

) / / / /

나왔던 것인데 나왔던 것이지 나왔던 것이며 나왔던 것입니다

/ / / /

믿는다 믿었던 것이다 믿었던 것이니 믿었던 것이나 믿었던 것이고

— — — — —

믿었던 것인데 믿었던 것이지 믿었던 것이며 믿었던 것입니다

— — — — —

본다 보았던 것이다 보았던 것이니 보았던 것이나 보았던 것이고 보았던 것인데

— — — — —

보았던 것이지 보았던 것이며 보았던 것입니다

— — — — —

받는다 받았던 것이다 받았던 것이니 받았던 것이나 받았던 것이고 받았던 것인데

/ / / / /

받았던 것이지 받았던 것이며 받았던 것입니다

/ / /

온다 왔던 것이니 왔던 것이나 왔던 것이고 왔던 것인데 왔던 것이지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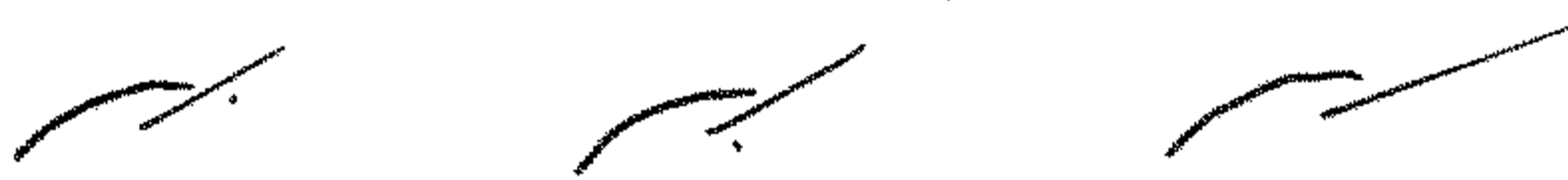
왔던 것이며 왔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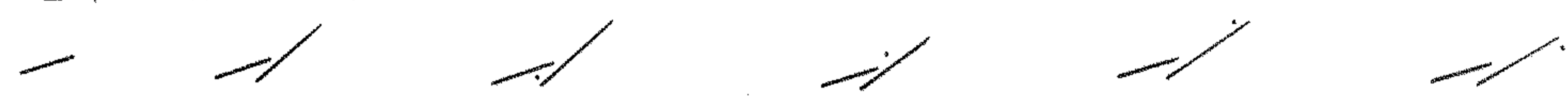
준다 주었던 것이다 주었던 것이니 주었던 것이나 주었던 것이고 주었던 것인데



주었던 것이지 주었던 것이며 주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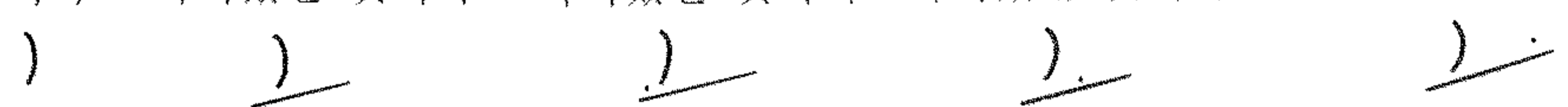
드린다 드렸던 것이다 드렸던 것이니 드렸던 것이나 드렸던 것이고 드렸던 것인데



드렸던 것이지 드렸던 것이며 드렸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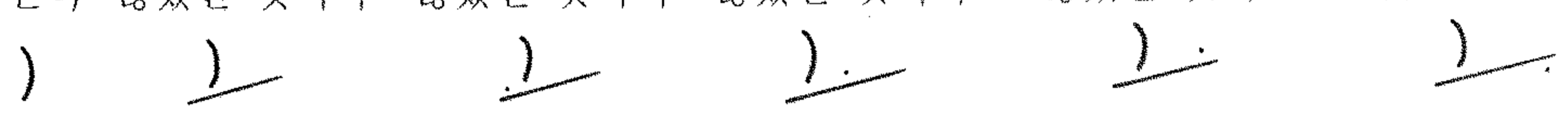
아니다 아니었던 것이다 아니었던 것이니 아니었던 것이나 아니었던 것이고



아니었던 것인데 아니었던 것이지 아니었던 것이며 아니었던 것입니다



않는다 앓았던 것이다 앓았던 것이니 앓았던 것이나 앓았던 것이고 앓았던 것인데



앓았던 것이지 앓았던 것이며 앓았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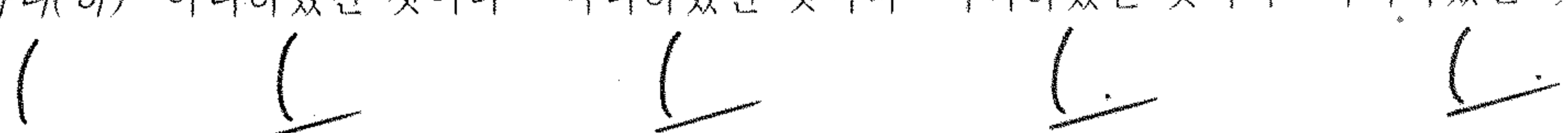
없다 없었던 것이다 없었던 것이니 없었던 것이나 없었던 것이고 없었던 것인데



없었던 것이지 없었던 것이며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하) 아니하였던 것이다 아니하였던 것이니 아니하였던 것이나 아니하였던 것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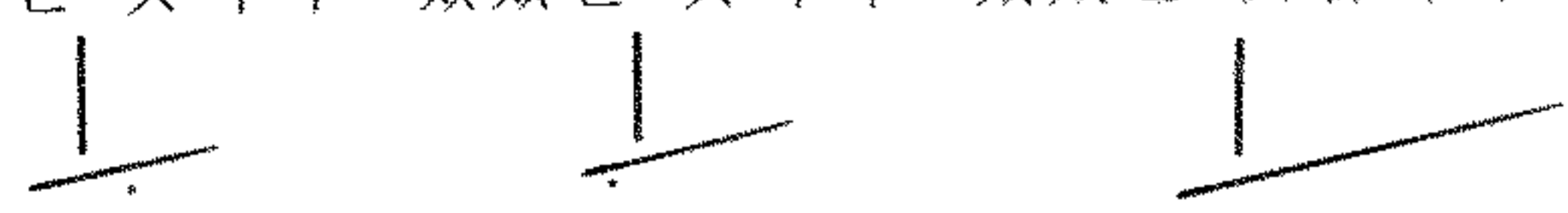
아니하였던 것인데 아니하였던 것이지 아니하였던 것이며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있다 있었던 것이다 있었던 것이니 있었던 것이나 있었던 것이고 있었던 것인데



있었던 것이지 있었던 것이며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기본 형태를 충실히 복습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동사는 암기해서는 절대 정복할 수 없을 만큼 우리 말은 복잡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런데 동사기본틀은 절대적으로 암기해야 한다.

기본틀은 무엇이던가?

1) 기본형 : 간다, 일으킨다...

2) 시제변화 : 「~었다」		또는	
「~었었다」		또는	
「~겠다」			
「~르 것이다」			
「~르 수 있다」			
「~르 수 없다」			
「~는 것이다」			
「~ㄴ(은)것이다」			
「~던 것이다」			
「~였을 것이다」			
「~였던 것이다」			
「~였겠다」			

이상에서 배운 시제변화가 복합이 되어 나오면 그대로 이어쓰면 된다.

3) 위치(어미)변화

접	: 니 나 고 는데 지 며	
다줄빼침	: 니까 느냐 다고 다는데 는지 면	
하줄 빼침	: 라고 라는데 르지(지가)	
가2mm	: 니간 느냐고 리라고 리라는데 지만 면서	
소원	: 느라고 다면	
차줄빼침	: 르테니까 는데에 르는지 자면	
<	: 라면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복습거리이다.

「니, 나, 고, 는데, 지, 며」의 위치를 알면 전체를 알 수 있다.

정말 속기를 제대로 배우고 싶다면 철저히 복습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연습은 충분히 하였다고 하더라도 받아쓰기에서 즉각적으로 활용되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끝내는 가장 정확하고 빠른 길을 찾게 되는 것이 학습의 기본원리이기 때문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격언이 저절로 실감될 것이다.

<실전연습 25> ... 한글문장을 속기문자로 옮겨보자.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이 스스로의 자유를 강력히 수호하며

또한 동시에 어리석게도 범을 타고 권세를 얻으려는 자는

결국 범에게 먹히고 말았다는 옛 이야기를

기억해 주기를 항상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지구의 반을 차지하는 지역에서

집단적 빈곤의 굴레를 벗어 나려고 싸우는 빈곤한

촌락민들에게 대해서, 우리는 아무리 시일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들의

자조를 돕기 위하여 우리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을 원조하고 있기 때문에서가 아니며 또한 그들의 지지를

획득하려 하기 때문에서도 아닙니다. 오로지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기 때문일

따름입니다. 만약에 자유사회가 빈곤한 다수를 도울 수 없다면

결코 부유한 소수를 도울 수도 없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국경선 남쪽의

Handwritten Korean characters: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여러 자매공화국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약속을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Handwritten Korean character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맹 아래 빈곤의 쇄사를 떨쳐 버릴 수 있도록

Handwritten Korean character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자유민과 자유정부를 원조할 것을 우리는 특별히

Handwritten Korean character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공약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희망에 찬 이러한 평화적 혁명은

Handwritten Korean character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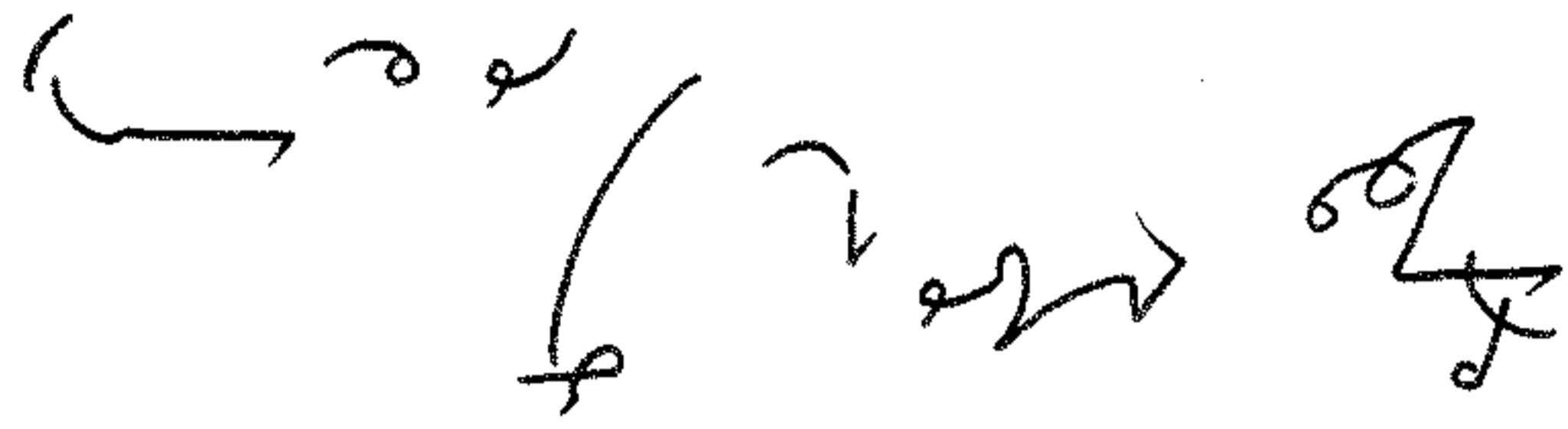
적성세력들의 희생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남방 인접국가들은

Handwritten Korean character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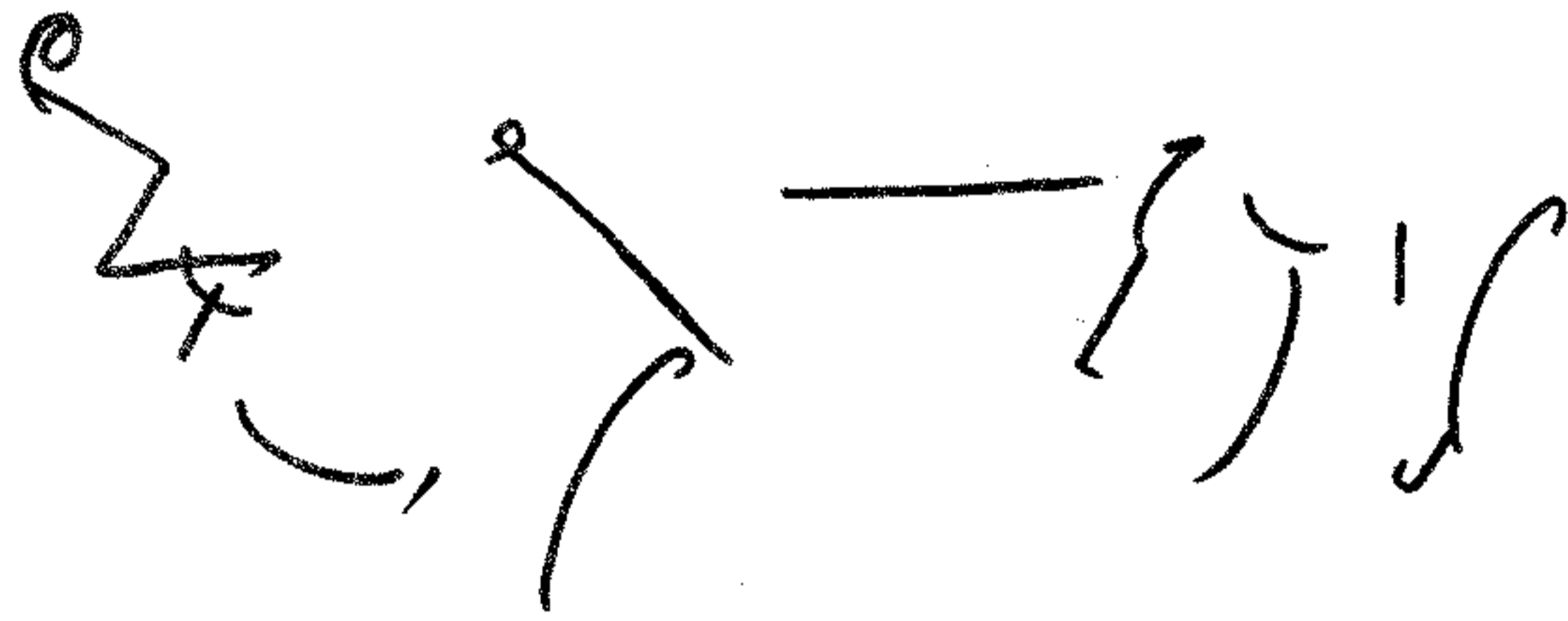
우리가 아메리카 대륙의 어느 곳에서든 침략과 파괴에 대처하기 위하여

Handwritten Korean character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그들과 합세하리라는 결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 만방에게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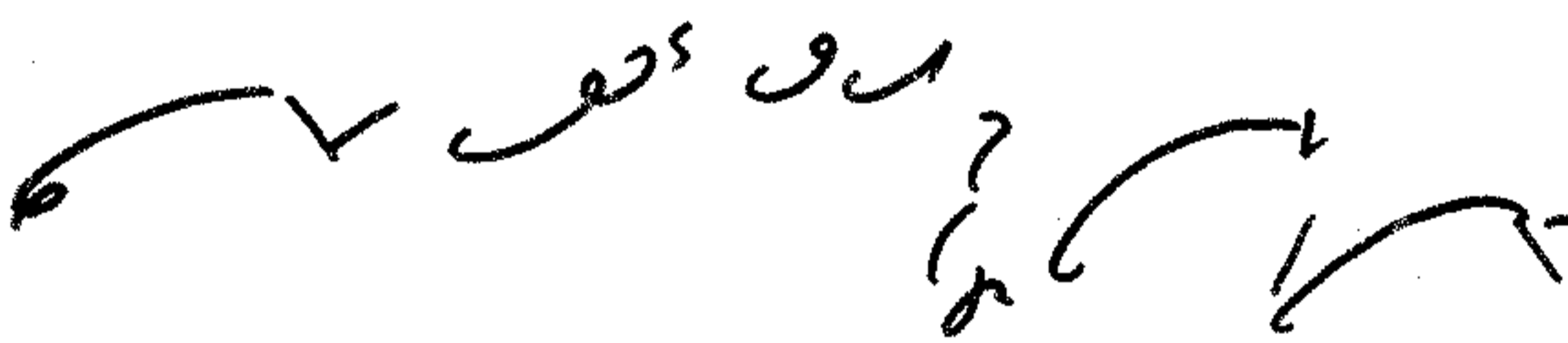
서반구의 문제는 우리들 스스로의 문제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전쟁 도구의 발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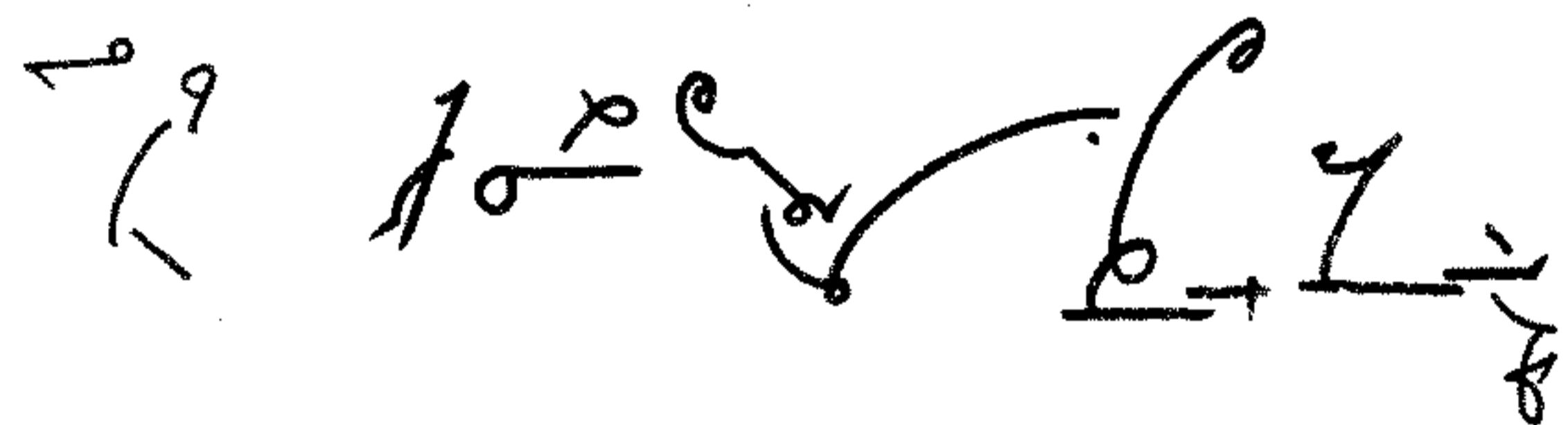
평화 도구의 발달보다도 훨씬 그 속도가 빠른 이 시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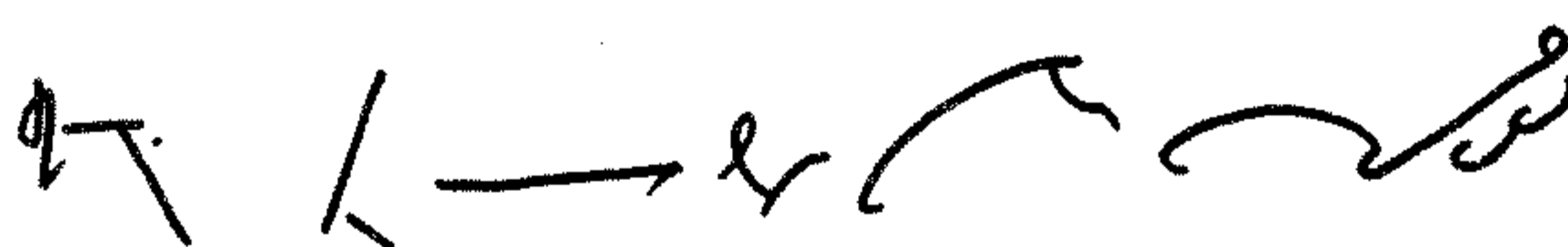
우리의 최종적이며 최선의 희망인 주권국가 의 세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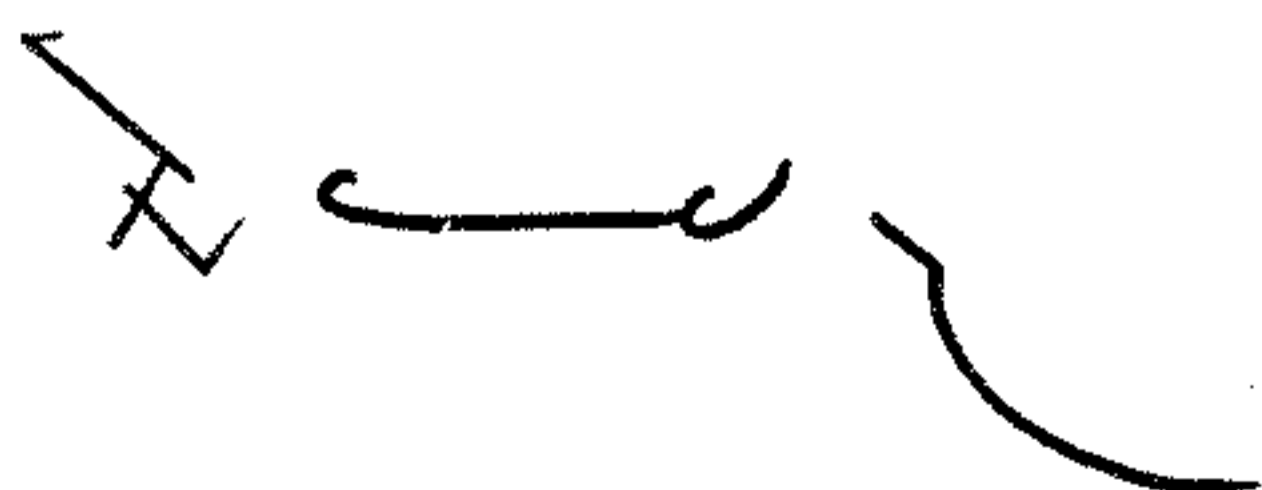
집합체 유엔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새삼스러운 지지를 다짐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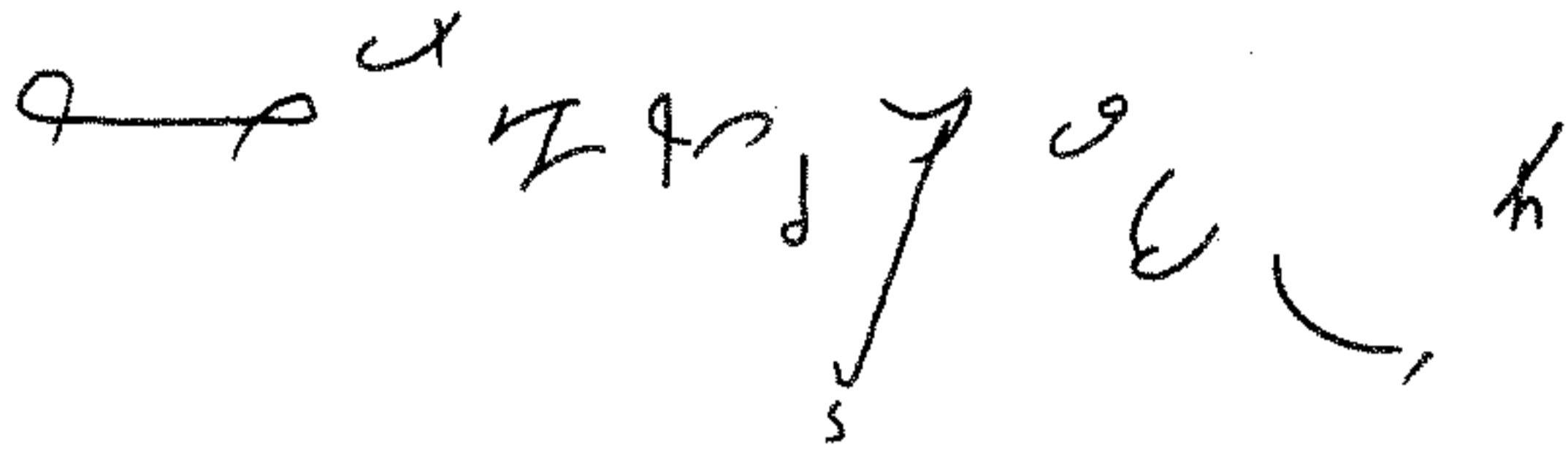
그것이 단순한 독설의 광장으로 변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생국가와 약소국가를 위한 방패로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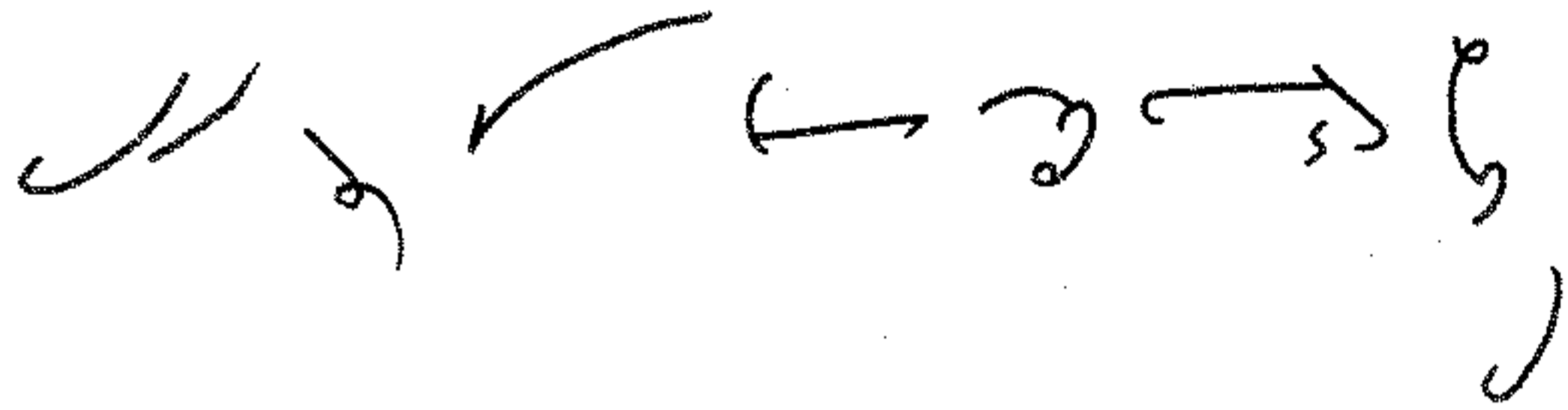
힘을 강화하며 또한 그의 법적 지배가 미치는 영역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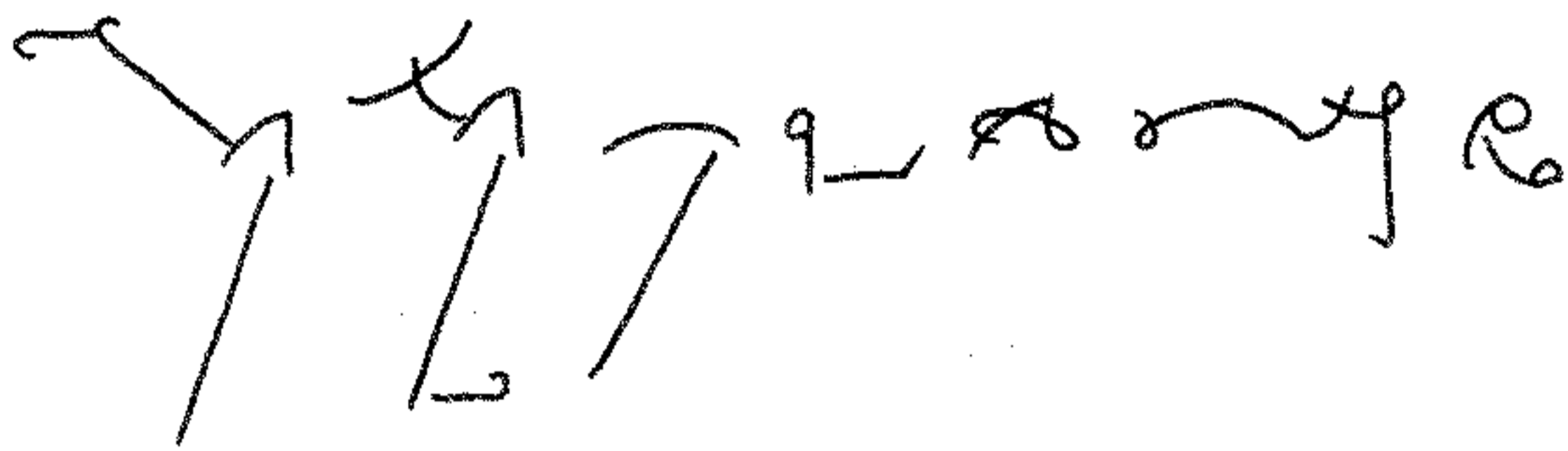
확대할 것을 기약하는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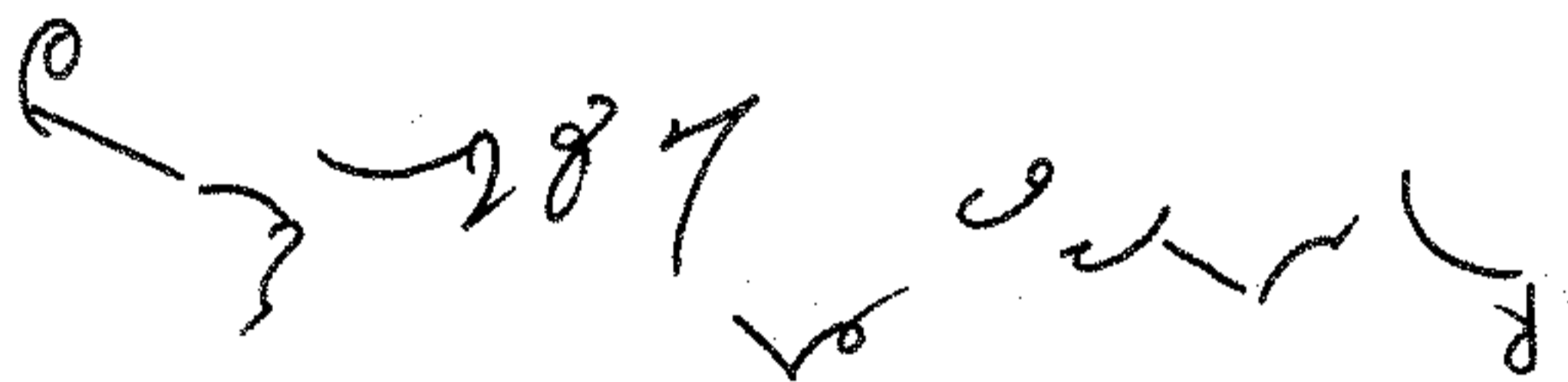
끝으로 우리와 적대적 입장에 있는 나라들
에 대해서 우리는 서약보다도 다음과 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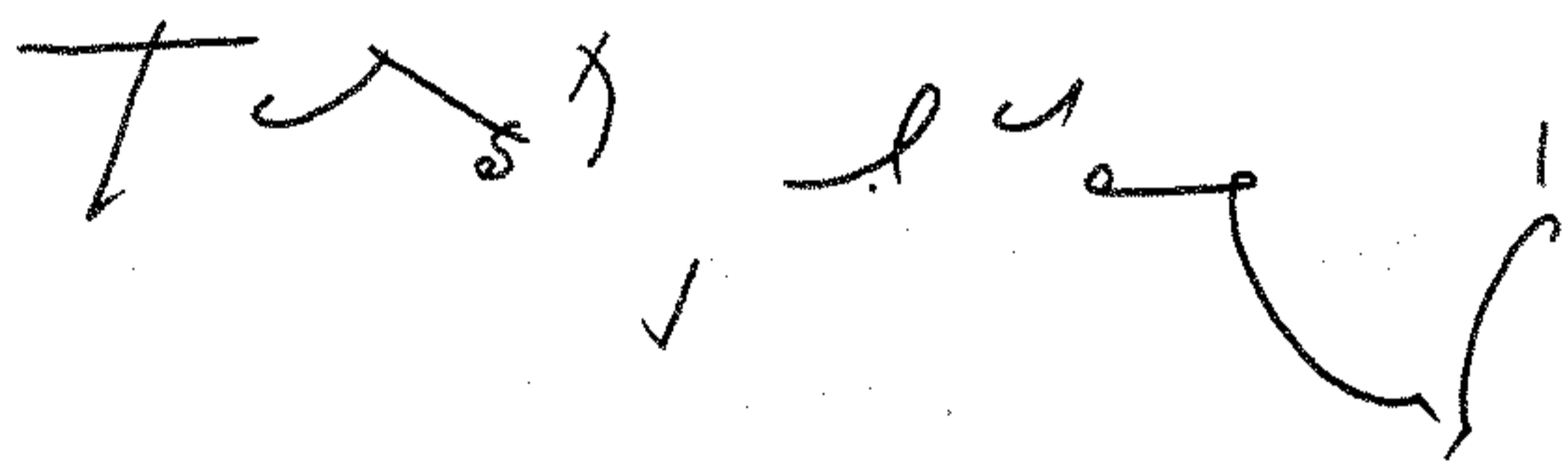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즉 파괴의 마력이 과
학에 의해서 풀려 나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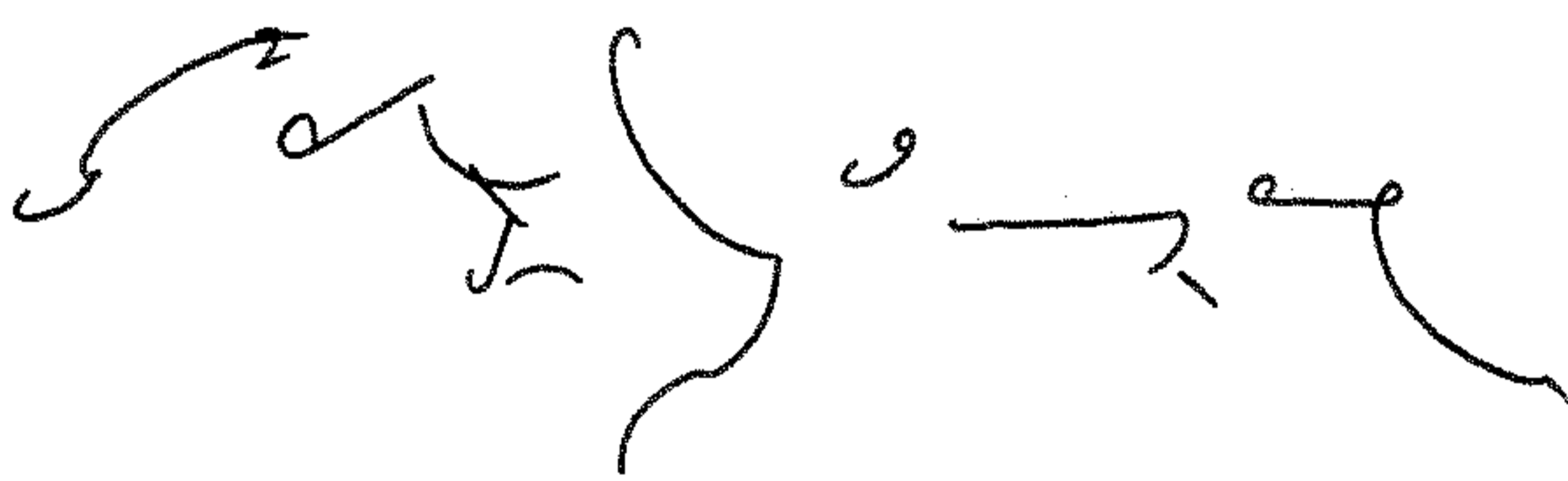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간에 모든 인간을 자
멸로 몰아넣기 전에 쌍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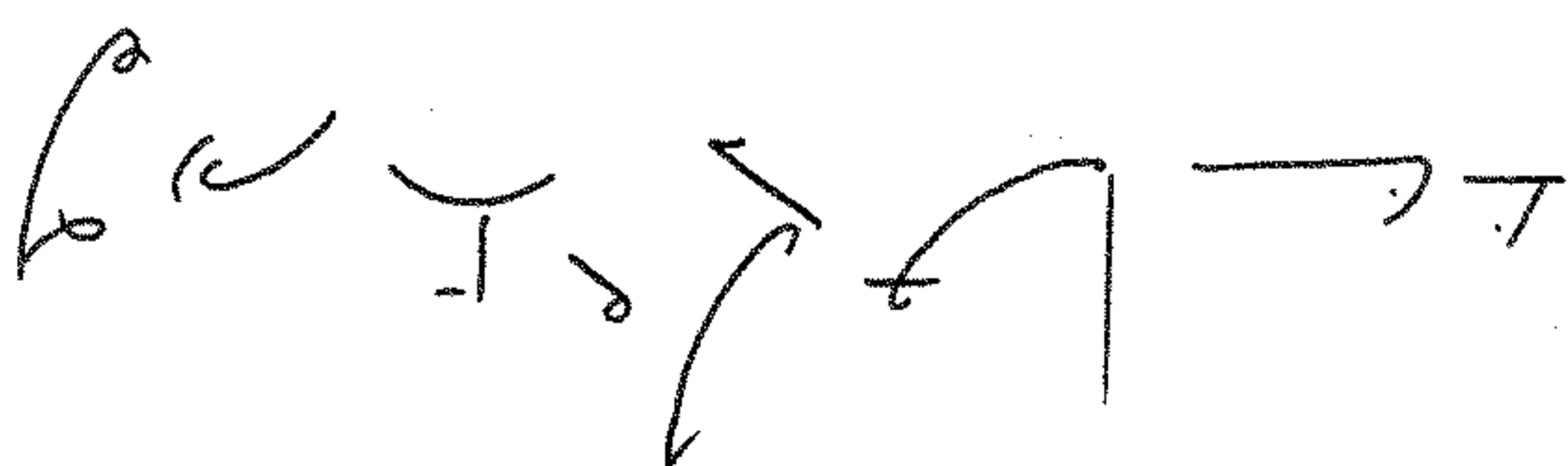
평화탐색의 노력을 새로이 착수하자는 것입
니다. 우리는 약한 점을 보임으로써



그들을 유혹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로지
우리의 준비가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그러
한 준비가



실제로 사용되지 않으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대하고

강력한 두 개의 국가들은 모두가 그들이 취하고 있는 현 노선에

안심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양쪽이 다 같이 현대 무기의

비용 때문에 과중한 부담을 짊어지고 있고, 무시무시한

원자탄의 지속적인 확대를 다 같이 염려하고 있으면서도, 인류의 마지막

전쟁을 견제하고 있는 불안정하기 짝이 없는 공포의 균형을, 자기쪽에게

유리하게 바꾸어 보려는 경쟁에 서로가 줄달음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출발을 해야 됩니다.

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출발을 해야 됩니다.

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출발을 해야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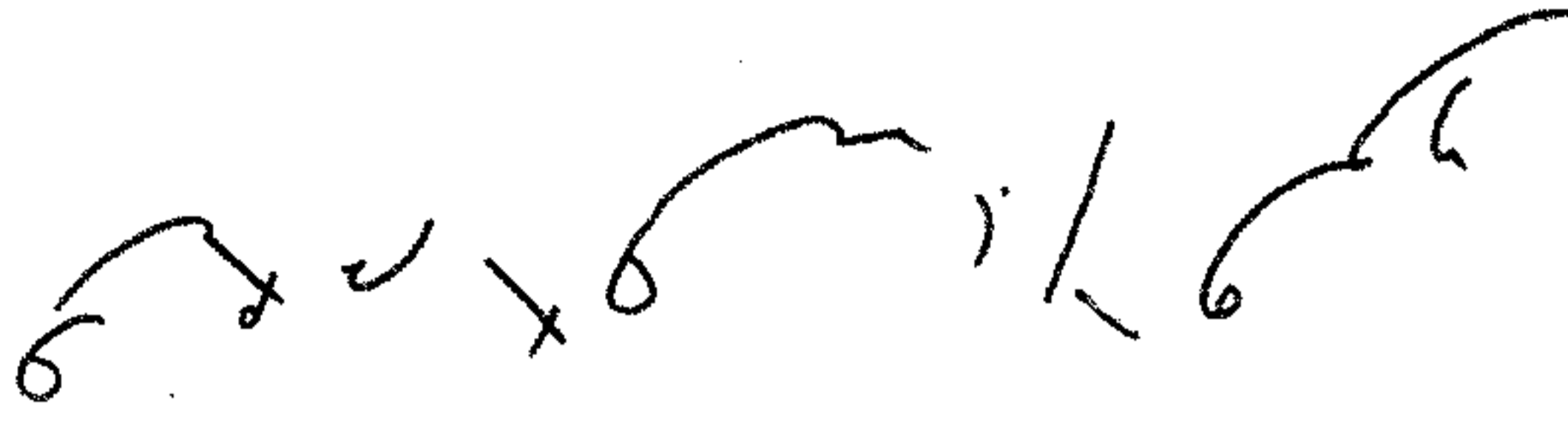
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출발을 해야 됩니다.

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출발을 해야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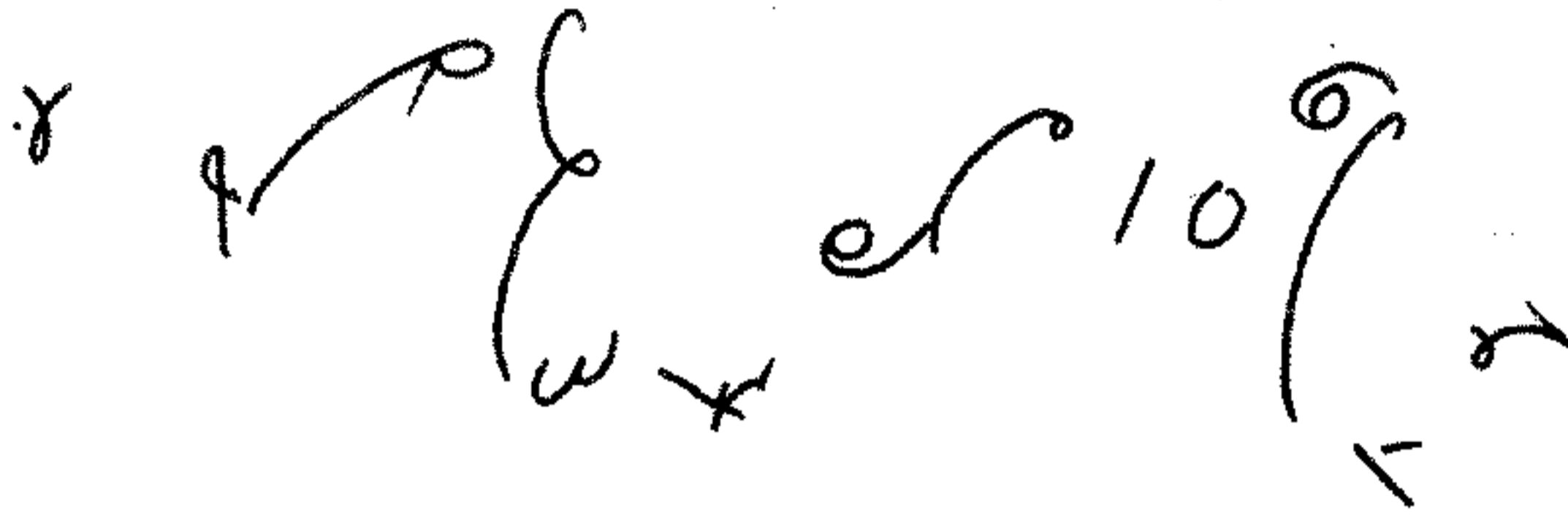
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출발을 해야 됩니다.

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출발을 해야 됩니다.

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출발을 해야 됩니다.



정중하다는 것이 약하다는 증거가 아니며,
또한 진지성은



언제나 입증으로써 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양쪽이 다 같이 명심하면서 말입니다.

*** 자신이 쓴 속기문자를 읽어보자 <실전연습은 쓰고 읽기를 위주로 한다>.**

손풀기 : 기본문자 복습 ...르받침, ㅅ받침 3회 이상 써보자.

♣ 동 사

11. 복합동사 응용 (1)

	보는 것이라 한다		있을 것이라 한다
	드린 것이라 한다		먹던 것이라 한다

12. 상선약자(6) : 4~8mm

그렇다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그러한	이러한	저러한
그래서	이래서	저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12-1. 문두

	불(차)		현(하)		예외) 현실
--	------	--	------	--	--------

응용 : 「그렇다」에서 파생

그렇다 → 그러니 그러나 그렇고 그런데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그렇다는데 그런지 그러면

ㄴ ㄴ ㄴ

그러니깐 그러나고 그러리라고 그러리라는데 그렇지만 그러면서 그러자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그럴는지 그렇다면 그러므로 그럼으로써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ㄴ ㄴ ㄴ ㄴ ㄴ 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럴 그랬...

ㄴ ㄴ ㄴ

참고 : 「이렇다, 저렇다」에도 응용

주의 : 「그렇다」로 응용되는 외의 것은 다음과 같이 응용한다(빈도가 덜한 것).

그러 그리고 그러는데 그러지 그러지만 그러는지 그러고서 그러지를 그러하다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그러다 그러다가 이러다가 저러다가 이러다 저러다 그러게 이러게 저러게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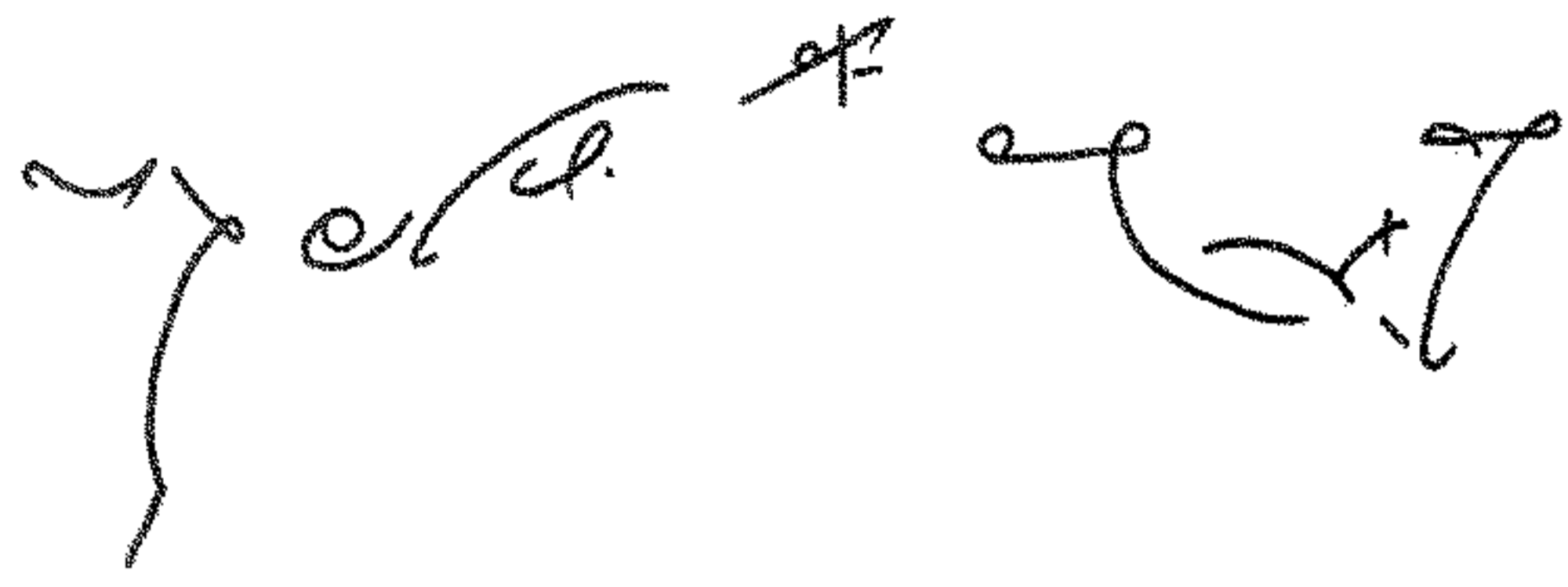
<실전연습 26> ... 한글문장을 속기문자로 옮겨보자.

그럼으로써 우리는 절대로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맙시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서로 협상하기를 두려워하지는 맙시다.
양 진영으로 하여금 우리들을 분열시키는
문제에 골몰하기보다는 우리를 결합시키는
문제를 찾아

그럼으로써 우리는 절대로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맙시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서로 협상하기를 두려워하지는 맙시다.
양 진영으로 하여금 우리들을 분열시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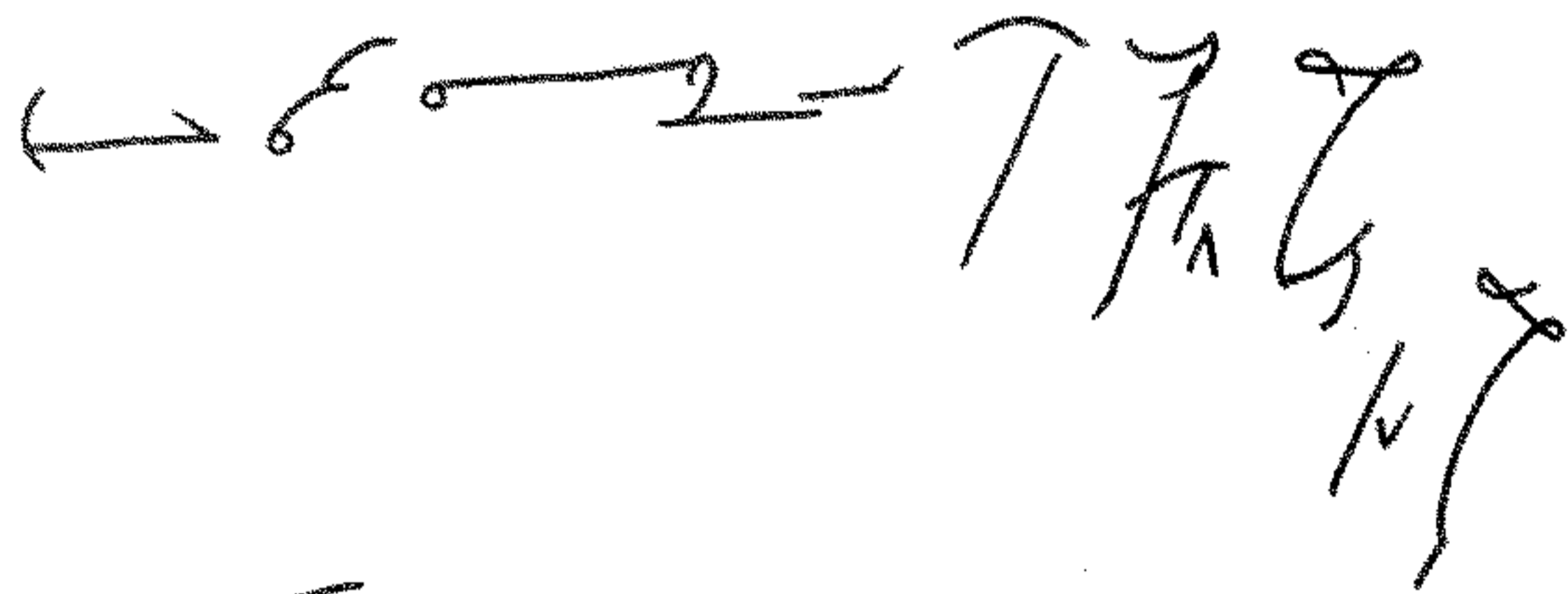
문제에 골몰하기보다는 우리를 결합시키는
문제를 찾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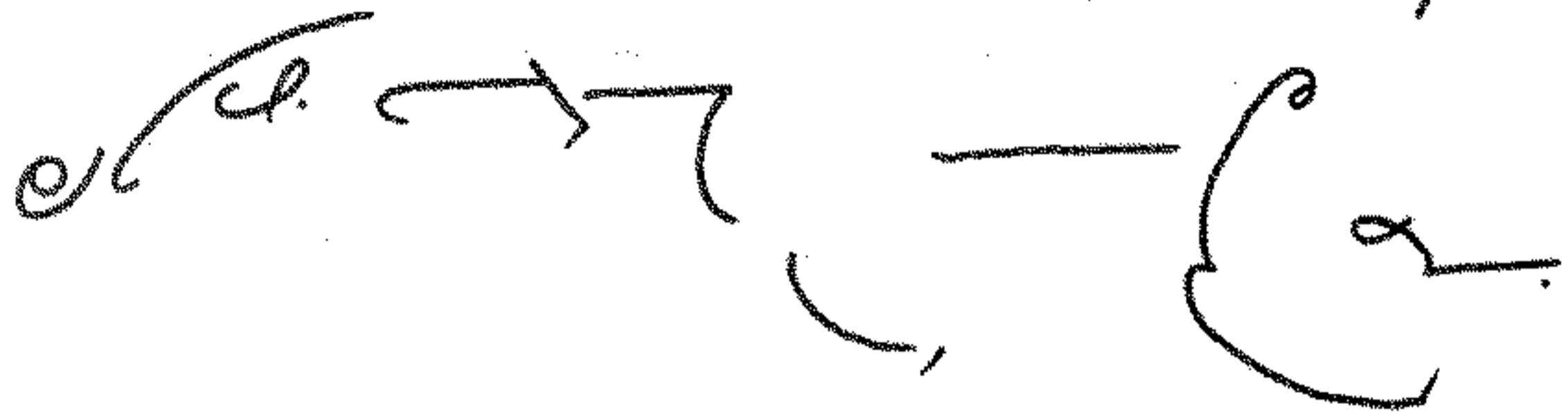
내게 합시다. 양 진영으로 하여금 최초의 일
이지만 군비 통제와 감시에 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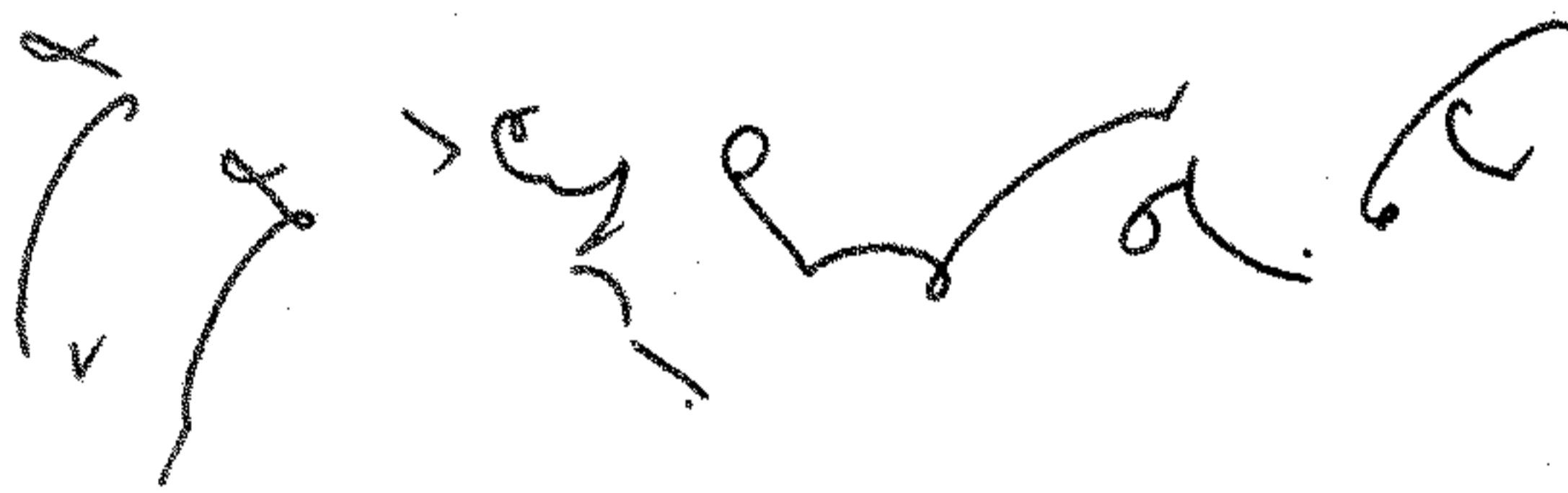
진지하고도 세밀한 제안을 마련케 하여, 다른
나라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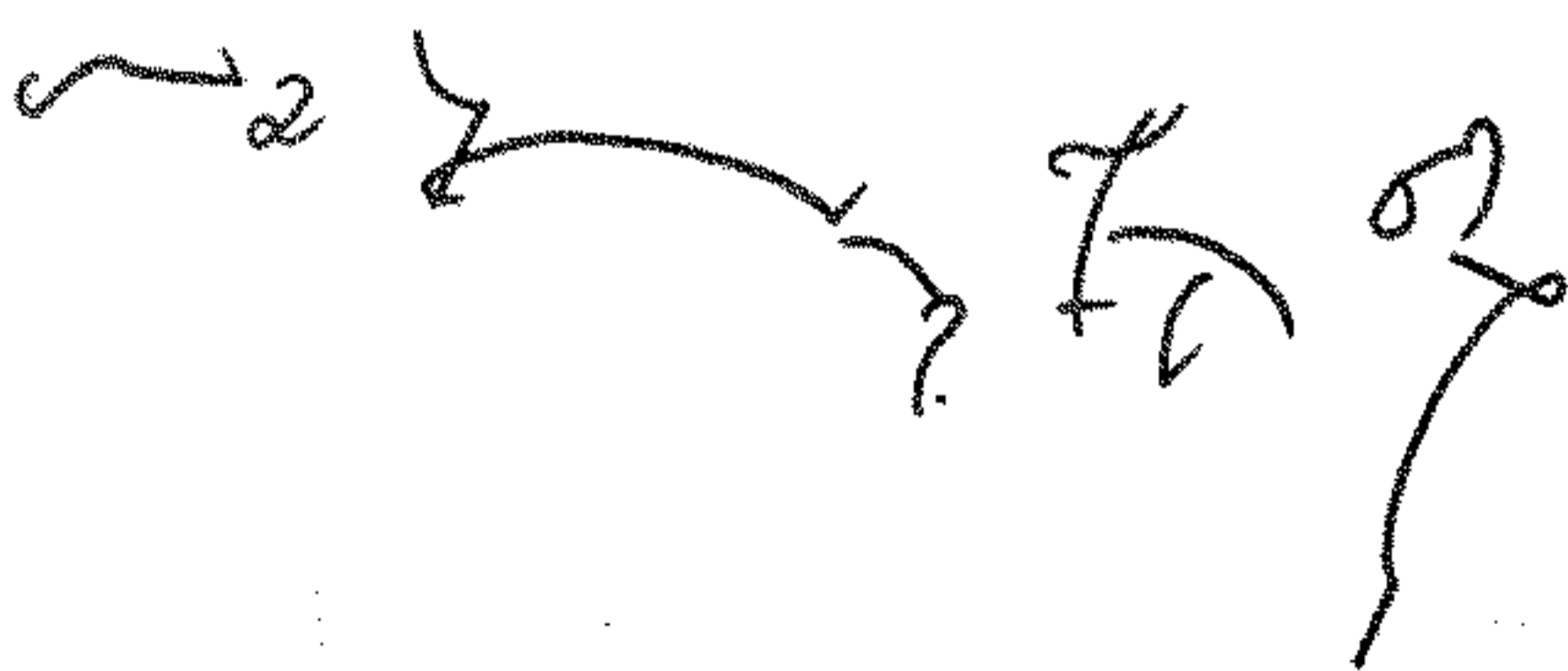
파괴하는 전제권력 국가를 모든 나라들의 절
대적인 감시 아래 두도록 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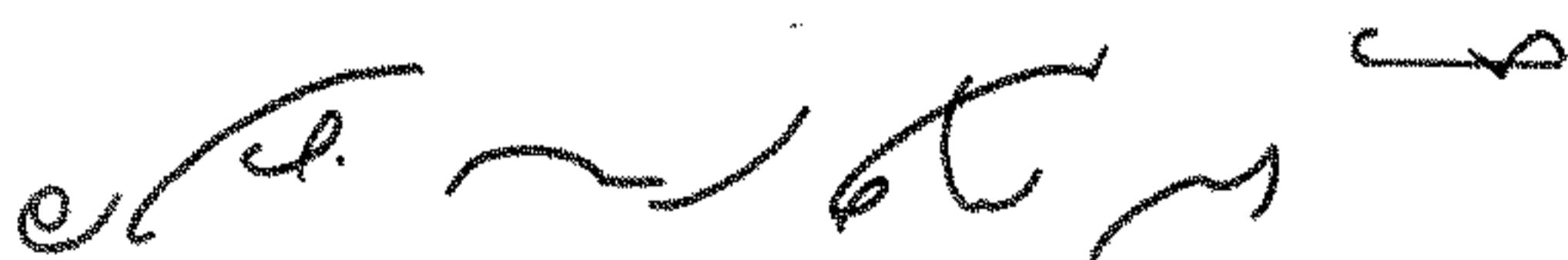
양 진영으로 하여금 과학의 공포보다도
그 신비를 탐구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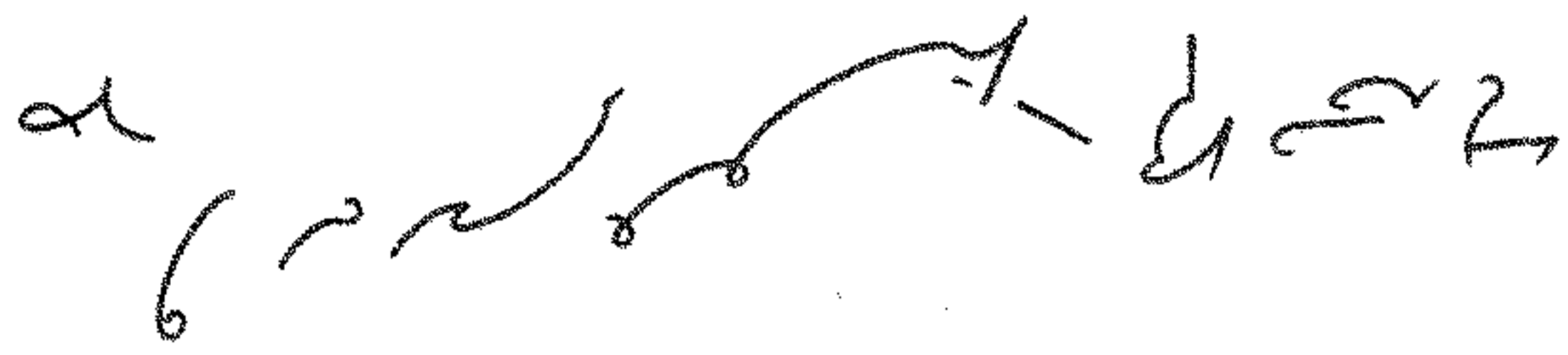
합심토록 합시다. 함께 별나라를 탐험하고,
황무지를 정복하고, 질병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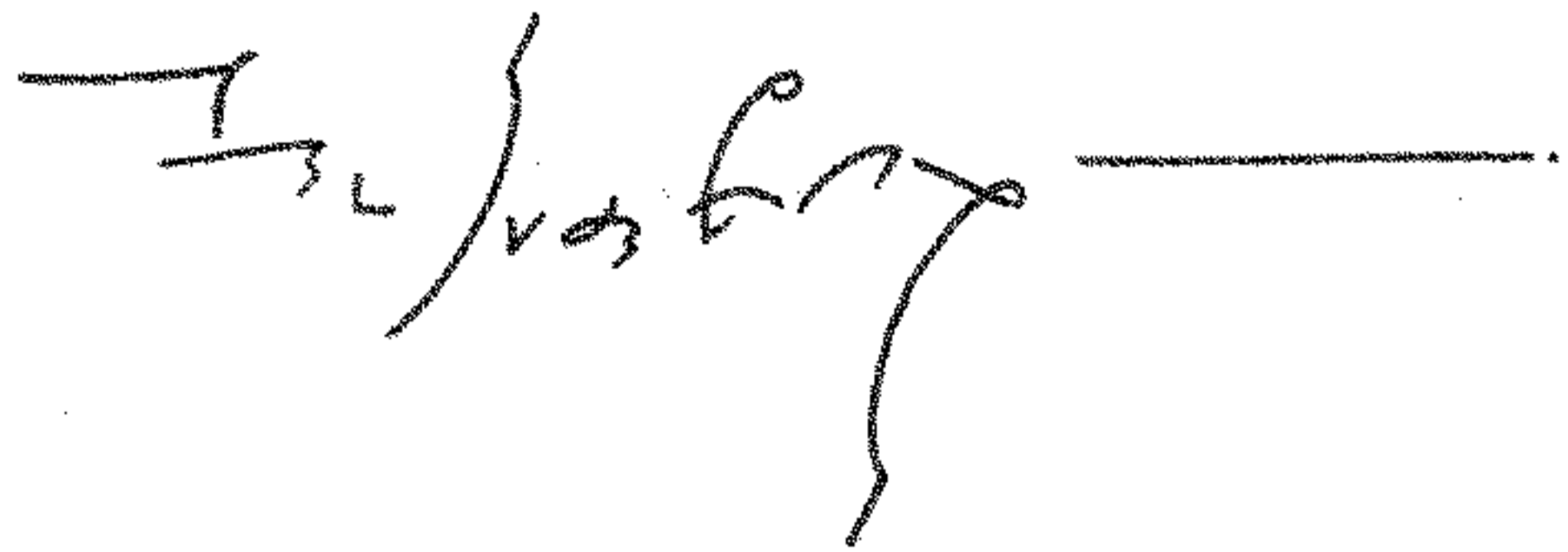
제거하는 한편, 바다 밑을 탐색하고, 예술과
통상을 장려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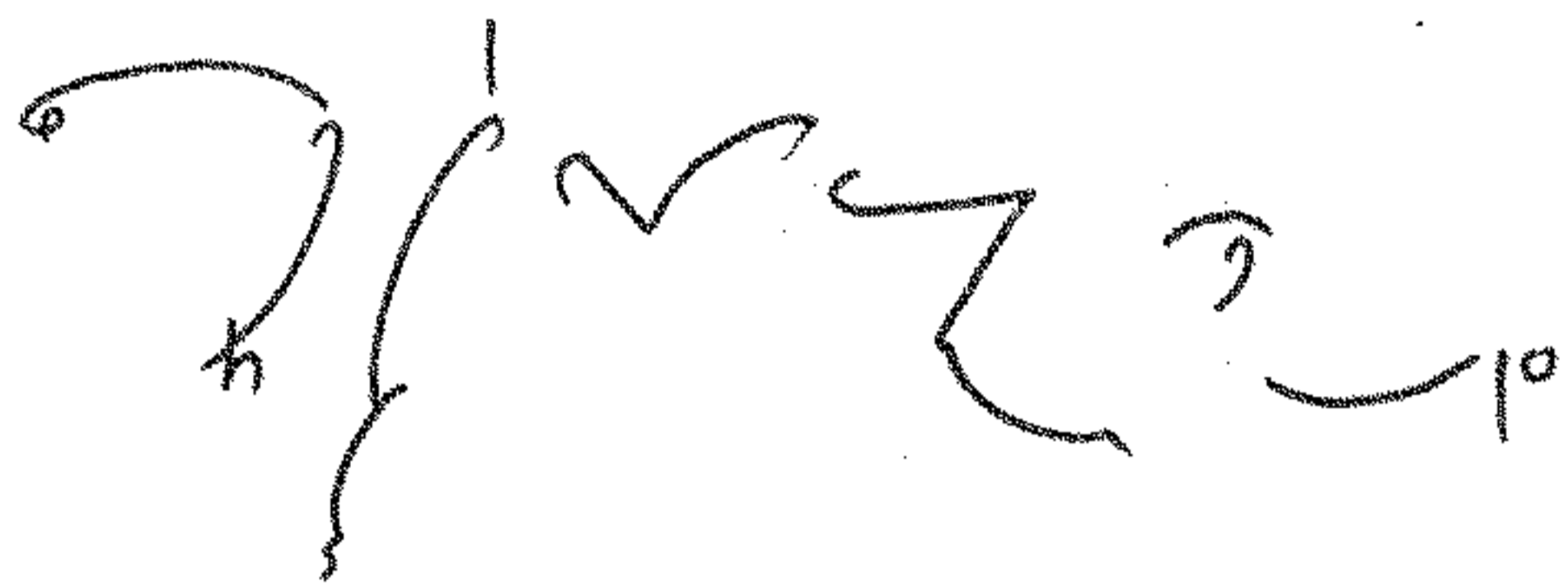
양 진영으로 하여금 <무거운 짐을 풀어 주
어라(그럼으로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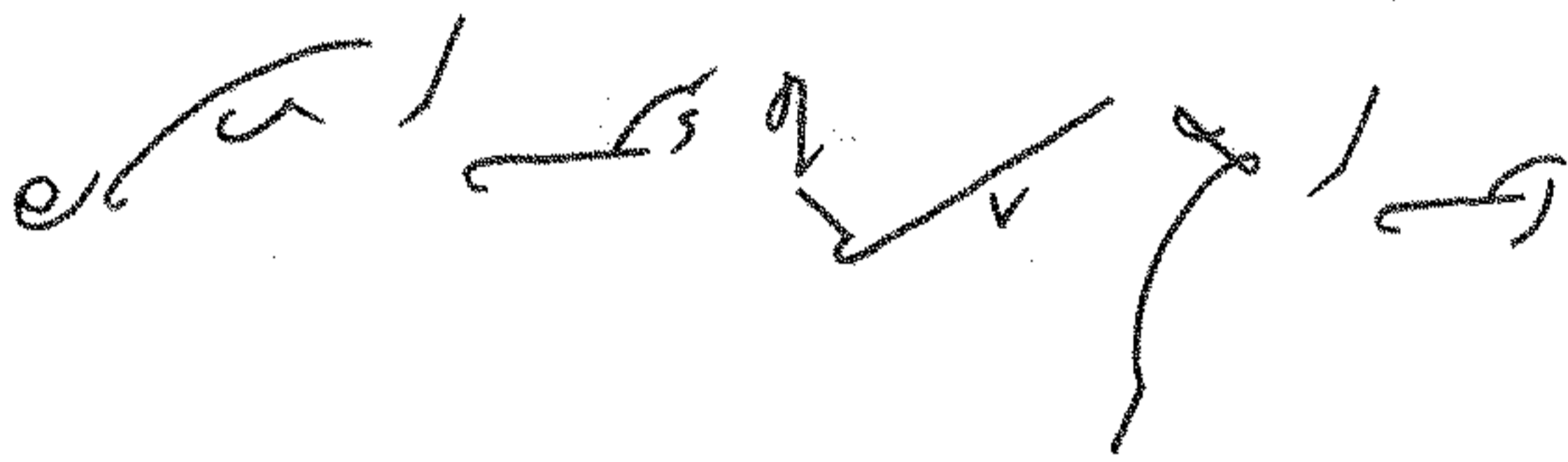
.....압박받는 자에게 자유를 줄지어다>라고 한 이사야의 계명을 세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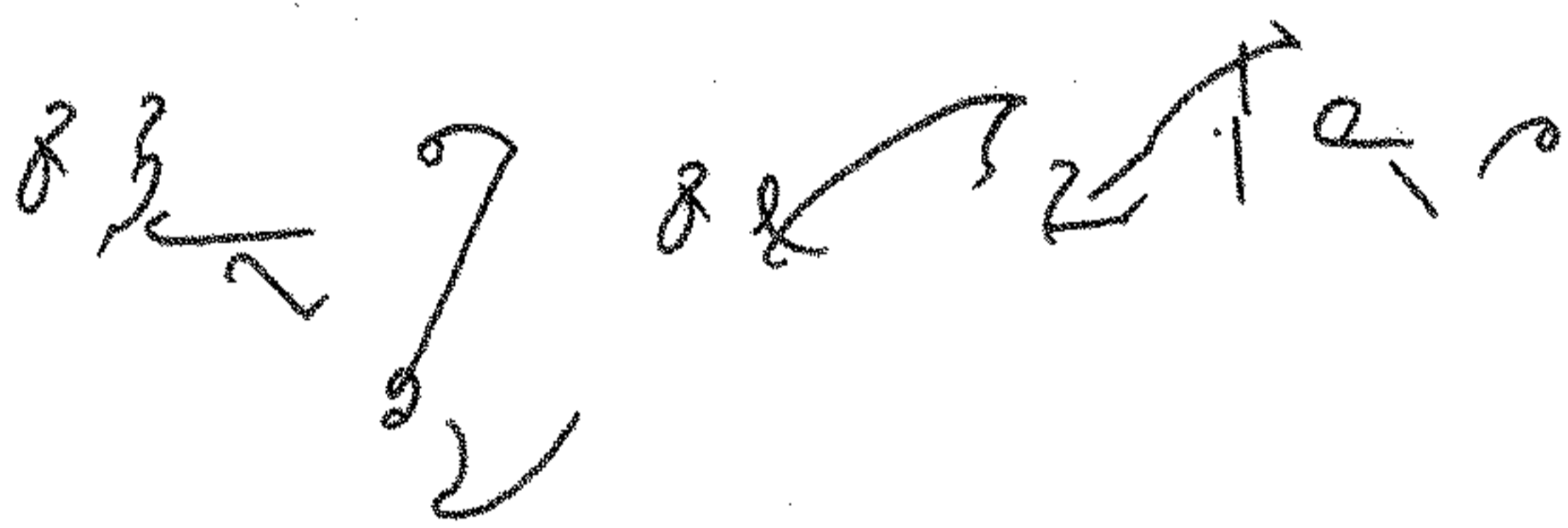
구석구석에서까지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손을 맞잡게 합시다. 그리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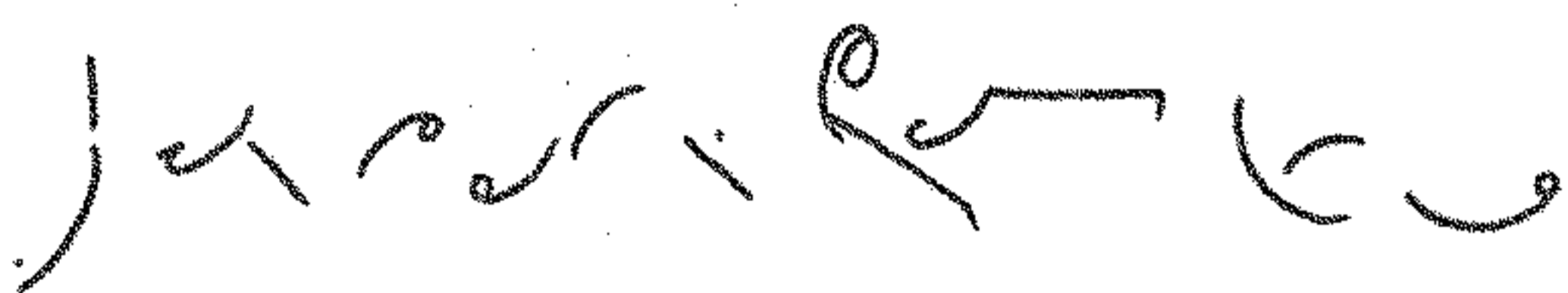
밀림과 같은 의심 속에서 협조의 교두보가 마련될 수 있다면,



양 진영은 다음의 과제를 위해서 힘을 합치도록 합시다. 다음의 과제란



새로운 세력의 균형을 만드는 것이 아니요, 새로운 범질서의 세계를 창조하는 일이니 강한 자는



의롭고 약한 자는 안전하며, 평화가 영구히 보장되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업은 앞으로 백일

Handwritten calligraphy practice stroke 1

동안에 모두 이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천의 날을 거듭하여서도 이룩되지 않을 것이며,

Handwritten calligraphy practice stroke 2

이 행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이룩되지 않을 뿐 아니라,

Handwritten calligraphy practice stroke 3

심지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숨을 걷는 날까지도 아마 성취되지 않을 것인지도

Handwritten calligraphy practice stroke 4

모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시작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Handwritten calligraphy practice stroke 5

지향하는 노선의 최종적 성패 여부는 나보다도 오히려

Handwritten calligraphy practice strok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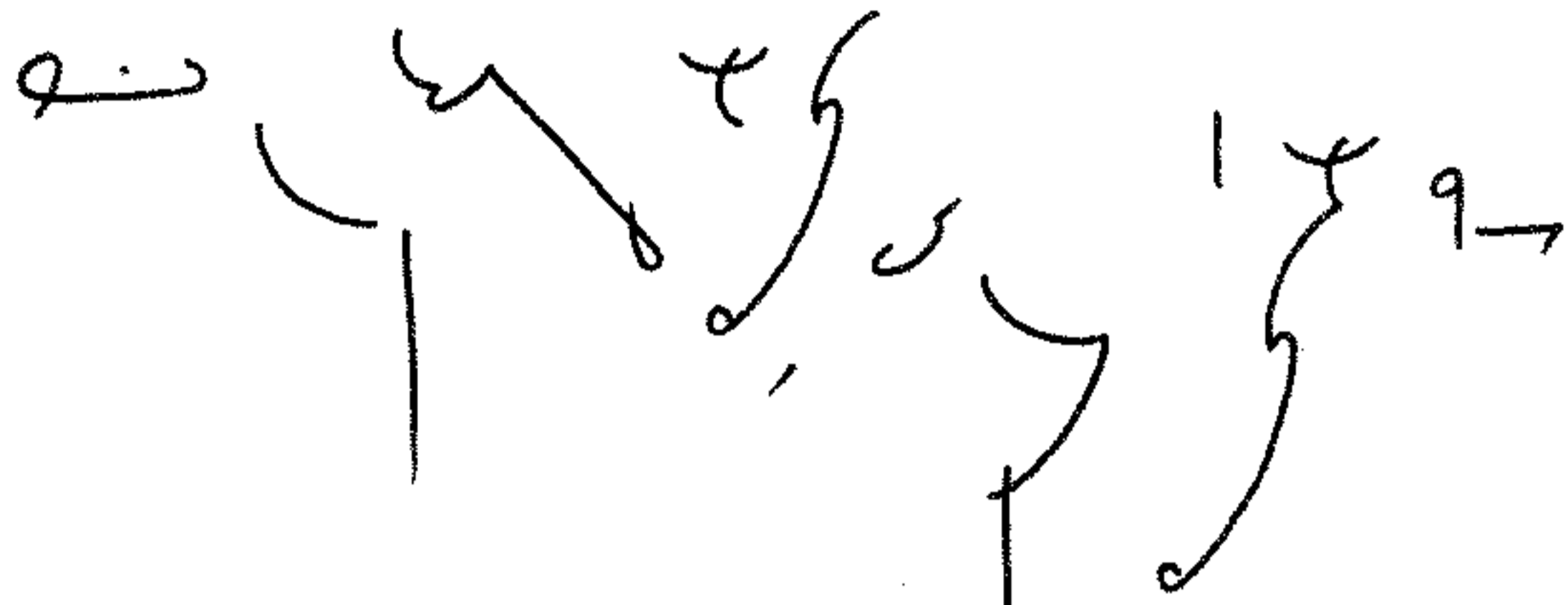
여러분의 손에 의해서 좌우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창건 이래로 각 세대는 그 시대마다

Handwritten calligraphy practice stroke 7

국민으로서의 충성을 입증하도록 부름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부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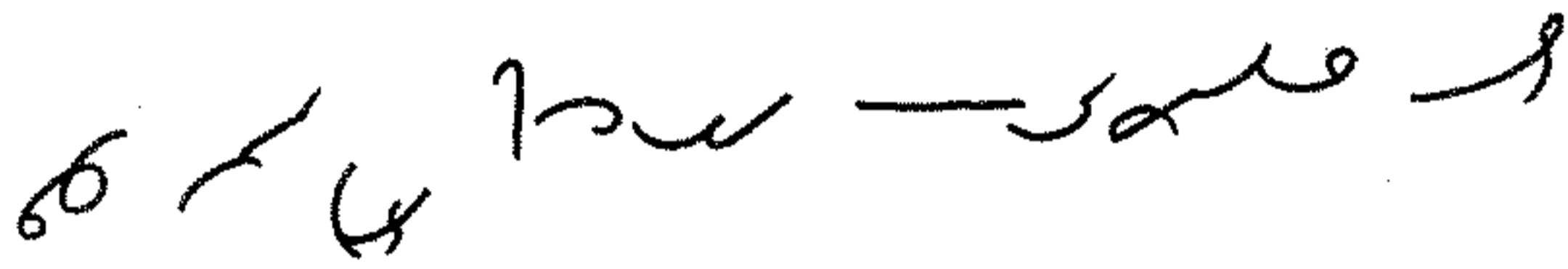
응한 젊은 미국인들의 무덤은 세계의 어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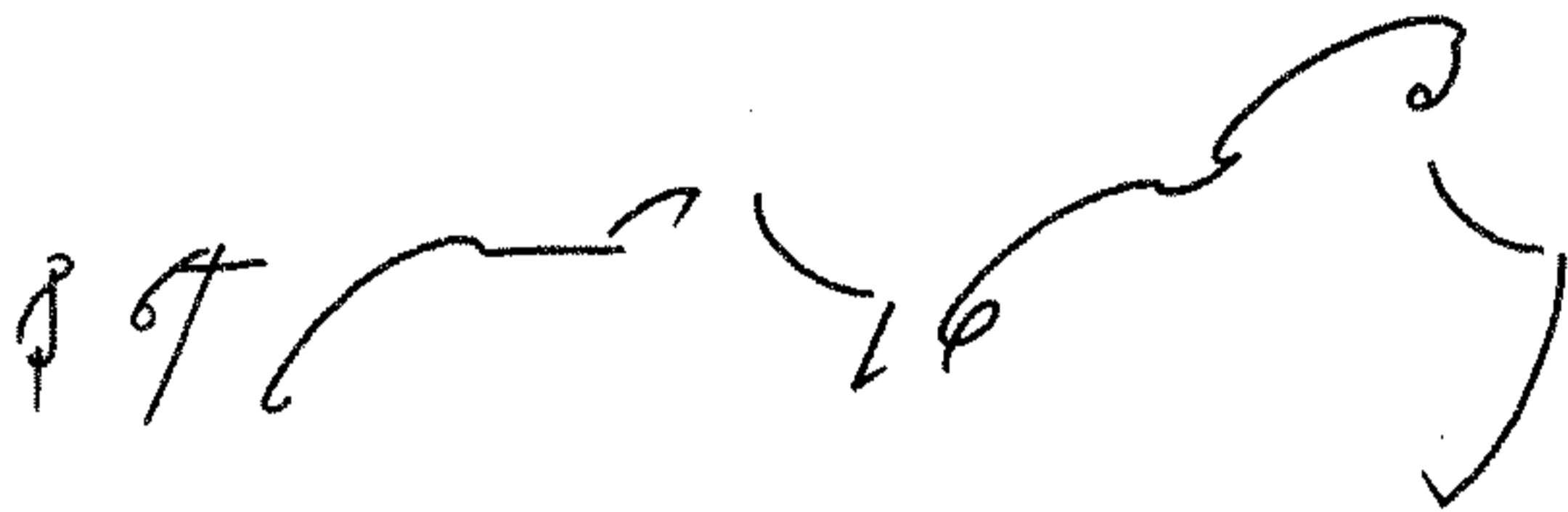
곳에나 볼 수 있습니다. 바야흐로 나팔소리는
다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나팔소리
는 인간의



공통된 적인 폭정·빈곤·질병 그리고



전쟁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희망에 넘쳐 고
난을 참아내는, 오랜









세월에 걸쳐 전개될 지구전의 부담을 짊어지
라는 부름입니다.

* 자신이 쓴 속기문자를 읽어보자<실전연습은 쓰고 읽기를 위주로 한다>.

















손풀기: 기본문자 복습... ㄹ받침, ㄱ받침 3회 이상 써보자.

♣ 동 사

13. 복합동사 응용 (2)

	드리 것 ^ㅇ 이올시다		드리 것 ^ㄱ 처럼
	드리 것 ^ㅇ 같이		드린 것 ^h 같은
	드린 것 ^ㄴ 까지		드린 것 ^ㅇ 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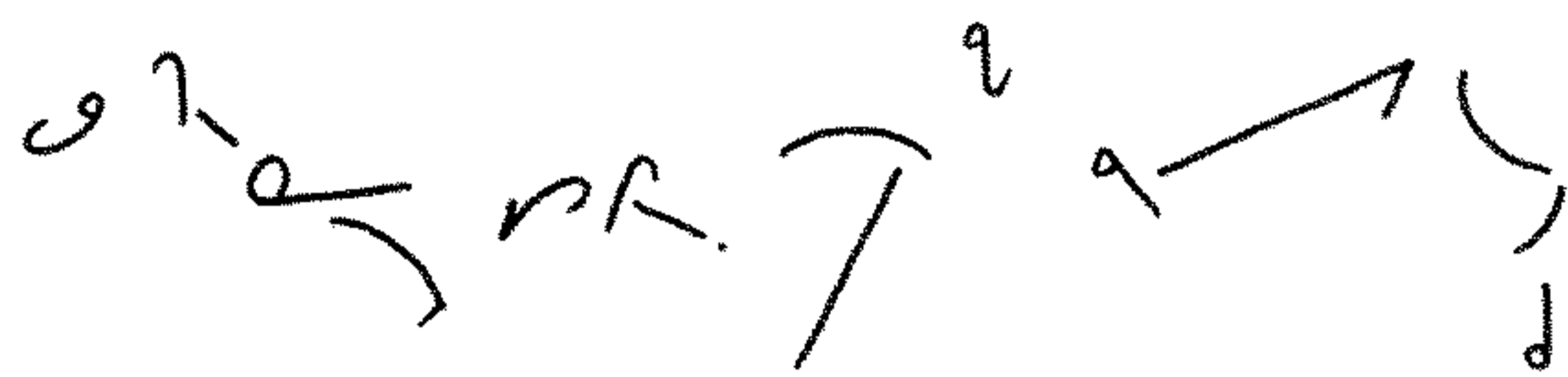
14. 상선약자 (7)

	(기) 일어나다		(광) 미치다, 빛나다
	(개) 열리다, 고치다		(난) 어렵다
	(각) 깨닫(는)다		(득) 얻(는)다
	(견) 세우다		(동) 움직이다
	(내견) 내세우다		(란) 어지럽다
	(앞견) 앞세우다		(로) 나타나다
	(근) 부지런하다		(미) 아름답다
	(감) 느끼다		(분) 나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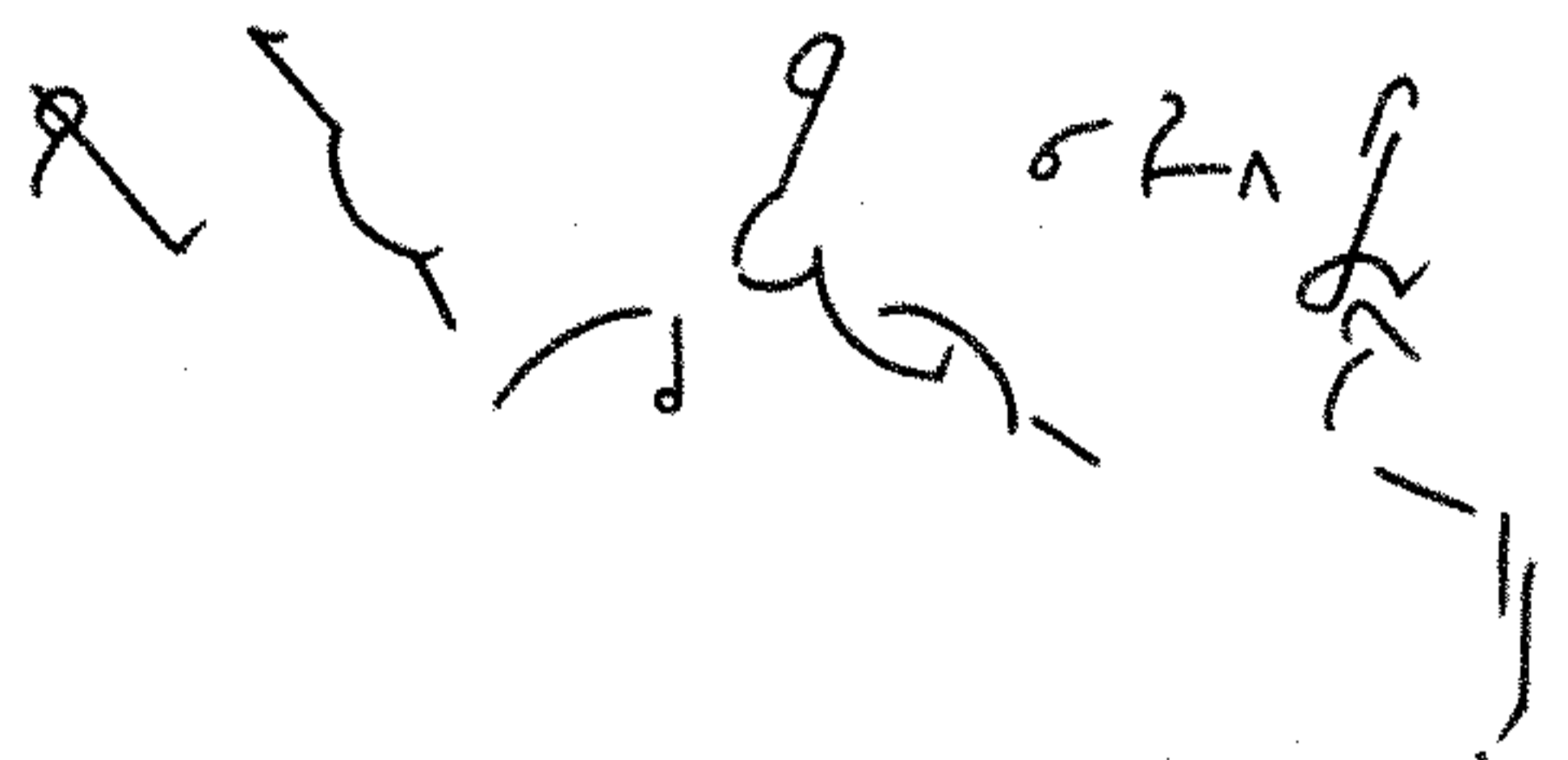
참고 : 「느껴져!», 「일어나!」 등과 같이 「ㄱ, ㄴ, ㄷ」로만 끝날 때는 조사 「에」와 같이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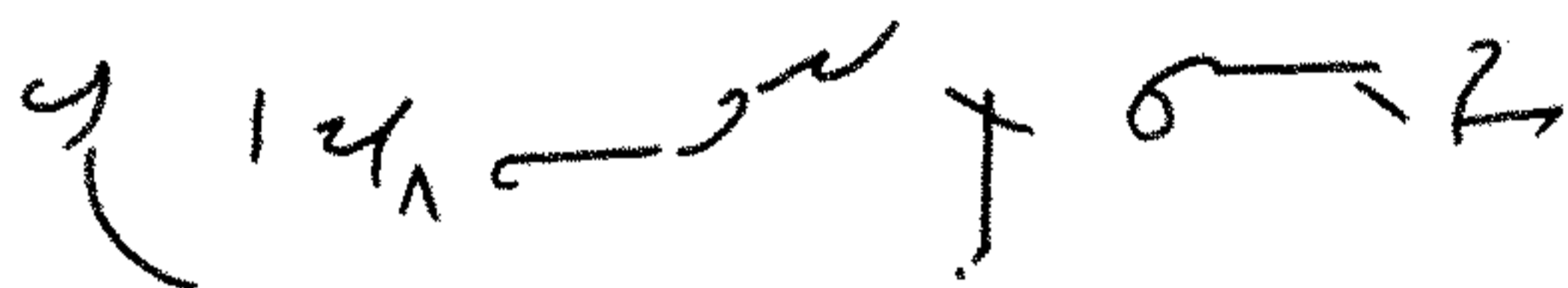
<실전연습 27>... 한글문장을 속기문자로 옮겨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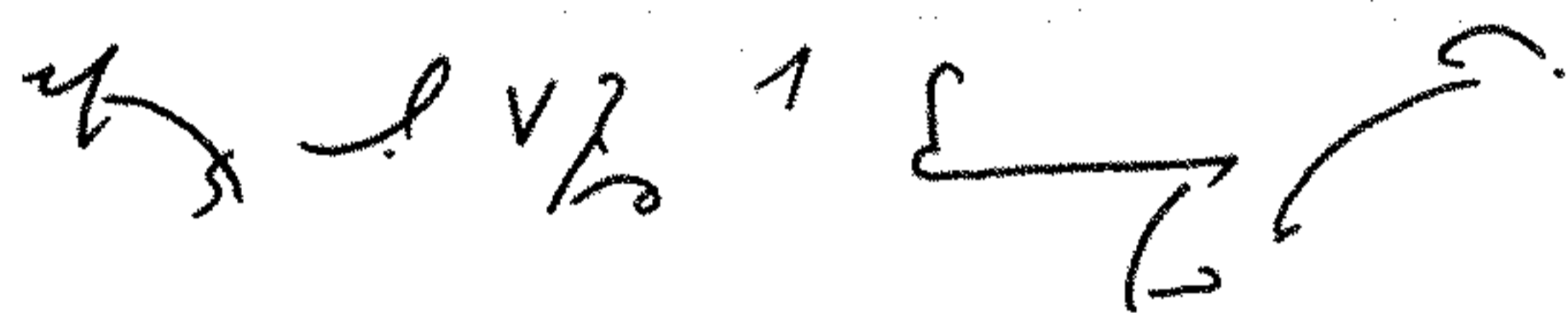
우리는 이러한 공통의 적에 대항하여 모든 인류에게 한층 더 보람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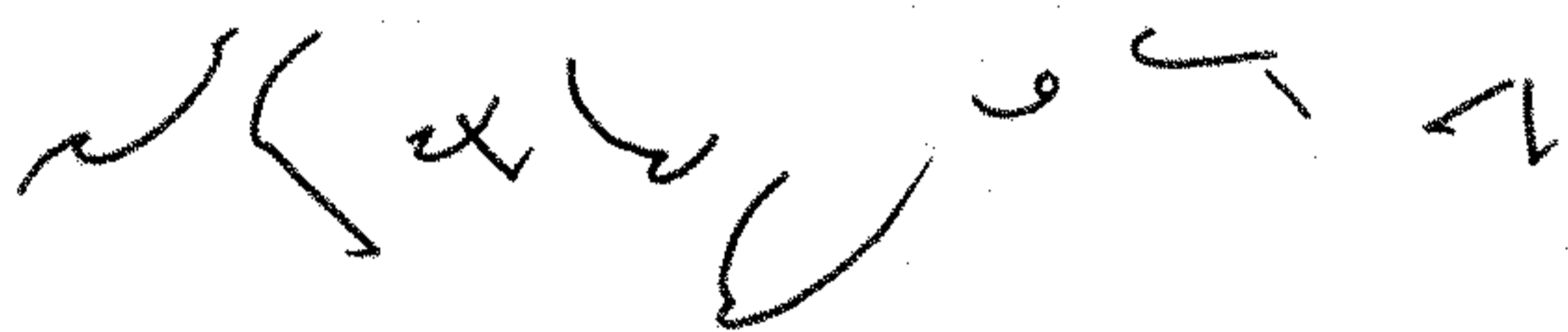
생활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동서남북을 통한 전 세계적인 대동맹을 형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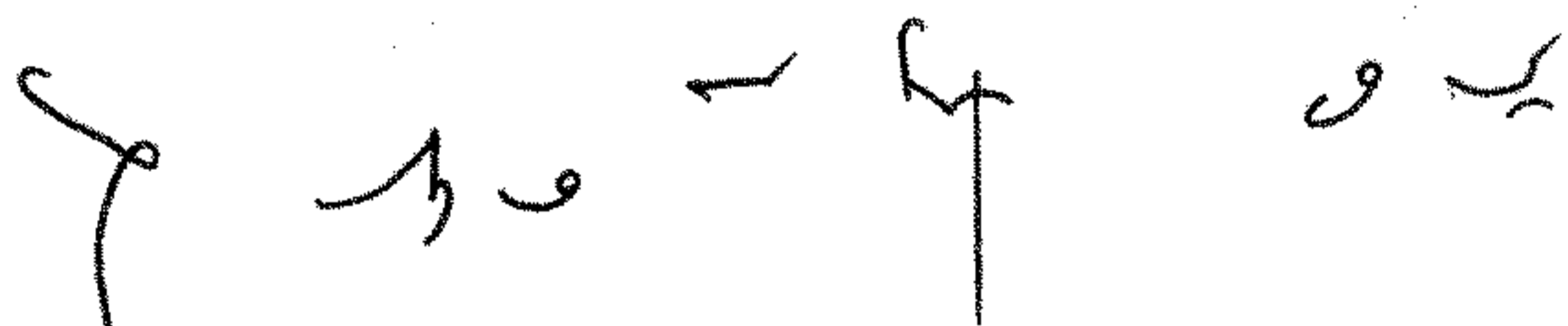
여러분! 이 역사적인 과업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장구한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오로지 몇 세대만이 최대 위기의 순간에 직면하여



자유를 수호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나는 그러한 책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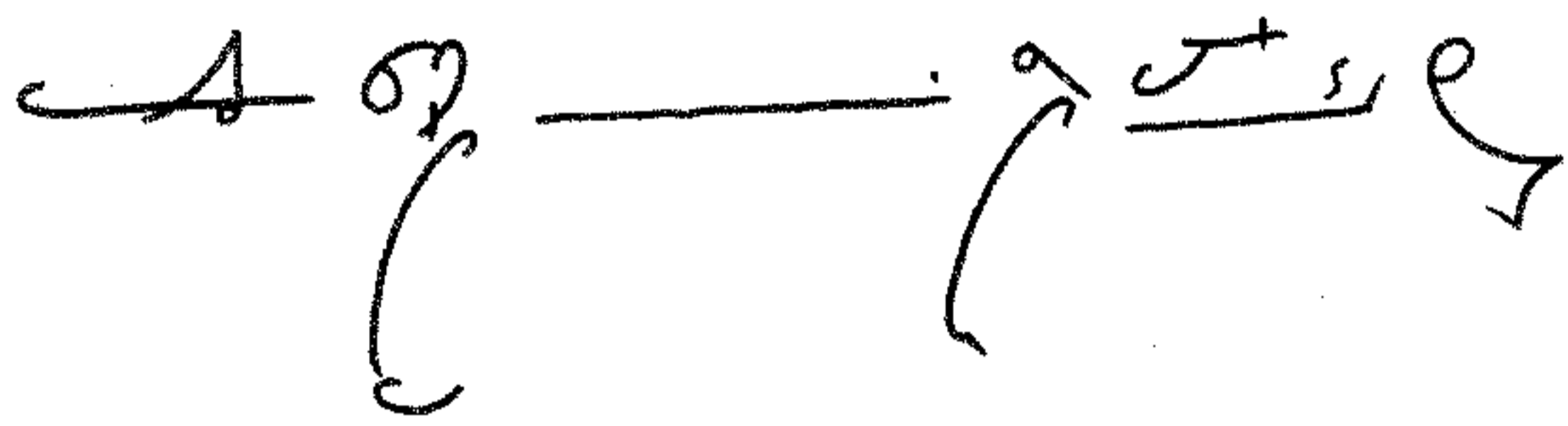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것을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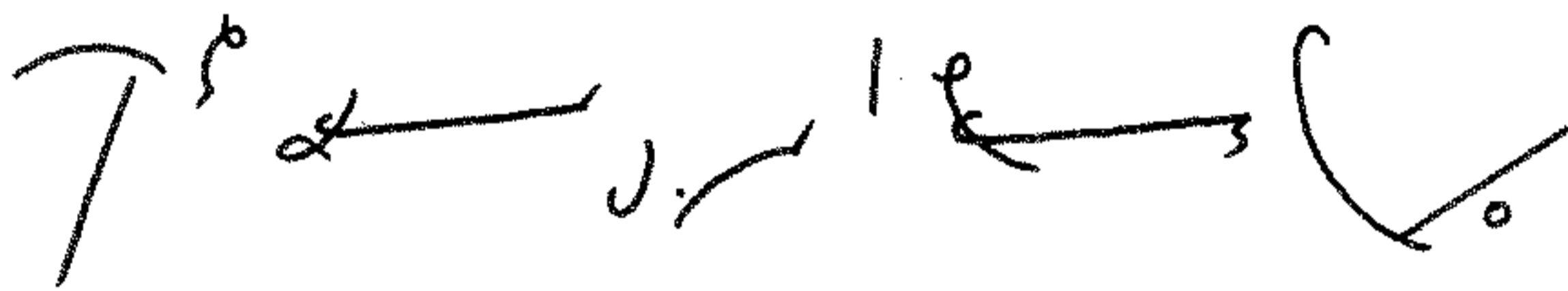
그의 주어진 입장을 다른 사람과 바꾸려 하거나 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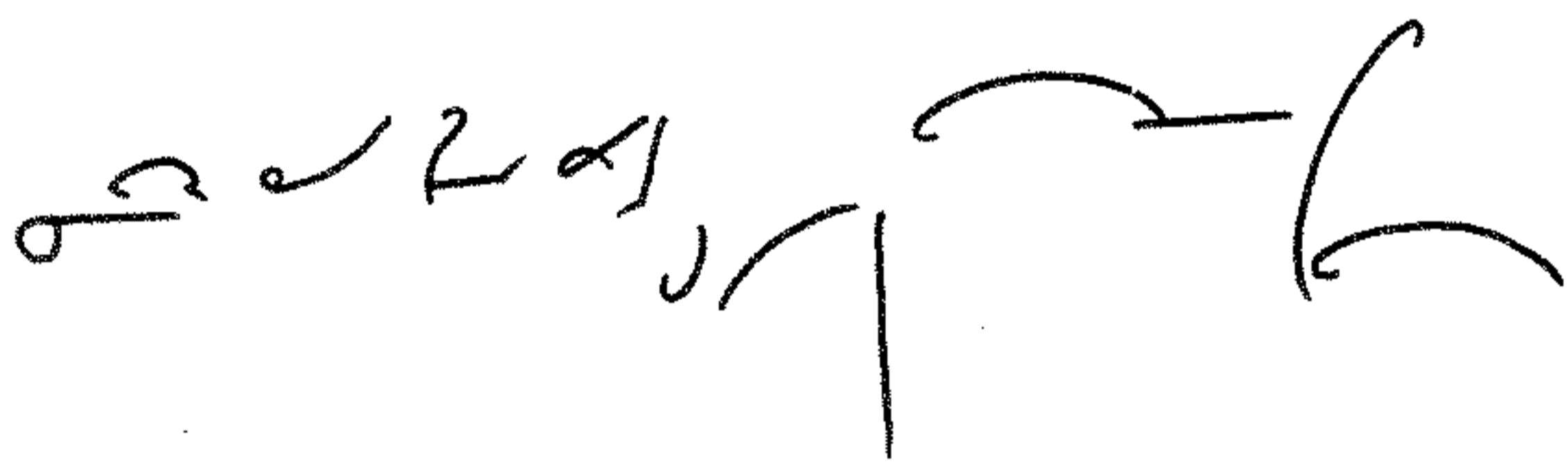
다른 세대를 부러워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과업을 위해서



기울이는 정력과 신념, 그리고 헌신은 우리나라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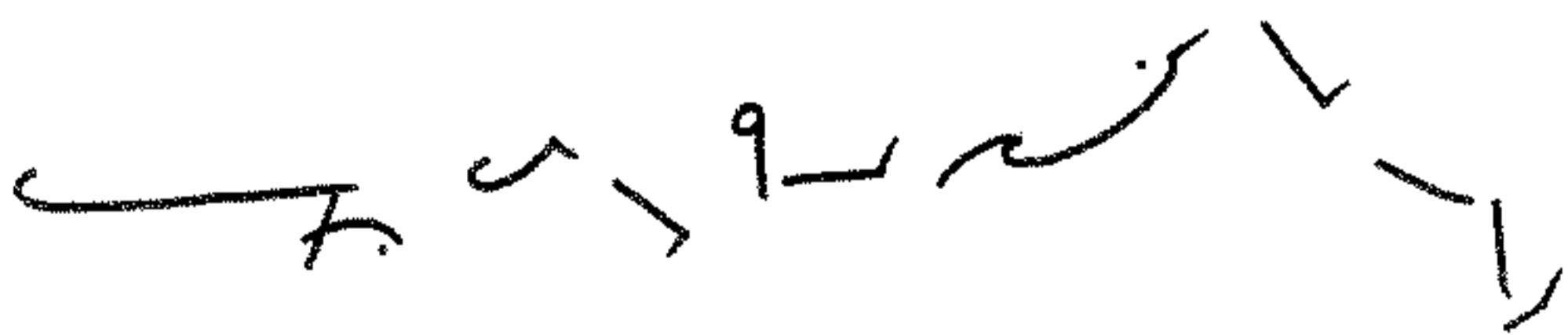
모든 사람들의 앞길을 밝혀 줄 것이며, 이 불길에서 비취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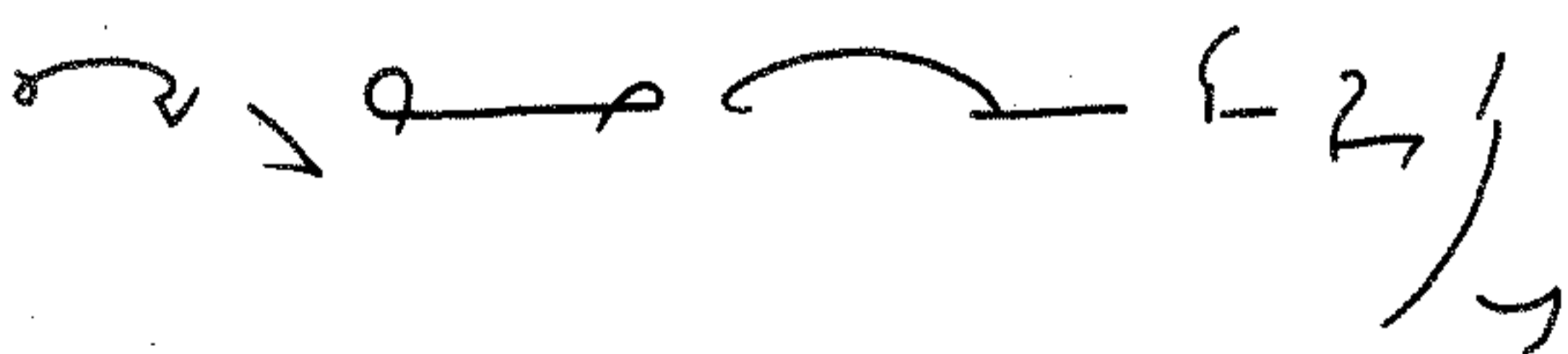
광명은 온 세계를 참답게 밝혀 줄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나라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기대말고, 우리가 함께 인간의 자유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끝으로, 미국 사람이건 세계의 다른 나라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市民이건을 막론하고,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와 똑같은

市民이건을 막론하고,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와 똑같은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높은 수준의 힘과 희생을 우리에게 기대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양심의 평안만을

높은 수준의 힘과 희생을 우리에게 기대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양심의 평안만을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우리의 유일한 보상으로 알고 우리의 행동에 대한 최종적 심판은 역사에 맡기고,

우리의 유일한 보상으로 알고 우리의 행동에 대한 최종적 심판은 역사에 맡기고,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하나님의 축복과 도움을 빌면서, 그러나 이 세계에서 신의 섭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도움을 빌면서, 그러나 이 세계에서 신의 섭리가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진실로 우리들 인간 스스로의 과업임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를

진실로 우리들 인간 스스로의 과업임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를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이끌기 위하여 앞장섭시다.

이끌기 위하여 앞장섭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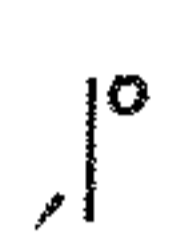















* 자신이 쓴 속기문자를 읽어보자 <실전연습은 쓰고 읽기를 위주로 한다>.

손풀기: 기본문자 복습...ㄴ받침, ㅇ받침 3회 이상 써보자.

♣ 통 사

15. 「~하, ~이」 생략법

「~하, ~이」는 철저히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할 경우만 사용한다.

		드리느냐 하면		된다고 하면
응용		있다고 한다면		본다고 하니
		시킨다고 할까		했다고 하는가
		했다고 하는 것을		있느냐 하는 것을
		건전하다는 것은		성공한다는 것은
		사랑이며(하며)		왜냐하면
15-1. 「~게 + 된」		드리게 된		가지게 된
응용		보게 된 것이다(을)		보게 된 것은
		보게 된 것이었다		보게 된 것으로

<실전연습 28> ... 한글문장을 속기문자로 옮겨보자.



친애하는 6000만 동포여러분! 나는 오늘 온겨레의 염원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새 공화국의 정책을 밝히려 합니다.

우리 민족이 남북분단의 고통을 겪어온
지 반세기가

우리 민족이 남북분단의 고통을 겪어온
지 반세기가

가까워 옵니다. 분단의 역사는 우리 민족에게
술한 시련과 고통을

가까워 옵니다. 분단의 역사는 우리 민족에게
술한 시련과 고통을

주었으며 민족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남북분단의 장벽을

주었으며 민족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남북분단의 장벽을

허물어 변영된 통일조국을 여는 길을 개척하
는 것이야말로

허물어 변영된 통일조국을 여는 길을 개척하
는 것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 겨레 모두에게 맡겨진 민
족사의

오늘을 사는 우리 겨레 모두에게 맡겨진 민
족사의

소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이한 이념과 체
제로 분단된 남북은 동족상잔의 전쟁을

소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이한 이념과 체
제로 분단된 남북은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렀으며 남북으로 갈라진 겨레는 분단 그날
부터

치렀으며 남북으로 갈라진 겨레는 분단 그날
부터

Handwritten calligraphy: 上 下 中 外 一 心 同 體

오늘까지 서로가 서로를 불신 비방하며, 서로를 적대시하는 고통스러운

Handwritten calligraphy: 分 斷 上 下 中 外 一 心 同 體

분단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분단은 우리 민족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나

Handwritten calligraphy: 民 族 統 一 是 我 們 的 責 任

민족통합은 우리의 책임아래 우리의 자주적 역량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Handwritten calligraphy: 我 們 是 一 個 民 族 的 體 系

우리는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의 밝은 시대를 함께 열어가야 합니다. 이제는 민족

Handwritten calligraphy: 全 體 的 福 祉 和 變 革 爲 目 的 而 努 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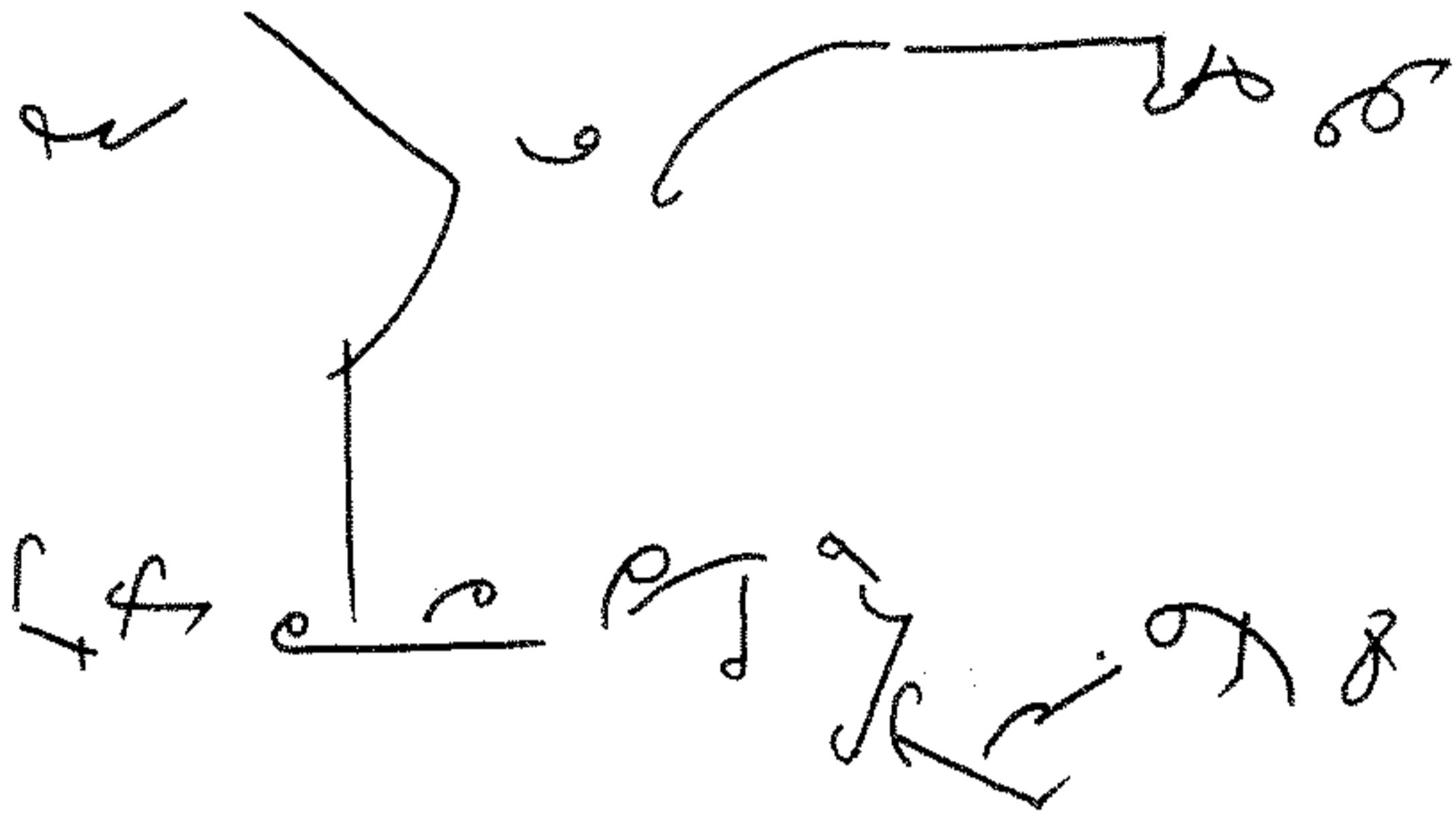
전체의 복지와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할 때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이념과

Handwritten calligraphy: 體 制 的 超 越 而 進 入 和 解 與 合 作 的 時 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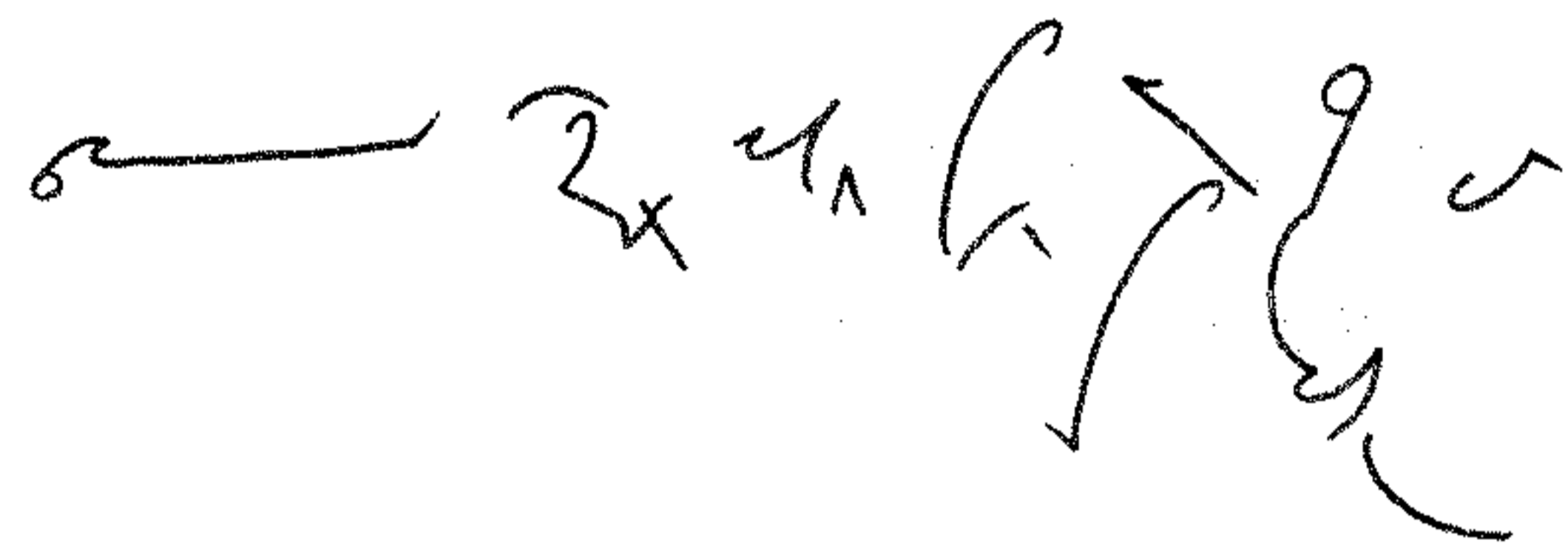
체제를 초월하여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문화와 역사가 다른

Handwritten calligraphy: 民 族 間 亦 有 過 激 的 開 放 與 交 流 的 新 時 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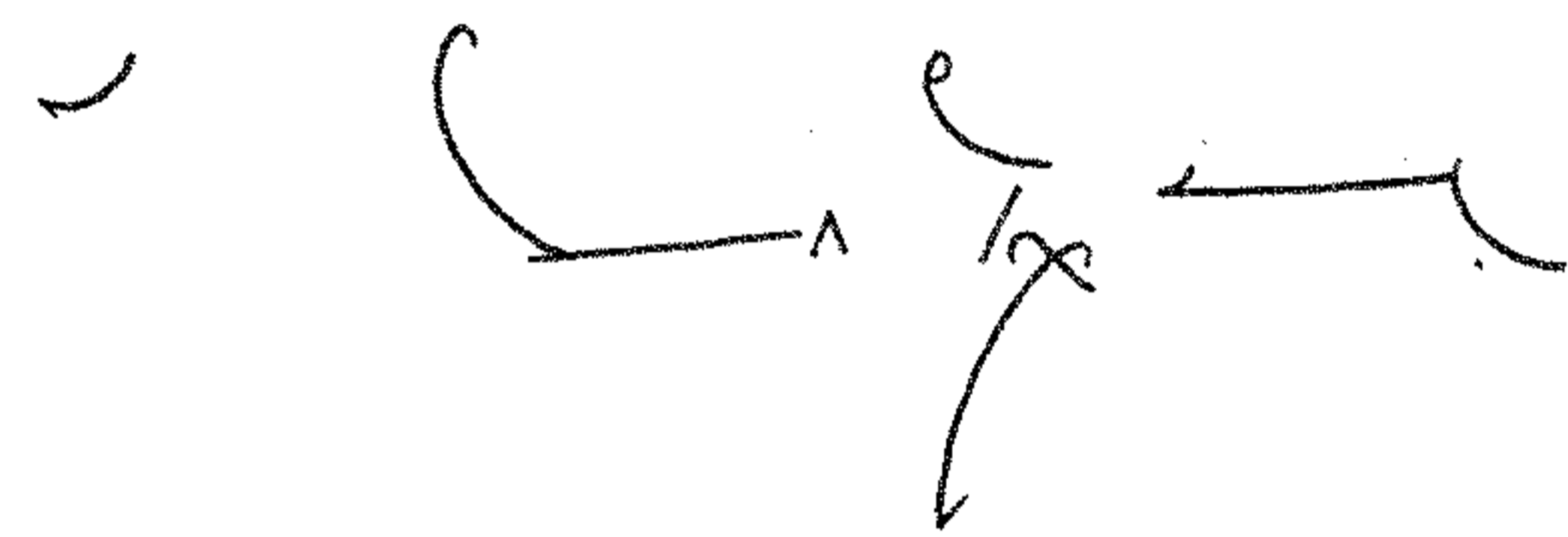
민족 사이에도 과감한 개방과 교류의 새 물결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이야말로 전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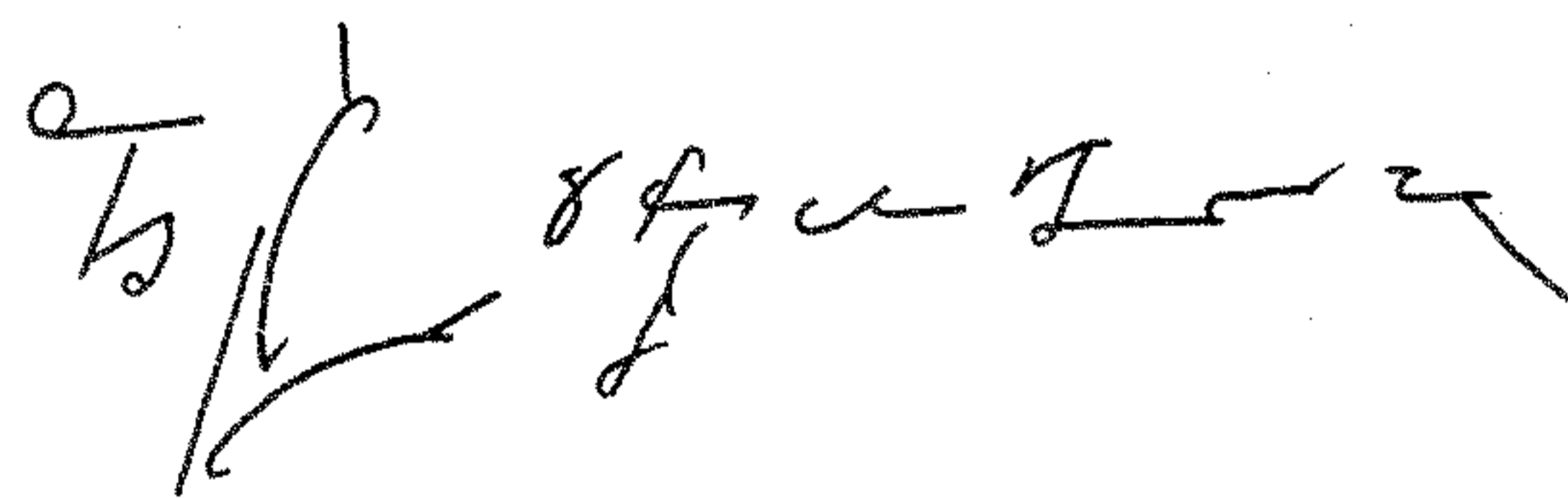
위험과 대결의 긴장이 상존하고 있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여야 할 역사적인 시점이라고 확신합니다. 동포여러분! 우리가



아직 비극적인 분단현실을 극복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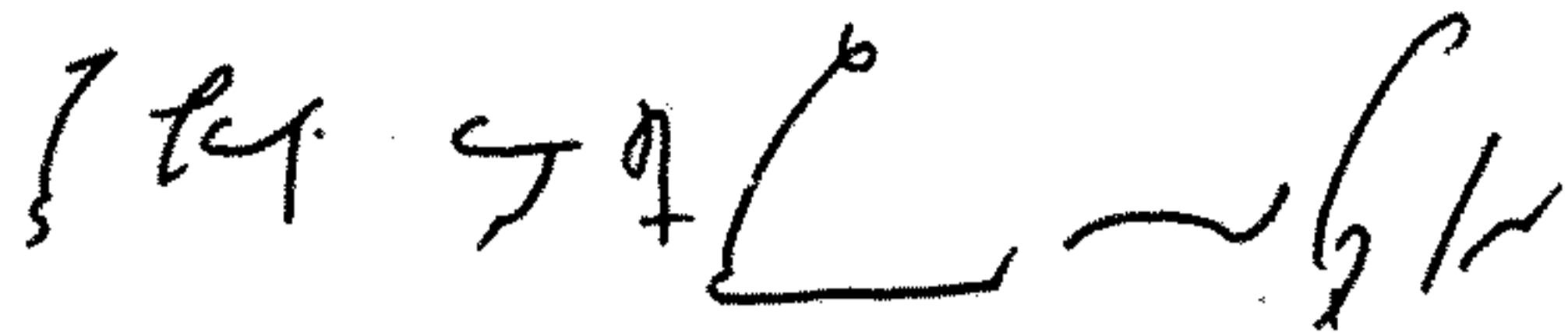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남과 북이 민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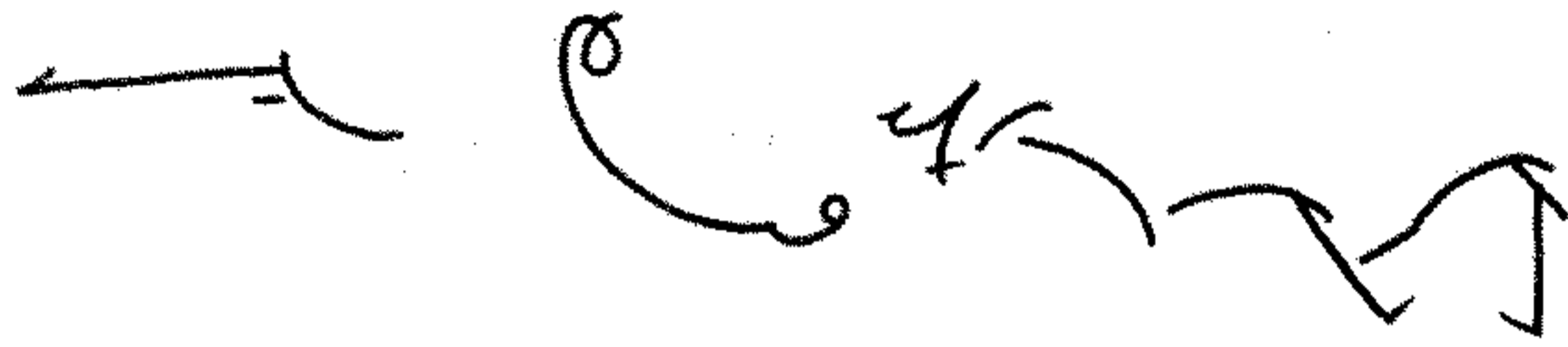


공동체라는 의식을 등진 채 서로를 대결의 상대로 여겨 적대관계를 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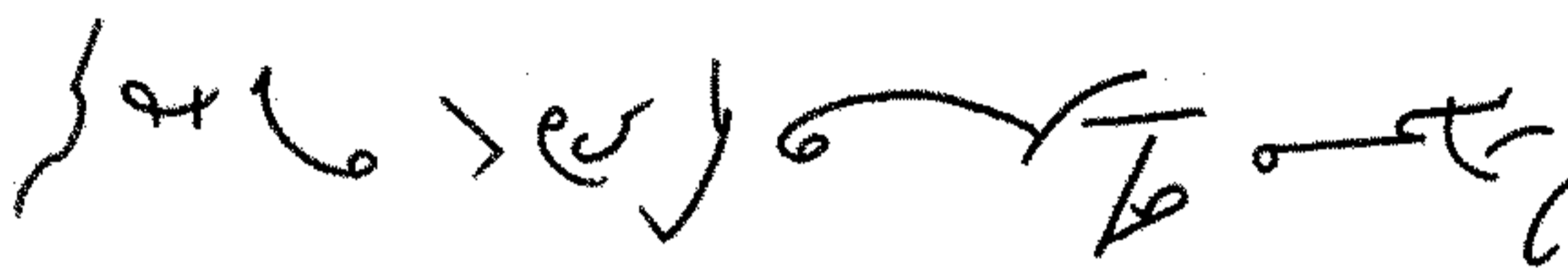
시켜 온 데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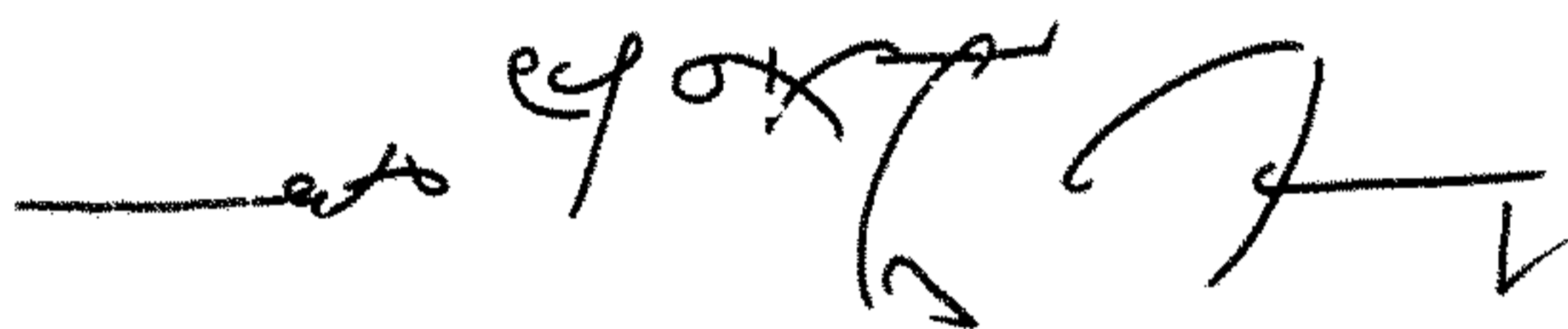
속에서 삶을 영위하며 겨레의 힘과 슬기를 모아 시련과 도전을



극복하면서 빛나는 역사와 전통문화를 창조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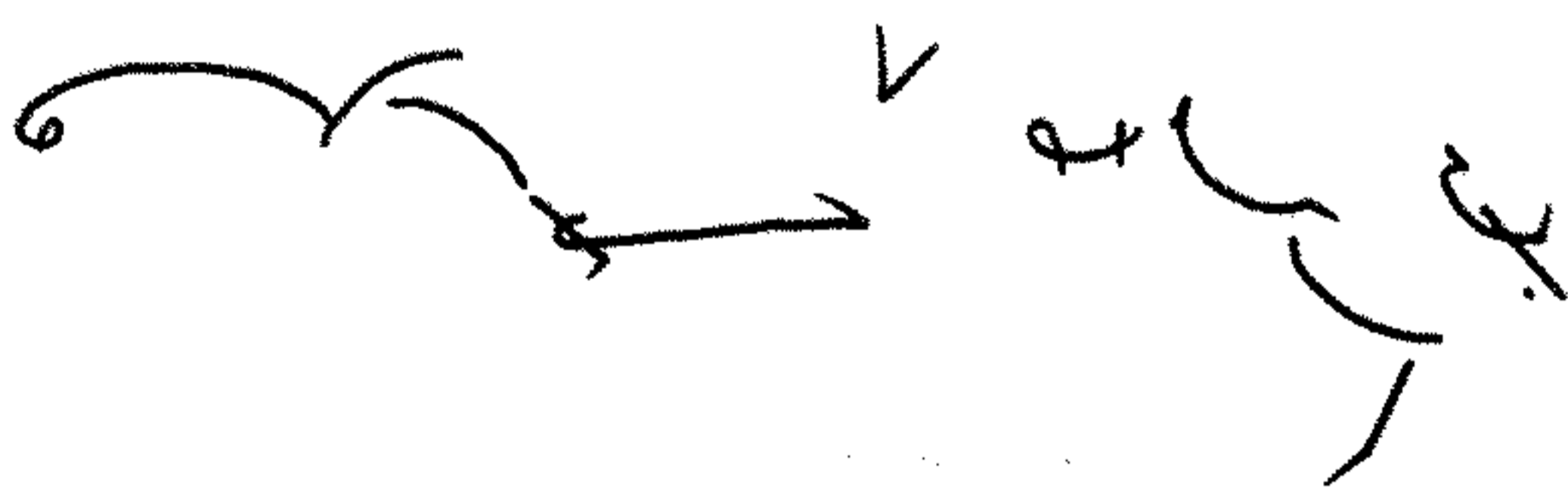
따라서 남과 북이 함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공동체로서 관계를 발전시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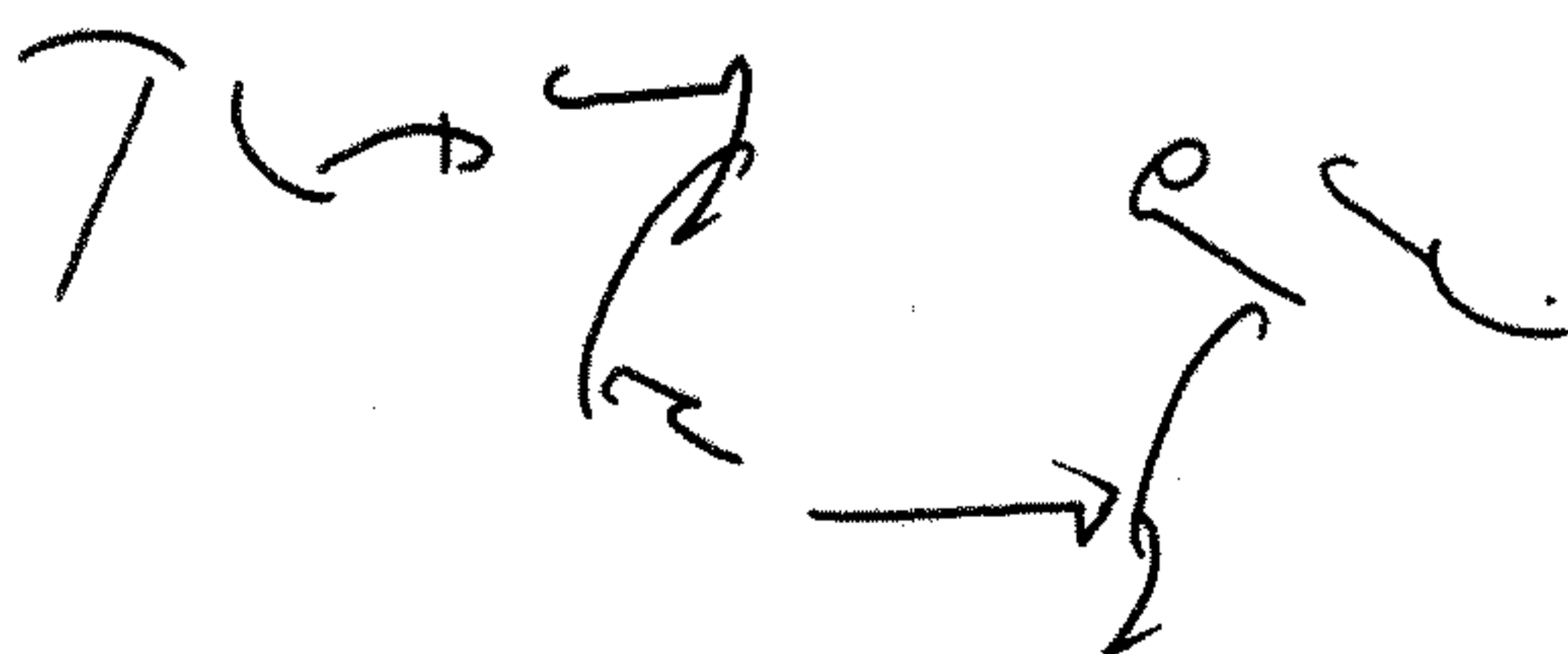
나가는 것이야말로 번영된 통일조국을 실현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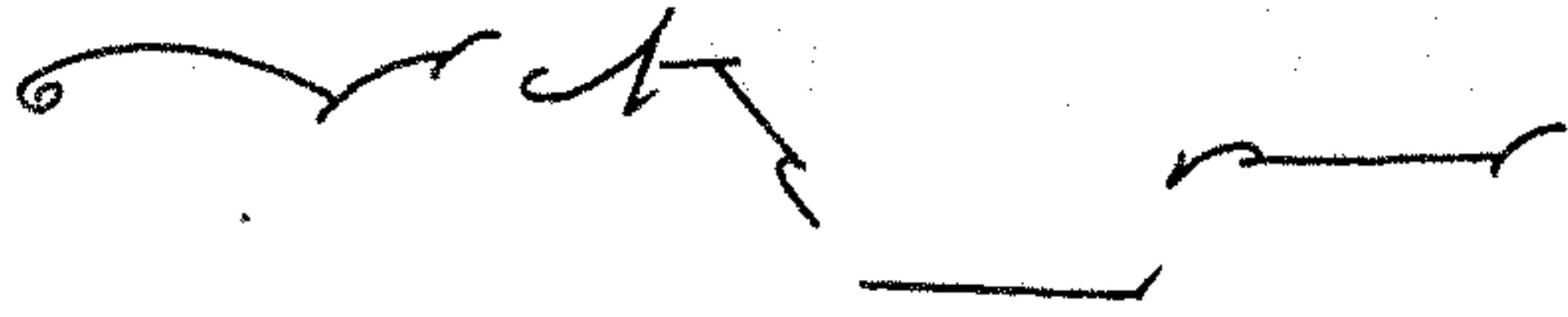
이 길이 곧 민족 자존의 길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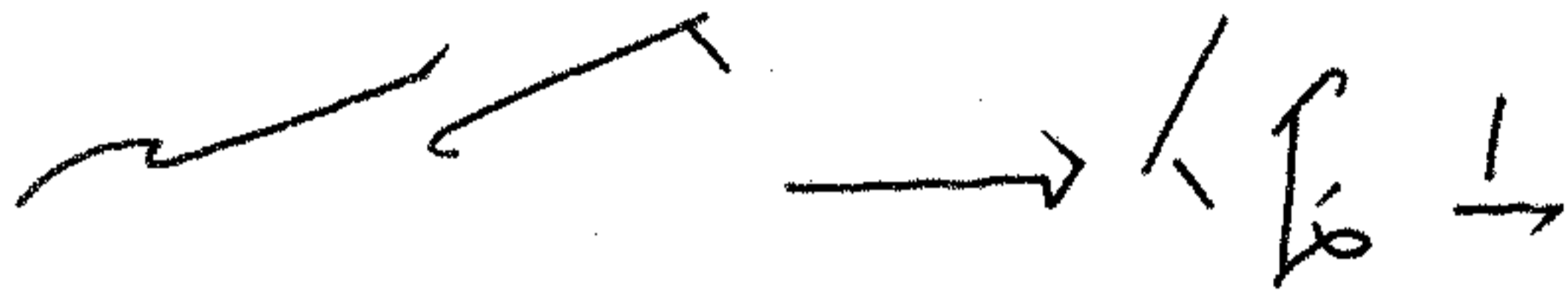
민족통합의 길입니다. 이제 남과 북은 분단의 벽을 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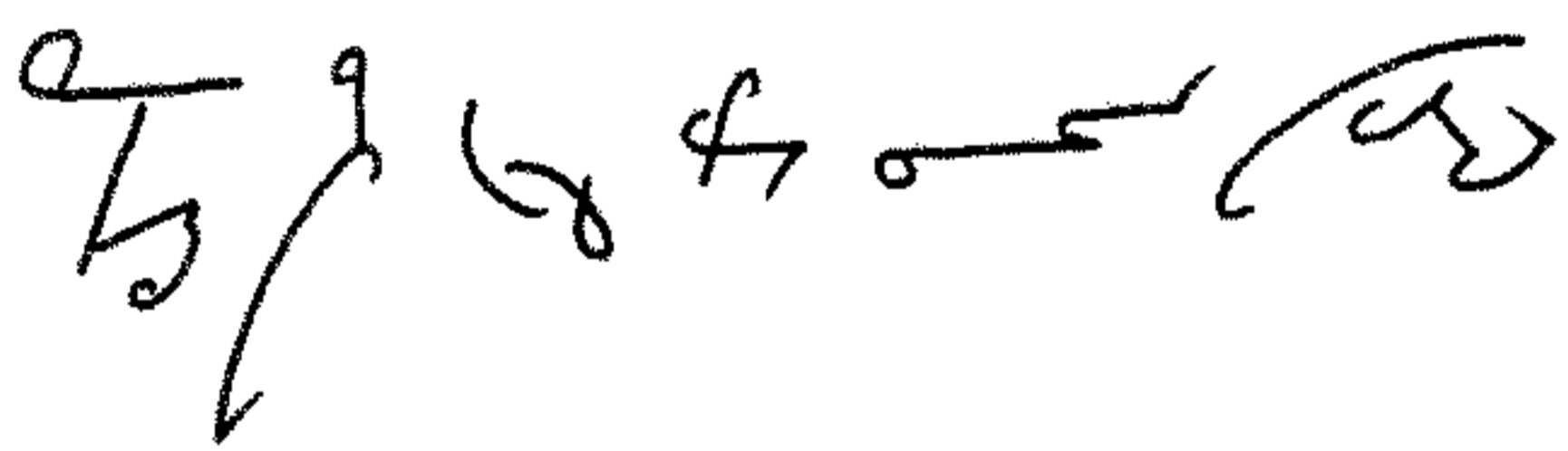
모든 부문에 걸쳐 교류를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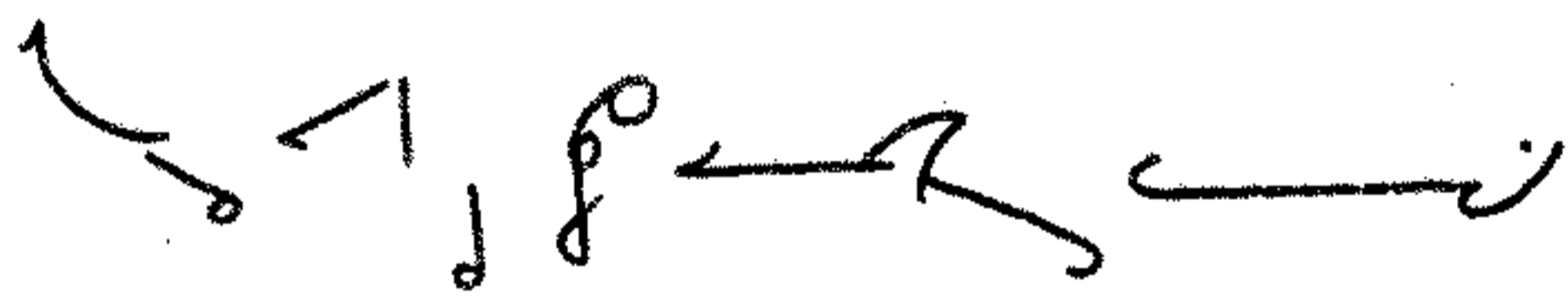
민족적 유대를 강화해 나갈 적극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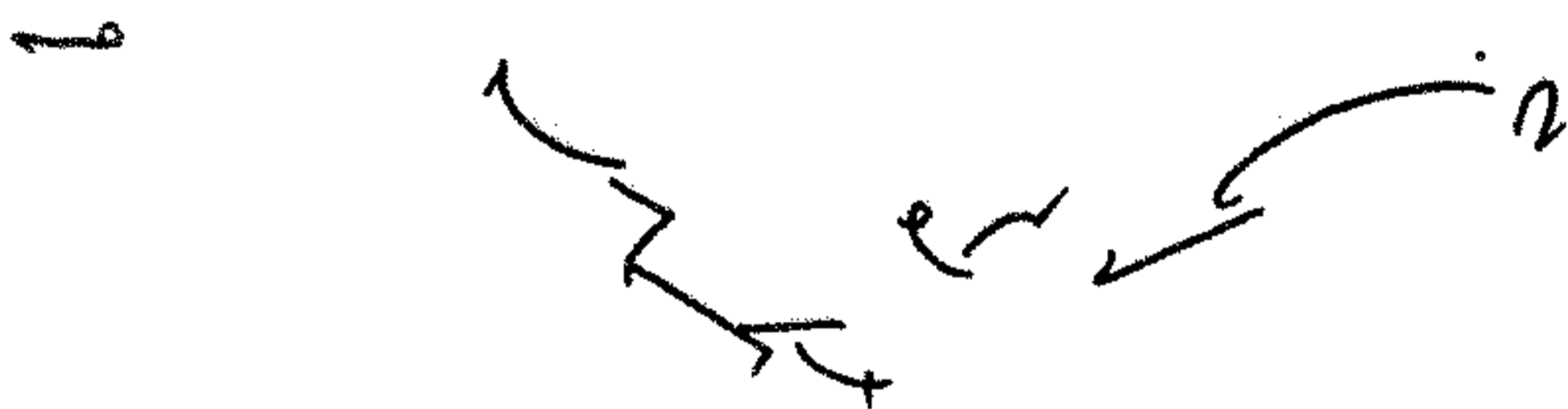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대결의 관계를 지양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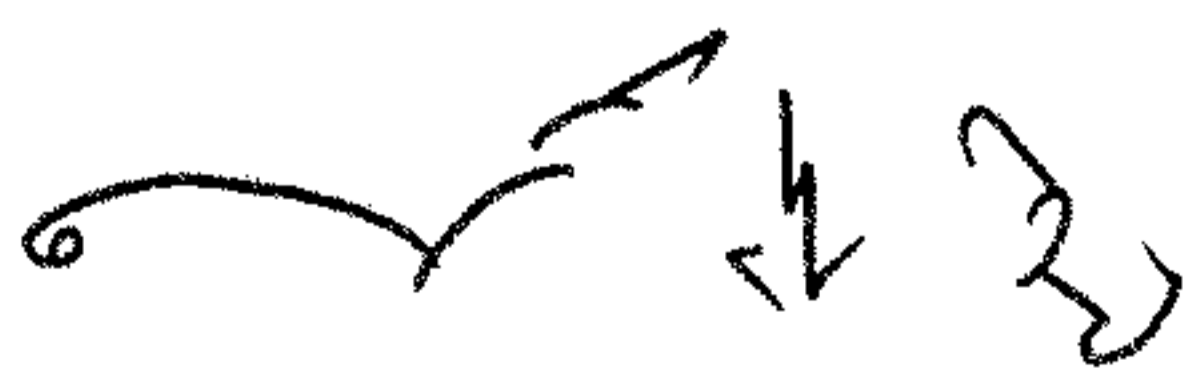
북한이 책임 있는 성원으로 국제 사회에 기여하고



그것이 북한 사회의 개방과 발전을 촉진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남북은 상호간에 서로의 위치를 인정하고



민족전체의 이익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 자신이 쓴 속기문자를 읽어보자 <실전연습은 쓰고 읽기를 위주로 한다>.

손풀기 : 기본문자 복습 ... ㄹ받침, ㅅ받침 3회 이상 써보자.

16. 상선약자(8)

7	(삭) 없애다	ㄹ	(칭) 듣(는)다
ㄹ	(송) 보내다	ㄴ	(태) 태어나다
ㄹ	(승) 이기다	ㄹ	(탈) 벗어나다
ㄹ	(악) 나쁘다	ㄴ	(호) 좋다
ㄹ	(육) 가르다	ㄴ	(혜) 헤아리다
9	(인) 이끌다	ㄴ	(학) 배우다
9	(일) 일컫다	ㄴ	(확) 거두다
9	(임) 맡기다	9	(훈) 가르치다
ㄹ	(작) 만들다		가리키다
ㄹ	(중) 마치다, 맞추다	9	(헨) 따름이다
ㄹ	(치) 부끄럽다	9	(환) 바꾸다
	다스리다	9	(행) 다니다
ㄹ	(착) 붙이다		

〈응용연습〉 스스로하기

시제변화 및 어미변화는 앞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시제변화 및 어미변화 일람표를 만들어 적용을 시켜보자.

〈실전연습 29〉 ... 한글문장을 속기문자로 옮겨보자.

결단의 시간은 다가온다. 김영삼

결단의 시간은 다가온다. 김영삼

우리는 지금 분명히 위장된 민주주의 하
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분명히 위장된 민주주의 하
에 살고 있습니다.

민주정체의 외형은 있으나 그것은 현 정권이

민주정체의 외형은 있으나 그것은 현 정권이

민주정치를 하는 양 장식하는 걸치레에 불과
할 뿐, 내실로서의

민주정치를 하는 양 장식하는 걸치레에 불과
할 뿐, 내실로서의

민주정치는 이미 빈사 상태에 빠져 그 맥박
이 하루 하루

민주정치는 이미 빈사 상태에 빠져 그 맥박
이 하루 하루

식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선명히 의식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씨의 3선 개헌 강행을 통해
이같은 위장

식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선명히 의식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씨의 3선 개헌 강행을 통해
이같은 위장

민주주의의 지향하는 바를 뚜렷이 체감한 우
리 야당은 빈사 상태에

민주주의의 지향하는 바를 뚜렷이 체감한 우
리 야당은 빈사 상태에

해매는 민주주의를 기사회생시키는 데 새로운 결의와 새로운 각오로

앞장서지 않으면 안되는 사명의 시점에 섰습니다. 나는 이 중대하고도 심각한 사명의 대열에서 야당의 일원으로서

깊은 의무감과 굳은 결단 그리고 벽찬

희생을 각오하면서 71년 총선거에 신민당이 내세울 대통령후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외람되나마 사랑하는 당내 동지들과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에게

오늘 이자리에서 밝힙니다. 박정권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3선개헌 강행 이후

오늘의 내외 정세를 냉정히 분석하고 수많은 당내외 동지들의 의견을

오늘의 내외 정세를 냉정히 분석하고 수많은 당내외 동지들의 의견을

오늘의 내외 정세를 냉정히 분석하고 수많은 당내외 동지들의 의견을

오늘의 내외 정세를 냉정히 분석하고 수많은 당내외 동지들의 의견을

오늘의 내외 정세를 냉정히 분석하고 수많은 당내외 동지들의 의견을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with arrows indicating stroke direction.

종합한 결과, 나 스스로 71년에는 기어코 우리 당을 승리로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with arrows indicating stroke direction.

이끌고 우리 국민의 위대성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도록 거국적인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with arrows indicating stroke direction.

민주세력을 집결시키는 막중한 과업에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with arrows indicating stroke direction.

구심점이 돼야겠다는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 습니다. 공화당은 이미 3선개헌으로 박정희 씨를 사실상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with arrows indicating stroke direction.

차기 대통령후보로 결정해 놓고 있는 것입니 다. 모든 것이 약세인 야당으로서는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with arrows indicating stroke direction.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너무나 짧고 그것은 한가한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with arrows indicating stroke direction.

논란으로 소비하기엔 너무나 귀중하며 상황 은 너무나 긴박합니다.

우리는 공포정치에 떨고만 있을 수 없습니

다. 우리는 어두움을 저주하고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어둠을 뚫고 광명을 찾을 햇불을 밝혀야겠습

니다. 온갖 부조리와 역리를 거부하고

민족의 총화로 새시대를 밝히는 구원의 햇불

을 밝혀야겠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어려움 속에서도 불굴의 투

지로

독재정권과 싸워온 당원동지들에게 솔직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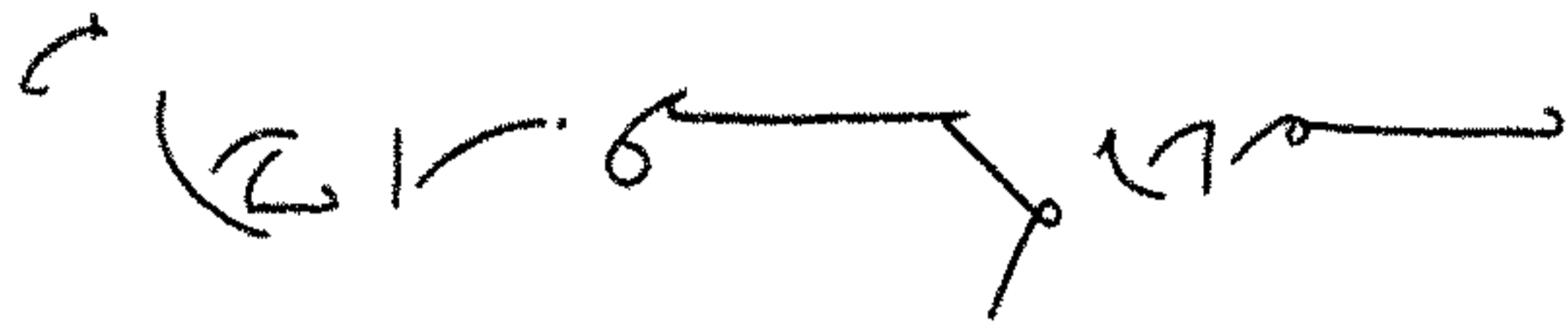
지지를 호소하여

당내 지명절차를 밟아 박정희 씨에 대한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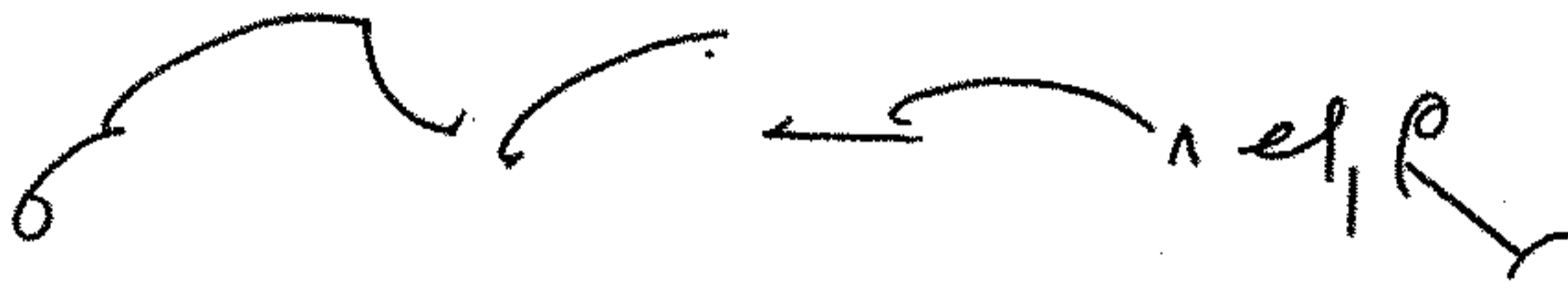
전자로서 평화적 혁명의 기수가

된다면 나의 모든 것을 바쳐 싸우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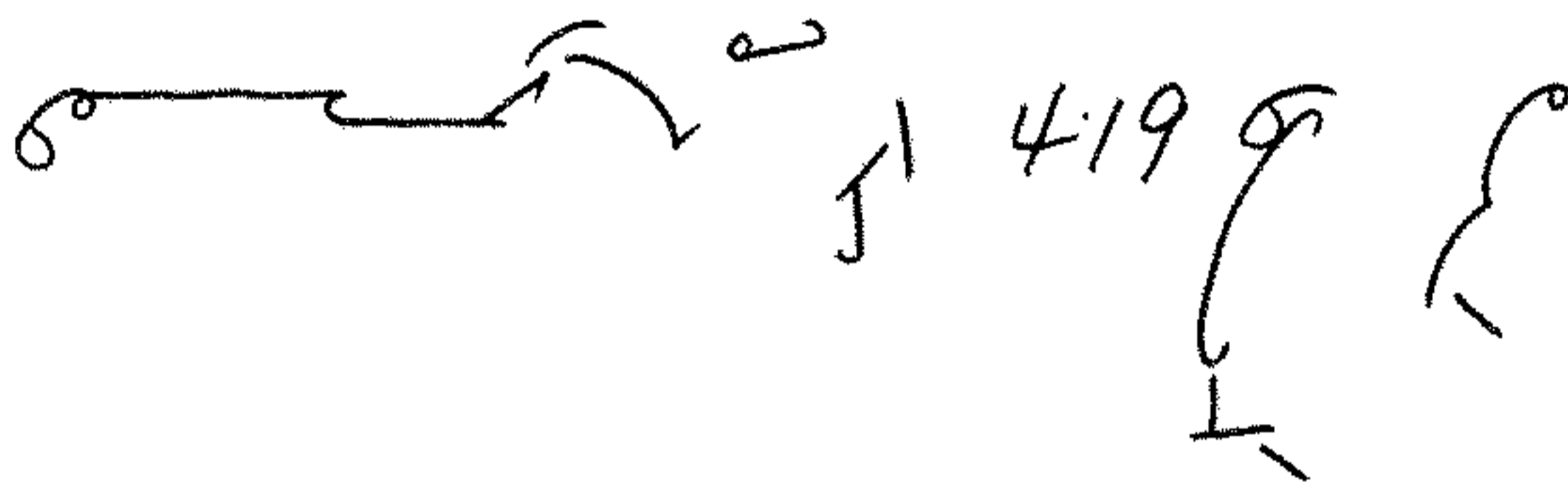
그리하여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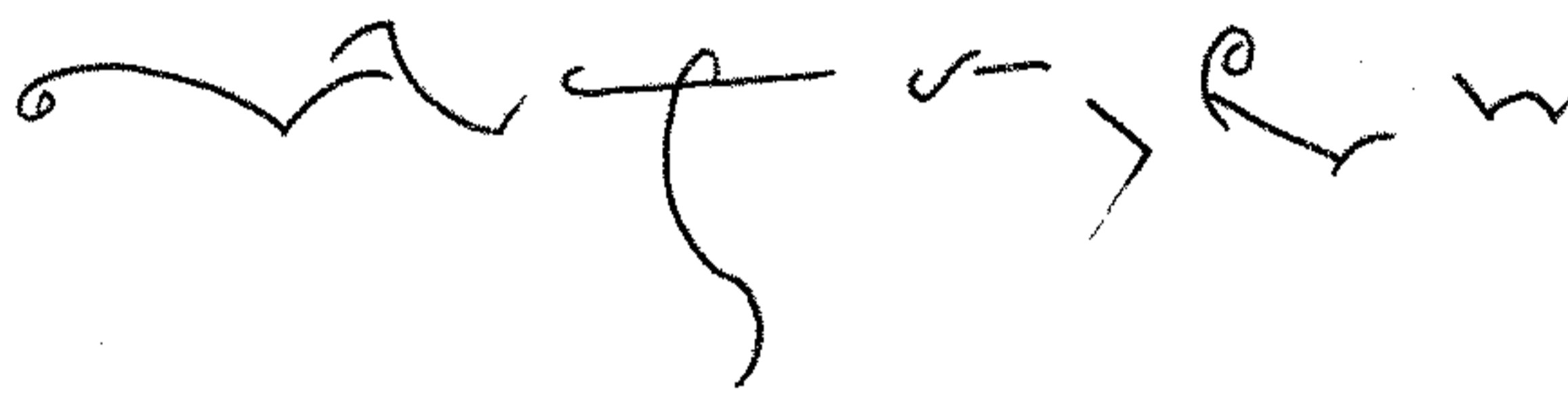
정치와 부정선거에 의존하여 장기화된 박정
회 정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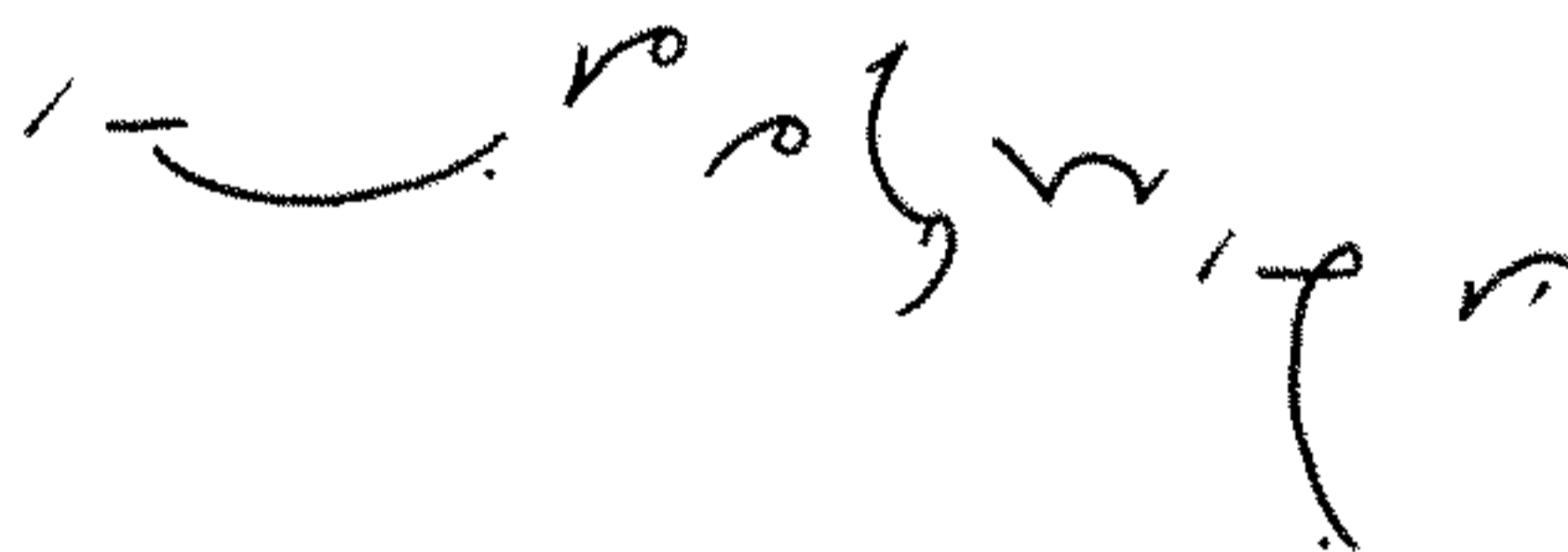
총지부를 찍고 국민적인 염원인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을 세워 이 땅 위에 4·19정신
에 입각한 순수한



민주정부를 기필코 재건하겠습니다. “평화적
혁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자는 폭력 혁명을 불가피
하게 만든다.”고...

* 자신이 쓴 속기문자를 읽어보자<실전연습은 쓰고 읽기를 위주로 한다>.



제 4 장

.

중간 응용 약기법

문자의 첫자를 쓰고 중간을 생략하는 약기법으로서
우리 말 습관에서 빠른 발음속도를 가진 단어들을
생략하는 약기법이다.

손풀기 : 기본문자 복습 ... ㄹ 받침, ㄱ 받침 3회 이상 써보자.

1. 중간약자(1) ... 쓰는 위치 : 중선

	하루바빠		하루아침에
	하루속히		하루종일
	한시바빠		대부분
	하루빨리		마지못해
	여러 가지		하다못해
	여러 차례		아무런, 어련에
	마찬가지		아무렇게
	아무쪼록		차라리
	그야말로		말이 났으니 말이지
	이야말로		송두리째
	요컨대		원컨대
	회고컨대		

참고 : 약자를 충분히 연습한 다음에 <실전연습>으로 들어간다.

<실전연습 30> ... 한글문장을 속기문자로 옮겨보자.

손 F. 케네디가 일찍이 말했다지만, 우리들이

71년에 평화적 혁명을

이룩하지 못한다면 그 기회는 아주 사라지고

말지도 모릅니다. 나의 이 도전은 위장 민주

주의에 대한

진정한 민주주의의 그것이며, 관권에 대한

민권의 그것이며, 가진 자에 대한 잃은 자의

그것입니다. 때문에 이 도전은 반드시 승리

해야 하며 또 승리하리라는 자신과 신념의

바탕에서 이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만

일 그렇지 못하다면 70년대는 정치적

바탕에서 이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만

일 그렇지 못하다면 70년대는 정치적

바탕에서 이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만

암흑기가 되고 말 것이고 후세사가들은 오늘
에 사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무능자·비겁자라는 낙인을 찍
어 기록할 것입니다.

우리 신민당은 71년의 승리를 위해서는 다
가오는 전당 대회로 하여금 차기대통령

후보지명을 겸하게 하고 바로 선거체제에 돌
입, 일사불란한 단결로써 집권의

능력과 용기와 자신을 보이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외의 여론은 지금 우리 당에 집
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폭넓은 문호를 개방하여 재야
민주세력을

총결집하고 대담한 체질개선으로 국민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일이 시급합니다. 60년대 종착점
에서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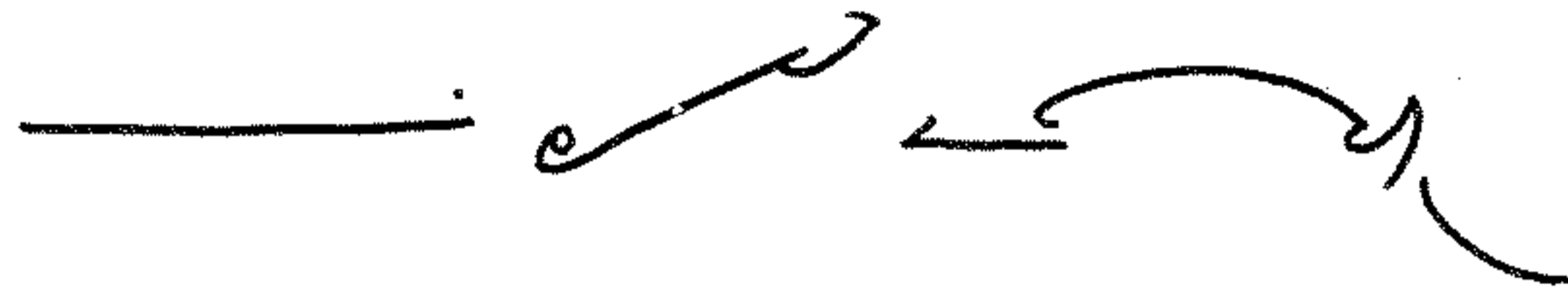
되고 있는 국내외 정세는 70년대가 사상 가
장 어려운 시련의 연대가 될 것임을

짐작케 합니다. 모든 시련을 극복하는데 전
제되어야 할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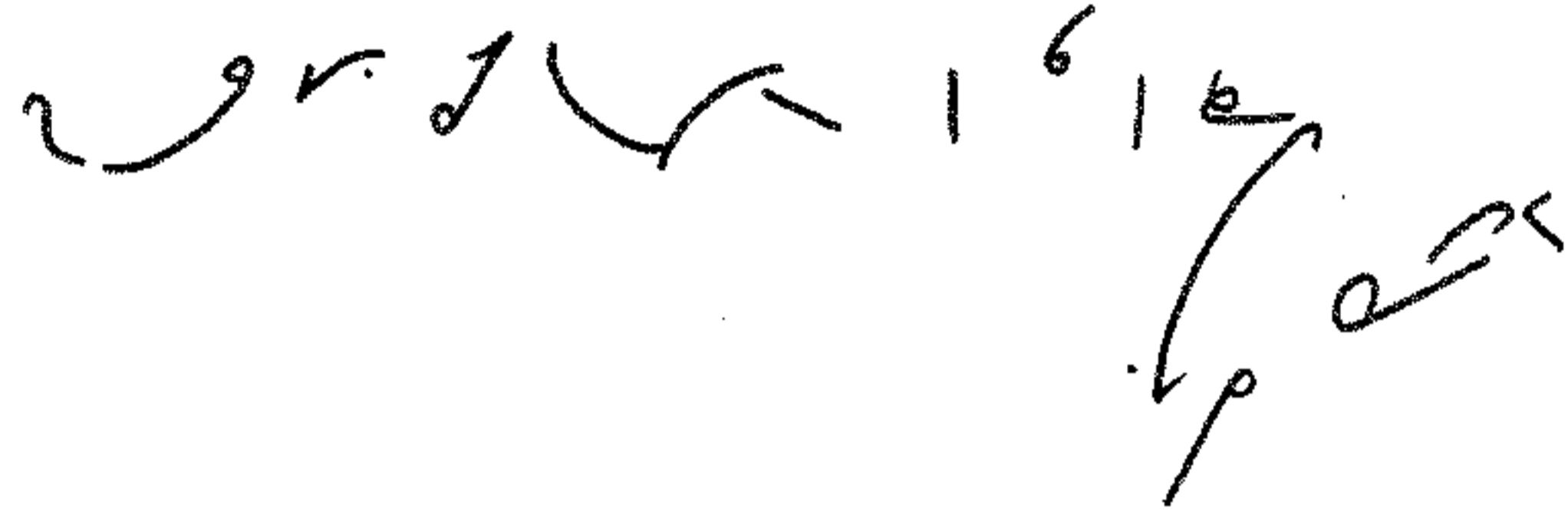
무엇보다도 명실상부한 대의정치의 새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박정희 씨의 3선
의

길을 트는 개헌을 막는 데 실패했지만, 3선
자체를 막을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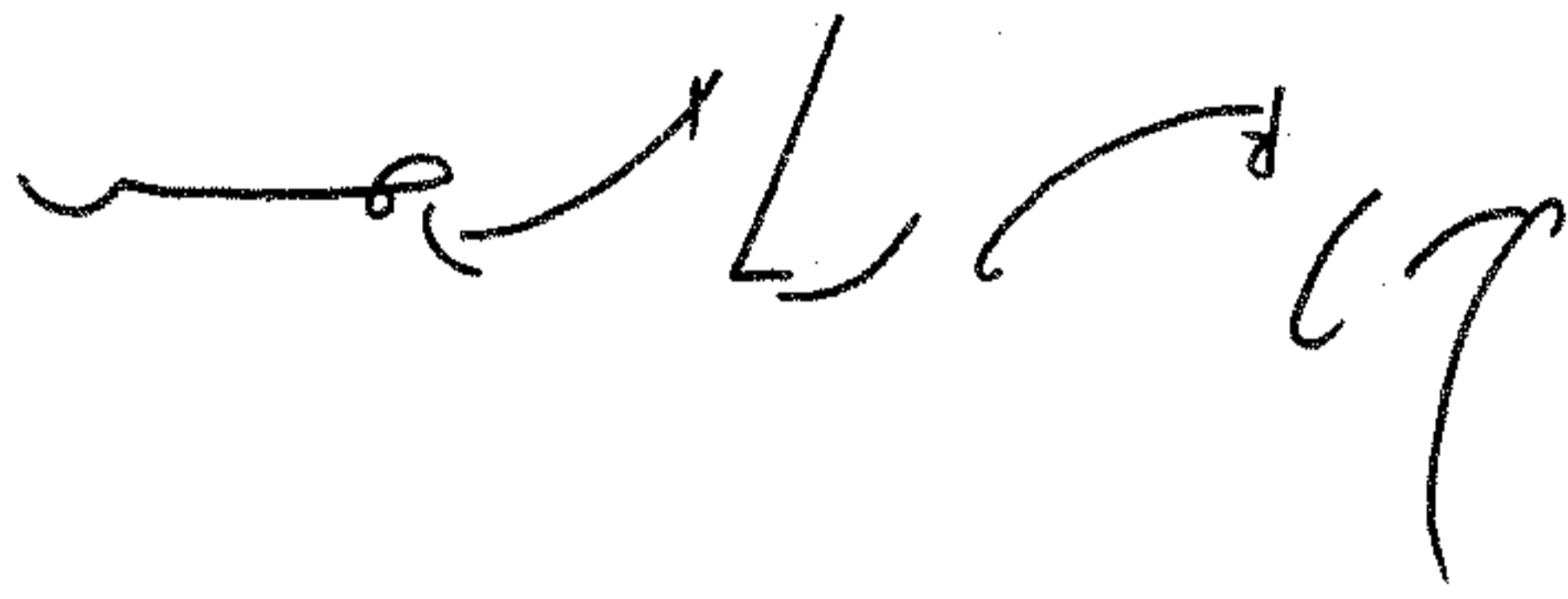
기회는 유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여
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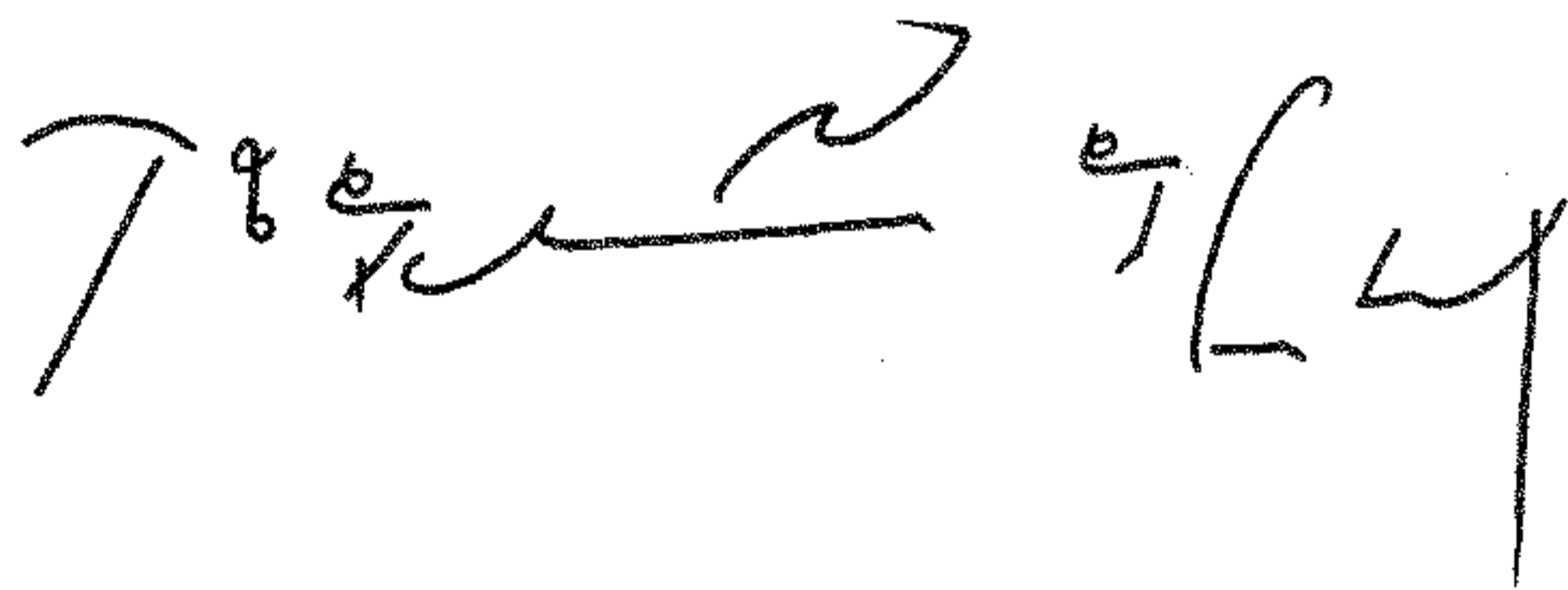
그리고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배움이 적고 덕이 부족한 이 사람이 이 결심을 하게 된 충정에 대해



너그러운 반응과 뜨거운 지지로써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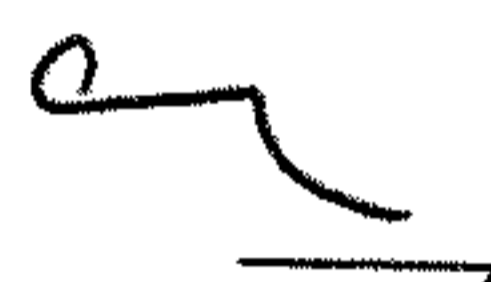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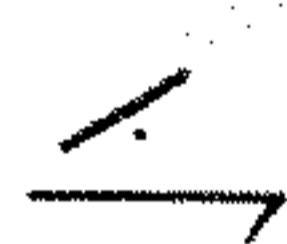

모든 일에는 결단과 용기가 중요합니다. 결단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 자신이 쓴 속기문자를 읽어보자 <실전연습은 쓰고 읽기를 위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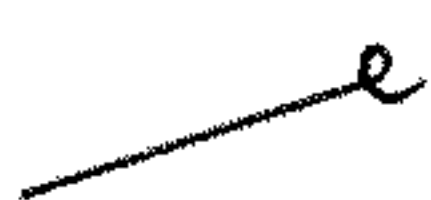
손풀기: 기본문자 복습...ㄴ받침, ㅇ받침 3회 이상 써보자.

♣ 통 사


2. 「~하, ~이」 생략법

	믿 <u>고</u> 자		믿 <u>고</u> 자 <u>합</u> 니다
	말 <u>하</u> 고자 <u>하</u> 는 것이다		말 <u>하</u> 고자 <u>하</u> 며
	믿 <u>으</u> 려고		정 <u>돈</u> 하 <u>려</u> 고
	정 <u>돈</u> 하 <u>려</u> 고 <u>하</u> 는 것이다		정 <u>돈</u> 하 <u>려</u> 고 <u>하</u> 는 것이지
	답 <u>변</u> 하 <u>세</u> 요		공 <u>부</u> 하 <u>합</u> 시다
	되 <u>지</u> <u>못</u>		되 <u>지</u> <u>못</u> 하 <u>고</u>
	되 <u>지</u> <u>못</u> 하 <u>면</u>		되 <u>지</u> <u>못</u> 하 <u>합</u> 니다
	걱 <u>정</u> 하 <u>지</u> <u>마</u> 세요		주 <u>지</u> <u>마</u> 세요
	드 <u>리</u> 지 <u>마</u> 세요		드 <u>리</u> 지 <u>맙</u> 시다
	되 <u>지</u> <u>말</u> 고		

참고 : 조사 + 하는 것

~을 하는 것 

~으로 하는 것 

~에 하는 것 

* 「가 ~이」에 대입하여 「가를 하는 것, /를 하는 것...」의 형태로 연습한다.

<실전연습 31> ... 한글문장을 속기문자로 옮겨보자.

○ 정대철의원 * 여의도 국회의사당에는 언

제나 빗장이 걸려 있는 회의장이

하나 있습니다. 본의원은 국회의사당을 들어

서며 본 회의장 맞은편에 있는 그

회의장을 볼 때마다 늘 안타까움을 금할 수

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의장은 양원제에 대비한 회

의장이기도 하나,

통일된 내일의 조국을 생각하고 '통일국회'

가 구성될 때를 대비,

북한지역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

정을 논하기 위하여 마련된

국회회의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항상 저 닫혀 있는

회의장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언제 저 문의 빗장을 풀 수 있을 것인가? 그리하여

북한의 대표들과 언제쯤이면 머리를 맞대고 민족의 문제를 함께 걱정하며

토론할 수 있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남북한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저 문이 열릴 그날은 아직도 아득히 멀기만 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가 저 문의 빗장을 풀 것입니까? 저 문을 열고 분단의

빗장을 푸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가 기필코 해야 할 일이며 여기 있는 모든

정치인들의 사명입니다. 통일, 이것은 우리 민족이 존재하는 한 추진해야 하고

기어이 성취해야 할 지상 최대의 과제입니다.

이 자리에서 본의원은

지난 12대 국회에서 유성환 의원이 통일을

가로막는 '반공

국시'는 반드시 철폐, 마땅히 국시가 통일로

바뀌어야 한다는 발언으로 전두환

정권에 의해 구속과 더불어 의원직까지 박탈

당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새삼 상기치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대

한민국의 국시는

마땅히 통일이어야 한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입니다.

총리!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우리의 국시를 반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의

Handwritten notes in Korean script, including the number '21' and '10'.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를 향한 마지막 10년을

Handwritten notes in Korean script.

남겨놓고 있는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의 국제질서가

Handwritten notes in Korean script.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한 미·소

Handwritten notes in Korean script.

양극체제는 사실상 막을 내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가 작용하는

Handwritten notes in Korean scri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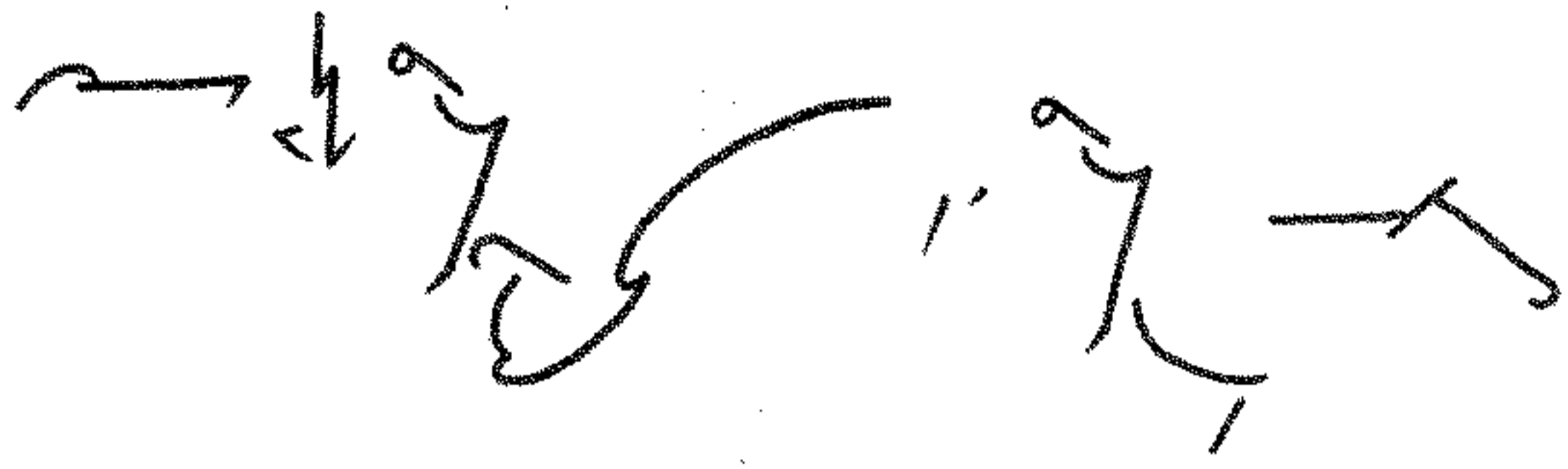
다극체제 혹은 사각체제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강대국들은 다극체제에
따른

Handwritten notes in Korean scri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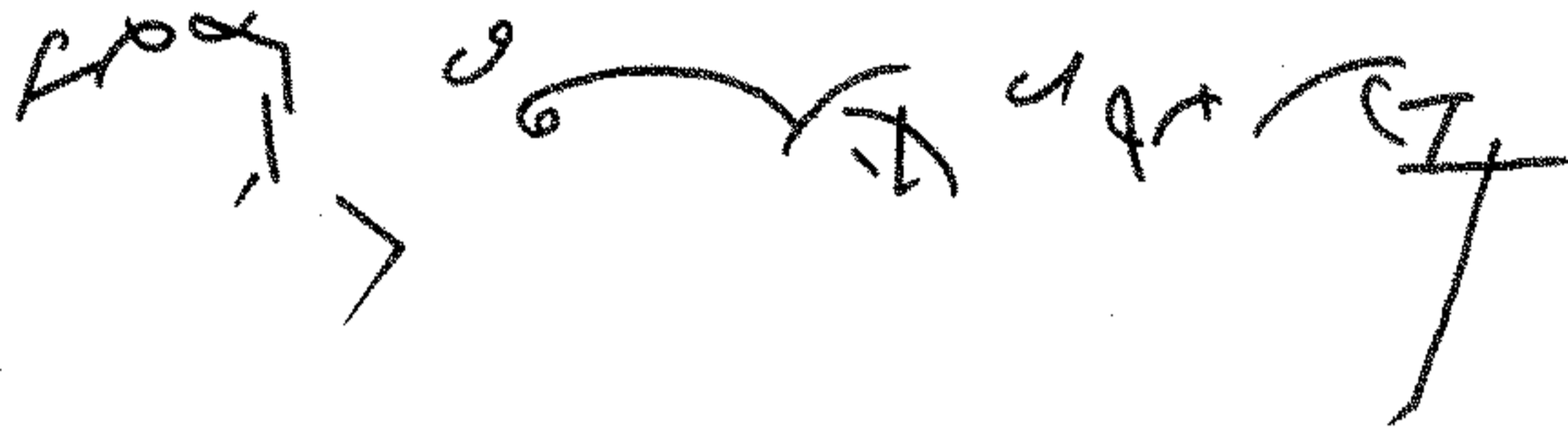
상호의존적인 관계가 전반적으로 심화될 것
으로 보이는데, 그들의 중심에 놓인 한반도가
새로운

Handwritten notes in Korean script.

긴장을 낳은 분쟁요소로 등장하는 것을 원하
지 않을 것입니다. 즉, 그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의 현상 유지, 다시 말하면 한반도의 분단 고착화에



대체적으로 합의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민족통일을 위한 우리의 입장과 주변 강대국들의



전략적 이해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커다란 벽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주변 강대국의...

* 자신이 쓴 속기문자를 읽어보자(실전연습은 쓰고 읽기를 위주로 한다).

손풀기: 기본문자 복습...ㄹ받침, ㅅ받침 3회 이상 써보자.


♣ 통 사


3. 어미(1) : **~더라도** (“나”위치에서 출발, 길이 2cm 이상)


~더라도

(앞말) + 하더라도

~지 않더라도

 없더라도

 된다고 하더라도

 드리지 않더라도

4. 중간약자(2)

 뿐 아니라

 그대로

 뿐만 아니라

 이른바


 뿐만이 아니라


 이른다면


 마음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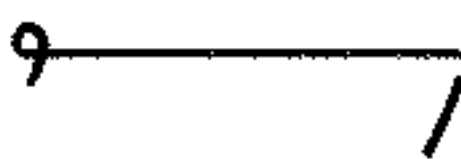
 고사하고

 나름대로

 뭐니뭐니해도

 문자 그대로

 바야흐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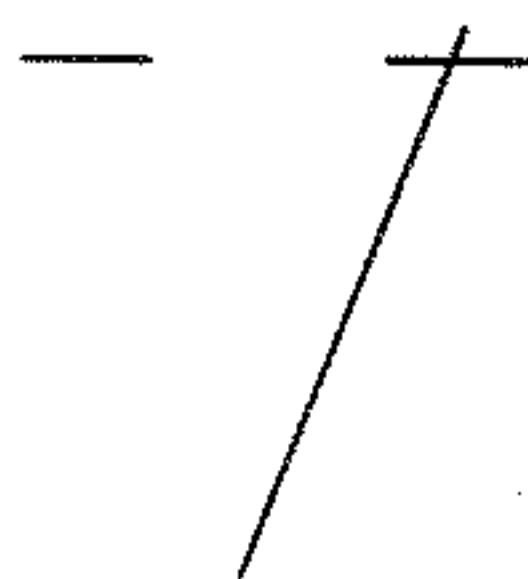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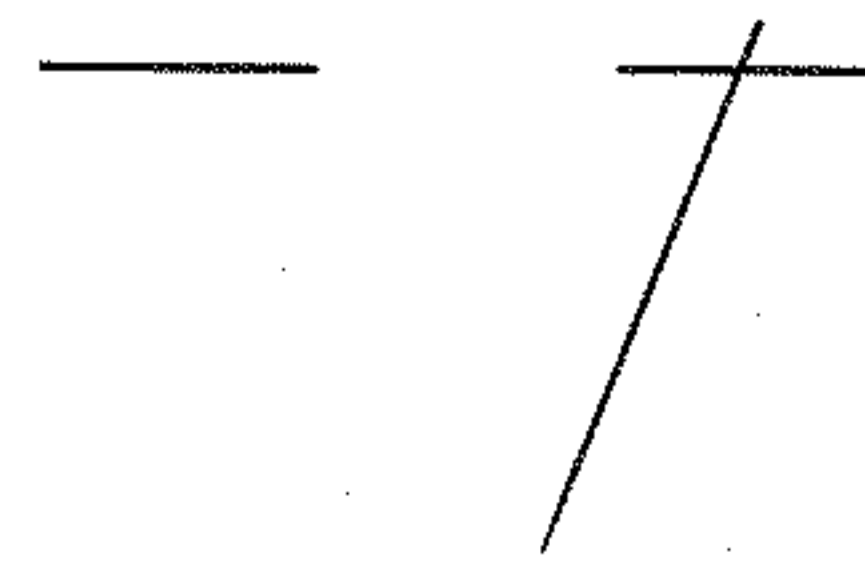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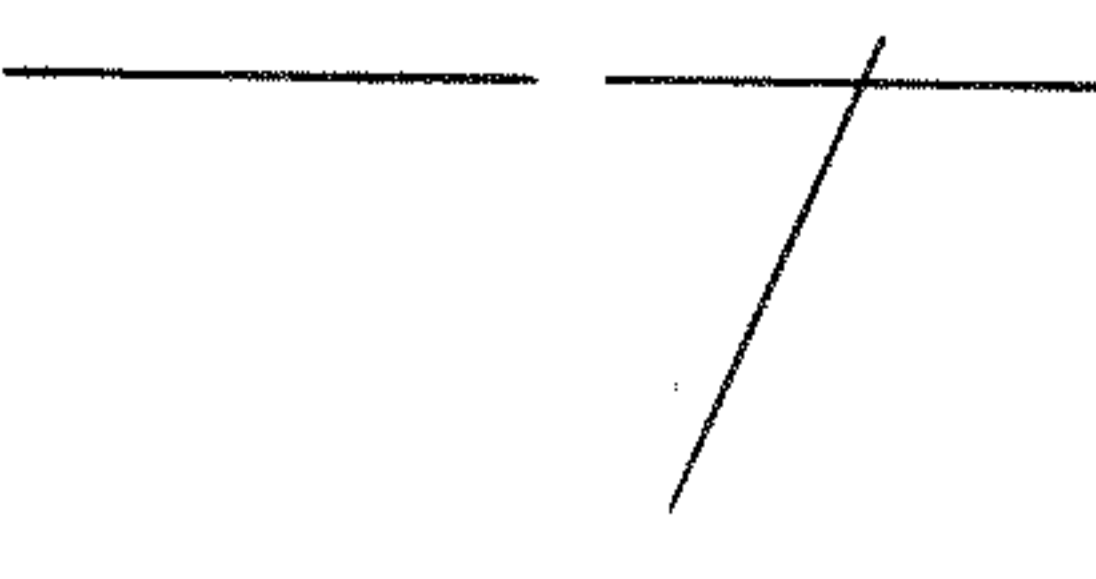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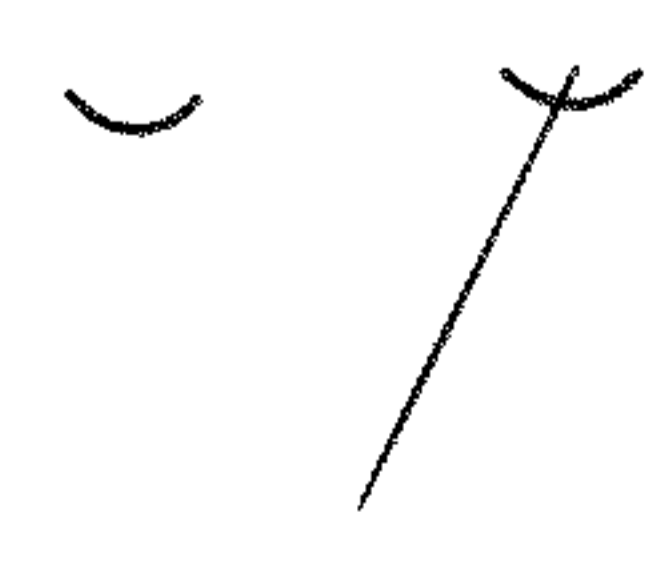
 글자 그대로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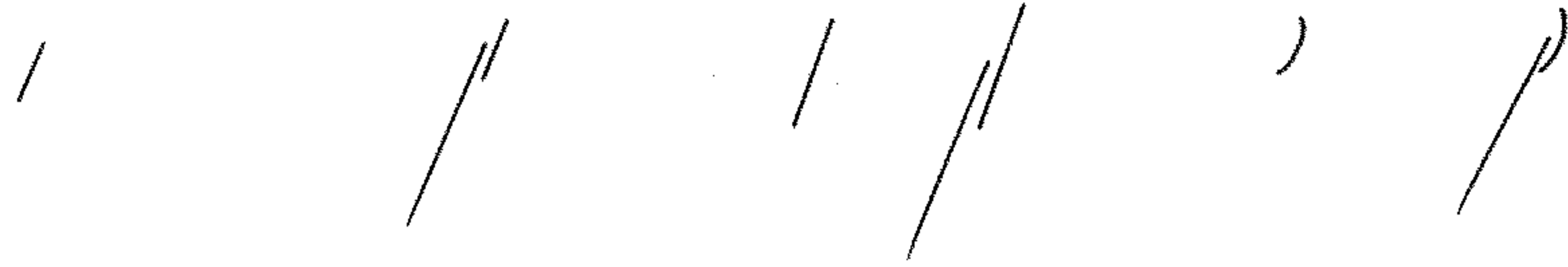
<응용연습>

기본형 + 「~더라도」 어찌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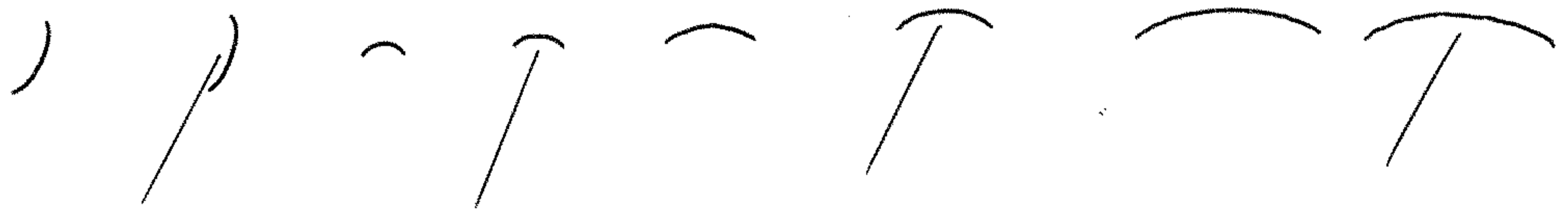
간다 가더라도 일으킨다 일으키더라도 나간다 나가더라도 지킨다 지키더라도

않으면 안된다 앓으면 안되더라도 둔다 두더라도 밝힌다 밝히더라도



나온다 나오더라도 했다 했더라도 나아간다 나아가더라도 믿는다 믿더라도



받는다 받더라도 안다 알더라도 온다 오더라도 잡는다 잡더라도 준다 주더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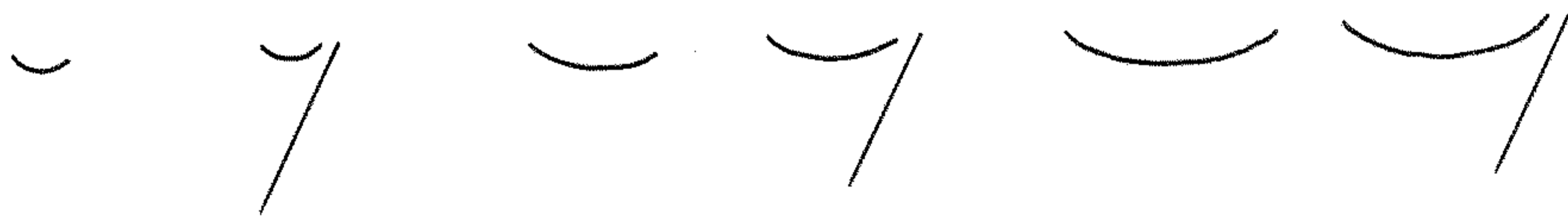


판다 팔더라도 었다 없더라도 아니(하) 아니하더라도 한다 하더라도 있다 있더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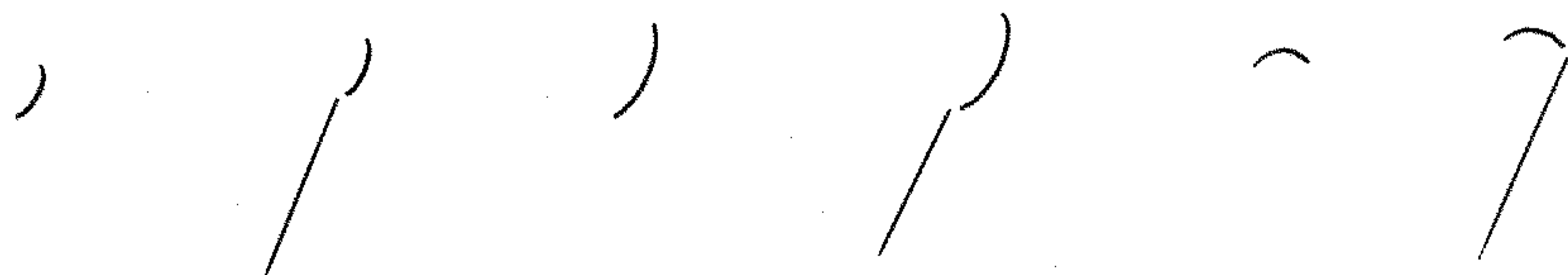


기본형 + 「~하더라도」 어찌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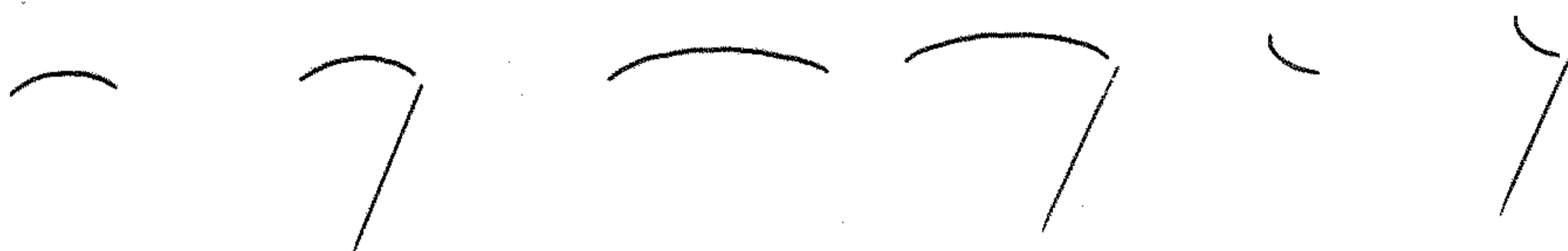
지킨다 지킨다 하더라도 된다 된다 하더라도 모른다 모른다 하더라도



밝힌다 밝힌다 하더라도 나온다 나온다 하더라도 했다 했다 하더라도



나아간다 나아간다 하더라도 믿는다 믿는다 하더라도 바란다 바란다 하더라도



받는다 받는다 하더라도 안다 안다 하더라도 온다 온다 하더라도

ㄹ ㄹ ㄴ ㄴ ㄴ ㄴ

오른다 오른다 하더라도 앓는다 앓는다 하더라도 판다 판다 하더라도

ㅡ ㄱ ㄴ ㄴ ㄴ ㄴ

있다 있다 하더라도

ㅣ ㄱ

기본형 + 「~지 않더라도」 어찌구

간다 가지 않더라도 일으킨다 일으키지 않더라도 나간다 나가지 않더라도

ㅡ ㄱ ㅡ ㄱ ㅡ ㄱ ㅡ ㄱ

안된다 안되지 않더라도 앓으면 안된다 앓으면 안되지 않더라도 둔다 두지 않더라도

ㄹ ㄹ ㄹ ㄹ ㄹ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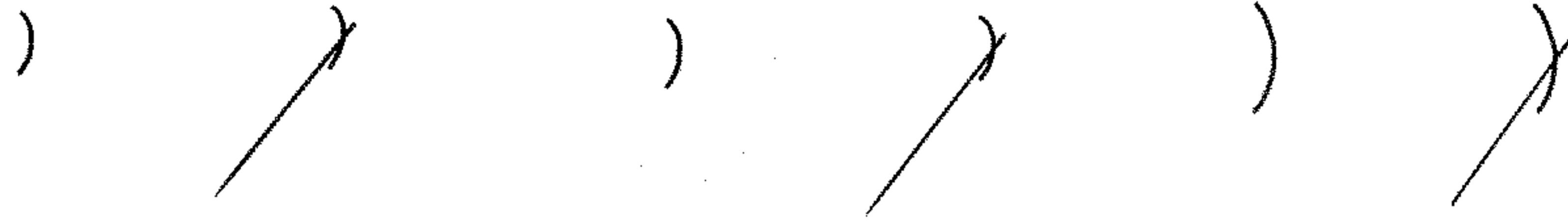
믿는다 믿지 않더라도 바란다 바라지 않더라도 버린다 버리지 않더라도

ㄴ ㄴ ㄴ ㄴ ㄴ ㄴ

안다 알지 않더라도 온다 오지 않더라도 잡는다 잡지 않더라도 준다 주지 않더라도

ㄴ ㄱ ㄴ ㄱ ㄴ ㄱ ㄴ 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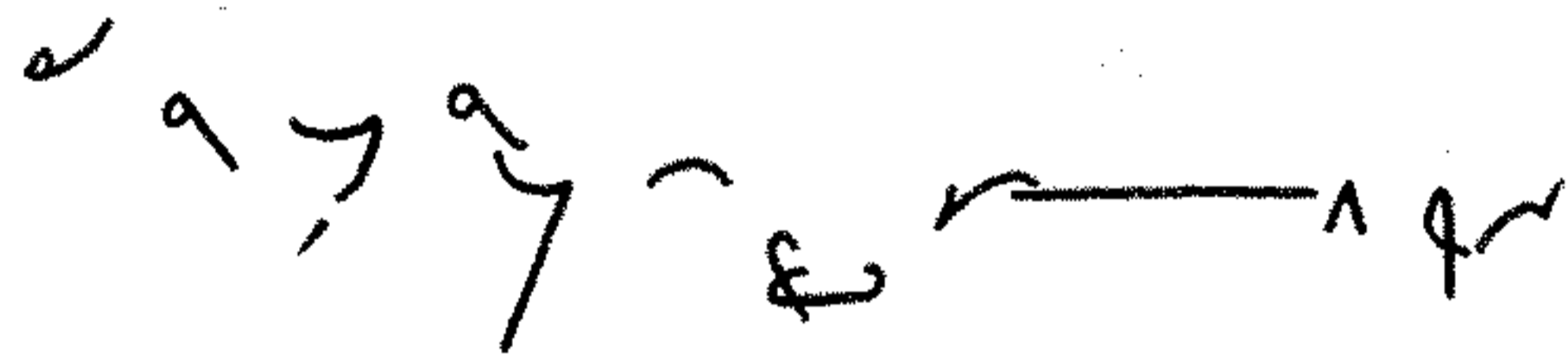
아니다 아니자 않더라도 않는다 않지 않더라도 판다 팔지 않더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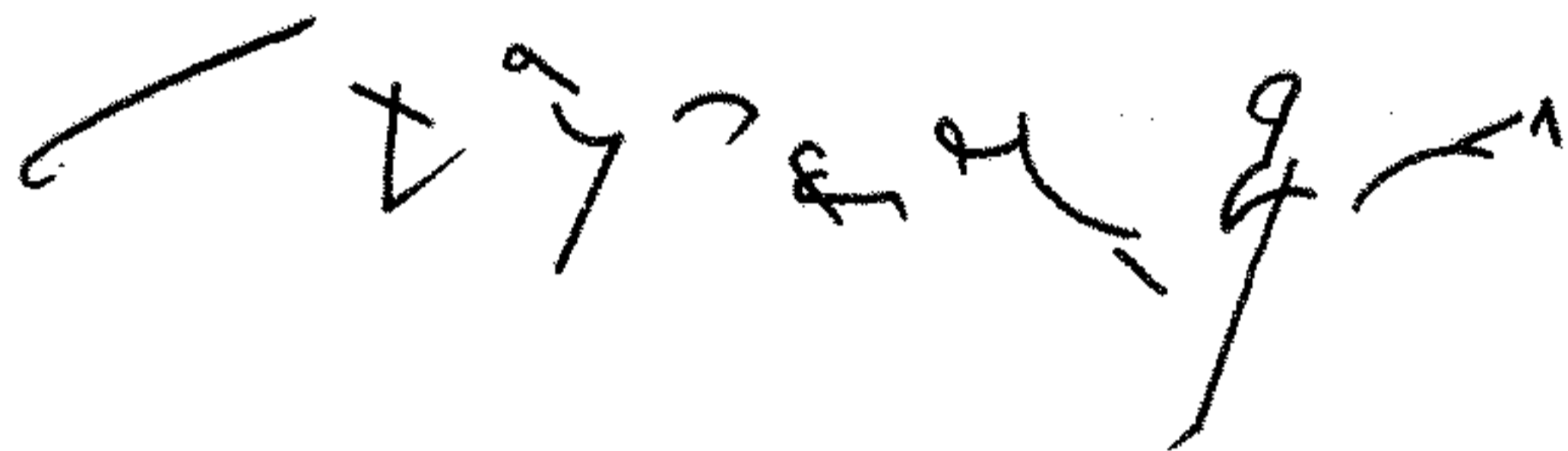
있다 있지 않더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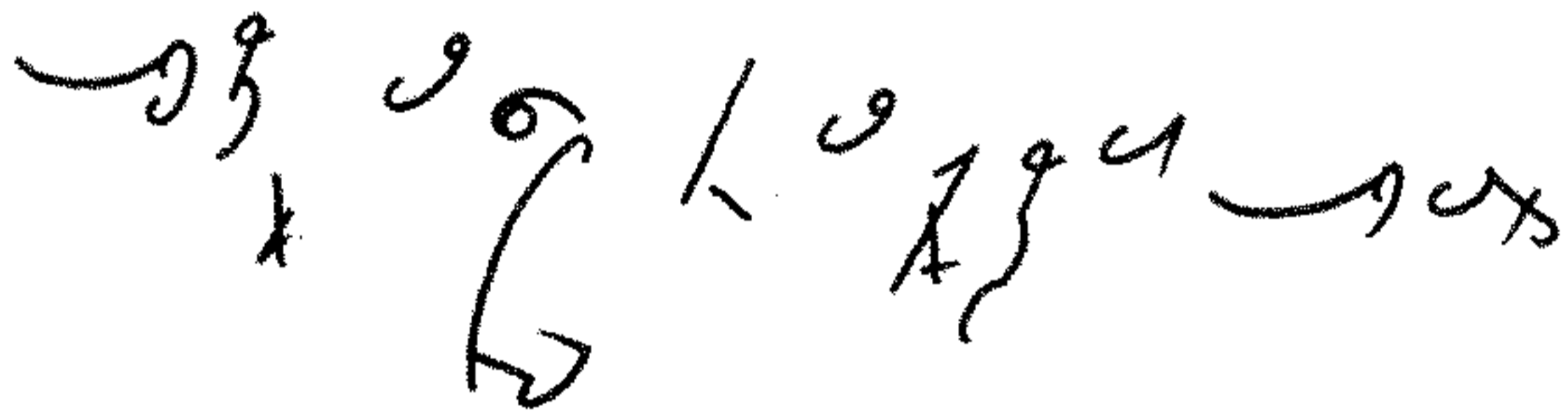
<실전연습 32> ... 한글문장을 속기문자로 옮겨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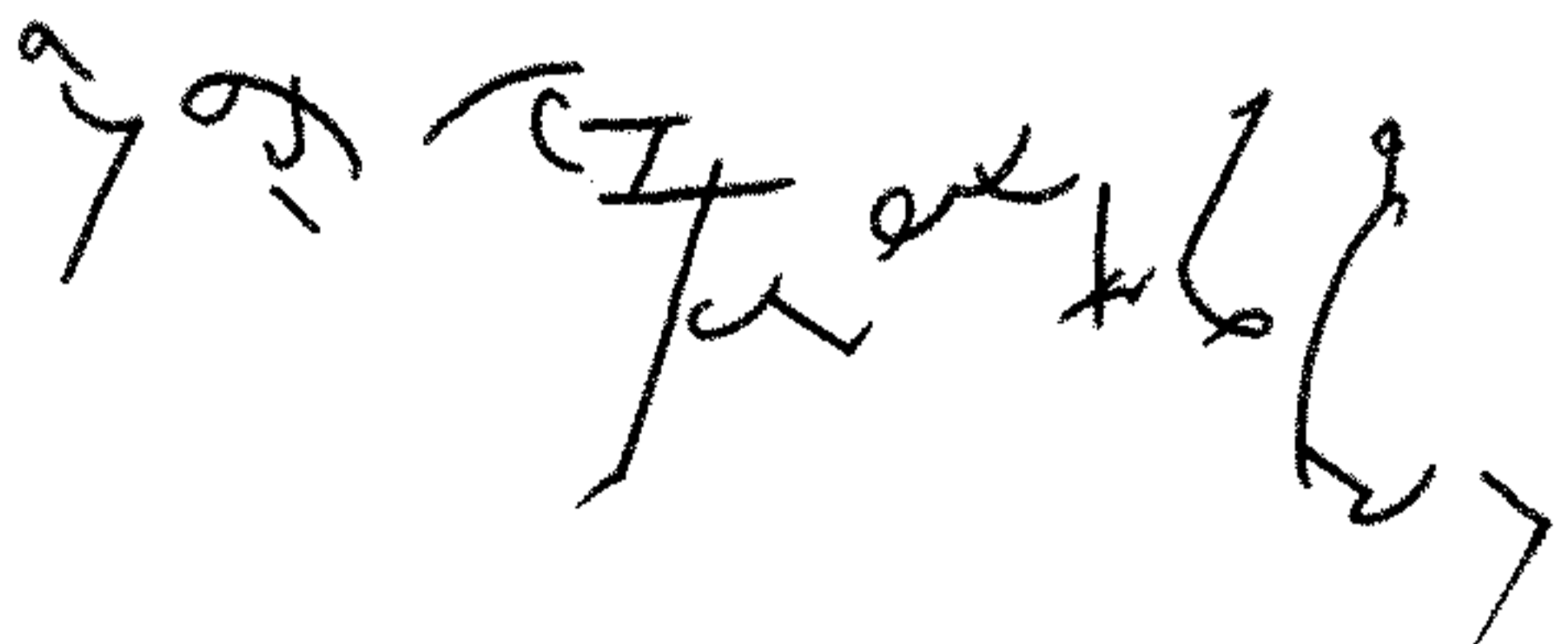
어느 한 나라도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인 입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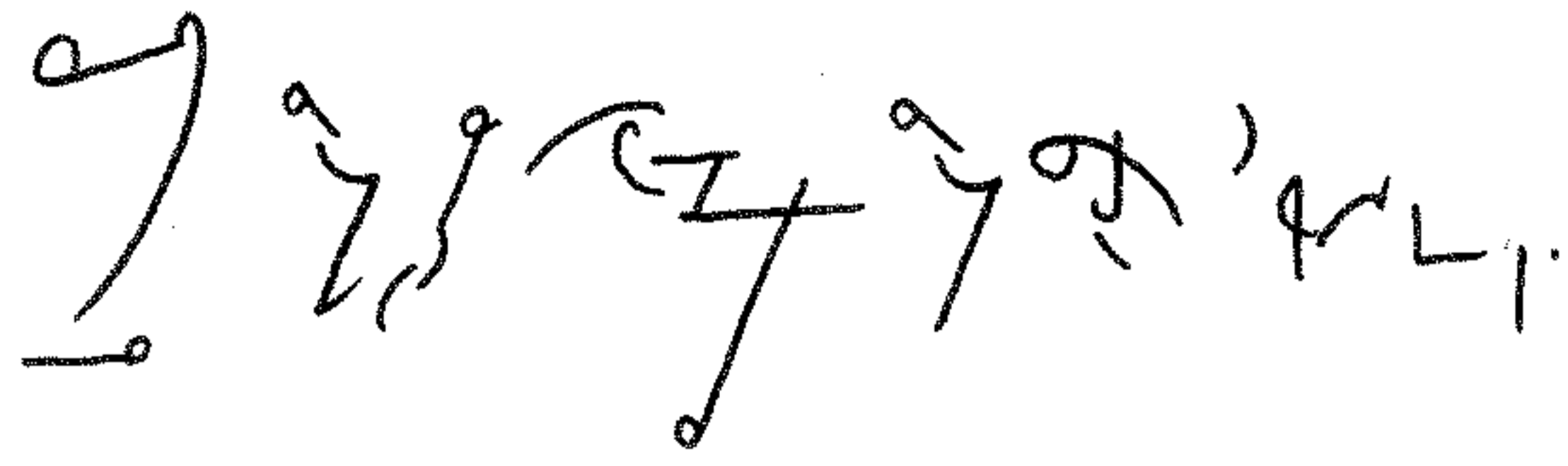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남북한 당사자들의 주체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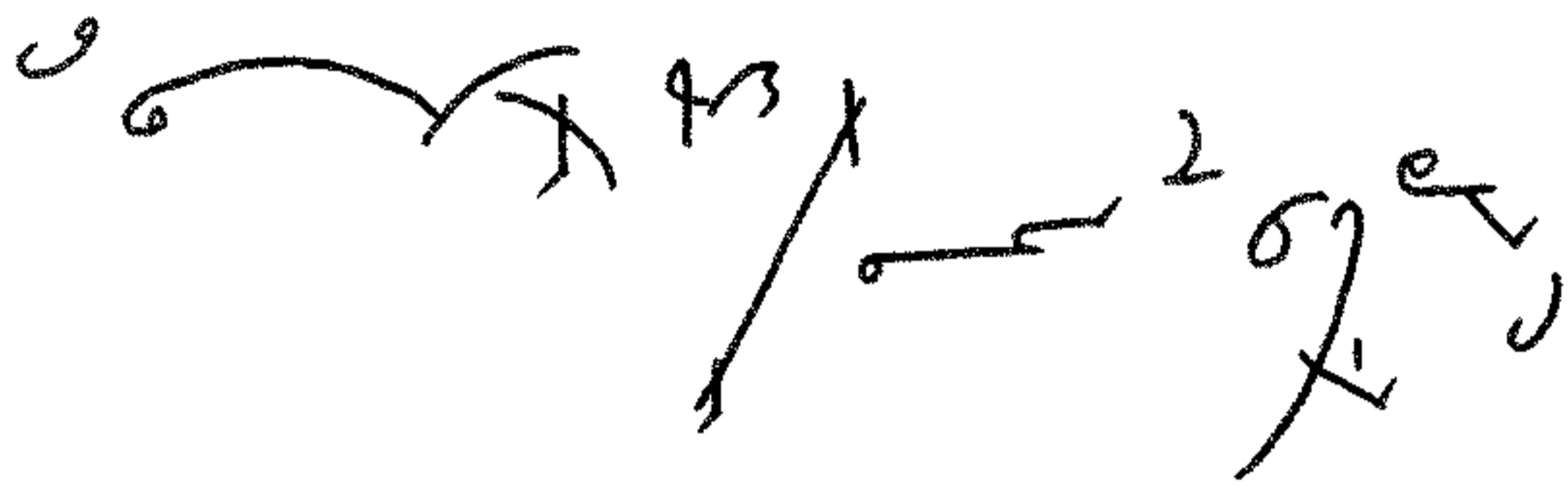
노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독일과 달라서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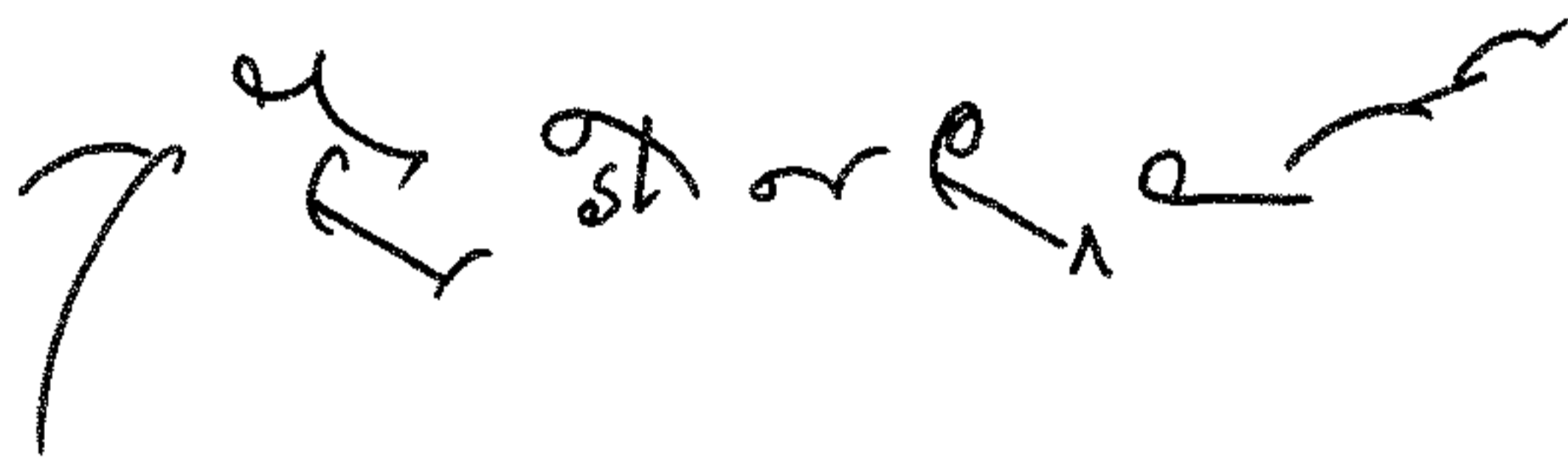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강대국의 양해를 얻어낼 수 있다는 점을 꼭바로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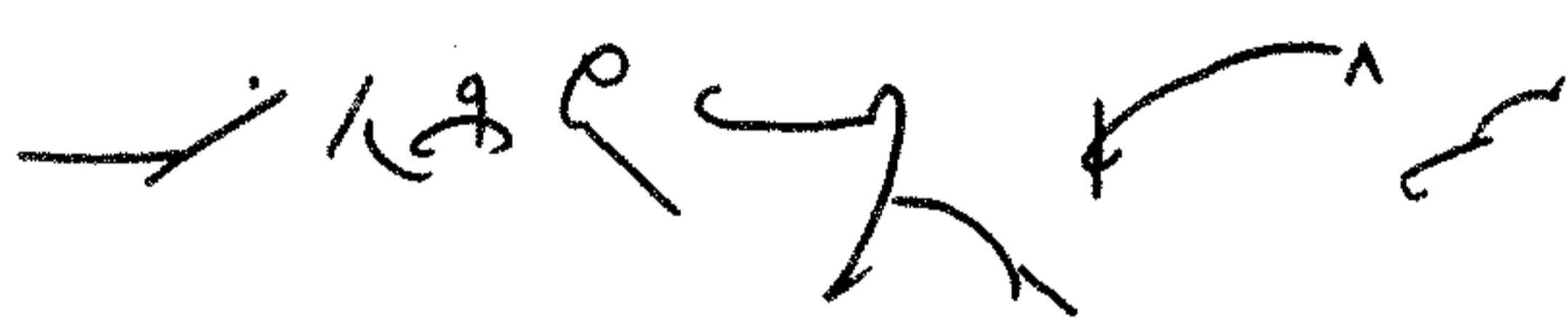
총리! 총리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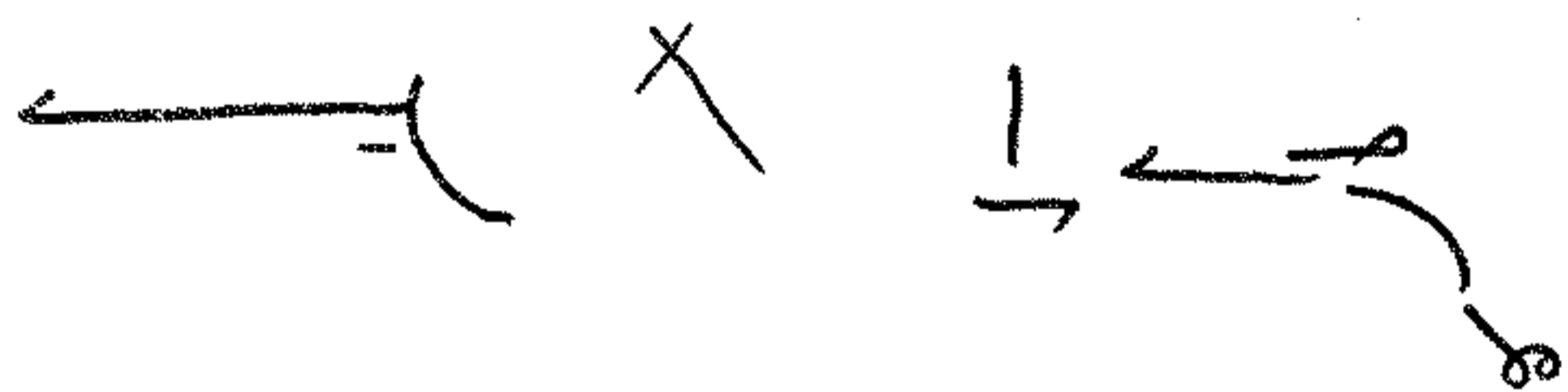
우리는 민족 통일의 입장에서 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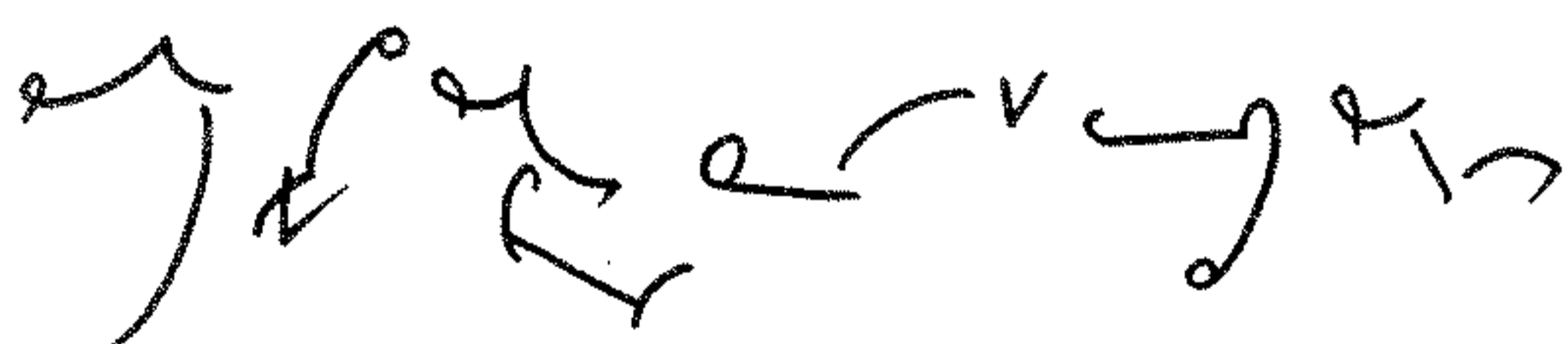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먼저 평화적인 공존 체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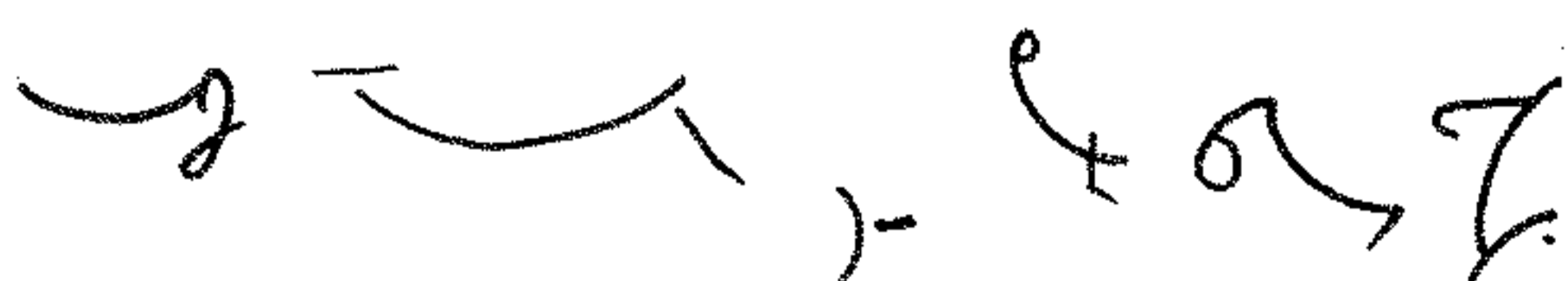
구축하고, 다방면에 걸친 상호 교류를 통해 이질적인 체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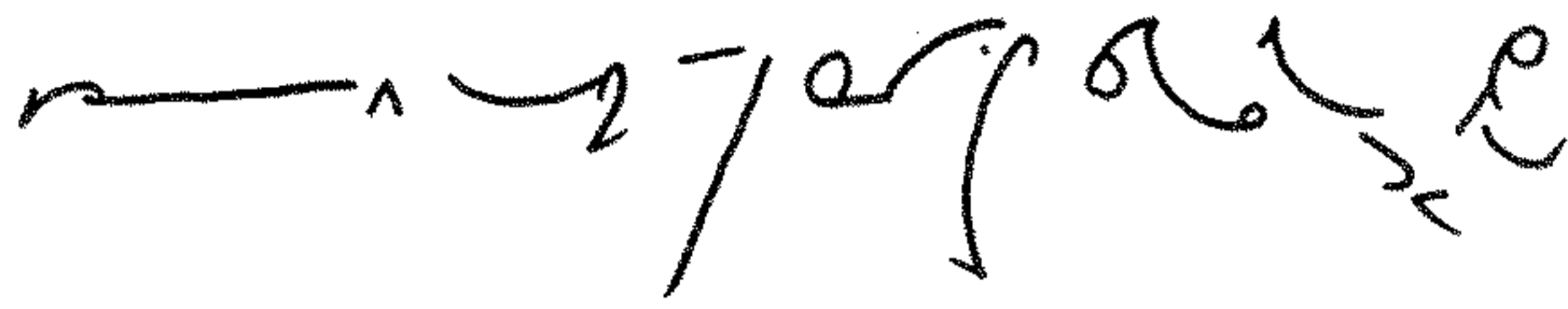
극복하면서 결국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는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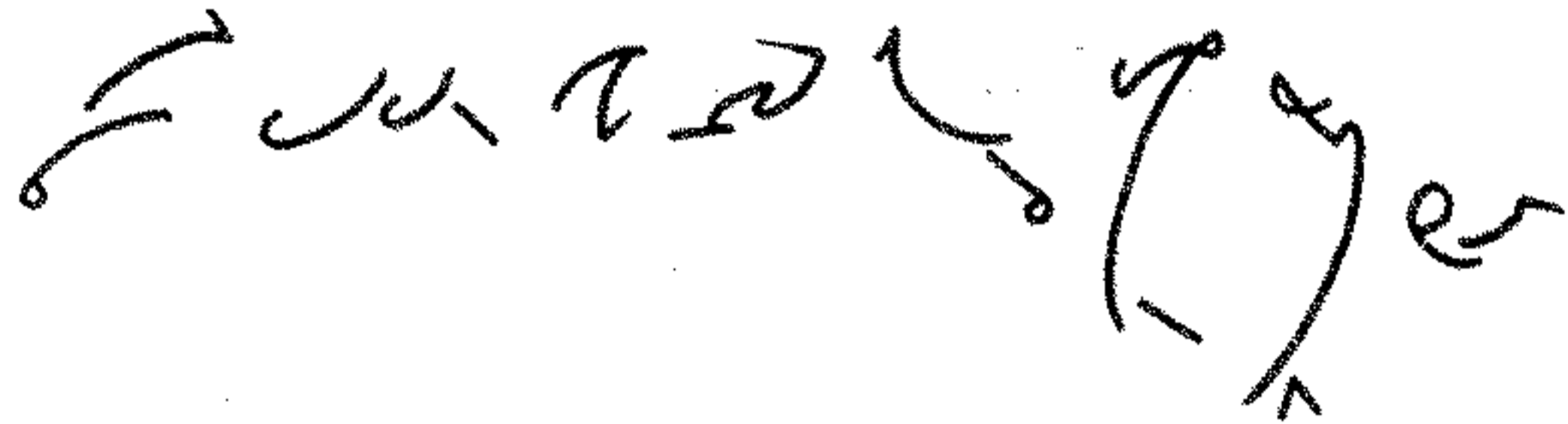
올바른 순서일 것입니다. 남북의 평화적 공존 및 교류는 남한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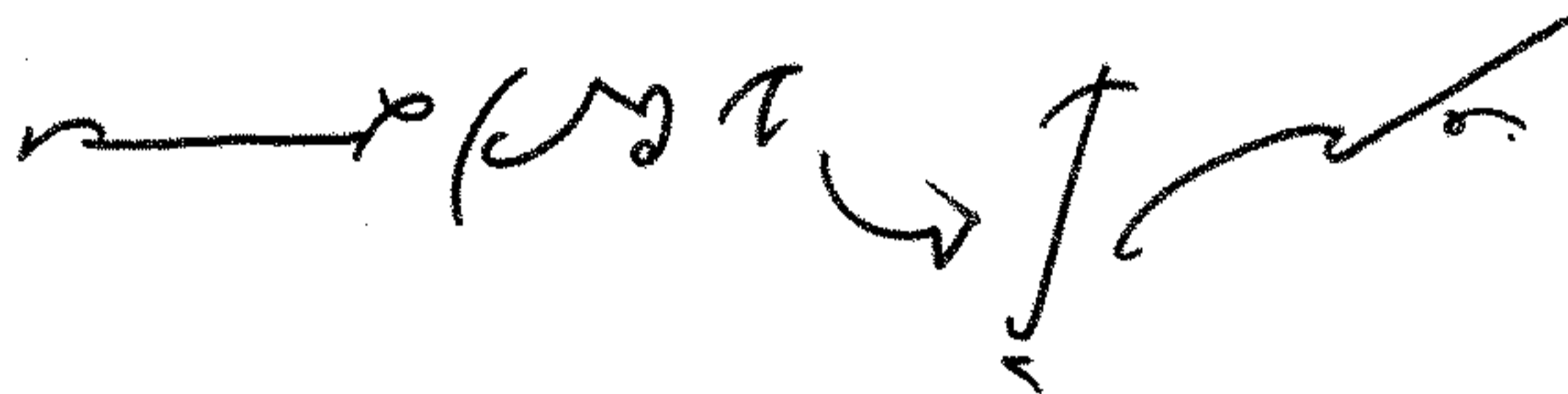
노력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본 의원은 정부의 계속적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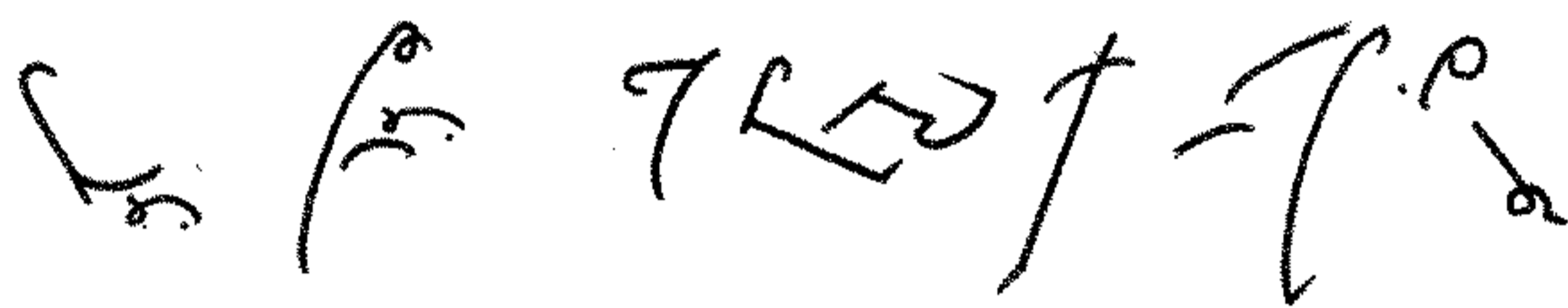
적극적인 노력을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부는 북한에 대해 상대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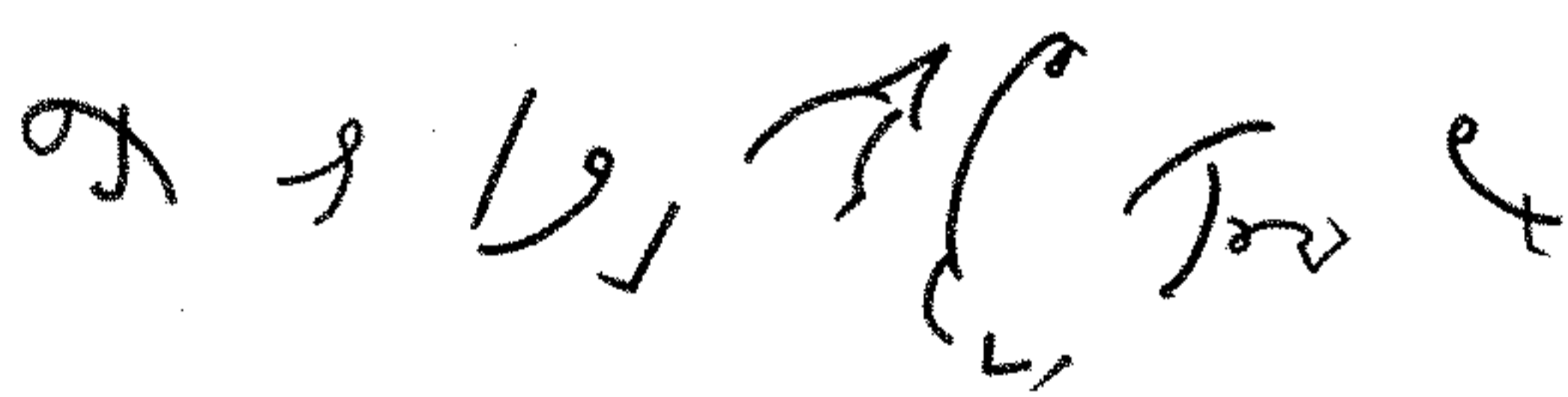
존중하는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북한이 제시한 합리적인 방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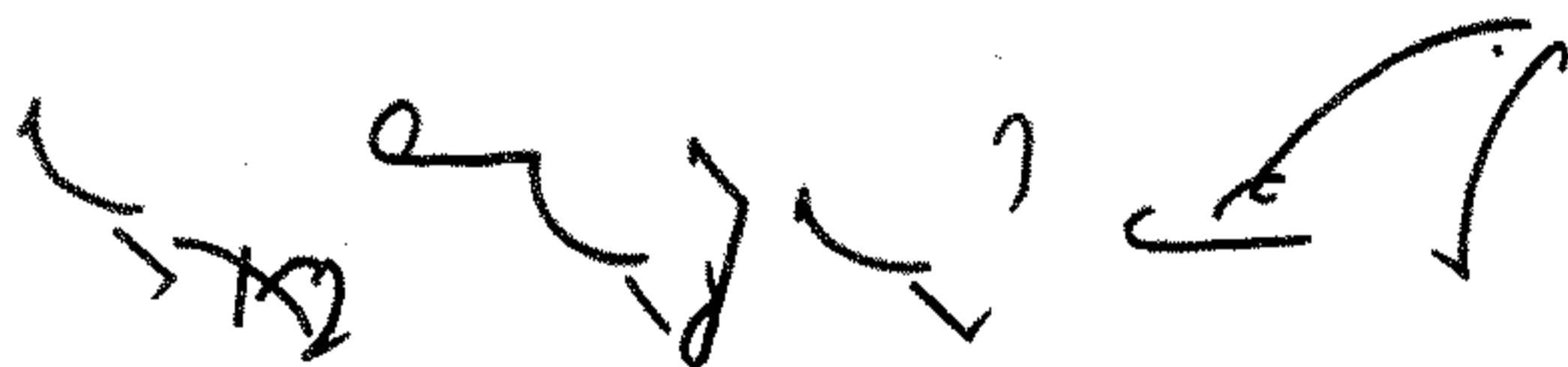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저들에 대해 지치지 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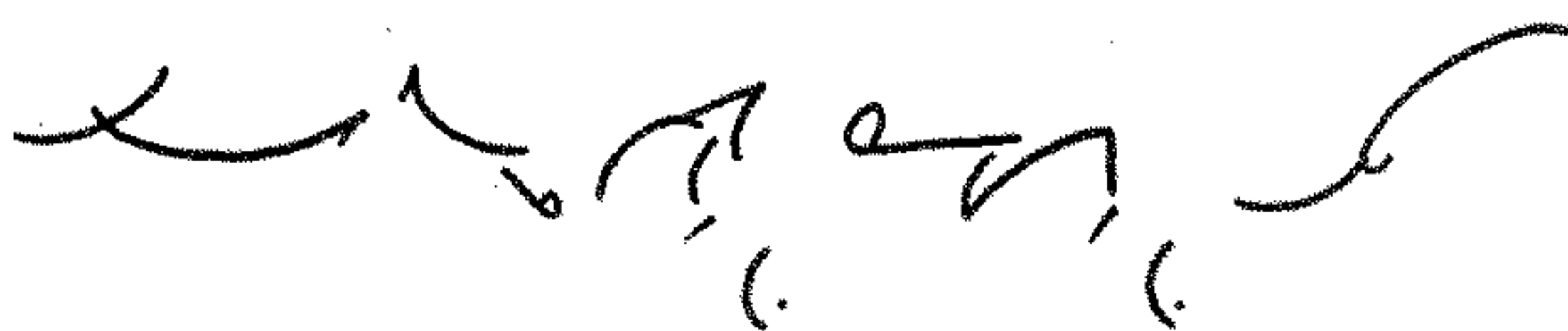
화내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계속 대화를 청해야 합니다. 저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통일에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주체사상의 실패까지도 조롱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의원은



북한의 통일 전략을 공부한 학도로서 북한을 이렇게 규정짓고 싶습니다.



오늘의 북한에는 주체사상도 없고, 공산주의도 없고, 오직

김일성주의에 대한 광적인 숭배만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상처까지도 우리가 감싸 주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주장입니다. 오늘날 남한은 국제화 시대에 부응,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데 비해 북한은 아직도 국제사회에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김일성은

고독하게, 어떤 면에서는 용감하게 주체사상을 밀고 나가 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를 능가하는 경제 발전을 이룬 것도 사실입니다.

○ ————— 687 9X 7
92

우리는 그가 그 때에는 잘했다고 인정해 줄
아량 정도는 가져야 합니다.

* 자신이 쓴 속기문자를 읽어보자<실전연습은 쓰고 읽기를 위주로 한다>.

손풀기 : 기본문자 복습 ... ▢ 받침, ㄱ 받침 3회 이상 써보자.

5. 중간약자(3)

5-1. ~바와 같이

		아는 바와 같이		
응용:		본 바와 같이		아시는 바와 같이
		보신 바와 같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시는 바와 같이		
		*주지하는 바와 같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5-2. ~바와 같은

		아는 바와 같은		
응용:		본 바와 같은		보신 바와 같은
		말씀하신 바와 같은		

5-3. ~바와 마찬가지로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응용: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간 것과 마찬가지로

<실전연습 33> ... 한글문장을 속기문자로 옮겨보자.

평양과 서울은 이미 경쟁 관계에서 벗어났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것은

평양과 서울은 이미 경쟁 관계에서 벗어났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것은

GNP나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의식 수준과

GNP나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의식 수준과

잠재력에도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현실은 정치·경제·

잠재력에도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현실은 정치·경제·

사회 등 모든 면에서 막다른 골목에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회 등 모든 면에서 막다른 골목에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민족애와 아량으로 감싸주고 접근한다면

진정한 민족애와 아량으로 감싸주고 접근한다면

북한으로서는 이에 응하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남북문제에 있어

북한으로서는 이에 응하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남북문제에 있어

주도권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여유와 힘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여유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정부는 대 민족사의 관점에서 남북

문제에 자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과감하게

밀고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남북문제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정권과

정국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새로운 통일정책에 국민이

무조건 수긍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 없는 새로운 정책의 제시보다는 통일관련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과감히

실천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때입니다. 그럼으로써 정부는 통일논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인식의 바탕 위에 본의원은

정부의 통일과 남북문제에 대한 기본자세의 전환을 촉구

하면서 다음 몇 가지의 제언과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리께 묻겠습니다.

첫째, 통일논의와 정보, 그리고 정책 입안 과정 등은

야당과 국민에게 개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 국민의 통일

의지를 총체적으로 수용·검토·관철시킬 수 있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로 구성되는 범국민적 통일 대책

기구의 설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둘째,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일논의의 개방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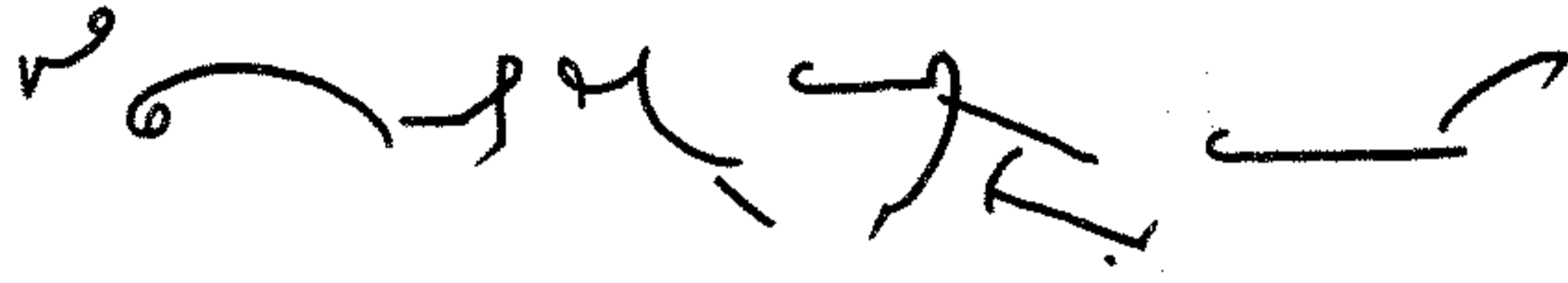
남북의 교섭과 교류의 개방까지 포함했을 때만이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몇 사람의 밀사에 의해서, 몇몇 당국자가

밀실에서, 남북한의 교섭과 교류의 논의를 독점하고 자의적으로

결정하여 왔습니다. 정부는 정부승인 아래 남북교섭을 개방하겠다고 하였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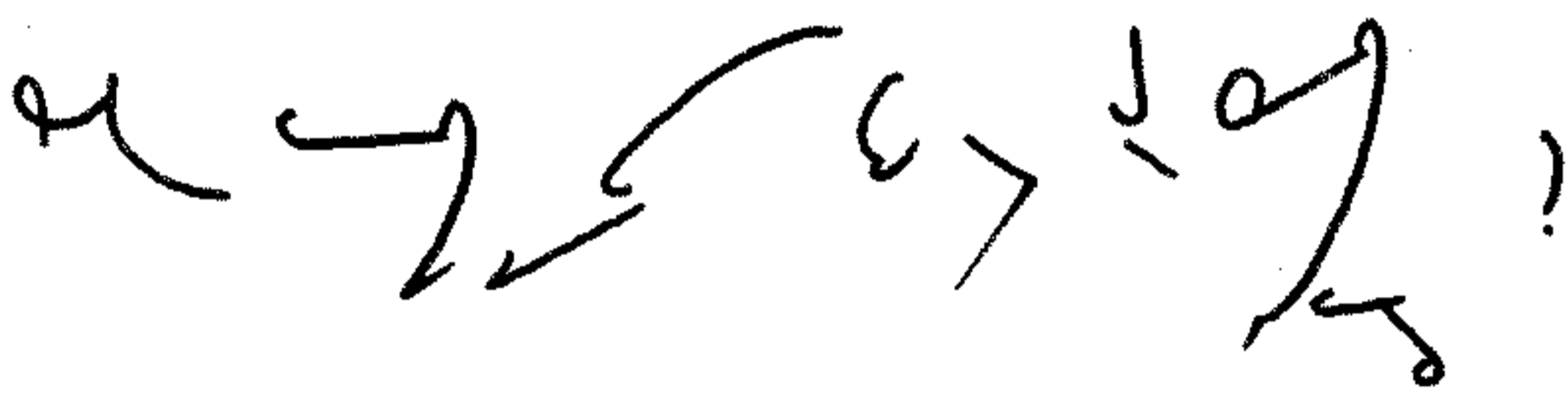
아직도 승인에 필요한 어떠한 객관적 기준조차 마련치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간 차원의 남북한 교류의 활성화
를 위하여 기준의



마련은 물론, 기준을 완화하여 민간부문의



남북교류를 촉진시켜야 하겠습니까. 이에 대
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자신이 쓴 속기문자를 읽어보자 <실전연습은 쓰고 읽기를 위주로 한다>.**

주의 : 약기법을 활용하다 보면 아직까지 완벽한 약자 활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아쉬운 대로 활용을 할 것이며 저 뒤편에 있는 약기를 들추어 가지고 무작정 활용을 한다면 속도 향상이 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이는 도리어 기본문자, 즉 손의 민첩성을 기르는 데 방해가 될 뿐이다.

따라서 배운 것은 철저히 활용하고 배우지 않은 것은 기본문자로 쓰는 것이 좋다.

손풀기 : 기본문자 복습 ... L받침, O받침 3회 이상 써보자.

6. 중간약자(4)

미루어(~다)	미루어서	미루어보다	미루어보건대	미루어볼 때	
빌어마지 않는다		바라마지 않는다		믿어마지 않는다	
주지하는 사실이다		주지의 사실이다		주지하는 바이다	
안타깝다	날카롭다	아울러	아울러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어리석다, 어린이, 아무리			
어쩌다	어쩌면	어째서	어쩔까	어쨌든	
가까이	가까운	가까워서	회답	회의	
여하간	여하튼	여하한(명확)	명백	하여간	하여튼

<실전연습 34> ... 한글문장을 속기문자로 옮겨보자.

③

셋째, 통일논의와 남북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이를 가로막고 있는 국가

Handwritten Korean text: 보안법이나 사회안전법, 안기부법 등 일련의

보안법이나 사회안전법, 안기부법 등 일련의

Handwritten Korean text: 반민주, 통일 역행적 사회악법을 정부가 앞장

반민주, 통일 역행적 사회악법을 정부가 앞장 서서

Handwritten Korean text: 개폐할 용의는 없습니까? 넷째, 본의원은 우리 정부가 유엔

개폐할 용의는 없습니까? 넷째, 본의원은 우리 정부가 유엔

Handwritten Korean text: 단독가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세계적인 탈냉전과

단독가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세계적인 탈냉전과

Handwritten Korean text: 신 데탕트 조류에 대한 역행은 물론 남북대 결을 심화시켜

신 데탕트 조류에 대한 역행은 물론 남북대 결을 심화시켜

Handwritten Korean text: 결국 분단 고착화의 책임을 스스로 떠맡게 될 백해무익의

결국 분단 고착화의 책임을 스스로 떠맡게 될 백해무익의

Handwritten Korean text: 정책이라고 봅니다. 정부는 과연 유엔 단독가 입 추진에서

정책이라고 봅니다. 정부는 과연 유엔 단독가 입 추진에서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for the first staff.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그것이 과연 통일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for the second staff.

다섯째, 다행히도 정부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 군축 문제도 의제로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for the third staff.

삼갔다고 천명한 바 있는데, 전쟁 억지력의 자주적 확보와 군사력의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for the fourth staff.

균형은 군비 증강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for the fifth staff.

군비축소회담 등을 통한 긴장의 완화에 의해서도 가능하며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for the sixth staff.

더욱 바람직스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명확한 군축에 대한 구상은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for the seventh staff.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핵 문제는 언제까지 덮어만 놓고 감추어 두고 있을

Handwritten Korean text: 작정입니까?

정부는 우리의 핵보유를 아직도 공식적으로는 부인도 인정도

Handwritten Korean text: 86년 3월 미 공군이 미 하원 제출위원회

하지 않고 있지만 86년 3월 미 공군이 미 하원 제출위원회

Handwritten Korean text: 군사건설소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핵전략적 의미를 지닌

군사건설소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핵전략적 의미를 지닌

Handwritten Korean text: 전략핵 공격기가 전술핵과 함께 이미 한국에 실전 배치된 것으로

전략핵 공격기가 전술핵과 함께 이미 한국에 실전 배치된 것으로

Handwritten Korean text: 나타나 있습니다. 남한의 핵보유는 한반도 평화, 남북대화

나타나 있습니다. 남한의 핵보유는 한반도 평화, 남북대화

Handwritten Korean text: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 민족의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 민족의

Handwritten Korean text: 멸절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는 커다란 위험과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

멸절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는 커다란 위험과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책임 있는 핵정책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주한미군의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핵무기 보유 상황과 핵무기 반입시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한국정부가 사전통고 받는지의 여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일곱째,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 2월 한국 국회에서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주한미군 감축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나, 미국 내에서는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현재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 자신이 쓴 속기문자를 읽어보자<실전연습은 쓰고 읽기를 위주로 한다>.

손풀기 : 기본문자 복습 ...ㄹ받침, ㅅ받침 3회 이상 써보자.

♣ 통 사

7. 어미(2) : **~ㄹ 것 같으면 (~같다)** (“나”위치, 길이 2cm 이상)

- (_____ ~ㄹ 것 같으면 (같다)... 없을 것 같으면
- (, _____ (앞말) + 할 것 같으면 (~같다)... 없다고 할 것
- (_____ ~지 않을 것 같으면 (~같다)... 없지 않을 것
- _____ ~에 의할 것 같으면 ...그에 의할 것 같으면
- f _____ 왜냐 할 것 같으면
- ┌ _____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7-1. 어미 : **~ㄹ지라도** (“나”위치, 길이 2cm 이상)

- ~ㄹ지라도 (앞말) + 할지라도 ~지 않을 지라도
- ↑ 드릴지라도 ↑ 드린다고 할지라도 ↑ 드리지 않을지라도

7-2. 어미 : **~ㄹ지언정** (“나”위치, 길이 2cm 이상)

- ~ㄹ지언정 (앞말) + 할지언정 ~ㄹ지 않을지언정
- ↘ 될지언정 ↘ 된다고 할지언정 ↘ 되지 않을지언정

<응용연습> 스스로 하기

- 1) 기본형 + 「~ㄹ 것 같으면」
 - 2) 기본형 + 「~ㄹ지라도」 어찌구
 - 3) 기본형 + 「~ㄹ지언정」 어찌구
- 기타는 스스로 해 보기 바란다.

<실전연습 35> ... 한글문장을 속기문자로 옮겨보자.

원칙적으로 외국군대가 주권국가에 상주하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미국과 한국정부는 앞으로 가능한 한

가까운 시일내에 미군철수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는 주한

미군 철수의 구체적 조건과 시기, 향후 대책에 대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전권 인수문제, 불평등한 한미

행정협정의 개정문제, 용산 미군기지

이전문제 AFKN채널권문제 FX사업문제 등에 있어

이전문제, AFKN채널권문제, FX사업문제 등에 있어

우리 정부가 자주성이 결여된, 양보로 일관하는 굴욕적이고

우리 정부가 자주성이 결여된, 양보로 일관하는 굴욕적이고

구결적인 대미 협상자세를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구결적인 대미 협상자세를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 자신이 쓴 속기문자를 읽어보자(실전연습은 쓰고 읽기를 위주로 한다).

손풀기: 기본문자 복습 ... ㅁ 받침, ㄱ 받침 3회 이상 써보자.

♣ 통 사

7-3. 어미 : ~ 치더라도 (차줄 2cm 이상)

(앞말) + 치더라도 ... 밝힌다 치더라도
 ~지 않(는)다 치더라도 ... 밝히지 않는다 치더라도

7-4. 어미 : ~ 손 치더라도 ("치" 2cm 이상)

(앞말) + 손 치더라도 ... 없다손 치더라도
 ~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 없지 않다손 치더라도

<실전연습 36> ... 한글문장을 속기문자로 옮겨보자.

다음으로 정부가 9월 11일 제의한 '한민
 족 공동체 통일안'에 대해서

문졌습니다. 정부는 남북대화과 통일의 전제
 조건으로 첫째, 북한의

민주화 둘째, 북한의 개방 셋째, 적화노선의

포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7·7선언에서 보여준

포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7·7선언에서 보여준

정부의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정부의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보여줍니다. 본의원은 현재의 교착된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보여줍니다. 본의원은 현재의 교착된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대화에서 서로 전제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남북대화에서 서로 전제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통일원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국방 안보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통일원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국방 안보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미국은 근년에 들어 한국에 대해서 주한미군의

미국은 근년에 들어 한국에 대해서 주한미군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 분담을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지에 필요한 비용 분담을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88년 2월 9일 7

그런데 88년 한국·일본·서독의 주둔 미군

경비 부담률을 비교해 보면 미군 1인당 지불하는

방위비는 한국이 서독에 비해 약 2.3배, 일본과는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한국과 서독, 일본의 경제력 차이를 감안한다면 부담률이

서독과 일본에 비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여기서 GNP를 대비해 보면

한국은 일본의 18배, 서독의 3.5배의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미 과도한 방위비를 부담해 오고 있는데, 미국은 다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한편, 이른바 한·미·일 삼각안보체제가 가시화되면서 한국의

한편, 이른바 한·미·일 삼각안보체제가 가시화되면서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역할이 점차 퇴조하는 데 반하여

안보에 대한 미국의 역할이 점차 퇴조하는 데 반하여

새로운 군사강국으로서 일본의 역할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군사강국으로서 일본의 역할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힌 한국군의 태평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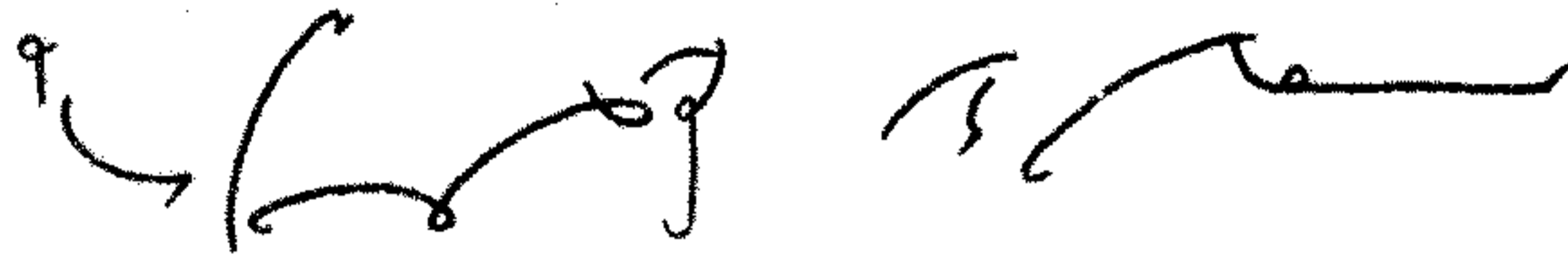
국방장관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힌 한국군의 태평양

훈련(PACEX) 및 환태평양훈련(RIMPAC)에의 참가는 한국이 삼각안보체제에 실질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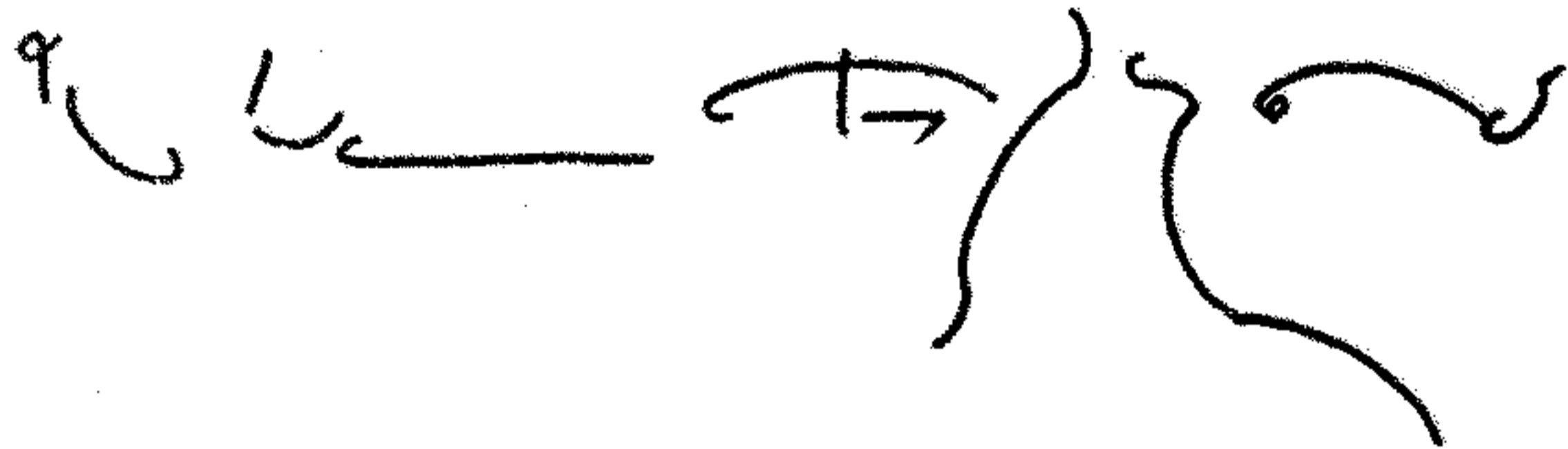
훈련(PACEX) 및 환태평양훈련(RIMPAC)에의 참가는 한국이 삼각안보체제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본의원은 과거 우리나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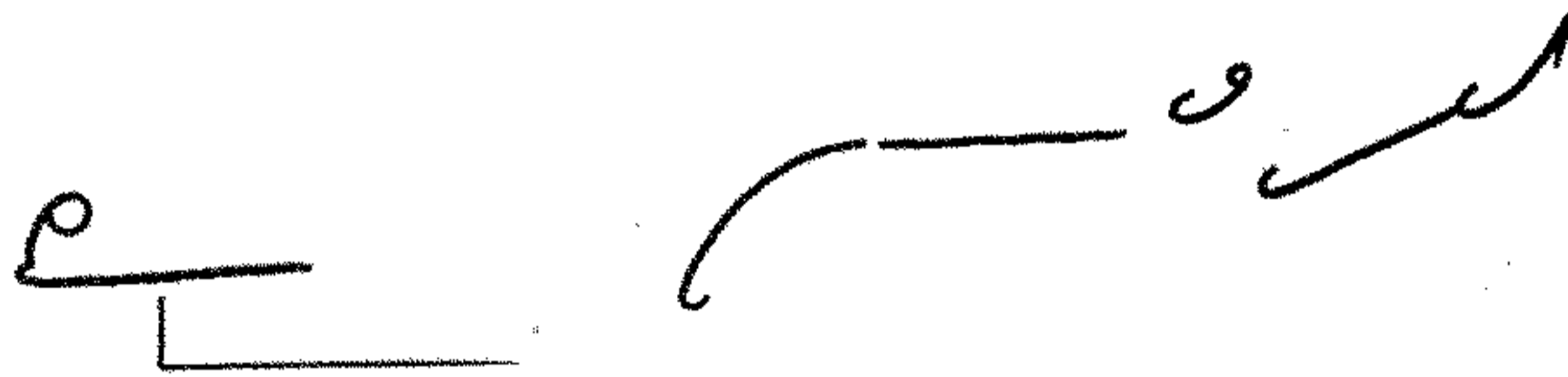
편입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본의원은 과거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기 전에 조선의 지배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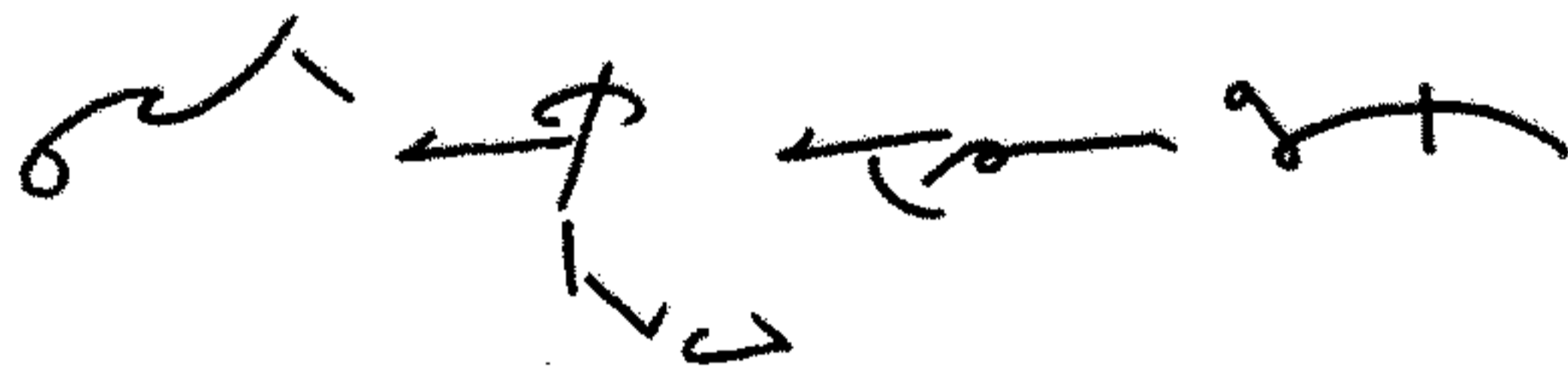
일본에 떠넘긴 마·일간의 '카스라 - 테프트 밀약'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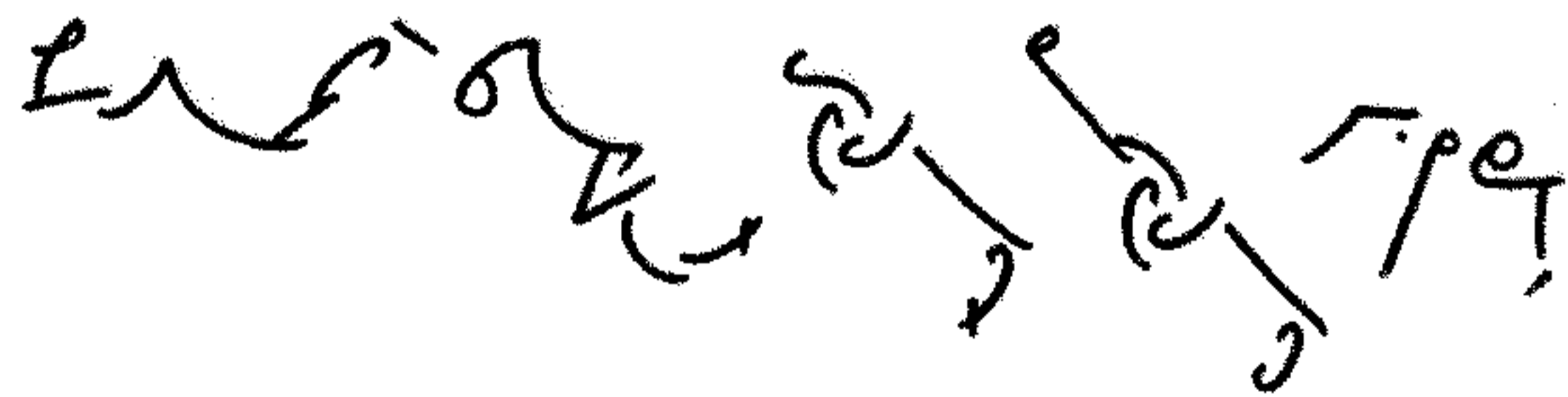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치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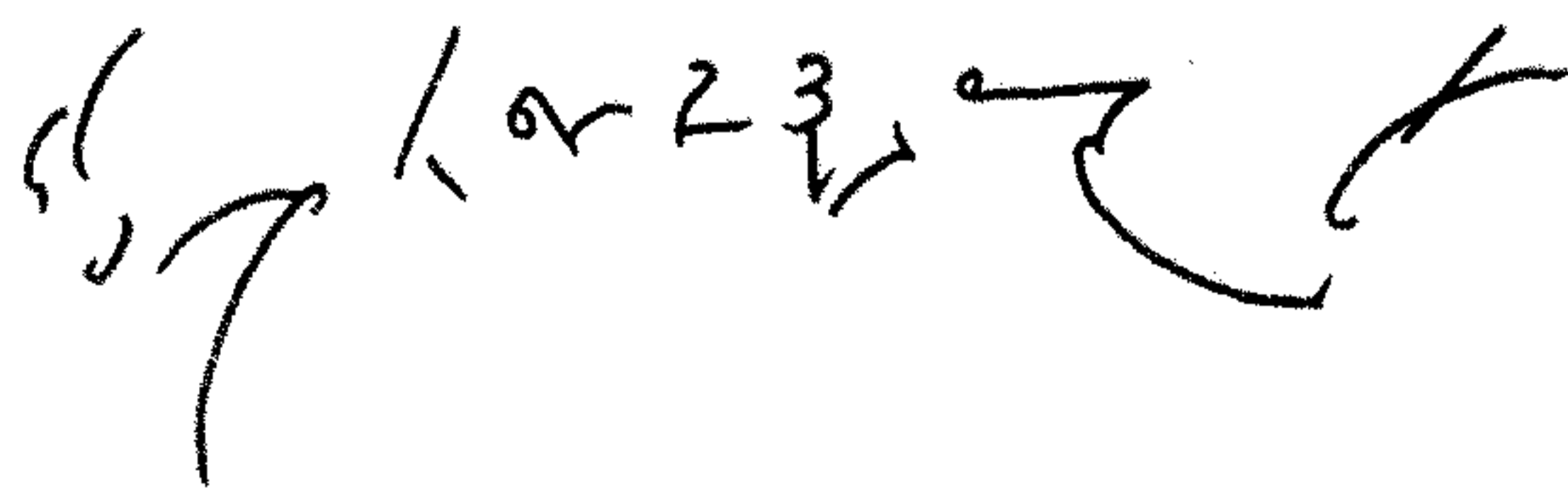
과거 역사를 상기하면서 우리의 나아갈 바를 분명히 해야 할



중요한 국면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국방장관은 한·미·일



삼각안보체제에 대한 정부의 대처 방안과 태평양훈련과 환태평양훈련에 참가하게 된 경위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세계 3위를 점하는 군사비를 지출,

군사력이 단순한 자위권 행사 수준을 넘어선
일본과의 향후

군사력을 단순한 자위권 행사 수준을 넘어선
일본과의 향후

군사관계를 어떻게 전망하며, 일본의 신군국
주의의 부활

군사관계를 어떻게 전망하며, 일본의 신군국
주의의 부활

가능성과 앞으로 한·일간의 방위조약이 체결
될 가능성 여부도

가능성과 앞으로 한·일간의 방위조약이 체결
될 가능성 여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에게 묻겠
습니다. 우리의 북방정책은 정부가 밝힌 바
와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에게 묻겠
습니다. 우리의 북방정책은 정부가 밝힌 바
와 같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통일의 기반 조성을 목
표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통일의 기반 조성을 목
표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 자신이 쓴 속기문자를 읽어보자 (실전연습은 쓰고 읽기를 위주로 한다).

손풀기: 기본문자 복습...ㄴ받침,ㅇ받침 3회 이상 써보자.

8. 중간약자(5)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아니라 8mm</div>		
	드릴 뿐만 아니라		드릴 뿐 아니라
	말할 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뿐 아니라
	정치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뿐만 아니라		수출뿐이 아니라
	수출뿐만이 아니라		수출뿐만이 아니고
	수출뿐만이 아니다		

<응용연습> 스스로 하기

- 1) 기본형 + 뿐만 아니라
- 2) 시제 + ~르 뿐(만) 아니라 (연습)
- 3) 「~았」 + ~르 뿐(만) 아니라... 갔을 뿐(만) 아니라
- 4) 「~았었」 + ~르 뿐(만) 아니라... 갔었을 뿐(만) 아니라
- 5) 「~는 것」 + ~르 뿐(만) 아니라... 가는 것 뿐(만)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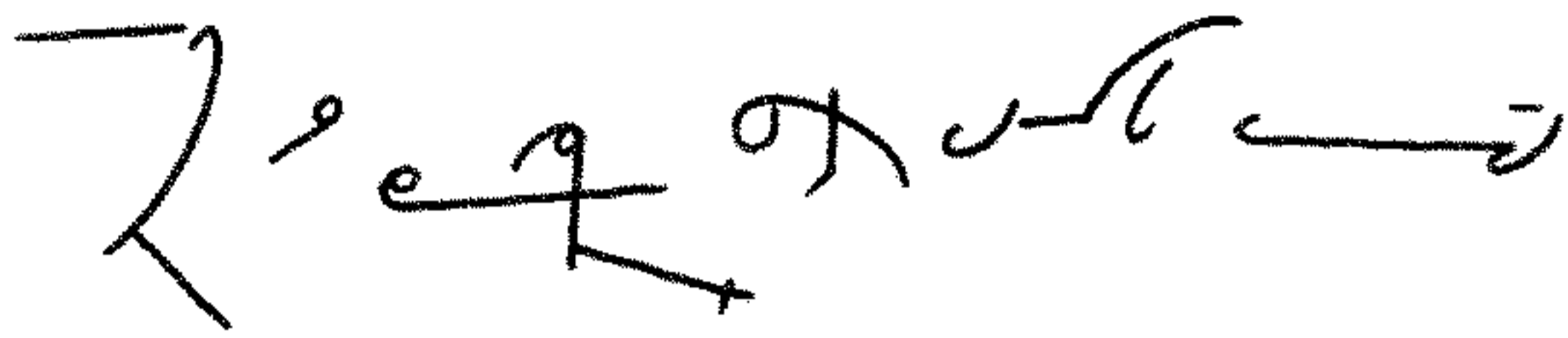
참고 : 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전연습 37> ... 한글문장을 속기문자로 옮겨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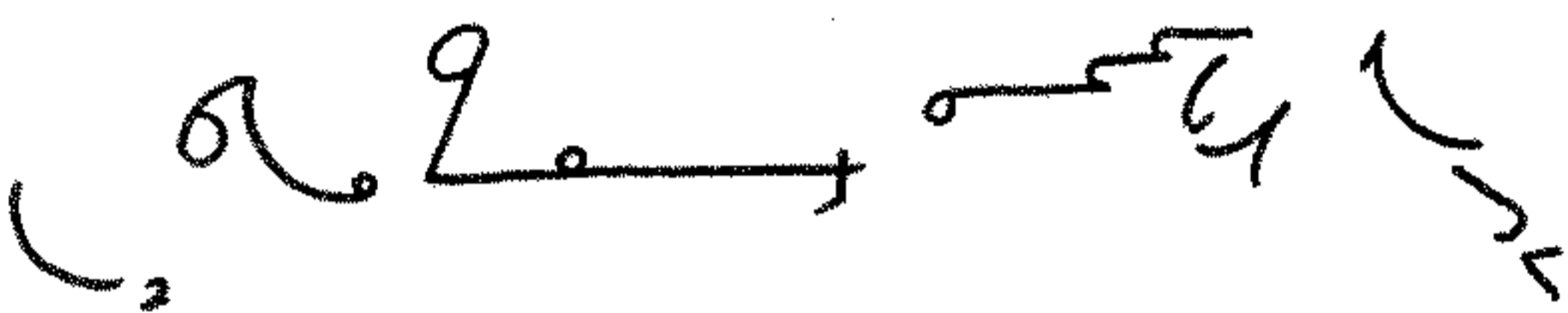
현재의 상태를 보면 이러한 목표에서 이탈,
북한의 외교적 동맹국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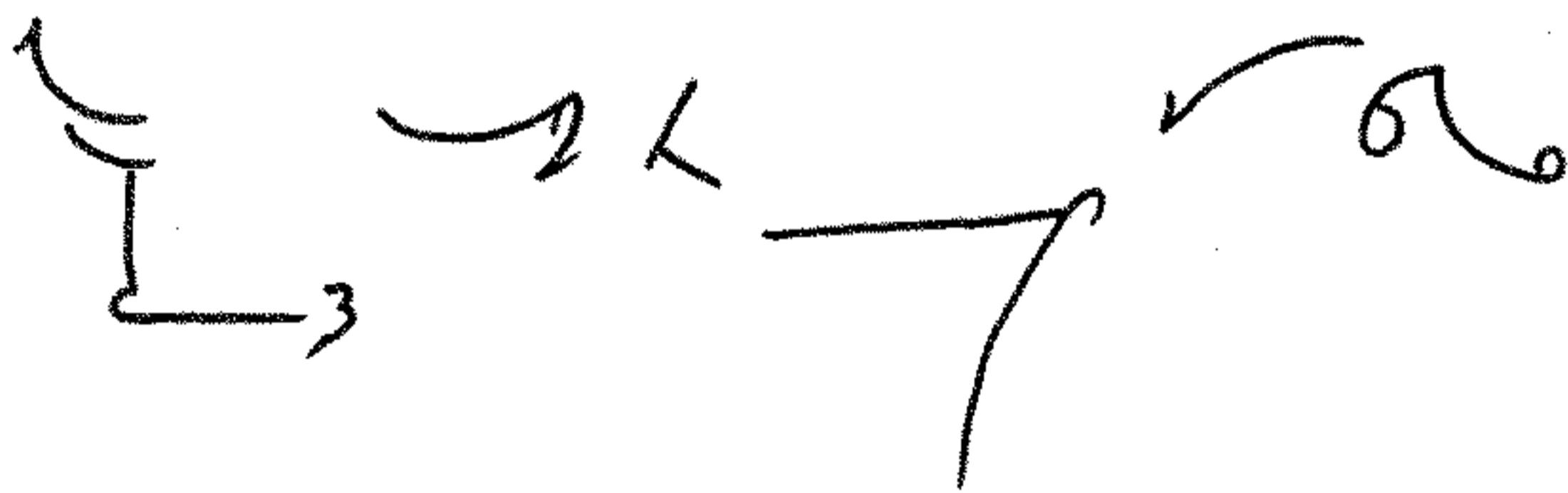
관계를 약화시키거나 혹은 붕괴를 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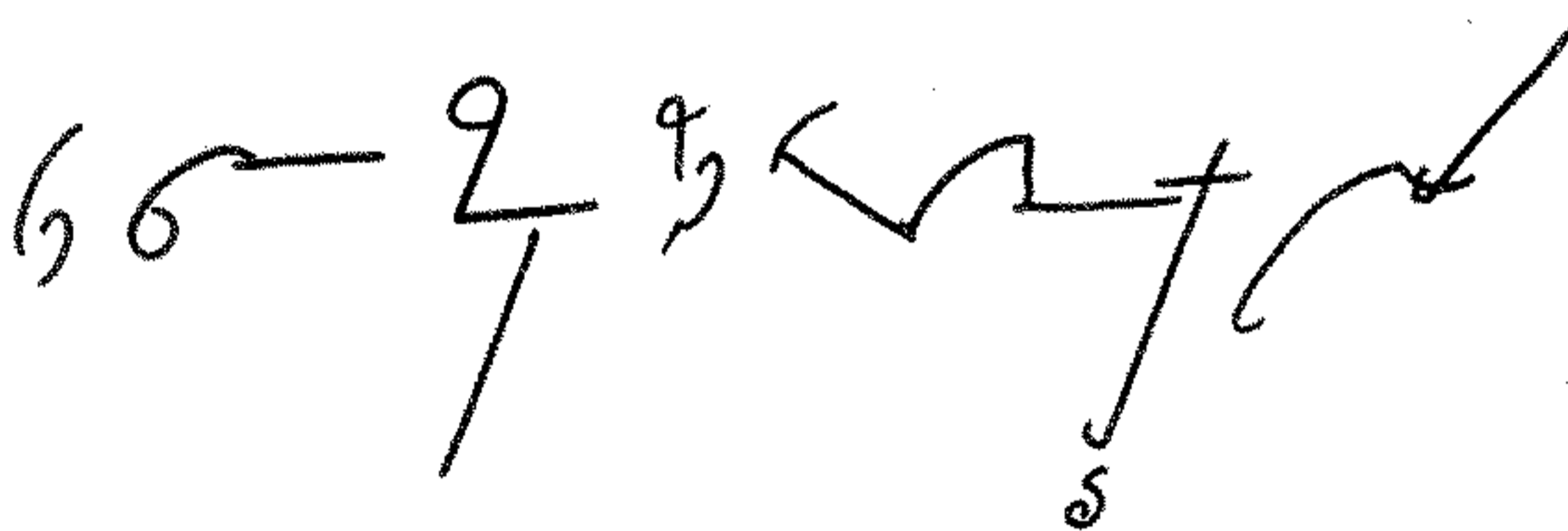
고립화정책이 긴장완화와 통일의 여건 조성
에 기여하리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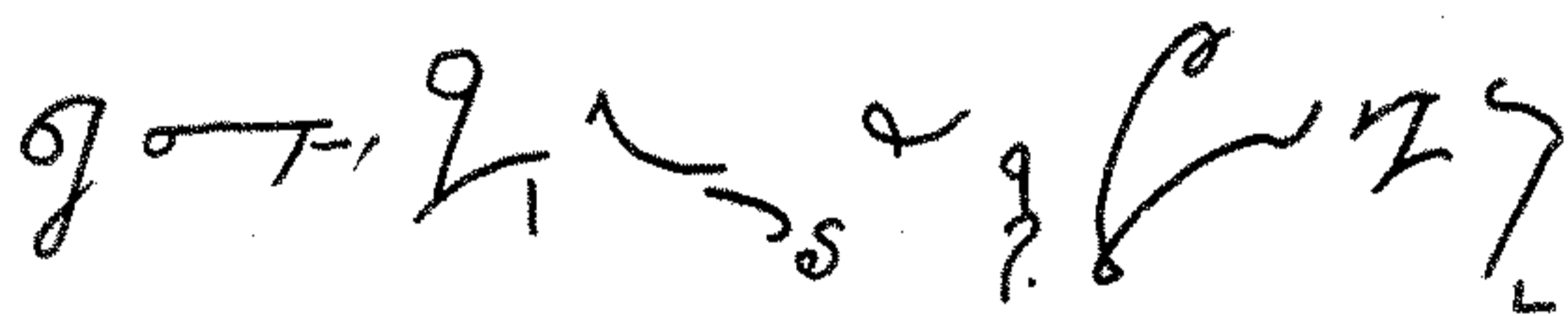
보십니까? 정부는 동구권과의 관계개선에 앞
서 북한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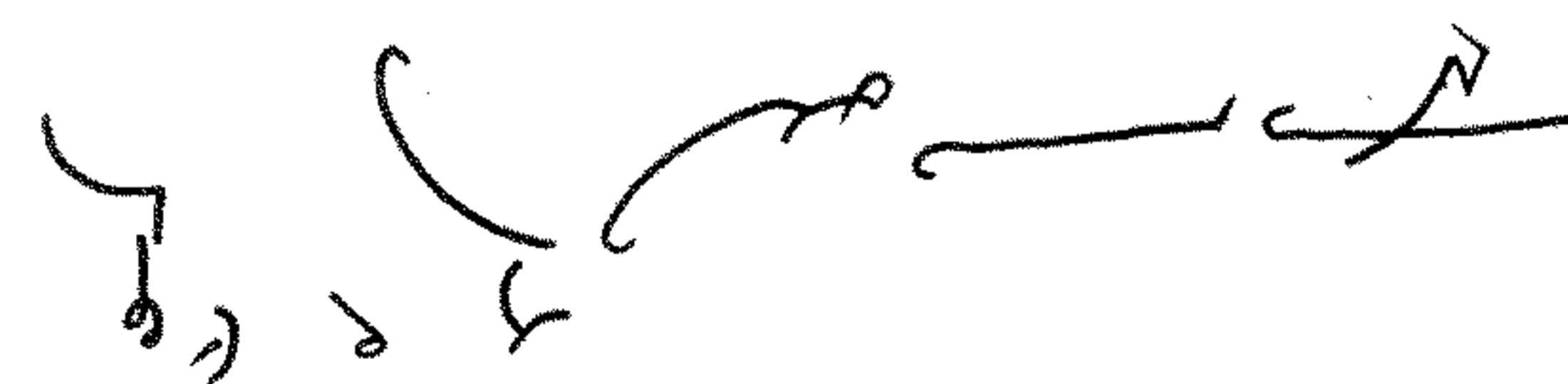
북방외교만큼의 노력을 더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즉, 정부는



소련·중국·동구 등 일련의 사회주의 국가들
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관대하면서도 동족인 북한에 대해서
는 너무 인색하고, 심지어 적대적 태도까지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적 지적
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Handwritten Korean text: *이러한 사실은*

또한 북방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주로 경제적인 면에서 실리를 추구하고 있는 데 반해

Handwritten Korean text: *우리는 가시적 업적에 사로잡힌 나머지*

우리 정부는 가시적 업적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들에게 정치적 이용만 당하고 있는 것은

Handwritten Korean text: *아닌가 느껴집니다.*

아닌가 느껴집니다.* 요컨대 이는 우리 정부가 북방정책의

Handwritten Korean text: *전반에 대해 전략적 개념과 목표가 없기 때문에*

전반에 대해 전략적 개념과 목표가 없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Handwritten Korean text: *장관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장관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대미외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Handwritten Korean text: *앞으로 한미 관계는 크게 보아 두 가지 현안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한미 관계는 크게 보아 두 가지 현안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Handwritten Korean text: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공산권 국가와의 관계개선에*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공산권 국가와의 관계개선에 한국이

국제적 위상의 다변화에 따라 생길 한국의 북방정책과

국제적 위상의 다변화에 따라 생길 한국의 북방정책과

대미 관계의 마찰 가능성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대미 관계의 마찰 가능성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북방정책을 '탈미국'으로 보아서도 안되며 또한 한국도

북방정책을 '탈미국'으로 보아서도 안되며 또한 한국도

중전의 대미관계를 고려한 북방정책을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중전의 대미관계를 고려한 북방정책을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세계가 유럽권, 아메리카권, 아시아 태평양권으로

둘째, 세계가 유럽권, 아메리카권, 아시아 태평양권으로

경제블록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이때에 미국은 한국에 대한

경제블록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이때에 미국은 한국에 대한

지나친 통상압력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지나친 통상압력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아! 1 2 3 4 5 6 7 8 9 10

좁히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마찰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노태우 대통령의 방미 외교에 대해서 한마디 묻고 싶습니다. 내일로 출발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시비는 가능한 한 삼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번 노 대통령의 방미에 우리 국민들은 얻을 것은 거의 없고

줄 것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방미에서 우리가 얻을 것은 무엇이며

양보할 것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국방·통일정책의 초석은...

양보할 것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국방·통일정책의 초석은...

외교·국방·통일정책의 초석은...

외교·국방·통일정책의 초석은...

외교·국방·통일정책의 초석은...

외교·국방·통일정책의 초석은...

* 자신이 쓴 속기문자를 읽어보자(실전연습은 쓰고 읽기를 위주로 한다).

손풀기 : 기본문자 복습...ㄹ받침, ㅅ받침 3회 이상 써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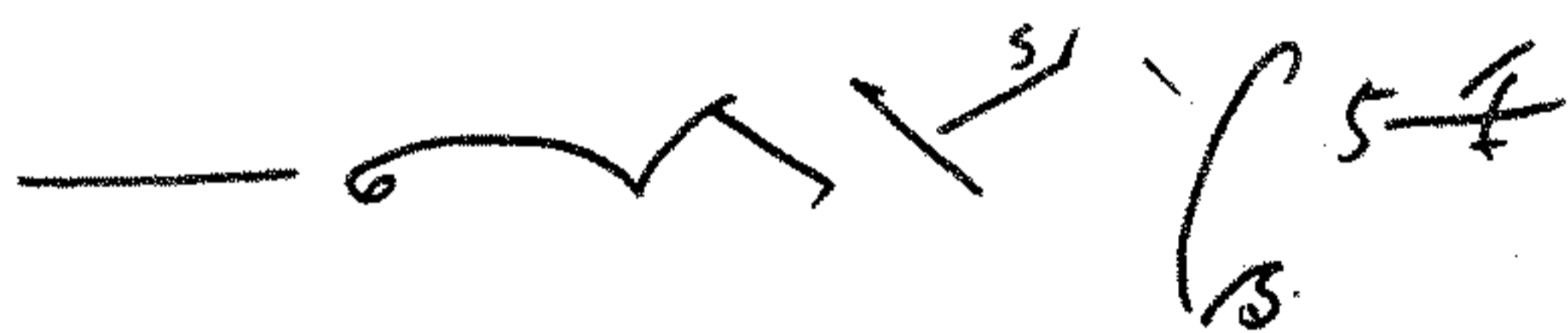
8-1. ~보다

~는 것보다		: 보~	~은 것보다		: 간 것보다
~다는 것보다		: 준 ~	~던 것보다		: 하 ~
~(는)다기보다		: 준 ~	~기보다		: 가 ~
*이라기보다			먹는다기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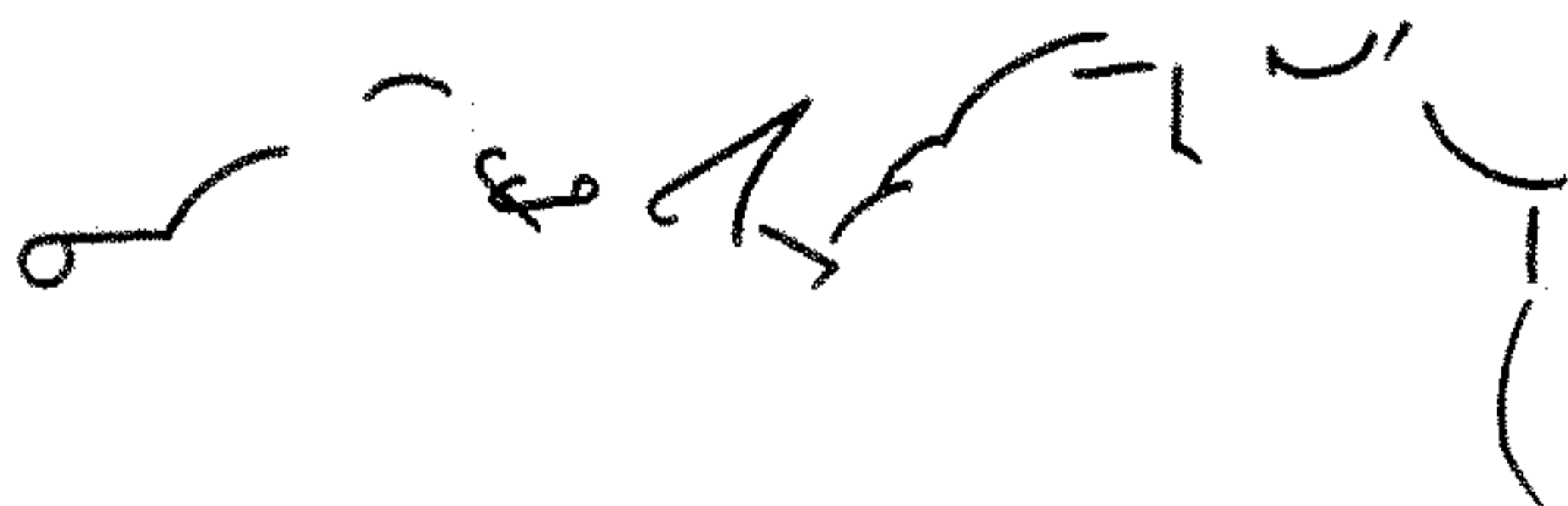
<실전연습 38> ... 한글문장을 속기문자로 옮겨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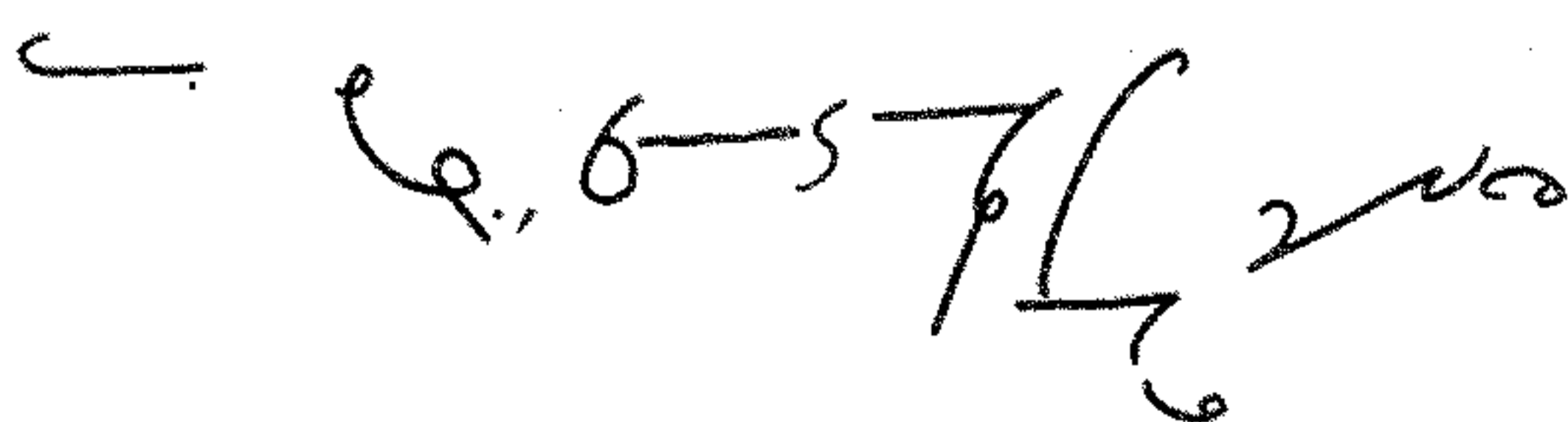
뭐니뭐니 해도 국내 정치의 민주화에 있다고
봅니다.



그 민주화의 확충을 위해서 현 시점에서는
5공 청산과



광주문제 해결이 최소한의 전제조건임은 누
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6공 들어 구속된 시국
사범이 2천여 명이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with a treble clef and a 5/4 time signature.

넘고 하루 평균 구속자수가 그 악명 높던 5
공화국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with a treble clef and a 5/4 time signature.

당시보다 2배를 훨씬 웃돌기 때문입니다. 노
대통령과 정부에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with a treble clef and a 5/4 time signature.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5
공 청산과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with a treble clef and a 5/4 time signature.

광주문제 해결에 용단을 내리십시오.* 이는
7천만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with a treble clef and a 5/4 time signature.

한민족의 안녕과 내일의 번영을 위한 온 국
민의 간절한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with a treble clef and a 5/4 time signature.

충언입니다. 80년대의 혼돈과 갈등을 씻고 변
화와 진보의 90년대의 개막을 앞둔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with a treble clef and a 5/4 time signature.

이 시점에서 노 정권은 세계와 더불어 살아
가야 할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올바른 수립과 전개를 위해 좀더

진지하게, 그리고 솔직한 태도로, 보다 겸허한

자세로 야당 지도자들을 포함한 국민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의 협력을 구하는 데 인색하지 말기를 당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자신이 쓴 속기문자를 읽어보자(실전연습은 쓰고 읽기를 위주로 한다).


손풀기: 기본문자 복습...ㄹ받침, ㄱ받침 3회 이상 써보자.


9. 중간약자(6)


- | | | | | |
|------|--|--------------------------------|--|---------------------|
| 9-1. | | 말씀 <u>해</u> 주시다 (16mm 이상) | | 말씀해 주시며 |
| 9-2. | | 말씀 <u>해</u> 주시기 (바랍니다) | | ~해 주시기 바라며 |
| | |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 ~해 주시기를 바라고 |
| 9-3. | | <u>밝혀</u> 주시다 | | <u>밝혀</u> 주시기(바랍니다) |
| | | 밝혀 주시고 | | 밝혀 주시기 바라고 |
| | | 말씀 <u>하</u> 여 주시다... 응용 그대로 적용 | | |
| 9-4. | | 말씀 <u>해</u> 주다 (4mm) | | 말씀해 주고 |
| | | 말씀해 주기 (바라다) | | 말씀해 주기 바라고 |
| | |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 | |
| | | 말씀해 주기를 (바라다) | | 말씀해 주기를 바라고 |
| | |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 | |
| 9-5. | | <u>밝혀</u> 주다 | | 밝혀 주기 |
| | | 말씀 <u>하</u> 여 주다 | | 말씀하여 주기 |


9-6.  말씀하기 (바라다)


 말씀하기를 (바란다)


 말씀하기를 바라고


 말씀하기 바랍니다


 말씀하기를 바랍니다


9-7.  말씀하시기 (바라다)...「식」자 4mm~16mm로 이어쓴다.

 말씀하시기를 (바라다)


 말씀하시기를 바라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있으시기 (바라다)


 주시기를 바라고


 믿기 (바라다)


 나오기 (바라다)


9-8.  예를 들면


 예를 든다고 하면

 예를 든다면

 예를 들자면

 예를 든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예를 들 것 같으면

<실전연습 39> ... 한글문장을 속기문자로 옮겨보자.

자료 : 의장 이만섭

부의장 황낙주 · 허경만 / 의사국장 강천구

(10시3분 개의)

10/3

12) 의 · 6. 4 7

○의장 이만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 의 · 6. 4 7

의사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의 · 6. 4 7

○의사국장 강천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통일 · 외교 · 안보에 관한질문

(10시 4분)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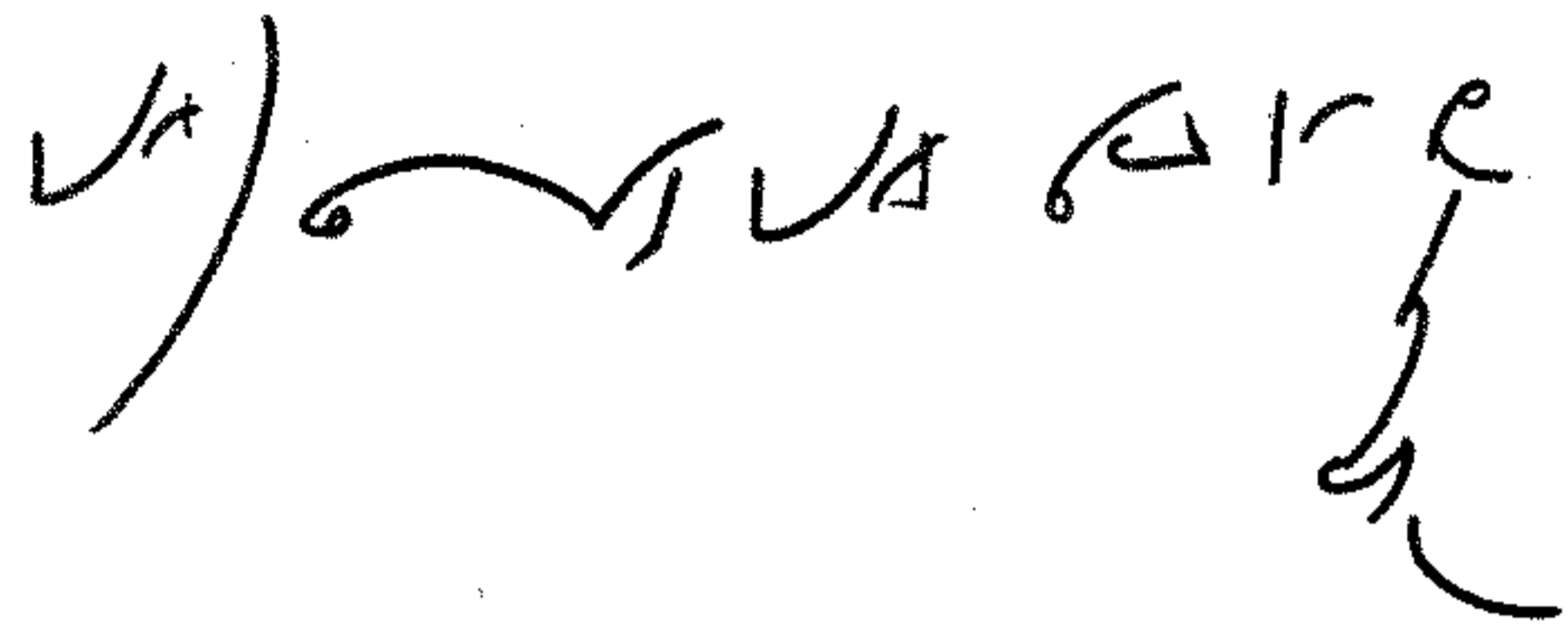
12) 의 · 6. 4 7

○의장 이만섭 의사일정 제1항 통일 · 외교 · 안보에 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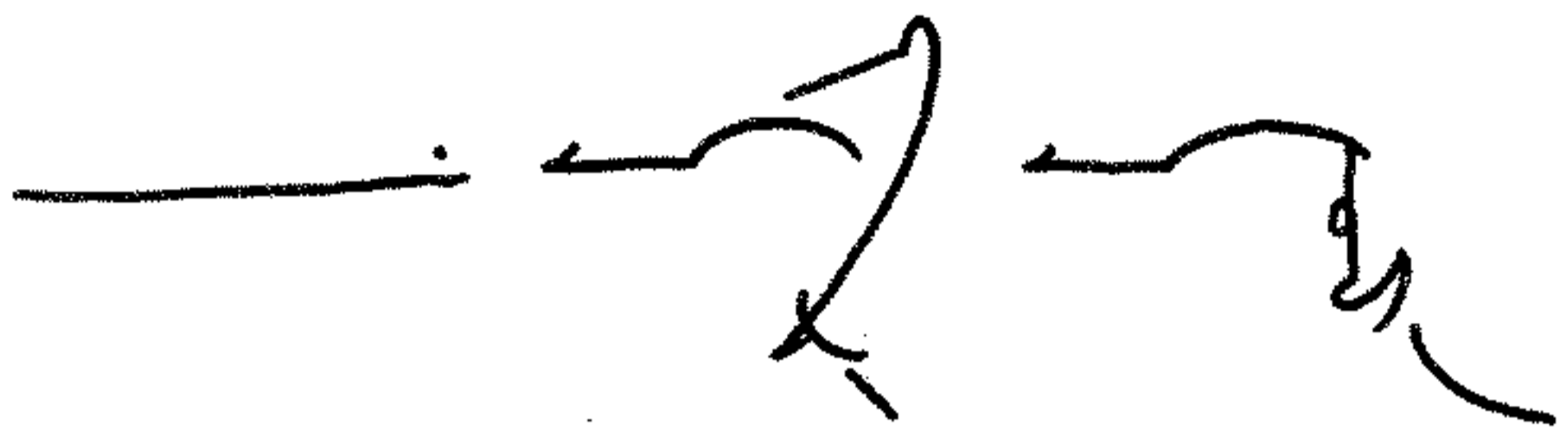
12) 의 · 6. 4 7

먼저 민주당의 이우정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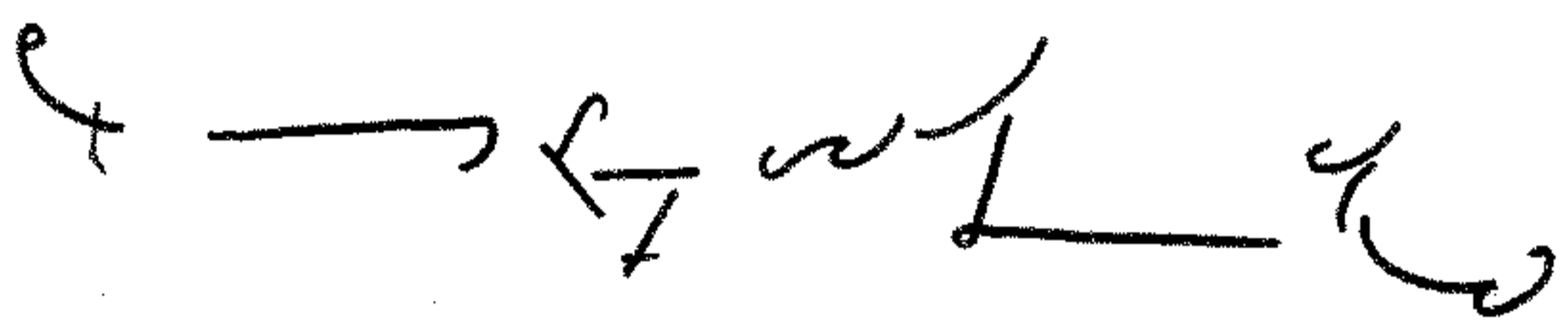
참고 : 「...」은 의사봉 3타를 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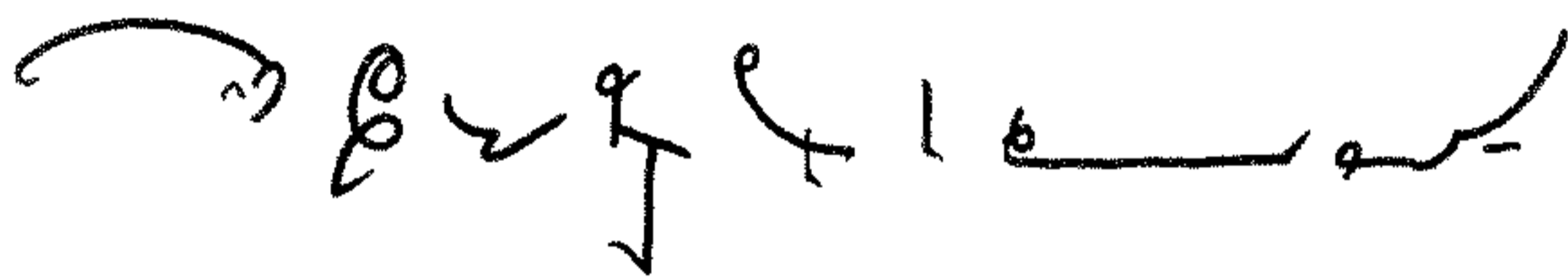
○이우정 의원 민주당의 이우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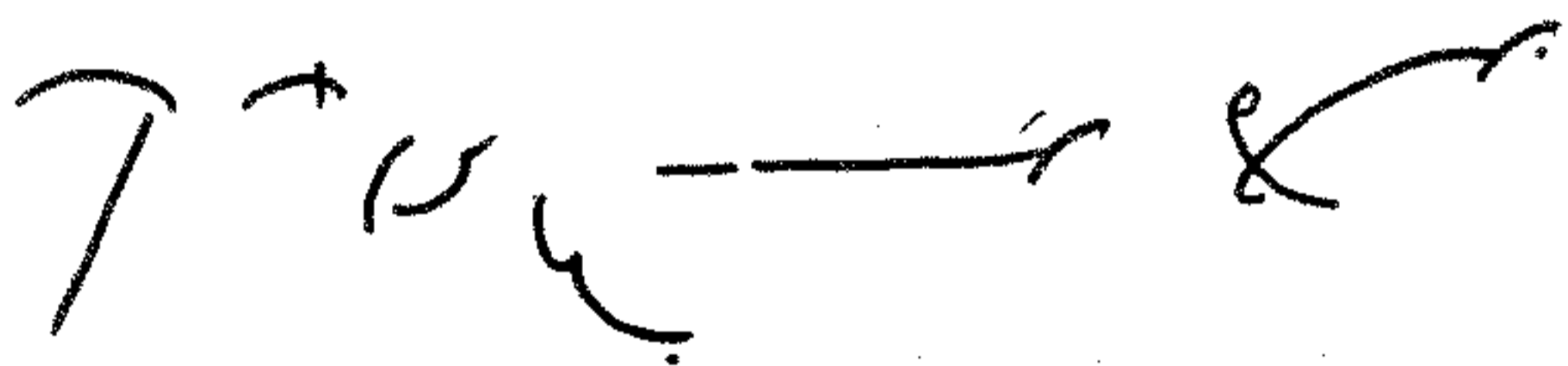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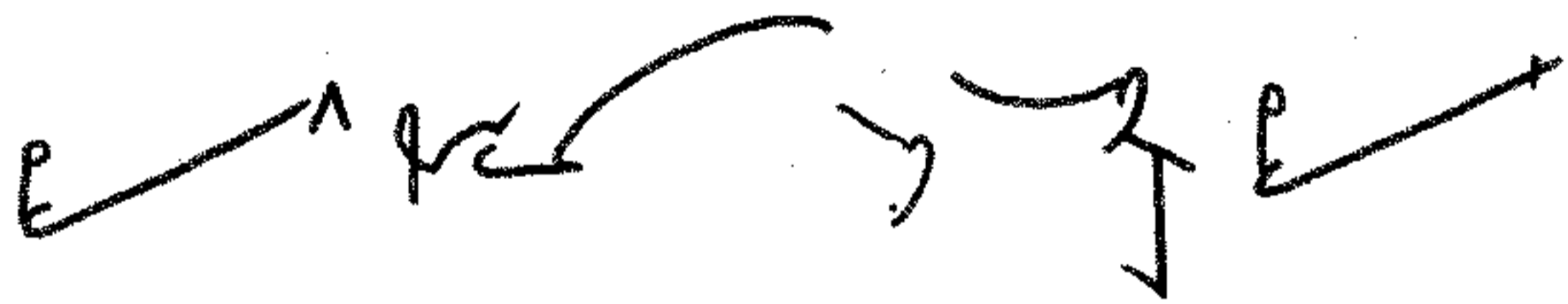
본의원은 그동안 대학강단과 재야운동권,
여성분야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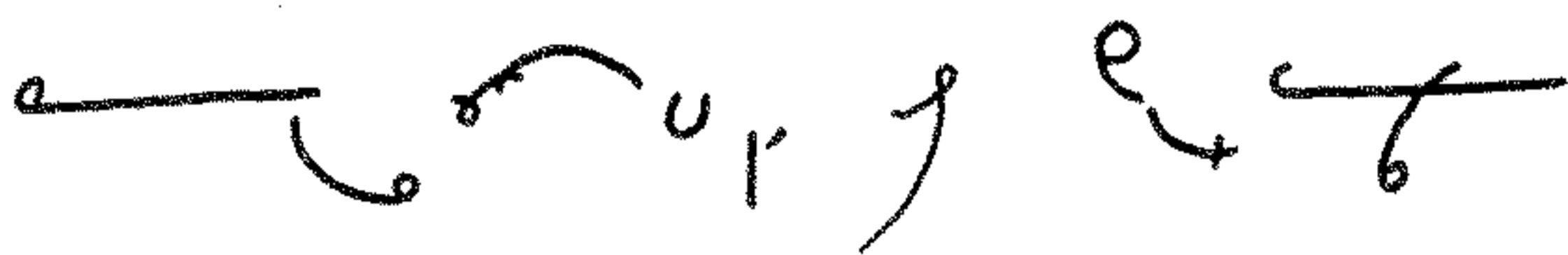
미력이나마 평생을 바쳐 일해왔습니다. 본의
원은 이런 길을 걸어오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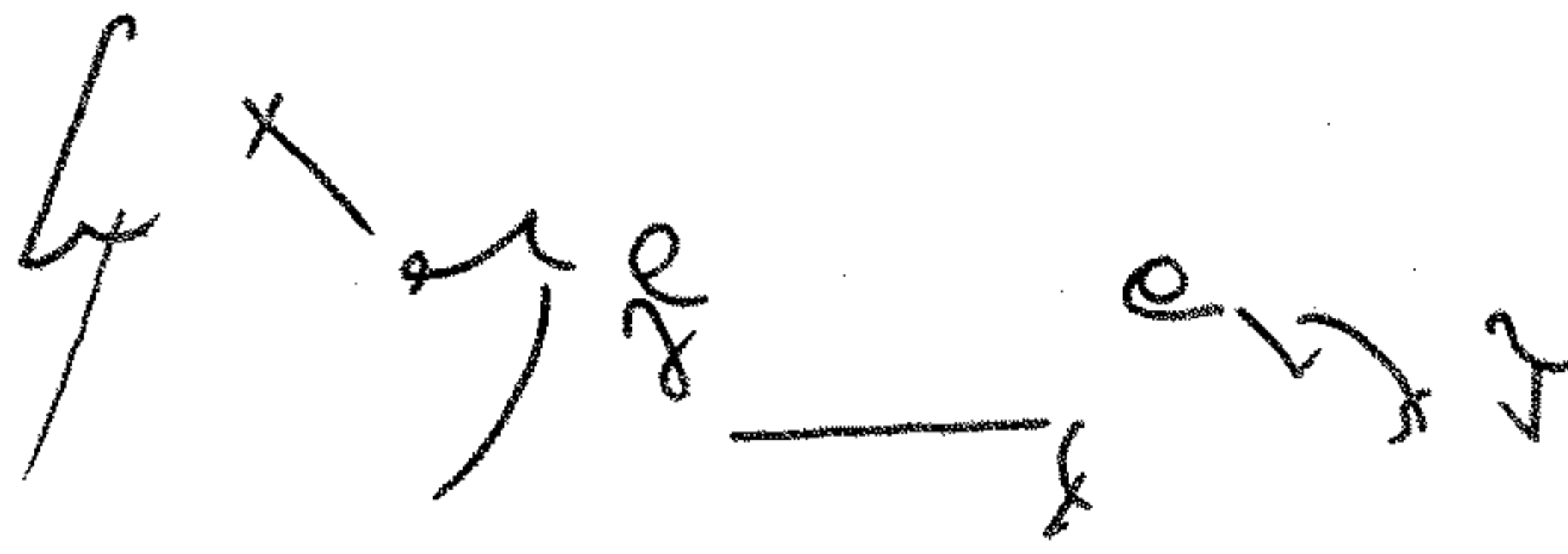
모든 문제와 사안을 바라보는데 가급적이면
본질적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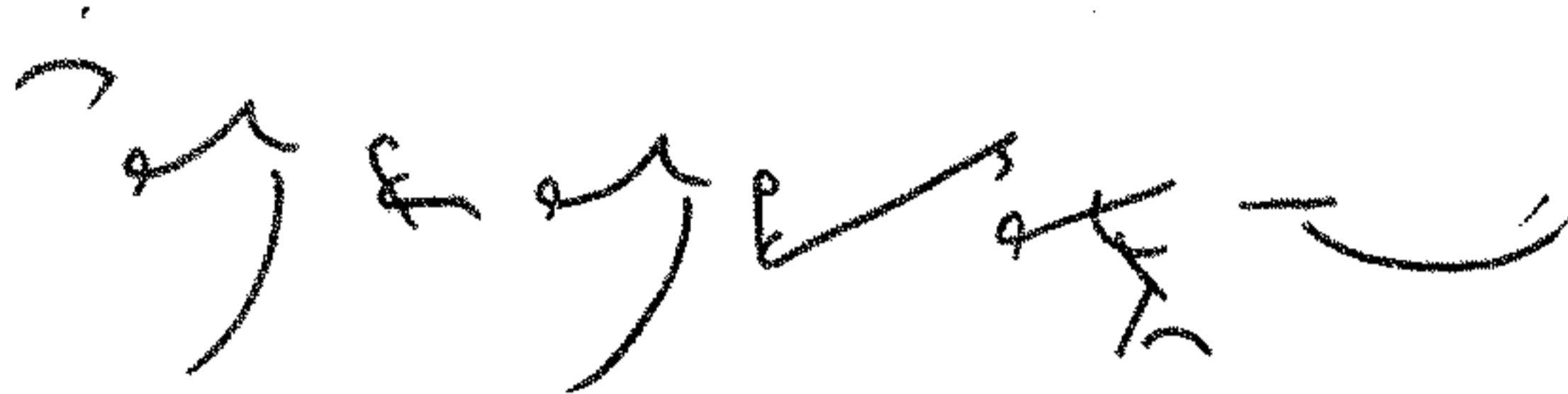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원칙과



근본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방법과 기술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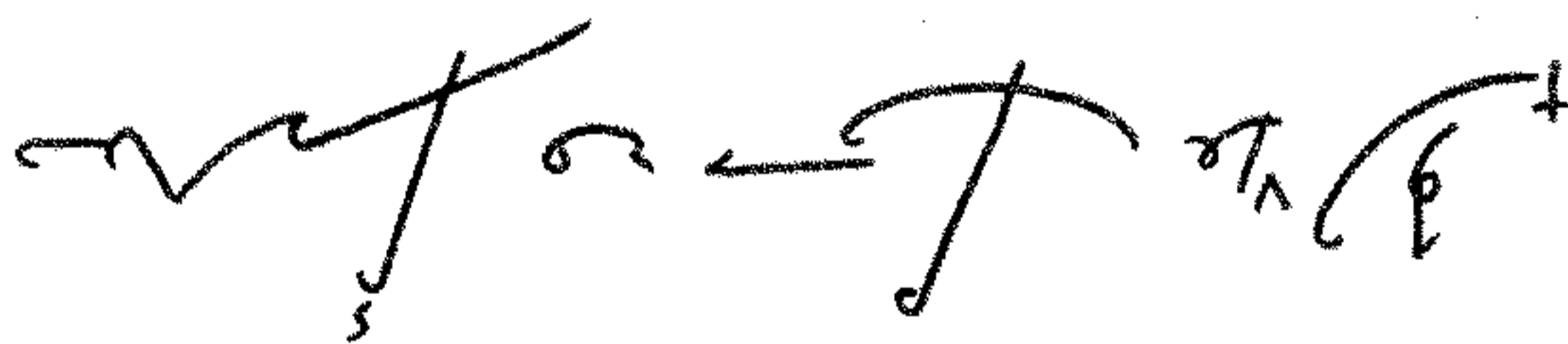
뛰어나더라도 결국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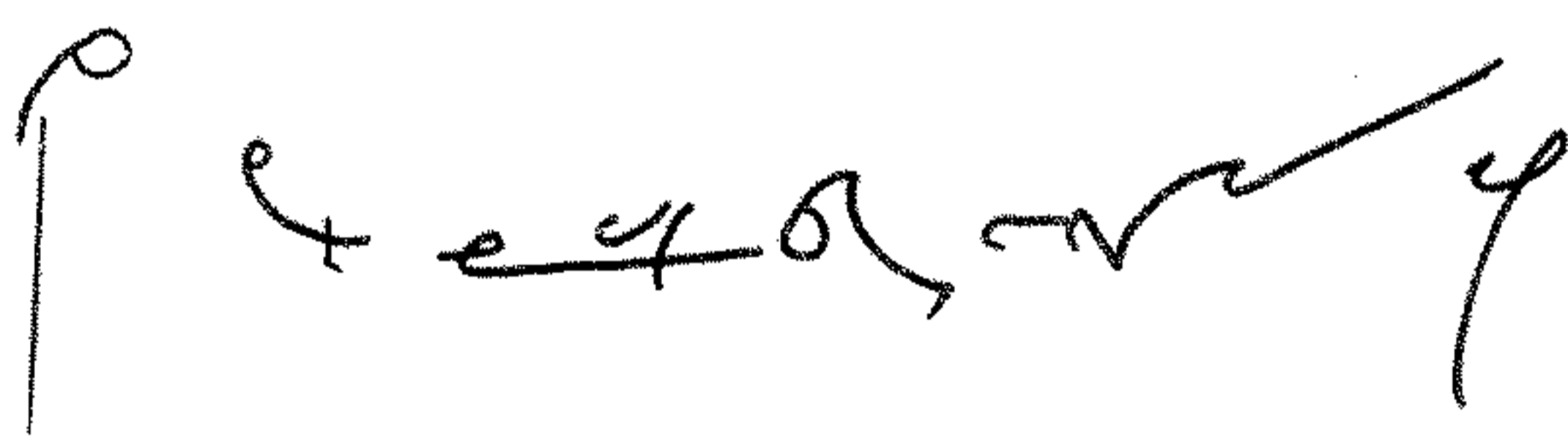
문제의 올바른 해결은 올바른 원칙에서 출발할 때만 가능하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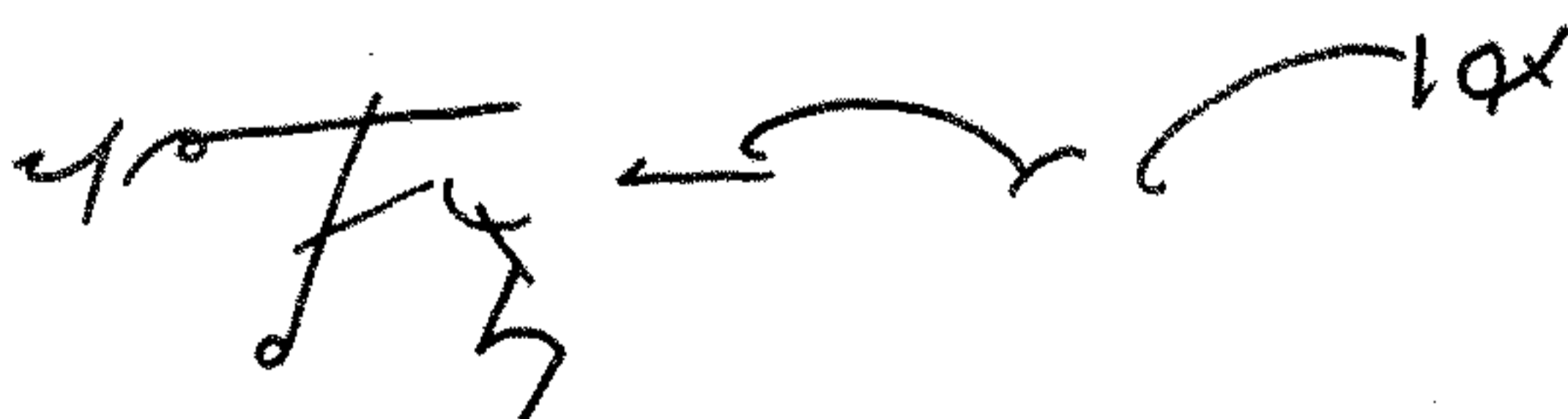
생각합니다. 출발한 지 두달 남짓한 김영삼정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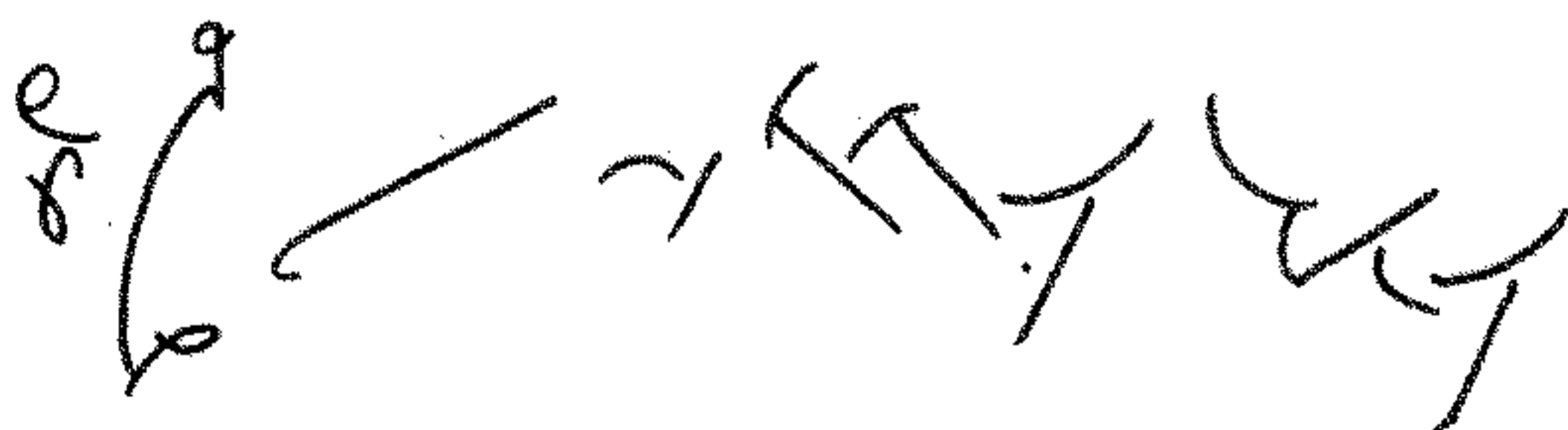
개혁조치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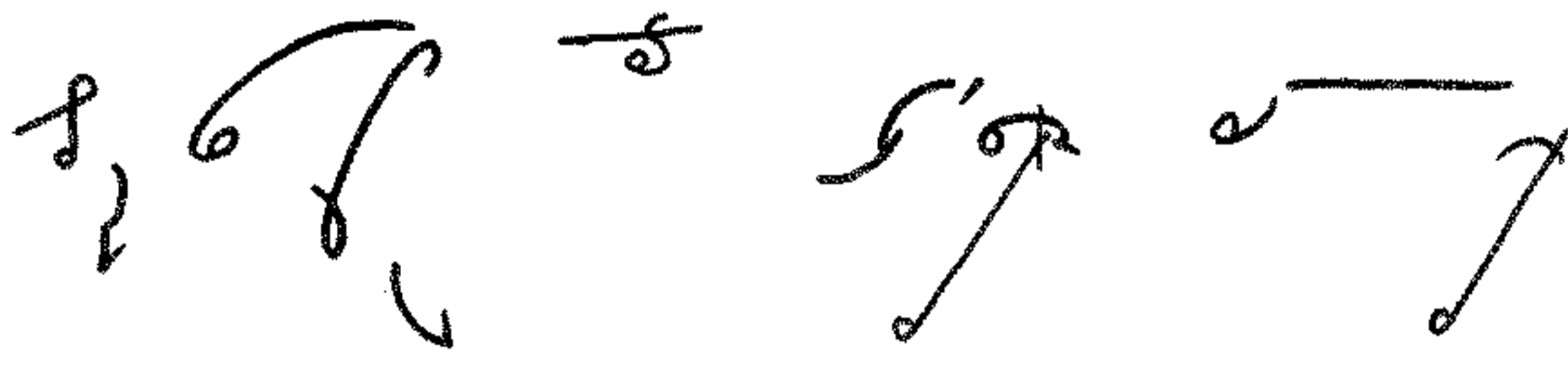
보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김영삼정부의 개혁조치 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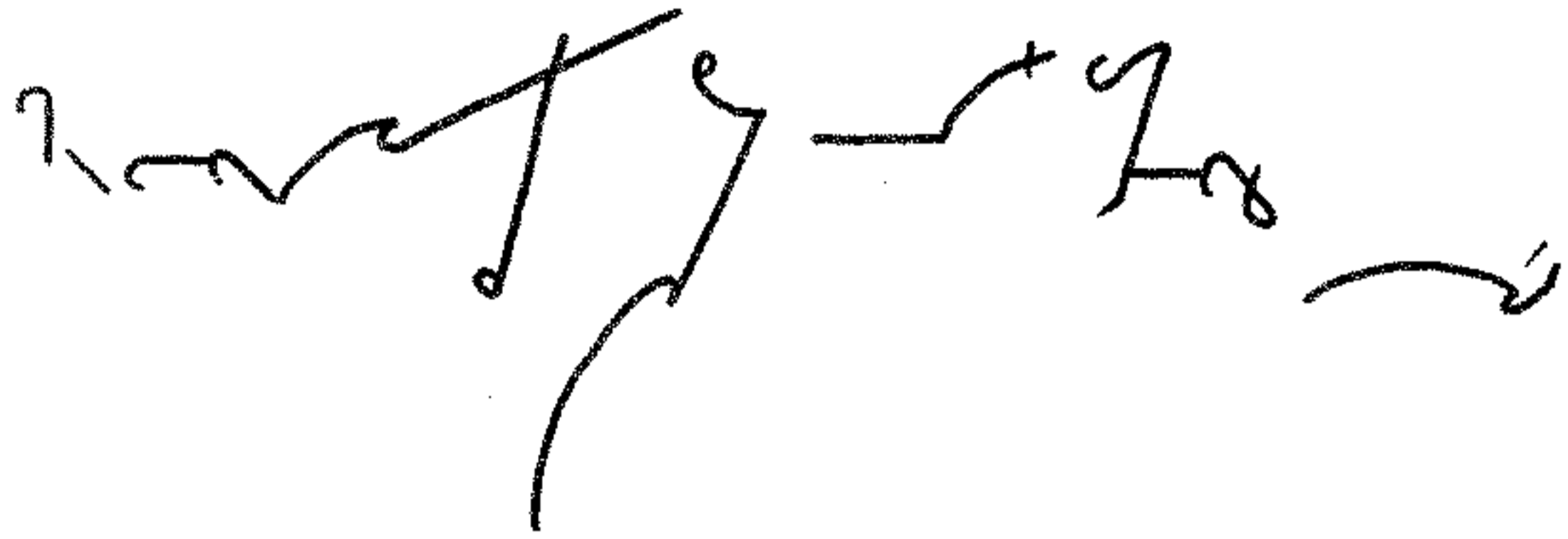
역대정권들이 출범할 때마다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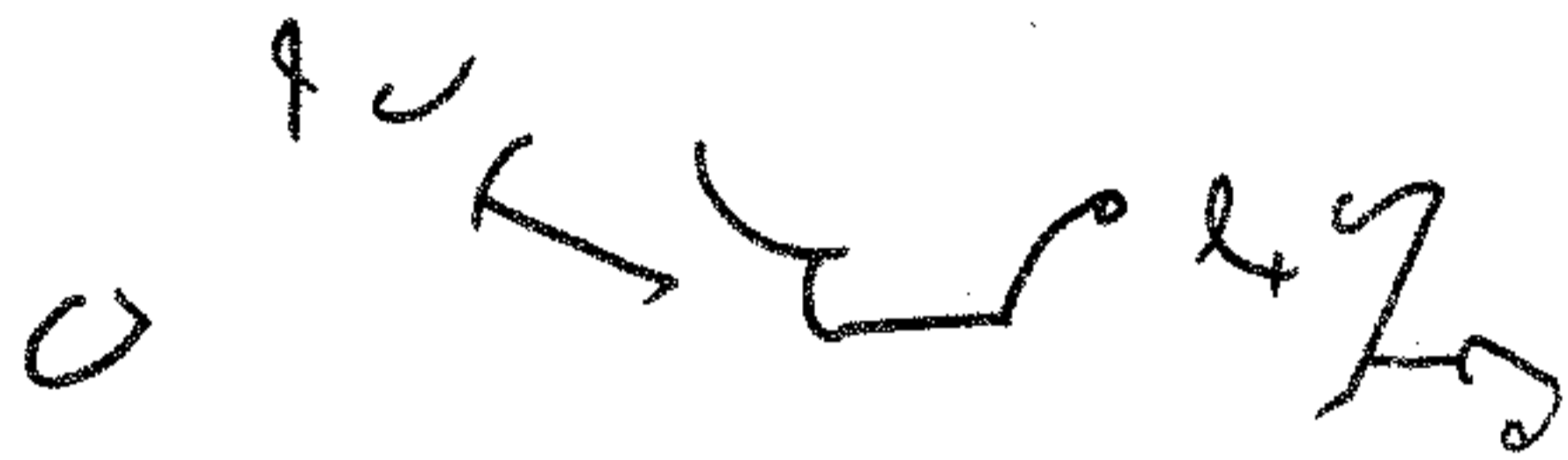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취했던 사회정화운동이나 부패추방운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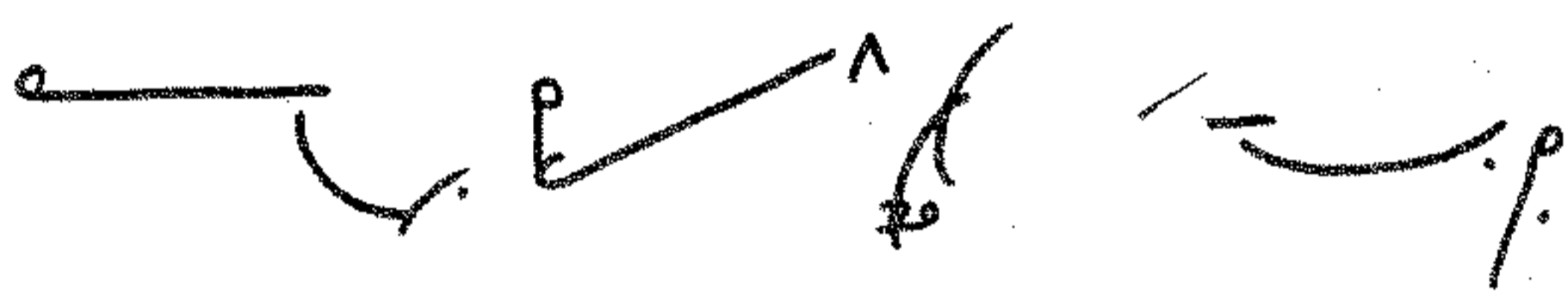
차원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제든 많은 의원들이 언급했듯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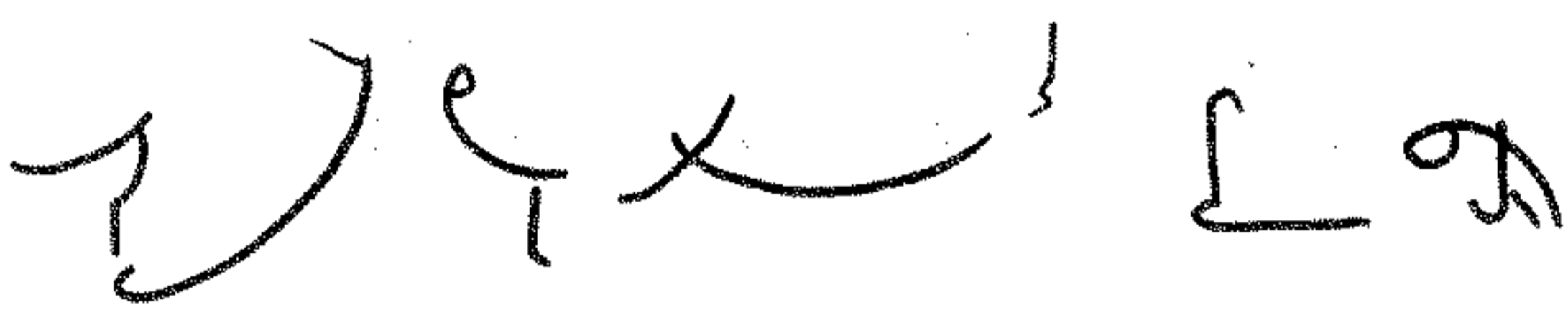
이러한 개혁조치들이 반드시 구조와 제도의 개혁으로 나아가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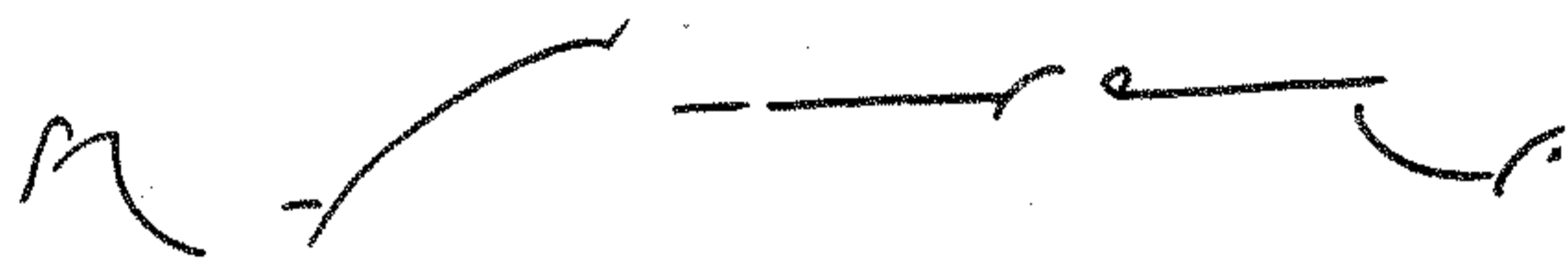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사회의 부패구조는 법과 제도의 개혁이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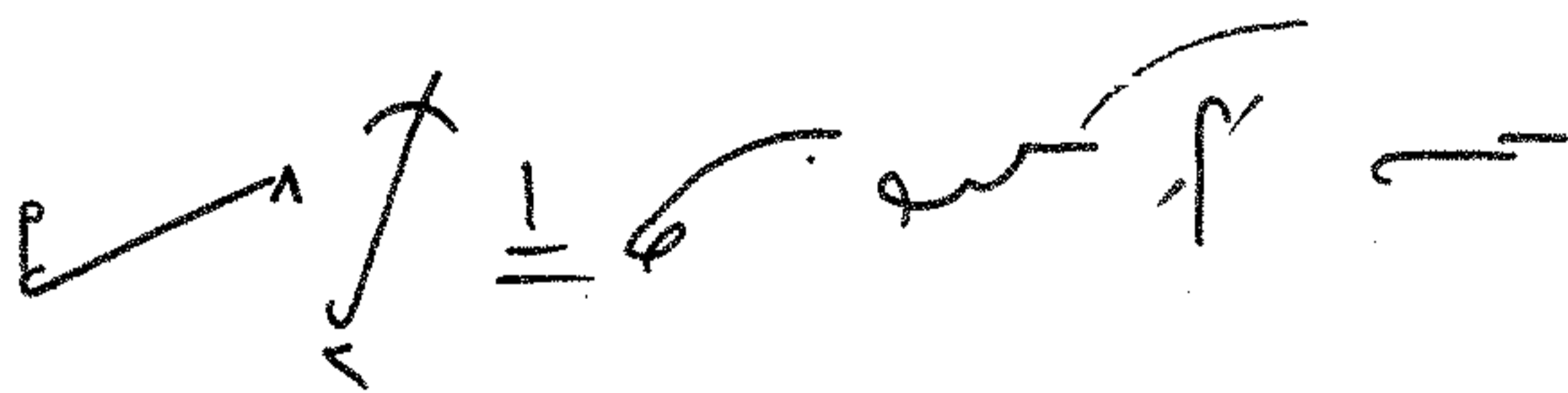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수술없이 불가능하게 된 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오늘 이 자리에서 외교·통일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가급적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해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냉전체제와 군사적 권위주의체제 아래서 경
직되고

냉전체제와 군사적 권위주의체제 아래서 경
직되고

관행화되어 버린 이 분야의 여러 잘못된 정
책들이야말로 오직

관행화되어 버린 이 분야의 여러 잘못된 정
책들이야말로 오직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문제 제기 없이는 그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문제 제기 없이는 그

치유가 다른 어떤 대안도 있을 수 없기 때문
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치유가 다른 어떤 대안도 있을 수 없기 때문
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개혁조치가 그야말로 성역없이 명실상부하게
취해 진다고

개혁조치가 그야말로 성역없이 명실상부하게
취해 진다고

했을 때 그 대상에 외교·통일분야도 해당되는
것인지 견해를

했을 때 그 대상에 외교·통일분야도 해당되는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냉전조치와 군사적 권
위주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냉전조치와 군사적 권
위주의

Handwritten cursive text: 體에서 만들어져 골격이 갖추어졌고 그런

외교·통일분야의

Handwritten cursive text: 여러 잘못된 정책들과 이와 관련한 각종 법, 제도 특히 인사행청들에 대해

과감히 시정조치를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Handwritten cursive text: 또 외교·통일분야

역시 개혁의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면 우선 무엇부터 어떻게 개혁해 나갈

Handwritten cursive text: 계획인지 그 청사진을 국민앞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새 정부가 통일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역대

Handwritten cursive text: 군사적 권위주의체제에서와 같이 국민적 합의과정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새 정부가 통일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역대

Handwritten cursive text: 군사적 권위주의체제에서와 같이 국민적 합의과정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새 정부가 통일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역대

도외시한 데 대해 엄중히 주의를 환기시키고
자 합니다. 김영삼대통령은

도외시한 데 대해 엄중히 주의를 환기시키고
자 합니다. 김영삼대통령은

지난 대통령선거 때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재검토하여

지난 대통령선거 때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재검토하여

새로운 통일방안과 통일정책을 세우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새로운 통일방안과 통일정책을 세우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또한 한완상부총리는 현 정부 통일정책의
3대 기조로서

또한 한완상부총리는 현 정부 통일정책의
3대 기조로서

국민적 합의를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 국무총리께서는

국민적 합의를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 국무총리께서는

시정연설에서 새정부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
안을 계승한다고 하셨습니다.

시정연설에서 새정부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
안을 계승한다고 하셨습니다.

국무총리의 이와 같은 발언은 대통령의 선
거공약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국무총리의 이와 같은 발언은 대통령의 선
거공약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 자신이 쓴 속기문자를 읽어보자(실전연습은 쓰고 읽기를 위주로 한다).



제 5 장

.

운필 응용약자 운필 응용기

운필 응용약자는 속기문자의 원칙보다는, 쓰기 불편하거나
번문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기법이다.

손풀기: 기본문자 복습...ㄴ받침, ㅇ받침 3회 이상 써보자.

1. 운필에 의한 약자(1)

특별문자	경 (첫글자, “겨” 반소원 크게) ㄱ		경우		경주
			경기		경험
	권 (전글자, “권” 2mm) ㄱ		권한		권력
			인권		대권
	리 (뒷글자, “랜” 2mm) ㄱ		관리		비리
			권리		논리
	민 (첫글자, “~적인”의 모양) ^		민사		민영
			민첩		민생
			민주		민주공화국
	민 (뒷글자, “헨” 2mm) ㄱ		국민		시민
			농민		농어민
			주민		빈민
	업 (뒷글자, “윈” 2mm) ㄱ		공업		농업
			어업		기업
			취업		상업
	해 (뒷글자, “해”) ㄱ		가해		노해
			말해		반해
			비해		저해
			처해		통해
			파해		이해

기타 : 번문의 혼동을 피하거나 쓰기 편리하게 바꿈

거액		과정		기본		규정	
금번		간첩		개선		경찰	
계약		검찰		계획		가격	
개혁		국토		감성		검토	
강토		건투		기조		관련	
개정		국민교육헌장		급급		국민총생산	

참고 : 운필에 의한 약자는 속기문자만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운 단어를 가려서 혼동을 피하고자 한 것이 대부분이므로 특별문자화된 것 외에는 활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기본」과 「근본」이 아주 빠른 속도에서 반소원과 소원이 애매해져서 「기본」을 운필에 의한 약자로 정해놓았는데 「근본」도 돌려쓰면 다시 혼동이 되니 주의하라는 것이다.

<실전연습 40> ... 한글문장을 속기문자로 옮겨보자.

다음은 통일원장관에게 물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 통일원장관께서는

외무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남북기본합의서는 국민적 합의를 이룬다는

차원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마땅하고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합의서에
대한 동의안은

오늘 이 시간까지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
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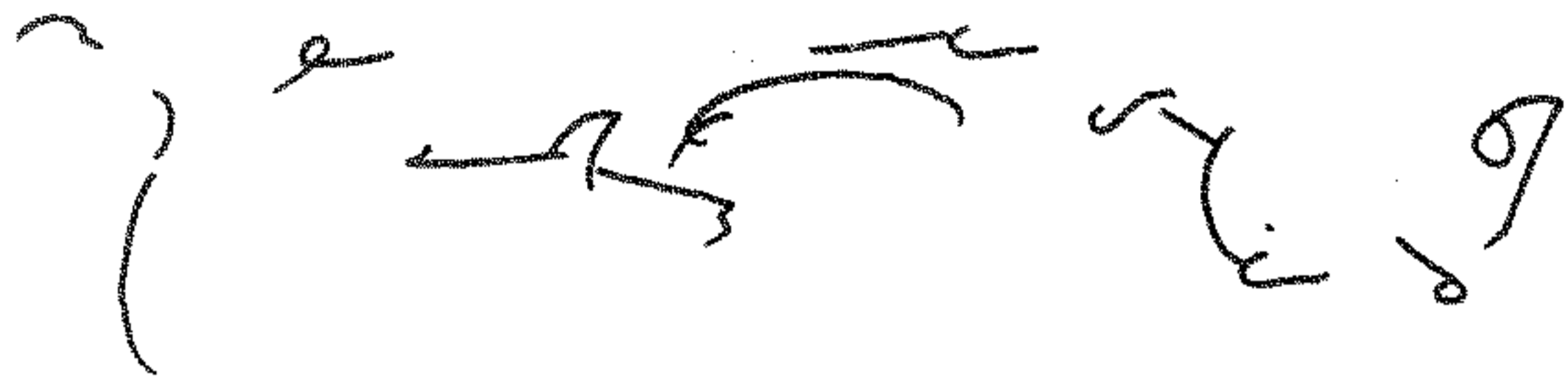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동의절차를 준비중이라면 언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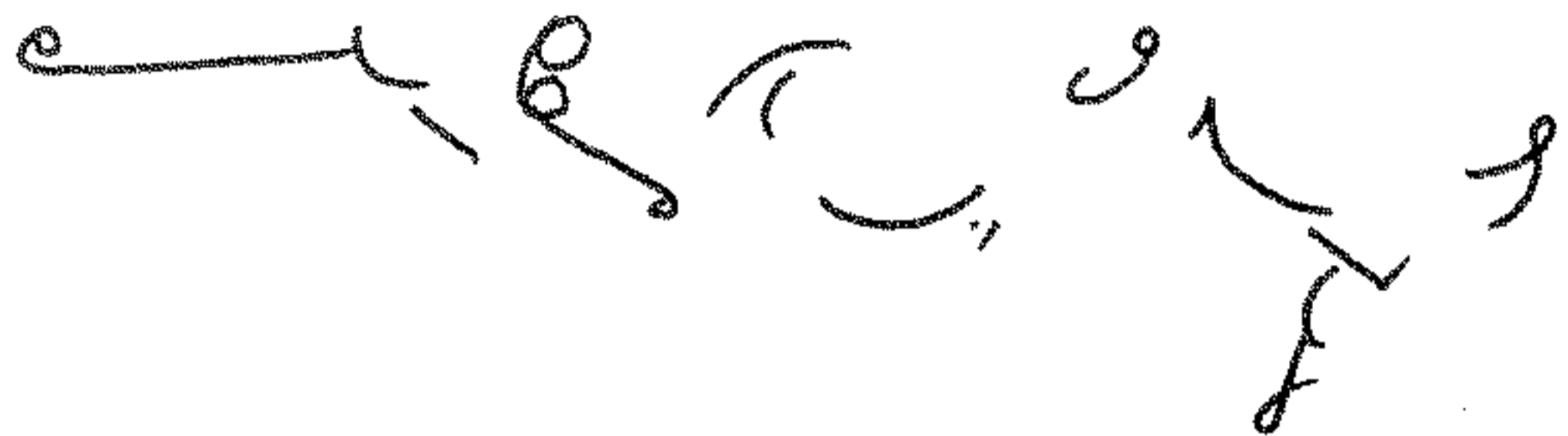
문민정부란 국민적 합의와 지지에 의해 권
위를 갖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민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런데 이 문민정부가 과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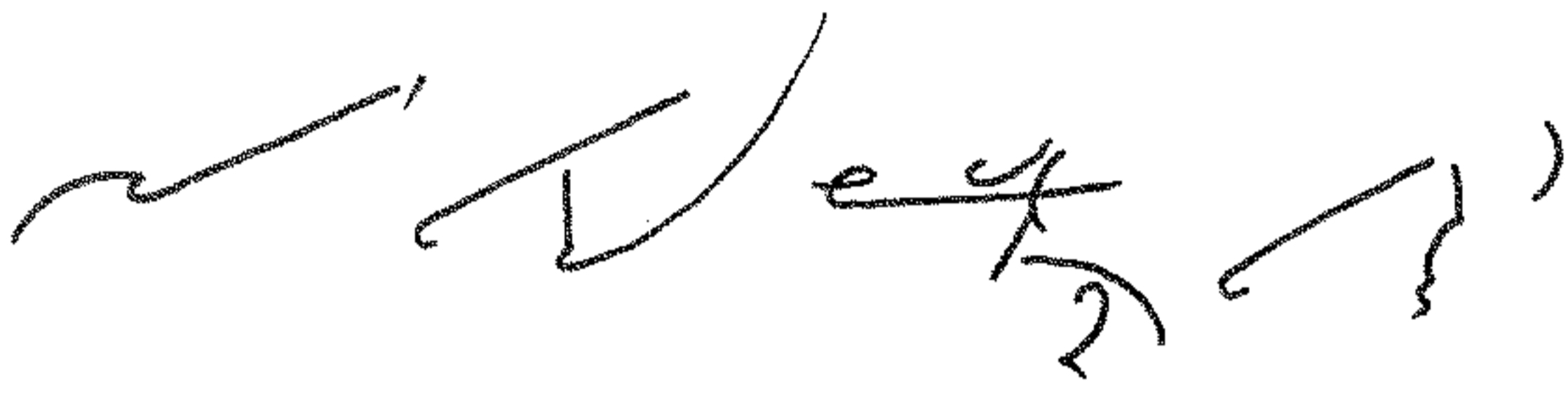
군사정권 때보다도 못한 외교·통일정책을 펼
치고 있다면 이는 중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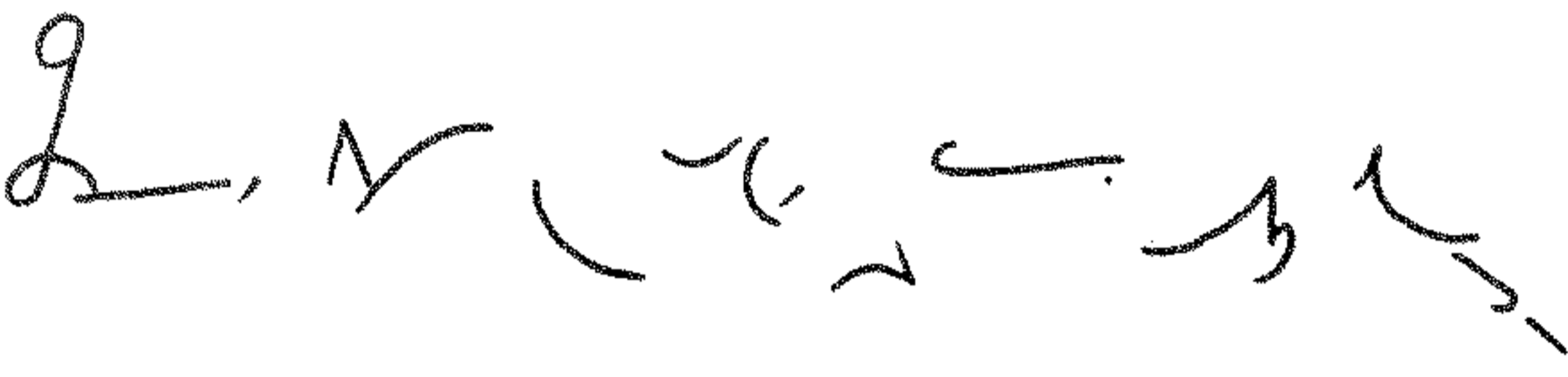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정밀공격이니 제한폭격이니 하는 정도의



긴박한 상황이 조성되는데도 우리는 북한을 상대로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삼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어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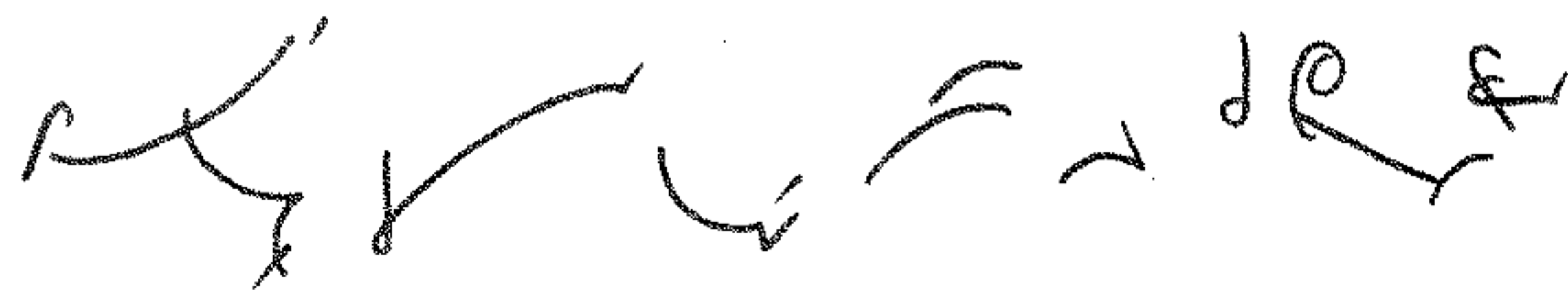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북한에 대한



무력제재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 한창 드높을 때



외무부의 외교안보연구원은 사태의 진전에 따라서는 무력



대응도 불사한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평화적 해결을

북한 핵문제의 실상에 관해서는 미국에서도 국방부의 입장과 국무부의 입장,

CIA의 입장이 서로 다르고 우리 정부내에서도 통일원과 국방부,

안기부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또한 IAEA의 입장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강대국의 입장도 서로 어긋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당국은 북한 핵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사실에 접근해 있습니까?

* 자신이 쓴 속기문자를 읽어보자<실전연습은 쓰고 읽기를 위주로 한다>.

손풀기: 기본문자 복습... ㄹ받침, ㅅ받침 3회 이상 써보자.

2. 운필에 의한 약자(2)

금리		저금리		고금리		어디	
어디까지		어디까지나		업무		목표	
문명		반복		보존		부당	
비난		방침		방향을		사례	
상황		세제		세울		소명	
수요		수입		수준		실질	
사절단		시찰단		실제		심심	
선거		의장단		의사당		언론	
영단		위배		이의		이성	
운운		일부		업체		튼튼	
감성							

<실전연습 41> ... 한글문장을 속기문자로 옮겨보자.

과연 북한의 핵개발 실상은 무엇입니까?
정보는 어디로부터 입수하고 계시며

그 정보는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습니까?
저는 북한 핵개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외교역량을 도모하고
우방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북한에 대한

경제기술지원과 협력이 오히려 북한의 핵위
협

정책을 종식시키고 나아가서 민족경제공동체
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가 또 다시 일본을 비롯한

주변강대국에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막
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인모

노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송환조치와 같이 대
북정책은 인도주의와

노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송환조치와 같이 대
북정책은 인도주의와

노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송환조치와 같이 대
북정책은 인도주의와

노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송환조치와 같이 대
북정책은 인도주의와

노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송환조치와 같이 대
북정책은 인도주의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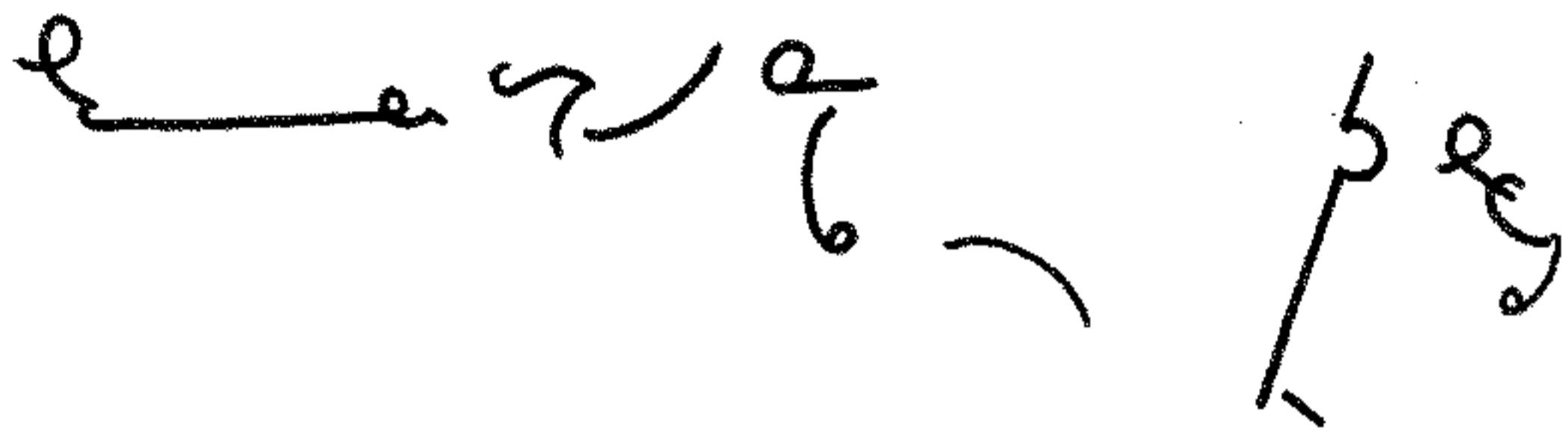
노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송환조치와 같이 대
북정책은 인도주의와

노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송환조치와 같이 대
북정책은 인도주의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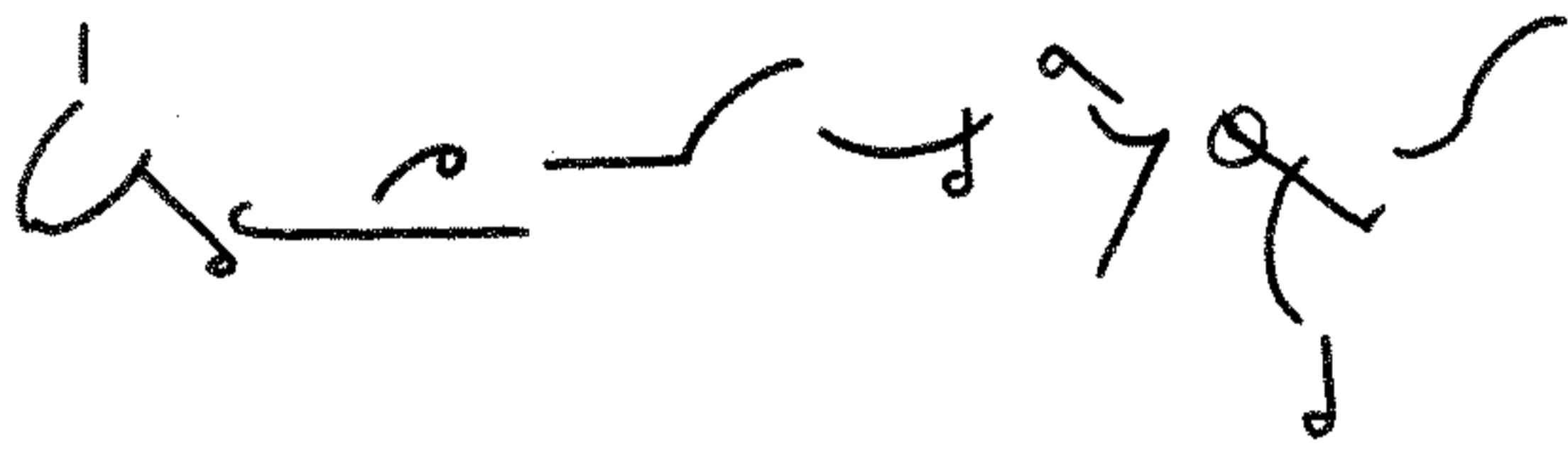
노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송환조치와 같이 대
북정책은 인도주의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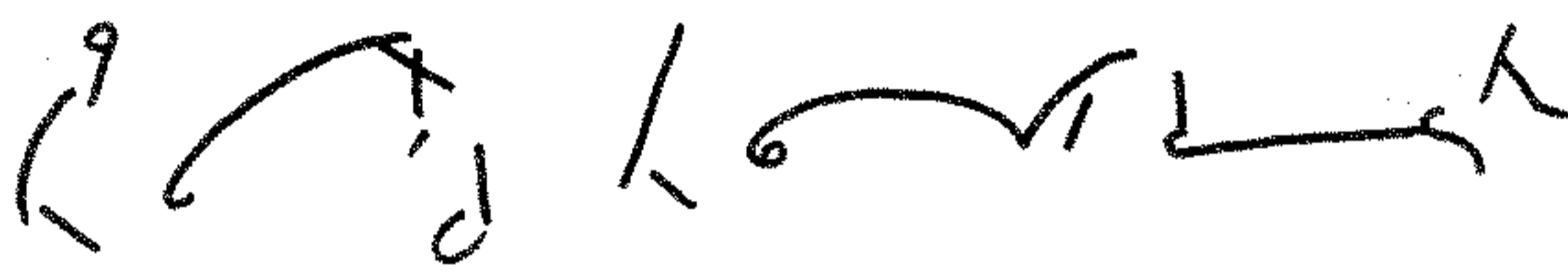
민족공동체 입장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그네의 옷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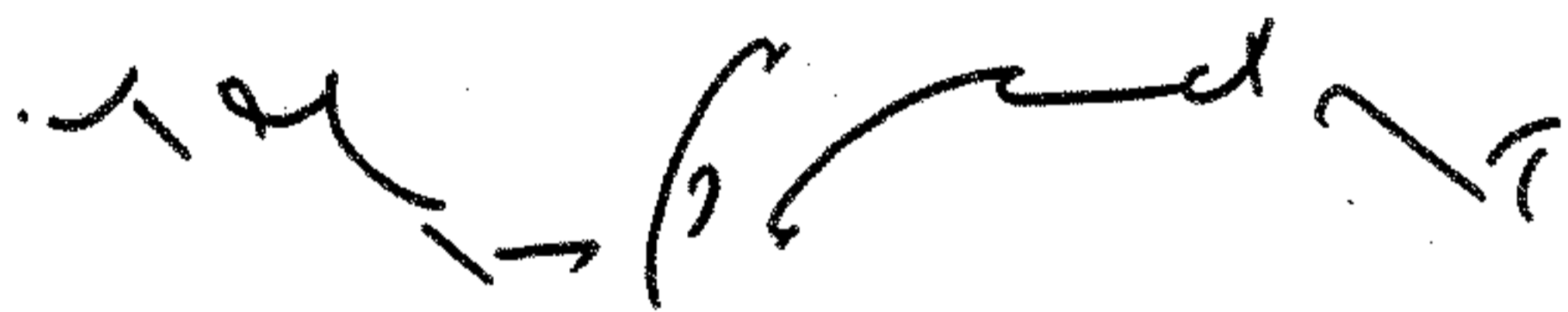
벗기는 것은 매서운 강풍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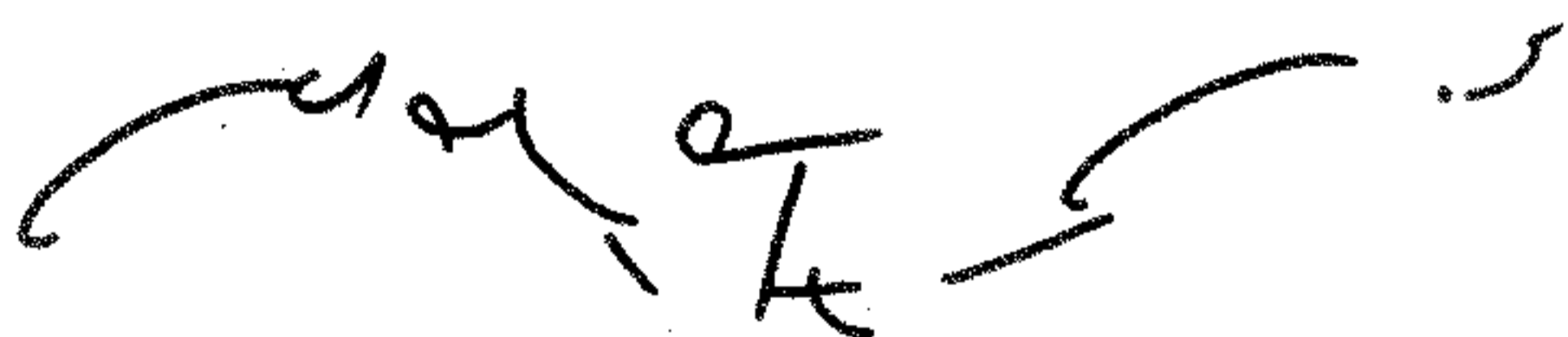
이솝우화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상
황을 풀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지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주당 이기택대표가



제안한* 남북한간의 식량 직교역과 휴전선



지역의 남북한공동개발추진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으신지* 묻겠습
니다.

Handwritten notes: A series of arrows and symbols, including the letters 'npt' at the end.

다음은 외무부장관계 문겠습니다. 국제사 회 일부로부터 NPT와

Handwritten notes: The letters 'iaea' followed by arrows and symbols.

IAEA가 핵강대국의 세계 핵지배전략의 도구 로 전략되었다는

Handwritten notes: A series of arrows and symbols.

지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핵의 평화 적 이용조차

Handwritten notes: A series of arrows and symbols.

제한받고 있는 반면 일본 아오모리현의 로까 쇼무라에 건설중인 세계

Handwritten notes: A series of arrows and symbols.

최대의 핵재처리시설은 오히려 핵강대국인 미국과

Handwritten notes: A series of arrows and symbols.

프랑스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모순된 이런 상황은 핵개발에 대해서 이중

Handwritten notes: A series of arrows and symbols, including the date '91.12'.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91 년 12월에 열린

iaea

IAEA이사회에서 알제리, 인도, 파키스탄 등 핵기술

후진국들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후진국들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일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한·일 양국정부가

다음은 한일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한·일 양국정부가

아무리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지향한다고

아무리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지향한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전후처리를 중심으로 한 과거사 문제가 분명히 매듭

주장한다 하더라도 전후처리를 중심으로 한 과거사 문제가 분명히 매듭

지어지지 않는 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다시 말해서

지어지지 않는 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다시 말해서

창조적이고 화해를 전제로 하는 그런 한일관계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미 1963년 UN국제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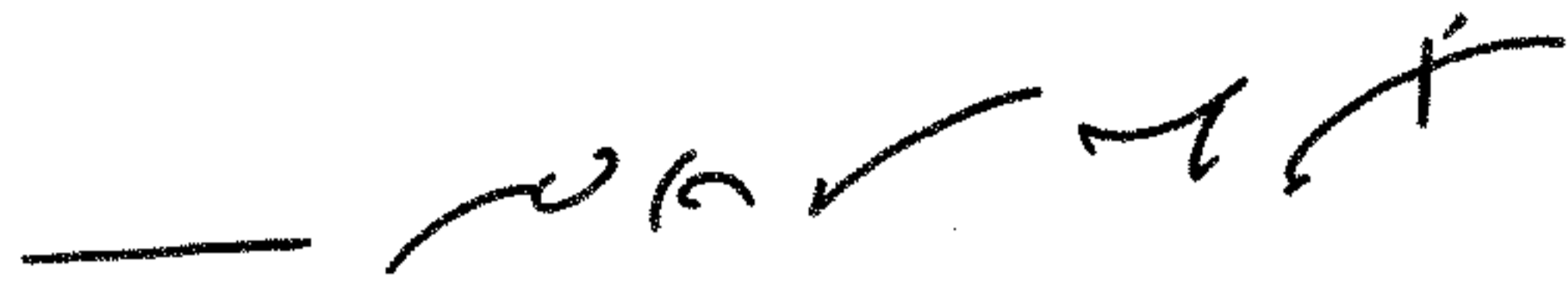
위원회는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된 조약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하면서 무효임을 선언했습니다. 을사조약은 일본이 대신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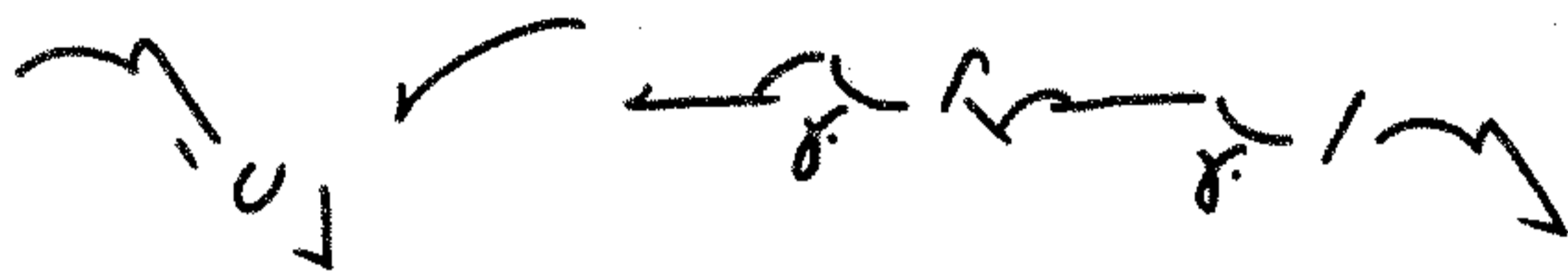
총칼로 위협하고 총리대신을 밖으로 끌어낸 채 단지 5명의 대신의 서명만을 강제로 받아서

체결한 것이며 국제조약 체결의 주체였던 그때는 대한제국

제도였는데 그 대한제국 국제에 의하면 황제가



그 조약에 서명, 즉 옥새를 찍지 않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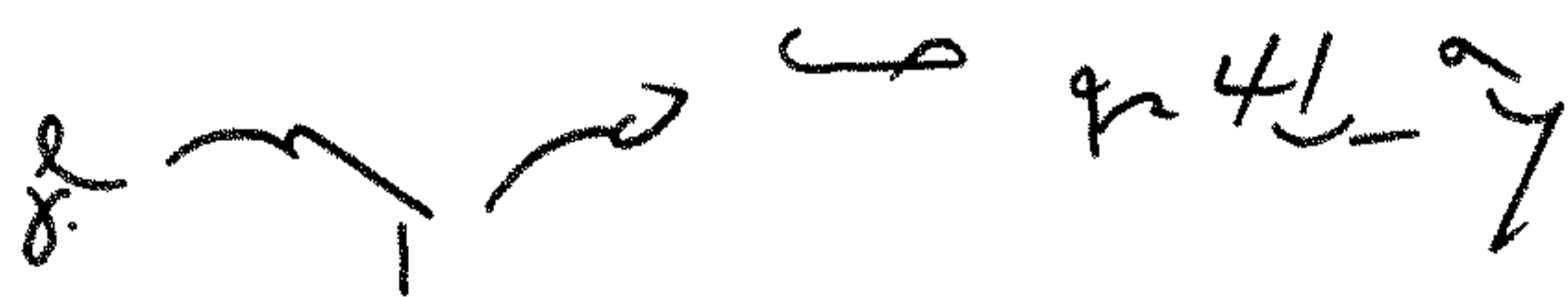
무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국제법상으로나 대한제국법상으로나 다 무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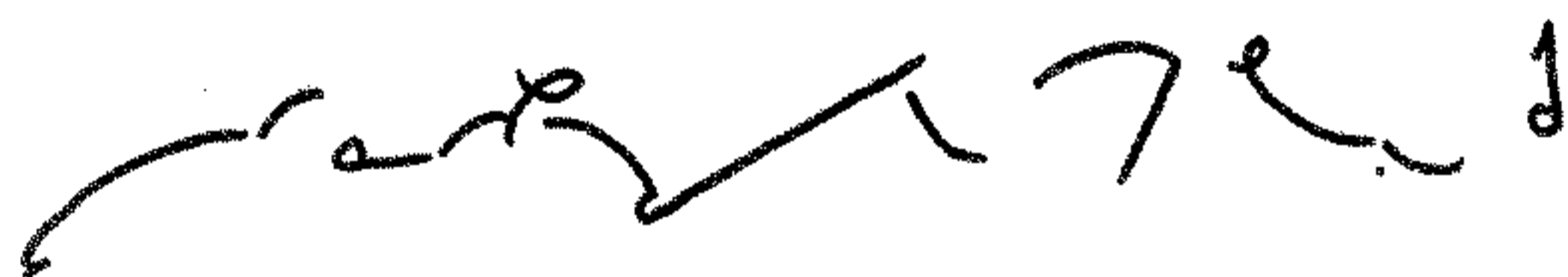
그리고 을사조약을 근거로 한, 다시 말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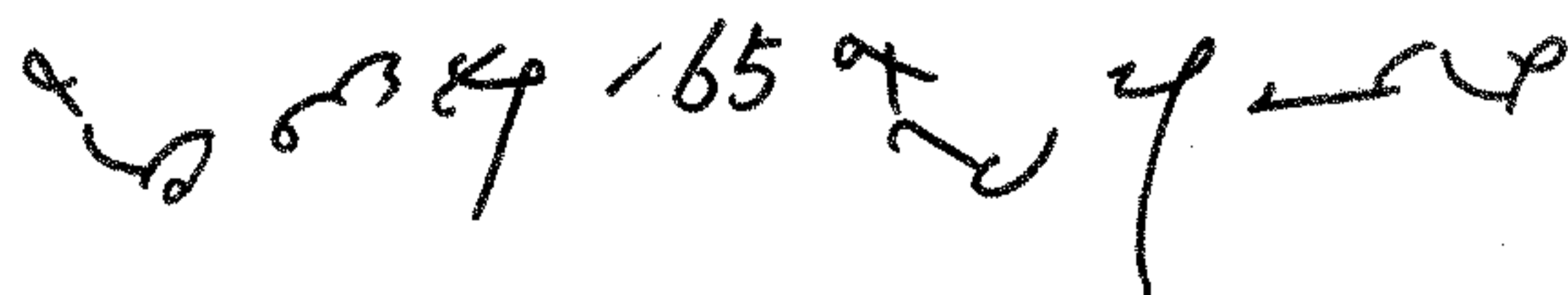
통감부를 통해서 한 한일합병조약 역시 국제법상으로나 대한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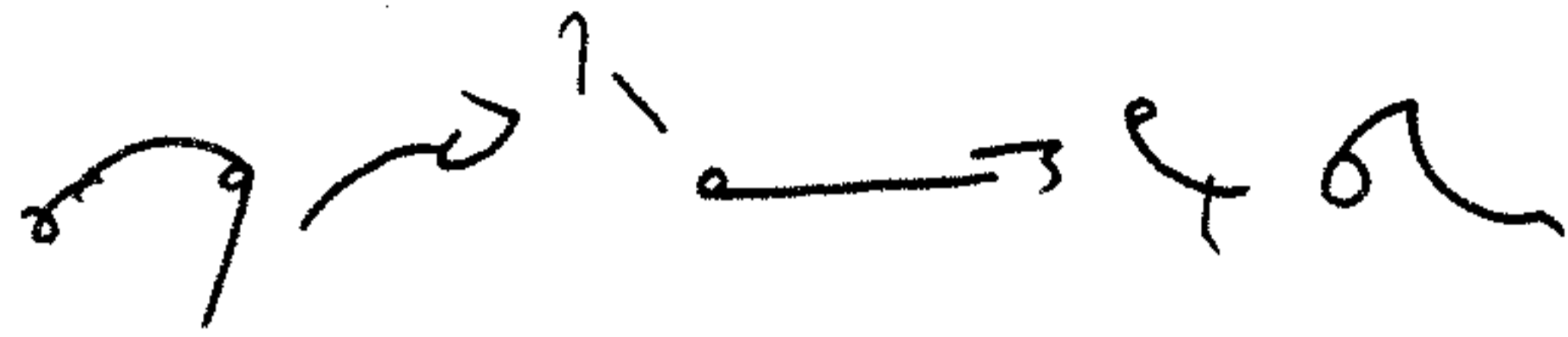
법상으로나 무효인 조약입니다. 그러므로 일제가 41년간 한반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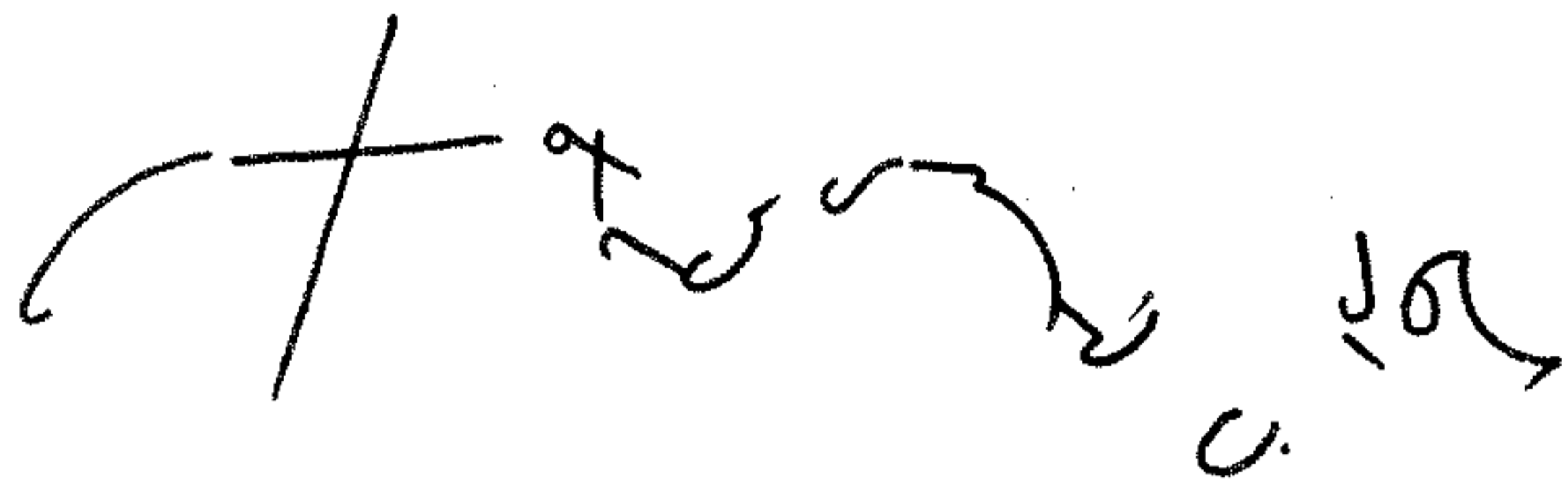
직접·간접적으로 통치한 것은 모두 불법이며 이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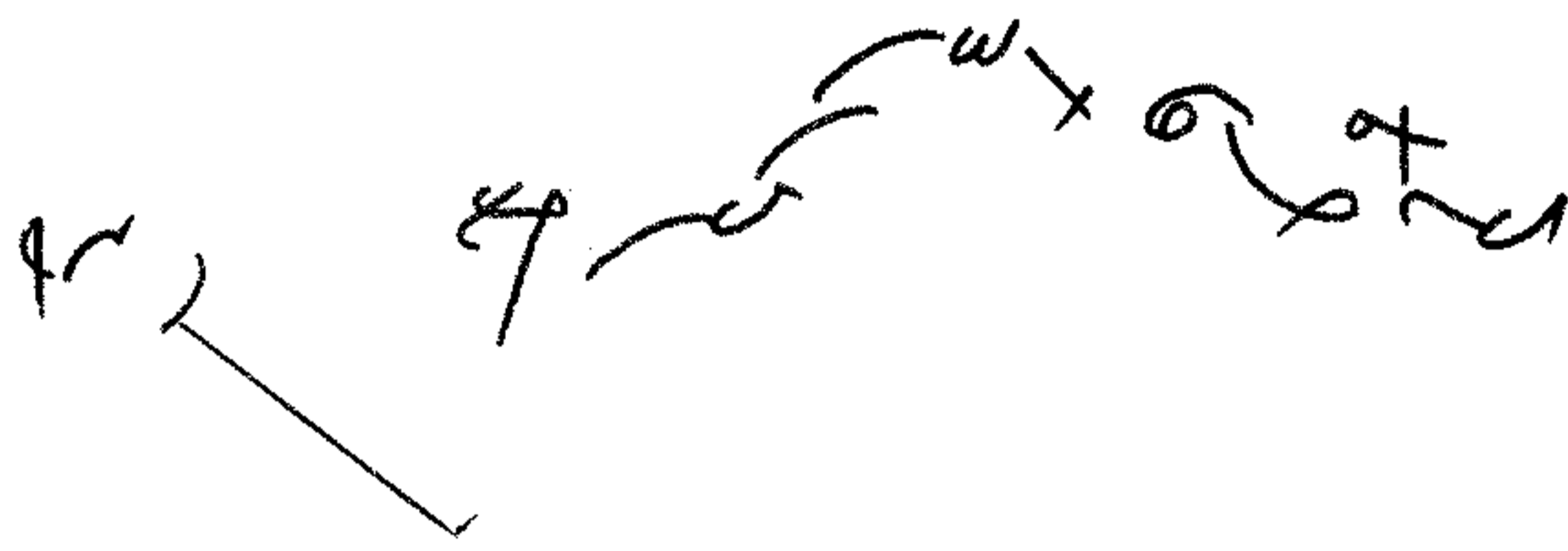
합법적이라는 전제에서 체결된 1965년 한일협약 역시 국제법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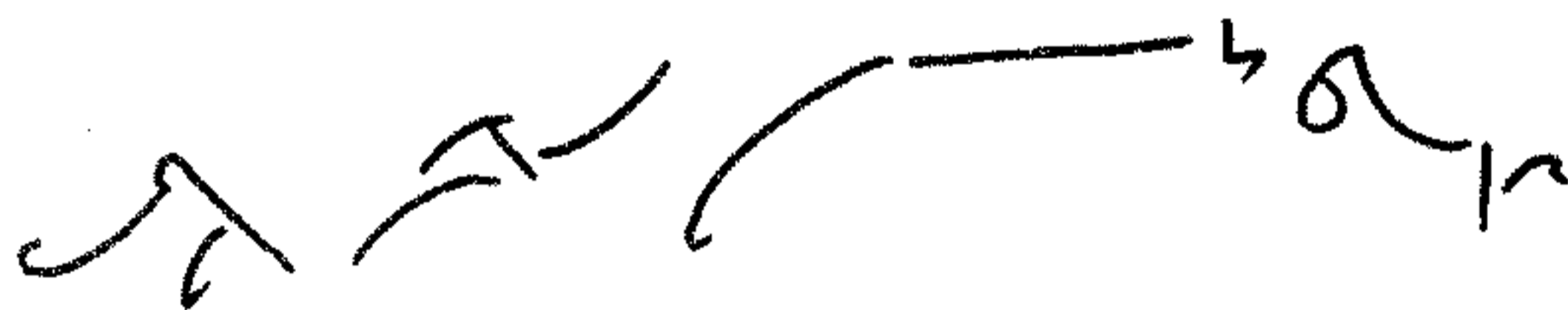
잘못된 조약입니다. 이러한 근거에서 본의원은
은 정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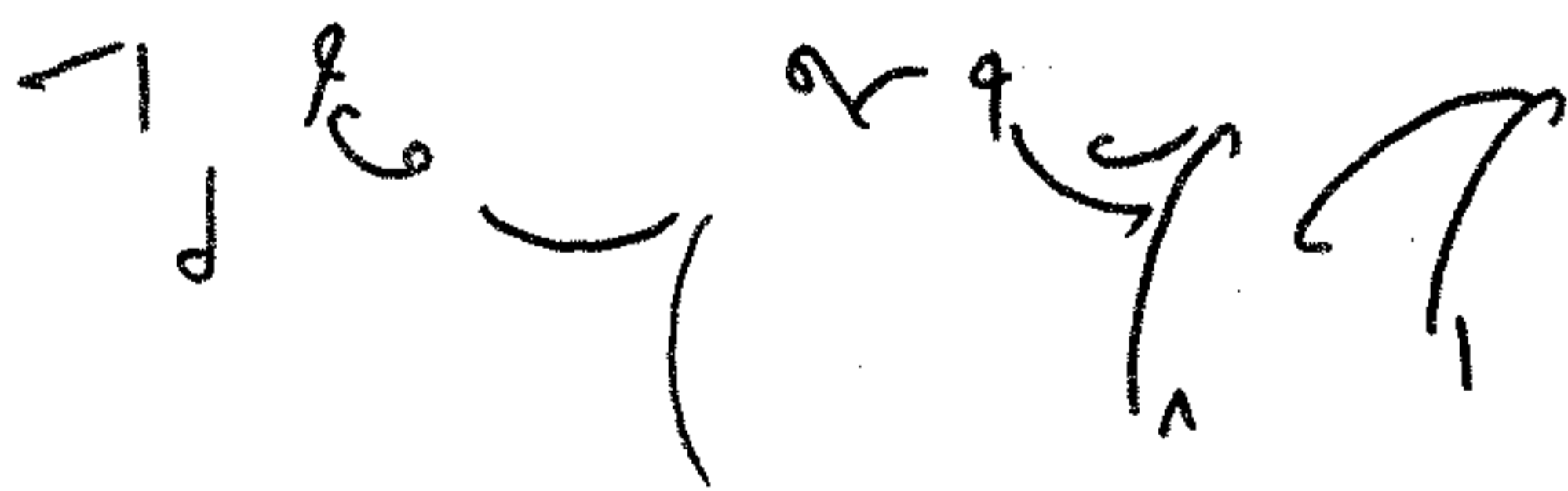
지금이라도 한일협약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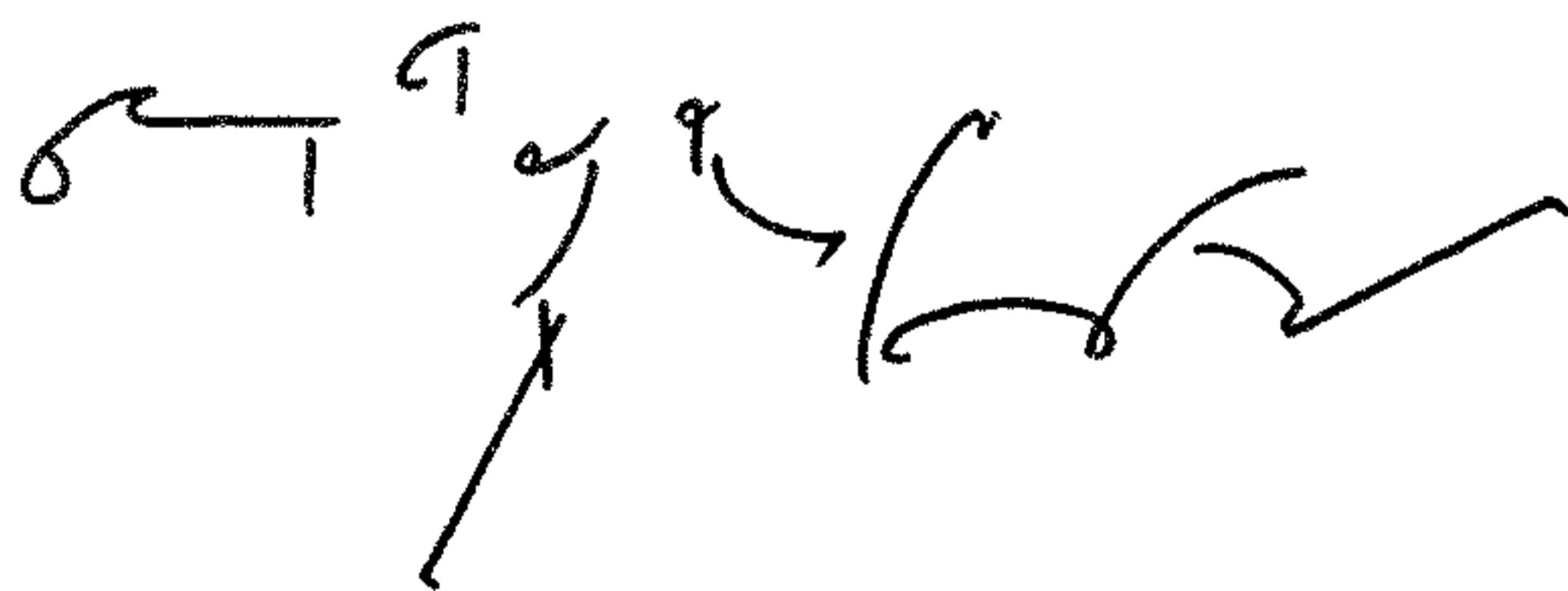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체결된 조약
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한일협약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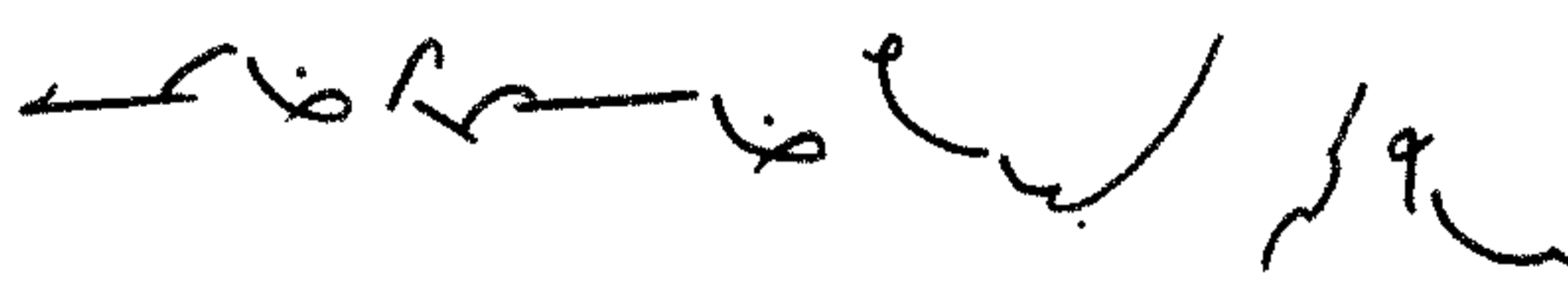
유효성을 주장해온 지금까지의 정부입장은



책임 있는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 일본
의 양심적인 지식인·



종교인·정치인·언론인들은 일본의 식민지통
치가



국제법으로나 대한제국법으로나 불법이었으
며 따라서 일본은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 이들은 서울대학교

신용하 교수 등을 초청하여 역사의 재조명을 하는 세미나를

가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일제의 식민통치가 불법인

이상 일제가 한반도에서 행한 모든 통치행위 즉,

징용, 징병, 정신대, 종군위안부정책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본은 형사법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더욱이 종군위안부

문제는 국제법상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적용의 시효조차 없는 국제범죄입니다.

문제는 국제법상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적용의 시효조차 없는 국제범죄입니다.

문제는 국제법상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적용의 시효조차 없는 국제범죄입니다.

문제는 국제법상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적용의 시효조차 없는 국제범죄입니다.

문제는 국제법상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적용의 시효조차 없는 국제범죄입니다.

문제는 국제법상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적용의 시효조차 없는 국제범죄입니다.

문제는 국제법상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적용의 시효조차 없는 국제범죄입니다.

문제는 국제법상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적용의 시효조차 없는 국제범죄입니다.

* 자신이 쓴 속기문자를 읽어보자(실전연습은 쓰고 읽기를 위주로 한다).

손풀기: 기본문자 복습 ... ㄹ받침, ㄱ받침 3회 이상 써보자.

3. 운필에 의한 약자(3)

조국		적극		즉각		저축, 자축, 저축	
접촉		집착		지각		소득	
손익		준비		전개		조문	
조정		집행		재정, 제정		전력	
자주		전망		전진		전면	
적용		중반		재산		정기	
제시		처벌		건축		책정	
최종		토론		통치		투기	
협력		협상		협정		합의	
협의		혁명		행정		후세	
확장		확산		효율		제안	

<실전연습 42> ... 한글문장을 속기문자로 옮겨보자.

2차대전 직후 전범재판은 네덜란드 여성에게 종군위안부를

강요했던 일본군에게 사형을 언도했고 집행한 바 있습니다.

Handwritten Korean text: *따라서 일본이 우리 피해자들에게 사죄, 배*

따라서 일본이 우리 피해자들에게 사죄, 배
상해야 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이며

Handwritten Korean text: *우리 피해자들의 주장은 너무도 당연한 합법*

우리 피해자들의 주장은 너무도 당연한 합법
적 권리입니다.

Handwritten Korean text: *지난 3월 13일 김영삼정부는 종군위안부*

지난 3월 13일 김영삼정부는 종군위안부
에 대한

Handwritten Korean text: *생계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일본에 대한 배*

생계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일본에 대한 배
상요구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Handwritten Korean text: *이는 역대정권에 비해서 상당히 전향적인*

이는 역대정권에 비해서 상당히 전향적인
조치이기는

Handwritten Korean text: *하나 이 같은 대일배상청구 포기는 현정부가*

하나 이 같은 대일배상청구 포기는 현정부가
한일협약을

Handwritten Korean text: *인정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남게*

인정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남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외무부를 비롯한 정가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거론되는 이야기는

우리 정부가 종군위안부배상문제를 일본측에

요구하지 않고

일본의 상임이사회 진출을 지지하는 대가로

기술이전을

약속받았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것이 사

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만약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는 65년 한·일협약

때 36년간의

대일배상청구권과 경제개발기금

5억불을 맞바꾼 것과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

다. 이것이야말로 매춘행위입니다. 역사와

민족의 모성을 돈으로 바꾸는 범죄행위가 또
다시 반복

민족의 모성을 돈으로 바꾸는 범죄행위가 또
다시 반복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외무부장관은 이에 대
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외무부장관은 이에 대
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태국에서 열렸던 UN세계인권대회
를 위한 아시아지역

얼마 전 태국에서 열렸던 UN세계인권대회
를 위한 아시아지역

NGO회의에서 100여개 참가국 대표들은 종군
위안부

NGO회의에서 100여개 참가국 대표들은 종군
위안부

문제 등 전후처리에 불성실한 일본의 상임이
사국 진출을 반대한다고 결의했습니다.

문제 등 전후처리에 불성실한 일본의 상임이
사국 진출을 반대한다고 결의했습니다.

도덕성이 결여된 나라가 지도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상임이사국

도덕성이 결여된 나라가 지도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한미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10월

경기도 동두천시 미군클럽의 여종업원인

윤금이 씨가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우리 만큼 그야말로 무참하게

비참한 그런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즉시

미군범죄수사단의 요청에 따라 범인의 신병을 미군측으로

넘겨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연히 한국측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관할 의정부지청은 뒤늦게 재판권

행사를 품신하였고 피의자 구금인도요청은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행사를 품신하였고 피의자 구금인도요청은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해방후 지금까지 48년동안 이 땅에서 저질
러진

해방후 지금까지 48년동안 이 땅에서 저질
러진

미군범죄사건의 범인은 약 10만명에 이릅니
다. 그러나

미군범죄사건의 범인은 약 10만명에 이릅니
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그 중 단 한 명에게도 구속영장
을 발부한 적이 없습니다.

한국정부는 그 중 단 한 명에게도 구속영장
을 발부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나 범
인을 한국법정에 세웠습니다.

이번 사건은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나 범
인을 한국법정에 세웠습니다.

살인사건의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불구속상
태에서 조사를 받아 증거수집에 많은

살인사건의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불구속상
태에서 조사를 받아 증거수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장보존도 못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장보존도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군범죄자를 심문할 때에도

미군측 대표가 배석한 진술만이 유효합니다.

이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한미행정협정 제22조 형사재판

관할권 조항에는 불평등하고 비합리적인 요소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난 91년 개정하였으나 상위규정은 그대로 둔 채 하위규정만을

바꾸어서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한미행정협정

제22조를 최소한 NATO협정이나 미일협정수준으로 개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난 3월 외무통일위원회 회의에서 외무장관은

협정 자체보다 범집행 과정에 문제가 더 많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운용상의 문제를 감안하여 주한미군의

범죄를 담당하는 직원과 시설을 보충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에스핀

미국방장관은 지난 4월 상원세출위원회에서 발언하기를

한국의 미군방위비분담률이 78%로서 세계 제1위라고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2.15

하였습니다. 연례행사처럼 방위비분담 증액 압력을 받아오던 것을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2.15

상기할 때 세계 제1위라는 보도는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78%

우리 국방부는 방위비분담률 78%라는 수치가 어떻게 산출되고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78%

그 근거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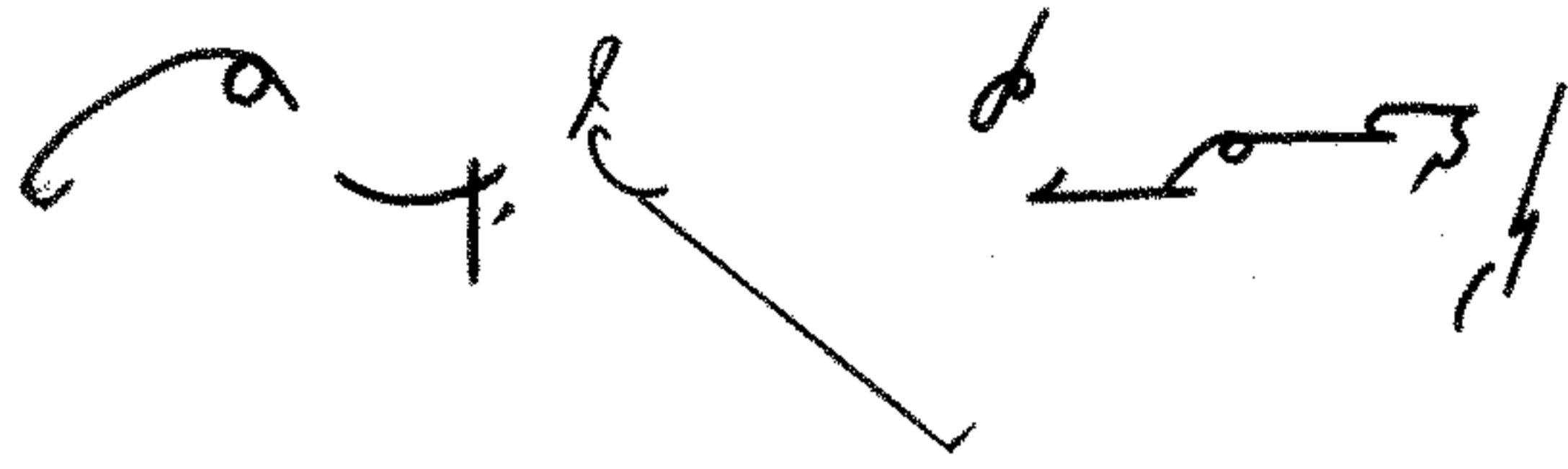
파악하고 계시다면 그 상세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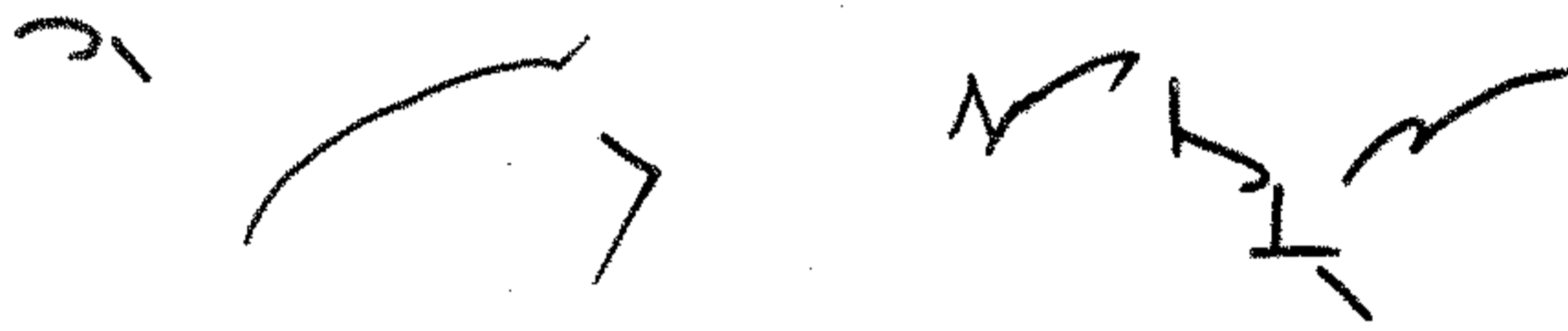
주한미군 방위비분담의 적정 수준은 어느 정도이어야 하고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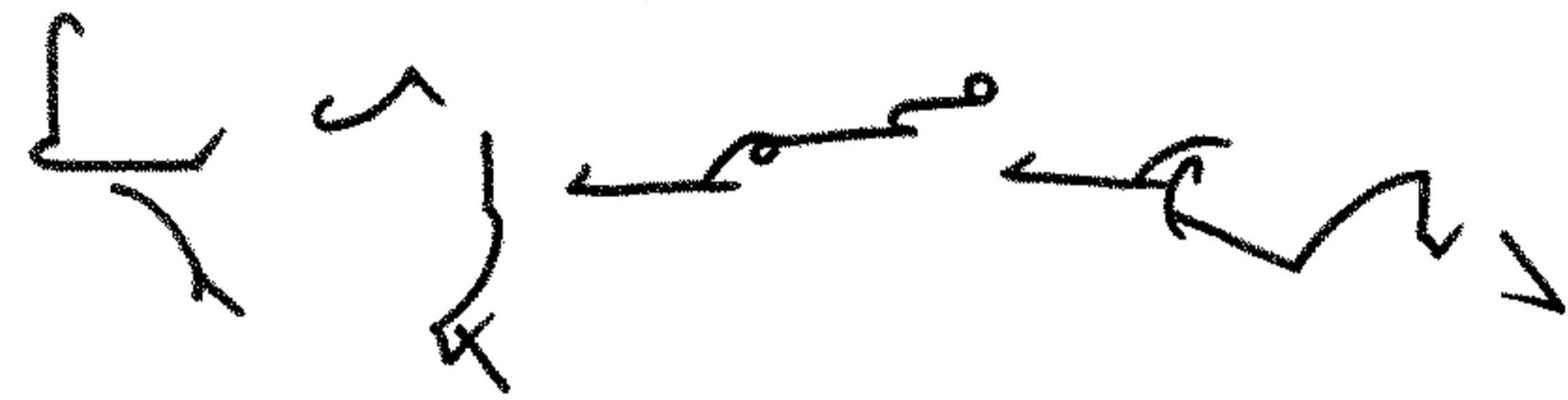
현재 이 수준에 비추어 적정한 규모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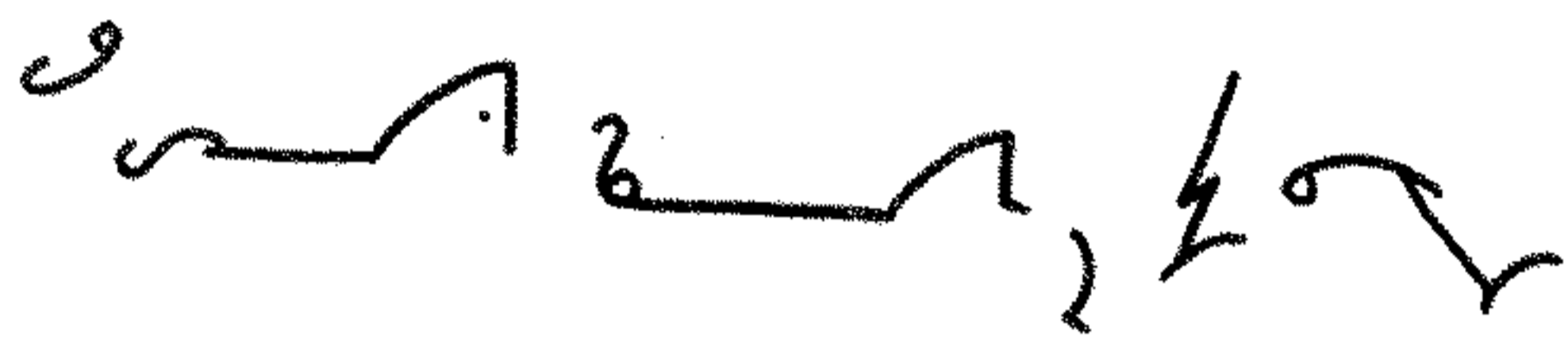
집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국제관계에서의 도덕성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족의 이해에 입각한 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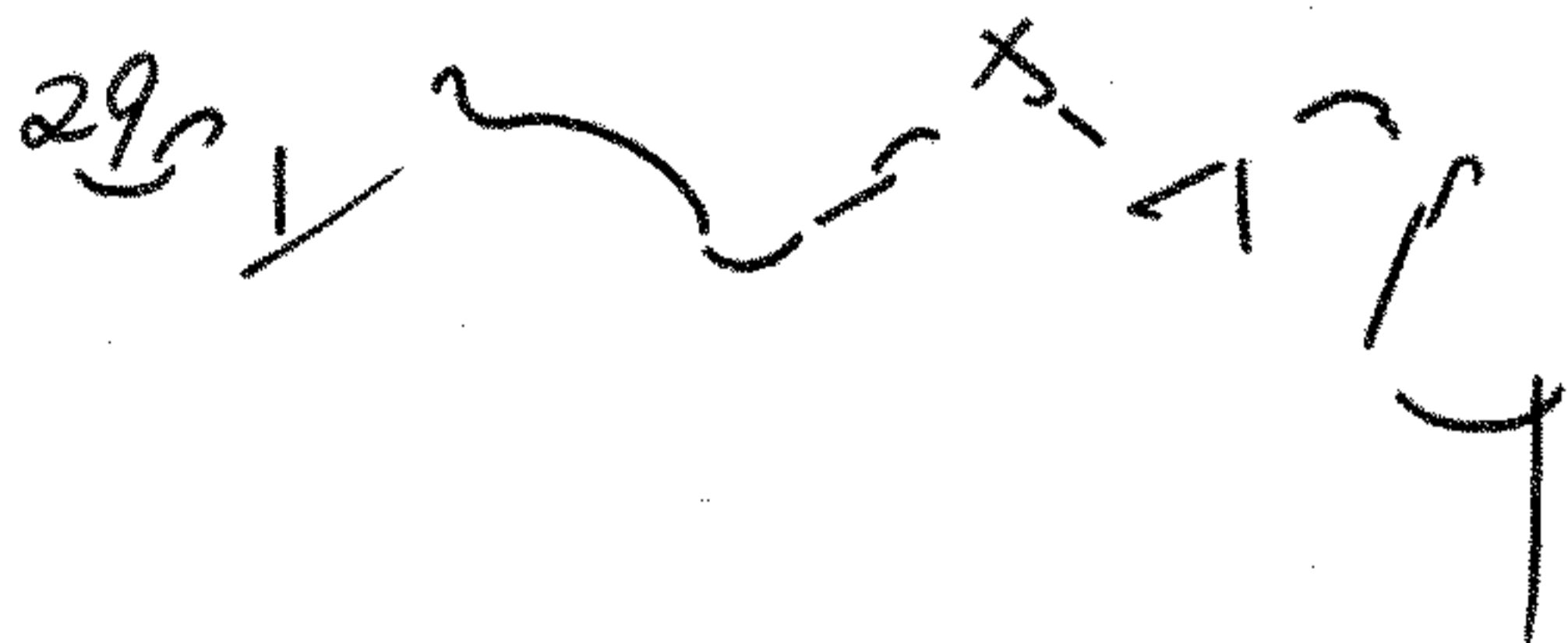
외교를 통해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국제관계는 국제평화주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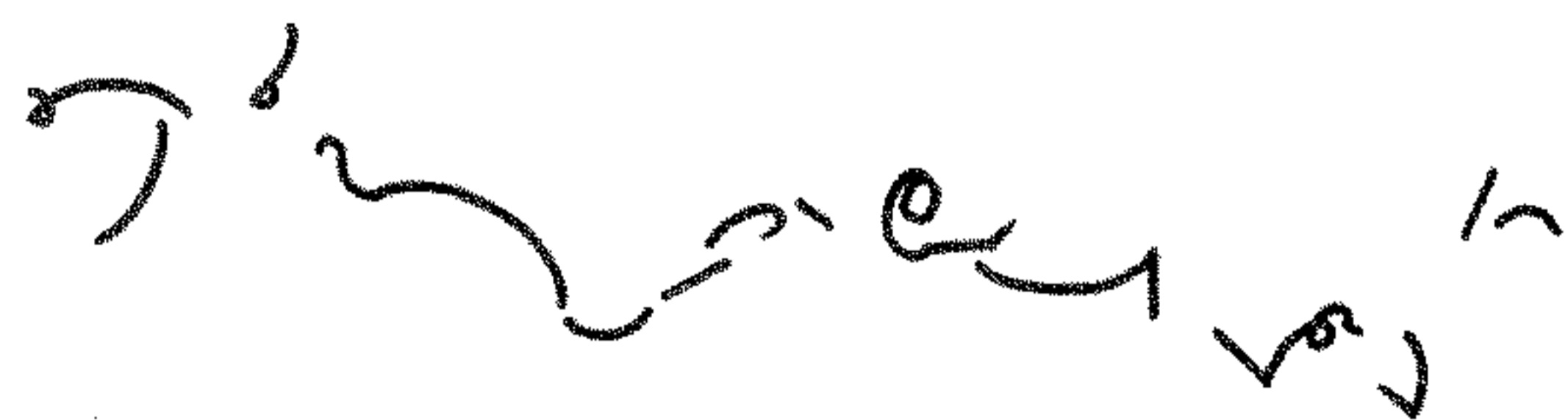
우리는 제국주의나 패권주의가 아닌 도덕적, 문화적



선진국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에게



29년 전에 있었던 베트남 참전결과에 대한 책임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베트남 참전에 대한 평가를 논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치·외교적인 이유때문에 종전후 18년동안
이나 모른 채 해왔던

한국인 2세와 그들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사죄하는 심정으로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대책도 마련해 주지 못한
채 버려두고 온

베트남 여성과 2만에서 3만을 헤아리는 한국
인 2세에게

우리는 무책임한 가해자로 남아 있습니다. 미
국이 합법

이민프로그램과 직업훈련센터를 세워 그들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좋은
사례입니다. 한·베트남

정식 외교관계가 수립된 지금 그들이 늦게나
마*

정식 외교관계가 수립된 지금 그들이 늦게나
마*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시
급히 대책을 마련,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시
급히 대책을 마련,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또한 중군위안부
문제의 정당한 해결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또한 중군위안부
문제의 정당한 해결을

일본에 촉구하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도덕성
이기도 합니다. 국내적인

일본에 촉구하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도덕성
이기도 합니다. 국내적인

도덕성 회복도 중요하지만 국제적인 면에서
우리의 도덕성을 제고하는 일도

도덕성 회복도 중요하지만 국제적인 면에서
우리의 도덕성을 제고하는 일도

또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당국
의 책임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당국
의 책임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밖에도 한·러관계에서 아직도 귀환하지
못하고 있는

이밖에도 한·러관계에서 아직도 귀환하지
못하고 있는

사할린교포문제, 구소련 민족갈등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동포의 문제

한·러 경제협력문제, 한·중관계에서 생긴

여러 문제 등을 질문하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상임위원회로 미루고 본의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섭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김종 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으로 계속』

* 자신이 쓴 속기문자를 읽어보자 <실전연습은 쓰고 읽기를 위주로 한다>.

참고 : 지금까지의 <실전연습>들은 우리나라 국회에서 행해지는 대정부 질문을 위주로 다루었으며 각종의 속기관계 시험에서 이와 유사한 내용들이 출제된다.

<좋은 속기사는 많은 연습에 의해 만들어 진다>



부 록

국가기술자격개정 시험기준(속기)

자격시험 안내 및 해설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과 안내 및 요령을 해설하였다.
총고 한마디는 눈물 한 방울과 바꿀 만하다.

국가기술자격검정 서비스계 시험기준(속기)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시행)

1. 검정기준개요

명 칭	등 급	검 정 기 준
국어속기	1급	국어속기에 관한 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이에 관한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2급	국어속기에 관한 중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이에 관한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3급	국어속기에 관한 하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이에 관한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2. 합격기준

자 격 명 칭		합 격 결 정 기 준	
종 목	등 급	만 점	합 격 점 수
국 어 속 기	1급 내지 3급	매 과 목 100 점	매과목 정확도 90% 이상

3. 국어속기검정 세부기준

- 정확한 발음에 의하여 낭독한 문장을 속기문자로 기록하여야 한다.
- 낭독하는 문장은 연설체 또는 논설체이어야 한다.
- 낭독하는 문장은 전문분야의 용어가 아니고 보편성을 띤 것으로서 상용속어(교육부발행 교과서에 수록된 것)가 전체문장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 번역문은 연필이 아닌 만년필이나 볼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번역문은 한글로 작성한다.
- 번역문은 맞춤법에 맞추어서 적어야 한다.

속기사 자격시험 안내 및 해설

1. 시행일정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매년 12월 중순경에 신문지상을 통해 공고하는데 보통 매년 봄(4~5월), 가을(9~10월) 2회 서울 및 5개 직할시 소재 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며 원서접수에서 시험일, 발표일에 30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있다.
2. 시험장소 : 시행상공회의소별로 수검원서 접수시 지정하거나 시행일 5일 전까지 공고한다. 주로 학교 교실을 이용한다.
3. 수검자격 : 제한 없다.
4. 검정방법 : 필기(이론)과목 없이 실기에 의한 검정(시험기준 및 채점기준 참조)을 한다.
1차로 먼저 녹음된 연설체(논설체)문장을 5분간 스피커시스템(녹음기 직접 사용 포함)을 통해 들려주는 것을 속기하여 1시간 이내에 원고지에 흑·청색 만년필이나 볼펜을 이용하여 답안을 작성하며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와 가로쓰기를 하여야 한다(띄어쓰기의 잘잘못은 채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시 2차 논설체(연설체)가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된다.
3급 이상 취득자가 비서검정에 응시하면 실기시험이 면제된다.
5. 시험과목 : 연설체 및 논설체
6. 제출서류 : 대한상공회의소가 교부한 소정 수검원서 양식에 기재하고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사진(3.5cm×4.5cm)3매(자격증 부착용 포함)를 첨부하고 소정의 검정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7. 합격자 발표 : 수검지역 상공회의소에 게시·공고하며 발표일로부터 3일간 전화로 확인이 가능하다. ☎ (02) 700-2007
8. 합격증 교부 : 합격자에게는 국가기술자격증을 교부하며 수검표와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여야 한다.
9. 수검자 유의사항
 - 가. 접수된 수검원서 및 검정수수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는다.
 - 나. 수검원서 및 답안지는 착오없이(수검자 본인)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 잘못이나 2개 종목 2개등급 이상의 중복 접수에 따른 불이익은 수검자 책임으로 한다.

- 다. 동일종목(등급)의 기 자격 취득자가 해당종목에 응시할 경우 무효처리된다.
- 라. 동일종목의 동일등급에 중복 접수 응시할 시는 당해 검정이 무효처리된다.
- 마. 시험응시는 수검원서 접수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지정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다.
- 바. 컴퓨터속기(속타)로는 속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아. 취득한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이중 취업하였을 때에는 기 취득한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3년~ 6개월)된다.
- 자. 기술자격검정을 받는 자가 검정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할 때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총정리 해설

속기자격시험은 다음의 단계로 되어 있다.

원서 접수 → 시험 → 채점 → 합격자발표 → 자격증교부

1. 원서접수 : 자신의 실력에 맞는 등급을 신청하고 수검자 유의사항과 시험장소, 시간을 정확히 파악한다. 각 등급의 수험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각 등급에 응시할 수도 있으나 시간의 중복이나 시험장소의 상이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검자의 책임으로 한다.
2. 준비물 : 수험표, 신분증(학생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외에 다음의 기재물
 - 가. 속기용지(연습용) 1묶음 : 시작시간 전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습이 필요하므로 충분한 양의 연습용지를 준비하여 미리 준비해 간 신문사설이나 보고, 쓸 거리 또는 응시자끼리 돌아가면서 낭독하여 손을 풀어 준다. 녹음기의 휴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 나. 속기용지(시험용) 1묶음 : 시험장에서 나누어 주는 용지는 양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그 밑에 받쳐쓰거나 분량이 초과하는 때를 대비해서 약 80매~100매를 준비한다.
 - 다. 연필과 흑·청색 볼펜 : 연필은 연습용과 시험용으로 분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하는데 너무 길어 부러지기 쉽거나 너무 짧아 쉽게 무디어지지 않게 평소부터 훈련하고 볼펜은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로 1자루를 더 준비한다.

라. 원고지 : 시험장에서 나누어 주므로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다.

<준비는 긴장을 덜어주고 좋은 결과를 낳는다.>

3. 시험

가. 시험시작 시간이 대개 오전 9시부터이고 늦어도 시작 시간 30분 전에는 시험장에 입실하여야 하므로 1시간 전에는 도착하여야 지정된 좌석을 확인하고 손을 풀 여유가 있다.

나.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 1) 감독관은 좌석의 정돈과 수험표 및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쳐 시험용지(갱지 20매 정도)와 번(역)문용 답안지(원고지)를 배부하고 수검자주의사항을 알려준다.

2) 수검자는 답안지 우측 「자격종목 및 등급란」에 응시할 급수가 1급이면 「1급」이라고 기재하고 「과목」에는 「연설체」 혹은 「논설체」라고 기재하며 수검번호와 성명을 기재한다. 또한 시험용지에도 자격종목과 등급, 과목, 수검번호, 성명을 기재한다.

종이를 넘길 때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용지 상단에 있는 첩편을 제거하고 준비된 시험용 시험지 위에 같이 첩해 놓은 다음 용지 하단에 페이지를 매겨놓는다.

필기구의 점검을 철저히 하고 중간에 사용한 용지가 들어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3) 녹음 상태의 점검을 위해서 과년도 문제나 연습문제를 2분~5분간 들려준다. 이 때 녹음 상태가 나쁘거나 불확실하면 감독관에게 의사표시를 정확히 하여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 시험에 들어가서 :

1) 1차시험은 대개 연설체이다.

※속기 시작 : 「지금부터 국가기술자격검정 국어(한글)속기 몇 급 연설체 문제를 낭독하겠습니다. 준비하세요~」라는 말에 이어 종을 「땡!」 치고는 문제가 5분간 낭독된다.

2) 여기서 주의할 것은

- ① 자칫 하면 첫마디를 놓칠 염려가 있으므로 「지금부터~ 준비~」라는 말부터 속기해 들어 가는 것이 좋다.
- ② 또한 5분이 되기 전에 낭독자가 숨을 쉬거나 침을 삼키기 위하여 잠시 멈출 수도 있는데 성급하게 문제낭독이 끝난 줄 알고 연필을 놓아 버리는 사례도 많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③ 중간에 연필이 부러지거나 볼펜이 나오지 않으면 침착하게 대응하여 더 큰 실수로 이어지지 않게 한다.
- ④ 최악의 경우 자포자기의 심리가 생길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문제낭독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앉아 있거나 받아쓰기를 계속하는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위기를 의연하게 넘길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낭독이 끝나면 감독관은 몇 시 몇 분부터 몇 시 몇 분까지 번문할 시간을 알려주고 무정한 시간은 흘러가기 시작한다.

- 3) 번문(답안작성)시작 : 1급연설체는 총 1600자로서 1분에 약 26.7자의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고 원고지 매수로는 약 11매로서 1매당 소요시간은 5분 45초정도의 여유밖에 없다. 그러므로 시간을 금쪽같이 아껴 사용해야 약간의 여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왼손은 번문할 곳을 가리키는 구실과 종이 넘기는 구실을 맡고 오른손은 오로지 답안 작성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구실분담을 한다. 여기서 5분정도의 시간차가 날 수 있다.

띄어쓰기는 채점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띄어쓰기를 무시하면 정정할 때 곤란하거나 결정적으로는 원고매수에 미달하여 실격판정을 받아 채점에서 아예 제외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동방속기 기초편 부록」 참조)

4. 번문의 요령

가. 번문의 요령은 말이 제대로 되게 하는 것이다. 말이 되지 않는 문장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러므로 자신이 읽어서 말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나. 속기를 함에 있어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귀로 유심히 들었을 것이다. 둘째, 그것을 문자화 하느라고 머리 속으로 여러 가지의 생각을 할 것이다. 셋째, 손끝과 눈으로 자기문자를 보았을 것인데 이 과정에서 특별히 이상한 말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평소

자신이 연습할 때 골탕을 먹었던 말이 있었는가 없었던가, 언젠가 여러 번 틀려서 연습했던 문자는 없었나, 특별히 자신있는 말은 있었나, 실수한 표기는 있었나, 낭독 내용은 긍정적인 내용인가 부정적인 내용인가, 등등 기억을 최대한 살려서 번문에 임해야 한다.

- 다. 속기시험에서 한 자가 한 문제임을 명심하고 번문이 나오지 않는 부분은 속기문자 아래 줄을 그어 표시를 하고 과감히 지나간다. 이 때 원고지는 충분히 비워놓는다. 머뭇거리는 시간이 5초를 넘어서는 안 되며, 일단 끝까지 미흡한 상태로 번문을 마치고 나면 더욱 내용파악이 잘 될 것이다.
- 라. 다시 재검토에 들어가서 이 빈 칸에 무슨 말이 들어가면 될 것인가, 알맞은 말은 무엇일 까를 생각하면서 빈 칸을 채워간다. 이 때도 번문이 나오지 않으면 과감히 지나간다. 머뭇거리는 시간이 10초를 넘어서 안 된다.
- 마. 다시 말하지만 한 자가 한 문제임을 명심하여 「에」 한 자라도 확실하면 기재해 놓아야 한다. 「습니다」는 틀림없는데... 싶으면 「습니다」만이라도 기재해 놓아야 한다.
- 바. 마지막으로 속기원문을 옆으로 치우고 번문내용만을 음독하며 말이 어색한 부분은 없는가를 살펴보면 많은 오자를 발견할 수 있다.
- 사. 전체적으로 말하면 속기문자에만 의존하지 말고 말이 되는가 안 되는가만 살펴보면 된다는 것이다.
- 아. 배우는 사람에게는 10%의 오자를 허용하는 관대함을 적용하나 실무에서의 오자 한 자는 속기사의 인격까지 의심받게 하는 수가 많으므로 살펴보고 또 살펴보는 습관을 가져야 좋은 속기사가 될 수 있다. 그것도 내가 처음에 들었을 때, 받아 쓸 때 이상한 말이 없었고 이해도 잘 되었는데...라는 전제하에서 말이다.
- 이제 시간이 다 되었다. 원고지와 속기원문에 기재할 것을 다 해놓았는지 확인하고 감독관이 답안지를 걷으러 올 때까지 오자 한 자라도 줄이려고 하는 진지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 자. 오늘따라 번문이 빨리 끝났다고 좋아하지 마라. 자세히 살펴보면 원문 한장을 비워놓고 번문한 예가 허다하니까.

5. 원고지를 메워 나가는 요령

- 가. 원고지는 한 칸에 한 자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숫자나 영문 소문자인 경우 1~2자,

- 는 한칸에, 3~4자는 두 칸에 쓸 수 있고 문장부호도 한 칸에 한 자를 쓴다.
- 나. 원고지의 첫 칸을 비워두는 것은 문단의 시작에서만 가능하다. 마지막 칸에서 띄어써야 할 공간이 없다고 첫 칸을 비우는 것은 올바른 원고쓰기가 아니다. 이 때는 오른쪽 여백이 띄어쓴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나 체크표시(교정부호 띄어쓰기임)를 하면 된다.
- 다. 번문을 하다가 건너뛴 때는 일일이 자수를 세어서 비워놓지 말고 충분한 칸을 비워둔다.
- 라. 한 문장이 종결된 때는 다음 칸이 많이 남아도 줄을 바꾼다. 그러면 검토할 때 공간이 많아서 정정하기가 수월하고 충분한 원고매수의 확보로 사전에 채점에서 제외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마. 번문은 한글로 표기한 것은 다 맞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숫자를 한글로 표기해도 맞고 영어를 한글로 표기해도 맞다. 그러나 영문약자는 영문대문자로 숫자는 숫자표기법대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수검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끝이 났다.

6. 채점(참고「동방속기 기초편 부록」)

- 여기서는 「동방속기 기초편 부록」에서 다루고 있는 것 사항 중 골자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 가. 우선 채점위원장(속기사)은 출제문제 원문과 녹음을 대조하여 원문과 낭독간의 상이점이 없는지, 발음이 애매하여 표기에 혼란을 일으킨 것은 없는지를 확인한다.
- 나. 사전에 실격처리할 것은 없는지를 분간하여 실격처리를 한다(참고 속기검정시험 채점 기준).
- 다. 채점규정 적용이 곤란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전체의 의견을 묻거나 채점위원장이 결정한다.
- 라. 맞춤법이 틀리거나 잘못된 표기, 객관적으로 알아보기 힘든 표기, 즉 의사의 전달수단인 문자를 활자화하는 데 오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문자는 틀린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가능한 한은 남이 알아 볼 수 있는 한도내에서 빠른 속도로 써야 한다. 특히 「거」와 「지」, 「ㅁ」과 「ㅇ」, 「ㄹ」과 「ㄷ」의 구별이 안 되는 글씨 습관을 가진 사람은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 마. 띄어쓰기와 문장부호는 채점하지 않는다.
- 바. 채점도중에도 일정량의 오자 한도를 넘으면 실격으로 판정한다.
- 사. 오자나 탈자는 1점씩, 첨자는 1/3점씩 실점처리하고 채점후 초검-재검의 절차를 거친다.

아. 오자와 탈자는 /로 표시하고 첨자는 △로 표시하며 실점을 계산할 때는 /나 △에 표시(×, △)를 하여 정확을 기하고 채점결과는 표지에 기록한다. 또 잘못 채점된 경우는 ×, ≡를 하여 실점처리하지 않는다.

자. 두 과목 중 먼저 채점한 과목이 기준에 미달하면 나머지 과목은 채점하지 않는다.

동방속기(응용편)

1998년 1월 1일 재판 인쇄

1998년 1월 10일 재판 발행

저 자 ... 동방속기학회

발행인 ... 李 相 源

정가 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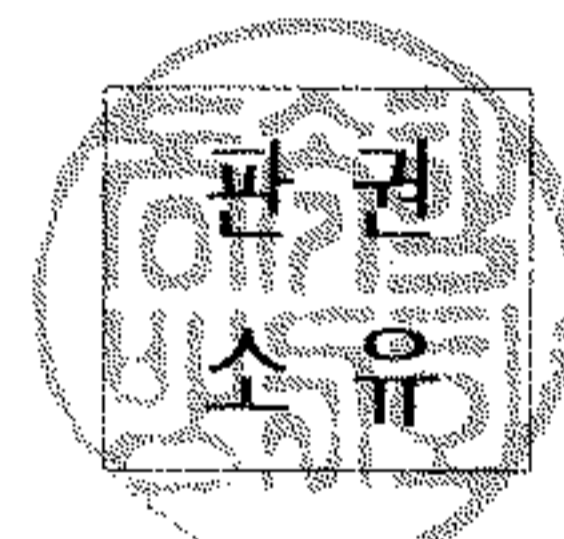
발 행 ... 크라운출판사
기술서적 사업부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73-12

☎ (02) 745-0311~3

팩 스 ... (02) 741-3231

등 록 ... 제1-422호



첨단 기술서적 전문출판
크라운출판사
기술서적 사업부

N-10

Copyright © 1998 CROWN Publishing Co.

동방속기

응용편

Since 1948 이동근

■ 「동방속기」의 올바른 공부법

1. 손끝으로 느낄 수 있는 효과적인 연습을 꾸준히 합니다.
2. 기본 문자 쓰는 연습을 충분히 합니다.
3. 이용할 일반 상식을 넓힙니다.
4. 글 읽는 것을 생활화하여 쓰기와 읽기에 능숙해지도록 합니다.
5. 기본원칙과 상식을 기준으로 응용력을 기르도록 합니다.



ISBN 89-406-6675-5

CROWN © N-10